

鵝洲申氏 先世事實

五首

申祐爲神席漸  
保勝攝護軍者

至正四年四月廿日



鵝洲申氏大宗會 (아주신씨대종회)  
아주신씨 시조바로세우기 협의회

# 목 차

1.朝鮮 만성보속의 鵝洲申氏

2.아주신씨(鵝洲申氏) 과거(科擧) 자료

3.아주신씨(鵝洲申氏) 인물(人物)

4.아주신씨(鵝洲申氏) 家牒. 族譜 목록

5.아주신씨(鵝洲申氏) 문집 해제(부록)

# 목 록

## 鵝洲申氏 先世事實

朝鮮 만성보속의 鵝洲申氏-----	1
아주신씨의 유래(鵝洲申氏) -----	9

## 아주신씨(鵝洲申氏) 시조(始祖) 영미(英美)

국조문과성보(國朝文科姓譜) -----	12
동국세보(東國世譜) -----	33
동방만성보(東方萬姓譜) -----	41
동성고략(東姓考略) -----	44
동영문헌잡영록(東英文獻簪纓錄) -----	49
동헌성보(東獻姓譜) -----	54
동화성보(東華姓譜)-----	58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	67
만성대보(萬姓大譜) -----	70
만성보(萬姓譜) -----	71
백씨보(百氏譜) -----	75
백가보(百家譜) -----	79
보휘(譜彙) -----	83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 -----	87
성보(姓譜) -----	93
성호보휘(姓號譜彙) -----	97

세가보략(世家譜略) -----	102
씨족원류(氏族源流) -----	105
영남문헌록(嶺南文獻錄) -----	110
전고대방(典故大方) -----	115
제가보략(諸家譜略) -----	118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	121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124

### 아주신씨(鵝洲申氏) 명호(名號)

과성보(科姓譜) -----	132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135
기년편고(紀年便攷) -----	139
당호비고만성씨보(堂號備攷萬姓氏譜) -----	143
당호비고만성씨보목록(堂號備攷萬姓氏譜目錄) -----	147
동국과보(東國科譜) -----	150
동국군신문헌록(東國君臣文獻錄) -----	152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	155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	159
동국문헌(東國文獻) -----	165
동국벌열보(東國閥閱譜) -----	169
동국선현전(東國先賢傳) -----	174
동국성보(東國姓譜) -----	182
동국씨족고(東國氏族攷) -----	184
동방호보(東方號譜) -----	188

만가보(萬家譜) -----	190
만성보초(萬姓譜抄) -----	194
무보(武譜) -----	196
문보(文譜) -----	202
문헌총보(文獻總補) -----	209
상산지(商山誌) -----	215
성휘명세고(姓彙名世攷) -----	226
세덕성보(世德姓譜) -----	230
양조문음진신신보(兩朝文蔭摺紳紳譜) -----	232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	234
오보(午譜) -----	253
의성군지(義城郡誌) -----	257
전고문헌(典故文獻) -----	272
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 -----	274
조선명가색인(朝鮮名家索引) -----	280
조선잠영부록명현성보(朝鮮簪纓附錄名賢姓譜) -----	295
진신육세보(摺紳六世譜) -----	297
진신팔세보(摺紳八世譜) -----	299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302
역주 동국 신속삼강행실도-----	312

**아주신씨(鵝洲申氏) 시조(始祖) 익휴(益休)**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	317
청구씨보(靑丘氏譜) -----	323

한국명문세보(韓國名門世譜) -----	328
화해사전(華海師全) -----	330

### 현대책자(現代冊子)의 鵝洲申氏偏 335

현대책자(現代冊子)의 鵝洲申氏(아주신씨) -----	335
한국성씨대관-----	338
한국사 대사전-----	339
한국인명대사전-----	340
한국계행보(韓國系行譜) -----	350
한국만성족보(韓國萬姓族譜) -----	355
한국성씨총람(韓國姓氏總覽) -----	361
한국씨족항열고(韓國氏族行列考) -----	366
韓國人の族譜-----	368
한토해석 만성보(萬姓譜) -----	372
가보(家譜) -----	374

### 아주(鵝洲) 지명(地名)

(지리지)의 변천-----	378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377
1400년대 전반기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79
1400년대 후반기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380
1500년대 후반 이후 단행본 고을 읍지의 편찬-----	381
1700년대 이후 전국지지 및 도별지지의 편찬-----	382
고려시대 거제의 역사-----	384

왜, 고려 때 거제현민들은 가조현으로 갔을까? 398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 島嶼-----	404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 場市-----	406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	408
호서읍지(湖西邑誌) -----	420
내외관안(內外官案 1책) - (官案) -----	421
고사신서(故事新書) - 八道程路-----	422
역대총요(歷代總要) - (本國地界亥坐己向) -----	423
신증동국여지승람(增東國輿地勝覽) -----	425
세종실록 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거제현-----	432
고려사(高麗史) -----	433
동전고(東典考) -----	435
대동지지(大東地志) -----	437
청구요람(靑邱要覽) -----	445
청구도(靑邱圖) -----	448
광역도(廣輿圖) -----	451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	453
동여도(東輿圖) -----	454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455
조상의 발자취 거제도를 찾아서-----	456

# 朝鮮 만성보속의 鵝洲申氏

족보는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나타낸 한 종족의 계보(系譜). 보첩(譜牒)·세보(世譜)·세계(世系)·가승(家乘)·가첩(家牒)·가보(家譜)·성보(姓譜) 라고도 한다.

국가의 사승(史乘)과같은 것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 며, 후손으로 하여금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화목의 風을 이루게 하는 데 그 目的을 둔다.

또한, 족보는 존비(尊卑)·행렬(行列)·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래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육조(六朝)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譜學)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발간 족보는 "1401 년 文化柳씨 건문보(미발견)"이다. 두번째는 1423 년 "文化柳씨 영락보(황해도구월산문화류씨재실存)"이다. 세번째는 1454 년 "南陽洪씨 경태보(미발견)"이다.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초의 족보는 1476 년(성종 7)간행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보《성화보(成化譜)》로서 《문화유보》보다 80 여년앞서고 있다.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氏族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族屬譜牒)을 관장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거가(巨家) 귀족(貴族)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가승)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족보를 가첩이라 함은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취 초록(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키며, 가승이라 함은 계도(系圖) 외에 선조의 전설·사적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족보는 이른바 종보(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분파된 일단(一團)의 세계(世系)에 대해서는 이를 지보(支譜)·파보(派譜)라 부른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 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 김씨파보(延安金氏派譜)·경주이씨 좌랑 공파보(慶州李氏 佐郎公派譜)·순창설씨함경파세보(淳昌薛氏咸鏡派世譜)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中始祖名) 또는 동족부락 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 에서는족보와 差無다.



따라서 하나의 성씨 족보이면서 여러 종류의 족보 성격을 띤 것이 많다. 이에 대해 국내의 족보 전반에 걸쳐 망라한 계보서가 있다. 즉,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 대동보(萬成 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다.

국가·사회에서 현달(顯達) 귀현(貴顯)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로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 등도 있으며, 《대방세가 언 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 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자기 조상 중 특히 충효절의(忠孝節義)의 사적(事蹟) 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이상은 모두 혈통 표시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습속의 연장으로 환관(宦官)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혈족적 가계의 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등도 있다.

족보의 기록 내용은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 한다. 우선 권두에 족보 일반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서문(序文)이 있다. 이 글은 대개 일족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시조나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시조의 분묘도(墳墓圖)와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지도등을 나타낸 도표가 들어가며, 그 밑에 범례가 있다. 끝으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표가 기재된다. 이것은 우선 시조에서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며, 같은 항렬은 횡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기재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그 이름·호(號)·시호(諡號)·생몰 연월일·관직·봉호(封號)·훈업(勳業)·덕행(德行)·충효(忠孝)·문장·저술(著述) 등을 기록 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의 구별 등을 명백하게 한다.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는 본관별로 성씨의 가계와 성씨의 시조 또는 중시조를 편리하게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이전에는 족보가 귀하여 다른 집안의 족보를 구해 보기 어려웠으므로 이 런 책들을 만들게 되었다. 수록범위는 명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다.

만성대동보는 김노정(金魯定)의 만성보(萬姓譜)와 명칭이 유사하나 저술자는 물론 내용이 다른 책이다.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도 청구씨보(靑邱氏譜)를 참고하기도 하였으나 보첩의 내용과는 다르게 아주신씨 시조를 영미(英美)로 한 것이다. 청구씨보는 신익휴(申益休)가 시조 로 표시 되었는데도 만성대동보에서는 청구씨보의 자료 내용을 검증과정에서 수정을 한 것이었다. 청구씨보는 1925 년도에 경남 밀양(慶南密陽)에서 송윤식(宋免湯) 박해철(朴海激)에 의해 발간되었던 것이다.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에 아주신씨 상계(上系)관계의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계보에서 **영미(英美)**가 **始祖 (시조표시)**로 표시되어있고 관직 이 호장(戶長)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조의 아들이 진승(晉升)으 로 표기되어 있고 손자는 득창 (得昌) 그리고 증손자는 윤훈(允濬)로 표기하였음을 보는 것이다.

**전고대방(典故大方)**은 단군(檀君)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역대 인물에 대 한 전거(典據)를 밝힌 일종의 인명사전(人名辭典)이다.

강효석(姜戰銳)이 편찬하여 1924 년 경성(京城) 한양서원(漢陽 書院)에서 발간했던 것이 다.

여기에 명사(名士)의 인명록(人名 錄)은물론 성씨(姓氏) , 관향(貫鄉) , 계보(系譜)에 관한 기록등 이 있다. 여기에도 신씨편(申氏編)에서 **아주신씨 시조는 신영미 (申英美)이고 권지호장(權知 戶長)이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전고대방도 증보문헌비고나 씨족원류처럼 각 성씨의 문중에서 자료도 많이 참고하였다.

**씨족원류(氏族源流)**는 조선중기 때 안음현감(安陰蘇監)을 지낸 풍양조씨(豐壤趙氏)사람 조종운이가 편저(編著)한 성씨관계 책이다. 이책은 한국인의 각 성씨의 시조와 그 성씨의 상계 계보를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그는 1683 년卒하였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틈틈이 각 성씨의 계보 관계를 연구하고 자료 들을 수입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 그가 이 책을낼 때는 각 성씨의 문중에서 족보편찬이 미미했을 때였다. 문중의 족보보다 그 종중의 사람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첩(家牒)이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듣고 복제하여 엮은 것이 그의 씨족원류였다.

그가 이 책을 편저하게 된 동기는 그의 시조에 관한 기록과 문중의 세대(世代)가 실전 (失傳)된것을 보고 찾기로 결심한데 있었다. 또한 그가 조상계보에 대한 관심과 영향을 받은것은 창강 조속(槍江 趙涑)에게 있었다.

창강 조속은 16 대 인조때 유명한 화가(書家)이며 당시 보학(譜學)의 대가(大家)로 알려졌 던 사람이다. 이 창강 조속은 조종운의 숙부(故父)였다. 씨족원류의 내용을 보면 540 여 성씨문중 의 계대 (系代)가 수록되었음을 보는것이다. 방대한 많은 성씨의 계보(系譜)인 것이고 각 성씨의 시조를 비롯해서 대개 6 세(六世)정도까지 기록하였다.

이 씨족원류가 세상에 선보이고 나서 그간 자기네 시조를 비롯 하여 상계(上系)의 세대 (世代) 를실전(失傳)하였거나 모르고 있 던 성씨의 문중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찾아 보는 일이 많았 다. 이 씨족원류에는 아주신씨의 상계기록도 권지호장(權知戶長) 신영미 (申英美)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한국의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말기까지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분류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 45년) 홍봉한(洪鳳漢)등이 왕의 명에 의해 여러 공사(公私)의 실기(實記)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류를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마단림(馬端臨)이 낸 문헌통고(文獻通考)의 내용을 본떠서 상위(象緯), 여지(輿地), 여 K 禮, 악(樂), 병(兵), 형(刑) 전부(田賦) 재용(財用), 호구(戶口), 시적(市糴), 선거(選舉), 학교(學校), 직관(職官) 등의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을 편찬한 것이다.

처음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1782년(정조 6년)에 다시 증보를하여 증보문헌비고라 이름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이만운(李萬運)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그는 9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결함을 보충 편찬하였는데 전에 없던 물이(物異) 궁실(宮室),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시호(諡號), 예문(禮文) 등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방대하게 편찬을 보였지만 막상 출판은 못했다. 1백여년을 지난 고종 때 와서야 출간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특징을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성씨 시조에 관한 기록들이다. 기록에서 그간 많은 성씨의 문중이 족보를 만들면서 참고하였다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나라에서 주관하여 만든 책이고 하여 일종의 역사서이기도 하다.

1957년도에 고전간행위(古典刊行委)에서 증보문헌비고영인(增補文獻備考影印)을 간행(刊行)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에 신석호박사(申奭鎬博士)가 서문(序文)을 찬(撰)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아주신씨의 상계기록도 권지호장(權知戶長) 신영미(申英美)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는 여러 姓의 계보를 종합하여 정리한 책이다. 원래 宋鎭燮의 증조부인 西岡公(이름 미상)이 직업을 시작하여 3대에 걸쳐 <<大東抄譜>>를 작성하였는데, 朴海徹이 송진섭의 출간의뢰를 받고 증보하여 만든 것이다. 박해철의 향리인 밀양 인사들이 후원하였고 밀양의 陟瞻臺 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제 1책의 앞에 李明翔과 金世洛이 쓴 序와 李庭珪와 박해철이 쓴 跋이 있고, 그 뒤에 <범례>가 있다. 같은 성별로 모으고 본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면에 22개의 횡선을 그어 세대 표시를 하였고, 인물들에 대하여는 간단한 관직경력과 과거합격 여부만을 기록하고 그 외에는 이름만을 적었다. 제 1~4책에 李, 5~6책에 金, 7~8책에 朴, 9책에 鄭, 10책에 尹·崔, 11책에 柳, 12책에 洪·申, 13책에 趙, 14책에 韓·吳·姜·沈, 15책에 安·許·張·閔·任·南, 16책에 徐·具·宋, 17책에 兪·黃·林·

呂·梁·禹·羅·孫氏 등이 그리고 18책에서 20책까지는 소수의 성들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은 權文海(1534~1591)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서적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뽑아 韻의 체재에 따라 편찬한 백과사전이다.

본 도서는 權文海가 완성한 후 金誠一이 1本을 선조에게 올려 출판할 예정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간행되지 못하였고, 후에 저자의 7대손인 權進洛이 1836년(憲宗 2)에 20권 20책으로 간행하였다.

책의 체제는 1798년(정조 22)에 丁範祖가 쓴 서문, 1655년(효종 6)에 金應祖가 쓴 발문, 1670년(현종 11)에 洪汝河가 지은 海東雜錄跋文, 목차 및 類目 11개, 纂輯書籍目錄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단군 이래 저자 생존 시기까지 수천 년 간의 사실을 각종 서적에서 망라하여 地理, 國號, 姓氏, 人名, 孝子, 烈女, 守令, 仙名, 木名, 花名, 禽名 등의 유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元나라의 陰時夫가 지은 『韻府群玉』의 체재를 본떠 平聲 30韻, 上聲 29韻, 去聲 30韻, 入聲 17韻 등 모두 106개 韻字의 차례로 배열하였다. 각 항목 아래에 주요 표제어를 뽑아 쓰고 원문을 수록하였으며 끝에 인용한 문헌을 밝혀 놓았다. 본 도서에 인용한 서적은 중국서 15종과 우리나라 서적 175종으로 각 서적의 저자까지 수록하였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는 世傳分自平山高麗版圖板書申允儒之後(세전분자평산고려판도판서신윤유지후)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근거로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화해사전(華海師全)**은 여말(麗末)의 유자(儒者)인 불훤재(不諼齋) 신현(申賢)(1298-1377)의 언행(言行)을 수록한 7권 4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조선초(朝鮮初)에 범세동(范世東)과 원천석(元天錫)이 공편(共編)한 것이다.

목차(目次)는 권1 ; 본조주대(本朝奏對), 원주문답(元主問答), 권2 ; 명조주대 간재홀서주대(明朝奏對 簡齋笏書奏對), 권3 ; 비모, 출처(備耗, 出處), 권4 ; 제자문답, 언행, 가범, 발미(諸子問答, 言行, 家範, 跋尾), 권5 ; 제자십유, 세헌(諸子拾遺, 世獻), 권6 ; 계술, 운곡거의(繼述, 耘谷居義), 권7 ; 동방연원, 부려계사(東方淵源, 附麗季事)의 순이나 실제로는 운곡거의(耘谷居義)가 제자십유(諸子拾遺) 다음에 실린데다가 권5 세헌(世獻)과 권6 계술(繼述)

대신에 사전계사, 가학, 동양세헌(師全繼辭, 家學, 東陽世獻)이 차례로 실려있어 권5·6의 일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필사(筆寫)와 제본시(製本時)의 잘못으로 보인다.

내용은 주로 신현(申賢)을 중심으로 그 후손(後孫), 문인(門人)들의 언행, 출처(言行, 出處)에 관한 기록인데 당시의 유학(儒學)관계 기록이나 평산 신씨 일문(平山 申氏 一門)에 관계되는 기록도 산견된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신현에 대해서도 아무리 격변기의 와중이었다 해도 『고려사』나 그 밖의 관련 저술에서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본 저작의 진위 여부에 많은 의심을 품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후인의 두찬(杜撰)이거나 위서(僞書)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정교하고 세심한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책의 편제를 두고 볼 때, '통(統)'에 대한 관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의 위작(僞作)일 가능성이 높다.**

본서의 편자나 작성시기 등을 아울러 국내 유명 사학자(李丙燾, 金庠基, 申奭鎬, 梁柱東, 任昌淳) 검토해 볼 때 내용상 무리가 있어 그 **신빙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자료라 하겠다.**

**한국성씨대관(韓國姓氏大觀)** 1971 년도에 그는 창조사(創造社) 최덕교(崔德教) 편집 출판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의 성씨관계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성씨의 문중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 저서의 참고문헌(參考文獻)을 보면 대단한 자료를 확보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느 성씨관계의 책보다 방대하고 신뢰가 가는 것을 느낀다.

참고로 삼았다는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성씨대관(韓國姓氏大觀)에서도 「**아주신씨(鵝洲申氏)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때 권지호장(權知戶長) 신영미(申英美)이다.**

**한국사대사전(韓國史大事典)**은 1988 년 9 월 개정증보판이 간행되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 중심의 정치·경제·문화·사회·예술·인물·지명·왕조·서적·민속·고고·설화는 물론, 한국사와 관련있는 중국의 역대왕조, 일본, 몽고, 거란, 여진 등의 관련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했다.

최신의 시사 사항은 가급적 피했으나 중요한 것은 정리했다. 지명은 <삼국사기>에서 <동국 여지승람>까지 각 지리지에 나타나는 고지명은 물론 한국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그 서술은 역사적인 연혁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사전의 끝부분에는 국사와 세계사연표를 수록했다.

사학자(史學者) 유홍열박사(柳洪烈博士)가 감수(監修)한 교육출판공사(教育出版公社) 발행의 한국사대사전(韓國史大辭典)이 있다.

여기에 주요성씨의 시조일람표가 있는데 신씨(申氏)편에는 평산(平山), 고령(高靈), 이천(利川), 은풍(殷豐), 천안(天安), 아주(鵝洲), 신천(信川), 영해(學海), 곡성(谷城), 조종(朝宗), 삭녕(朔寧), 창주(昌州),<sup>12</sup> 곳의본관표기를 하였다. 그리고 각 시조의 이름도 표기해 놓았다. **아주는 권지 호장(權知戶長)의 영미(英美)가 시조라고 표기하였고 은풍만이 시조가 본래 평산인(平山人)이라 표기하였다.**

**韓國人の 族譜**는 도서출판 일신각(日新閣)에서 1977년 발행하였으며, <한국인의족보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였고, 이 책의 내용에서 아주신씨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시조영미(始祖英美)는 고려말엽(년대미상)(高麗末葉(年代未詳) 거제군(巨濟郡) 소속(巨濟郡) 아주현(鵝洲縣)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이 되었으므로 그 후손(後孫)들이 아주(鵝洲)를 본관(本貫)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신씨(鵝洲申氏)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옛날 가첩(家牒)은 물론 영조(英祖)때에 편찬한 문헌비고(文獻備考)와 그 밖의 문헌(文獻)에도 신영미(申英美)가 아주신씨(鵝洲申氏)의 시조(始祖)로 명기(明記)되어 있으나 근세(近世)에 와서 신영미(申英美) 위에 가공적(申英美) 인물(人物)인 신익휴(申益休)를 첨가(申益休)하여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 장절공 신승겸(始祖 壯節公 申崇謙)과 관계를 붙여 신승겸(申崇謙)을 시조(始祖), 신익휴(申益休)를 중시조(中始祖)로 한족보(族譜)가 나타났다.그러나 이것은 1817년(純祖 17)에 공주(公州) 사람 김노정(金魯定)이 위조(僞造)한 <만성보萬姓譜>에 의한 것으로 당시 김노정(金魯定)을 방문(訪問) 조사(調査)한 도와 신정주(陶窩申鼎周)의 <서호기행(西湖紀行)>에 의하여 그 그릇됨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승겸(崇謙)을 시조(始祖)로 하고 익휴(益休)를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그 계대(系代)를 살피는 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다.

아주신씨 시조가 권지호장(權知戶長) 신영미(申英美)로 기록된 서책은 다음과 같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전고대방(典故大方), 씨족원류(氏族源流), 세가보략(世家譜略), 성호보휘(姓號譜彙), 보휘(譜彙), 백씨보(百氏譜), 백가보(百家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동화성보(東華姓譜), 동헌성보(東獻姓譜), 동성고략(東姓考略), 동국세보(東國世譜), 과보(科譜).....

아주신씨 시조가 신익휴(申益休) 또는 평산신씨에서 분적 기록하는 서책은 청구씨보(靑

丘氏譜),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화해사전(華海師全)등이 있다.

전고대방, 문헌비고, 성씨총감 등 국가에서 편찬한 모든 문서와 의성의 고문서에도 아주신씨의 시조는 아주현의 권지호장 신영미라고 되어 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계를 가지고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또 우리 아주신씨를 평산신씨의 분파로 보는 화해사전이란 책이 위서라는 사실을 국사편찬위원회는 물론 사학계에서도 널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종회의 몇몇 사람들이 화해사전의 내용에 따라 우리 아주신씨를 평산신씨의 분파로 고집하고 있어 자손된 도리로서 부끄럽고 이 사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조선 만성보 및 현대 백과사전 모두를 전수 조사하였다.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주신씨에서는 옳지 않은 상계오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특히 現대종회에서 모든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신익휴(申益休)를 시조라고 하며 신영미를 시조로하는 종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에 개탄스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사학자(史學者), 보학자(譜學者), 아주신씨 先代(선대) 학자(學者)분 들이 말하는 자료를 믿는것이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익휴(申益休)가 아주신씨 시조라고 평산신씨 분적종이라 고집부리는 일족들이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고 戶長公 신영미(申英美)가 시조라는 측에 제시(提示)하여 보았으면 한다.

2022 년 7 월

아주신씨대종회 시조바로세우기협의회회장 기옥

아주신씨 읍파 종친회장 재형(화곡공파)      아주신씨 귀파 종친회장 방웅(응암공파)

아주신씨 재경 종친회장 치호(응암공파)

정리(유식, 인식)

## 아주신씨의 유래(鵝洲申氏)

아주신씨(鵝洲申氏)의 발상지(發祥地)는 한반도(韓半島)의 남단(南端)에 위치한 큰 섬 거제도(巨濟島)의 한 지역이다. 이 섬의 행정명칭(行政名稱)은 거제군(巨濟郡)이었다. 신라(新羅) 때부터 군(郡)으로 불려왔던 큰 고을이었고 여기에 아주현(鵝洲縣), 송변현(松邊縣), 명진현(溟珍縣)이라는 3개의 지역단위(地域單位)가 있었다. 이 지역단위에서 아주현에는 고려조(高麗朝)에 와서 성씨제도(姓氏制度)가 등장하자 토호세력(土豪勢力)으로서 맨처음 성을 갖는 수장(首長)이 있었다. 그 수장은 신(申)의 성을 취(取)하였는바 후일 신영미(申英美)로 알려진 바로 아주신씨의 시조(始祖)였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중앙집권(中央集權)이 여의치 않아 산재(散在)한 각 지역의 호족세력에 게 현(縣)이나 군(郡)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자를 두었다. 이 책임자에게는 호장(戶長)이라는 관직(官職)을 제수하였다. 이런 관직을 향직(鄉職)이라 하였는바 바로 지방관리(地方官吏) 즉 향리(鄉吏)였다. 이 향리의 사람들을 이족(吏族)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중앙에서 관직을 갖고 있는 벼슬아치들은 사족(士族)으로 불렸다. 이족의 자식들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벼슬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족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호장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관리보다 비록 지위는 아래이나 그 영향력은 컸다. 중앙관리(中央官吏)가 지역통치를 하는데 호장에게 문의하고 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장의 자식이 있으면 나라에서는 동정(同正)이란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런 벼슬을 음직(蔭職)이라 하는데 바로 부(父)나 조(祖)의 위상과 신분에 의해 벼슬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중국의 고대국가 한(漢)나라가 실시했던 군현제(郡縣制)의 통치방법(統治方法)을 도입(導入)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중앙집권화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중앙집권이란 것은 왕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권을 말하는 것이다. 군(郡)이나 현(縣)에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왕 대신에 직접 다스리게 하는 위임행정을 펴는 것이 바로 군현제였던 것이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이 컸다. 이 토호세력이 갖는 성을 두고 토착민의 성이라 하여 토성(土姓)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태조 왕건은 자신도 한때 성이 없었던 신분이었음에 고려 이전에 성을 가진 사람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사족 세력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성이 바로 신분표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고려 건국 이후 공신(功臣)에게 사성(賜姓)을 하는 일이 많았다. 사성은 임금이 직접 내려준 성을 말하는 것이다.

왕건의 사성이 많았음은 우리나라 역사서(歷史書)에도 기록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가 받은 게 사성이다. 평산신씨의 시조는 성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전라도 곡성(谷城)사람으로 능산(能山) 또는 삼능산(三能山)으로 불렸다. 이름만 갖고 있었



던 것이다. 그는 왕건의 건국을 크게 도운 삼공신(三功臣)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을 하사(下賜)받기만한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받았던 것이다. 평산신씨의 시조가 신숭겸(申崇謙)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안다. 평산신씨의 관향(貫鄕)이 된 곳은 황해도 평산인데 신숭겸이가 나라에서 사패지(賜牌地)를 받은 곳이 바로 평산(平山)이었던 것이다. 본관제도가 나타나자 후손들이 그곳을 본관 즉 관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주신씨의 본관은 그들 평산신씨의 본관 내력과는 다르다. 오로지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성씨 등장이 있자 그 세력의 수장(首長)이 먼저 성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후 본관제도가 나타나자 후손들이 토호족세력의 지역을 본관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려에서 권지호장(權知戶長)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사람이었다. 패기가 있는 무인(武人)들의 호족세력으로 주(州), 군(郡), 현(縣)에 거주하며 토지(土地)를 가진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나라에 바치는 물자와 세금을 보내고 하였다. 이로 인해서 지역에 호장이란 게 있었고 본관을 갖는 바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향리(鄕吏)라는 관직(官職)이 시작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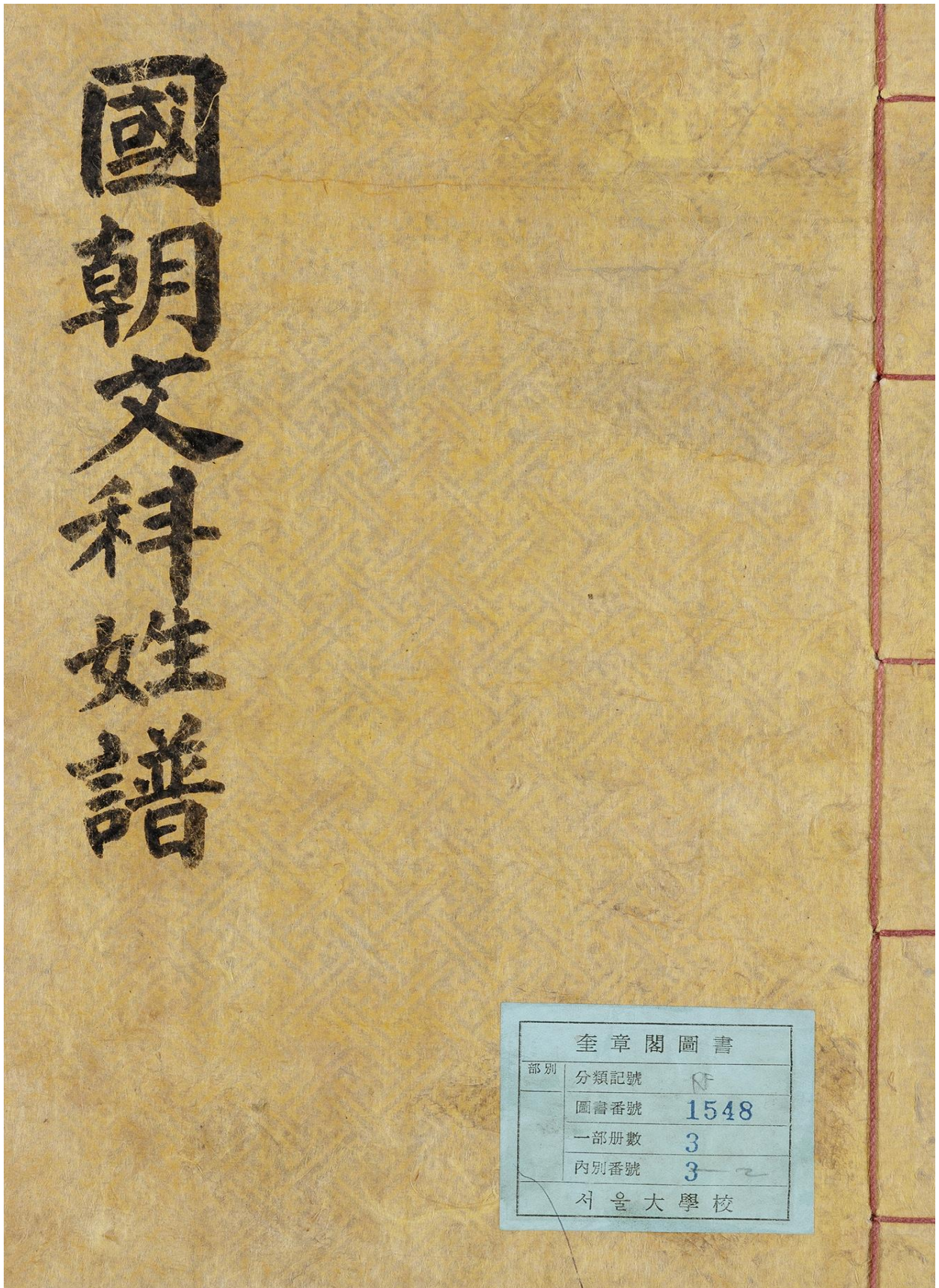
권지(權知)는 관리시보(官吏試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로 어떤 공무(公務)를 관장한다는 뜻도 있는 것이다. 호장직(戶長職)에 있으면 자손들이 과거시험에 나갈 수도 있고 중앙관서(中央官署)에 진출하여 사족(士族)이 되는 기회도 있었다. 시조의 증손(曾孫) 신윤유(申允濡)가 그 예의 인물이다.

아주신씨의 근원은 아주현의 호장 신영미(申英美)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헌(文獻)이 있다. 이것은 조선조(朝鮮朝) 왕명(王命)에 의해서 인물(人物), 세헌(世獻) 등에 관해서 편찬을 한 국가적(國家的) 문헌이다. **문헌비고(文獻備考)**라는 책이다. 이 문헌비고는 조선 21대 영조(英祖) 때 편찬된 것이다. 그리고 1924년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 발행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라는 책도 있다. 문헌비고의 기록 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아주신씨의 시조는 신영미(申英美)라고 표기된 것을 본다.

국가에서 편찬되는 책자의 자료를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뢰를 하는데 오히려 국가의 것을 불신(不信)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되는 것이다. 어느 종인(宗人)은 국가의 것이 되레 불신할 것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아주신씨는 평산신씨로부터 분관(分貫)된 게 틀림없다는 식의 글을 보였다. 충남(忠南) 대전(大田)에 우거(寓居)한 다는 종인이었다. 사실 **고려에서는 본관이 나타났지만 분관(分貫)이란 것이 별로 없었다. 왕이 하사(下賜)하는 본관 이외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분관 이 여기저기 나타난 것은 대개 조선조 중기 무렵이다. 특히 족보가 편찬될 무렵에 자의적(自意的)인 분관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족보로 등장한 것은 안동권씨(安東權氏)와 문화류씨(文化柳氏)임을 알면 그런 타성씨(他姓氏)에서 고려 때 분관 소리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조상을 빛내려는 의도에

서 과장(誇張)하고 실제 계파(系派)가 아닌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추듯 하여 족보에 올리고 한성씨 등이 많았는데 우리 종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것이다. 조상이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적인 조상을 받드는 것이 후손으로 큰 도리(道理)임을 우리 뿐만 아니라 타성씨의 인사(人士)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국조문과성보(國朝文科姓譜)



상세서지

원서명	國朝文科姓譜	현대어서명	국조문과성보
청구기호	奎3154-v.1-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8世紀 中盤(英祖 年間:1724-1776)]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冊
책크기	34.3×24.2츠	표지,판심,서명	表紙書名:科譜
소장본	<奎 1548> 은 3冊임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번호	M/F83-16-22-B		
인기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瞻齋德水李澱稚浩之印(奎 3154)		
자료소개	朝鮮朝 太祖(1392-1398)에서부터 英祖 30년대까지의 문과 급제자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		

朝鮮朝 太祖(1392-1398)에서부터 英祖 30년대까지의 문과 급제자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이다.

表題는 <科譜>, 奎章閣所藏本(3種) 中 필사년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編制는 113개 姓氏를 대체로 大姓順(金·李·朴·趙·兪·鄭·崔·徐·安 등)에 따라 姓貫別로 배열하였다.

每面 12행 4단으로 작성된 급제자란의 기재사항은 대체로 及第年代·重試·近親·雅號·封君·功臣號 등이며, 특히 館閣 文任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玉堂과 湖當에 選入된 관원과 文衡·提學을 역임한 자의 名字에는 각각 朱圈(1개 : 王堂官員, 1개 : 湖當)과 朱點(2개 : 文衡, 1개 : 提學)을 사용하여 이를 特示하였다.

수록된 姓貫數는 다음과 같다.

金氏 74, 李氏 78, 朴氏 31, 趙氏 20, 兪氏 6, 鄭氏 20, 崔氏 25, 徐氏 8, 安氏 7, 宋氏 9, 韓氏 10, 尹氏 15, 閔氏 1, 柳氏 10, 申氏 6, 洪氏 7, 吳氏 15, 沈氏 4, 權氏 2, 姜氏 3, 許氏 2, 成氏 1, 曹氏 5, 南氏 3, 黃氏 8, 任氏 3, 張氏 16, 林氏 11, 蔡氏 2, 盧氏 11, 呂氏 2, 丁氏 3, 羅氏 3, 孫氏 7, 辛氏 2, 河氏 2, 郭氏 4, 邊氏 3, 梁氏 5, 高氏 7, 文氏 5, 裴氏 5, 卞氏 2, 楊氏 3, 康氏 6, 秦氏 2, 白氏 6, 全氏 9, 陳氏 5, 田氏 6, 周氏 1, 劉氏 5, 玄氏 3, 瀋氏 2, 朱氏 3, 車氏 2, 石氏 3, 方氏 3, 延氏 2, 殷氏 2, 牟氏 2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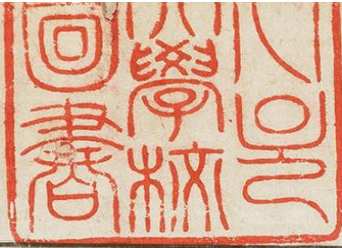
이밖에 하나의 姓貫을 가진 52개의 姓이 수록되어 있다.

성관의 考據가 불가능한 것은 姓氏의 悤머리에 함께 수록하였다.

각 姓貫의 始祖 事蹟과 系譜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다.

國朝文科姓譜目錄

成 一	許 四	姜 三	權 二	沈 四	吳 十五	洪 七	申 六	柳 十	閔 一	尹 十五
羅 三	丁 三	呂 二	盧 十一	蔡 二	林 十五	張 十六	任 三	黃 八	南 三	曹 五
楊 三	卞 二	裴 五	文 五	高 七	梁 五	邊 三	郭 四	河 二	辛 二	孫 七
朱 三	潘 二	玄 三	劉 五	周 一	田 六	陳 五	全 九	白 六	蔡 二	康 六
慎 一	元 一	禹 一	具 一	卓 一	牟 二	殷 二	延 二	方 三	石 三	車 二
都 一	蓋 一	房 一	琴 一	蘓 一	南宮 一	嚴 一	魚 一	睦 一	慶 一	奇 一
宣 一	吉 一	余 一	庾 一	奉 一	王 一	皇甫 一	丘 一	表 一	孔 一	池 一
芮 一	僕 一	薛 一	魯 一	蔣 一	承 一	邢 一	明 一	魏 一	卜 一	王 一



申

鵝州申氏 始祖申英美權知戶長

之悌 宣祖己丑 承旨

埴 丙戌 院道侄 察訪

達道 仁祖癸亥 掌令

奎 孝宗辛卯 達道子 佐司

悅道 甲子 達道子 掌令

正模 甫宗己亥

如望 己卯 之悌子 掌令

寧海申氏 始祖申得清判事

楫 宣祖丙午 正

奎 甫宗丙子

維翰 癸巳

殷豐申氏 始祖申承休密直副使

鵝州 寧海 殷豐

科譜  
坤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RF
	圖書番號 3154
	一部冊數 2
	內別番號 2
서울대학교	

상세서지

원서명	國朝文科姓譜	현대어서명	국조문과성보
청구기호	奎1548-v.1-3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8世紀 中盤(英祖 年間:1724-1776)]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3冊(零本)
책크기	34.3×24.2츠	표지,판심서명	表紙書名:科譜
소장본	<奎 1548> 은 3冊임		
인기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瞻齋德水李滌稚浩之印(奎 3154)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번호	M/F83-16-22-B		
자료소개	朝鮮朝 太祖(1392-1398)에서부터 英祖 30년대까지의 문과 급제자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		

朝鮮朝 太祖(1392-1398)에서부터 1776년(英祖 52)까지의문과 급제자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이다.

表題는 제1책이 <<科譜>>, 나머지는<<國朝文科姓譜>>이다.

編制는 대체로 姓貫別 大姓順으로 배열하였으나 그 배열순서에 있어서는 奎章閣 소장 異本과는 다른데, 朴·趙·鄭·崔 등의 大姓이 뒤에 宋氏가 앞에 있는 것 등이다.

卷頭의 목록에는 金·李·宋·尹·閔·申·洪 등 47개 姓氏만 보였을 뿐 나머지는 생략되어 閱覽에 불편하다.

每面 10行 4段으로 작성된 及第者欄의 기재사항은 다른 奎章閣 所藏本과 대체로 같다.

及第年代·重試·近親·官歷·雅號·封君·功臣號 외에도 諡號와 廟庭 및 文廟配享 사실까지도 기록되어 있다.

수록된 姓貫 중 목록에 보인 것은 다음과 같다.

金氏 77, 李氏 82, 宋氏 10, 尹氏 15, 閔氏 1, 柳氏 10, 申氏 9, 洪氏 7, 吳氏 15, 沈氏 4, 權氏 2, 姜氏 2, 許氏 4, 鄭氏 20, 崔氏 26, 徐氏 8, 安氏 7, 朴氏 31, 趙氏 21, 兪氏 6, 韓氏 10, 成氏 2, 曹氏 5, 南氏 3, 黃氏 8, 任氏 3, 張氏 15, 林氏 15, 蔡氏 3, 虞氏 11, 呂氏 3, 丁氏 3, 羅氏 3, 孫氏 7, 辛氏 2, 河氏 2, 郭氏 4, 邊氏 3, 梁氏 5, 高氏 7, (以下省略).

수록된 姓氏는 총 180姓이나 文氏 이하 74개 姓氏는 목록에는 없다.





## 국조문과성보(國朝文科姓譜)

姓貫을 考據할 수 없는 것은 姓氏의 末尾에 함께 附載하였다.

편찬년대가 뒤늦은 것일수록 수록된 姓貫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 姓譜는 英祖 30년대의 것보다는 姓貫의 수가 많으나 正祖代에 편찬된 姓譜보다는 적다.

始祖事蹟과 계보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姜	權	沈	吳	洪	申	柳	閔	尹	國朝文科姓譜目錄
二	二	四	十五	七	六	十	一	十五	

鵝州申氏

始祖申英美權知戶長

之惺

宣祖己丑  
承旨

達道

仁祖癸巳魁悅道  
兄掌令

悅道

甲子達道弟

弘瑩

己卯之惺子

埴

丙戌悅道侄

奎

孝宗辛卯達道子  
縣監

正模

肅宗己亥

國朝文科姓譜  
卷三

국  
4650  
148  
2

상세서지

원서명	國朝文科姓譜	현대어서명	국조문과성보
청구기호	古4650-148-v.1-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4卷 2冊
책크기	37×24.5cm(大小不同)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번호	M/F85-35-5-C(古 4650-148), M/F67-8-1-B(奎 810), M/F85-35-5-C(奎 1135)		
자료소개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		
인기	軒冕勿忘山林氣味泉石須懷廊廟經綸, 進士初會壯元庭試重試乙科親臨文臣庭試入格, 六歲登龍五代乙科七歲司馬兩代壯元, 冰壺秋月, 權重持難久位高勢易窮(古 4650-148-v.1-2), 帝室圖書之章(奎 810), 觀物軒, 重光之章(奎 1135)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이다.

奎章閣소장 文科 姓譜 가운데서 필사년대가 가장 뒤늦은 것이다.

수록된 姓氏는 총 116개로 여타의 奎章閣所藏本과 큰 차이가 없으나 姓貫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大姓에 속하는 金·李·朴·趙·鄭·崔 등이 그러하다.

2책 중 제1책이 金·李·朴·鄭·趙·閔·兪·崔氏 등 8개의 大姓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編次는 대체로 大姓順 姓貫別로 배열되어 있으나 大姓問의 排列順次는 나머지의 奎章閣所藏本과는 상당히 다르며, 특히<<國朝文科姓譜>>②와는 매우 다르다.

每面 12行 5段으로 작성되어 수록된 분량은 상당히 많으나 及第者欄의 기재사항은 매우 간략하여 급제년대·官歷·近親 등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卷頭에 凡例도 없이 及第者의 各字 옆에 朱圈, 朱點, 黃圈, 黃點, 靑圈 靑點 등 다양한 標識을 붙여 記載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凡例에서의 예시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淸要官을 역임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틀림 없는 것 같다.

始祖의 사적이나 계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나 간혹 당해 姓貫의 대표적 인물을 冒頭에 기재하여 특시하고 있다.

徐安宋韓尹閔柳申洪吳沈權姜許成曹南黃任張林蔡盧呂丁羅孫辛河郭  
邊梁高文裴卞楊康秦白全陳田周劉玄潘朱車石方延殷牟卓具禹元慎竒  
慶睦魚嚴南宮蘓琴房孟都池孔表丘皇甫王宣卜魏馬奉庚余吉玉明邢承  
魯仇咸鞠蔣薛偃芮尚太唐廡陸韋莊甘葉邕公桂

<p><b>圭</b> 孝宗辛卯 達道子 牧使</p> <p><b>之悌</b> 宣祖己丑 父夢得 承旨</p> <p><b>正模</b> 肅宗己亥 父德溢 縣監</p> <p><b>悅道</b> 甲子 達道弟 掌令</p> <p><b>弘望</b> 己卯 父之虎之悌侄 掌令</p> <p><b>埀</b> 丙戌 父弘道</p>	<p><b>鵝州申氏</b></p>		<p><b>星模</b> 當亨丁未 父</p>	<p><b>博淵</b> 辛卯 父激胤從侄</p>	<p><b>益彬</b> 己卯 父鴻翼相從孫</p>	<p><b>一清</b> 癸卯 澤子 禮佐</p>	<p><b>霽</b> 甲午 必清子 兵佐</p>	<p><b>慶濟</b> 己巳 父澤湜孫 右尹</p>
	<p><b>達道</b> 仁祖癸亥 父佺 掌令</p>	<p><b>若樞</b> 丁未 父</p>	<p><b>光洙</b> 壬辰 父浩禹相父</p>	<p><b>光柱</b> 己卯 滌子</p>	<p><b>紀河</b> 英宗丙午 父憲 承正</p>	<p><b>胤</b> 丁酉 父龍濟 未職</p>	<p><b>霽</b> 壬午 父必源必清侄 承旨</p>	<p><b>混</b> 乙酉 父錫漢景汶曾孫 正</p>
	<p><b>史澳</b> 癸巳 一清子</p>	<p><b>澈</b> 丁未 父 蕙彬</p>	<p><b>尚權</b> 壬午 父慶流</p>	<p><b>五清</b> 戊午 父渾生混濬從孫 孫從生 父孫</p>	<p><b>迺</b> 丁酉 父世濟湜孫</p>	<p><b>無濟</b> 戊子 澤子 判次</p>	<p><b>處洙</b> 景宗辛丑 父濬景洛孫 司諫</p>	<p><b>滌</b> 庚寅 父應濟慶濟侄 正</p>
	<p><b>致權</b> 癸巳 父宅洙處洙從侄</p>	<p><b>禹相</b> 辛卯 父光洙</p>	<p><b>景沆</b> 壬申 父澹</p>	<p><b>景澹</b> 甲戌 父洙</p>	<p><b>應淵</b> 辛卯 父達生滌漢曾孫</p>	<p><b>配權</b> 乙未 父紀河子 承正</p>	<p><b>景澹</b> 甲戌 父洙</p>	<p><b>滌</b> 癸卯 混弟 承權</p>

國朝文科姓譜  
坤

徐安宋韓尹柳申洪兵  
 沈權姜許曹南黃任張  
 林蔡成具元睦魚嚴盧  
 呂丁羅孫辛河郭邊梁  
 高文喪卞楊康白秦全  
 陳田周劉玄潘延朱車  
 石方殷牟卓禹慎竒慶  
 南宮蘓琴房孟都池孔表  
 丘皇甫王奉庾余吉宣玉  
 卜魏明邢承蔣魯薛僕  
 廉夫東方韋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RF
	圖書番號 1135
	一部冊數 2
	內別番號 2
서울대학교	



세서지

원서명	國朝文科姓譜	현대어서명	국조문과성보
청구기호	奎1135-v.1-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4卷 2冊
책크기	37×24.5cm(大小不同)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번호	M/F85-35-5-C(古 4650-148), M/F67-8-1-B(奎 810), M/F85-35-5-C(奎 1135)		
자료소개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		
인기	軒冕勿忘山林氣味泉石須懷廊廟經綸, 進士初會壯元庭試重試乙科親臨文臣庭試入格, 六歲登龍五代乙科七歲司馬兩代壯元, 冰壺秋月, 權重持難久位高勢易窮(古 4650-148-v.1-2), 帝室圖書之章(奎 810), 觀物軒, 重光之章(奎 1135)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別로 登錄한 책이다.

奎章閣 소장 文科 姓譜 가운데서 필사년대가 가장 뒤늦은 것이다.

수록된 姓氏는 총 116개로 여타의 奎章閣所藏本과 큰 차이가 없으나 姓貫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大姓에 속하는 金·李·朴·趙·鄭·崔 등이 그러하다.

2책 중 제1책이 金·李·朴·鄭·趙·閔·兪·崔氏 등 8개의 大姓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編次는 대체로 大姓順 姓貫別로 배열되어 있으나 大姓問의 排列順次는 나머지의 奎章閣所藏本과는 상당히 다르며, 특히 ≪國朝文科姓譜≫<sup>②</sup>와는 매우 다르다.

每面 12行 5段으로 작성되어 수록된 분량은 상당히 많으나 及第者欄의 기재사항은 매우 간략하여 급제년대·官歷·近親 등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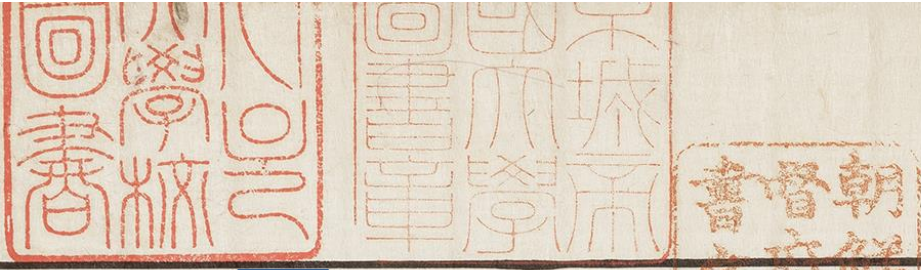
그러나 卷頭에 凡例도 없이 及第者의 各字 옆에 朱圈, 朱點, 黃圈, 黃點, 靑圈 靑點 등 다양한 標識을 붙여 記載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凡例에서의 예시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淸要官을 역임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틀림 없는 것 같다.

始祖의 사적이나 계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나 간혹 당해 姓貫의 대표적 인물을 冒頭에 기재하여 특시하고 있다.

國朝文科姓譜目錄第二

權 二	沈 四	吳 十五	洪 八	申 六	柳 十	尹 十四	韓 十一	宋 十四	安 八	徐 八
具 一	成 一	蔡 二	林 十七	張 二十一	任 三	黃 八	南 三	曹 六	許 五	姜 五
河 二	辛 二	孫 七	羅 四	丁 三	呂 二	盧 十一	嚴 一	魚 一	睦 一	元 一
秦 二	白 六	康 七	楊 四	卞 二	裴 五	文 五	高 七	梁 五	邊 四	郭 五
石 四	車 二	朱 三	延 二	潘 二	玄 三	劉 七	周 二	田 七	陳 五	全 十三



# 高靈申

<p><b>圭</b> 孝宗辛卯 正 達道子</p>	<p><b>之悌</b> 宣祖己丑 承旨 正</p>	<p><b>鵝州申氏</b></p>		<p><b>星模</b> 丁未 深八世孫</p>	<p><b>光洙</b> 壬辰</p>	<p><b>景濬</b> 甲戌</p>	<p><b>滌</b> 癸卯 混弟 承正</p>	<p><b>滌</b> 庚寅 慶濟姪 承正</p>	<p><b>必清</b> 甲子 得游從孫 弼善</p>	<p><b>混</b> 甲申 濡弟 三司</p>	<p><b>得游</b> 庚戌 混子 注書</p>	<p><b>深</b> 辛卯 混弟 黃盤</p>
<p><b>正模</b> 肅宗己亥 縣監</p>	<p><b>達道</b> 仁祖癸亥 掌令</p>	<p><b>澈</b> 丁未 益彬再從叔</p>	<p><b>史澳</b> 癸巳</p>	<p><b>益彬</b> 己卯 翼相從孫</p>	<p><b>一清</b> 癸卯 滌子</p>	<p><b>霽</b> 甲午 必清子 岳</p>	<p><b>慶濟</b> 己巳 混曾孫 右尹</p>	<p><b>翼相</b> 顯宗壬寅 右相 用溉六代孫</p>	<p><b>景汶</b> 丙辰 景洛再從 都事</p>	<p><b>橈</b> 辛丑 從獲從孫 掌令</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悅道</b> 甲子 達道弟 府尹</p>	<p><b>義淳</b> 乙酉</p>	<p><b>致權</b> 癸巳</p>	<p><b>尚權</b> 癸未</p>	<p><b>紀河</b> 英宗丙午 承旨 滌再從孫</p>	<p><b>胤</b> 丁酉 兼濟再從姪 未分館</p>	<p><b>霽</b> 壬午 必清姪 承旨</p>	<p><b>善温</b> 辛亥 温子 正言</p>	<p><b>濡</b> 仁祖丙子 參判</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景洛</b> 乙巳 渙玄孫 承旨</p>
<p><b>弘望</b> 己卯 之悌子 掌令</p>	<p><b>光河</b> 壬子 光洙</p>	<p><b>配權</b> 乙未</p>	<p><b>應淵</b> 辛卯</p>	<p><b>五清</b> 戊午 滌姪</p>	<p><b>近</b> 丁酉 溟孫</p>	<p><b>混</b> 乙酉 景汶曾孫 正</p>	<p><b>溟</b> 癸丑 得洪子 承旨</p>	<p><b>得洪</b> 己卯 得游弟 都事</p>	<p><b>得淵</b> 光海庚戌 知申 混子</p>	<p><b>得淵</b> 光海庚戌 知申 混子</p>	<p><b>得淵</b> 光海庚戌 知申 混子</p>	<p><b>得淵</b> 光海庚戌 知申 混子</p>
<p><b>孺</b> 丙戌 察訪</p>	<p><b>在祿</b> 乙卯</p>	<p><b>若樞</b> 當子丁未 星模從姪</p>	<p><b>博淵</b> 辛卯</p>	<p><b>景沆</b> 壬申 濡曾孫</p>	<p><b>處洙</b> 景宗辛丑 司諫 混從姪</p>	<p><b>兼濟</b> 戊子 溟子 僉知</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p><b>溟</b> 肅宗甲子 承正 溟弟</p>

國朝文科姓譜

坤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RF
	圖書番號	810
	一部冊數	2
	內別番號	1
서울대학교		

세서지

원서명	國朝文科姓譜	현대어서명	국조문과성보
청구기호	奎810-v.1-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4卷 2冊
책크기	37×24.5cm(大小不同)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번호	M/F85-35-5-C(古 4650-148), M/F67-8-1-B(奎 810), M/F85-35-5-C(奎 1135)		
자료소개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별로 등록한 책		
인기	軒冕勿忘山林氣味泉石須懷廊廟經綸, 進士初會壯元庭試重試乙科親臨文臣庭試入格, 六歲登龍五代乙科七歲司馬兩代壯元, 冰壺秋月, 權重持難久位高勢易窮(古 4650-148-v.1-2), 帝室圖書之章(奎 810), 觀物軒, 重光之章(奎 1135)		

朝鮮祖 太祖에서부터 正祖代까지의 文科 及第者를 姓貫별로 등록한 책이다.

奎章閣소장 文科 姓譜 가운데서 필사년대가 가장 뒤늦은 것이다.

수록된 姓氏는 총 116개로 여타의 奎章閣所藏本과 큰 차이가 없으나 姓貫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大姓에 속하는 金·李·朴·趙·鄭·崔 등이 그러하다.

2책 중 제1책이 金·李·朴·鄭·趙·閔·兪·崔氏 등 8개의 大姓으로 채워져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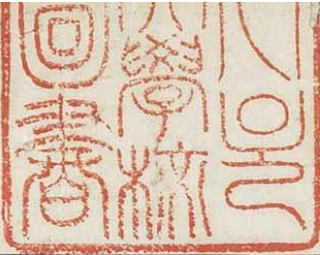


編次는 대체로 大姓順 姓貫別로 배열되어 있으나 大姓問의 排列順次는 나머지의 奎章閣所藏本과는 상당히 다르며, 특히 <<國朝文科姓譜>>②와는 매우 다르다.

每面 12行 5段으로 작성되어 수록된 분량은 상당히 많으나 及第者欄의 기재사항은 매우 간략하여 급제년대·官歷·近親 등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卷頭에 凡例도 없이 及第者의 各字 옆에 朱圈, 朱點, 黃圈, 黃點, 靑圈 靑點 등 다양한 標識을 붙여 記載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凡例에서의 예시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淸要官을 역임한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틀림 없는 것 같다.

始祖의 사적이나 계보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나 간혹 당해 姓貫의 대표적 인물을 冒頭에 기재하여 특시하고 있다.

  											
權 二	沈 四	吳 十五	洪 八	申 六	柳 十	尹 十四	韓 十一	宋 十四	安 八	徐 八	國朝文科姓譜目錄第二
具 一	成 一	蔡 二	林 十七	張 二十一	任 三	黃 八	南 三	曹 六	許 五	姜 五	
河 二	辛 二	孫 七	羅 四	丁 三	呂 二	盧 十一	嚴 一	魚 一	睦 一	元 一	
秦 二	白 六	康 七	楊 四	卞 二	裴 五	文 五	高 七	梁 五	邊 四	郭 五	
石 四	車 二	朱 三	延 二	潘 二	玄 三	劉 七	周 二	田 七	陳 五	全 十三	

申 諸

鵝州申氏

之悌

宣祖己丑 承旨

達道

仁祖癸亥 掌令

悅道

甲子 府尹  
達道弟

弘望

己卯 掌令  
之悌子

壻

丙戌 察訪

圭

孝宗辛卯 正  
達道子

正模

肅宗己亥 縣監

寧海申氏

廬

肅宗丙子 察訪

維翰

癸巳 庶僉正

溥

當子丁未

谷城申氏

卜倫

端宗甲戌 校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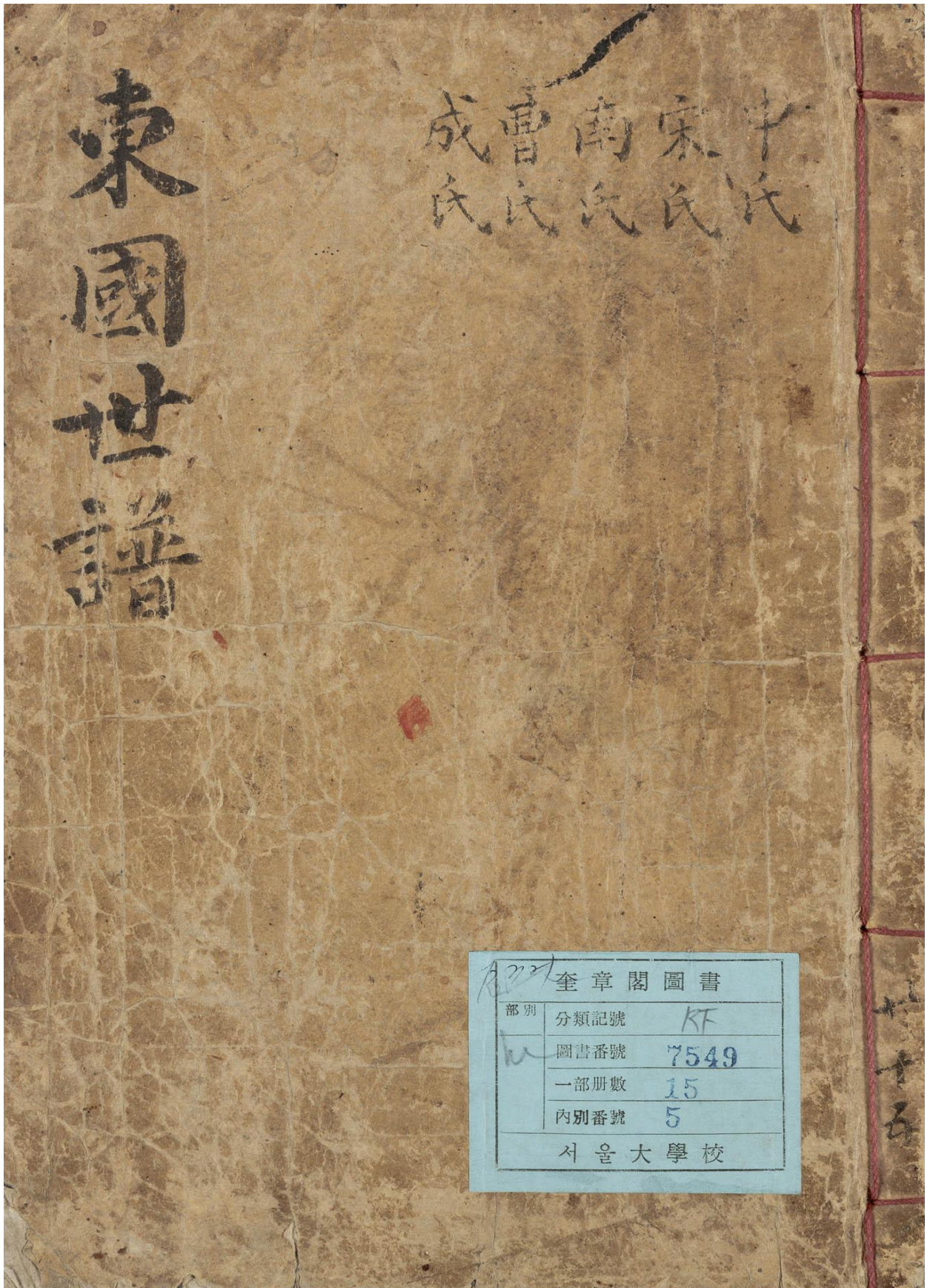
大壽

明宗甲子 縣監

殷豐申氏

世宗己酉 府丞

동국세보(東國世譜)





상세서지

원서명	東國世譜	현대어서명	동국세보
청구기호	奎7549-v.1-15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世紀 中盤(哲宗 年間:1849-1863)]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15冊
책크기	28.8×19.7츠	인기	金章淳印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자료소개	우리나라 여러 姓氏들의 世譜를 모은 책		
M/F번호	M/F90-35-1, M/F72-44-1(v.1-8), M/F72-44-2(v.9-15), M/F82-16-270-1(v.1-9), M/F82-16-270-2(v.10-15)		

15권. 필사본. 필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1850~1863년(철종대)까지 왕족을 포함하여 성씨와 본관별로 족보체재에 따라 그 계보를 밝히면서 중요인물의 관직·행적·부인·사위까지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관직의 품계에 따라서 각 인물의 이름 곁에 여러 가지 기호를 붙이고 있다.

사용된 기호는 흑색의 -, 적색의 ○-○-○와 각각 적·청·황색으로 된 ○○○○의 여덟 가지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인물의 계보와 함께 성씨와 본관별로 각 씨족의 관직에 의한 성쇠를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짓족보인 위보(僞譜)가 범람하던 조선 후기에 계보의 사칭을 밝혀내고, 또 각 씨족의 성씨를 파악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여러 姓氏들의 世譜를 모은 책으로 萬姓大同譜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姓貫을 分編하는 뚜렷한 원칙은 없고 凡例나 序·跋도 없다.

편년은 수록된 人物의 生年下限에서 1852년-1855년으로 추정된다.

각 책별로 수록된 姓貫을 보면 다음과 같다[내용으로 보아 책차가 잘못된 듯하나 책차를 따라 소개한다].

제1책 : 洪氏(南陽 豊山 등), 呂氏(咸陽 善山) 閔氏(驪興), 安氏(竹山 順興), 吳氏(海州同福 寶城 羅州 延日 등).

제2책 : 李氏( 德水 慶州 全義 龍仁 固城 平昌 慶州 星州 등).

제3책 : 李氏(全州 完山).

제4책 : 李氏(韓山 碧珍 등등).

제5책 : 申氏(平山 高靈) 宋氏(恩津·礪山등) 南氏(英陽 宜寧 등) 曹氏(昌寧) 成氏(昌寧).

제6책 : 羅氏(延安) 河氏(晋州) 唐氏(信川) 梁氏 楊氏 盧氏.

高氏 邊氏 慶氏 孫氏 全氏 田氏 車氏 孟氏 夏氏등등.

제7책 : 韓氏(淸氏) 崔氏(全州 海州 江華 慶州 등) 任氏(豐川) 林氏(羅州 平澤).

제8책 : 趙氏(豐壤 漢陽 平壤등) 徐氏(大丘).

제9책 : 金氏(慶州 光山 安東 淸風 江陵등).

제10책 : 金氏(宜城등등) 權氏(安東).

제11책 : 尹氏(坡平 海平 南原등) 姜氏(晋州) 許氏(陽川).

제12책 : 鄭氏(延日 東萊 河東 등등) 柳氏(文化 晋州 全州 등등).

제13책 : 黃氏(昌原 長水 尙州) 具氏(陵城) 張氏(仁同 德水 등) 魚氏(咸從) 嚴氏(寧越)·郭氏(玄風) 禹氏 丁氏 元氏 慎氏 睦氏 辛氏.

제14책 : 兪氏(杞溪 各派).

제15책 : 朴氏(潘南 密陽 咸陽 등등) 沈氏(靑松등).

이상이 수록된 여러 姓貫가운데 양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대강을 든 것이다.

기재사항등은 상세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各姓世譜의 대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이다.

이 책은 각 씨족별로 신분의 세습과 권력의 집중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각 시대의 사회적 계층이동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鵝溪申氏 巨濟屬縣

申

英美

戶長

子晉升

同正

子得昌

令同正

子允儒

版圖判書

子祐

按麻使子

子光貴

知鳳州事

子希信

郡守

子乾

內櫛衛

子始生

副司勇

子介甫

副司直

雅亨尚州 涑水書院

光富

內府令

子士廉

縣監

子錫命

郡守

子俊

承任郎

子壽

參奉

上見

介甫

左都將

子翰

參奉

子應奎

子夢得

子之悌

梧峰文友

子弘望

孤竹文正

子漢老

子叔範

子育龜

子道三

莊貞

子重仁

下見

道九

近仁

道萬

子體仁

下見

顯仁

下見

世仁

復龜

子道大

恭龜

子道通

上見

壽

子元祿  
子  
吏參 孝莊贈

子心  
監察

子尚道

子泳道

子志道

子師道

子敏道

子侂

文政音

子適道

文察訪

子達道

文修撰

李信正女

李壽壽

女

縣監

子仁錫

子

子濂

文持平

子重樸

進士

子煥

子昌教

子昌教

震龜

子道濟

道巨

道河

道海

子寬周

文

子寬周

娶豐昌君

柳潭女

申氏

楊溪

甲子六

文獻監學 李德聖女  
 孫女 聖李民實  
 敬 子 休錫 子 德涵 子 正模 子 重廉 子 球  
 子 林錫 子 德涵 子 正模 子 重廉 子 球  
 子 斗錫 子 義錫 子 仁錫 子 祉錫 子 恒錫 子 應錫 子 禮錫 子 責錫 子 恭錫 子 德漢 子 一模 子 光震 子 必教 子 冕 子 鏡  
 子 斗錫 子 義錫 子 仁錫 子 祉錫 子 恒錫 子 應錫 子 禮錫 子 責錫 子 恭錫 子 德漢 子 一模 子 光震 子 必教 子 冕 子 鏡  
 悅道 子 汲 子 應錫 子 禮錫 子 責錫 子 恭錫 子 德漢 子 一模 子 光震 子 必教 子 冕 子 鏡  
 文掌令 聖金滄 女  
 堪 子 仁錫 子 祉錫 子 恒錫 子 應錫 子 禮錫 子 責錫 子 恭錫 子 德漢 子 一模 子 光震 子 必教 子 冕 子 鏡  
 博 子 斗錫 子 義錫 子 仁錫 子 祉錫 子 恒錫 子 應錫 子 禮錫 子 責錫 子 恭錫 子 德漢 子 一模 子 光震 子 必教 子 冕 子 鏡  
 浩 瀨 光濟 光復 光益 進子 光震 系 瑛 球 子 世 欽 鏡

上見 上見 上見 上見

申氏  
搗溪

顯仁  
子昂吉

體仁  
子昂辰  
正貞

近仁  
子昂毅  
昂五

重仁  
子昂沃  
子祖應

弘道

文子

璫

璋

萬錫  
童錫  
子徽錫  
舜錫  
徵錫  
昂錫

甲七

申

留安子 守子 泓子 仁甫

令同正

令同正

令同正

文

申

珠子 文錫子 得溢子 正模

進士

文縣監

申

寧海申氏 得清子 芸子 永錫子 祉子 命昌子 眷子 後渭子 演子 慶男子 楫

文太僕正

申郎將

文副使

郡守

習讀

陰同正 娶金繼

申

龜年子 省吾子 眷始子 維翰

僉正

進士

清泉文縣

監有文名

娶金頤云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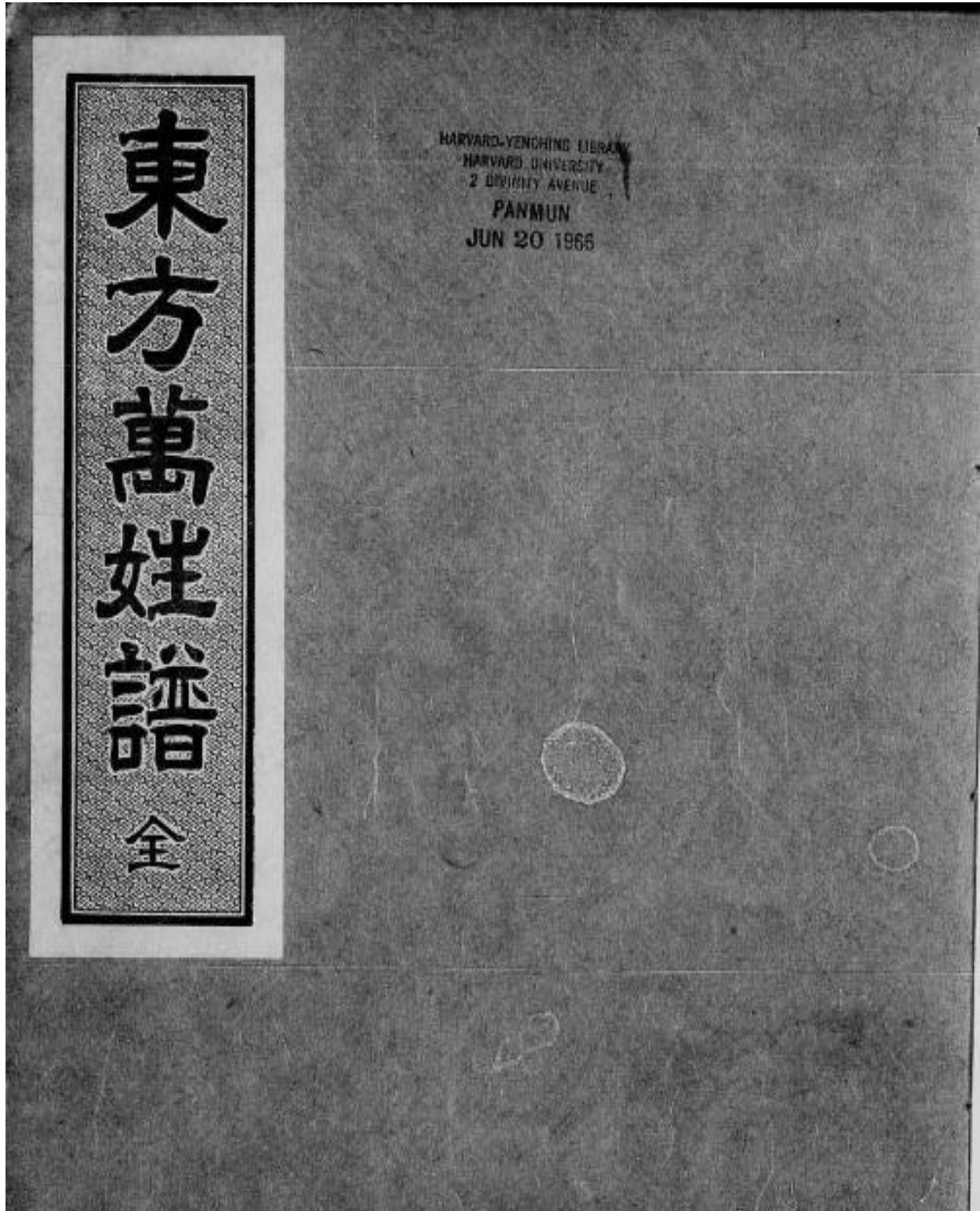
眷采

동방만성보(東方萬姓譜)

책임 진술: 윤탤훈尹泰順 편집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동방만성보발간동지회東方萬姓譜發刊同志會, 윤탤훈尹泰順, 1964년 편집, 발행.





沔川韓氏

始祖 自禧

麗朝門下侍中平章事

大興韓氏

始祖 惟忠

麗朝侍中平章事

錦山韓氏

始祖 皦

直提學諡文忠

鴻山韓氏

始祖 林卿

麗朝檢校大子少傅知樞密院副使。韓氏又有籍扶安清風陽智清城

青松沈氏

始祖 洪孚

文林郎衛尉寺丞。曾孫德符文左相封青松相號虛江鑑定安。後孫

豐山沈氏

始祖 滿升

尚書奉御太子詹事。後孫亨武功臣封豐寧君。後孫亨慶文右相號

三陟沈氏

始祖 東老

內書舍人。云忠輔內書別監為始祖。後孫彥慶文贊成。後孫忠光

全州沈氏

始祖 賢

禮賓丞同正

富有沈氏

始祖 立仁

知錦州事。後孫道源文戶判富有順天屬縣沈氏又有籍宜寧

平山申氏

始祖 崇謙

麗朝開國功臣三重大臣太師諡壯節。後孫槩文左相號寅齋諡文恪

高靈申氏

始祖 成用

本以鄉吏查文科為檢校軍器監。後孫叔舟文領相高靈府院君諡文

高興申氏

始祖 汝琛

全羅右水使贈兵曹判書王亂有功

金海申氏

始祖 龍俊

造船監王亂倡儀

利川申氏

始祖 瑱

麗朝為尚書左僕射

天安申氏

始祖 周錫

金紫光祿大夫鑑定簡

鵝洲申氏

始祖 英美

權知戶長一云麗太師。後孫乾榮衛將。後孫弘望文持平號梧鳳按

殷豐申氏

始祖 承休

密直使殷堂基屬縣

寧海申氏

始祖 賢

麗朝左僕射明太祖賜號不誼齋諡文貞平山始祖壯節公十二世孫

氏籍

東方萬姓譜全

二十五

東方萬姓譜發刊同志會

顧問

田鎰健

號石下吳齋

宋在嚴

號廷忠別齋

權純命

號兩齋

李瑛憲

號約高別齋

尹泰貞

號靜然齋

會長

號東正堂

尹泰順

號基重堂

監印

金中源

號二州別齋

安興出

號德福齋

編纂委員

許多儒林士友列書不可能故不以記氏名是冀諸委員之明察也

開國四千二百九十七年甲辰印刷

孔誕二千五百十五年甲辰發行

翌年乙巳重刊

發行者 東方萬姓譜發刊同志會

會長 尹泰順

編纂者 尹泰順



동성고락(東姓考略)



상세서지

원서명	東姓考略	현대어서명	동성고략
청구기호	古4650-128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29]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卷 1冊
책크기	31×21츠	서,발,권수,권말	卷末:鶴陽氏識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번호	M/F90-35-30-C, M/F84-16-187-T		

우리나라 姓氏의 연원과 주요인물들의 姓貫 등을 기록한 책이다.

편찬자는 알 수 없으며 上卷에는 <土姓>과 <華姓>, 下卷에는 <姓貫> 항목을 두어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문을 적은 뒤에 '按'이라 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鶴陽氏曰'이란 항목을 두어 鶴陽氏의 견해도 첨부하여 실고 있다.

따라서 본 책은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책자를 저본으로 자신의 견해를 일부 첨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鶴陽氏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말미에 자신이 성씨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 서적을 참고하여 東姓考 2編을 편찬하였으며, 上編에는 扶餘와 三韓, 下編에는 高麗 관련 내용을 실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姓貫의 연원에 대해 나름대로의 조예를 이룬 조선시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東姓考略과 東姓考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본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土姓 : 먼저 氏姓의 연원을 살피기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를 살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扶餘, 沃沮, 穢와 三韓, 三國 등 고대 제국이 성립시의 주도 성씨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의 위치를 비정하고 있다.

扶餘를 동방 姓氏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桓因과 桓雄은 조선의 祖이며 桓武는 일본의 祖라 서술하는 등 나름의 독특한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按'에서는 古記와 東史 등을 인용하여 고대 국가의 始祖와 出自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동성고략(東姓考略)

2) 華姓 :箕子의 자손들인 奇氏, 韓氏, 鮮于氏, 箕氏 등에 대한 지적, 중국인들이 東來하여 생긴 辰韓에 대한 설명 등 중국에서 유래한 주요 성씨의 연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鶴陽氏는 천하의 姓은 원래의 籍鄉을 지키면 한미해지지만, 籍鄉을 옮긴 경우에는 귀해진다는 주장을 해 흥미롭다.

즉 본래의 籍鄉을 지킨 성씨들은 모두 쇠락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성이 중국에 산재하게 된 경우와 역으로 중국의 성이 동방으로 流落한 경우 모두 크게 현달하여 귀해졌다는 것이다.

3) 姓貫 : 國姓인 完山李氏를 비롯하여 李·金·朴·崔·趙氏 등 다양한 성씨의 연원과 주요 인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말미에는 宜寧玉氏, 新昌表氏, 陝川方氏, 江華韋氏, 光州卓氏, 長興馬氏 등 희귀성씨들의 주요인물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책은 중간중간에 저자의 독특한 견해가 실려있기 때문에 姓氏의 유래와 고대국가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맨 마지막에는 '昭和四年壹月〇〇〇所藏本ヨリ謄寫ス'라 적힌 도장이 찍혀있고, 옆에 연필로 '原本 小倉教授有'라 附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책은 京城帝大 어문한 전공 小倉進平 교수가 보관한 原本을 1929년에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성제대에서는 장서의 확대를 위해 원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필사본을 만들어 소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책도 그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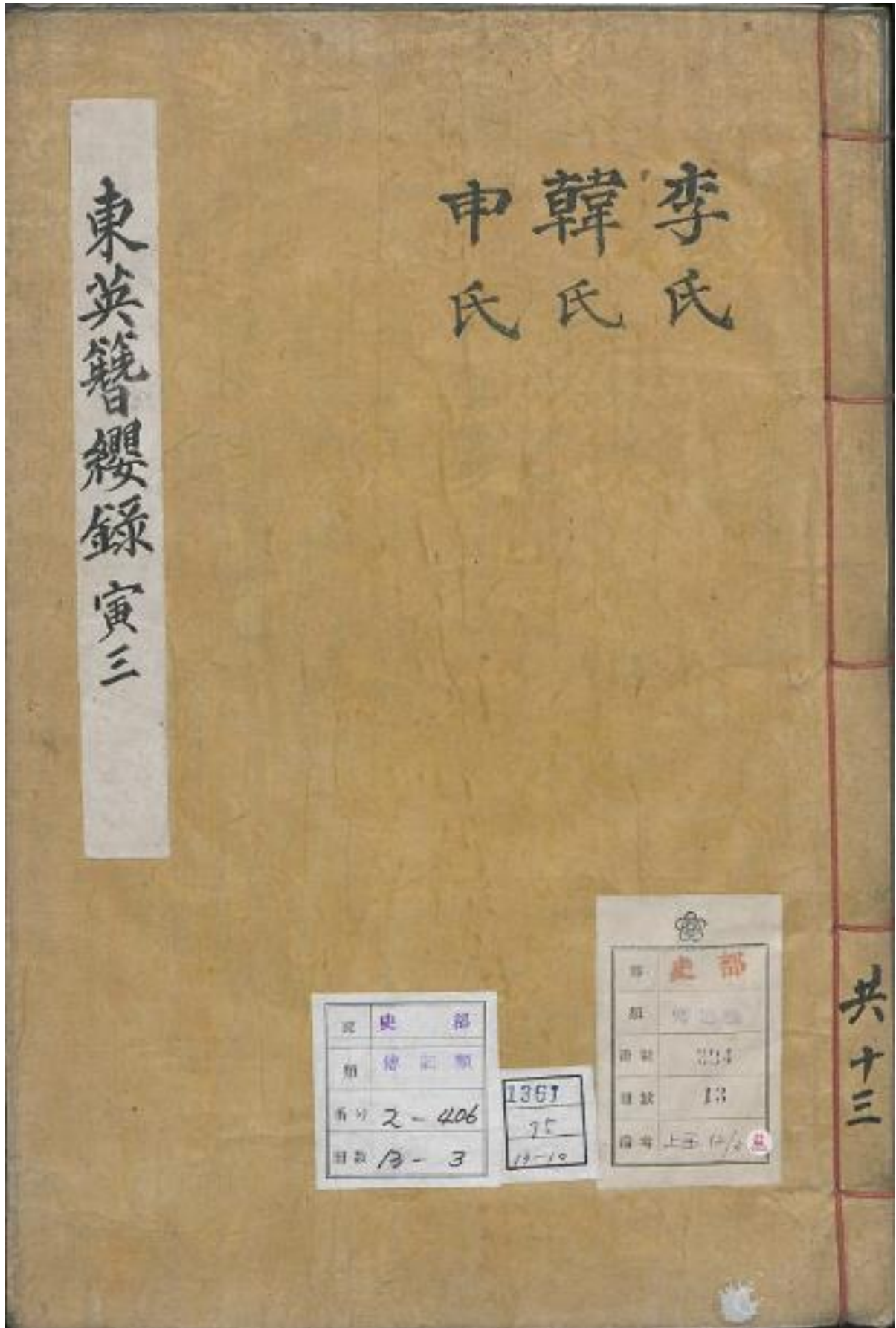
柳天弓麗朝<sup>祖</sup>后父也有侍中匡肅公柳洪洪之子恭政貞  
 簡公仁著安東之豐山氏者司正柳栢禮賓卿葆典書從  
 憲晉州氏者名士柳藩本朝領議政文定公柳順汀全州  
 氏者平章事戴肅公柳先植子韶平章事靈先氏者本朝  
 代言柳斗明子柳規知中樞興陽氏者柳清臣之孫侍中  
 柳濯

申氏以平山為氏者麗祖功臣壯節公申崇謙本谷城人  
 移籍平山右代言申君平巨<sup>州</sup>之鵝州氏邑吏申英美之  
 後允儒版圖判書高靈氏者知門下省申淑邑吏申成用  
 之後申樞判工曹子叔舟高靈府院君

柳天弓麗祖后父也有侍中匡肅公柳洪洪之子叅政貞  
 簡公仁著安東之豐山氏者司正柳栢禮賓卿葆典書從  
 憲晉州氏者名士柳藩本朝領議政文定公柳順汀全州  
 氏者平章事戴肅公柳光植子韶平章事靈光氏者本朝  
 代言柳斗明子柳規知中樞興陽氏者柳清臣之孫侍中  
 柳濯

申氏以平山為氏者麗祖功臣壯節公申崇謙本谷城人  
 移籍平山右代言申君平巨濟之鵝洲氏邑吏申英美之  
 後允儒版圖判書高靈氏者知門下省申淑邑吏申成用  
 之後申樞判工曹子叔舟高靈府院君

동영문헌잡영록(東英文獻簪纓錄)





## 기본정보 해제

### 일반사항

- |        |          |         |              |
|--------|----------|---------|--------------|
| · 사부분류 | 사부       | · 작성시기  | 1919         |
| · 청구기호 | K2-406   | · M/F번호 | MF35-652~653 |
| · 기록시기 | 1919年 以後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작성주체 - 인물

- 청성거사(靑城居士) 찬(撰)

### 형태사항

- |          |                   |      |                  |
|----------|-------------------|------|------------------|
| · 크기(cm) | 35.5 X 23.3       | ·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3권(卷) 13책(冊)    |
| · 판식     | 반곽(半郭) 26.2×19.7츠 | · 인장 |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

## 상세정보

### 정의

고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주요 가문의 계보(系譜)와 저명한 인물들을 수록한 인명사전의 성격을 띠는 필사본이다.

### 서지사항

표지서명(表紙書名)은 '동영잡영록(東英簪纓錄)'이다. 종이 제침에 서명을 필사하였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子一·丑二 ..... 亥十二·十三'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 우측 상단에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서뇌(書腦) 하단에 '共十三'이라는 기록이 있다. 책사(冊絲)는 주색이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이왕가도서지장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필사 인찰공책지에 정서(淨書)하였다. 서미에 두주(頭註) 또는 주제어가 필사되어 있는데, 녹색 또는 청색으로 주제어에 테두리를 그린 것이 있다. 또한 서미에는 금색 또는 주색 비점도 있다. 본문에는 주색으로 수정하거나 구두점을 찍은 부분이 있다.

### 체제 및 내용

13권 13책의 필사본으로 자(子)에서 해(亥)까지 지지(地支)를 권차로 사용하였고, 판심에는 수록된 성씨의 관향을 써 두어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안배하였다. 편찬자와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각 권마다 '청성거사찬집우취송헌(靑城居士撰集于翠松軒)'이라 한 것으로 보아, 편찬자는 '청성거사'로 일컬어지고 '취송헌'을 당호(堂號)로 쓰던 인물로 판단된다. '취송헌'은 장서각 소장 『변증기문 辨證奇聞』(K3-338)에도 보이는 바,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 高宗(1852~1919)의 죽음과 관련하여 "무오십이월이십일승하우경운궁지함령전

## 동영문헌잡영록(東英文獻簪纓錄)

(戊午十二月二十日昇遐于慶運宮之咸寧殿), 춘추육십칠(春秋六十七)“이라 쓰고 ‘무오(戊午)’ 옆에 ‘대정육년(大正六年)’으로 교정하여, 1919년 이후 편집되고 다시 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1(子)의 첫머리에는 선계(璿系)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수록되었는데, 시조 이한(李翰)으로부터 기록을 시작하였다. 수록 순서는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인물의 자호(字號), 생몰년(生沒年), 행적(行蹟), 봉호(封號)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수록하고, 이어 부인의 관향과 부친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간혹 大君, 君 등 봉호별 가문의 世系 및 인물별로 특징적인 사적을 길게 서술하고 때로는 논평도 덧붙였다.

특히 「대황제황후사실급자손록 大皇帝皇后事實及子孫錄」에는 고종이 즉위한 이후 승하하기까지의 사적이 연차별로 기록되어 있다. 임오군란(1882년), 갑오경장(1894년),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년) 등 역사적인 사건은 더욱 상세하다. 특히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을 추진한 중추 기관으로 3개월 사이에 208건의 신법령을 의결·공포했던 「군국기무처의안 軍國機務處議案」이 수록되어 있고,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전후 상황을 매우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죽음, 정조의 즉위와 정치 상황 등을 설명하며 西堂을 비판하고, 경복궁 중건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 실각한 흥선대원군 등 왕실과 세족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말미에는 「각원묘소기 各園墓所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능침(陵寢)의 위치와 모신 사람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였고, 「각왕비국혼성씨 各王妃國婚姓氏」에는 왕비의 성씨 및 관향이 수록되어 있어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권2(丑)에는 李氏 중에서 한산, 경주, 광주, 덕수, 연안, 여흥, 전의(韓山, 慶州, 廣州, 德水, 延安, 驪興, 全義)를 관향으로 하는 유명 인물의 사적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권3(寅)에는 李氏 106本, 韓氏 15本, 申氏 14본에 해당되는 유명 인물의 사적이 수록되어 있다.

권4(卯)에는 金氏 117本の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5(辰)에는 鄭氏 33本, 朴氏 41本の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6(巳)에는 尹氏 24本, 趙氏 28本, 洪氏 12本の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7(午)에는 柳氏 15本, 崔氏 39本, 權氏 2本, 南氏 5本の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8(未)에는 沈氏 6本, 徐氏 10本, 成氏 1本, 許氏 6本, 姜氏 7本, 俞氏 6本, 張氏 28本, 具氏 1本の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 동영문헌잡영록(東英文獻簪纓錄)

권9(申)에는 安氏 12본, 吳氏 22본, 閔氏 3본, 任氏 8본, 黃氏 19본, 宋氏 22본, 元氏 1본의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10(酉)에는 曹氏에서 辛氏까지 20개 성씨의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11(戌)에는 羅氏에서 韋氏까지 44개 성씨의 유명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12(亥)에는 벽성, 복성, 삼한고성, 보유, 은선, 석교, 후비, 열녀, 여현(僻姓, 復姓, 三韓古姓, 補遺, 隱仙, 釋教, 后妃, 烈女, 麗賢) 등에 관련된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권13의 앞부분에는 여현(麗賢)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 조선군왕·삼한군왕(朝鮮君王·三韓君王)이 실려 있고, 이어 '조선급삼한재이징험록(朝鮮及三韓災異徵驗錄)'이란 제목으로 역대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 특성 및 가치

고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가문별로 간략한 系譜와 저명한 인물들을 기록한 일종의 인명사전으로, 수록 범위가 넓고 내용도 충실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申仁適嘉直使 申弘望字望久 歸孤松 仁祖朝

尚州涑水院 臨堂元祿 義藏待院 梧峯之勝 義藏待院 養一堂

始祖申英美權知後孫 祐 按廉使 享書院 元祿祐六世孫 之悌祐八世孫 文承

旨享 書院 之益之悌 弟 號 養一 堂 西 漢門人 尤 菴 換 碣

原州申氏 孟慶字伯祥 歸雲 漢事 親至 孝 載三 綱 行 錄 宦 照 監 旌 闈 以 女 婚 泰 慶 母 既 故 閉 戶 不 納

寧海申氏 始祖申得清判

申維翰字周伯 歸青 泉 肅 辰 朝 癸巳 科 官 奉 判 管 為 通 信 使 製 述 官 有 文 名 有 集

天安申氏 始祖周錫金 紫 光 祿 大 夫 大 保 定 簡 公

利川申氏 始祖瑱尚 書

信川申氏 始祖贊伯周 孫 祿 守 子 三 重 大 匡 信 川 府 院 君

谷城申氏 始祖世達將 仕 郎

朝宗加 平 屬 縣 申氏 始祖康

朔寧申氏 始祖允麗贈 贊 成 事

昌洲昌 城 地 方 申氏 始祖甫京 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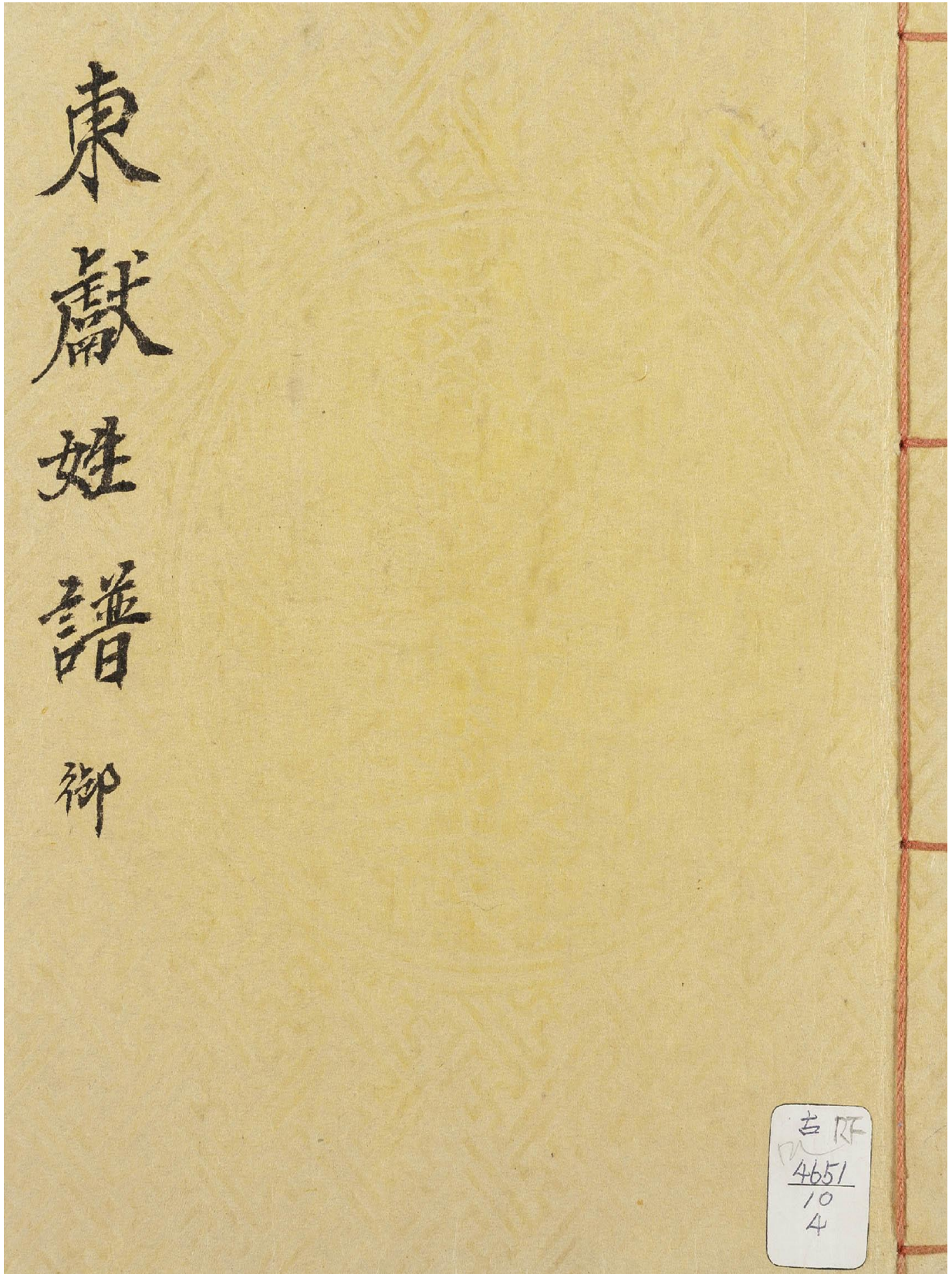
牙山申氏 申英光 海 辛 酉 文 科 金正 父 壽 國

書院未詳

申重慶全 州 鶴 峯 字 申汝魯東 萊 忠 烈 祠 申敬之寧 越 州 申仲之寧 越 州

申汝魯

동헌성보(東獻姓譜)



상세서지

원서명	東獻姓譜	현대어서명	동헌성보
청구기호	古4651-10-v.1-6	편저자(한자)	朴箕緒(朝鮮)蒐定
편저자(한글)	박기서(조선) 수정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光武 10年(1906)]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0卷 6冊
책크기	25×21.5츠	인기	三省齋, 錦堂, 潘南朴印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자료소개	우리나라 각 姓氏를 본관별로 분류하고 始祖 및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책		
M/F번호	M/F90-35-2, M/F81-103-451		

우리나라 각 姓氏를 본관별로 분류하고 始祖 및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서문에 해당되는 <東獻姓譜題目> 과 20권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에 따르면 본서의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나라에는 史가 있고 집안에는 譜가 있는 것이니 본조에도 史記라는 것이 있고 譜學이라는 것도 있어서 忠賢이 모두 기록되고 文武가 모두 빛났다.

1897년(光武 1) <東獻系錄>을 얻어 그 派流에 주를 달고, 1902년 松山의 <案存姓苑叢譜>에서 科甲, 賜諡, 別號 일체를 함께 실은 것을 참조하였다.

또한 1906년 新本 文獻에 등재된 사실이 鄉籍에는 많이 빠져 있는 까닭에 實은 같으나 派가 달라 불분명한 것이 있으므로 이것들은 후면에 합록 하였다가 本孫에게 물어서 참고하여 주를 달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권으로 분권하고 6편으로 묶어 “동헌성보”라 이름했다는 것이다.

편집상의 특징을 보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성씨의 본관을 밝혀놓아서 열람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다.

제 1책은 권1, 제 2책은 권2~3, 제 3책은 권4~6, 제 4책은 권7~10, 제 5책은 권11~15, 제 6책은 권16~20에 해당하는데 각 권에서 다루고 있는 성씨는 다음과 같다.

권1은 李氏之本으로 全州에서 泰仁에 이르기까지 75鄉의 시조 및 대표적 인물에 대하여 인적 관계, 호, 자, 급제사실, 관직, 특기할 만한 행위, 연루된 사건, 別號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동헌성보(東獻姓譜)

권2는 경주김씨 이하 46鄉의 金氏를, 권3은 밀양박씨 이하 17鄉의 朴氏를 다루었다.

권4는 鄭氏와 韓氏, 권5는 崔氏와 安氏, 권6은 柳氏와 尹氏之本을 수록하였다.

권7은 趙氏·權氏·洪氏, 권8은 許氏·南氏·申氏, 권9는 黃氏·沈氏·任氏, 권10은 兪氏·成氏·閔氏를 다루고 있다.

권11은 宋氏·吳氏·姜氏·元氏, 권12는 徐氏·具氏·張氏·曹氏, 권13은 盧氏·慎氏·孫氏·蔡氏, 권14는 林氏·辛氏·羅氏·梁氏·嚴氏·都氏, 권15는 魚氏·禹氏·睦氏·慶氏·丁氏·高氏 등을 소개하였다.

권16은 裴氏 이하 9姓, 권17은 尙氏 이하 14姓, 권18은 劉氏 이하 25姓, 권19는 朱氏 이하 71姓, 권20은 頗多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85姓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鵝州申氏

申英羨

權知戶長

之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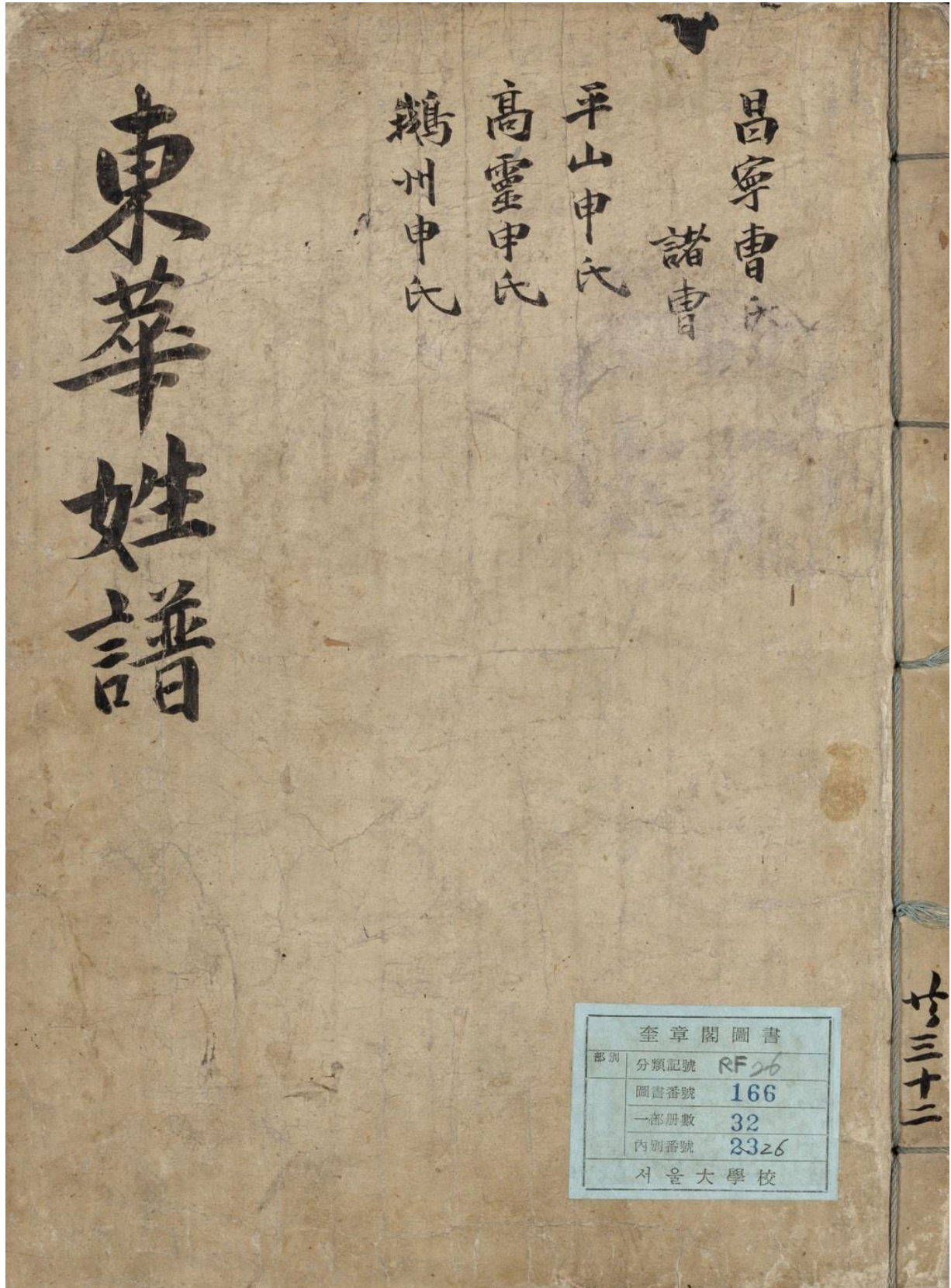
英羨之十三世孫号梧峯 宣祖科官承旨

弘聖

之悌之子号孤松文正言



동화성보(東華姓譜)



상세서지

원서명	東華姓譜	현대어서명	동화성보
청구기호	奎166-v.1-3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32冊
책크기	33.6×23.8츠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자료소개	우리나라의 名門姓譜를 모두 수록한 책		
M/F번호	M/F90-35-3, M/F70-3-1(v.1-10), M/F70-3-2(v.11-21), M/F70-3-3(v.22-32)		

우리나라의 名門姓譜를 총 수록한 책이다.

跋文이 없어 編者·年代를 알 수 없다.

형식은 모두가 8단으로 名號에 官爵만 간단하게 썼고 한 族姓에 대개 수 10代씩 수록하였다.

각 책의 卷順이 없으므로 大小의 順으로 대강 編次하여 다음에 각 책의 姓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本貫)

<1>~<3> 全州李氏.

<4> 李氏(廣州·韓山).

<5> 李氏(德水·驪州·龍仁·咸平).

<6> 李氏(延安·眞城·星州·碧珍·星山 등).

<7> 李氏(全義외 15本).

<8> 李氏(慶州)·愼氏(居昌).

<9> 金氏(慶州·安東·光山·淸風 등).

<10> 金氏(金海·延安·江陵·商山·原州·一善·善山·順天 등).

<11> 金氏(義城·禮安·蔚山·彦陽·豐山·咸昌·安山·扶安·高靈·瑞興 등).

<12><13> 權氏(安東).

- <14> 閔氏(驪兵).
- <15> 尹氏(坡平·海平).
- <16> 尹氏(南原·漆原·海南·咸安·茂松·平山 外), 朴氏(順天·咸陽·竹山 外) 등 諸氏.
- <17> 朴氏(潘南·高靈·密陽·庇安·務安 등).
- <18> 柳氏(文化·晉州·興陽·豐山·全州·瑞山·善山 등)外 諸柳氏, 吳氏(海州·同福·寶城·羅州·咸陽 외).
- <19> 趙氏(豐壤·楊州·林川·咸安·漢陽·白川·平壤·淳昌·橫城 등).
- <20> 韓氏(淸州·谷山·唐津·平山), 崔氏(海州·全州·江陵·忠州·和順·廣州·江華·永川 등).
- <21> 沈氏(靑松 외).
- <22> 鄭氏(延日·海州·溫陽·草溪·河東·奉化 등).
- <23> 鄭氏(東萊·晉州·淸州·光州·瑞山·慶州 등).
- <24> 洪氏(豐山·南陽·岳溪 외).
- <25> 宋氏(礪山·恩津·鎭川·新平 외).
- <26> 曹氏(昌寧 외) 申氏(平山·高靈·鵝洲 등).
- <27> 南氏(宜寧·英陽), 姜氏(晉州·衿川), 許氏(陽川·河陽·金海 등).
- <28> 黃氏(昌原·長水·懷德·濟州·平海·紵州), 俞氏(杞溪·昌原 외), 具氏(綾城), 元氏(原州) 등.
- <29> 睦氏(泗川), 任氏(豐川 외), 安氏(順興·廣州·竹山 외).
- <30> 徐氏(達城·扶餘·利川·連山 외), 成氏(昌寧), 孔氏(昌原), 孟氏(新昌), 羅氏(羅州·安定·壽城), 梁氏(南原 외), 郭氏(淸州·玄風·善山·海美), 吉氏(海平) 등.
- <31> 丁氏(羅州 외), 林氏(檜津 외) 蔡氏(平康·仁川) 呂氏(咸陽·星州), 張氏(仁同·德水 외), 魚氏(咸從·忠州), 嚴氏(寧越) 등.
- <32> 慶氏, 邊氏, 辛氏 등 諸氏.

鵝州申氏

申英 羨子 晉升子 得昌子 允儒子 祐子 光富子 士瀛 一譜  
戶長 同正 同正 文判書 文按廉孝內府令 縣監 旅

一譜

士瀛 子 錫命子 俊子 壽子 元祿子 侂子 達道子 在 見下

進

參奉 訓導 號城隱 進文玉修  
晦堂孝旌 贈承旨 撰孝脫悟 贈戶議

兪知 郡守

子 光貴子 希信 二譜

伯子 適道子 埰 見下

進檢察訪

號虎溪 子 磬 見下

子 悅道子 坂 見下

進文司諫

號懶齋

鵝州申氏

90

在  
衛率

子晉錫

子瀛

子重模  
子煇

子弘教  
子冕朝

子萬快

進退澗  
進  
戊申倡義  
贈持平

柳豐昌君  
進  
澗女

李泰判書  
東女

參奉

子元福

子儼

子弘道

子埴

子仙  
蔭監察

子埴

子埴

并見下

子冕周

子命愷

系泰植

進文玉原音

成女

李息津瀕  
淳女

女雀炳奎

女柳道聞

文玉

女金鎮衡

東女

高子 成 嶽 南 若 高 忍 封 芝

進 塚

号忍齋

号芝軒

号杏村

子禹錫

子德潤

子彙模

子宗烈

子萬教

子冕穆

子煥懷

系相夏

子冕九

子命祐

子相夏

出

系璉懷

系正植

崔雲翼女

女崔雲昌

子文錫

子德溢

子正模

李星香女

文掌全

申以居昌梓

甲子伸

坂

号霞村

号成峯

号孝窩

子應錫

子瀨

系正標

系光憲

子必教

子冕文

子國懷

子冕鑽

子漢宗

女持平

女柳周祚

子柳光睦

鵝州

96

子澈子相一子光範子樂教子冕病子啓悞

子光憲出

子冕翼出

子哲教系冕翼

子最教子冕華子儻悞

埠

子徽錫子德洙子一標子光點子致教子冕玉

埠

埠

文縣監

子天錫子德沃子大權子瑞龜子憲教子冕魯子耆祐

二譜

希信 子乾 子始生子介甫子翰 子應奎子學得子之悌 見下

廓守 判決

參奉

朴參叔敏 樹女

之悌 子弘望 子漢老子叔範子貢龜 子道三子重仁子鼎次子祖應子熙穆子相遠

文承旨号進營文正

梧峯贈吏官号孤松 柳參奉元

參 李參判氏 慶女

趙判書女 寬女

進

金承旨海黃道重李敬和

一孫女 女

女

姜府使必

龜曾孫女

女姜長欽

進參奉

子道 子體仁子鼎辰

号晦屏 且貞

黨柳後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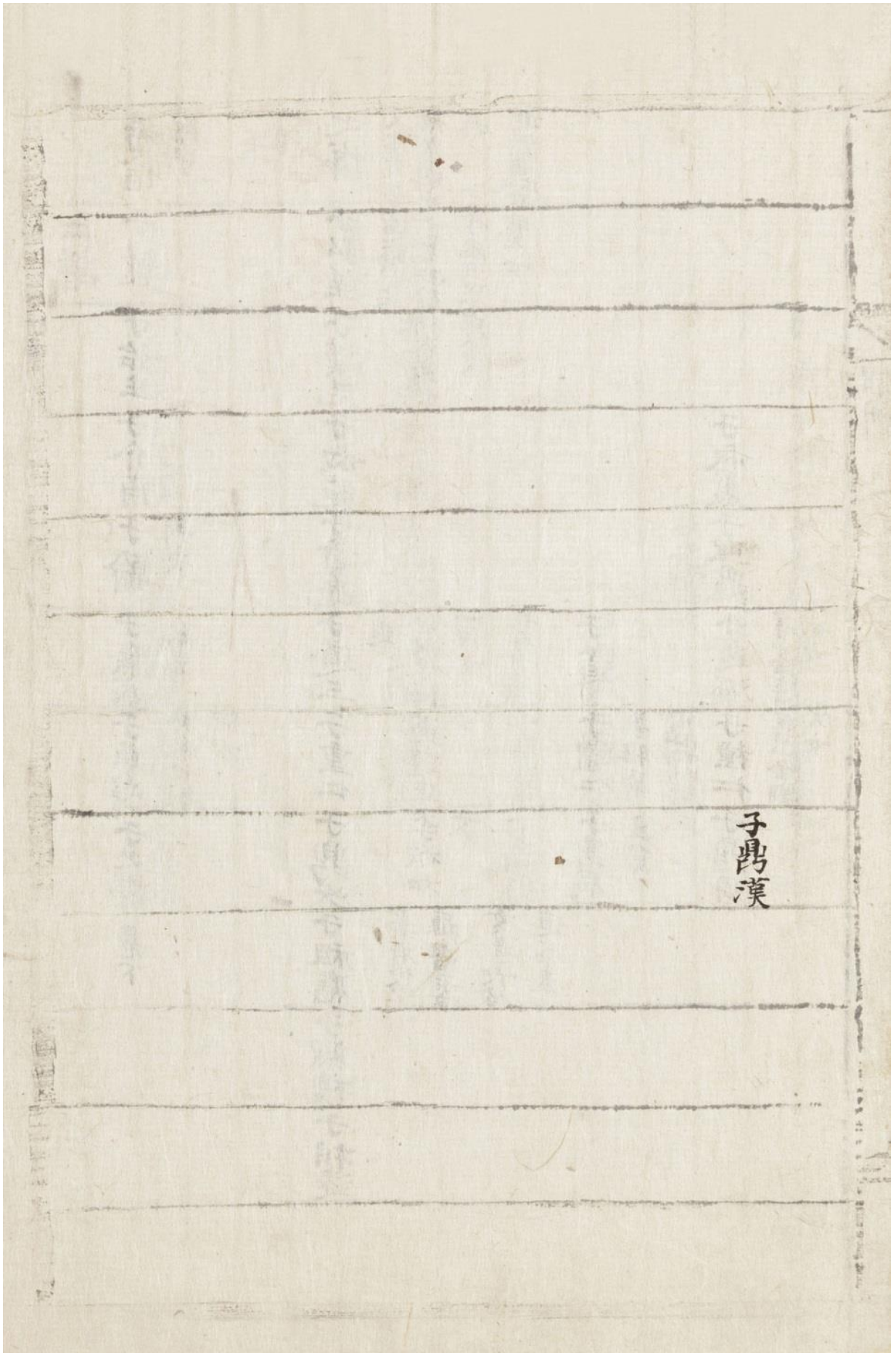
子叔簾子聖龜 子道潑子種仁子鼎周

善山金壽 善山金期 南女 大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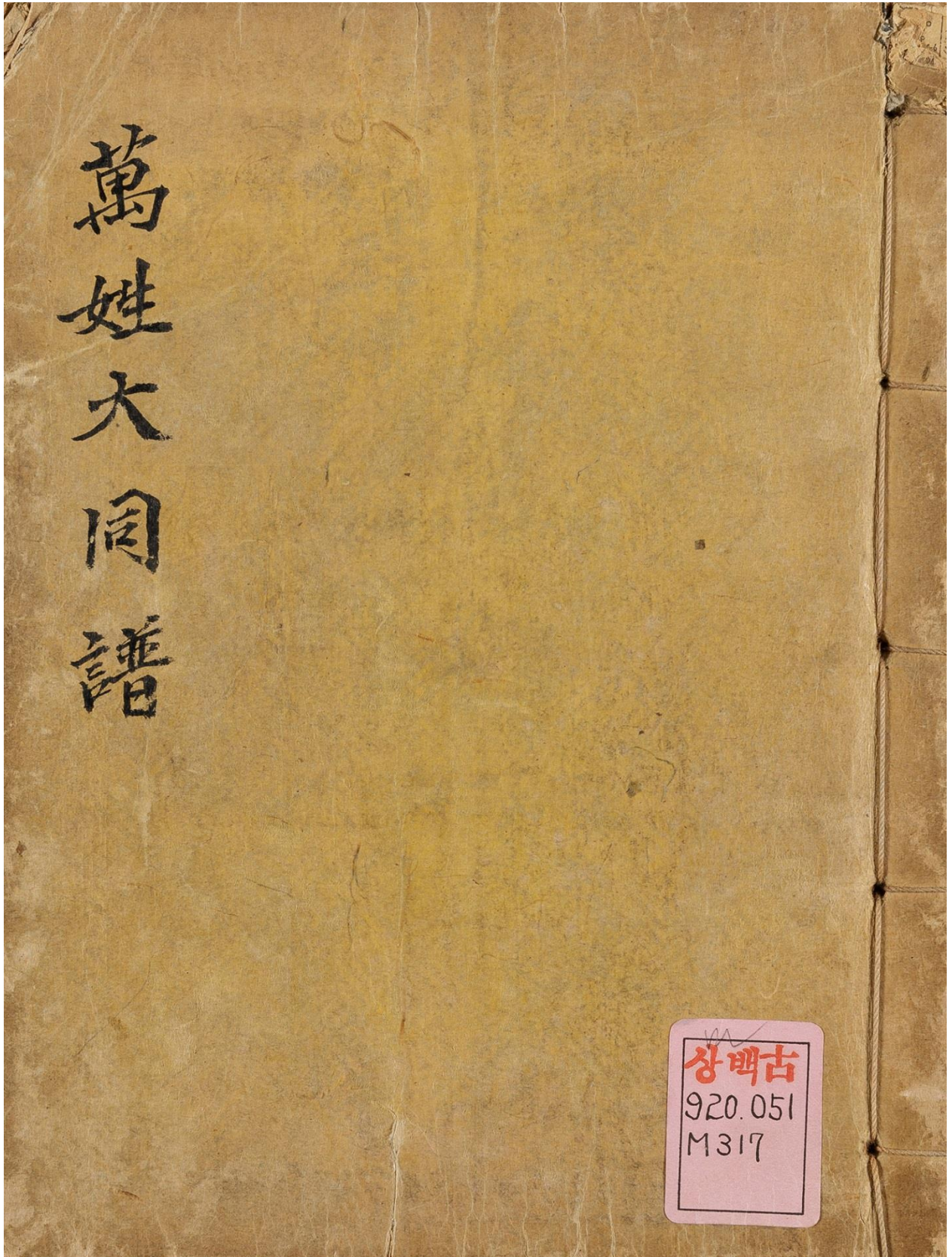
攜州

92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상세서지

원서명	萬姓大同譜	현대어서명	만성대동보
청구기호	想白古920.051-M317	편저자(한자)	萬姓大同譜發行所
편저자(한글)	만성대동보발행소	판본사항	新式活字
간행지	京城(서울)	간행연도	1931年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1冊(零本)
책크기	26×19츠	인기	想白書屋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번호	M/F90-35-30-D, M/F85-16-316-B
자료소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姓氏에 대해 각 本貫별로 대표적인 인물을 추출하여 그들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책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姓氏에 대해 각 本貫별로 대표적인 인물을 추출하여 그들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하권 1책으로 慶州崔氏에서 시작되고 있다.

인적사항의 내용은 字, 號, 주요 경력, 관직, 生沒年, 贈職, 配享 사실, 諡號 등이다. 하권에 수록된 성씨는 崔氏, 柳氏, 洪氏, 申氏, 權氏, 趙氏, 韓氏, 吳氏, 姜氏에서 시작하여 蔣氏, 車氏, 南宮氏, 鮮于氏에 이르기까지 총 77개의 성씨이다.

2字 성씨까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서는 원래 上·下 2책으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영인본(上·下·續)은 바로 이 책을 底本으로 한 것이며, 상·하 2책 중에 빠져 있는 姓氏 및 人物을 보충해 넣은 것이다.

본서는 1924년에 간행된 <<朝鮮人物號譜>> <가람 古 920.051-G429j>와 거의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이러한 책들이 다수 간행된 것은 각 성씨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 그들의 식민통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에서 엮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심)

<b>鷺州申氏</b>			<b>愨</b> 子 定求 子 建休 子 容雨 <small>柳興龜女 沈僱女</small>	<b>愨</b> 子 獻求 子 炳休 <small>文弘提白 李基發女 全州判官 朴受弘女</small>
<b>允</b> 子 祐 子 令富 子 士廉 <small>始 月長 九儒 按廉使</small>	<b>錫</b> 子 俊福 子 壽 子 元祿 <small>始 士廉 判書 進士 教授 文參議</small>	<b>元</b> 子 達道 子 圭 子 晉錫 <small>子 元祿 文修撰 縣監</small>	<b>載</b> 子 台植 子 冕周 子 冕朝 子 冕璜 <small>子 載 子 冕周 子 冕朝 子 冕璜 子 冕璜 子 冕璜</small>	<b>教</b> 子 灑 子 正標 子 光憲 子 必教 <small>子 若雨 子 應錫 子 夏錫 子 灑 子 正標 子 光憲 子 必教</small>
<b>俊</b> 子 壽 子 元祿 子 乾 <small>子 俊 子 壽 子 元祿 子 乾</small>	<b>光</b> 子 晉升 子 得昌 子 允儒 <small>子 光 子 晉升 子 得昌 子 允儒</small>	<b>光</b> 子 貴 子 希信 子 錫 子 命 <small>子 光 子 貴 子 希信 子 錫 子 命</small>	<b>灑</b> 子 正標 子 光憲 子 必教 <small>子 灑 子 正標 子 光憲 子 必教</small>	<b>道</b> 子 聖錫 子 徵錫 子 錫 <small>子 道 子 聖錫 子 徵錫 子 錫</small>
<b>叔</b> 子 貴 子 龜 子 道 子 重仁 <small>子 叔 子 貴 子 龜 子 道 子 重仁</small>	<b>相</b> 子 光範 子 樂教 子 冕禹 子 冕魯 <small>子 相 子 光範 子 樂教 子 冕禹 子 冕魯</small>	<b>相</b> 子 一 子 瑞龜 子 憲教 子 冕禹 子 冕魯 <small>子 相 子 一 子 瑞龜 子 憲教 子 冕禹 子 冕魯</small>	<b>道</b> 子 堦 子 天錫 子 德沃 子 漢老 <small>子 道 子 堦 子 天錫 子 德沃 子 漢老</small>	<b>始</b> 子 介甫 子 翰 子 應奎 子 寅協 <small>子 始 子 介甫 子 翰 子 應奎 子 寅協</small>
<b>命</b> 子 昌 子 眷 子 從渭 子 演 <small>子 命 子 昌 子 眷 子 從渭 子 演</small>	<b>慶</b> 子 男 子 楫 子 泰始 子 維翰 <small>子 慶 子 男 子 楫 子 泰始 子 維翰</small>	<b>慶</b> 子 男 子 楫 子 泰始 子 維翰 <small>子 慶 子 男 子 楫 子 泰始 子 維翰</small>	<b>沃</b> 子 祖應 <small>子 沃 子 祖應</small>	<b>道</b> 子 體仁 <small>子 道 子 體仁</small>

만성대보(萬姓大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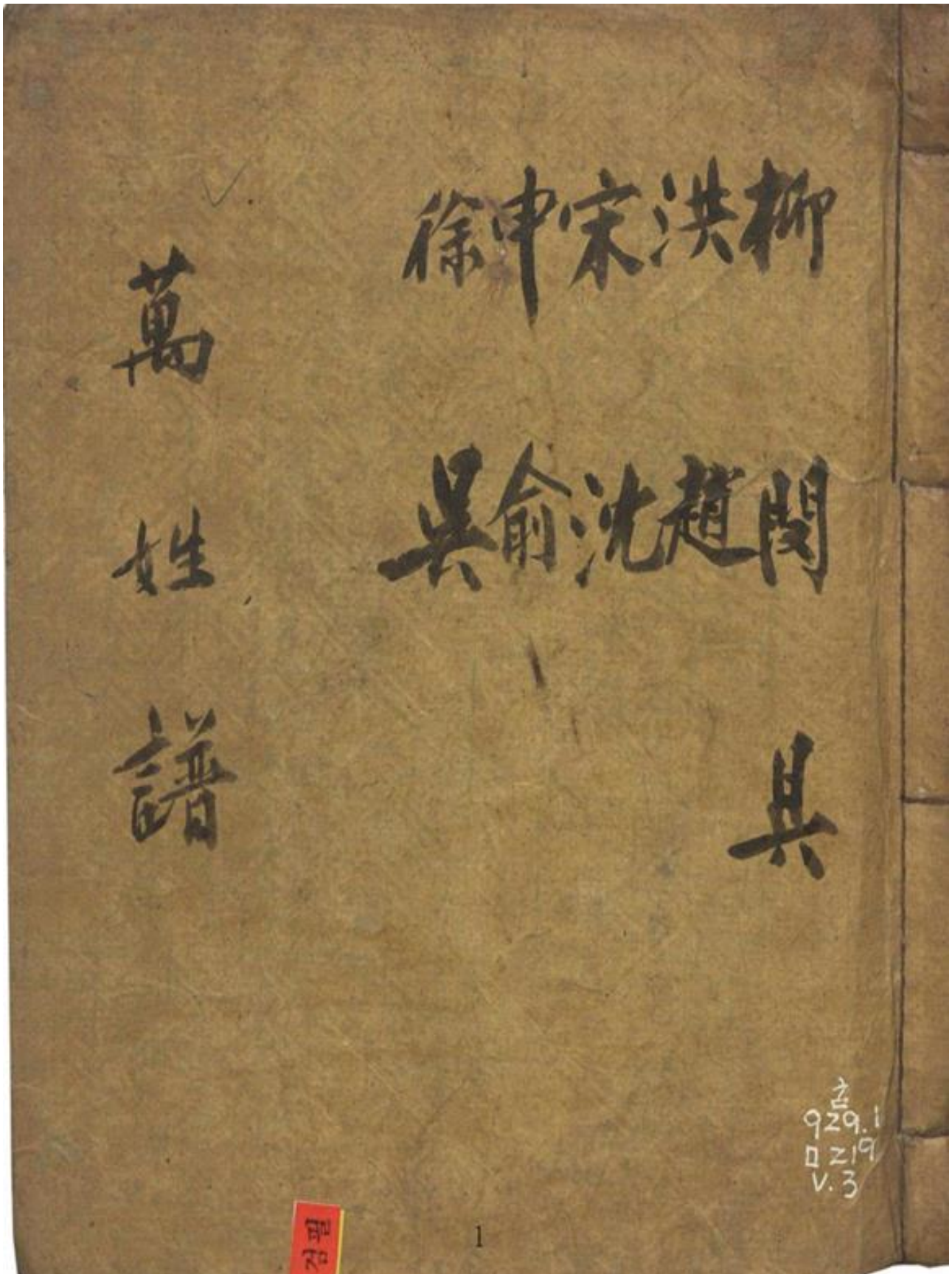
만성대보 萬姓大譜

출판: Salt Lake City, Utah : Digitized by FamilySearch International,

물리적: 1 digital folder : 자손록

光州盧氏	豐川盧氏	安康盧氏	龍城盧氏	安東盧氏	平山申氏	高靈申氏	鵝洲申氏	寧海申氏	天安申氏	利川申氏	信川申氏
始祖盧恕	始祖盧裕	始祖盧紹宗	始祖盧珽	始祖盧永吉	始祖申崇謙	始祖申成用	始祖申英美	始祖申得清	始祖申周錫	始祖申瓊	始祖申贊
監門大將軍後孫守慎文領相贊監文簡	國子進士後孫顯文吏判號玉溪諱文孝	武僉丈後孫魯武兵使號竹月軒	監朝左常侍	監朝版圖判書	太師壯節公後孫顯文左相諱文偉○後孫峻武北兵使贈領相忠壯○後孫濟贈刑曹判書諱武壯	監朝軍器監後孫用諱文左相諱文景○後孫熙相文右相諱履齊諱貞簡	監朝太師後孫乾禁衛將○後孫弘望文持平號椿鳳	文正後孫構文典籍	金紫光祿大夫定簡公	監朝尚書左僕射	監朝三重大臣信川府院君

만성보(萬姓譜)



## 상세서지

자료명	만성보(萬姓譜)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萬姓譜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1740	MF 번호	MF35-1619~162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 정의

19세기경에 필사한 자료로 거의 모든 姓氏에 대해 각 本貫별로 대표 인물을 추출하여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萬姓譜'이며, 版心題와 書根題는 없다. 서명은 淸紙로 된 제첩에 필사하였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十四·十五'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 우측 상단에 '李', '趙'와 같은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共十五'이라는 기록이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圖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12단의 필사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는데, 자색, 황색, 청색 등으로 권점과 비점을 찍거나 도할 또는 첨지를 부착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다. 서미에는 주제어가 나타난다.

## 체제 및 내용

서문과 발문이 없어 編者를 알 수 없다. 제1책에 수록한 璿源世系를 고종 때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世系表는 가로 1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성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姓氏에 대해 각 本貫별로 대표 인물을 추출하여 그들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인적 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字, 號, 생년, 과거, 관직 등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譜學 발달의 영향으로 편찬된 綜合譜이다.

高澤 申祐

高曾祖父判書

全方按厥 史祐考

英美 晉升 得昌 允儒

光宿 士慶 日府

鴨州申氏

宗淮

大洋

滄

文并佐

錫命 俊順 壽

史書

元祿

史書

倫

和

文振陸

法

善沉 地

善

善

滿

沫

景

景

景

文禮

悅

達

適

志

泳

尚

山



達城徐氏

光貴希信軋

外事 邦 由勝

始生介甫翰

應圭

得夢之弟 四聖

大承皆士四子

徐開

判典客 典書 典史 典形

義彌性居廣

彭古厚

欽

演

景績元亮

久

對

渝

景需

回

峻

消

景兩

淵

又判中 景需 極忠前 景霖 乙葉峰

彭昌

倣

崙

浚

稭

居正

又大提孝 文忠子四 佳三子

백씨보(百氏譜)



## 상세서지

원서명	百氏譜	현대어서명	백씨보
청구기호	古929.1-B146-v.1-3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22]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3冊
책크기	31.6×19.9츠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번호	M/F90-35-31-C		
자료소개	여러 姓의 계보를 망라하여 기록한 종합족보 형태의 책		

<1>古 929.

1-146 <2>想白 古 920.

051-146편자미상, 연기미상<1>3책(영본), 필사본, 31.

6×19.

9cm,<2>1책(영본), 필사본, 31.

3×19.

8cm.

여러 姓의 계보를 망라하여 기록한 종합족보 형태의 책.

각 장에 16줄의 횡선을 그어 세대를 구분하였다.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특기할 사항을 간단하게 적었고, 그밖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름만을 적고 관직이나 進士 여부만을 적었다.

<1>본은 제 1책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락되었는데 내용상 <2>본이 <1>본의 제 1책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즉 <1>본과 <2>본이 합하여 완질을 이루고 있다.

각 姓별로 모은 다음 본관별로 분류하였는데 전체의 첫번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2>본에는 李氏가, <1>본의 제 3책에는 金·鄭·洪·朴, 제 4책에는 權·沈·柳·趙·韓·尹·申·許·崔氏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 2책에는 기타의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최연식)

申來鵝

	壽	申美	鵝		滄
年	元祿 <small>名出晉 悔重</small>	晉升	州	混 <small>名 於菴</small>	起漢 <small>巨亨 在商賤</small>
	達道 <small>名出 名出</small>	得晉	中	美溫 <small>名 女山</small>	濡 <small>名 名 名</small>
	堃 <small>名 名</small>	久儒	氏	潢	善洗 善涵 <small>却子</small>
	晉錫 <small>名 名</small>	祐			滄 滄
	德溢	光福		景源	景洵 景洙 <small>直</small> 景汶 <small>直</small>
	重權 <small>直</small>	希侯 <small>名 名</small>	大源	漱 <small>直</small>	宅權 <small>名 名</small>
	曠	訖 <small>直</small>	錫命	廢祿	顯祿 <small>直</small>
	愈教	始生 <small>名 名</small>	俊碩壽		應植 <small>名 名</small>
進	冕周 <small>名 名</small>	介甫		射北 <small>名 名</small>	萬求 <small>名 名</small>
				永休 <small>名 名</small>	炳休 <small>名 名</small>

分甫翰

陽

州

許氏

應奎

得受

之隔

弘聖

漢老

北範

貢龜

道三

重仁

鼎沃

諱文孫載

從

利涉

宗

遂

祺

冠

伯

綱

綱

綿

情

扉

蓀

祿

確

洽

魁

名親字

寺曰

梅拜

本館地仕

長士足寺

兼州相

聖智裕

平章

兼州相

兼州相

世老竟死

平章

世老竟死

世老竟死

世老竟死

礎

別

綱

五

淨

兩

四

厚

愛

三

沉

雲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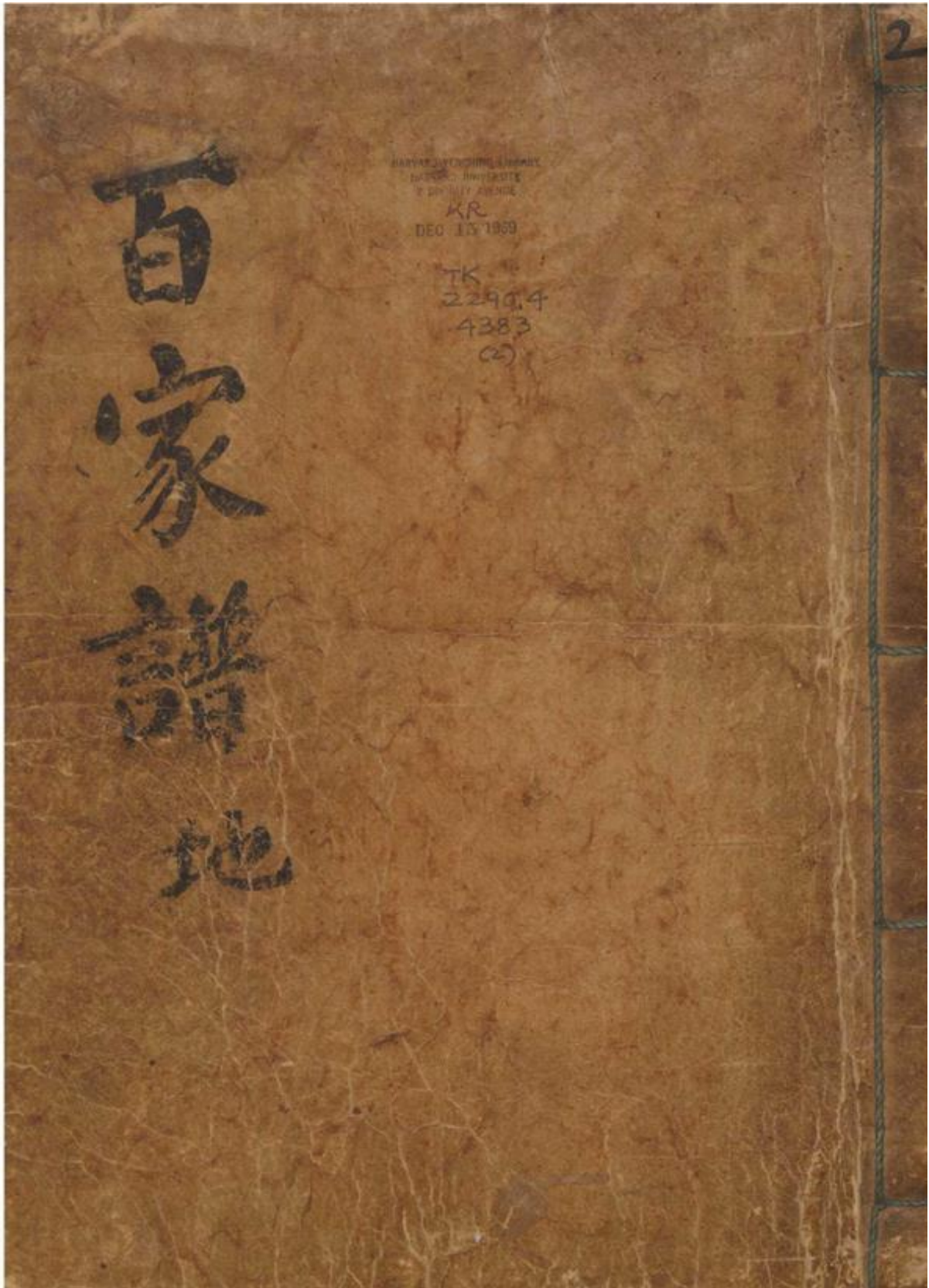
一

道万

體仁

鼎辰

백가보(百家譜)



상세서지

백가보(百家譜)

---

**표제/저자사항** 百家譜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JPG3 冊; 34.5 x 23.9 cm

**주기사항** 개인의 이름 옆에 관직에 따른 유색기호를 이용하여 표시( 文, 武, 蔭, 司馬의 관직명에 생몰년을 기입함)

원본소장처 : 하바드엔칭도서관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778724

표제/저자사항 百家譜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JPG3冊; 34.5 x 23.9 cm

주기사항 개인의 이름 옆에 관직에 따른 유색기호를 이용하여 표시( 文, 武, 蔭, 司馬의 관직명에 생몰년을 기입함)

원본소장처 하바드엔칭도서관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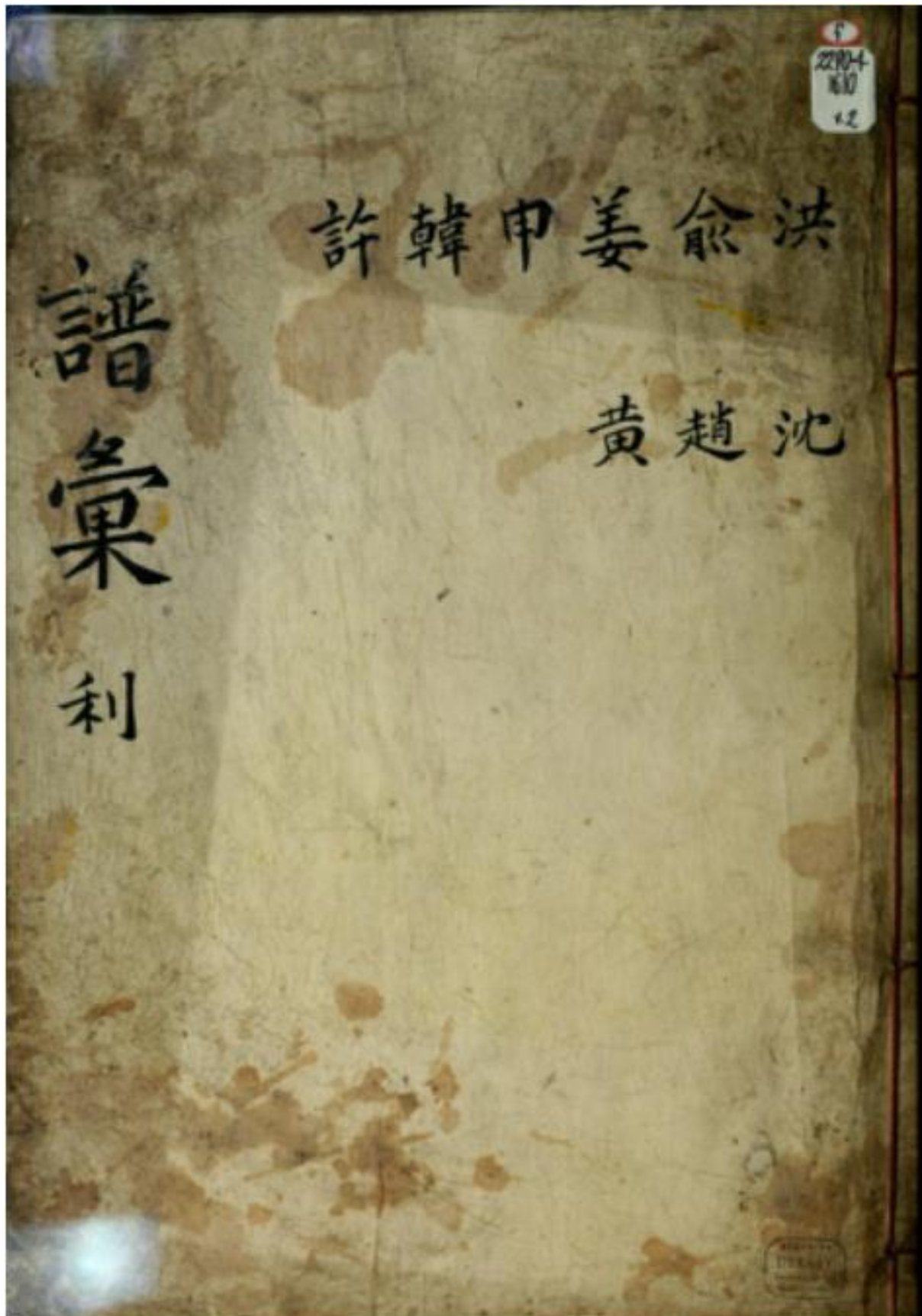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778724

壽	中英美 戶長	中	漢	澹	澆
元福	元福泰	得	起漢	起漢	得
悅	悅	申氏	混	混	混
坤	坤	名儒	善源	善源	善源
徽錫	徽錫	光富	灑	灑	灑
德漢	德漢	錫命	灑	灑	灑
一標	一標	後楨	灑	灑	灑
光	光	壽	灑	灑	灑
致教	致教	今甫	灑	灑	灑
弘教	弘教		灑	灑	灑
鳳朝	鳳朝		灑	灑	灑



命甫	洪殷悅	奎	子藩	溟	判尹
翰	南陽	戎	順	師錫	汝知中
應奎	洪氏	彦敵	云遂	秀涓	司渠
滂得	灑	復	有龍	貴孫	董軍
之悅	德升	漢升	以平		
和望	灌	世運	德演	德濬	德瀛
漢老	至柔	五行	仁祐	仁範	仁健
元中	元中	芬	迪	迪	迪
斯胤	斯胤	仁弼	汝亮	汝亮	汝亮
縉書	縉書	潤	有燭	有燭	有燭
奎	奎	惟中	有壽	有壽	有壽
			有景	有景	有景
			景瀛	景瀛	景瀛
			景河	景河	景河
			景洛	景洛	景洛
			精	精	精
			一	一	一
			瑗	瑗	瑗

보취(譜彙)



## 상세서지

## 기본정보

- 분류           고서-족보 | 사회-가족/친족-족보 | 사부-계보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3冊(全4冊) :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 41.8 X 28.2 cm
- 주기사항      所藏本: 亨冊, 利冊, 貞冊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2290.4.1610

## 안내정보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112개 가문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만성보(萬姓譜)이다. 만성보(萬姓譜)는 모든 성관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씨족보가 특정 성씨의 혈통관계를 밝힌 것이라면 만성보는 모든 성관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모든 성관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는 만성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만성보(萬姓譜)를 비롯해서 백성보(百姓譜), 천성보(千姓譜), 만가보(萬家譜), 백가보(百家譜), 성휘(姓彙), 보휘(譜彙) 등이 그것이다.

## 편저자사항

『보휘(譜彙)』는 조선후기 족보 가운데 모든 성씨의 계보를 기록한 만성보(萬姓譜)로 편저자는 미상이다. 만성보의 경우 원소장처를 알지 못하면 편저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필사본으로 개인 소장본이기 때문에 편저자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휘(譜彙)』의 경우 서문과 발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으로 개인 소장본이기 때문에 편저자를 확인할 수 없다.

## 구성 및 내용

『보휘(譜彙)』는 원래 원(元)·형(亨)·리(利)·정(貞) 4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첫 번째 책인 원(元)이 결본된 상태이다. 첫 번째 책인 원(元)권에는 이(李) 등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책인 형(亨)권에는 56개 가문이 기록 정(鄭), 김(金), 박(朴), 류(柳), 성(成), 민(閔), 신(愼), 라(羅), 우(禹), 도(都), 곽(郭), 변(邊), 전(全), 변(卞), 하(河), 손(孫), 문(文), 금(琴) 등 56개 가문이 기록되어 있다.

세번째 책인 리(利)권에는 홍(洪), 유(兪), 강(姜), 신(申), 한(韓), 허(許), 심(沈), 조(趙), 황(黃) 등 22개 가문이 수록되어 있다. 1권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네 번째 책인 정(貞)권에는 남(南), 최(崔), 안(安), 권(權), 조(曹), 윤(尹), 원(元), 장(張), 정(丁), 목(睦), 채(蔡), 노(盧), 서(徐), 오(吳), 임(林) 등 34개 가문이 기록되어 있다.

## 보휘(譜彙)

특히 안동 권씨의 분량이 44쪽에 이르고 있어서 단연 타 성관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한편 결본된 책 원(元)권에는 이(李) 등의 성씨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권 뒷부분에 전주 이씨 부분이 몇 장 낙질의 형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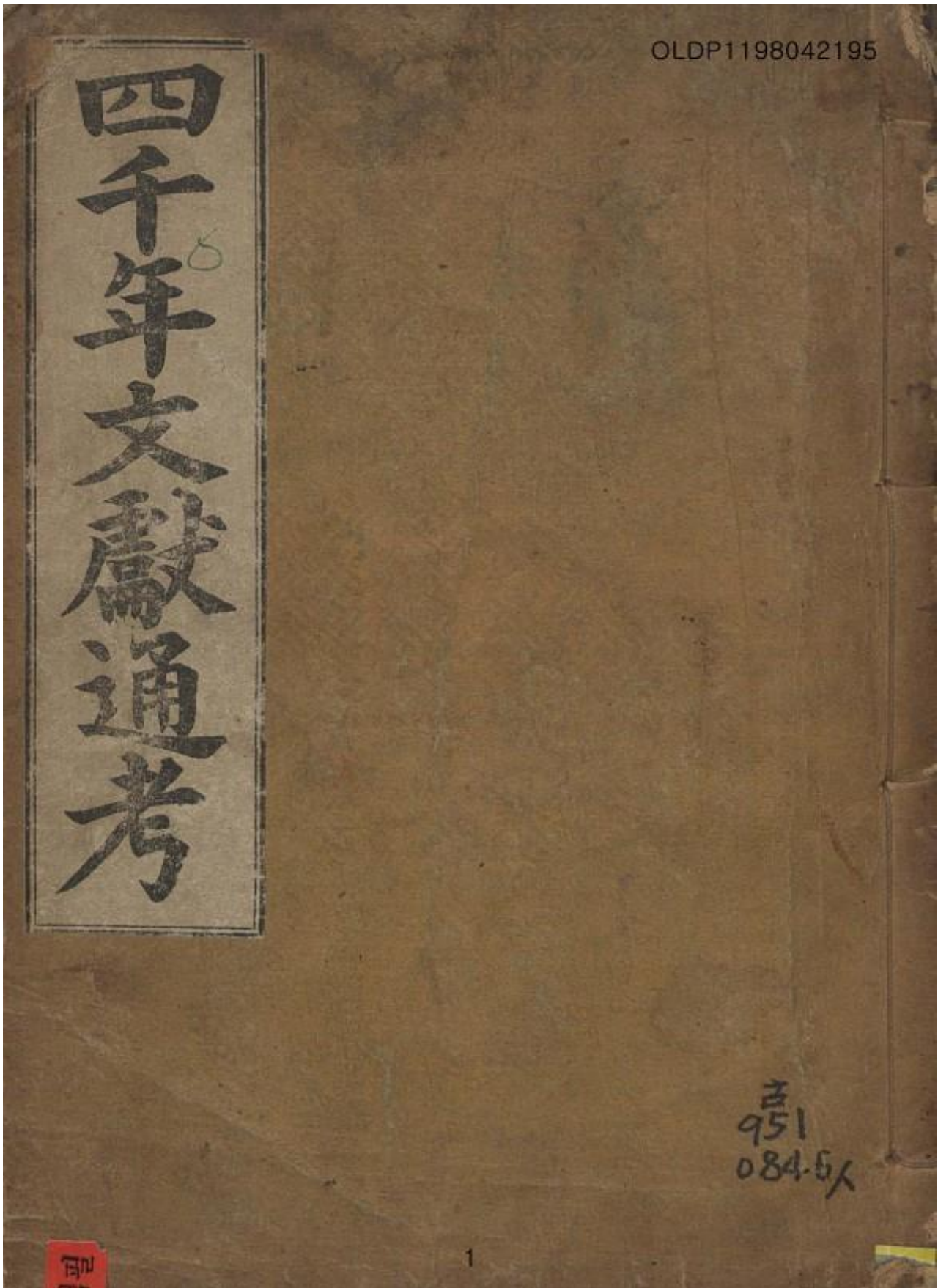
『보휘(譜彙)』는 가로 24칸으로 나누고 각 성씨별로 계보를 기록하였다. 각 인물에 대해 과거와 관직, 그리고 처부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요 인물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여 보다 상세하게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 내용적 가치

『보휘(譜彙)』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만성보(萬姓譜)이다. 만성보(萬姓譜)는 모든 성관의 혈통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만성보는 자기 집안의 족보뿐만 아니라 타 가문의 족보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보학(譜學)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만성보는 보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만성보를 통하여 해당 가문의 내력을 알고 특정 인물의 가계 배경을 파악하였다. 족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혼인 등을 위해 상대의 가계를 이해하고, 가문의 족보를 편찬하는 데에도 만성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만성보는 각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 비해 상세함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어느 집안 이건 그 계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清州韓氏 韓頴 <small>三韓公</small> 校尉 同止 直長	光贊 <small>春奉</small> 存信 <small>厚學</small> 訖 <small>四禁</small> 招生 介甫 <small>道直</small> 翰 <small>別名</small> 應榮 <small>春奉</small> 得慶 之佛 <small>文集</small> 弘望 <small>文集</small> 漢老 叔範 前龜 道元 述仁 鼎慶 祖憲 熙圭	鵝州中氏 中葵 晉什 得昌 允儒 佑 俊稷 <small>教授</small> 奇 元棟 <small>文舉</small> 仁 達道 <small>文謙</small> 主 晉陽 悅道 <small>文謙</small> 珠 文錫 德益 重模 <small>遊</small> 煥 弘教 冕朝 應煬 恭植	休錫 德滿 學模 德永 應錫 瀨 煥 光憲 必教 冕旗 冕周 命協 冕周 命協	韓頴 <small>三韓公</small> 校尉 同止 直長 檢校 <small>禮賓府</small> 廉 <small>文舉</small> 謝奇 <small>文集</small> 溼 <small>文集</small> 大淳 藏 <small>文集</small>	光贊 <small>春奉</small> 存信 <small>厚學</small> 訖 <small>四禁</small> 招生 介甫 <small>道直</small> 翰 <small>別名</small> 應榮 <small>春奉</small> 得慶 之佛 <small>文集</small> 弘望 <small>文集</small> 漢老 叔範 前龜 道元 述仁 鼎慶 祖憲 熙圭	鵝州中氏 中葵 晉什 得昌 允儒 佑 俊稷 <small>教授</small> 奇 元棟 <small>文舉</small> 仁 達道 <small>文謙</small> 主 晉陽 悅道 <small>文謙</small> 珠 文錫 德益 重模 <small>遊</small> 煥 弘教 冕朝 應煬 恭植	休錫 德滿 學模 德永 應錫 瀨 煥 光憲 必教 冕旗 冕周 命協 冕周 命協
--	--	--	--	---	--	--	--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



## 상세서지

자료명/저자사항 四千年文獻通考, 全 / 李定求 編著

발행사항 京城 : 東明社, 1926

청구기호 古 951 ○846스

자료실 [국회도서관 서울 본관] 귀중서고(1층 대출대) 판사항 鉛印本

형태사항 1冊 ; 23.1 x 15.7

제어번호 OLDP1198042195

주기사항 序: 弗須子尹寧求書 刊記: 大正十五年(1926)七月二十六日再版發行

본 자료는 우리나라 4천년의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물, 유적, 문화,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로 토를 달아 놓았다.

관상대의 연혁 등 일기와 천문을 측정하는 역상대의 역사와 기록 그리고 오늘날 시간을 전해주는 시계 기능을 하는 혼천의 등의 연혁, 과거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각 왕조시대 국가의 영토 경계와 각 군 단위의 경계, 또 우리나라의 각 연대별 편년체 역사자료, 각 성씨의 시조와유래, 종묘 사직, 궁묘, 제단, 훈민정음, 종교, 과거, 군제도, 법률제도 등 우리 역사에 일어나거나 만들어져 반포되거나 시행된 모든 문물 제도가 실려있다.

이 책은 이정구(李定求)의 저작으로 1926년 4월 17일 동명사(東明社)에서 발행되었다. 저작자인 이정구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으나, 책의 앞머리에는 이강송, 화산인 김영한의 추서(追書)와 윤영구(尹寧求)의 서문이 들어 있다. 이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子曰 殷因於夏 周因於殷 所損益可知 又曰 杞宋之不徵 文獻不足故也. 一代 猶然 況屢百世紀乎 我朝鮮 自檀箕至于今四千年 文獻實彬彬 然編輯不一 未能集大成史 往往闕文 往年備考增補 不可謂不詳 而今此通考以爲名者 其亦 盡美盡善之意歟 述而不作 雖不敢擬 若通鑑通紀之體裁 則未有不可 故不揆 浩繁 衰成一部 名之曰四千年文獻通考 噫 一身一家尙有史 況於一邦乎 噫 後之人 毋或曰書契不可考 故爲之序 弗須子 尹寧求 書

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헌 고증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비록 고증하고자 하나 그것을 풀어 고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또한 서문에서는 ‘문헌통고’라는 이름 자체가 ‘문헌비고’

에서 유래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융희2년에 완간된 『증보 문헌비고』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考	內 容
曆象考	曆象沿革, 儀象, 晨昏大鐘
版圖考	歷代國界, 郡縣沿革, 山川
氏族考	曆代紀年, 各姓淵源
禮考	社稷, 宗教, 附配享諸臣, 宮廟, 諸壇
樂考	歷代樂制, 律呂製造, 訓民正音, 度量衡
兵考	制置, 宿衛, 符信, 教閱, 衛兵, 舟師, 軍資糧餉, 邊禁, 烽燧, 驛遞, 撥站
刑考	刑制, 臧律, 治盜, 禁制, 議讞, 恤刑
田賦考	經界, 籍田, 職田, 廩田, 屯田, 務農, 租稅, 貢制, 大同
財用考	國用, 漕運, 魚鹽, 錢貨
戶口考	歷代戶口, 號牌
市糶考	市, 糶糶, 賑恤
交聘考	歷代交聘
選舉考	科制, 武科, 雜科, 銓注, 薦用
學校考	太學, 文廟, 幸學, 興學, 培養, 闕異, 學官, 學令, 四學, 鄉學, 各道祠院
職官考	歷代官制, 耆社, 宗親, 相府, 六曹, 臺省, 館閣, 諸司, 武職, 權設職, 外官, 外武官
藝文考	歷代書籍, 歷代著述, 史記, 御製, 儒家類, 文章類, 歌曲類

표에 나타난 것처럼 16고(考)의 체계에서 기존의 문헌을 고증하여 국



한문으로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가로 16cm, 세로 23cm의 2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개인 편찬의 문헌 고증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 고증의 전통은 『논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삼대의 예법을 짐작할 수 있으나 문헌이 부족한 까닭에 이를 증명하지 못함을 탄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양의 전통 학문은 도서(圖書)의 성격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로 ‘육예(六藝), 제자(諸子), 시부(詩賦), 병(兵), 술수(術數), 방기(方技)’의 여섯 가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체계가 『수서(隋書)』 ‘경적지(經籍誌)’에 이르러서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 체계로 확립되었다. 특히 ‘경적지’의 ‘사(史)’에서는 각종 형식의 역사류가 포함되었는데, ‘정사(正史), 고사(古史), 잡사(雜事), 패사(霸史), 기거주(起居注), 구사(舊史), 잡전(雜傳)’ 등의 역사류와 ‘직관(職官), 의주(儀注), 형법(刑法), 지리(地理), 보계(譜系), 박록(簿錄)’ 등의 제반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도서 분류 및 학문 체계의 완성된 형태가 18세기의 『사고전서(四庫全書)』인 셈이다.

사화(史話)와 마찬가지로 문헌 고증은 서사와 역사의 간극을 메우는 좋은 수단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문헌 고증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1770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의 편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의도를 갖고 있던 이 책은 정조 때 증수되어 『증보 동국문헌비고(增修 東國文獻備考)』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개항 이후 지식의 급증에 따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3)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문헌 정리의 전통은 지식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특히 서사 발달과 지식의 대중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헌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천년문헌통고(四千年文獻通考)』는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난 저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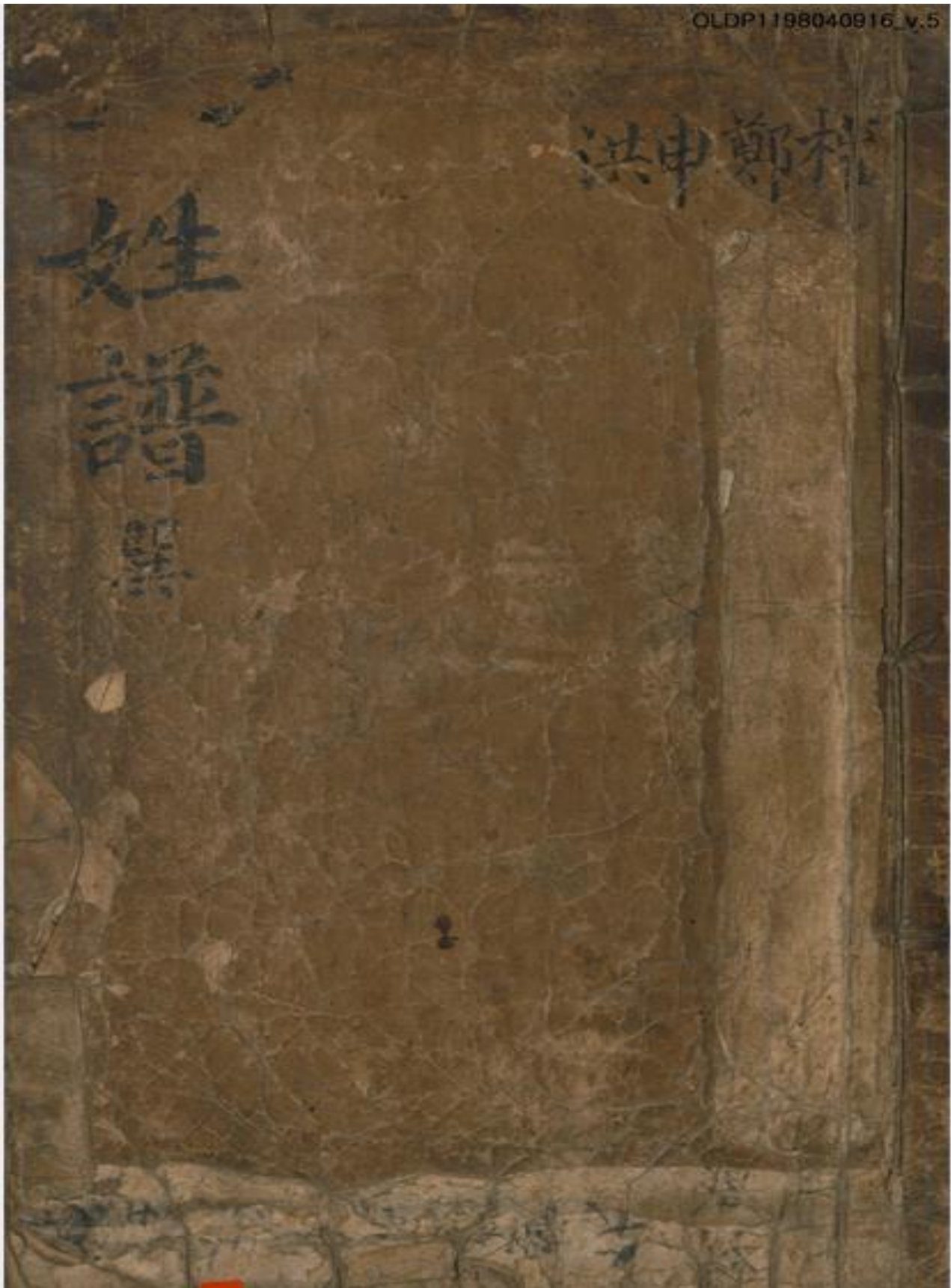
책의 '서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천년 간의 문헌이 빈번 하나 편집이 하나같지 않아서 능히 사서를 묶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전의 비고나 증보(이는 『증보문헌비고』까지의 문헌 정리를 의미함) 또한 상세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책의 이름을 '문헌통고'라고 한 까닭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책은 모두 16고(考)로 『증보 동국문헌비고』의 20고 가운데 '궁실, 왕계, 조빙, 물이고'가 빠져 있다. 그 까닭은 통감시대인 1908년(융희2년)에 완성된 『증보문헌비고』의 체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旌善柳氏○高城柳氏○杆城柳氏○金城柳氏○蔚珍柳氏○楊口柳氏○海州柳氏○西河柳氏○平山柳氏○鳳山柳氏○安岳柳氏○金川柳氏○兎山柳氏○咸興柳氏○登州柳氏○義州柳氏○江界柳氏○陽德柳氏○文海柳氏○山東柳氏○監州柳氏○馬山柳氏○城津柳氏○熙陽柳氏○

洪氏 南陽洪氏始祖殷悅高麗太師、洪厚麟州都領一派、洪澗禮吏一派、洪先峯金吾衛別將一派、洪涓總郎一派、洪福邦署令一派、洪義元禮儀正郎一派○豐山洪氏始祖之慶高麗國子直學이러○岳溪洪氏始祖蘭侍中이러世傳自南陽分派云、洪佐直長一派○開寧洪氏始祖成遠禮賓注簿同正、洪員現叅議一派○懷仁洪氏始祖延甫、曾孫允成領議政이러○慶州洪氏始祖得呂이러○洪州洪氏始祖規高麗功臣大匡이러○義城洪氏始祖儒高麗太師이러○豐川洪氏始祖元烈이러○開城洪氏○漢陽洪氏○豐壤洪氏○廣州洪氏○坡州洪氏○坡平洪氏○水原洪氏○利川洪氏○高陽洪氏○安山洪氏○陽川洪氏○陽城洪氏○忠州洪氏○西原洪氏○公州洪氏○清風洪氏○林川洪氏○丹陽洪氏○韓山洪氏○天安洪氏○溇陽洪氏○大興洪氏○居邊洪氏○林壤洪氏○酒城洪氏○青陽洪氏○清安洪氏○藍浦洪氏○全州洪氏○紆州洪氏○羅州洪氏○潘南洪氏○濟州洪氏○南原洪氏○益山洪氏○淳昌洪氏○南平洪氏○長水洪氏○鎮安洪氏○安東洪氏○尙州洪氏○晉州洪氏○達城洪氏○昌原洪氏○金海洪氏○密陽洪氏○善山洪氏○青松洪氏○仁同洪氏○順興洪氏○咸興洪氏○豐基洪氏○永陽洪氏○興海洪氏○居昌洪氏○達島洪氏○茂飲洪氏○下活洪氏○今勿刀洪氏○上烏知洪氏○宜寧洪氏○咸昌洪氏○玄風洪氏○義興洪氏○原州洪氏○寧越洪氏○平海洪氏○洪川洪氏○黃州洪氏○海州洪氏○延安洪氏○鹽州洪氏○鳳山洪氏○牛峯洪氏○白川洪氏○文化洪氏○殷栗洪氏○登州洪氏○派川洪氏○德源洪氏○義州洪氏○洪原洪氏○定州洪氏○朝陽洪氏○孟山洪氏○洪山洪氏○鶴林洪氏○順陽洪氏○晉平洪氏○豐陵洪氏○金鶴洪氏○南城洪氏○

申氏 平山申氏始祖崇謙高麗太師壯節公이러○高靈申氏始祖成用文檢校軍器監이러○殷豐申氏始祖承休本平山人密直副使、申仁適密直使一派이러○天安申氏始祖周錫太保定簡公이러○利川申氏始祖瓊尙書○鵝州申氏始祖英美楸知戶長이러○信川申氏始祖贊信川府院君이러○寧海申氏始祖得清判事이러○谷城

성보(姓譜)



상세서지

자료명/저자사항 姓譜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 編著者未詳  
발행사항 [ 발행지불명 ] : [ 발행처불명 ], [ 연기미상 ]  
청구기호 古 929.2 ㅅ 239  
자료실 [국회도서관 서울 본관] 귀중서고(1 층 대출대)  
판사항 筆寫本  
형태사항 8 冊 ; 35.6 x 21.8 cm  
제어번호 OLDP1198040916  
주기사항 書名: 表題에 依함  
所藏印: 「星谷家藏」

鶴申				
			他	
		子仁鶴		鶴申氏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子瑞		子正

馬申

本原

馬壽春

馬悅春

馬師春

馬秋春

馬漢

馬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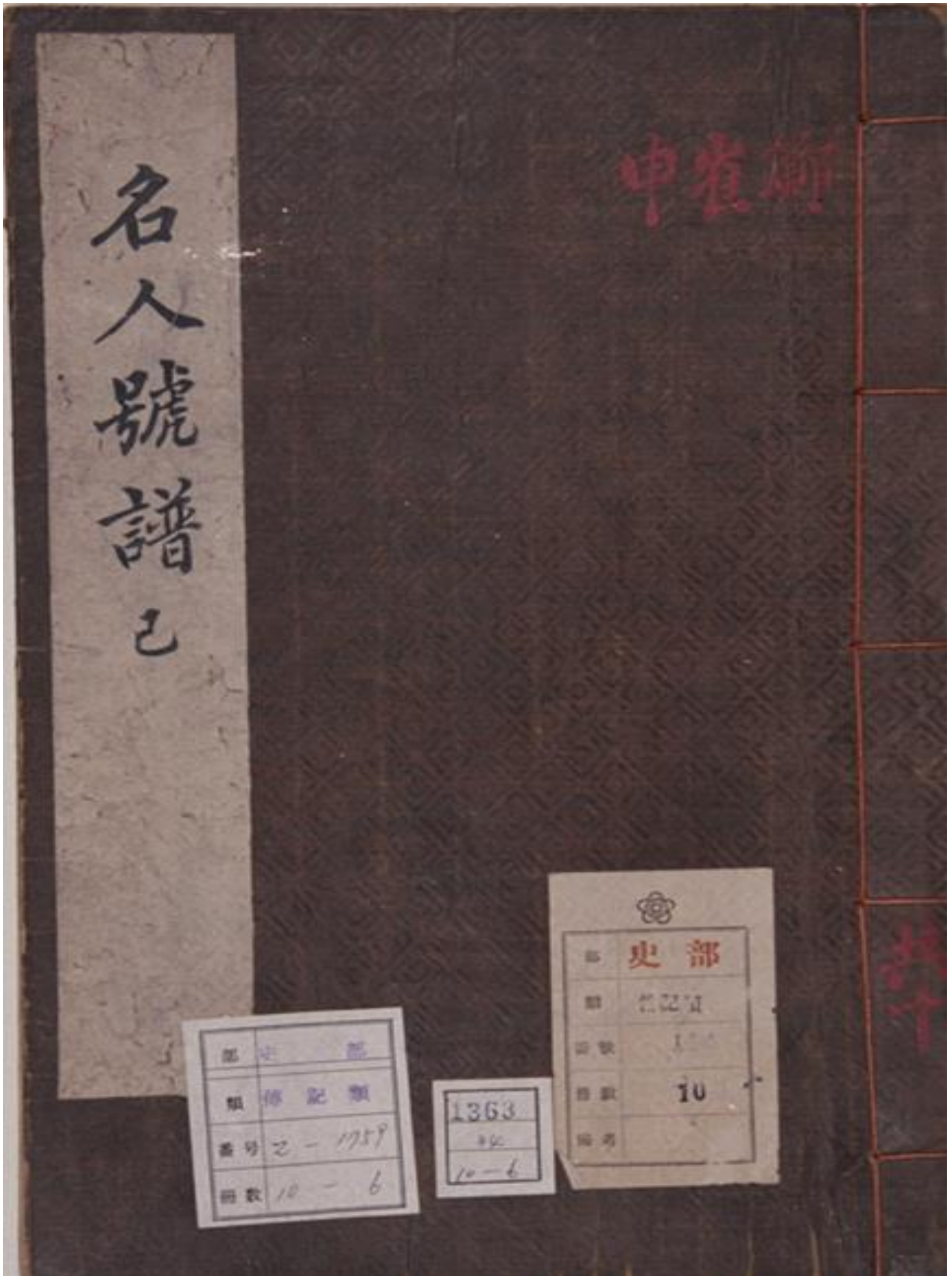
馬

馬

馬

馬

성호보휘(姓號譜彙)





상세서지

자료명	성호보휘(姓號譜彙)	저자	이용민(李容民)
자료명(이칭)	姓號譜彙 , 성호보휘(姓號譜彙n10책)	저자(이칭)	李容民(朝鮮) 編 , 이용민(조선) 편(李容民(朝鮮) 編)
청구기호	K2-1759 MF번호 MF35-656~65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크기(cm)	32.7 X 21.3
판본	필사본(筆寫本)	장정	선장(線裝)
수량	10권(卷) 10책(冊)(전(全) 12책(冊))	판식	반곽(半郭) 23.0×15.4cm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정의

李容民이 姓實別로 중요 인물들의 號와 이름을 정리하고 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붙인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갈색으로 回紋이다. 서명은 종이 제침에 필사하였다. 表紙 書名은 '名人號譜'이며, 版心題는 없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甲·乙·丙.....己·庚·辛'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 우측 상단에 주색으로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주색으로 '共十'이라는 기록이 있다. 書根에는 書根題나 冊次 없이 편명만 기재되어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하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상하향1엽화문어미의 목판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는데, 서미와 본문에 흑색, 청색, 주색으로 교정하거나 비점을 찍은 부분이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체제 및 내용

편자 이용민은 號가 蓬波이고 湖西 地方의 儒生임을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편찬 연대는 本書의 여러 序 중 癸丑年에 쓰여진 것이 많고 본문에 哲宗이라는 廟號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3년(癸丑)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頭註와 붉은색과 검은색 글씨로 내용을 교정한 부분이 전체에 걸쳐 있다.

첫 부분에 尹商鉉, 姜夏馨 등이 찬한 序를 싣고, 이어 凡例와 總目을 제 시하였다. 이전의 號譜가 대개 堂齋菴軒 등 號에 쓰인 글자를 기준으로 분류했으나 이 책은 姓氏別로 구분했기 때문에 찾아보기 편리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각 姓氏를 本實別로 號와 姓名을 적고 그 아래 字, 本 貫, 父子·婚姻 등의 姻戚關係, 師友關係, 入仕經路, 歷任官職, 최고 도달 官職, 諡號, 文集 등 著述有無, 技長, 행적, 기타 특기 사항을 가능한 대로 수록하였다. 수록 인물은 朝鮮時代의 인물이 대부분이다. 권10 끝

## 성호보휘(姓號譜彙)

부분에는 附錄으로 閨媛 條와 名釋 條를 붙여 李玉峰·惠勤 등 이름난 여성들과 승려들을 姓氏의 구별 없이 수록했다.

권1~2에는 李, 권3에 金, 권4에 朴·趙, 권5에 洪·尹·柳, 권6에 鄭·崔·申, 권7에 權·韓·宋·南·沈·閔·吳, 권8에 安·姜·成·任·黃·許·兪·徐, 권9에 林·曹·張·蔡·盧·魚·河·呂·白·睦·愼·奇·高·梁·丁·嚴·禹·郭, 권10에 孫·文·卞·辛을 비롯한 62개 姓氏의 인물을 싣고 있다. 그리고 권11~12는 類考라 하여 1인이 여러 號를 가진 경우 등을 정리했다고 하나 이 부분은 결락이다.

### 특성 및 가치

이 책은 일종의 인명사전이다. 같은 종류의 책으로 규장각 도서 『堂號備攷萬姓氏譜』가 있다.

瘦竹堂申

祐

字有孝行

鶴洲人權知戶長美美后

廬墓三年朝夕號哭二竹生墓前

旌閔事載三綱行實及輿地

早任周傳命堂至孝謹固仁厚上憲中

晦

堂申元祿

字文科官止監司

子瘦竹堂祐六世孫

享我城藏待院

懶齋申悅道

字晉浦官止

子梅堂元祿孫

寒岡門人

梧峰申之悌

字順甫夢得子

懶齋悅道族

任名義城國宗十七年

世○享  
公藏待院

○有文集行于

養一堂申之益

字舜舉

子梧峯之悌從弟

有學行在菴撰行狀事在三綱錄○享清

州偷  
岩院

孤松申弘望

字望夫精峯之悌

正言○必有文集

仁祖朝科官止

松坪申

缺

字子長之悌

子養一堂之益從子

有孝行生旌閣

仁祖朝科官止

龍厓申應恭

字吉來 尤蒼門人

○講道林泉所著有近思錄四書

提要圖天 命太極圖

海寧

河陰申

楫

字文涉 宣字補 寧海人

處士活子

晴川申維翰

字爾宗 朝泰來子

出后泰始以製述官入日本有

海遊錄以文章名詩多絕唱詞 款亦奇 涵異崔杜機為知已 夜自是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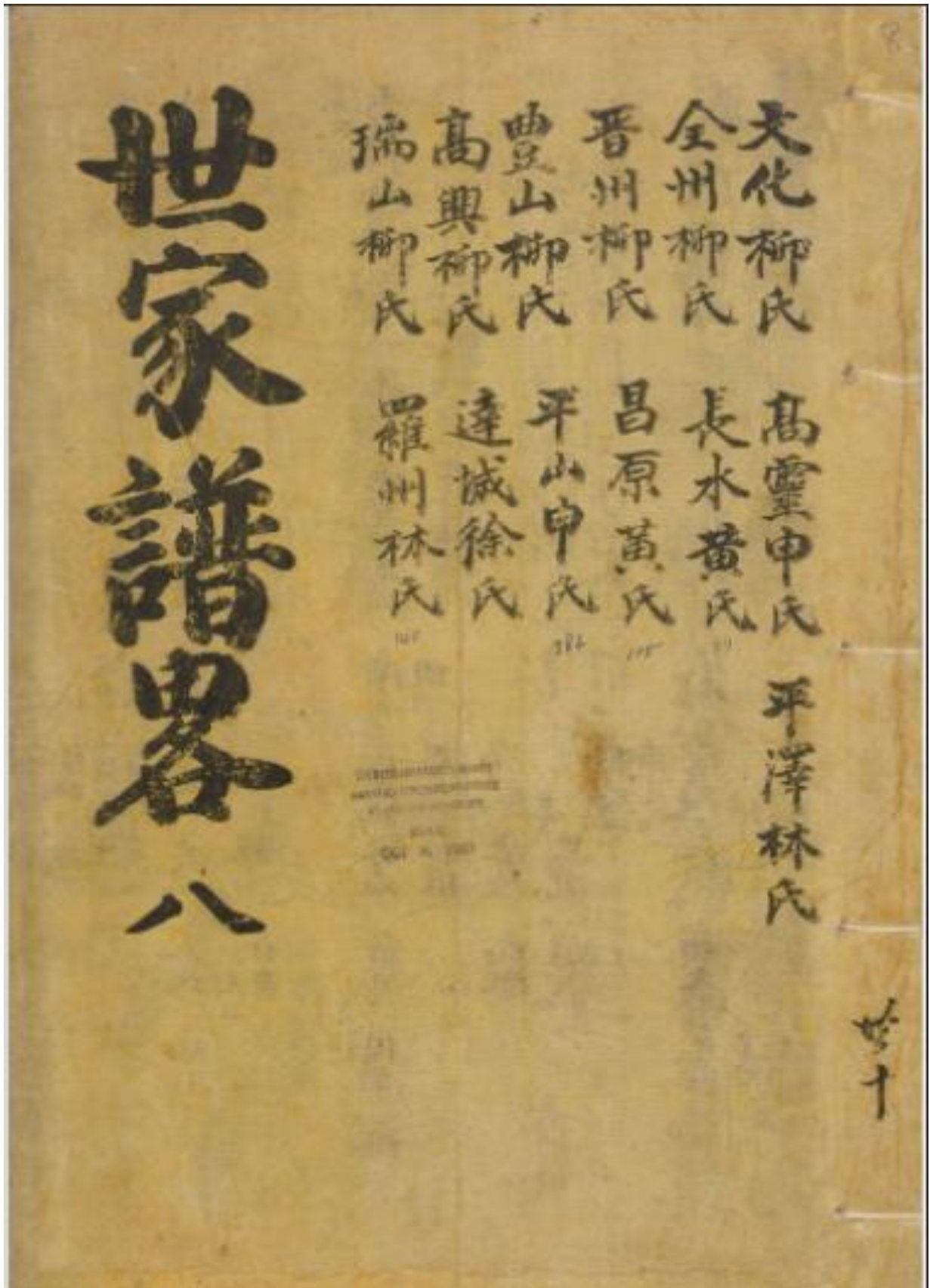
原州

雲溪申孟慶

字伯祥 原州人

○性至孝 母病醫云用蠟三忽前 至執而用果廖旋閣事載三綱行實及丹陽 邑誌女塔恭廢母疏及登科榮歸闕戶不納 辛巳七十二

세가보략(世家譜略)



## 정의

고종 연간 조선시대 유력 世家의 계보를 성씨와 본관별로 기록하고 정치적 성향을 밝힌 책이다.

## 서지사항

表紙書名, 書根題는 모두 '世家譜略'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九·十'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 우측 상단에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共十'이라는 기록이 있다. 書根에는 書根題와 冊次,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는 목차가 필사되어 있는데, 張次는 주색으로 필사하였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계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는데, 주색·황색·청색의 권점과 비점이 나타난다.

## 체제 및 내용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찬 배경을 파악할 수 없다. 간행 연도는 1책의 全州李氏 世譜略 마지막에 李垞(1870~1917)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고종 연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성씨와 본관별로 족보 체제에 따라 그 계보를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始祖로부터 세계를 정리하여 현달했던 주요 世系를 밝혔다. 특히 각 世系의 黨色을 위쪽에 표시했다. 老(老論), 少(少論), 南(南人)으로 당색을 밝혀 각 가문 주요 세계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고, 중요 인물의 경우 이름 옆에 '○'로 표시했다. 인물에 대한 정보는 과거, 관직, 養子 관계 등 매우 소략하다. 수록 성씨는 총 52개 성씨이다. 1~2책 李, 3책 李·金, 4책 金·朴·成·具, 5책 鄭·沈, 6책 尹·洪·閔, 7책 趙·宋·南, 8책 柳·申·黃·徐·林, 9책 吳·崔·兪·安·張·姜·任·梁·高, 10책 韓·權·元·魚·曹·許·愼·田·呂·孟·盧·辛·奇·蔡·白·睦·丁·孫·巖·羅·慶·郭·蘇·邊·楊의 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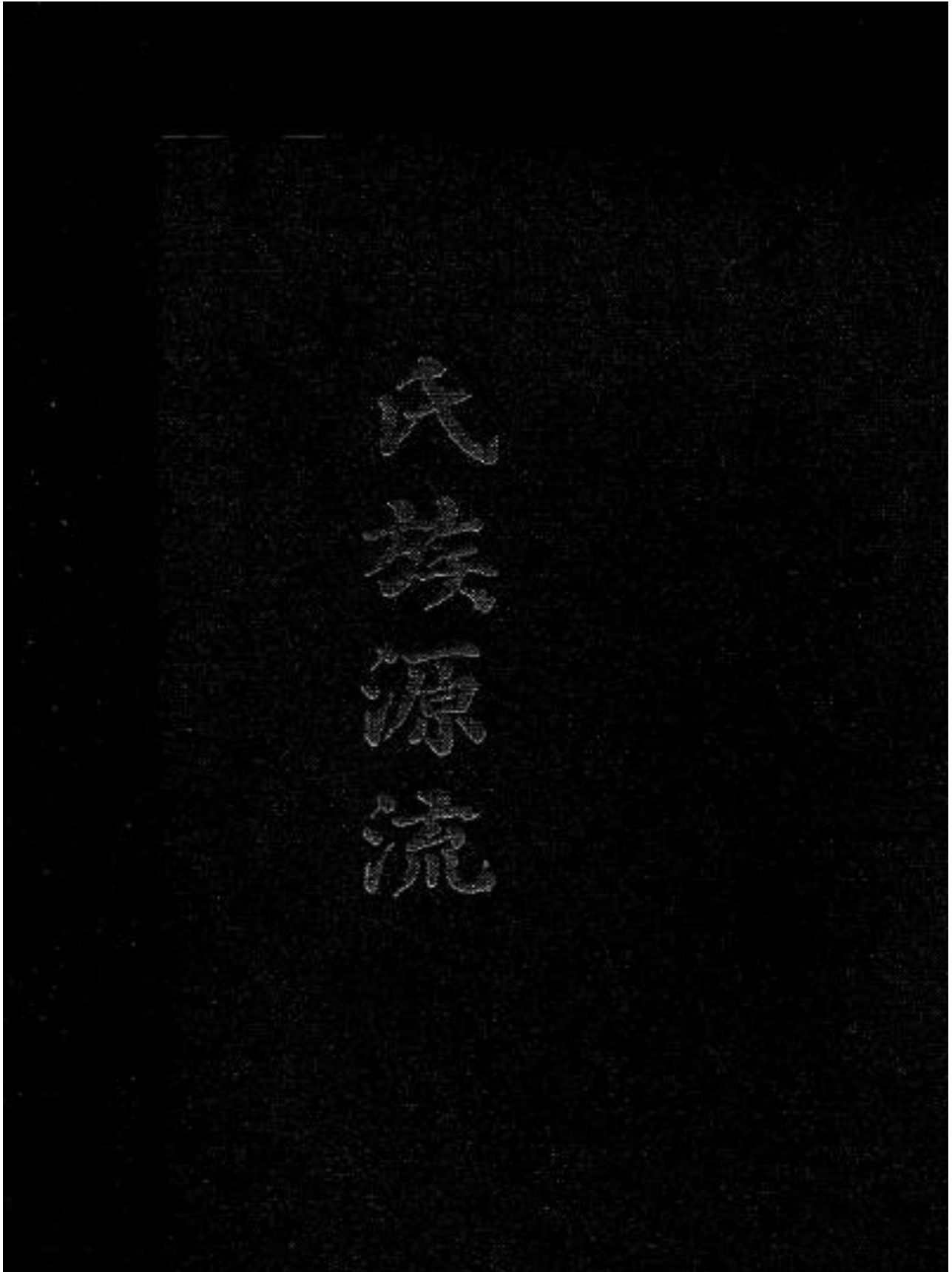
종합보의 형식인 이 책은 조선 후기 譜學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력한 世家의 가계를 망라함으로써 각 성씨의 성쇠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특성 및 가치

종합보의 형식으로 유력한 世家의 世系와 黨色을 기록해서 정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溪 出 景 沅 文  
 混 故 理 善 溫 演 景 源 漱  
 洪 萬 最 柳 命 天 判  
  
 稿 河 申 氏  
 英 慶 晉 升 得 昌 尤 瑞 光 富 士 厥 錫 命 俊 壽 元 祿 位 通 道  
 建 道 在 仁 錫 瀛 聖 模 曠 昌 教 猷 朝  
 整 休 錫 德 涵 連 模 泰 錫 德 洪 三 模 光 震 珉 世 欽  
 夢 得 之 悅 弘 堂  
  
 始 生 介 甫 漸 仰 應 全 世 道  
 夢 得

씨족원류(氏族源流)





## 상세서지

표제/저자사항 氏族源流 / 保京文化社 [편]  
보경문화사  
발행사항서울: 保京文化社, 1994  
형태사항 885p; 27cm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999.81 듀이십진분류법-> 929.3

## 정의

조선후기 문신 조종운이 전주이씨를 비롯하여 540여개 성관(姓貫)을 수록한 족보.통합보.

## 내용

필사본으로 분량은 7 책이며, 현재 조종운의 14 세손 조용진(趙鏞珍)씨가 소장하고 있다. 편찬자 조종운의 자는 백농(伯農), 호는 송창(松窓), 본관은 풍양이다. 이조참의에 추증된

조척(趙滌)의 아들로 조부 조수륜(趙守倫)은 이이·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행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숙부 조속(趙漶)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조속은 학식과 서화에 대한 재능을 바탕으로 당시 사림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더욱이 그는 해박한 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대와 그 외가의 사적을 정리한『사선록 思先錄』을 남겼는데, 이 저서는 조종운이 『씨족원류』를 저술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조종운이 씨족원류를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실전한 선대의 세계를 회복하는데 있었다. 이런 계기 속에서 그는 다른 성관의 계보에까지 천착하게 되면서 통합보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씨족원류를 남기게 되었다.

씨족원류 이전에도 양성지(梁誠之)의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과 같은 통합보가 있었지만 체제와 범위에 있어 씨족원류에 비견될 수 없었다.

씨족원류에는 17 세기 중반까지의 조선의 대성·망족을 망라되어 있는데, 전주이씨를 위시하여 대략 540 여개 성관이 수록되어 있다.

성관의 기재 순서는 종성인 전주이씨를 필두로 하여 이씨·박씨·김씨·정씨·조씨·정씨·송씨·안씨·왕씨 허씨·남씨...순이며, 각 성씨의 기재 순서는 당시의 가계(家格)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망족 일수록 앞에 수록하였다.

각 성관의 세계를 기록함에 있어 맨 모두에 큰 글씨로 성관을 표기한 다음 그 아래에 세주 형태로 관향의 별칭 또는 이칭을 기록하였다. 대략 한 면에 족도 형식으로 6-7 대가 수록되어 있고, 보도(譜圖)는 구획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도가 정연하게 구획된 후기의 『만가보 萬家譜』, 『청구씨보 靑邱氏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자녀는 대부분 출생순에 따라 수록되어 있고, 수록 대수에 있어서도 본성과 외파의 차이가 거의 없다. 각 인물의 주기(註記)는 개인에 따라 상락이 심한 편으로 비교적 현달한 인물은 관직,묘소위치, 배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관직만 간단하게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첩될 경우에는 초첩의 맨 하단에 견하(見下)라고 표기했을 뿐 자표(字標)는 매겨져 있지 않다.

제한된 지면에 많은 가계를 수록하느라 체제가 정연하지 못하고 각 인물의 주기가 지나치게 세필(細筆)로 쓰여진 단점은 있지만 파악이 가능한 가계를 최대한 수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씨족원류는 통합보의 전형이 되어 백씨통보(百氏通譜), 만가보(萬家譜), 청구씨보(靑邱氏譜), 계행보(系行譜) 등 제 통합보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씨족원류는 조선중기 때 안음현감(安陰蘇監)을 지낸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사람 조종운(趙從◎)이 편저(編著)한 성씨관계 책이다. 이책은 한국인의 각 성씨의 시조와 그 성씨의 상계계보를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안음은 오늘날 경남함양군의 안의(安義) 지역이다.

그는 14대 선조 40년(1607)에 졸하였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틈틈이 각 성씨의계보관계를 연구하고 자료들을 수입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 그가 편저한 저서가 씨족원류로 그가 이 책을 낼 때는 각 성씨의 문중에서 족보편찬이 미미했을 때였다. 문중의 족보보다 그 종중의 사람들 개개인 갖고 있는 가첩(家牒)이 그때까 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듣고 복제하여 엮은 것이 그의 씨족원류였다.

그가 이 책을 편저하게 된 동기는 그의 시조에 관한 기록과 문중의 세대(世代)가 실전(失傳)된 것을 보고 찾기로 결심한데 있었다. 또한 그가 조상계보에 대한 관심과영향을 받은 것은 창강조속(槍江趙液)에게 있었다.

창강조속은 16대인조 때 유명한 화가(書家)이며 당시 보학(譜學)의 대가(大家)로 알려졌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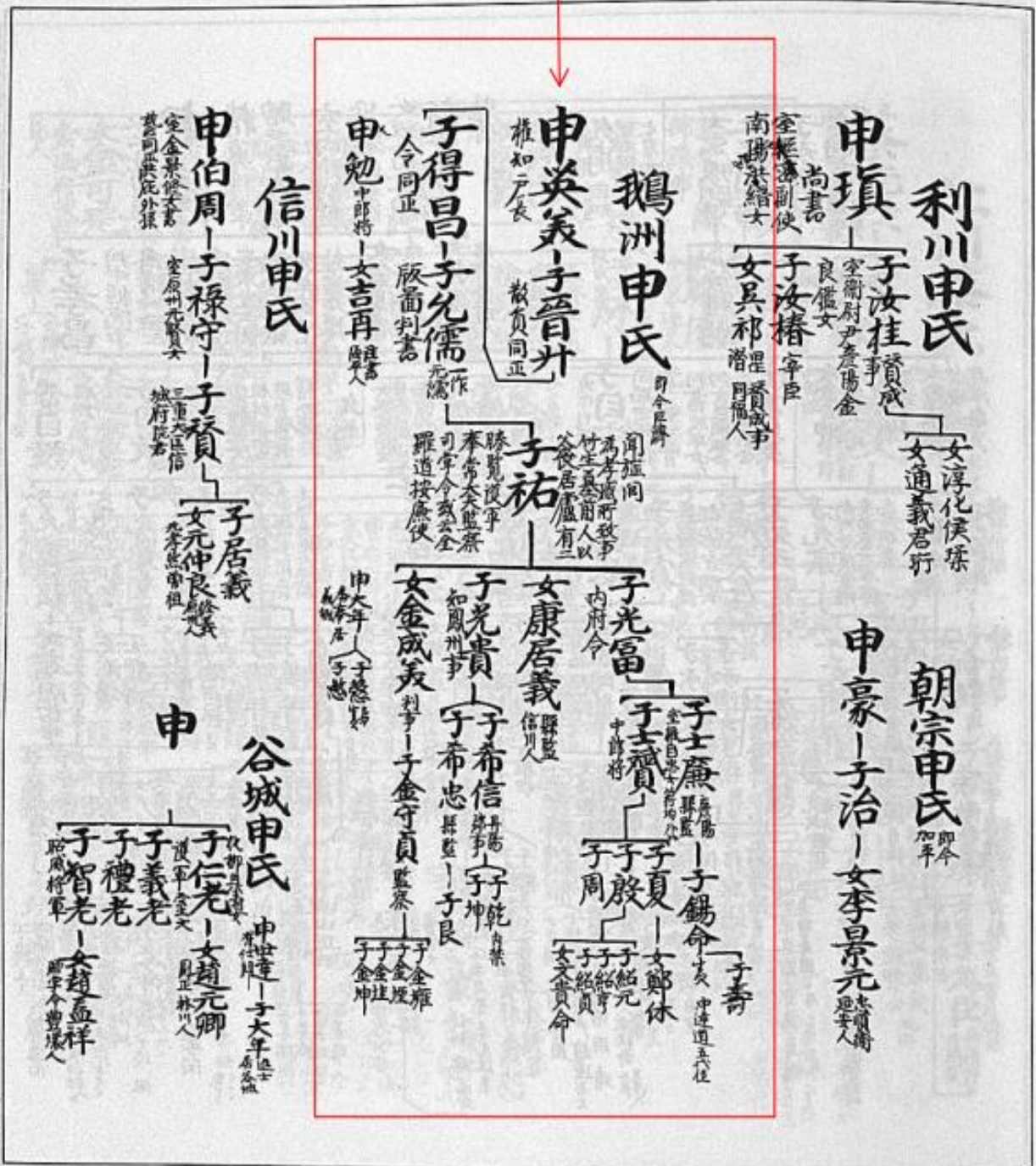
## 씨족원류(氏族源流)

람이다. 이 창강조속은조종운의 숙부(故父)였다. 씨족원류의 내용을 보면 540 여성씨문중의 계대(系代)가 수록되었음을 보는 것이다. 방대한 많은 성씨의 계보(系譜)인 것이고 각성씨의 시조를 비롯해서 대개 6세(☆世)정도까 지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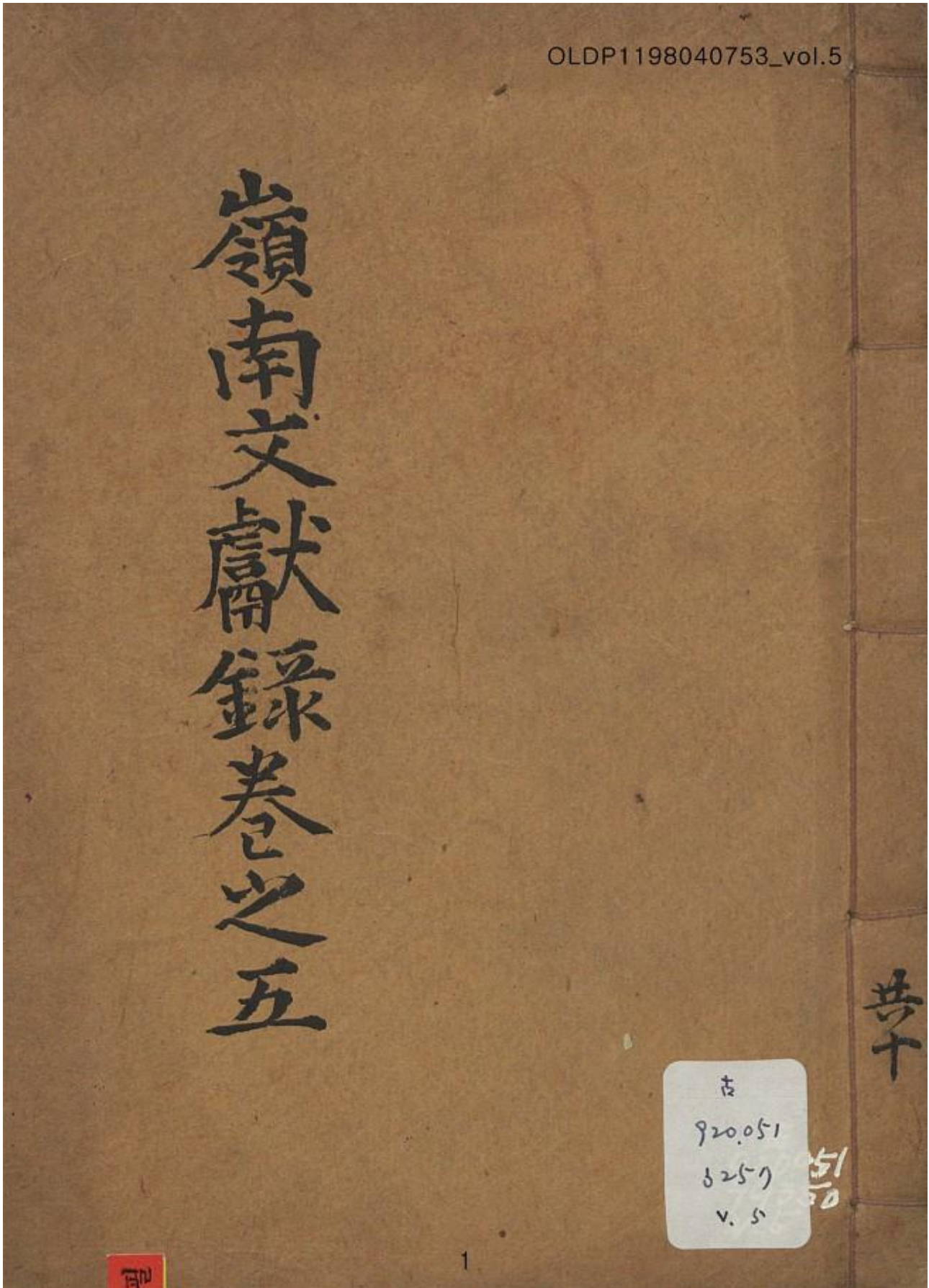
이 씨족원류가 세상에 선보이고 나서 그간 자기네 시조를 비롯 하여 상계(上系)의 세대(世代)를실전(失傳)하였거나 모르고 있 던 성씨의 문중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찾아 보는 일이 많았다. 이 씨족원류에는 아주신씨의 상계 기록도 있다.

조종운(趙從耘,1607-1683)의 씨족원류(氏族源流)는 당시 조선사회의 540여문중의족보, 가승, 계보 기록을 필사하여 편찬한 가장 신뢰도가높은 종합계보서이다. 1680년(肅宗 6)에 선원록이정청(璿源錄釐正廳)에서편찬한 "선원록이정청의궤(璿源錄釐正廳儀軌)"에 씨족 원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때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주신씨 의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며, 대부분의 다른 신씨들 계보도 실고 있다.**

利川·鵝洲·朝宗·信川·谷城申氏



영남문헌록(嶺南文獻錄)



## 상세서지

자료명/저자사항	嶺南文獻錄, 冊1-10 / 嶺南文獻錄刊所 編
발행사항	大邱 : 嶺南文獻錄刊所, 1939 鄭瑩植 刊編
청구기호	古 920.051 o257o
자료실	[서울 본관] 귀중서고(1층 대출대)
판사항	石印本
형태사항	10卷 10冊 ; 25.5 x 17 cm
제어번호	OLDP1198040753

## 정의

조선후기 학자 정형식의 「거주씨족」·「인물행의」·「효열고」 등을 수록한 문집.

## 편찬/발간 경위

1938년에 간행되었다. 서와 발은 없다.

## 서지사항

10권 10책. 연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 내용

권1은 거주씨족(居住氏族), 권2~7은 인물행의, 권8은 효열고(孝烈考), 권9는 원사·허(墟)·묘·비·갈, 권10은 정·대·당·재의 고(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씨족」에는 전주이씨(全州李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김해김씨(金海金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영일정씨(迎日鄭氏), 동래정씨(東萊鄭氏), 파평윤씨(坡平尹氏), 경주최씨(慶州崔氏), 문화유씨(文化柳氏) 등 252개 성씨의 거주지 이름이 그 시조 혹은 증조의 이름과 더불어 군·면·리와 동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물행의」에는 인물의 약사가 수록되었는데, 신라 대아찬(大阿飡) 이알평(李諲平) 이하 1,128명이 수록되어 있고, 영천이씨(永川李氏) 평장사(平章事) 이문한(李文漢) 이하 1,323명의 소사(小史), 밀양박씨 중서문하시중 밀성군(密城君)박언부(朴彦浮) 이하 1,430명의 약사, 풍산유씨(豊山柳氏) 고려 호장(高麗戶長) 유절(柳節) 이하 1,257명의 약사, 인동장씨(仁同張氏) 부윤 장안세(張安世) 이하 1,201명의 약사, 영산신씨(靈山辛氏) 문하시중 신경(辛鏡) 이하 1,123명의 약사 등 모두 7,462명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 영남문헌록(嶺南文獻錄)

「효열고」에는 경주의 김호(金虎)의 처 정씨(鄭氏) 이하 304명의 효부와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서원사우(書院祠宇)」에는 설총(薛聰)·김유신(金庾信)·최치원(崔致遠)을 향사하는 경주의 서악서원(西岳書院) 외 311여개 서원·사우의 봉향자의 약사와 소재지 및 건립 연대 등을 수록하였다.

「허묘비갈고」에는 경주의 송인전신도비(崇仁殿神道碑)·김알지유허비(金闕智遺墟碑) 이하 540여 유허비와 묘비갈의 소재지·찬자·서자·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정대당재」에는 경주의 독락당(獨樂堂) 이하 945개소의 장소·원운(原韻) 등을 실고, 「문집잡저」에는 『계원필경』·『퇴계집』 등 550여개 문집과 잡저의 저자와 권수 등을 실고 있다.

申履謙

號陶原進士灝子仁祖癸酉司馬孝宗嗣服之初中<sub>二</sub>和附時嶺中士論大起與疏首柳稷詣闕爭辨時輩嫉之<sub>一</sub>疏首黃籤

以錮之自此絕意進取吟一絕詩曰巢父非爲果嚴陵不是高寧將好舟楫輕入惡風濤

申命敬

同樞世杰玄孫官秘書監丞左掌禮自幼稟性慎默謹恪華靡之物切不近<sub>二</sub>常愛文墨

申錫周

左掌禮命敬子官參奉至<sub>二</sub>通政姿性沈重不喜戲

申顥仁

號三洲參奉季誠<sub>二</sub>后遊宋性潭煥箕門孝友天得文詞廣富多獎進生徒有遺稿

鵝州申氏

申英美

權知戶長

申祐

戶長英美后按廉使享書院

申璋

號機溪濼齋悅道子陰從仕郎旅軒張顯光門人<sub>二</sub>文詞早成筆法尤妙貫通經史杜門<sub>一</sub>頤養琴書自娛

申乃錫

號元齋靜隱元福玄孫事親以孝<sub>二</sub>丁憂廬墓英宗戊申偕義有遺集



申春協

懶齋悅道八世孫  
官教官至都事

申之悌

號梧峯按廉使祐八  
世孫文承旨享書院

申冕禹

號恆齋以孝行文學見重  
當世多成就後進有遺稿

申冕澧

號楠軒元齋乃錫五世孫生而穎敏志操耿介文詞富  
贍勉進後學鄉道屢薦有徵命不起韜晦自靖有遺稿

申宅均

都事春協子蔭  
事歷營將郡守

申詰祐

號樓石懶齋悅道八世孫性英邁剛直文學夙  
就誠孝篤至所著有慎獨箴戒子說正心等篇

申致教

懶齋悅道六世孫文學贍富  
博通經史士林推重有遺稿

安東權氏

權 章

佐麗祖破甄萱三韓壁上三重大匡亞  
父功臣太師食采安東遺民立廟祀之

權守平

太師章九世  
孫密直副使

人物考

申大權氏

姜  
敦  
錫  
編

典  
故  
大  
方  
全

京  
城  
漢  
陽  
書  
院  
發  
行

## 상세서지

## 정의

일제강점기 학자 강효석이 우리나라 역대 인물에 대한 전거를 밝혀 1924년에 간행한 전기.

## 편찬/발간 경위

《전고대방(典故大方)》은 강효석(姜黻錫)이 한국 역대 인물에 대한 전거(典據)를 밝힌 일종의 인명사전이다. 역대편(歷代編), 전궁원묘(殿宮園墓), 만성시조편(萬姓始祖編), 상신록(相臣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청백리록(清白吏錄), 공신록(功臣錄), 명장록(名將錄), 등단록(登壇錄), 문무제곤록(文武制鬪錄),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 유현연원도(儒賢淵源圖), 문인록(門人錄), 문장가, 서화가, 부보유(附補遺), 종묘배향록(宗廟配享錄), 문묘배향록(文廟配享錄), 서원향사록(書院享祀錄) 등 33개 부문으로 분류했다. 사건마다 관련인물을 들어 소전(小傳)을 붙였다. 1924년 한양서원에서 발간했다.

## 내용

4권 1책. 활자본. 1924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윤희구(尹喜求)의 서와 권말에 편자와 고응한(高應漢)의 발이 있다. 권1은 역대편(歷代篇)·전궁원묘(殿宮園墓)·만성시조편(萬姓始祖篇), 권2는 상신(相臣)·문형(文衡)·호당(湖堂)·청백리(清白吏)·공신(功臣)·명장(名將)·등단(登壇)·문무제곤록(文武制鬪錄)으로 이뤄졌다. 권3은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유현연원도(儒賢淵源圖)·문인록(門人錄)·문장가(文章家)·서화가(書畫家), 권4는 종묘배향록(宗廟配享錄)·문묘배향록(文廟配享錄)·서원향사록(書院享祀錄)·두문동칠십이인(杜門洞七十二人)·사색당파원인약설(四色黨派原因略說)·북관칠의사(北關七義士)·십이사화록(十二士禍錄)·임진란순절제인(壬辰亂殉節諸人)·기의승병장(起義僧兵將)·의기(義妓)·의병장(義兵將)·순절신(殉節臣)·척화신(斥和臣)·강도순절부녀(江都殉節婦女)·배종팔장사(陪從八壯士)·임오우해인(壬午遇害人)·갑신피화육대신(甲申被禍六大臣)·동원록(東援錄)·통신사(通信使)·외국인내공(外國人來貢)·외국인내사(外國人來仕)·명인귀화(明人歸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내용 자체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신라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건별로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을 들고 소전(小傳)을 붙이고, 또한 요점만 들어 알기 쉽게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洪氏承範 本朝宣祖庚午文科校書權知 安山洪氏萬源 本朝英祖丙午文科校理 鹽州 延安別號 洪氏樂祖 本朝英祖甲午文科

申氏 炎帝之後封於申因以邑為氏

平山申氏始祖崇謙 其先光海州人今春川府初名能山龐太祖賜名崇謙賜籍平山開國號上功 高靈申

氏始祖成用 本以鄉吏登文科檢校軍器監 利川申氏始祖瑱 尚書 殷豐 豐基 申氏始祖承休 本

山人密直副使至後孫般山伯仲愈始籍般豐 又一派仁適 密直使 天安申氏始祖周錫 金紫光祿大夫太保定簡公 鵝州 巨濟縣

申氏始祖英美 權知戶長 信川申氏始祖贊 三重大臣信川府院君 寧海申氏始祖賢 文貞公 谷

城申氏始祖世達 將仕郎 朝宗 加平尉 申氏始祖豪 朔寧申氏始祖允麗 贈事

昌洲 昌城地方 申氏始祖甫 京軍 以下始 牙山申氏英 本朝光海辛酉文科僉正

權氏

安東權氏始祖幸 本新羅宗姓金氏古昌郡人時甄萱欲羅王高麗太祖與萱相持幸謀於衆曰萱義不共戴天盍歸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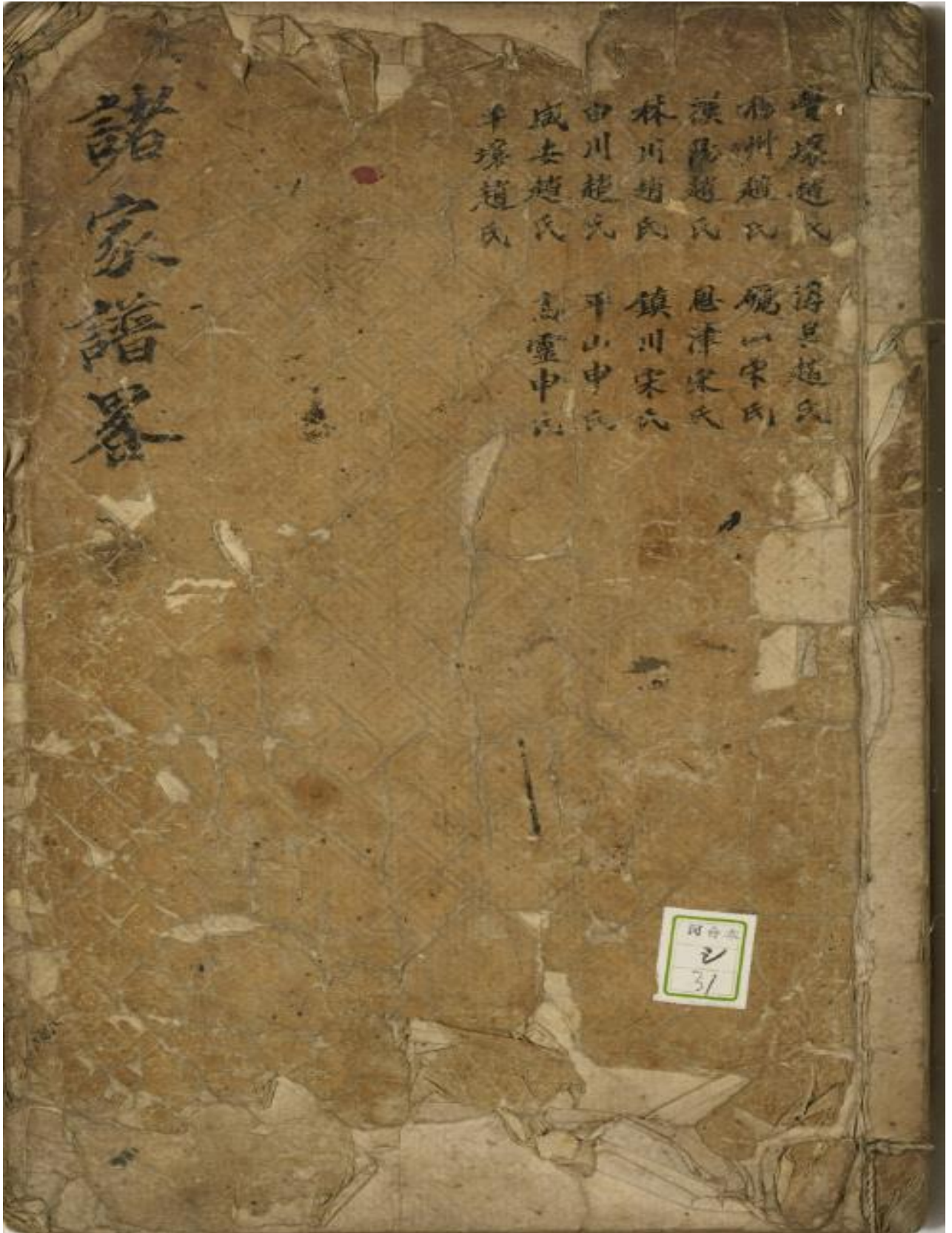
又一派融 戶長利與子幸八世孫十八世孫尙夏本朝逸左相文純公 又一派晃 戶長幸後嗣戶長珍夫子十四世孫達子本朝文校理湖堂 幸十三世孫

載 父永嘉府院君溥高麗忠宣王以養子賜姓名王熙至孫裔入我祖復姓權氏肅九世孫本朝逸左尹 又一派節 父給事中允衛 又一派世位 父戶長佐升至正精

又一派表正 父戶長 又一派法和 王曹典書父監察御史尙載元朝人東渡為王熙之婿 醴泉權氏始祖暹

禮賓卿本姓斯氏始祖別將迪臣至五世孫暹高麗忠穆王賜姓權氏仍籍醴泉後孫五福本朝湖堂

제가보락(諸家譜略)



상세서지

- 분류 고서-족보 | 사회-가족/친족-족보 | 사부-계보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고종연간]
- 형태사항 不分卷6冊 : 四周單邊 半郭 28.0×18.8cm, 橫10段 ; 36.0 X 23.0 cm
- 주기사항 表題:諸家譜略 朱點·朱圈點. 籤紙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シ-30 199400, シ-31 19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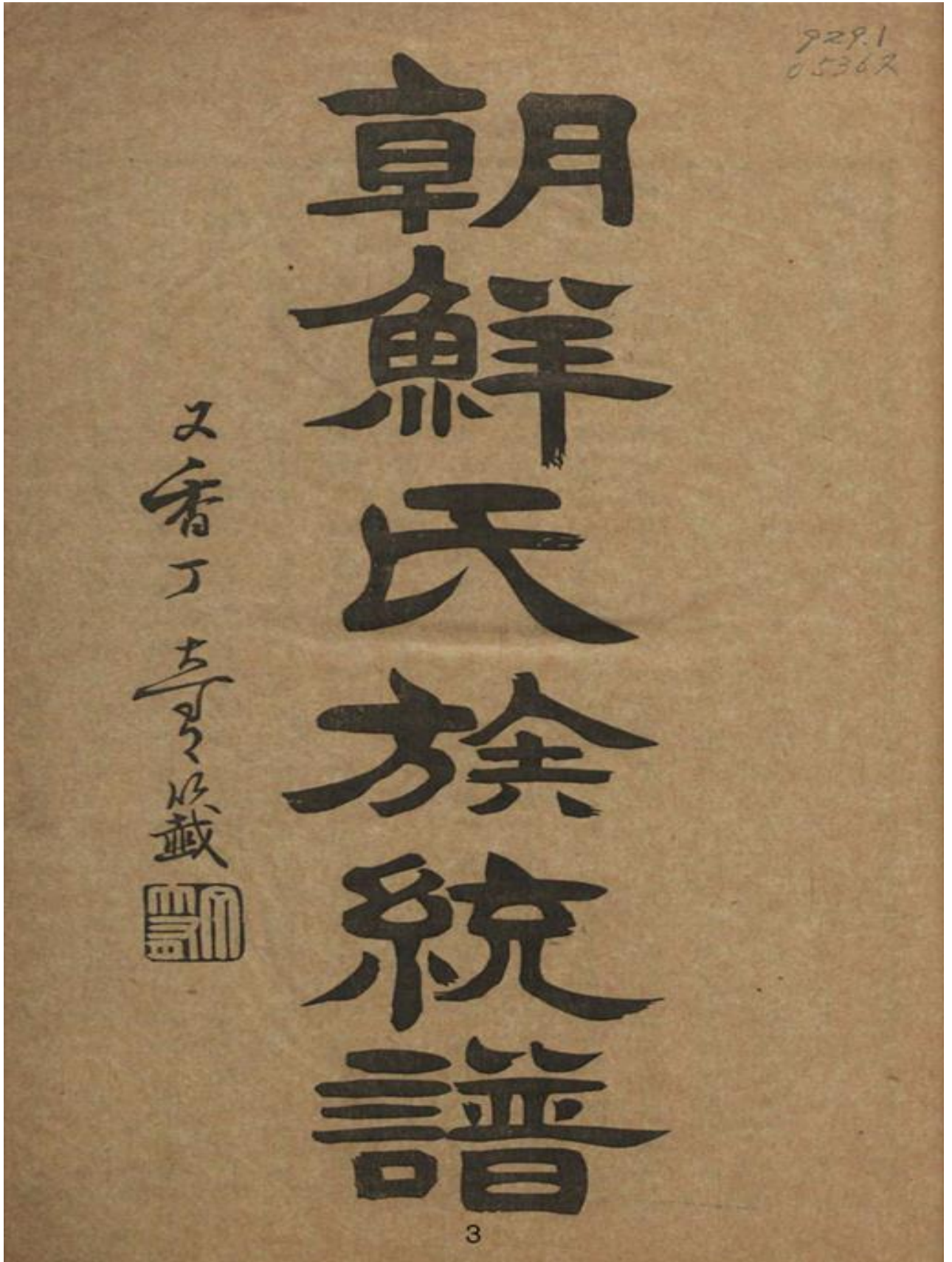
鵝洲申氏

夢得 子之倅 子邪望 子漢老 子商龜 子道三	遠道 子任 子夏錫 子濂 子重模 子燧 子死教 子鳳周 子冕周	申英美 子晉升 子得富 子允儒 子佑 子允區 子士康 子錫命 子俊樹 子壽 子元得 子仁 子達道 子夢得	鵝洲申氏	子混 子善遠 子漢 子星漢 子漱 子庸祥
---------------------------------------	---	---	------	-------------------------------------

子漢老  
子商龜  
子道三  
子鳳周  
子冕周

子達道  
子夢得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상세서지

원서명	朝鮮氏族統譜	현대어서명	조선씨족통보
청구기호	한은 138	편저자(한자)	尹昌鉉(朝鮮) 纂
편저자(한글)	윤창현 찬	판본사항	新鉛活字本
간행지	京城	간행연도	大正14(1925)
간행자	東洋書院	책권수	1冊
광곽	四周雙邊 半葉匡郭 20.2×13.8cm, 無界, 14行27字 註雙行		
판심	上黑魚尾	책크기	26.2×17.3cm
표제지 내제지	墨書: 龍城伊彥尹泰重勸買戊辰(1928)九月十二日		
자료소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姓氏를 망라하여 한자의 韻順으로 대별하고 동일한 성씨에 있어서는 각 本貫을 열거하고 같은 본관에서는 각 派를 列記한 總譜로 1925년 尹昌鉉이 한문으로 찬술		
기타	한국은행 기탁도서(2017)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성씨(姓氏)를 전부 망라하여 한자의 운순(韻順)으로 대별하고, 동일한 성씨에 있어서는 각 본관(本貫)을 열거하였으며, 다시 같은 본관에서는 각 파(派)를 열기(列記)한 총보(總譜)로 1925년에 윤창현(尹昌鉉)이 한문으로 찬술. 간행한 책이다.

모든 성씨는 먼저 단성(單姓)을 30운을 기준으로 동운(冬韻)은 동운(東韻)에, 양운(陽韻)은 강운(江韻)에, 미운(微韻)은 지운(支韻)에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19개의 운으로 통합하여 그 19개의 운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그 다음에 복성(複姓). 삼성(三姓). 사성(四姓)을 배열하였다.

이 책은 성씨의 고증을 주안점으로 삼았으므로 사성(賜姓). 개성(改姓). 모성(冒姓). 복성(復姓). 변성(變姓). 구성(舊姓). 신성(新姓) 등에 대하여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문 기술에 있어서 <<군망씨족고(郡望氏族考)>>. <<통전(通典)>>. <<상서정의(尙書正義)>>. <<노사(路史)>>. <<문헌통고(文獻通考)>>. <<강목집람(綱目輯覽)>> 등의 중국 문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등을 널리 인용하였다.

또한 성씨의 시조 및 중시조 등은 모두 대자를 쓰고 지예(支裔)는 소자 쌍행(小字雙行)으로 하였다.

1925년에 초쇄(初刷)하고 이듬해 재쇄(再刷)하였는 바, 아마도 당시 이러한 책의 수요가 상당히 있었던 듯 하다.

표지 오른쪽 아래쪽에 「용성이언윤태중권매무진구월십이일(龍城伊彥尹泰重勸買戊辰九月十二日)」이라는 목서가 있다.(무진은 1928년이다.)

이 책은 너무 많은 성씨를 통합 기술하여 그 내용이 소략하지만 우리나라 성씨 연구에 자료가 된다.

六世孫應顯(文判書忠憲公)欽孫景(文判書文肅公)景弟景(文判書提學)景(六世孫應朝(文右議政文敬公)欽從孫勇(贈吏曹判書孝義公)君平六世孫壽麟(功臣平原君)君平八世孫點(文判中樞功臣平城府院君忠景公)點侄敏一(文大司成)敏一子倫(贈吏曹判書忠貞公)倫子命圭(文執義享鄉祠)命圭子鉉(文參贊忠景公)命圭曾孫晚(文領議政孝正公)晚弟晦(文領議政)晚子光綏(英祖朝駙馬永城尉)命圭玄孫光履(工曹判書貞簡公)命圭五世孫在植(文吏曹判書大提學)在植從侄錫愚(文禮曹判書文貞公)錫愚弟錫禧(文禮曹判書孝文公)崇讓十八世孫吉元(開慶縣監享忠祠)琯孫防(文吏曹參判提學)防弟瞭(逸贊善)崇讓後孫奎(文牧使疏復壯陵)

高靈申氏始祖成用

科本以鄉吏登文(文領議政功臣高靈府院君文忠公配享成宗廟庭)末舟(文大司諫

享書院)叔舟子灑(咸鏡監司)灑(文吏曹參判功臣高川君)凌(文吏曹判書功臣高陽府院君昭安公)灑子用概(左議政文景公)灑侄從漢(文參判選湖堂)光漢(文贊成大提學文簡公)從漢子沈(成宗朝駙馬高原尉文孝公)灑(文尙州牧使享書院)沈孫穰(中宗朝駙馬靈川尉)叔舟五世孫湜(文大司憲享書院)涌(文黃海監司享書院)叔舟六世孫景植(功臣靈原君)涌孫藻(享書院)用概玄孫應榮(逸丞旨)應榮孫翼相(文右議政貞簡公)末舟孫公濟(文吏曹判書選清白吏)末舟

十世孫景澗(文丞旨)

殷豐申氏始祖承休

孫本平山人密直副使至后(密直使)申仁適(密直使)

天安申氏始祖周錫

金紫光祿大夫(太保定簡公)

利川申氏始祖瑱

尙書

鵝州申氏始祖英美

權知(戶長)○後孫祐(按廉使享書院)祐六世孫元祿(享書院)祐八世孫之悌(文丞旨享書院)

信川申氏始祖贊

伯周孫祿守子○三重大匡信川府院君

寧海申氏始祖得清

判事

谷城申氏始祖世達

將仕郎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상세서지

원서명	增補文獻備考	현대어서명	증보문헌비고
청구기호	奎6947-v.1-51	편저자(한자)	弘文館(朝鮮) 編
편저자(한글)	홍문관(조선) 편	판본사항	新式活字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隆熙2年(1908)]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50卷, 卷首附, 合51冊
판심	上黑魚尾	책크기	26.7×17.8cm
광곽	四周雙邊, 半葉匡郭:20.3×13.5cm, 10行 27字 注雙行		
부	增補文獻考正誤1冊	표지, 판심, 권두서명	版心書名:增補文獻備考
서, 발, 권수, 권말	卷首:御製序...光武年丙午(1906)十二月日朴齋純奉勅書, 御製後序...隆熙二年(1908) 一月李完用奉勅書		
자료소개	1903年(光武 7)-1906년에 걸쳐 高宗의 命에 따라 弘文館에 纂輯所를 두고 기왕의 文獻備考를 바탕으로 上古이래 大韓帝國까지의 우리 나라 文物制度의 典故를 총망라하여 16考로 수록한 책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通制		
M/F번호	M/A97-16-1-1(奎 6947/ v.1-11), M/A97-16-1-2(奎 6947/ v.12-24),, M/A97-16-1-3(奎 6947/ v.25-36), M/A97-16-1-4(奎 6947/ v.37-44),, M/A97-16-1-5(奎 6947/ v.45-51)		

서지적 사항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 (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糶)·선거(選舉)·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強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증보 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渠)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약(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 편찬/발간 경위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 내용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1903년(光武7)-1906년에 걸쳐 高宗의 명에 따라 弘文館에 纂輯所를 두고 기왕의 文獻備考를 바탕으로 上古이래 大韓帝國까지의 우리나라 文物制度의 典故를 총망라하여 16考로 수록한 책이다.

1908년에 印行되었다.

文獻備考는 전후 세 차례에 걸쳐 編成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는 1770년 (英祖 46) 정월에 英祖가 時原任大臣을 모아 文獻備考의 편찬을 명한 데서 시작된다.

英祖는 일찍이 申景濬의 <疆域志>를 보고 輿地便覽을 편찬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中國의 <<文獻通考>>와 비슷하므로 여기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역대 文物制度의 典故를 모아 文獻備考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왕명에 따라 영의정 金致仁 이하 徐命膺·蔡濟恭·申景濬·徐浩修 등이 1770년 8월에 완성하였으니 이것이 <<東國文獻備考>>로 100卷 13考(象緯, 輿地, 禮, 樂, 兵, 刑, 田賦, 財用, 戶口, 市積, 選舉, 學校, 官職)로 되어 있다.

제2차 편찬은 위의 <<東國文獻備考>>가 짧은 시일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잘못된 곳이나 빠진 것이 적지 않아 1782년(正祖 6) 正祖가 李萬運에 전담시켜 修補토록 한 것이다.

默軒 李萬運은 李玄逸·金聖鐸의 계열을 이은 退溪學派의 인물로 博識의 명이 있었다.

그는 敦寧府參奉의 말직으로 이 사업을 맡아 9년만인 1790년에 일단 완결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1796년 正祖는 李萬運을 특별히 五衛將에 임명하여 文獻備考의 증보작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待敎인 徐有?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李萬運은 63세로 죽고 正祖도 3년뒤에 승하하니 1807년(純祖 7) 李萬運의 아들 李儒準이 奎章閣에 드나들면서 보완하여 1831년에 <<增補東國文獻備考>> 146권 20考를 완성하였다.

增補된 것은 物異, 宮室, 王系, 氏族, 朝聘, 諡號, 藝文의 7考이다.

제3차 편찬은 1903년(光武 7)에 高宗의 命으로 弘文館에 纂輯所를 두고 작업을 시작하여 1906년 12월에 작업이 마무리 되고 1908년에 간행되었다.

이것이 本書이며 1904년까지의 사실을 수록한 250卷 16考로 되어 있다.

16考로 된 것은 物異를 象緯에 붙이고, 宮室은 輿地에 붙이고, 王系는 帝系로 고친 뒤에 氏族을 이에 붙이고, 朝聘은 交聘으로 고치고, 諡號를 官職에 붙이므로써 4考가 줄고, 英祖때의 것보다 帝系·交聘·藝文의 3考가 늘어난 것이다.

내용의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首에 高宗의 御製序와 李完用의 序文과 進增補文獻備考表가 실려 있고 嘉輯諸臣 朴容大 등 33인, 校正諸臣 朴齊純 등 17인, 監印諸臣 韓昌洙 등 9인, 印刷諸臣 金榮漢 등 3인의 銜名

이 있다.

이어 凡例(18則)와 序文(2首), 題辭(2首), 標記·進箋·跋 등이 있고 原編의 編輯諸臣 洪鳳漢 등 26인의 銜名과 修改本末이 실려 있다.

16考的 各考별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象緯考(권1-12):曆象沿革, 天地, 七政, 恒星, 恒星黃赤經緯表, 黃赤宿度, 黃赤宮界, 北極高度, 東西偏度, 中星, 儀象(漏局 晨昏大鍾) 分野, 日食, 月掩犯五緯, 五緯犯掩, 五緯掩犯恒星, 星晝見, 客星, 彗字, 天變, 日月變, 暈適, 星變, 流隕, 雲氣, 物異(風異, 雨異, 霜異, 雪異, 虹霓異, 霧露異, 雷震, 日昏, 無雪無水, 寒溫異, 地異, 山水異, 旱蝗, 癘疫, 人異, 訛言, 童謠, 火災, 宮室異, 雜變異, 草木異, 龍魚異, 禽異, 獸異).

輿地考(권13-39):歷代國界, 郡縣沿革, 山川, 道里, 關防(城郭, 海防, 海路), 北間島疆界, 西間島疆界, 宮室(歷代宮室, 本朝宮室, 外方宮室), 郡縣沿革·山川·城郭·海路 등은 다시 각 지역별로 세분되어 있다.

帝系考(권40-53):璿譜紀年, 歷代紀年, 太上王, 太后, 后妃, 儲嗣, 世子嬪, 王子, 王女, 宗室, 宗室故事, 國號(王號, 年號, 稱號), 氏族(諱), 氏族에는 각 姓別로 간략한 언급이 있다.

禮考(권54-89):園丘, 社稷, 宗廟(廟制, 祭享, 薦新, 謁廟, 廟號, 廟冊, 七祀, 功臣配享, 原廟), 影殿(景靈殿, 惠明殿, 孝愼殿, 永禧殿, 慶基殿, 璿源殿, 穆清殿, 泰寧殿, 華寧殿, 舊影殿), 魂殿(文昭殿 등 51개 殿과 魂殿排設儀), 宮廟(肇慶廟, 儲慶宮, 毓祥宮, 延祐宮, 宣禧宮, 景祐宮, 順懷廟, 昭顯廟, 文禧廟, 大院君廟), 諸壇(風雲雷雨, 嶽海瀆山川, 城隍, 先農, 先蠶, 雩, 司寒, 馬祖, 先牧馬社馬步, 禍, 醜, 癘, 神室, 旌忠壇, 愍忠壇, 獎忠壇), 諸廟(文宣王廟, 啓聖祠, 崇節祠, 蠶神廟, 關帝廟, 宣武祠, 靖武祠, 武烈祠, 前代始祖廟, 雜祀拔禳, 儼, 淫祀), 國恤(初終斂殯成服, 服制, 葬制, 虞卒練祥禫駢, 凶禮雜儀, 方喪故費), 國忌, 山陵(園墓), 冠禮, 婚禮, 冊禮, 賀禮(誕日), 讌禮, 朝儀, 儀式, 鹵簿, 輦輿, 朝服, 璽印, 禮臣, 養老, 禮俗(褒節義), 關異, 教令, 禮書, 私祭禮, 立後, 私喪禮, 私葬禮, 私忌, 私冠禮, 私婚禮.

樂考(권90-108):律呂製造, 候氣, 度量衡, 歷代樂制, 樂器, 樂懸, 樂歐(宗廟, 諸祀, 原廟, 列朝, 朝會, 宴饗, 尊號, 唐樂, 鄉樂, 軍樂), 樂舞, 樂服(樂人祭服), 樂人, 習樂(樂儀, 雜令), 俗部樂, 散樂, 訓民正音.

兵考(권109-126):制置, 宿衛, 法令(符信), 教閱, 兵書, 衛兵(軍門, 更張後軍額), 畿輔兵, 州郡兵, 舟師, 總論軍制, 軍資糧糧, 邊禁, 烽燧, 馬政副(牧場), 驛遞(撥站).

刑考(권127-140): 刑制, 贓律, 治盜, 禁制(禁奢侈, 禁酒, 諸禁), 詳讞, 恤刑, 刑書(獄具圖, 棍制, 欽恤典則形具之制, 六贓圖, 收贖式, 准詳式), 諸律類記(廢律附), 陸軍法律, 田賦考원(권141-153): 經界, 籍田, 職田, 凜田, 諸田, 屯田, 堤堰(水車), 務農, 租稅, 貢制臻, 大同, 財用考, (권154-160): 國用, 良役, 漕運, 魚鹽, 錢貨(布帛, 金銀銅).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戶口考(권161-162) : 歷代戶口(號牌, 奴婢).

市糴考(권163-170) : 市, 京城市廛, 互市, 中江開市, 北關開市, 倭關開市(韓日稅則, 各國稅則, 韓奧稅則, 海關章程)鄉市, 糴糶(各道還穀數), 諸倉, 賑恤.

交聘考(권171-183) : 歷代交聘, 本朝中國交聘(償接, 朝聘雜儀).

燕京路程, 日本交聘(償接日本, 韓日修好條規, 條規附錄, 通商章程), 歷代各國交聘, 泰西各國交聘(韓美條約, 各國條約異同合編, 各約附續通商章程, 善後續條承, 韓俄陸路通商條約, 韓奧修好條約).

選舉考(권184-201) : 瓜制院(貢貢科), (武科, 雜科), 銓注(久任), 贈職, 薦用, 蔭敘, 考課.

學教考(권202-213) : 太學, 文廟(啓聖祠), 幸學(大射, 入學), 興學(培養, 闢異臺), 學官, 學令, 雜考, 四學, 各學校, 鄉學, 書院(祠院總論, 各道祠院).

職官考(권214-241) : 三國以上官制, 耆社 宗室(宗親府), 相府(執事省, 廣評省, 三師三公, 門下府), 尙書省, 密直司, 資政院, 都評議使司, 司平府司, 議政府, 義興三軍府, 備邊司(堤堰司), 諸府(中樞府, 敦寧府, 儀賓府, 忠勳府, 義禁府), 六官(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 漢城府, 承政院, 臺省(司憲府, 司諫院), 館閣(經筵廳, 奎章閣, 校書館,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讀書堂, 承文院, 成均館), 諸司(宣惠廳, 觀象監, 廣興倉, 平市署, 保民司, 侍講院 등 84項目), 內職(內命婦, 外命婦), 武職(五衛都摠府, 五衛, 龍虎營, 壯勇營, 訓練都監, 禁衛營 등 31項目), 內侍(內侍府, 掖庭署), 權設職(諸使, 御史, 敬差官, 差使員, 都監, 試官, 祭官), 致仕(賜卺杖), 摠論官制(雜職吏胥), 外官(留守, 經歷, 觀察使, 都事, 府尹, 庶尹, 大都護府使, 牧使, 都護府使, 判官, 郡守, 縣令, 縣監, 外官摠論, 蔡訪, 教授, 訓導, 審藥, 檢律, 譯學, 算士), 外武職(統制使, 統禦使, 中軍, 兵馬節度使, 監牧官, 鄉吏 등 20項目), 官品命數, 職田, 祿俸, 更張官制(宮內府 54項目, 內部 2項目, 外部 2項目, 度支部 4項目, 軍部 2項目, 法部 5項目, 學部 9項目, 農商工部 4項目, 驚務廳, 漢城府, 元帥府 15項目, 地方官 3項目), 諡號(東國見行諡, 歷代諡號, 臣諡, 歷代名臣諡號, 私諡).

藝文考(권242-250):歷代書籍, 歷代著述, 史記, 御製, 列朝御定諸書, 儒家類, 典章類, 文章類, 歌曲類, 故實類, 雜?類, 象緯類, 輿地類, 兵家類, 字書類, 抄集類, 譯舌類, 醫家類, 農家類, 釋家類, 文集類.

끝에는 金鶴鎮이 쓴 跋文이 있다.

그리고 제51책에는 正誤表가 실려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한국의 상고(上古)로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의말기까지문물제도(文物制度)를 분류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최초 편찬은 1770년(영조45년) 홍봉한(洪鳳漢)등이 왕의 명에 의해 여러 공)公私)의 실기(實記)를 수집하고그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류 정리 한. 이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책은 중국의 마단림(馬端臨)이가 낸 문헌통고(文獻通考)의 내용을 본떠서 상위(象緯), 여지(輿地), 여K禮), 악(樂), 병(兵), 형(刑) 전부(田賦) 재용(財用), 호구(戶口), 시적(市糶), 선거(選舉), 학교(學校), 직관(職官) 등의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을 편찬한 것이다.

처음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하여 1782년(정조6년)에 다시 증보를하여 증보문헌비고라 이름하였다. 증보문헌비고는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이만운(李萬運)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그는 9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 결함을 보충편찬하였는데 전에 없던 물이(物異), 궁실(宮室),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시호(諡號), 예문(禮文) 등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방대하게 편찬을 보였지만 막상 출판은 못했다. 1백여년을 지난 고종 때 와서야 출간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특징을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성씨 시조에 관한 기록들이다. 기록에서 그간 많은 성씨의 문중이 족보를 만들면서 참고하였다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나라에서 주관하여 만든 책이고 하여 일종의 역사서이기도 하다.

1957년도에 고전간행위(古典刊行委)에서 증보문헌비고영인(增補文獻備考影印)을 간행(刊行)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에 신석호박사(申奭鎬博士)가 서문(序文)을 찬(撰)했다

增補文獻備考 卷四十九

旨 應渠孫翼相 文右議政 貞簡公 末舟孫公濟 文吏曹判書 選清白吏 末舟十一世

孫景濬 文承 旨

殷豐 豐基 屬縣 申氏始祖承休 本平山人 密直副使 至後 孫殷山伯仲愈始籍殷豐

申仁適 密直使 爲一派

天安申氏始祖周錫 金紫光祿大夫 太保定簡公

利川申氏始祖璵 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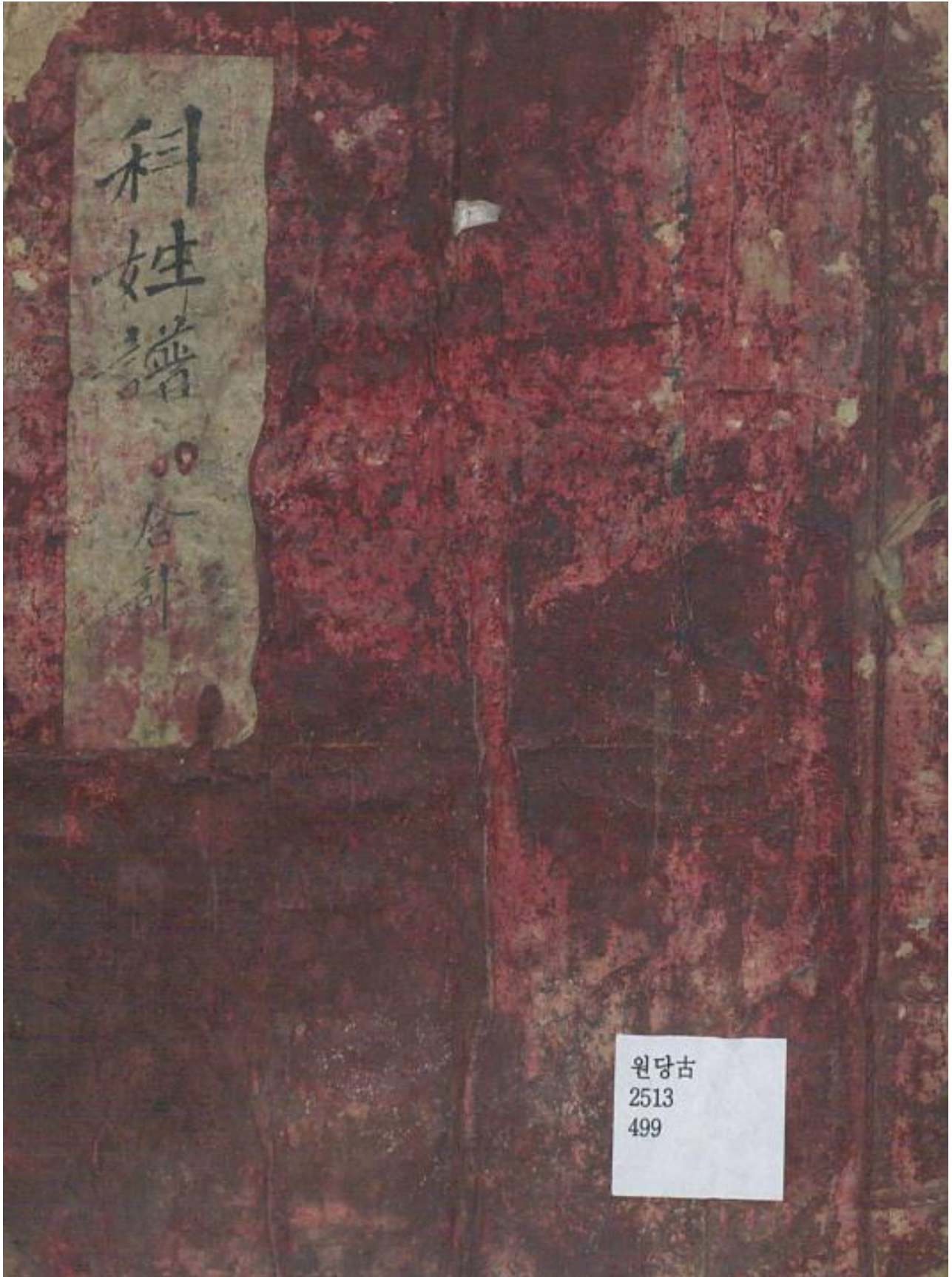
鵝州 巨濟 屬縣 申氏始祖英美 權知 戶長 後孫祐 按廉使 享書院 祐六世孫元祿 享書院 祐

八世孫之悌 文承旨 享書院

信川申氏始祖贊 伯周孫祿守子 三大匡信川府院君

寧海申氏始祖得清 判事

과성보(科姓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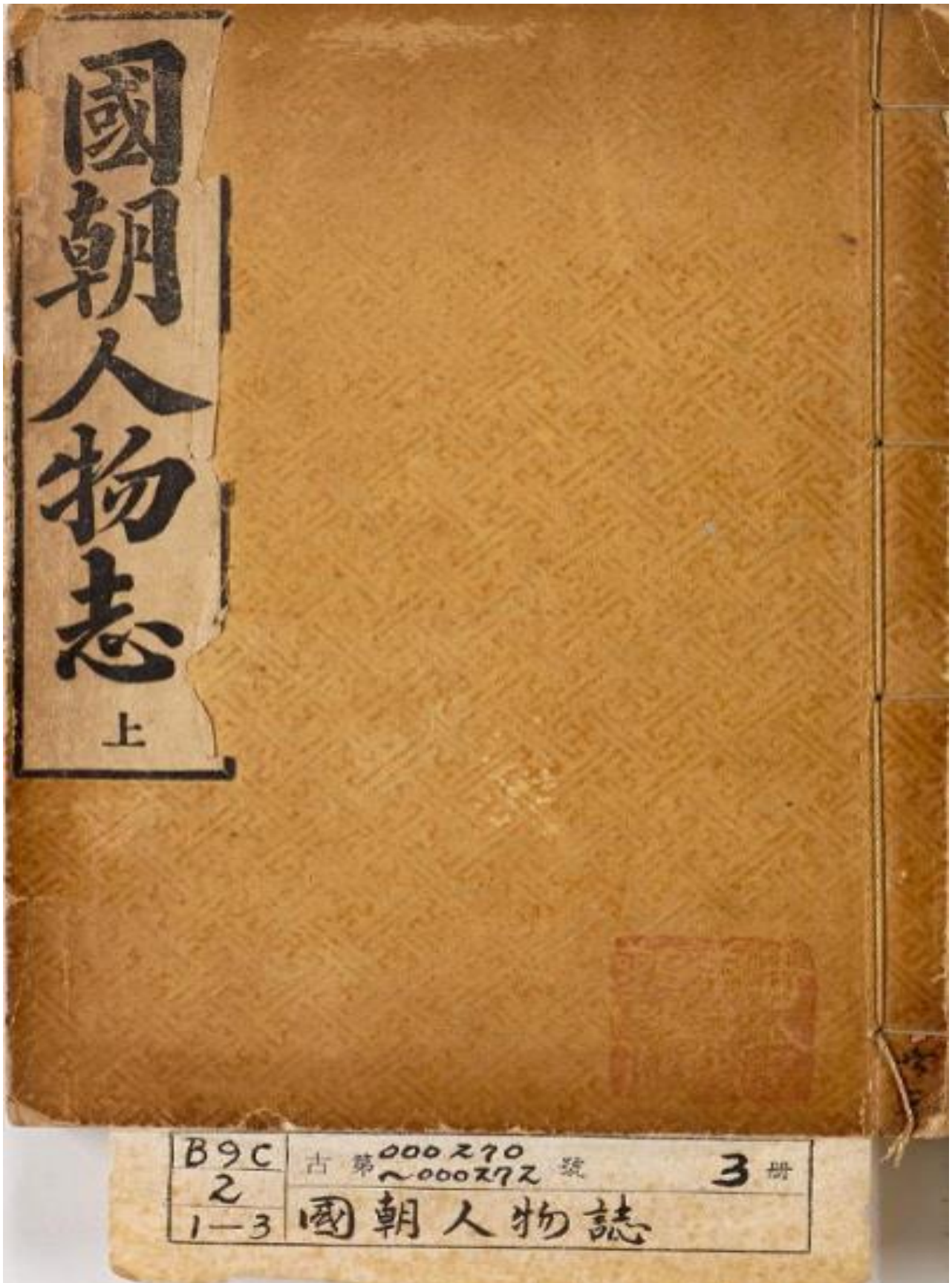




- |         |  |      |        |
|---------|--|------|--------|
| 표제/저자사항 | 科姓譜 / 유병금 aut  |      |        |
| 발행사항    | 柳炳錦, -----   | 형태사항 | 192 p. |
| 주기사항    | 目錄題 : 東國科姓譜, 歷代帝王傳授圖, 書名은 表題임<br>寫記: 庚戌年(?)三夏工亡 柳炳錦号南州偈以項瘡幸若中撮要抄之時年八十一<br>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      |        |
| 표준번호/부호 | UCI G701:B-00124908443   |      |        |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2513  |      |        |
| 주제명심우준  | 원당문고   |      |        |

三 瑞 米舟 甲戌大干 叔舟才 紫 潁 皇文泰高川君 叔舟子 云 攸 三 波 庚戌生判高川君 潁才 禮 德 軒 從 復 庚子 禮 泰 高 臺  
 田 澹 帝左相三 岳 澹 壬子 孝 椿 子 慈 山 从 潁 乙卯 吏 判 亦 舟 子 清 白 吏 伊 潁 光 漢 庚午 合 任 止 翁 洞 子 貞 簡 公 攸 潁  
 石 潤 字 居 人 明 混 壬子 禮 泰 滌 漢 子 滌 滌 才 有 才 名 三 滌 相 壬辰 名 相 貞 簡 公 正 用 澹 云 子 醇 有 三 用 三 司  
 祖 馮 白子 泰 判 著 述 有 舟 堂 混 甲申 校 理 初 履 述 滌 相 用 澹 云 子 醇 有 三 用 三 司  
 忠 清 鶴 州 申 氏 祖 三 滌 相 慶 西 三 滌 申 氏 祖 三 滌 相 丙午 年 正  
 金 興 城 申 氏 明 大 壽 甲子 祭 初 敬 堂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京 畿 南 楊 洪 氏 八 本 翁 七 人 南 谷 三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本 三 百 四 十 五 走 行 至 人 慈 稜 身 勉 叔 丁 丑 判 白 石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太 女 方 辛 巳 吏 判 世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三 滌 申 氏 自 人  
 皇 后 想 忠 貞 公 孫 世 祖 貞 甫 庚 辰 子 儀 齋 自 可 己 丑 兵 寇 亦 從 他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서지사항

자료명	국조인물지목록(國朝人物志目錄)	저자	안중화(安鍾和)
자료명(이칭)	국조인물지목록(國朝人物志目錄)	저자(이칭)	이왕직 편(李王職 編), 李王職 編
청구기호	K2-390	MF 번호	MF35-106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정의

安鍾和(1860~1924)가 1909 년(융희 3) 편찬한 『國朝人物志』의 目錄을 필사한 것이다.

서지사항

‘李王職’이 인쇄되어 있는 四周雙邊, 上下向黑魚尾의 朱色 印札空冊紙에 펜으로 필사하였다. 表紙書名은 ‘國朝人物志目錄’, 內題는 ‘博物館國朝人物誌三冊目錄’이다. 본 도서에 기록된 인물의 생존 시기로 미루어 볼 때 1910 년(융희 4) 전후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뒤표지 面紙에 1971 년 3 월에 藏書閣에서 再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1909 년 안중화의 『국조인물지』가 간행된 뒤 李王職에서 목록만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권은 태조 대부터 중종 대까지 약 900 명, 중권은 중종 대부터 인조 대까지 약 1,000 명, 하권은 인조 대부터 철종 대까지 약 1,100 명, 모두 3,000 여 명의 인물이 수록되었다.

조선시대 인물에 관한 저술은 ‘명신록’ 혹은 ‘언행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술되었는데, 1650 년(효종 1) 金堉의 『海東名臣錄』이 꼽히며, 18 세기에 宋徵殷(1652~1720)의 『國朝名臣言行錄』과 그의 아들 宋成明(1674~?)이 보완한 『國朝名臣言行錄』 등이 개인적인 차원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조 대에 들어서 왕명으로 沈晉賢(1747 년~?)이 26 권 26 책의 규모로 『人物考』(수록 인원 1,817 명)를 편찬하고, 다시 정조 때 74 권 분량으로 『國朝人物考』(수록 인원 2,065 명)가 만들어져 관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본서는 조선 후기의 인명 정보를 편집하는 이러한 방식의 최종적 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 및 가치

『국조인물지』가 1937 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편찬한 『朝鮮人名辭書』에는 심진현의 『인물고』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전통시대의 인명사전 편찬과 근대적 인명사전 편찬의 매개 역할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可笑之甚也以吏判丁憂服除拜本職一日忽覽鏡愀然不樂曰吾不知吾老之至此辭職不出諡恭簡國朝榜目大東韻玉周弟稠文科領相

李茂方 字釋之光陽人高麗忠穆王朝文科出知淳昌郡有求土物於郡者茂方解鞵帶付吏曰朋友私請不可以公物應之以此易所求與之請者愧謝而去金鑑當國累求見輒辭不往累遷政堂文學王以其清寒賜米五十碩茂方以不可虛受辭之王每稱政堂國耳忘家不畏權勢雖古人無以加之入本朝封府院君諡文簡

金從理 善山人生員邦老子司藝叔滋再從兄也少好學善草畫游陽村權近門與金泮爲友太祖五年登第藝文館直提學出知任實珍山古阜以清白名

申祐 号退齋尙州人性至孝父判書允濡卒廬墓三年雙竹生墳前人稱孝感旌閭我 太祖以龍潛故人徵拜刑曹判書不就官至按廉使 大東韻玉

宋愴 号雙清堂恩津人四歲而孤母柳氏父母憐其早寡欲奪志柳知其意抱愴行數百里往依舅姑終以女節顯愴既長器度豪爽內行純備柳夫人大靈強康怡愴承奉備志物之養祭祀必齋潔儀文悉用古制愴取予一毫不苟嘗構一堂爲燕處之所卽所謂雙清也深衣幅巾焚香靜坐不以俗事經心惟松青竹翠環之而已朴彭年作記以美之每遇良辰美景治酌命賓筆研棊梨各隨所好以極真率之趣 金尙憲撰墓表

卜問 河川人有孝行旌門官至司憲府掌令大東韻玉 世宗乙卯生員文科直講國

(太祖朝)申祐

號 退齋尙州人性至孝父判書允濡卒廬墓三年雙竹生墳前人稱孝感旌閭我 太祖

以龍潛故人徵拜刑曹判書不就官至按廉使 [卒:大東韻玉]



(仁祖朝)申悅道

任道上書曰守正之士孰不欲砥礪名行而及到名場鮮不失步官至工曹佐郎人物考

李厚慶 字汝懋号畏齋碧珍人與兄子道孜從寒岡鄭述學李時發按嶺南薦其行義見光海

政亂不屑就仕 仁祖改紀首除昌樂丞丁卯扈駕江都十月出知陰城庚午卒年七十三寒

岡曰子吾之畏友仍名以畏齋子道輔号益菴亦受學寒岡人物考

李道孜 字至之号復齋幼温粹美容貌與叔父厚慶同爲受業于寒岡鄭述丁酉避亂江陵乃

下從商販之業于沿海魚蝦之鄉以爲養雖在商舶中書冊不去手啣唔不絕口舟人漁子往

往習其句讀己亥返歸冷泉亭結居養心堂弟道由字明之号滄浪叟人物考

申悅道 字晋甫号懶齋鵝州人校理達道弟貌如玉沈重異凡兒旅軒張顯光教之聰明日進

十餘歲通經史百家丙午進士甲子文科丁卯扈駕江都戊辰以書狀官航海赴燕京戊寅爲

蔚珍縣令上疏極言民瘼軍弊 上嘉納 東溟金世謙曰南漢山城後第一議論丁亥爲掌令

壬辰出牧綾州卒年七十一有仙槎志聞韶志兄 達道字 亨甫庚戌生員癸亥庭試文科壯元

官至掌令人物考 侄壻字 時受生員文科 察訪達道子圭字 君瑞生員文科正

俞伯曾 字子先号翠軒杞溪人同知大逸子泓孫光海壬子進士文科癸亥錄靖社勳封杞平

君自少慷慨有大志以布衣上疏論任叔英直言削科之非登第不樂仕進母后將廢棄官歸

田癸亥以司諫劾金盞國朴憲趙誠立出爲伊川守丁卯 上幸江都伯曾自縣奔問屢請鍊

兵時糧曰賊未亡不可一日無備以吏曹參議疏論諸大臣媿媿姑息有曰既非君子又非小

仁祖朝 國朝人物卷三

一百五

字 晋甫號 懶齋鵝州人校理達道弟貌如玉沈重異凡兒 旅軒張顯光教之聰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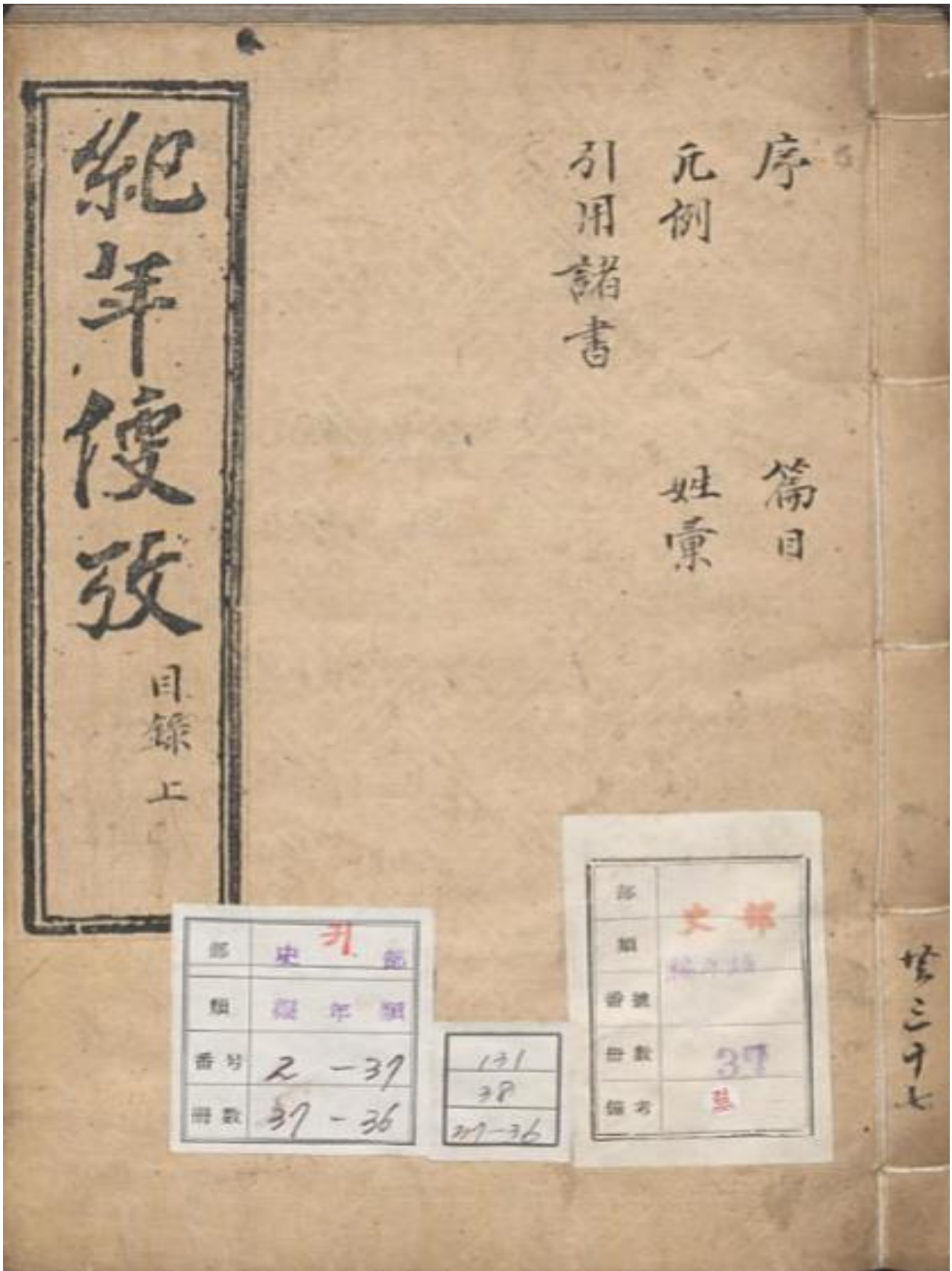
日進十餘歲通經史百家丙午進士甲子文科丁卯扈駕江都戊辰以書狀官航海赴燕京戊寅爲

蔚珍縣令上疏極言民瘼軍弊 上嘉納 東溟金世謙曰 南漢山城

後第一議論丁亥爲掌令壬辰出牧綾州卒年七十一有仙槎志聞韶志兄 達道字 亨甫庚戌生員癸亥庭試文科

壯元官至掌令 [平:人物考] 侄壻字 時受生員文科 察訪達道子圭字 君瑞生員文科正

기년편고(紀年便攷)



서지사항

자료명	기년편고(紀年便攷)	저자	박희성(朴羲成)
자료명(이칭)	紀年便攷	저자(이칭)	朴羲成(朝鮮) 著 ,
박희성(조선)저(朴羲成(朝鮮)著)		청구기호	K2-37 MF 번호 MF35-267~27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정의

1335년(고려 충숙왕 후 4년)의 조선 태조 탄생부터 1897년(조선 고종 광무 원년)까지 각 연도별 중요 기사를 편년 순서에 따라 강목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배향, 상신, 문형, 열전 등의 인물에 대한 약력을 기록하여 기전체적 형식을 갖춘 조선왕조사.

서지사항

錦樵 朴羲成이 편찬하였으며, 장서각 소장본은 線裝, 本集 70 권 34 책. 編首 1 권 1 책, 目錄 2 권 2 책. 總合 37 책. 四周雙邊, 半郭 20.8 × 13.3cm, 烏絲欄, 半葉 10 행 17 자,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크기 26.5 × 17.1cm. 紙質 : 楮紙, 版心題 : 彞敍藏. 目錄 上卷 序 : 癸丑肇夏上旬七十六歲人書于永慕齋中, 卷末 識 : 歲丁巳夏五月之望我夢居士識. 규장각본에는 같은 이름의 44 권 22 책본 ㄹ기년편고ㄹ가 있으나 편수와 2 책 및 권 45 이하가 빠진 영본이다.

체제 및 내용

장서각본의 목록에 수록된 범례에 따르면 먼저 기사를 적고 다음 열전을 적으며, 조선 태조가 태어난 1335년(고려 충숙왕 을해)으로부터 1897년(고종 광무 원년)까지 기재한다고 적었다.

편찬자는 朴羲成으로 1913년에 쓴 서문이 목록 상에 들어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1917년에 쓴 我夢居士의 지문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17년에 최종적으로 정서하여 완성하였으며 이때 璿源先系를 다룬 편수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기사를 적을 때는 강목의 예에 따라 적었다.

범례에서는 열전의 수록원칙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물에 대한 선약과 포폄은 인용한 서적을 따랐으며, 한 글자라도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덧붙이지 않았다.

문지나 관작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으며, 惡逆誅廢者도 징계의 뜻을 보이기 위해 포함시켰다. 열전 기록시 인물의 성명은 ㄹ연려기술ㄹ의 예에 따라 직서하였다. 종실은 명덕이 있는 자를 적되 가장 앞세웠다. 인물의 기재는 대신. 장신에서 내관. 산인에 이르기까지 행적이 뛰어난 사람은 모두 적었으며, 지은 죄가 무겁거나 비상한 죄로 유배당한 자들도 역시 적었다.

## 기년편고(紀年便攷)

형제나 자손이 열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사항을 적었다. 편자는 향촌에서 있어서 서적을 널리 상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인물인데도 빠졌거나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소략한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록을 덧붙여 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용제서조에는 144 종의 책명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선원보략, 각성보첩 등의 족보류에서부터 여사제강, 국조보감 등의 사서류, 국조인물고, 국조인물지 등의 인물지, 기묘록, 아아록 등의 잡편류, 목은집, 양촌집 등의 문집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책을 참고하고 있다.

編首에는 璿源先系를 기술하였으며, 목록 2 책에는 序文, 凡例, 引用諸書, 篇目, 姓彙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본문의 서술은 강목의 서술원칙에 따라 편년 순서대로 중요한 사실을 적었다.

왕이 죽은 다음에는 배향, 상신, 문형, 호당, 열전 등 인물관련 내용을 적었다. 본집 70 권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1 : 高麗忠肅王, 高麗忠惠王, 高麗忠穆王. 권 2 : 高麗忠定王, 高麗恭愍王. 권 3 : 高麗辛禔辛昌, 高麗恭讓王. 권 4 : 高麗守節諸臣. 권 5 : 本朝太祖, 定宗. 권 6 : 太宗. 권 7~8 : 世宗. 권 9 : 文宗, 端宗. 권 10 : 世祖. 권 11 : 世祖, 睿宗. 권 12~13 : 成宗. 권 14 : 燕山君. 권 15~18 : 中宗. 권 19 : 仁宗, 明宗. 권 20~22 : 明宗. 권 23~31 : 宣祖. 권 32~33 : 光海君. 권 34~44 : 仁祖. 권 45~46 : 孝宗. 권 47~48 : 顯宗. 권 49~53 : 肅宗. 권 54~55 : 景宗. 권 56~59 : 英祖. 권 60 : 英祖, 莊祖. 권 61~63 : 正祖. 권 64 : 純祖. 권 65 : 純祖, 文祖. 권 66 : 憲宗. 권 67 : 哲宗. 권 68~70 : 大皇帝.

## 자료적 특성 및 가치

강목형식을 취하여 내용면에서 다른 사서에 비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점은 부족하지만 일개인이 40 여년의 공력을 바쳐서 조선왕조의 역사를 강목형식을 통해 정리하였다. 서술에서는 춘추편년의 집필 원칙에 따라 적고 있으며, 강목 범례의 정신에 입각하였다. 절필한 시기를 1897 년으로 잡은 것은 미탈고가 아니라 왕조가 끝나면 후대 사가들이 기전체의 방식으로 이전 왕조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역사관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 소장현황 및 영인관계

같은 제명의 紀年便攷가 장서각(청구기호 K2-37)과 규장각(규장각 청구기호 古 4250-7)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본이 완본에 해당된다.

咧 濡列六 混善列 翼相補 慶濟

逆甫列一 所貞甫列二 文濟甫列二 濔甫列

一 光洙英列 阿二 佐模列 獻亦列

原州申孟慶喧列

寧海申維翰英列

鵝洲申之梯宣列五

正模英列

蔚山申成慕濡

貫鄉未考秩

中

達道 仁道 悅道

당호비고만성씨보(堂號備攷萬姓氏譜)

堂號備攷萬姓氏譜

五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i>KE</i>
	圖書番號 15183
	一部冊數 5
	內別番號 5
서울대학교	

共五

서지사항

원서명	堂號備攷萬姓氏譜	현대어서명	당호비고만성씨보
청구기호	奎 15183-v.1-5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世紀 初 以後]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5卷 5冊
체크기	34×23.1 츠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 번호	M/F90-35-30-A, M/F82-16-280-L		
자료소개	憲宗(1827-1849)朝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姓氏와 本貫별로 重要인물들의 號와 성명을 鎔고 간단한 說明을 붙인 책		

정의

고려말부터 대한제국기까지 별호나 당호를 가진 인물을 성씨별로 나열하여 호·이름·자·가계·등과시명 등을 기록한 족보. 성씨보.

체제 및 내용

5 권 5 책. 필사본. 조선 말기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편자는 미상이다.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 1 에는 전주이씨·연안이씨·한산이씨·경주이씨·전의이씨·예안이씨·고성이씨 등 이씨 7 개 관성(貫姓)을 비롯하여 광산김씨·안동김씨 등 김씨 11 개 관성, 부계홍씨 등 홍씨 2 개 관성, 기타 연안차씨·남원독고씨 등 2 개 관성 등 모두 22 개 관성을 실었다.

권 2 에는 경주김씨·광산김씨·청풍김씨·개성김씨·의성김씨·선산김씨·강릉김씨 등 김씨 32 개 관성, 반남박씨·밀양박씨 등 박씨 20 개 관성, 청송심씨 등 심씨 3 개 관성, 영산신씨 등 신씨(辛氏) 2 개 관성, 기타 장수황씨 등 황씨 2 개 관성 등 모두 59 개 관성을 실었다.

권 3 에는 해주오씨 등 오씨 7 개 관성, 인동장씨 등 장씨 7 개 관성, 회인황씨 등 황씨 6 개 관성, 대구서씨 등 서씨 6 개 관성, 기계유씨 등 유씨(兪氏) 5 개 관성, 기타 풍양조씨·진주강씨·양천허씨 등 21 개 관성 등 모두 52 개 관성을 실었다.

권 4 에는 덕수이씨·경주이씨·영천이씨 등 이씨 30 개 관성, 문화유씨 등 유씨(柳氏) 6 개 관성, 기타 청주한씨·한양조씨 등 16 개 관성 등 모두 52 개 관성을 실었다.

### 당호비고만성씨보(堂號備攷萬姓氏譜)

권 5 에는 동래정씨 등 정씨(鄭氏) 16 개 관성, 파평윤씨 등 윤씨 8 개 관성, 나주임씨 등 임씨(林氏) 5 개 관성, 기타 경주최씨·개령문씨·흥해배씨·제주고씨 등 54 개 관성 등 모두 83 개 관성을 실었다.

권 1 에서 권 5 까지 총 185 개 관성에 약 3,800 인을 수록하였으며, 등재인물순으로는 전주이씨 196 인, 연안이씨 105 인, 광산김씨 123 인, 안동김씨 94 인, 한산이씨 92 인의 순이다.



寅齋

際

字子恪太祖祭酉科文左相謚文德公之五代孫守武科官至判書守  
穩城勦滅蕃胡壬辰喪師獲川砮砮之葬也武兵使壬辰殉節景祺守  
君受砮之干也武科官至領相請社功臣封平城君配仁祖通號汝抗卒季明穆之曾孫也武科  
官至判書守甲戌希載之亂拜劄將兼禁將御將兼左右捕將日俾五符平時大星殞

象村

欵

字敬叔宣祖朝文科官至領相謚文貞公配仁祖庚

東淮

翊聖

字君爽宣祖朝駙馬封東陽尉謚文靖善書畫

葦庵

諱

字大用文科官至吏判己卯與鄭光弼救士流

鷺州申氏

梧峰

之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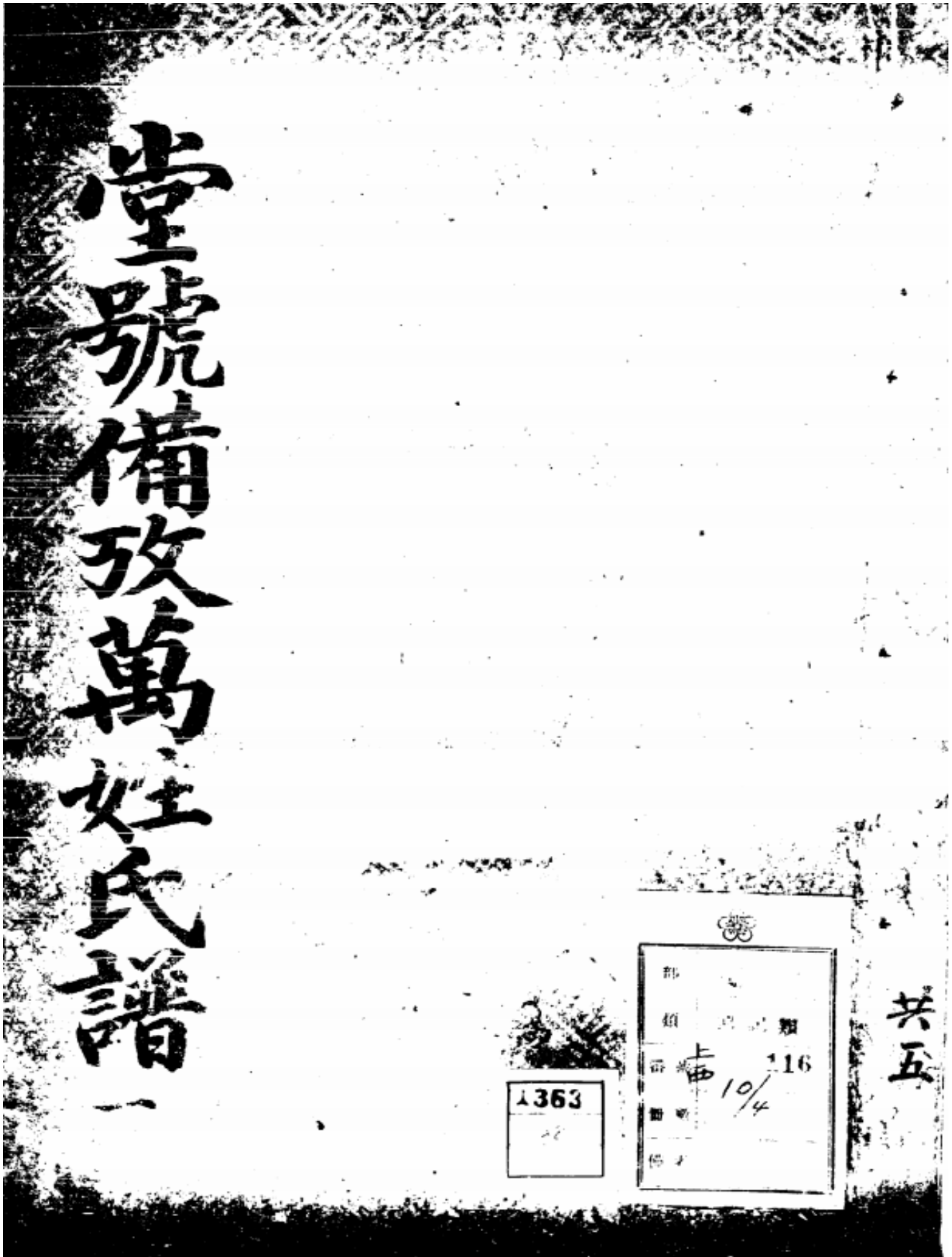
字順甫文科官承旨有文名

青泉

維翰

字周仲肅宗朝文科官奉常正嘗為通信使製述官

당호비고만성씨보목록(堂號備攷萬姓氏譜目錄)



서지사항

자료명 당호비고만성씨보목록(堂號備攷萬姓氏譜目錄)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 堂號備攷萬姓氏譜目錄	저자 [編者未詳]
청구기호K2-1732 MF번호 MF35-723, 992	
유형분류고서/기타	주제분류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왕실/고서/한국본 자료	제공처 장서각(SJ_JSG)

정의

고려 말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312개 姓貫 출신으로 別號 또는 堂號를 가진 인물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堂號備攷萬姓氏譜'이며, 版心題는 없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三·四·五'로 표기되어 있다. 書腦 하단에 '共五'라는 기록이 있다. 書根에는 書根題 '堂號備攷萬姓氏譜'와 冊次가 기재되어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帝室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는 '舊宮'과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과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는데, 주색 또는 흑색으로 교정하거나 종이를 도할하여 수정한 부분도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 말기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편자는 미상이다.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 권1~5에 총 312개 姓貫을 수록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말기까지 別號 또는 堂號를 가진 인물을 각 성씨별로 정리하여 號·名·字·家系 등 간략한 행적을 수록한 책이다. 서술 체제를 살펴보면, 세로로 별호와 당호를 맨 위쪽에 기록하고 아래에 이름과 간략한 행적을 기록했다.

각 권별로 수록된 姓貫은 다음과 같다. 권1에는 全州李氏 등 李氏 7개 성관을 비롯하여 光山金氏 등 金氏 11개 성관, 기타 延安車氏·南原獨孤氏 등 2개 성관 등 모두 20개 성관을 실었다. 권2에는 慶州金氏 등 金氏 33개 성관, 潘南朴氏 등 朴氏 20개 성관, 靑松沈氏 등 沈氏 3개 성관, 靈山辛氏 등 辛氏 2개 성관, 기타 長水黃氏, 三陟沈氏 등 4개 성관 등 모두 62개 성관을 실었다. 권3에는 海州吳氏 등 吳氏 7개 성관, 仁同張氏 등 張氏 7개 성관, 懷仁黃氏 등 黃氏 6개 성관, 大邱徐氏 등 徐氏 6개 성관, 杞溪兪氏 등 兪氏 5개 성관, 기타 豐壤趙氏·晉州姜氏·陽川許氏 등 23개 성관 등 모두 54개 성관을 실었다. 권4에는 德水李氏 등 李氏 40개 성관, 文化柳氏 등 柳氏 6개 성관, 기타 淸州韓氏·漢陽趙氏 등 16개 성관 등 모두 62개 성관을 실었다. 권5에는 東萊鄭氏 등 鄭氏 16개 성관, 坡平尹氏 등 尹氏 8개 성관, 羅州林氏 등 林氏 5개 성관, 기타 慶州崔氏·開寧文氏·興海裴氏·濟州高氏 등 85개 성관 등 모두 114개 성관을 실었다.

西村 圖南

字萬里文科官縣令丁卯薨死謚忠愍 文相安州

松亭 琳

字( )辛禡時科本朝官至禮議

新平 宋氏

倪仰亭 純

字和卿中宗朝文科官贊成己巳被謫大小科回播九士奉文官

知止堂 欽

字欽之文科官判中樞謚孝憲成宗時也

冶爐 宋氏

陝川屬縣也

仰溪 翁希全

字天章中宗朝文科官亂載丁丑薨死孝

平山 申氏

壬申

寅齋 槩

字子格太祖醫科文左相謚文僖(公)五孫探砥亭忠武科官至判丑祭文奇  
穆城勛淑蕃胡壬辰喪師待川 碇礎弟也武兵使壬辰殉節 果稟慎

君茂 破之 子武科官至領相靖社功臣封平城 君配仁祖 孫廷汝 哲字季明 破之曾孫也 武科  
官至判教 窮中以帝 載之 亂拜訓將 勇禁 拊御 而 若 捕 將 百 佩 兵 符 卒 時 大 皇 帝 崩

象村 欽

字敬叔宣祖朝文科官至領相謚文貞 配仁祖庭

東淮 翊聖

字君夷宣祖朝 州馬封東陽府謚文靖 善書西

韋庵 鐸

字大用文科官至更判己卯與鄭北河救士流

鷲州 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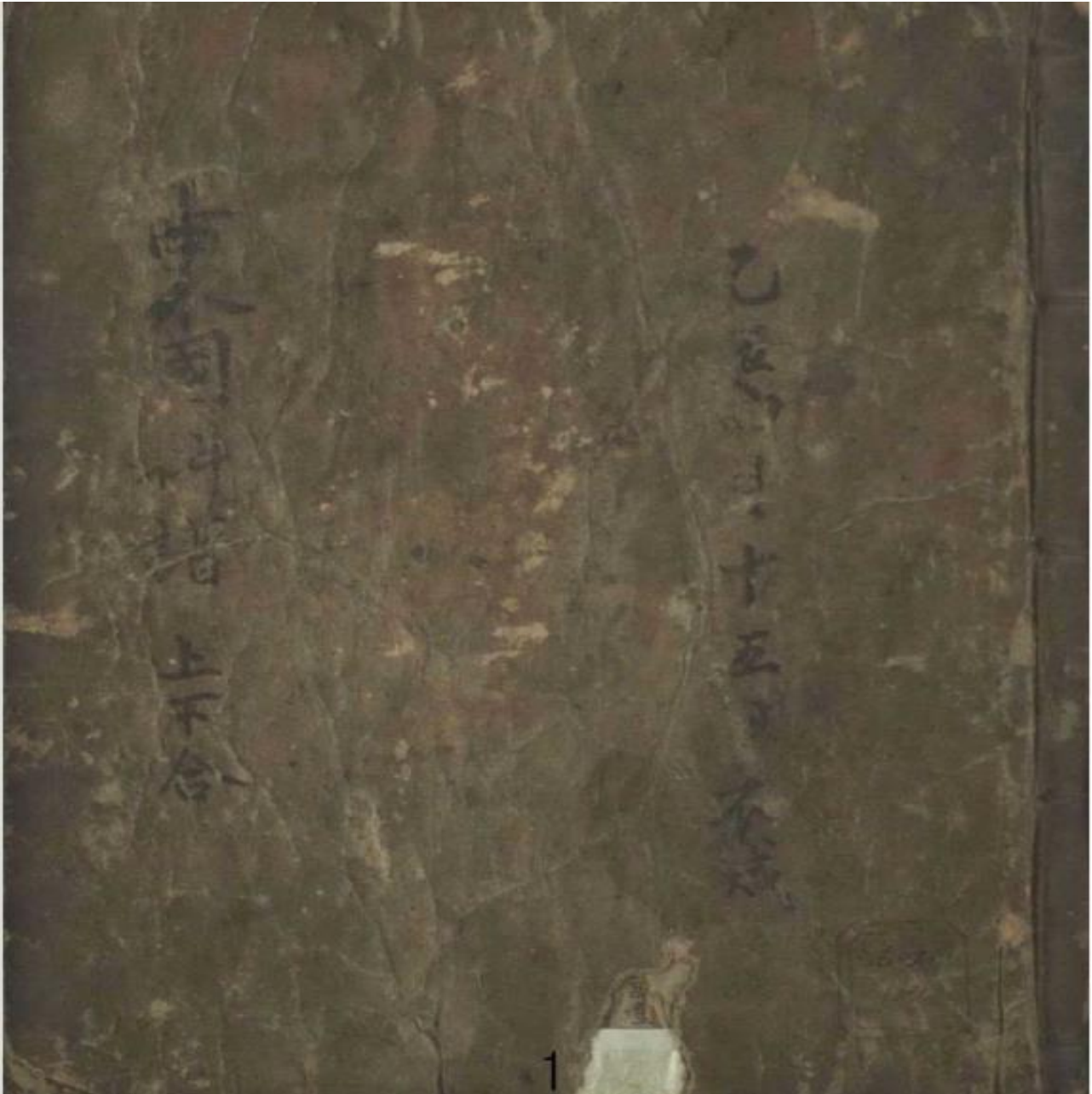
梧峰 之悌

字順甫文科官承旨有文名

青泉 維翰

字周伯肅宗朝文科官奉常正嘗為通信使製述序

# 동국과보(東國科譜)



##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東國科譜	판사항	筆寫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1冊(93張): 行字數不同. 無魚尾; 23.0 x 25.3 cm		
주기사항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훼손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요약:	姓氏副科宦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됨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6024		

泳 巴邑兵佐  
本开茂少

深 辛卯大疎  
漢子

橈 辛丑掌令

景洛 乙巳市令  
漢子

得淵 先師惠公孫  
漢子玄圃

得游 庚戌注書

景汶 丙辰知事

濡 仁祖丙子判官  
漢子玄圃

得洪 巴州咸都  
漢子玄圃

汎 甲申牧使  
景洛子

混 甲申政理有恩  
漢子玄圃

翼相 貞宗壬寅相  
漢子玄圃

善濕 辛亥三言  
漢子玄圃

滯 庚子別尹  
漢子玄圃

浹 丙辰知事  
漢子玄圃

必清 甲子判官  
漢子玄圃

慶濟 巴邑右尹  
漢子玄圃

澤 壬午判官  
漢子玄圃

混 乙酉判官  
漢子玄圃

魚濟 戊子判官  
漢子玄圃

滌 漢子玄圃

澤 甲子判官  
漢子玄圃

一清 庚子判官  
漢子玄圃

紀河 丙子判官  
漢子玄圃

處洙 景宗壬寅判官  
漢子玄圃

景沆 壬申判官  
漢子玄圃

景濟 甲子判官  
漢子玄圃

益彬 己卯判官  
漢子玄圃

五清 戊午判官  
漢子玄圃

尚權 壬午判官  
漢子玄圃

禹相 戊子判官  
漢子玄圃

光洙 壬子判官  
漢子玄圃

光柱 己卯

鵝州申氏

之悌 宣宗己丑判官  
漢子玄圃

達道 仁祖壬寅判官  
漢子玄圃

悅道 甲子判官  
漢子玄圃

弘望 己卯判官  
漢子玄圃

溜 乙酉判官  
漢子玄圃

奎 壬午判官  
漢子玄圃

正模 丙子判官  
漢子玄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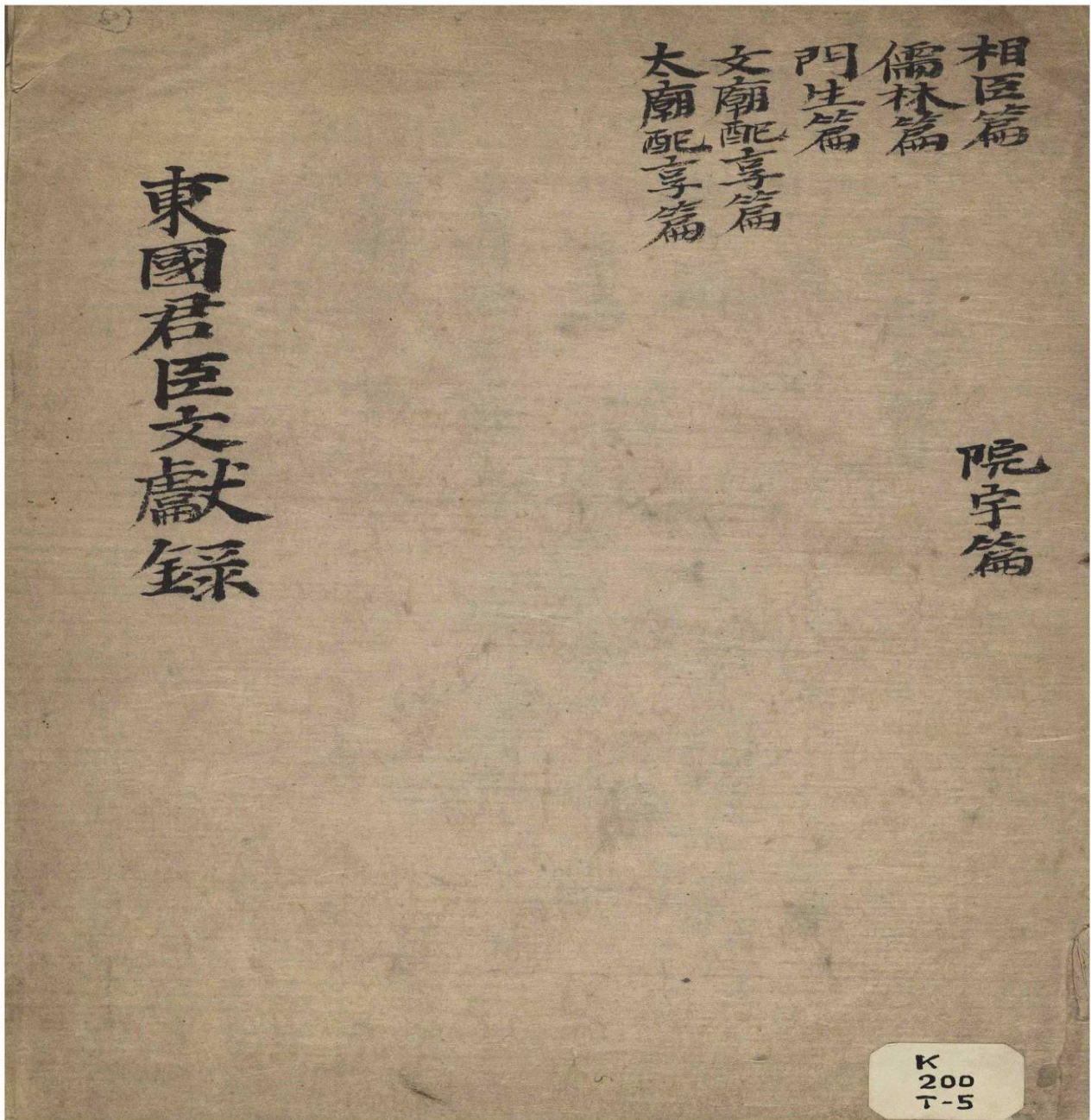
寧海申氏

楫 宣宗壬寅判官  
漢子玄圃

厘 景宗壬寅判官  
漢子玄圃

維翰 景宗壬寅判官  
漢子玄圃

동국군신문헌록(東國君臣文獻錄)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동국군신문헌록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世紀

형태사항        JPG1冊: 無界, 10行字數不定; 30.0 x 20.7 cm

주기사항        內容: 相臣, 儒林, 門生, 文廟配享, 太廟配享, 院宇篇 等

원본소장처 :    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표준번호/부호UCI    G701:B-00047689320

慶尚道

賢祠 德谷趙承甫竹堂鄭復周松齋盧叔全信古堂盧友明○通川鄉賢祠

建春堂朴孟智逸老堂梁灌琴齋姜漢蓋溪表泂洙九拙庵梁喜燭溪河孟賢

慶州西岳院嘉靖辛酉建弘儒侯薛聰開國公金庚信文昌侯崔致遠○玉岳院隆慶壬申建

李晦齋○崇烈祠庚辰建貞武公崔震立○通崗祠益齋李齊賢○東崗

祠愚翁孫仲暎仁山崇宋九菴

金海新院戊申建南溟曹植松溪申秀誠

昌原檜原院崇禎甲戌建寒岡鄭述眉叟許稷○雲岩鄉賢祠登即愚谷朴身潤

義城水溪院嘉靖丁巳建慕齋金安國晦齋李彦迪西崖柳成龍旅軒張顛

光鶴峰金誠一○鶴山忠烈祠朴彭年河緯地成三問李埏柳誠源俞應宇

朴泰輔李世萃○鎮民祠詹事金龍庇○威待院蔣松隱金光粹晦堂申



元祿梧峰申之悵敬齋李民成

金山景濂院越子佔畢齋金宗直東臺崔善門平靖公李約東梅溪曹偉嵐

亭金始昌

延日烏川祠萬曆榮陽鄭公龍衣圃隱鄭夢周

居昌褒忠祠贈大憲李述源

青松屏巖院壬寅栗谷李珥沙溪金長生○鶴山院癸未退溪李滉鶴峰金誠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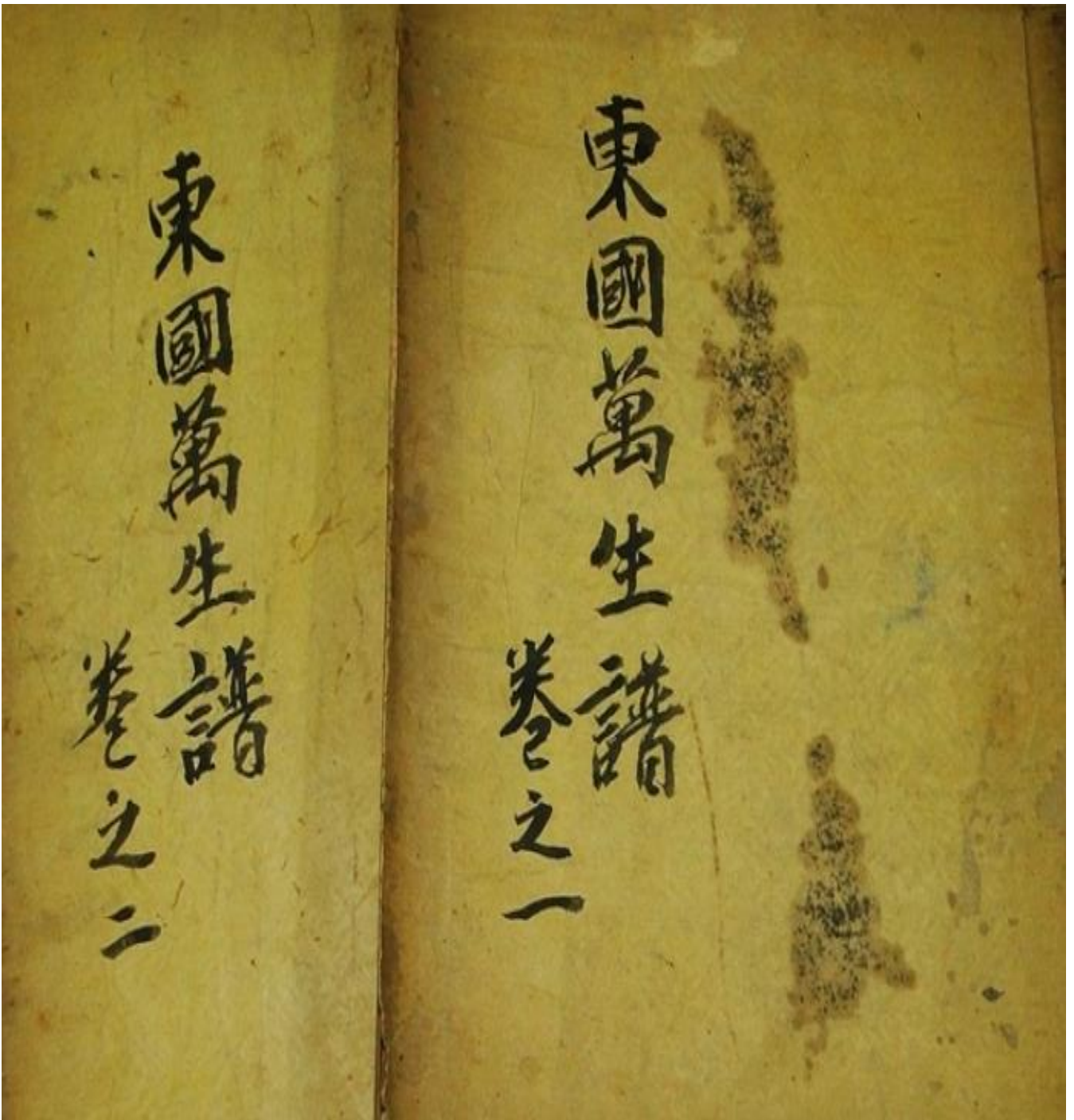
旅軒張顯光

慶山孤院建子退溪李滉愚伏經世

晉州殷烈祠天啓殷烈姜民瞻○忠愍祠贈頴相金時敏○德山院壬寅

溟曹植守愚崔永慶○彰烈祠萬曆健齋金千鎰兵使崔慶會東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명칭	동국만성보	다른명칭	東國萬姓譜
국적/시대	한국-일제강점	저자 :	최종해(崔鍾海) 編
발행처 :	國立中央圖書館	발행연도 :	1990
주기사항	序: 歲丙子(1936)...鄭宗和	跋: 丙子(1939)...金秉煥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족보/호적 - 기타		
재질종이	- 저지	크기세로	32.1cm, 가로 21.6cm
소장품번호시박	2582		

姓氏目錄索引番號

黃氏合十五本 平海 長水 昌原 尚州 懷德 紆州 黃州 汪華 管城 德山 扶安 沔川 三岐

鄧州 豐德

張氏合三十二本 仁同 德水 昌寧 永同 安東 興德 常賈 蔚珍 木川 求禮 結城 金海 長淵

禮山 延安 扶安 龍安 太原 知禮 順天 鎮川 康津 川寧 沃濟 興海 晉州 安豐 驪興

榮州 高州 松禾 嘉山

吳氏合二十本 海州 五同 福城 陽高 敵羅 州寶城 莖原 延日 咸平 三嘉 長馨 和順 朔山

樂安 長興 義城 珍原 寧遠 杞溪 軍威

韓氏合十五本 清州 七溪 陽九 大興 平山 滿州 楊州 鴻山 安遠 嘉州 沔川 谷山 唐津 扶安

保安 錦山

徐氏合十六本 利川 十達城 十長城 連山 平當 南平 南陽 唐城 扶餘 瑞興 宜寧 黃山 監州

軍威 十龍宮 知禮

安氏合十一本 順興 十廣州 十竹山 耽津 酒泉 公山 忠州 尼城 安山 堤川 安東

申氏合十四本 平山 十高靈 十鶴洲 宰海 信川 十般豐 天安 利川 谷城 朔寧 昌州 朝宗 牙山 高原

權氏合二本 安東 十醴泉 十八

新詳編會所寄贈本

耽津 別號始祖 安祐

高麗平章事配崇義殿

身隱 安止

朝鮮世宗科文衡領中樞文靖公一祐玄孫 權梅軒門人受易

池谷 安堅

世祖護軍善畫上命畫太祖八駿

蘆溪 安遇

成宗逸縣監有集蘆溪松原院 佔俸門人

月窓 安應世

子挺全進士能詩又號鷗鷗主人藝菴野人烟波釣叟與南秋江友善

磊谷 安克家

宜之隱德不仕與曾祖遇同享松原院

止軒 安起宗

宣祖軍資監正以壬辰義功贈世議 六代祖堵高麗科獻納朝鮮孝旌堵子經 孫從禧正郎孝旌 堵曾孫舜民 玄孫潤屋五世孫仁俱奉奉孝旌 六世孝旌 仁子起宗

酒泉 原州 居縣 安敬仲

功原川君

公山 別號 公州 安慶孫

武功公山君

忠州 安鴻

子漸明宗牧使著乙巳錄 鄭之雲門人

尼城 安世豪

中宗科副正

安山 安子由

高麗食議評理

堤川 安迪村

全評理

安康 慶州 居縣 安方榮

全大將軍

印氏 炎帝之后封於印因以邑為氏

平山 始祖 印崇謙

高麗太祖壁上功臣太師壯節公十年丁亥與訖蓋大戰于大邱公山桐敷代王 死節如漢高祖之紀信平山東陽院其先光海州人今春川府初名能山靈祖賜名賜籍

寔齋 印 縑

子格朝鮮太宗左相文僖公配世宗廟宗諱十四世孫 父安十歲補判官麗亡不仕

曉憲 印 曉

太祖正言言官禁事憲府以虛異李陽明同罪劾之 既弟

韋庵 印 錦

大用燕山科吏到文節公已卯禍與鄭光弼救士類 一 既弟

龜峰 印 命

仁榮仲中宗進士已卯禍作與李若冰朴光佑哭闕庭遂不仕 既弟 曾孫 金漢門人

印 命

和孝致全上已卯賢人女師姪李栗谷母也通孝經能詩名筆善畫葡萄 既弟 曾孫

印 嶼

嶼潤甫全科叢贊夷簡公以太學生陳已卯諸賢之完 曉曾孫 金漢門人

橘宇 印 仲

樂翁全上執義已卯辭逸預知有士禍辭連宋祀連殺自裁砥平鄉祠

松溪 印 季

誠子誠明宗逸叢奉有實記密陽禮林院五代祖孝昌開國功到善普靖公 朴松堂門人

楊齋 印 點

曾與全科判中樞功平城府院君忠景公使明朝多貿易幹始碩來 崇謙二十世孫

印 吉

元 宣祖壬辰以聞慶縣監罵賊不屈而死大卸表忠祠 崇謙十八世孫

印 浩

源 全壬辰以樂安郡守戰死于蛟龍山城武壯公南原忠烈祠

印 礪

伯峻 全科判宣武功平川府院君忠憲公 錦孫 七世孫大顯八世孫綱 鴻周 九世孫禧十世孫正殿并大將

印氏

印氏

十四

高靈

申

沆 客耳成宗駙馬高原尉文孝公三十二年從漢子孫穢中宗駙馬靈川尉

靈川子申

潛 元亮中宗已卯賢良科檢閱罷榜辛巳技流長興十七年後蔭高州牧大興儒化城院附村玉沈弟

申

湜 正叔全上翰弘大憲著家禮諱解五卷孝旌清州醴川院洞玄孫凡漁城港文副學壬辰倡義

霞隱 申

涌 李叔宣祖科翰弘海伯清州鳳溪院洞玄孫湜弟

晚退堂 申

應 槩子方逸承旨議有集用漑玄孫牛溪門人子湖隱澆

玄圃 申

得 淵靜吾光海科參判癸亥竄死湜子寒岡門人

鍾山 申

漵 孝宗科吏參孝旌清州鳳溪院涌孫

醒齋 申

翼 相叔顯宗科參判肅宗乙亥右相中宮選位泣歸揚州父福逸正言祖應槩子直堂瀟欽使

石北 申

光 洙重淵英祖科承旨以詩文名有集五卷五代祖湛副學弟震澤光河承旨

晦堂 申

元 祿隱德不仕贈戶議義城藏待院祐六世孫

梧峰 申

之 悌順甫宣祖科承旨孝行有詩名同享藏待院祐八世孫

晚悟 申

達 道亨青仁祖科修撰弟懶齋悅道晉甫文學令丁卯扈駕江都撰仙槎志間詔志

孤松 申

弘 望坐久全上正言有集之悌子旅軒門人

寧海不談齋 申

賢 朝鮮初奉使入明明太祖以忠貞臣三字為賢賜名有實記謚文貞公始祖得清列事

青泉

印 維翰

周伯肅宗科參判為通信製述官能文有集八卷子楫景宗科曲籍

信川

印 贊

高麗三重大匡信川君

殷豐

印 承休

全密直副使

天安

印 周錫

全太保定簡公

利川

印 瑛

全尚書

谷城

印 世遠

全持仕郎

朔寧

印 允麗

贈贊成事

昌洲

印 甫

京軍

朝宗

印 豪

光海辛酉科僉正

牙山

印 英

光海辛酉科僉正

高原

印 櫓

濟而生員以先累停舉見國朝詩刪壬辰推鄭文孚為帥復六鎮人物志曰高靈人

未詳

印 汝楷

宣祖壬辰為東萊府使宋象賢係人殉節贈中郎奉奉東萊樂安院西廡文獻錄曰高靈文

未詳

印 恪

副元帥延安顯忠祠

未詳

印 世俊

會知會寧顯忠祠

甲氏

會知會寧顯忠祠

十六

右書東島崔鍾海之所撰述而兼又枝離成編者也夫士之行世泥氏譜之學則雖讀書萬卷終歸於固陋之學矣昔李倉曹有氏譜之癖一時名流爭相推翹目之為人物誌至今用為美談然則氏學之習宜乎士子之所當勉也自軒皇分姓以來四五千載之間一姓分貫殆至數百間或有諸家哀記徒生齒日增姓譜漸衍考覽者有非刻燭擊鉢之間所可探索者也東島為是之病遂縱拾諸家譜彙博考前代史氏蒐合成編尤所致詳在於巨姓已顯之蹟則節而略之側微不顯之事則詳而盡之務以精約各以姓類分為目次以便繙閱使人開卷某姓某先生之道德文章忠孝節烈舉皆歷歷於心目之間所謂學半功倍之效於斯可見而窮鄉固陋之學當有裨益矣此豈非島翁積工之實驗耶余曾旅食京師亦有志于氏譜之學姓彙統譜簪纓譜人物考八世譜南譜備考之類雖不能盡讀抑不可謂不涉其流者也顧樸拙徒資於口談而不能生意於記述之役與島翁遺功於後人者比之蔑如自愧於心者多矣至若附尾之文固非不佞所敢任特以夙好係心又重其請謹跋如右觀者恕之

丙子初秋前主事金秉煥識



昭和十一年十月二十四日許可  
昭和十二年十二月三十日印刷  
昭和十三年二月二十五日發行



賣品

壹帙二付  
定價金參圓五拾錢也

江原道江陵郡城德面長峴里壹四九番地

著作兼發行

崔鍾海

江原道江陵郡江陵邑旭町一。六番地

印刷者

崔明燦

江原道江陵郡江陵邑旭町一。六番地

印刷所

光文社

江原道江陵郡城德面長峴里一四九番地

發行所

崔鍾海方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서지사항

자료명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東國名賢錄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403 MF번호 MF35-70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一般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작성시기	18세기(世紀) 이후(以後)
사부분류	사부	M/F번호	MF35-707
청구기호	K2-403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록시기	18世紀 以後	판본	필사본(筆寫本)
크기(cm)	26.2 X 16.7	수량	1책(冊)
장정	선장(線裝)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정의

조선시대 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인명록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東國名賢錄'이고, 표지 서명 하단에는 '單'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1면 우측 상단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과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하였고, 청색으로 소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에 꺾쇠 표시를 하였다.

체제 및 내용

편찬 시기는 「三臣」에 朴泰輔(1654~1689)가 있고, 행주기씨에 奇正鎭(1798~1879)이 없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본서는 「大聖殿配享次第位」, 「啓聖祠」, 「死六臣」, 「東方五賢」, 「生六臣」, 「書院」, 「三臣」, 「三節」, 「東西南北清濁老少論」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東國名賢錄」으로 성씨별로 조선시대의 인물을 열거하였는데, 본서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한다. 「대성전배향차제위」에는 主壁位, 東配, 西配, 東從享, 西從享, 東廡, 西廡의 순서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을 정리하였다. 「계성사」는 叔梁紇, 顏路, 曾點, 孔鯉, 無赤을, 「동방오현」에는 鄭汝昌, 金宏弼, 李彥迪, 李滉, 趙光祖를 기록하였다.

「서원」에는 顏子洞, 程子洞, 朱子洞, 「삼신」에는 朴泰輔, 吳斗寅, 李世華를 기록했는데, 모두 1689년(숙종 15) 己巳換局 때에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한 인물들이다. 「삼절」에는 병자호란 때에 척화를 주장한 洪翼漢, 吳達濟, 尹集 등 三學士를 기록하였다. 「동서남북청탁노소론」에는 동인, 서인, 북인, 대북, 소북, 대론, 소론, 남인, 청남, 탁남 등 당파의 영수와 해당 인물을 열거하였다.



##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동국명현록」에는 李氏, 金氏, 朴氏, 鄭氏, 尹氏, 趙氏, 洪氏, 崔氏, 柳氏, 宋氏, 安東權氏, 醴泉權氏, 昌寧成氏, 驪興閔氏, 高靈新氏, 鵝州申氏 - 附寧海申氏, 徐氏, 沈氏, 昌寧曹氏, 清州韓氏-附三和韓氏一人, 宜寧南氏, 黃氏, 吳氏, 安氏, 張氏, 許氏, 信川康氏, 晉州姜氏, 泗川睦氏, 丁氏, 林氏, 豐川任氏, 呂氏, 綾州具氏, 俞氏, 蔡氏, 寧越嚴氏, 原州元氏, 羅氏, 郭氏, 盧氏, 清州慶氏, 晉州河氏, 咸從魚氏, 丹陽禹氏, 文氏, 高氏, 楊氏, 梁氏, 白氏, 邊氏, 卞氏, 辛氏, 幸州奇氏, 裴氏, 玄氏, 晉州蘇氏, 居昌愼氏, 奉化琴氏, 孫氏, 平海吉氏, 尙州周氏, 古阜孔氏, 新昌孟氏, 淳昌薛氏, 新昌表氏, 瑞興廉氏, 全氏, 田氏, 延安車氏, 木川尙氏, 積城朱氏, 平壤鮮于氏 등 73개 성씨를 수록하였다.

인명의 열거 방식을 살펴보면, 예컨대 '思謙齋 李承孝'와 같이 호와 이름을 큰 글씨로 쓰고, 그 아래 小注로 본관, 과거에 합격한 왕대, 가족 관계, 사승 관계, 주요 관직 및 최고 관직, 관련 주요 사건, 학문적 경향, 문집의 유무, 시호, 문묘와 서원 배향 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문묘에 배향되어 있는 우리 나라 18현들의 본관, 성명과 호, 관직 등을 적고 있으며, 신라시대 부터 당시까지의 역대 현인들을 분류해서 기재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되어 상고할 수 없는 경우는 성명만을 실고 있으며, 조선시대 명현들은 기본적인 형식에 따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大成殿은 文廟 시설 가운데 孔子의 位版을 봉안한 전각을 말한다.

중앙의 成均館의 문묘를 비롯해, 전국 鄉校마다 설치되어 있다. 중앙의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에는 동문과 서문이 있으며 그 안에는 大成至聖文宣王인 공자를 正位로 하여, 공자의 제자인 顏子와 子思를 동쪽에, 曾子와 孟子는 서쪽에 배치하였다.

이 뒷줄로 동쪽에는 閔損, 撲雍, 端木賜, 仲由, 卜商, 周敦頤, 程頤, 張載를 앞줄에, 薛聰, 安裕, 金宏弼, 趙光祖, 李滉, 李珥, 金長生, 金集, 宋浚吉은 뒷줄에 從享하였다. 서쪽으로는 撲耕, 宰予, 撲求, 言偃, 蔘孫師, 程顥, 邵雍, 朱熹는 앞줄에, 崔致遠, 鄭夢周, 鄭汝昌, 李彥迪, 金麟厚, 成渾, 趙憲, 宋時烈, 朴世采는 뒷줄에 宗향해, 공자를 비롯한 이른바 五聖, 十哲, 宋朝六賢과 우리 나라 18賢의 위판을 봉안하고 있다.

순서는 책머리에 「大成殿配享次第位」를 실고, 대성전에 배향된 孔子와 孔門十哲 등의 명현을 열거했다. 이어 대성전에 배향된 방향에 따라 동배, 서배, 서종사, 동종사 등에 배향된 명현을 나열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명현들을 분류해서 기재하고 있다. 死六臣인 成三問, 朴彭年, 金文起, 李塏, 河緯地, 柳誠源을 적고 있으며, 東方五賢으로 鄭汝昌, 金宏弼, 李彥迪, 李滉, 趙光祖를 이어서 기재하고, 生六臣인 金時習, 元昊, 李孟專, 趙旅, 成聘壽, 南孝溫을 실었다. 뒤를 이어 학문을 핵심으로 하는 黨派들의 계보와 영수의 성명과 관직 및 호를 적는 한편, 당파에 속하는 주요 인물들의 신상도 함께 적어놓았다.

許曄을 영수로 하는 東人, 朴淳을 영수로 한 西人이 기재되어 있다. 동인은 다시 서인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의 두 논의로 분리되는데, 李山海를 영수로 하는 강경파의 北人, 許穆과 許積을 영수로 하는 南人이 그들이다. 북인은 宣祖의 뒤를 잇는 왕위 계승 문제에 따라 大北과 小北으로

## 동국명현록(東國名賢錄)

갈리는데, 대북은 李山海, 李爾瞻, 鄭仁弘 등이 속하며 소북에 金盡國, 南以恭 등이 속한다.

仁祖反正 이후 西人이 형성되고 서인은 다시, 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노론(老論)과 尹拯을 중심으로 한 소론(少論)으로 전개된다. 본 문헌에 이들과 주요 인사들의 신상이 기록되어 있다.

노론과 대립하면서 남인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며, 강경파인 淸南과 온건파인 濁南이 형성되는데, 이들 파의 영수인 허목과 尹鑰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동국명현록」이라는 제목 아래에 역대 명현이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 방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성씨에 따른 분류가 먼저 기재되고 본관에 따른 분류가 뒤를 잇는다. 그러나 성씨에 따른 분류에도 본관, 성명과 호, 관직 기록 등이 적힌 것을 볼 수 있고, 상고할 수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성씨 별로 대략 70여 성씨로 분류했다.

### 특성 및 가치

유학의 도통을 형성하는 공자에서부터 시작되어 宋代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수립된 주자성리학의 계보를 정리하고, 역대 유학을 받아들여 사표가 된 우리 나라의 명현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학문의 도통을 이은 자부심을 기록한 문헌이다. 우리 나라 역대 명현의 계보를 정리했기 때문에, 학문의 사승관계와 조선시대 학파형성 등의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다.

###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 필사본이 유일본이다.

暢齋 甲 點

明宗初判中樞堂于御堂中候府院云

化堂 甲 敏一

聖祖元海公

恩休窩 甲 恂

敏一手七種林類林通政府使

似姓堂 甲 氏

李常石大夫人善善孟龍文事子

象村 甲 欽

亞力科族堂主文股相器是及事七

樂臺 甲 朔聖

欽子堂居而馬東如劉孫宅僅柳克  
海清新世在百位進是元臣使之亂  
皆其臣四子并壯大夫人善善高節婦  
是貞也度慈日也履合與錄三辨北

東江 甲 翊全

敬子仁祖科祀宗

春洛 甲 最

翊聖子仁祖科翰林成履府事有文

汾厓 甲 最

最才鉅孫甄看科吏門

郊峯 甲 光兩

亞力科科聖殿有文身

道村 甲 易子

光兩子聖梅科佐府有本行其為

鵝州 甲 氏 附寧海 甲 氏

梧峯 甲 之 悌

亞力科科高百夫善善善政壯行若

孤竹 甲 弘望

之辨才仁祖科也善有文名

青泉 甲 維翰

青泉人高宗初有善判官通領使坊  
述皆以忠厚天孝子所是

虛舟 甲 誦

誦字學堂文善子以世之善治善也持正  
人業若引人宜為科政司

晚退堂 甲 應梨

人業若引人宜為科政司

동국문헌(東國文獻)



## 서지사항

### 기본정보 해제

####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4(순조 4년)
· 청구기호	K2-404	· M/F번호	MF35-137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김성은(金性澱)

#### 형태사항

· 크기(cm)	29.0 X 18.8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4권(卷) 4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5×15.9츠	· 인장	義叔氏, 李光信印,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 정의

전라도 유생들이 1804년(순조 4)에 조선시대의 인물을 중심으로 名臣과 名賢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읍 충렬사(井邑 忠烈祠)에서 편찬한 인명 자료집이다.

### 서지사항

표지서명(表紙書名), 판심제(版心題), 서근제(書根題)는 '동국문헌 東國文獻'이다. 표지는 흰색으로 만자문(卍字文)이며, 책사(冊絲)는 황색이다. 표지 제첩의 테두리는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서명은 필사하였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一·二·三·四'로 표기되어 있다. 서뇌(書腦) 하단에 '共四'라는 기록이 있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이왕가도서지장 李王家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는 '강숙씨(姜叔氏)', '이광신인(李光信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제1책 외에는 두 인장의 절반이 도할되어 있다. 제4책 권말에는 간기(刊記)와 '교정유생 김성은(校正儒生 金性澱)', '개간유생 안방택(開刊儒生 安邦宅)', '정서유생 최시중(正書幼生 崔時中)' 등 간행 참여자의 명단이 있다.

### 체제 및 내용

권말의 刊記에 따르면, 1804년(순조 4) 전라북도 정읍의 충렬사에서 간행되었다. 교정(校正)은 유생 김성은(儒生 金性澱)(1765~1830)이 하였고, 개간(開刊)은 유생 안방택(安邦宅), 정서(正書)는 유생 최시중(崔時中)이 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동국문헌 東國文獻』(奎 4138)과 같은 판본이며, 『동국문헌록 東國文獻錄』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된 古 4651-1, 一蓑 古 920.051-G425dc 등과 같은 판본으로 이름만 다른 것이다. 역시 규장각에 소장된 古 4650-67, 古複 4650-67, 一蓑 古 920.051-G425d

## 동국문헌(東國文獻)

의 『동국문헌록』도 같은 내용이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판본이며, 想白 古 920.051-G154d는 앞의 책을 저본으로 삼아 백두용(白斗鏞)이 내용을 첨삭하여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왕대별로 재상을 역임한 인물을 정리한 「상신편(相臣篇)」, 태조 대부터 영조 대까지 대제학을 역임한 인물을 정리한 「문형편(文衡篇)」, 세종 대부터 영조 대까지 사가독서(賜暇讀書)한 인물을 정리한 「호당편 湖堂篇」, 정조 대에 규장각의 제학, 직제학, 직각, 대교(提學, 直提學, 直閣, 待教)를 역임한 인물을 정리한 「규장각 奎章閣」 등이다.

권2는 태조 대 개국공신(開國功臣)부터 영조 대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의 공신을 등급별로 나누어 정리한 「공신편 功臣篇」, 태조 대부터 정조 대까지 청백리를 정리한 「청백편 清白篇」, 권희(權僖)부터 이홍직(李弘稷)까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인물을 정리한 「기노편(耆老篇)」, 학식과 덕망으로 대관(臺官)에 임용되었던 인물을 정리한 「남대편 南臺篇」, 남대 출신으로 품계와 직첩을 제수받은 「남대품직 南臺品職」, 「학재편 學宰篇」, 남대로 실직에 제수된 인물을 정리한 「남대현관편 南臺顯官篇」, 남대 출신으로 재상을 역임한 인물을 정리한 「남대대관편 南臺大官篇」, 공부(孔俯)부터 이광사(李匡師)까지 명필로 알려진 인물을 정리한 「필원편 筆苑篇」, 안견(安堅)부터 박동량(朴東亮)까지 화가를 정리한 「화가편 畫家篇」 등이다.

권3은 설총부터 윤원거(尹元舉)까지 대표적인 유학자를 정리한 「유림편 儒林篇」, 고려의 안향(安珦)의 문인부터 김집(金集)의 재전 문인인 은정화(殷鼎和)의 문인까지 정리한 「문생편 門生篇」,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정리한 '경태병자피화 景泰丙子被禍'부터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옹립하다가 죽은 인물을 정리한 '경묘신축피화 景廟辛丑被禍'까지 수록한 「명신편(名臣篇)」 등이다.

권4는 공자부터 송준길(宋浚吉)까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을 정리한 「문묘배형편 文廟配亨篇」, 태조 대부터 정조 대까지 종묘에 배향된 인물을 정리한 「태묘배형편 太廟配亨篇」, 전국에 있는 서원과 서우에 배향된 인물을 정리한 「원우편 院宇篇」 등이다.

**의성(義城) 장대원(藏待院)에 회당 신원록(晦堂 申元祿), 오봉 신지제(梧峰 申之梯)가 기록되어 있다**

### 특성 및 가치

왕대별로 주요 인물을 파악하는 데 편리한 자료이며, 특히 조선시대에 인물을 범주화했던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暢齋 甲 點

明宗初判中樞堂丞 御監中領府院 承

化堂 甲 敏一

聖祖 乙 尚 承

恩休窩 甲 恂

敏一子 仁祖 判 顯 故 通 政 承 使

似姓堂 甲 氏

李 宗 石 大 人 善 善 善 德 文 善 子

象村 甲 欽

亞 亞 科 族 堂 主 文 殷 相 繼 是 友 子 仁

樂臺 甲 朔聖

敏一子 登 居 而 馬 東 如 則 於 宅 僅 柳 克  
海 清 新 世 在 百 位 進 是 可 臣 使 之 亂 故  
皆 其 臣 四 子 年 壯 大 夫 人 善 善 善 德 文 善 子  
其 善 也 皮 越 日 也 庭 合 壯 敏 善 善 外 北 四 四

東江 甲 翊全

敏一子 仁 祖 科 承

春洛 甲 最

顯 聖 子 仁 祖 判 顯 故 通 政 承 使 子 有 文

汾庄 甲 最

長 才 鉅 孫 顯 故 通 政 承 使 子

郊峯 甲 光兩

亞 亞 科 族 堂 承 有 文 子

道村 甲 易子

光 兩 子 聖 祖 科 佐 判 有 志 行 文 子

鵝州 甲 氏 俯 寧 海 甲 氏

梧峯 甲 之 榜

亞 亞 科 族 堂 承 有 文 子 善 善 德 文 善 子

孤竹 甲 弘望

之 榜 子 仁 祖 科 承 有 文 子

青泉 甲 維翰

身 由 人 善 善 子 有 志 行 文 子 通 政 承 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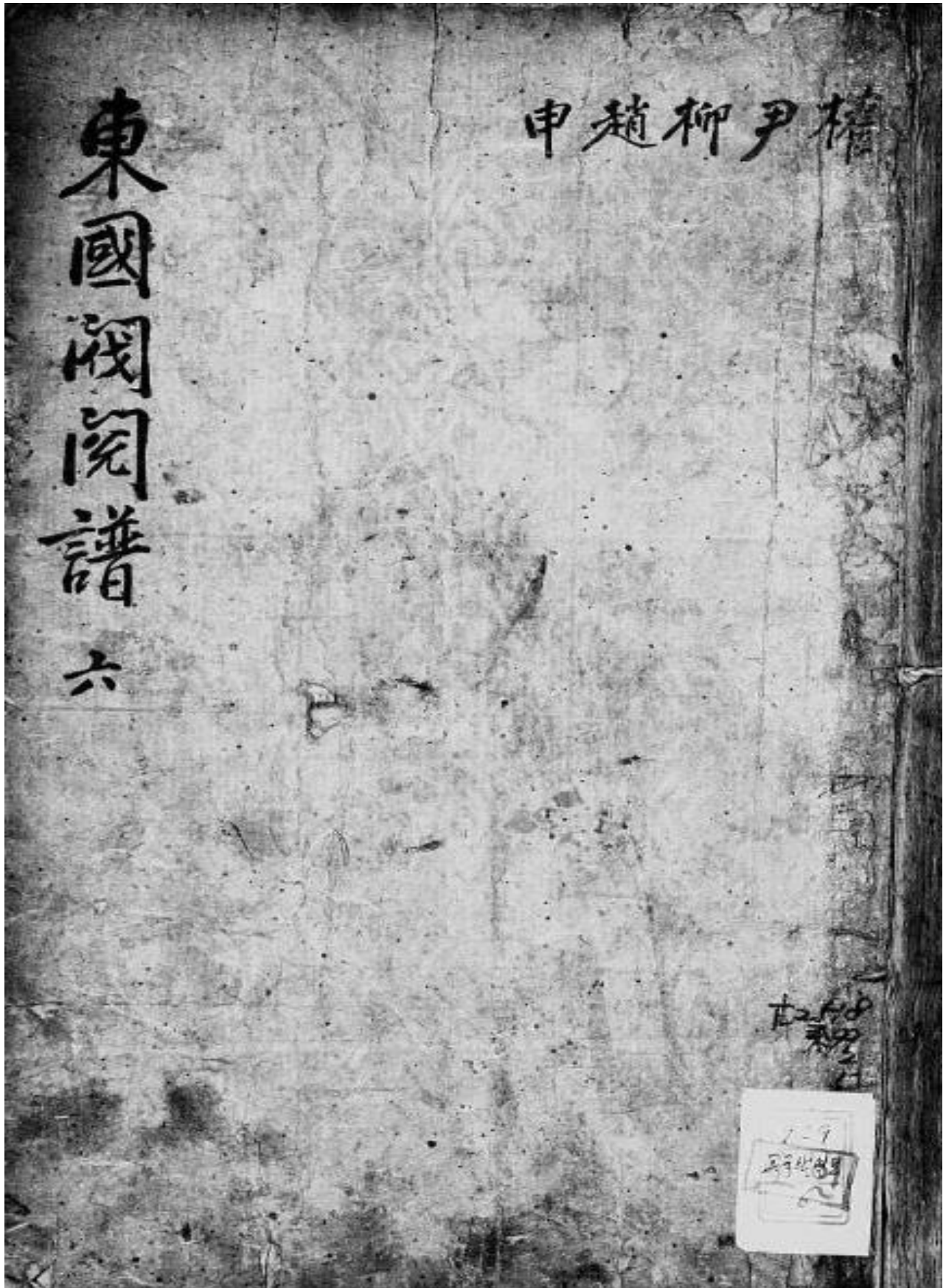
虛舟 甲 誦

宜 宜 科 族 堂 承 有 文 子

晚退堂 甲 應梨

人 善 善 子 仁 祖 科 承 有 文 子

동국별열보(東國閼閱譜)





申	五英美 戶長	高晉升 同正	曾得昌 同正	祖允滿 判吉	父祐 按承侯孝冠	州中允富士贊 令 神女	擬
	相夏	錫命	周煥	周殿	周殿		
	周煥	俊禎	石柱	仁傑	公渡		
	元祿	元福	元福	元登	元登	公渡	公渡
	元佐	元倂	元倂	元倂	元倂	元倂	元倂
	元道	元道	元道	元道	元道	元道	元道
	元坡	元坡	元坡	元坡	元坡	元坡	元坡
	元應	元應	元應	元應	元應	元應	元應
	元瀨	元瀨	元瀨	元瀨	元瀨	元瀨	元瀨
	元標	元標	元標	元標	元標	元標	元標
	元煜	元煜	元煜	元煜	元煜	元煜	元煜
	元必	元必	元必	元必	元必	元必	元必
	元冕	元冕	元冕	元冕	元冕	元冕	元冕
	元宜	元宜	元宜	元宜	元宜	元宜	元宜
	元命	元命	元命	元命	元命	元命	元命
	元協	元協	元協	元協	元協	元協	元協
	元泰	元泰	元泰	元泰	元泰	元泰	元泰
	元錫	元錫	元錫	元錫	元錫	元錫	元錫
十							

海雲 維岳 鼎壽 忠樞 熙元	天迪二度雲 萬雲 維荷 鼎善 忠萬 忠昌 熙載 熙君	天斗二翼雲 維珏 鼎休 忠眸 熙暉	維鋒 鼎煥 鼎復 思億 熙模 熙乾	維錫 鼎固 忠毫 熙朱 熙宅	鼎朝 忠得 熙哲	弼周二維鎮 鼎九 祖運 熙哲	維鍊 鼎和 祖水
命慶者亨明 季堪醉 仲堪曉							
瞻 天健 天旭		天標 天壽		天羽 天極		天鳳 天資	
弼周 維鍊 鼎變 祖永		弼周 維鍊 鼎變 祖永		弼周 維鍊 鼎變 祖永		弼周 維鍊 鼎變 祖永	
道三 重仁 鼎沃 祖應		復聃 維星 鼎俊		尚聃 維鎰 鼎大		國聃 維鍊 鼎莖	

<p>五英美 碩大長一云 檢校 太子太師 臣 韓 州 和 人</p>	<p>祖允 漢 判 七</p>	<p>雷得 昂 令 四 正</p>	<p>高晋 开 著 令</p>	<p>希忠</p>	<p>希敬</p>
<p>父祐 貝 主</p>	<p>全 天 接 查 侯 侯 基 殿 竹 堂</p>	<p>居 高 州 林 德 可</p>	<p>我 朝</p>	<p>申 崇 貴 希 信 乾</p>	<p>坤</p>
<p>始亨</p>	<p>始生</p>	<p>以甫</p>	<p>用甫</p>	<p>善甫</p>	<p>教授</p>
<p>行三嘉 重塗</p>	<p>長水訓 副 承 吉</p>	<p>淳 恒 梁 承 承 郭</p>	<p>明人 城 總</p>	<p>翰</p>	<p>心</p>
<p>應昌</p>	<p>應全</p>	<p>尚道</p>	<p>夢得</p>	<p>夢</p>	<p>夢</p>
<p>塾</p>	<p>坪</p>	<p>塾</p>	<p>之孝</p>	<p>睦</p>	<p>睦</p>
<p>休錫 德涵 正模</p>	<p>泰錫 德漢 一模</p>	<p>賁錫 德演 吉模</p>	<p>徽錫 德洙 一標</p>	<p>光點</p>	<p>光震</p>
<p>光震 城</p>	<p>義朋</p>	<p>天翻</p>	<p>天迪</p>	<p>天斗</p>	<p>天福</p>
<p>漢宗</p>	<p>漢宗</p>	<p>漢雲 維岳 鼎壽 息權</p>	<p>澤雲 維允 鼎容 忠國</p>	<p>天杰 入雲 維錄 鼎後 忠億</p>	<p>天覺 五雲 維鋒 鼎萬 息說</p>
<p>天連</p>	<p>得雲</p>	<p>維錫 鼎漢 息點</p>	<p>維釜 鼎瑞</p>	<p>維敬 鼎一 息謹</p>	<p>天斗 聖雲 維珏 鼎禹 息贊</p>
<p>天迪 應雲 維信 鼎祥</p>	<p>天福 望雲 維欽 鼎烈</p>	<p>天覺 五雲 維鋒 鼎萬 息說</p>	<p>天杰 入雲 維錄 鼎後 忠億</p>	<p>天連 得雲 維錫 鼎漢 息點</p>	<p>天斗 聖雲 維珏 鼎禹 息贊</p>

應聯

維德三鼎世  
見石下

楨

維穆  
鼎台

益冊  
維亨  
鼎慎

維貞

中得清政後會昌春

從渭

演

慶男

楫

外琦女

習俊

旅軒父

中毫年省吾泰始

維翰

居中祇景休光漢室和

叔篋  
聖電  
道活  
樂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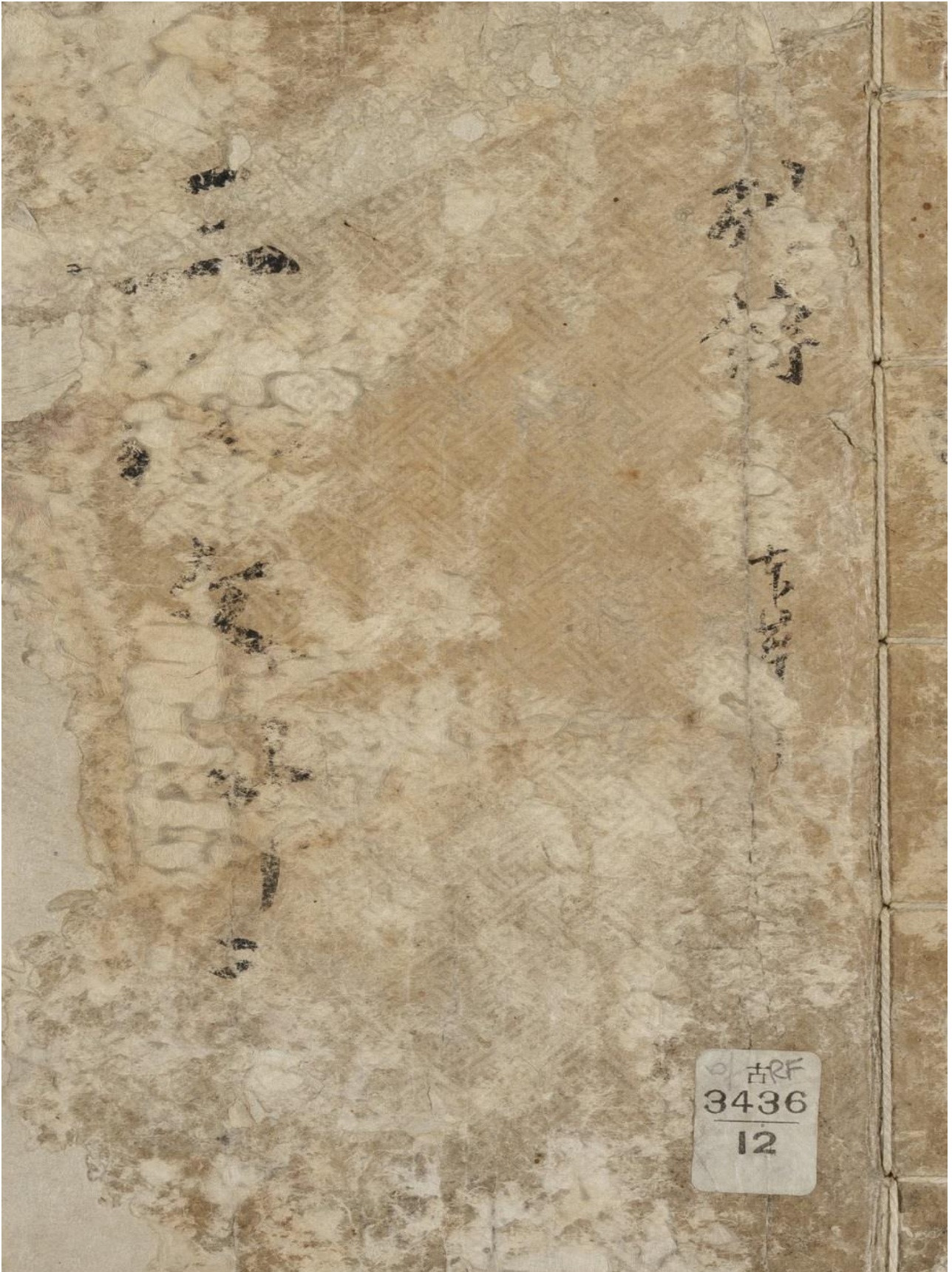
震道萬  
體仁

近仁

俊虎

鼎辰

동국선현전(東國先賢傳)



太湖僭言

東國先賢傳

서지사항

원서명	東國先賢傳	현대어서명	동국선현전
청구기호	古3436-12	편저자(한자)	姜浚欽(朝鮮) 著
편저자(한글)	강준흠(조선) 저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1冊(70張)
책크기	21.5×16츠	사부분류	集部 別集類
M/F번호	M/F84-16-151-D		
소장사항	관련자료 書名 1. 三溟詩集 2. 三溟詩話 3. 三溟詩艸 / 관련자료 소장기관 1. 규장각 2. 개인(莽蒼齋齋) 3. 규장각		
중요본분류	유일본 / 영인본 無	청구기호	古 3436-12

내용

정조년간(正祖年間) 규장각(奎章閣)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선발되었다가 후에 우승지(右承旨)까지 역임한 **삼명 강준흠(三溟 姜浚欽)**(1768-1833)이 지은 조선중엽 학자들의 전(傳)으로, 여러 곳에 교정(校訂)의 흔적이 있는 1책(冊) 67장(張)의 필사본(筆寫本)이다.

표지(表紙)에 “삼명문초 이(三溟文艸 二)”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강준흠(姜浚欽)의 문집(文集)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준흠의 저작으로는 현재 8권(卷) 4책(冊)의 필사본(筆寫本)인 <<삼명시집(三溟詩集)>>(古 3447-36)이 남아 있다.

권수(卷首)에는 목록(目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수록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本傳에 新堂 鄭鵬(1469-1512), 西峰 柳藕(1473-1537), 養心堂 趙晟(1492-1555), 東洲 成梯元(1506-1559), 履素齋 李仲虎(1512-1554), 孤靑 徐起(1523-1591), 秋巒 鄭之雲(1509-1561), 耻齋 洪仁祐(1515-1554), 德溪 吳健(1521-1574), 松巖 權好文(1532-1587), 賁趾 南致利(1543-1580), 秋淵 禹性傳(1542-1593), 淙溟 閔純(1519-1591), 潛齋 金就礪(명종 때), 晦谷 權春蘭(1539-1617), 東岡 南彥經(1523-1589), 梧峰 **申之悌**(1562-1624), 盤谷 李廷英(생몰년미상), 晚覺 李挺豪(1578~1639), 樂齋 徐思遠(1550~1615), 遯菴 鮮于浹(1558~1653), 拙翁 郭湜(생몰년미상), 華山 權璫(1665-1715), 三可 朴遂良(1470-1552) 등 25명의 사적이 수록되었으며, 부전(附傳)에 7명의 사적이 더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인물들은 연산군-숙종 연간의 학자들로 寒暄堂 金宏弼, 退溪 李滉, 花潭 徐敬德, 寒岡

鄭述 등의 문인들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김육 편(金堉 編))을 비롯하여 개인 문집에 실린 비지전장(碑誌傳狀)들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편말에 “의사씨왈(擬史氏曰)”로 시작되는 논평(論評)이 붙어 있다.

한편 卷末에는 <金節度(沔)傳>, <溪巖金先生(垿)傳>, <金將軍德齡傳> 등 3편의 傳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동국선현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일 끝면에는 “문장이 전아(典雅)하기는 구양수(歐陽修)같고, 조창(條暢)하기는 증공(曾鞏) 같으며...그 가운데 <추연·치재 이전(秋淵·恥齋 二傳)> 이 더욱 아름답고, <신당전(新堂傳)> 은 의단엄정(擬斷嚴正)하여 경의(敬意)를 일으킨다.”는 척암 이기경(瘠菴 李基慶)(1756-1819)의 후지(後識)가 별지(別紙)에 기록되어 있다.



勿書

梧峰申先生列傳

申之悌字順夫號梧峰 人八歲喪母能自求乳

孺以飼其幼妹授學于隣老隣老或鋤圃不出輒涕

泣俟籬外受課乃退稍長益辨志厲業制行甚篤萬

曆己丑登甲科第三例授司膳寺直長後以司憲府

監察拜禮安縣監壬辰有倭寇列郡皆棄城夫先生

獨奮義提兵為遏賊計巡察使以聞命兼禮曹正郎

春秋館編修官時大侵民飢是盡心救活流亡四

集公曰是國民何分彼此所全活甚衆常以不

及溪門為恨及為是縣日往陶山與諸生講學因友  
政務丁酉除司諫院正言適授侍講院文學以父在  
南方去賊殺不遠從事巡營者二年拜全州判官特  
禮方直不撓威惠並行州人立石思之召拜司憲  
府持平湖南御史按覈嶺南軍務察宣武扈 聖勲  
一等光海時為工曹正郎不赴除忠清都事李蒼石  
坡贈詩曰臺閣即今多後進朝廷誰復記先生數月  
即解歸除昌原府使時鄭仁弘以領相在陝川還執  
朝權旁縣莫不奔走干謁是<sub>公</sub>獨不往或告仁弘曰

申某私用宮闕綿布四十匹仁弘曰吾聞其為政必  
不為此有獷賊據海島出入焚掠州郡不能禁朝廷  
憂之先生設方畧捕之沿海諸郡賴無事事聞加通  
政階及仁廟反正聞廢自為道酒然出海自  
自取誰充持拜同副承旨以病辭不就尋卒于家先  
生事後母至孝方其病也母亦寢疾先生力疾侍湯  
日夜不懈既大漸言不及後事唯問母病如何不絕  
口侍者以蔗糖入口不能下咽猶聞喉中聲此物進  
母氏否性勤儉仁厚樂聞人善而務掩其過與母日

言言孝與人第言言悌與也大夫言言忠自守甚嚴  
 跡不到顯者之門有一朝士名于時宰為致目慙  
 慙曰子可往見先生正色曰窮通有命不可汲汲求維  
 我固不敢君亦宜慎行止未幾其人得罪先生聞之  
 曰災患有繫於天有繫於人繫於天者吾無如何繫  
 於人者可慎避之其不念朋友忠告之言急於仕進  
 自蹈禍機惜哉

동국성보(東國姓譜)

東國姓譜

附  
東國內外官名簿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東國姓譜 : (附)東國內外官名簿
판사항	寫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85張; 24.7 x 20.5 cm
주기사항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훼손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2517

璠溪

寧海

漆州

申應鍾 脫退老

申得淵 玄圃

申濡 竹堂泥翁

申混 柳庵

申翼相 醒齋

申善溫 艾山雪崖

申光洙 石止

申景洛 松軒

申之悌 樞峰

申弘望 孤松

申維翰 青泉

韓彥恭

韓文俊

韓希愈

韓康

韓方信

韓脩

韓復

選承旨牛栗山人 子澆出德用正用藏玄孫

光海科奉對癸亥竄死 澁子

仁福科三司兵出以名有集 公濟送五代孫

仁福科翰弘校理文名有集 濡弟

顯福科翰弘右相貞簡公 應鍾孫 子濡三親堂

英福科承旨寧越府使能詩 澁五代孫

光海科承旨 澁五代孫

宣福科承旨有文集 廣南人

仁福科正言旅軒內人有集 之悌子

肅福科奉對通信製述官能文有集

前朝門下侍中真信配 穆宗奉危遇事直言

前平章事善居文

本漆州吏申烈時 金淑樞善射有膽力送金牙

庚討孫島耽羅日本有功平屋法子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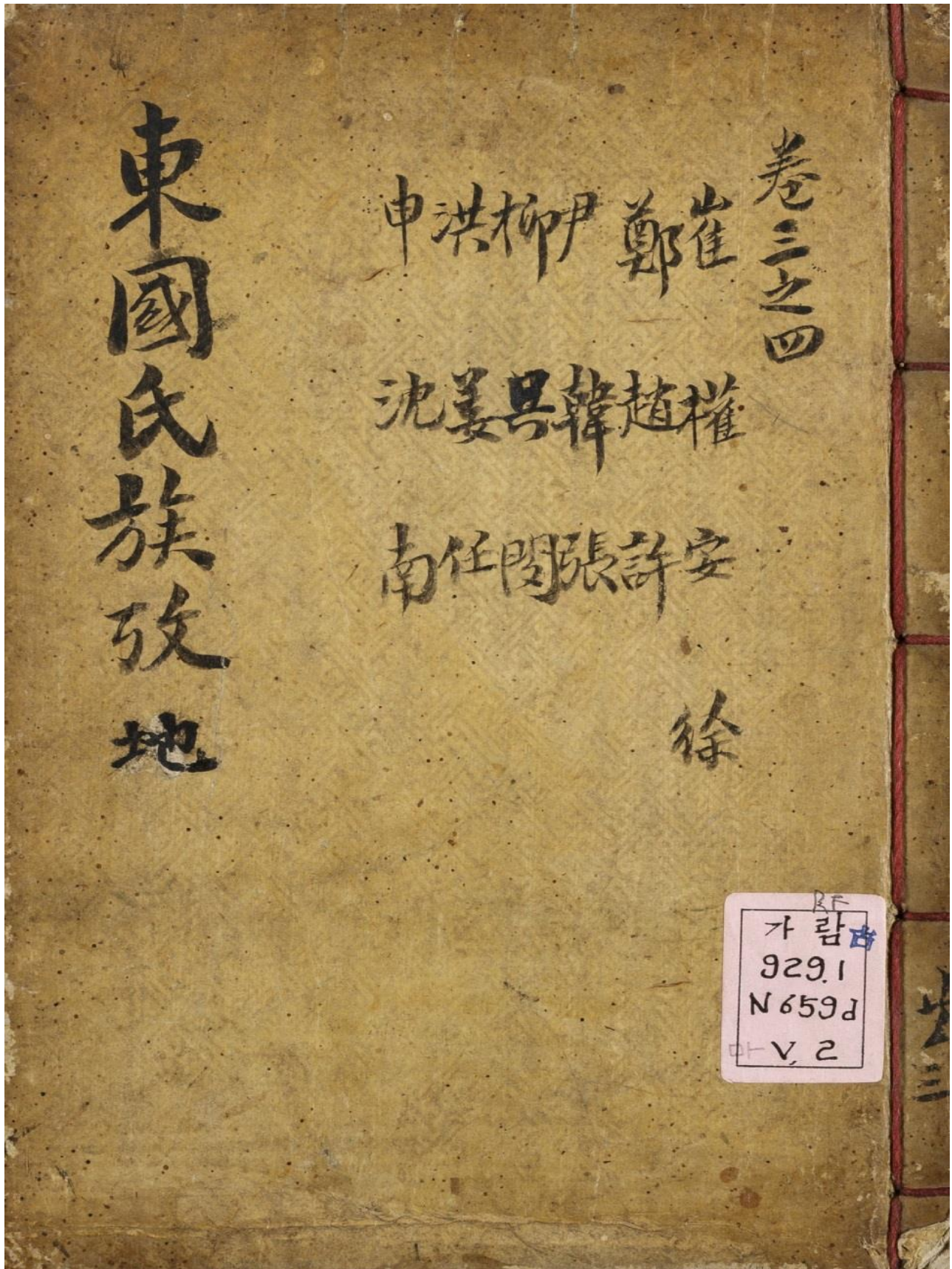
前修文殿太子士文惠公 希愈孫 甲收敵每月夜操

忠肅科恭熙樞密李士紅賊之亂 再安裕收復京畿策

忠肅時十五科右文館提學漆城君文敬公有集院 方信

我太祖嘗征兀剌毀垣中 爾有吳韓使人訖問乃李仁德也 遂與共來賜姓名

동국씨족고(東國氏族攷)



서지사항

원서명	東國氏族攷	현대어서명	동국씨족고
청구기호	가람古929.1-N659d-v.1-3	편저자(한자)	盧相稷(朝鮮) 編
편저자(한글)	노상직(조선) 편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盧山	책권수	6卷 3冊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19.8×15.3cm, 有界, 10行 24字		
판심	上下花紋魚尾	책크기	27.6×18.6cm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번호	M/F90-35-30-B, M/F78-25-I
간행년대	1907년(응희 1)	청구기호	가람古929.1-N659d
서,발,권수,권말	卷末:疆園協洽(丁未)...盧相稷書 자료소개 각 姓별로 유명한 인물들을 기록한 책		

내용

각 姓별로 유명한 인물들을 기록한 책. 각 성의 본관별로 역대의 유명한 인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행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록한 형태인데, 인물선정의 원칙은 諡號를 받았는지와 제향하는 書院 혹은 祠宇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유명한 저술을 남겼는가 등이다.

고려까지의 인물들은 소략하고 주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 李, 권2에 金·朴, 권3에 崔·鄭·尹·柳·洪·申, 권4 에 權·趙·韓·吳·姜·沈·安·許·張·閔·任·南·徐 등의 姓 을 가진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고 5~6 에는 기타의 성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明代에 간행되어 조선후기에 유행한 <<氏族大全綱目>> <奎中 1828>의 체제와 비슷하여 일정한 영향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6권 3책. 목판본. 간행연대는 정미(丁未)로만 밝혀져 있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7년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역사상 저명한 인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시호가 있는 경우, 사원에 향사된 경우, 학문적 저술이 많은 경우를 나누고 있으나, 두드러진 좋은 행적이 있는 경우와 나쁜 행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이 책을 엮은 의도를 권선징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역사상 저명한 인물을 성씨 본관별로 열거하면서 각 인물의 선조·자·호·관직·시대·시호·주요행적·사원향사관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 역사상 기록이 있으면서 그 이름, 성씨 또는 본관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도 책 끝에 별록으로 따로 모아서 그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저명한 역사적 인물을 거의 망라한 인물지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씨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즉,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실린 순서에 따라서 성씨 본



## 동국씨족고(東國氏族攷)

관별로 인물을 설명하고, 끝에는 저명한 인물이 없는 성씨도 성씨만 모두 실고 있다.

3책 끝에는 책을 편찬한 의도와 책의 체재에 관하여 논한 노상직의 발문 한 장이 있다. 한편, 권1 앞머리에는 '노산장판(盧山藏版)'이라고 간판(刊版)을 표시하고, 또 편자의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

○鵝州巨濟屬縣申祐高麗按廉以我太祖徵刑判不就有退齋稿

申元祿祐六世孫享義城藏待

申之悌祐八世孫字順夫有梧峰集三卷享義城藏待

申達道字亨甫号晚悟修撰

申悅道達道弟字晉甫号懶齋掌令丁卯扈駕江都撰仙槎志聞韶志

○信川申贊高麗信川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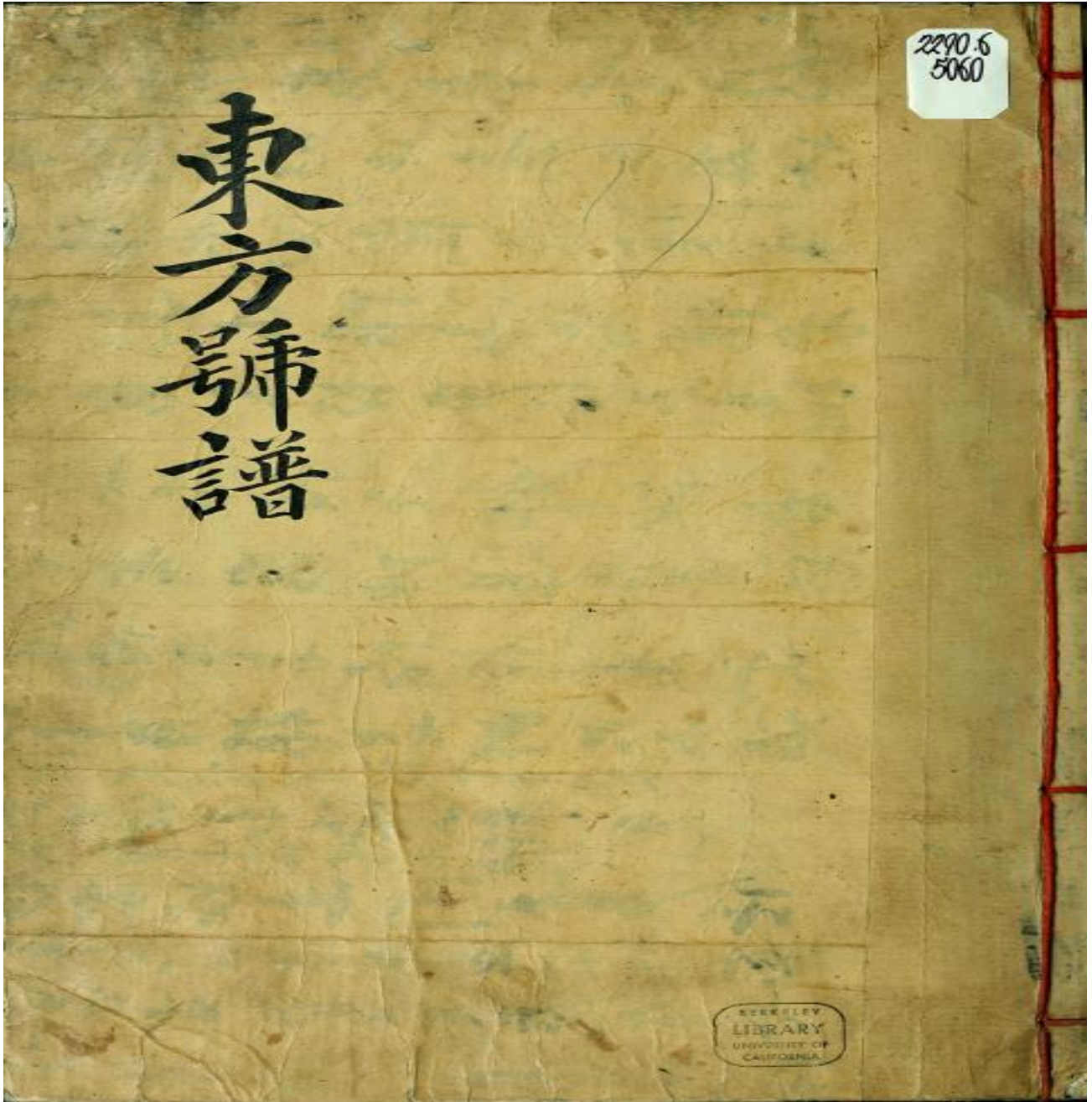
○寧海申賢号不護齋文貞公明太祖以忠貞臣三字爲賢賜名有實記

申維翰字周卿号青泉承旨有集八卷

○谷城申世達將仕郎

○朝宗加平屬縣申豪

# 동방호보(東方號譜)



## 서지사항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 | 사부-전기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38張) : 四周單邊 半郭 25.3 x 16.7 cm, 有界, 12行字數不定, 無魚尾 ; 33.0 X 21.5 cm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2290.6.5060

竹軒 申必精 文 平善經子

清州 柳岩 韓修 義前 大德摩

竹所 韓尚質 義前 批傳子孫村我朝柳岩子

信齋 韓尚敬 義前 孫相中編科我朝竹所弟

覺堂 韓公衍 前 義堂

松卷 韓忠 文 大柳科權登信齋子

鷗亭 韓明滄 義前 全相信齋從孫配世祖廟 西朝國舅

雲香 韓景琦 義前 副正錫子從德義齋友善 紀豐著有文集

松齋 韓忠 義前 中宗科知中辛巳爲南家所殺 已卯賢有文集

青蓮 韓智源 文 中宗科正碩祖子

柳市 韓興 義前 孝宗右相久卷子

漢陽 服齋 韓宗愈 義前 在相漢陽府院君前朝名臣

鶴峰 申之協 文 順天 宣祖科承前我朝

清州 石峰 韓脩 逸 持子簡易式譜

百嶺 韓應寅 義前 春物 宣祖右相我朝子南溪四人父 忠靖 忠大 臣有文集

柳陰 韓孝流 義前 義前 宣祖科韓林信齋從孫

月灘 韓孝純 文 純叔 宣祖科左相柳陰弟

久菴 韓百謙 義前 義前 宣祖科議柳陰子 諱吉村 門人北原州

柳川 韓浚謙 文 浚善 仁祖國舅久菴弟

南岡 韓準 文 文別 宣祖科戶到竹所六世孫

十洲 韓汝棧 文 汝棧 光海科禮奈南岡子

陶谷 韓述 文 述善 宣祖科泰判首蓮子

南墟 韓震 逸 持子

開城 石峰 韓漢 義前 宣祖科正有文集

文 化夏亭 柳寬 前 化 宣祖科世宗相有文集紀文

恒齋 柳雲 義前 從龍 燕山大臣已卯力救羅賢被 之景 文

老圃 柳洵 文 龜明 世祖科令相有文集

松卷 柳濯 文 濯之 左相已被柳

普州 夢窩 柳友齡 文 友壽 中宗科戶議紀文義

西峰 柳藕 義前 義前 宣祖內人有文集

素齋 柳順善 文 純仲 副學明宗科

赤楡 柳思規 文 思德 明宗科參議

必岡 柳爵翼 義前 爵翼 宣祖科參判兼樞子 栗谷門 人

散菴 柳道三 文 汝一 仁祖科承旨

全公 駱峰 柳軒 文 伯輿 成宗科大諫清白

月逢 柳永吉 文 德純 宣祖科禮 駱峰曾孫 有文集

文 化竹溪 柳仁洪 文 仁洪 成宗科持子

磻溪 柳馨遠 進 德文 宣祖科從憲察院配世宗性 理 柳磻溪隨錄

陞室 柳尚運 文 效文 宣宗令相員亭後配 宣祖 州

寬一 柳誠源 文 誠源 宣祖科六臣

普州 竹堂 柳辰同 文 辰春 中宗科判書湯雲六世孫 忠敬 文

西垌 柳根 文 根文 宣祖科贊成臣漢門人有 文集配槐山

石潭 柳珩 武 珩文 宣祖科繼嗣使士胤有功配 海南

後村 柳間 文 泰榮 宣祖科三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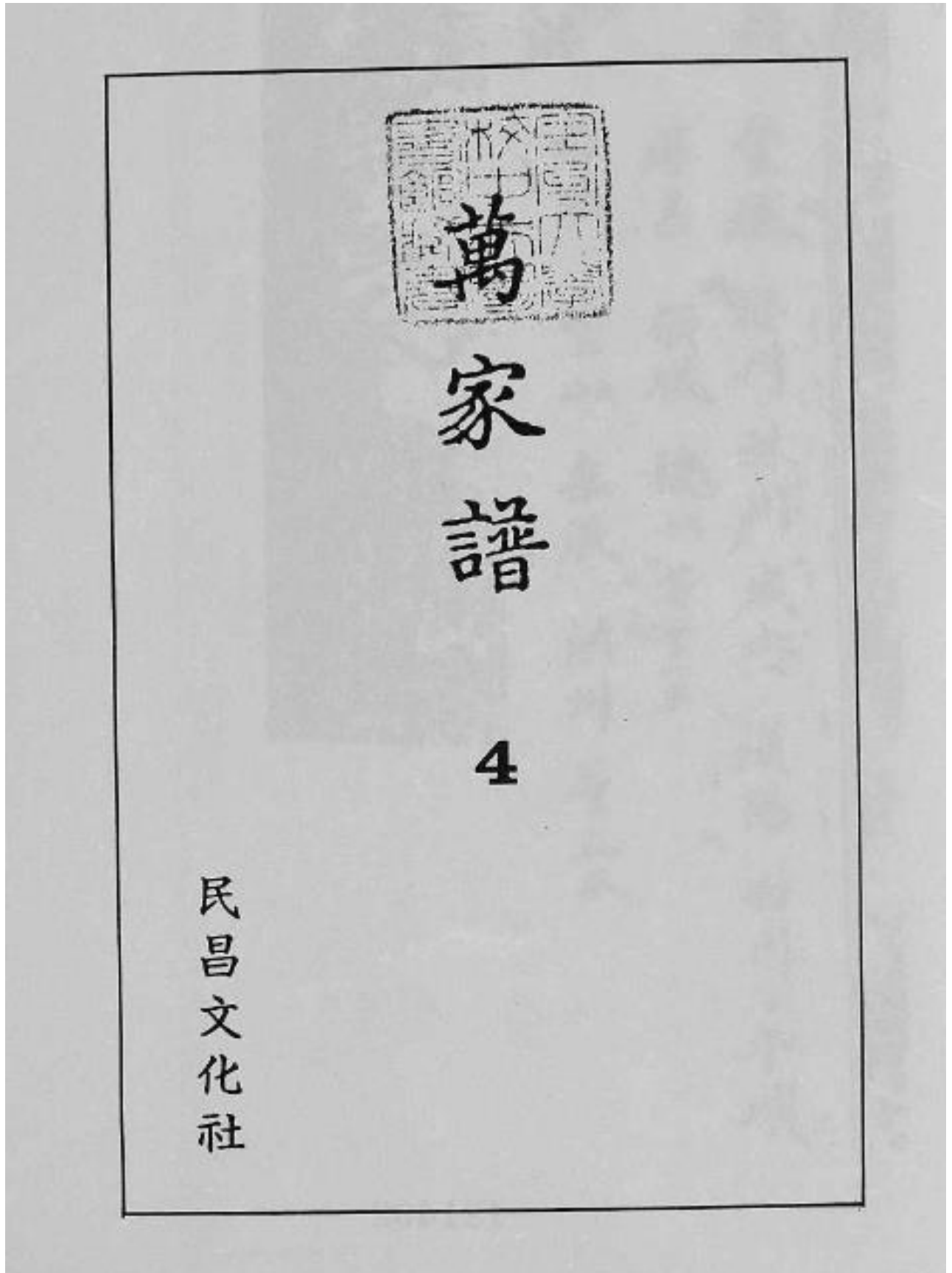
錦沙 柳煥然 陰 煥然 仁祖生進 順德使石潭 孫

皆山 柳石 文 石文 仁祖科知製時子

全公 薇川 柳慶昌 文 善信 宣祖科大諫清白

素開 柳珪亮 義前 珪亮 宣祖科馬邑尉春 珪源 孫

만가보(萬家譜)





101

		申崇諱 元尹	子山
行 見上	子淑	子弘尚	子勤
朝奉郎	左保	子益保	子俞毗
		子仲明	子命夫
		子韻	子真時
		子翼光	子今材
		子奕	子楸
		子丁道	子行
		子丁理	子行 見下
		子尹燦	
		子白敬	
		子允悟	
		女尹渾	

谷城氏	慶豐氏	寧海氏	楊洲氏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于混	
		申大壽	申大壽	于善溫	
		申大壽	申大壽	系	
		申大壽	申大壽	于景謙	文贈檢閱
申白尙	申高	未考姓貫	申大壽	于濼	
申漢	申大壽		申大壽	于爾祿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申大壽		



# 만성보초(萬姓譜抄)



## 서지사항

분류                    고서-족보 | 사회-가족/친족 | 사부-계보류                    판종                    필사본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형태사항              1冊(88張) : 四周單邊 半郭 31.8 x 20.6 cm, 有界, 7段, 無魚尾 ; 37.5 X 24.0 cm

주기사항              書名: 所藏處에 의함 受贈記: 昭和十六年(1941)九月一日幣原坦殿惠贈 表紙 落張黃墨, 朱墨으로 圈, 點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청구기호              VII-2-248

申		鶴洲		申		高靈		申		申	
申冕瑛 <small>雅明 甲寅 丁酉庭</small>	申冕周 <small>希文 戊子 乙丑增 成方道女</small>	申萬休 <small>教善 登丑 甲戌武 許涉女</small>	申允祿 <small>德中 戊午 二酉五 李周益女</small>	申履祿 <small>士發 登卯 李壬式 安復重女</small>	申直模 <small>甲子 庚子式 庚子式 朴震煥女</small>	申佐模 <small>左人 邑示 進乙未增 權泰鈴女</small>	申星模 <small>景南 癸未 丁未庭 朴五秀女</small>	申泰運 <small>雅亨 丙寅 成成譜</small>	申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申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申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必教 <small>柳敬濟女</small>	弘教 <small>柳漢女</small>	慶永 <small>柳聖女</small>	樂權 <small>金在熙女</small>	珽權 <small>尹允聖女</small>	晟祿 <small>朴震煥女</small>	憲祿 <small>金準基孫房女</small>	景淡 <small>鄭允相女</small>	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錫圭 <small>尹相因女</small>
光憲	尙澄 <small>金正</small>	顯模	伯淵	宗海	萬權	持權	沃 <small>奇同知進門 韓益女</small>	在純	在純	在純	在純
正標	元祿 <small>文龍司</small>	朝海	澈 <small>金文錫女</small>	伯淵	環澤	再清	碩淮	光憲	光憲	光憲	光憲
壽	重模 <small>進</small>	始權	道濟 <small>洪周英女</small>	仲淹 <small>裴長</small>	環澤	瀛	濯 <small>郭之屏女</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俊模 <small>教授</small>	夏錫 <small>進</small>	碩汀	湯	伯淵	環澤	瀛	復 <small>王謙 李靜昌女</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錫命 <small>進</small>	在 <small>在聖</small>	泳	得 <small>文善言</small>	伯淵	環澤	瀛	棟 <small>武郡</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得 <small>文善言</small>	伯淵	環澤	瀛	棟 <small>武郡</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瞻 <small>盧尹</small>

무보(武譜)



##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武譜: / [편자미상]		
발행사항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		
형태사항	2冊; 38 cm		
주기사항	원본소장처 : 하바드엔칭도서관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61963679	주제명	무보

## 내 용

불분권 1책. 필사본.

우리 나라에는 문반과 무반을 가리켜서 양반이라 불렀다. 그러나 유학사상의 발효로 고려 말기 이후부터는 무관보다는 문관을 더 추존하고 희구하는 사회 풍조로 바뀌면서 은연중 무반 출신은 문반의 냉대를 받아 왔다.

그래서 세족과 문벌을 자랑하는 조신들도 문과에 급제한 자들을 우대했고, 무과 출신들을 냉대하였다. 이 때문에 문보는 집집마다 거의 있으나 무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책은 이러한 뜻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문관 아닌 무반 출신들을 모아서 그 자손의 성쇠를 병기해 인맥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 같다. 수많은 성씨가운데 무보에 올라 있는 성씨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 시도는 하였으나 끝을 마치지 못한 것 같다.

책에 등재된 성씨로는 전주 이씨(全州李氏)를 필두로 이씨가 26본에 1,200인, 안동 김씨(安東金氏)를 비롯한 김씨가 12본에 320인, 동래 정씨(東萊鄭氏)를 비롯한 정씨 8본에 210인, 평산 신씨(平山申氏) 175인, 능주 구씨(綾州具氏) 113인, 인동 장씨(仁同張氏) 57인, 청주 곽씨(淸州郭氏) 1인 등 약 2,100여인의 인사의 출신내력·최종관직·자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난의 상단으로 올리고 그 밑에 자질들을 기록해 가계를 표시하였다. 무관 출신자는 이름자에 공표로 표시하고 문관 출신은 공표를 하나, 무관은 둘, 벼슬이 없는 자는 공표를 하지 않았다.

최하단에서부터 위칸까지는 무관 출신이 벼슬한 당시 소속청의 상관 이름을 기록해 서로 제휴하는 뜻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는 원수부나 오위에 오른 저명한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때, 지난날 냉대 속에서도 자기들과 연관을 가진 사람들의 신상기록을 수집해 하나의 계보를 만들고 그 계보를 이용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꿈꾸던 사람들의 사상이 엿보인다. 장서각도서 및 국립중앙도서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되어 있다.

武譜

鶴州申氏

申尚教

壬申  
丙午  
辛酉

光浩

光炳

極謨

德柱

樞錫

圭

持平

達道

侂

文成  
旨

元祿

金龍培

朴信祖

都以潤

진신무보(縉紳武譜)



洲 鵝

申正遠

辛丑生  
壬申科

熙述

思範

昇萬

維鐸

五雲

天杰

弘望

文正言

之輝

文水言

都會

朴天彦

鵝州

三司正司 鵝州申氏

申尚教

壬申 丙午別科 辛酉別科

光浩

光炳

極模

思範

德柱

滌萬

樞錫

維鐸

圭

文持平

五雲

達道

文修撰

天杰

美貞

佖

文承旨

弘望

正言

元祿

之悌

文承旨

都命恒

朴信祖

朴天彦



문보(文譜)



## 서지사항

자료명	문보(文譜 解題) I	저자	미상(編者未詳)
청구기호	K2-1743 MF번호 MF35-161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

## 내 용

양반들의 사회생활에서 관직으로의 진출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특히 가문이 중시되던 조선시대에, 일상생활에 참고해야 할 필요에 따라 비슷한 형식의 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내용이 다르면서도 제목이 같은 책들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 중 규장각도서의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편자를 알 수 없는 4책의 필사본으로, 편찬연도는 고종대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순조대에서 고종대에 걸친 문과급제자 1,033인을 성씨와 본관별로 분류하여 성명·자(字)·출생연도 및 출신과거의 연도와 종류를 기재하고, 아버지 이상 8대조까지의 조상과 외조부 및 장인의 성명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성명 위에 그가 역임한 최고관직, 품계, 처벌내용, 사망여부를 두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27개 성씨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규장각도서에는 이밖에 일반도서로, 고종조에 이루어진 3책본을 비롯, 2책본과 1책본이 있다. 장서각도서에는 고종조까지의 성씨별 문사록으로 3책본과 2책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李)·김(金)·박(朴)씨의 인명록으로 2책본이 있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도 여러 종류의 문보들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후기 문과출신 관료들의 명단이다.

편저자는 미상이며, 수록인물의 활동연대가 1786년(정조 10)부터 1852년(철종 3)까지인 점으로 보아 철종 후반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古 929.

3-M921 > 은 3책이며, <古 4657-39 > 은 1책으로 <古 929.

3-M921 > 의 제 1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零本이다.

版心에 “縉紳譜”라고 적혀 있으며, 체제는 목록, 범례, 본문으로 되어 있다.

목록은 수록된 姓氏를 本貫別로 구분하여 적은 것이다.

범례는 범례라는 항목명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서 사용되는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 문보(文譜)

첫째, 姓 위에 標를 한 것은 <1> 老論, <2> 少論, <3> 南人, <4> 北人을 표시한 것으로 10代祖·外祖·妻父는 표시하지 않고, 수록인물에게만 사용한 것이다.

범례에서는 “姓上標”라고 적혀 있지만 수록인물을 기재한 칸 위는 界線이므로 姓 옆에 표시하였다.

표는 색깔이 다른 <○>와 <●>를 사용하여 4가지 경우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색깔의 어떤 표시가 노론을 지칭하고, 소론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책마다 사용되는 색깔이 다양하고, 같은 책에서도 앞부분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사용되다가, 중간부분에는 노란색과 갈색이 사용되고, 뒷부분에는 일반 묵색과 노란색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두 가지 색깔과 두 가지 부호로 4가지 당파를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姓名 옆에 標를 한 것은 <1> 重試, <2> 蔭官으로 출사한 뒤에 登第된 경우, <3> 進士를 거친 이후에 及第한 경우, <4> 兩場 進士後에 登第된 경우 등을 표시한 것이다.

외조·처부는 姓名이 모두 기재되므로 표시가 가능하지만, 10대조의 경우 姓이 수록인물칸에만 적혀 있고 이름(名)만 기재되므로 본 항목의 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이에 사용된 것이 색깔은 동일하게 하되 <■>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外祖·妻父는 姓名에 모두 표시하기 위해 색깔이 다른 <○>와 <●>를 3개씩 표시하였다.

만약 外祖와 妻父가 한 글자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姓名옆에 2개의 색깔이 다른 <○>와 <●>를 표시하였다.

셋째, 이름(名) 옆에 標를 한 것은 <1> 文科, <2> 蔭官, <3> 武科, <4> 隱逸, <5> 文科에 합격하였으나 唱榜하기 전에 죽은 경우, <6> 文衡, <7> 閣臣 등을 표시한 것이다.

수록인물 아래에 기재된 10代祖·外祖·妻父에 표시된 것으로 10代祖가 이름이 두 자인 경우에는 색깔이 다른 <○>와 <●>를 두 개씩 표시하고, 한 글자 이름에는 <○>와 <●>를 한 개만 표시하였다.

본문은 가로로 4칸, 세로로 13칸이 인쇄된 용지에 수록인물을 제일 윗칸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칸부터 10代祖·外祖·妻父를 기재되어 있다.

수록인물은 姓氏別·本貫別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수록인물을 기재한 칸에는 姓名·字·生年·科擧及第年度·科擧名(到講·增·式·庭·三日·七夕·柑 등) 등이 적혀 있고, 界線위에 최고관직(“官止承旨” 등) 등이 적혀 있다.

全州李氏의 일부 인물은 派까지 적혀 있다.

10代祖·外祖·妻父는 이름·관직 등을 적혀 있다.

중간에 양자로 간 경우에는 친부와 양부가 모두 적혀 있다.

예를 들면 1786년(정조 10) 式年試 生員 3등으로 합격한 李相瓚의 字는 周玉이며, 1763년(영조 39)에 태어났다.

본관은 全州이며,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1786년 文科別試에 합격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최고관직은 영의정이었으며, 太宗의 15대손이다.

李相瓚에게 빨간색의 <○>가 하나 姓 옆에 있는 것은 李相瓚의 黨色을 표시한 것이다.

父는 承政院 右承旨를 지낸 李得一이며, 祖는 時叔이다.

時叔은 奉事를 지낸 道弼의 아들인데 縣監을 지낸 道翼의 양자로 들어갔다.

10대조 李浩는 한 글자의 이름을 가졌기에 노란색의 <○>가 하나 표시되어 있다.

이는 호가 蔭官으로 別坐 벼슬에 나아간 것을 표시한 것이다.

外祖는 縣監을 지낸 柳聖模이며, 妻父는 宋民載이다.

외조는 음관으로 入仕한 뒤에 登第하였기에 노란색의 <○>가 3개 표시된 것이며, 妻父는 벼슬을 하지 않은 관계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이다.

제 1책에는 李氏 22개 본관, 金氏 15개 본관, 徐氏 2개 본관 등이, 제 2책에는 朴氏 11개 본관, 鄭氏 11개 본관, 尹氏 5개 본관, 趙氏 6개 본관, 洪氏 2개 본관, 韓氏(淸州), 沈氏(靑松), 宋氏 3개 본관, 申氏 4개 본관 등이, 제 3책에는 閔氏(驪興), 權氏(安東), 吳氏 2개 본관, 柳氏 5개 본관, 安氏 3개 본관, 崔氏 4개 본관, 南氏(宜寧), 任氏(豐川), 林氏(羅州), 俞氏(杞溪), 曹氏(昌寧), 黃氏 3개 본관, 成氏(昌寧), 張氏 2개 본관, 姜氏(晉州), 嚴氏(寧越), 魚氏(咸從), 呂氏(咸陽), 丁氏(羅州), 蔡氏(平康), 具氏(綾城), 白氏(水原), 辛氏(靈山), 許氏(陽川), 慎氏(居昌), 睦氏(泗川), 邊氏(原州), 孔氏(曲阜), 高氏 2개 본관, 盧氏(豐川), 玄氏(八莒), 孫氏(慶州·仁同), 都氏(星州), 鮮于氏(太原), 孟氏(新昌), 梁氏 2개 본관, 朱氏(綾城), 奇氏(幸州), 琴氏(奉化), 南宮氏(咸悅), 魏氏(長興), 楚氏(星州), 楊氏(密陽), 宣氏(寶城), 河氏(晉州), 裴氏(興海), 卓氏(光山), 郭氏(玄風·淸州), 羅氏(安定), 全氏(天安), 吉氏(善山), 承氏(迎日), 陳氏(呂陽)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本貫의 순서는 대체로 수록인물의 다수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당시 정치세력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揚州

官止

承旨

官止  
持平

希文

戊子生  
乙丑增

申冕周尹教燾

重模

淑

晉錫

圭

元祿

素

柳濟成彦道

豐昌君

稚明

甲寅生  
丁酉庭

申冕璜必教光憲

正標

瀛泳

應錫

振道

伉

柳敬源趙錫敬

見上

見上

# 文譜 下

部	史部
類	傳記類
番号	2-1743
冊數	2-2

1383
10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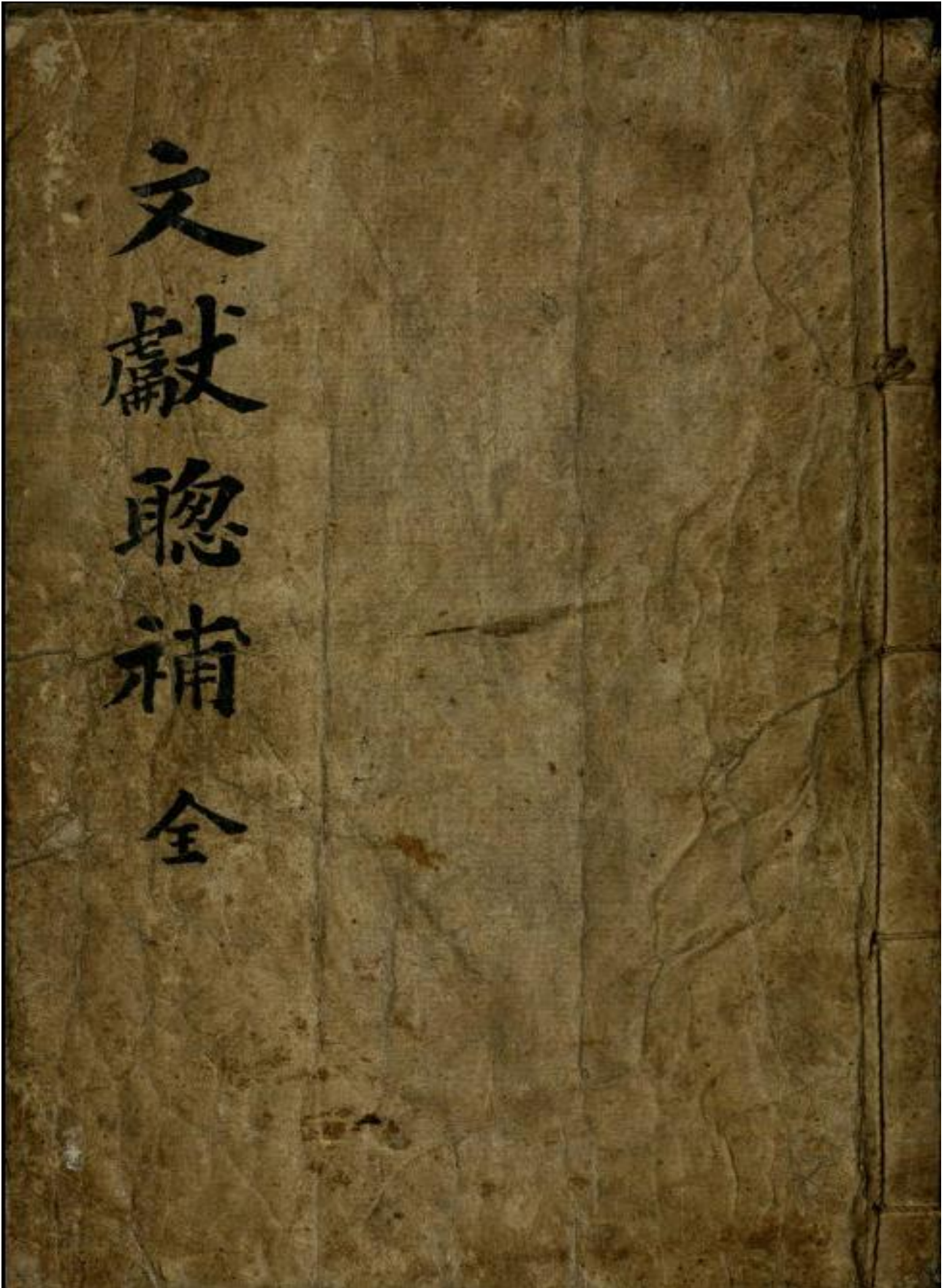
❁

部	史部
類	傳記類
番號	380
冊數	2
備考	

鷺洲

三班八世譜				申冕 <small>雜明 甲寅生 丁酉庭</small>	仙 <small>希文 戊子生 乙丑增</small>	申冕周
				必教		弘教
				光憲		煥
				正標		重模 <small>進士</small>
				瀨 <small>瀨</small>		瀨 <small>進士</small>
				應錫		夏錫 <small>進士</small>
				坂		在 <small>奉衛卒</small>
				悅道 <small>文司諫 懶軒 大德院</small>		達道 <small>文修撰 晚悟</small>
				仵		仵
				柳敬源 曹錫敬		柳雲成 彦道 <small>蔭忠厚 若</small>

문헌총보(文獻總補)





## 서지사항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역사기록 | 사부-전기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 冊(99 張) : 無匡郭, 無界, 15 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 32.0 X 21.0 cm
- 주기사항      內容: 318 名 文人의 傳記錄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32

## 안내정보

우리나라 역대 317 개 가문에서 관직에 올라 활약을 했거나 문학 혹은 문예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들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전기(傳記)를 모아 엮은 책이다.

## 편저자사항

편찬자 및 간행 연도 모두 미상이다.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대략 정조대(正祖代)까지의 인물 들인 것으로 보아, 정조 연간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 구성 및 내용

표지에는 「문헌총보전(文獻聰補全)」이라 씌어 있다. 서문(序文)이나 인(引), 발문(跋文) 등은 수록되지 않아서 책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용이하지 않다. 책의 첫머리에는 '각성목록(各姓目錄)'이 있어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총 317 개 성(姓)이 실려 있으며, 가장 앞에는 전주 이씨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도 국성(國姓)이었기에 앞에 실어둔 것으로 보인다. 목록의 말미에는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성씨와 본관(本貫)이 없이 성만 기재된 항목이 8 조목이 있다.

성씨의 아래에는 그 가문에서 배출한 주요 인물들이 시대순으로 실려있는데, 대략 정조대까지의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대구서씨(大邱徐氏)에서는 서영보(徐榮輔), 풍산 홍씨(豊山洪氏)에서는 홍국영(洪國榮)이 가장 후대의 인물에 속한다. 단, 인물의 취사선택 기준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 과거를 거쳐 관직에 올랐던 인물들로 보이는데, 전주 이씨의 경우는 개국공신(開國功臣)들과 대군(大君) 등 왕실의 친인척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는 등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관직보다도 그 인물이 이룬 문예(文藝) 방면의 성취에 대해 기재해 두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가문에서 관직에 올라 활약을 했거나 문학 혹은 서화, 음악 등 예술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들을 추려내어 정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 치는 않다. 여기에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음직으로 진출한 이와 서자(庶子)도 포함 하고 있다. 또 인물에 따라 가족 관계를 부기하기도 하였다.

『문헌총보(文獻總補)』는 필사본이며, 대부분 한 면에 15 행이다. 기재 방식은 성씨를 쓰고 한칸 내려서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이름 아래 줄에 인물의 특징적인 면을 한 줄 정도 분량으로 간략히 서술하는 방식이다. 내용이 많은 것은 세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름의 위쪽 책 상단의 여백 부분에는 호(號)가 씌어 있고, 호에는 주점(朱點)이 찍혀 있다. 그러나 모든 인물에 호가 씌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물에 대한 소개 내용은 자 또는 호칭, 관직이 기본이고 여기에 시호(諡號)와 그 인물의 특징적인 면모를 수록하였고, 왕실 인물의 경우는 왕과의 관계도 기재해 두었다. 이러한 내용이 배치되는 순서는 일정치 않다. 본서에 수록된 성씨는 아래와 같다.

各姓目錄 ○는 빈칸

全州李氏, 韓山李氏, 延安李氏, 慶州李氏, 德水李氏, 驪州李氏, 廣州李氏, 全義李氏, 咸平李氏, 星州李氏, 固城李氏, 龍仁李氏, 永川李氏, 碧珍李氏, 眞寶李氏, 牛峯李氏, 青海李氏, 興陽李氏, 平昌李氏, 陽城李氏, 禮安李氏, 光州李氏, 清州李氏, 新平李氏, 洪州李氏, 陝川李氏, 富平李氏, 光陽李氏, 丹陽李氏, 泰安李氏, 泗川李氏, 順天李氏, 安城李氏, 益山李氏, 江興李氏, 牛漢李氏, 鳳山李氏, 仁川李氏, 旌善李氏, 清州李氏, 天安李氏, 潭陽李氏, 青陽李氏, 公州李氏, 安東金氏, 慶州金氏, 光州金氏, 清風金氏, 江陵金氏, 義誠金氏, 延安金氏, 金海金氏, 尙州金氏, 善山金氏, 豐山金氏, 彦陽金氏, 順天金氏, 原州金氏, 禮安金氏, 安山金氏, 平海金氏, 蔚山金氏, 榮川金氏, 永同金氏, 檜原金氏, 瑞興金氏, 清道金氏, 咸昌金氏, 江西金氏, 燕岐金氏, 扶寧金氏, 光陽金氏, 高靈金氏, 東萊鄭氏, 延日鄭氏, 溫陽鄭氏, 海州鄭氏, 草溪鄭氏, 清州鄭氏, 河東鄭氏, 晉州鄭氏, 光州鄭氏, 奉化鄭氏, 慶州鄭氏, 漢陽鄭氏, 稷山鄭氏, 瑞山鄭氏, 羅州鄭氏, 坡平尹氏, 海平尹氏, 南原尹氏, 海南尹氏, 茂松尹氏, 柒原尹氏, 醴泉尹氏, 潘南朴氏, 密陽朴氏, 順天朴氏, 忠州朴氏, 竹山朴氏, 高靈朴氏, 咸陽朴氏, 尙州朴氏, 江陵朴氏, 善山朴氏, 旌善朴氏, 務安朴氏, 比安朴氏, 陰城朴氏, 雲峰朴氏, 春川朴氏, 豐壤趙氏, 漢陽趙氏, 楊州趙氏, 平壤趙氏, 咸安趙氏, 白川趙氏, 林川趙氏, 橫城趙氏, 淳昌趙氏, 眞寶趙氏, 金堤趙氏, 驪興閔氏, 宜寧南氏, 英陽南氏, 固城南氏, 昌原黃氏, 長水黃氏, 平海黃氏, 尙州黃氏, 懷德黃氏, 紆州黃氏, 榮川黃氏, 陽川黃氏, 河陽許氏, 金海許氏, 海州吳氏, 同福吳氏, 咸陽吳氏, 高敞吳氏, 大邱徐氏, 利川徐氏, 扶餘徐氏, 南陽徐氏, 豐川任氏, 羅州林氏, 平澤林氏, 恩津林氏, 善山林氏, 醴泉林氏, 西河林氏, 昌寧曹氏, 杞溪俞氏, 昌原俞氏, 仁同俞氏, 高靈俞氏, 南陽洪氏, 豐山洪氏, 金溪洪氏, 懷仁洪氏, 晉州柳氏, 文化柳氏, 全州柳氏, 豐山柳氏, 瑞山柳氏, 興陽柳氏, 善山柳氏, 全州崔氏, 海州崔氏, 朔寧崔氏, 慶州崔氏, 江○崔氏, 鐵原崔氏, 江陵崔氏, 水原崔氏, 歙谷崔氏, 陽川崔氏, 耽津崔氏, 開城崔氏, 通川崔氏, 光陽崔氏, 忠州崔氏, 永川崔氏, 和順崔氏, 黃州崔氏, 安東權氏, 青松沈氏, 豐山沈氏, 三陟沈氏, 平山申氏, 高靈申氏, 鵝溪(洲)申氏, 寧海申氏, 清州韓氏, 大興韓氏, 漢陽韓氏, 三和韓氏, 昌寧成氏, 礪山宋氏, 恩津宋氏, 鎭川宋氏, 新平宋氏, 瑞山宋氏, 冶爐宋氏, 順興安氏, 竹山安氏, 驪州安氏, 康津安氏, 晉州姜氏, 衿川康氏, 綾城具氏, 羅州丁氏, 昌原丁氏, 平康蔡氏, 仁川蔡氏, 原州元氏, 晉州河氏, 南原梁氏, 濟州梁氏, 南平梁氏, 忠州梁氏, 長興高氏, 濟州高氏, 橫城高氏, 安東高氏, 咸從魚氏, 忠州魚氏, 德水張氏, 仁同張氏, 鎭川張氏, 蔚珍張氏, 南平文氏, 江城文氏, 甘泉文氏, 開寧文氏, 丹城文氏, 交河盧氏, 豐川盧氏, 光州盧氏, 慶州孫氏, 平海孫氏, 密陽孫氏, 一直孫氏,

## 문헌총보(文獻總補)

安定羅氏, 羅州羅氏, 壽城羅氏, 玄風郭氏, 清風郭氏, 永川郭氏, 海美郭氏, 靈山辛氏, 寧越辛氏, 居昌愼氏, 泗川睦氏, 信川康氏, 海美白氏, 水原白氏, 藍浦白氏, 稷山白氏, 咸陽呂氏, 清州慶氏, 清州楊氏, 弘農楊氏, 丹陽禹氏, 興海裴氏, 星州裴氏, 金海裴氏, 奉化琴氏, 平山庾氏, 寧越嚴氏, 新昌孟氏, 呂陽陳氏, 黃州邊氏, 幸州奇氏, 延安車氏, 晉州蘇氏, 慶州薛氏, 沃川全氏, 平康全氏, 龍宮全氏, 天安全氏, 江陵劉氏, 清州王氏, 昌原孔氏, 昌原玄氏, 瑞原廉氏, 曲城廉氏, 尙州周氏, 中國周氏, 海平吉氏, 江陵咸氏, 慶州薛氏, 潭陽全氏, 咸悅南宮氏, 永川皇甫氏, 太原單于氏, 木川尙氏, 密陽卞氏, 平海丘氏, 忠州池氏, 光州潘氏, 新昌表氏, 綾州朱氏, 居昌邢氏, 宜寧玉氏, 渤海太氏, 臨河華氏, 光山卓氏, 谷山延氏, 胡氏, 雙氏, 乙氏, 乙支氏, 卜氏, 宣氏, 千氏, 都氏

책의 말미에는 조선시대 각 조대(朝代)마다 명성을 떨쳤던 문인들의 별칭과 그 구성원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된 인물 47 인과 서원의 명칭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대개 조선조의 인물이 많은데 제갈량(諸葛亮)과 백이(伯夷), 석성(石星) 등 중국 인물도 있고 서산대사(西山大師)휴정(休靜)의 이름도 보인다.

麗朝七賢 : 李之氏, 鄭元, 申淑, 李公升, 鄭襲明, 咸淳, 李湛

麗末六隱 : 牧隱 李穡, 樵隱 李仁復, 圃隱 鄭夢周, 冶隱 吉再, 陶隱 李崇仁, 郊隱 鄭以吾

東方五賢 : 寒暄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晦齋 李彥迪, 退溪 李滉

壬辰義將 : 健齋 金千鎰, 霽峯 高敬命, 重峯 趙憲, 忘憂 郭再祐, 秋淵 禹性傳, 松庵 金沔, 始齋 金垓, 沙潭 金弘敏

文廟從祀十一人 : 薛聰, 海雲 崔致遠, 晦軒 安裕, 圃隱 鄭夢周, 寒暄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晦齋 李彥迪, 退溪 李滉, 栗谷 李珣, 牛溪 成渾

湖南三傑 : 玉峯 白光勳, 白湖 林悌, 點易子 梁慶遇

江陵鄉賢祠十二賢 : 釣隱 崔致雲, 訥齋 李成茂, 睡軒 崔應賢, 三可 朴遂良, 猿亭 崔壽城, 槐堂 金潤身, 四休 朴公達, 春軒 崔洙, 臨鏡 金說, 聾軒 朴億秋, 葆真 金譚, 蹈景 崔雲遇

宣廟朝十二文章 : 白洲 李明漢, 清陰 金尙憲, 鶴谷 洪瑞鳳, 東岳 李安訥, 白江 李敬輿, 石峰 李好閔, 谿谷 張維, 澤堂 李植, 海峯 洪命元, 石洲 權鞞, 南郭 朴東說, 五山 車天輅

肅宗朝八學士 : 迂齋 趙持謙, 是窩 韓泰東, 西波 吳道一, 藥泉 南九萬, 東山 尹趾完, 定齋 朴泰輔, 明谷 崔錫鼎, 晚靜 徐宗泰

仁祖朝三學士 : 花圃 洪翼漢, 林溪 尹集, 秋潭 吳達濟

世宗朝死六臣 : 醉琴 朴彭年, 梅竹 成三問, 白玉 李塏, 柳誠源, 丹溪 河緯地, 兪應孚

## 문헌총보(文獻總補)

端宗朝生六臣 : 耕隱 李孟專, 觀瀾 元昊, 文斗 成聃壽, 梅月 金時習, 秋江 南孝溫, 漁溪 趙旅

昌寧成氏八賢 : 松國, 梅竹 三問, 文斗 聃壽, 聽松 守琛, 大谷 運, 東州 悌元, 板谷 允諧, 牛溪 渾

肅宗朝三忠臣 : 定齋 朴泰輔, 陽谷 吳斗寅, 雙栢 李世華

四十七院 : 文純公 李滉, 文成公 李珥, 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宋時烈, 文正公 趙光祖, 文忠公 金尙容, 文正公 朴彭年, 忠武公 李舜臣, 壯節公 申崇謙, 忠烈公 宋象賢, 文烈公 趙憲, 文元公 金長生, 忠武公 金應河, 文元公 李彥迪, 文正公 金尙憲, 文成公 安裕, 武鄉侯諸葛亮, 文獻公 金昌集, 文純公 朴世采, 忠烈公 高敬命, 忠節公 吉再, 文貞公 吳斗寅, 文忠公 李恒福, 文狀公 南以興, 文簡公 成渾, 文烈公 金千鎰, 忠烈公 鄭蓍, 西山大師 休靜, 忠剛公 李述源, 文獻公 鄭汝昌, 文忠公 柳成龍, 翼成公 黃喜, 弘儒侯薛聰, 文昌侯 崔致遠, 文正公 金麟厚, 忠烈公 洪命耆, 忠貞公 尹集, 忠愍公 李鳳祥, 文翼公 李德馨, 文正公 尹煌, 忠愍公 林慶業, 文正公 宋浚吉, 文烈公 朴泰輔, 皇朝尙書 石星, 壯烈公 權慄, 清惠侯 伯夷

### 서지적 가치

본서는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현재 유일본 자료이다. 이 자료는 과거 급제 사실과 자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문이나 음악, 서화에 뛰어난 점도 기록하고 있어, 방목이나 족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내용적 가치

『문헌총보(文獻總補)』는 일종의 인명사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이다. 문헌(文獻)이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장제도(典章制度)에 관련되는 문서 자료나 역사(歷史) 전고(典故)등에 밝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 이는 문헌지가(文獻之家)라는 말과도 상통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 의미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헌을 보충한다는 뜻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이전의 자료를 보충하기 위한 의도에서 편찬된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317 개 가문에서 관직에 올라 활약을 했거나 문학 혹은 문예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들을 추려내어 이들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수많은 가문의 인물들이 집대성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 후기 보학(譜學)과 방목(榜目)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록된 인물들 중에는 알려진 인물들도 많지만 재능과 학문이 있었음에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도 상당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씨의 변화나 혹은 보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조선조 인물 연구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

鷲溪申氏

中之嶂 字順甫 宣廟己丑科 西司承旨 有文集

中弘望 字聖文 仁祖己卯科 正言 有文集 之悻子

申氏

申緯翰 字周伯 肅廟朝奉判 為通信 製述 作以文集 有集

清州韓氏

韓彥恭 肅朝門下侍中 貞信公 配享 穆康 唐庭 遇事直言

韓文俊 前朝平章 事 能屬文

韓希愈 奉嘉州 吏忠烈 時 庚申 中 贊 素 賦 達 異 射 有 胆 力 征 金 方 廣 討 許 昌 賊 吳 日 本 有 功 于 肅 廟 之 大 征 嘗 嘗 征 戰 每 月 夜 推 槍 且 熟 且 亮

韓方信 忠廟 奉 康 肅 朝 時 樞 密 學 士 仁 獻 之 亂 忠 安 裕 忠 頂 京 職 宋 興 一 等

韓康 肅朝 備 文 獻 太 學 士 致 仕 之 魯 公 希 愈 子

韓修 字 孟 宣 肅 朝 科 右 文 錦 親 奉 判 府 事 青 嶺 君 父 敬 公 能 文 墨 書 錄 有 集 有 院 康 高 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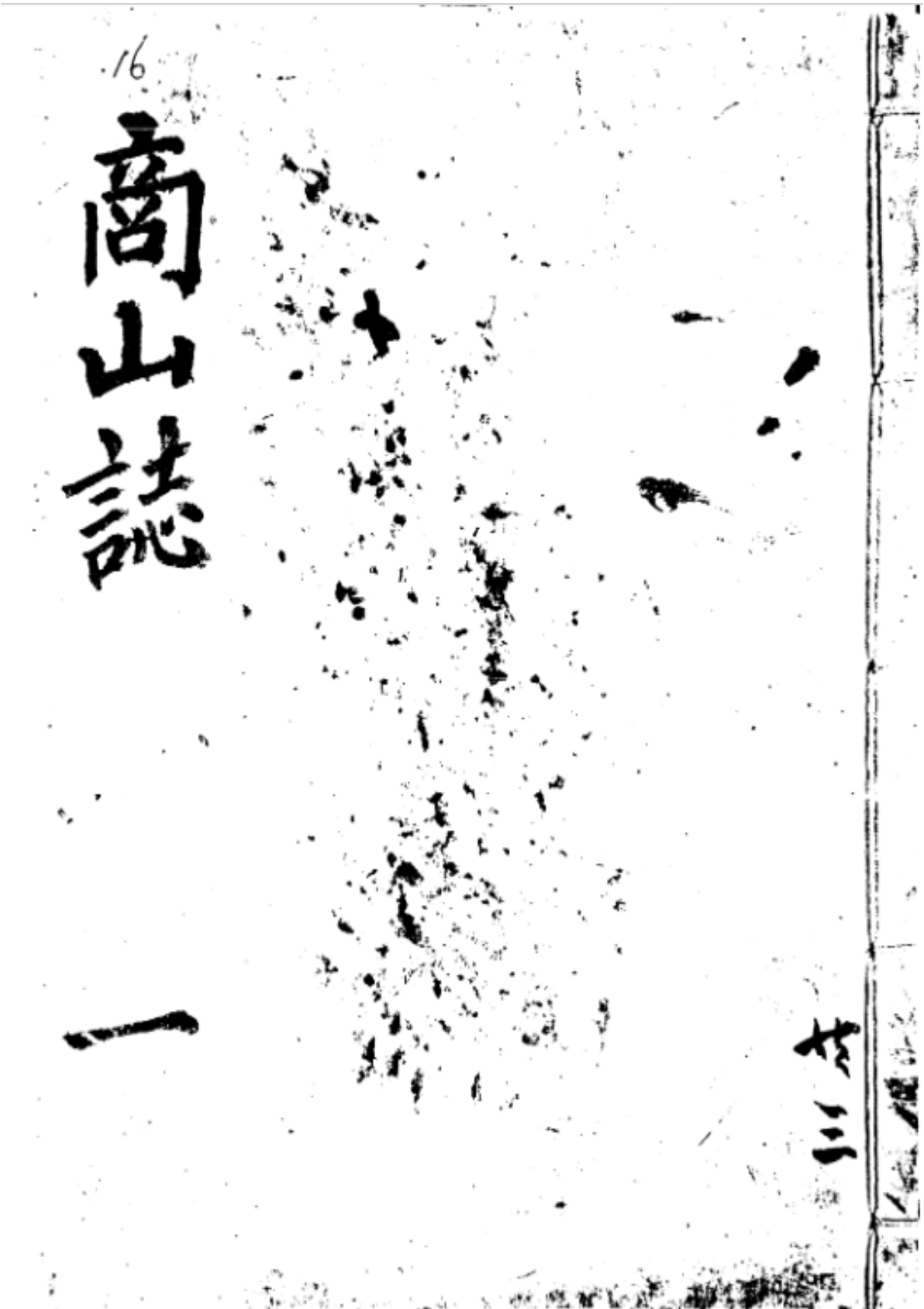
韓復 天 本 朝 太 祖 肅 宗 凡 刺 閭 閻 世 中 有 史 舞 使 人 既 幻 乃 李 仁 復 也 太 祖 逆 興 但 未 賜 姓 韓 復

韓尚賢 字 仲 賢 肅 朝 科 致 仕 文 學 士 我 朝 春 秋 錄 大 提 子 文 烈 公 悻 子

韓尚敬 字 敬 叔 肅 朝 科 我 朝 同 功 西 原 府 院 院 領 相 文 尚 之 尚 賢 弟

柳巷 柳齋 竹雨 信宗

상산지(商山誌)



서지사항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역사기록 | 사부-전기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 冊(99 張) : 無匡郭, 無界, 15 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 32.0 X 21.0 cm
- 주기사항      內容: 318 名 文人의 傳記錄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32

[1]

경상북도 상주(尙州)의 읍지. 7 권 3 책. 활자본. 상산지는 어느 때에 편찬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지서(舊誌序)에 의하면, 구희급(丘希炭)이 처음으로 공관문자(公館文字) 에서 베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정덕(正德:1506-1521) 연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등본(謄本)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 후 1616 년(광해군 8)에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인 창석(蒼石) 이준(李俊,1560-1635)이 상주목사 강복성(康復誠, 1550-1634)의 부탁을 받고 여지 승람 등에서 자료를 뽑아 편찬하던 도중 질병으로 중단하였다가 이듬해에 새로 상주목사로 부임한 정호선(丁好善,1571-1633)의 독촉으로 다시 편찬에 착수하여 2 권으로 편찬하였으니, 이를 '창석본(蒼石本)'이라 하고, 그 후 1749 년(영조 25)에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1679-1759)이 창석본에 의하여 증보하였으니, 이를 '청대본(淸臺本)'이라 하며, 이어서 구당(舊堂) 조호연(趙虎然)이 수정 간행하였으니, 이를 '구당본(舊堂本)'이라 한다. 그러나 이들 원본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지금은 읍리(邑吏)가 전사(轉寫)한 것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1832 년(순조 32)에 내각(內閣)으로부터 '읍지를 정돈하여 어람(御覽)에 대비하도록 하라.' 는 지시가 있자, 강세은(姜世鬮)·성석대(成錫大)·조술립(趙述立) 등이 관청의 독촉에 쫓겨 구지(舊誌)도 상고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만들었다가 퇴짜맞은 본이 있었으니, 이를 속칭 '신퇴지(新退誌)'라 하고, 이어서 황찬희(黃贊熙)·채주욱(蔡周郁) 등이 청대본과 신퇴지를 참고하여 누락을 보충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간행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현재의 7 권 3 책본이다.

본서의 편집체재는 권두에 이준의 서상산지후(書商山誌後)와 권상의 발문(跋文)을 차례로 싣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2]

여지(輿地):

연혁(沿革)·속현(屬縣)·강역(疆域)·면명(面名)·산천(山川)·제언(堤堰)·성지(城池)·역원(驛院)·성씨(姓氏)·풍속(風俗)·봉수(烽燧)·교량(橋梁)·진도(津渡)·도서(島嶼)·임수(林藪)·공부(貢賦): 전부(田賦)·토공(土貢)·토산(土産)·호구(戶口)·군병(軍兵)·군기(軍器)·요역(徭役)·학교(學校): 원사(院祠)·서당(書堂)·학제(學制)·학전(學田)·질사(秩祀): 단유(壇壝)·묘제(廟制)·관제(官制): 목사(牧使)·판관(判官)·문제독(文提督)·영장(營將)·행정관(行政官)·경찰관(警察官)·사법관(司法官)·기타 관공리(官公吏) 및 공역자(公役者)·관안(官案)·봉름(俸廩)·공서(公署): 객관(客館)·주아(州衙)·유향소(留鄉所)·의국(醫局)·창고(倉庫)·군청(郡廳)·경찰서(警察署)·재판소(裁判所)·우편국(郵便局)·은행소(銀行所)·금융조합소(金融組合所)·상주면사무소(尙州面事務所)·산견판매소(産繭販賣所)·구공서(舊公署)·고적(古蹟): 고도(古都)·부곡(部曲)·정관(亭觀)·사찰(寺刹)·책판(冊板)·총묘(塚墓)·명환(名宦): 신라(新羅)·고려(高麗)·본조(本朝)의 문관(文官)·무거(武擧)·음서(蔭敍)·은사(恩賜)·군수(郡守)·헌병분대장(憲兵分隊長)·경찰서장(警察署長)·판사(判事)·검사(檢事)·충절(忠節)·효행(孝行)·열행(烈行)·인물(人物): 고려(高麗)·본조(本朝)·문한(文翰): 제영(題詠)·기(記)·서(序)·비문(碑文)·제문(祭文)·상량문(上樑文)·잡저(雜著)·서중문(誓衆文)·송덕비문(頌德碑文)·통유문(通諭文)·방유문(榜諭文)·채주욱(蔡周郁)의 발문(跋文), 조술립(趙述立)의 상산지전말(商山誌顛末), 정동철(鄭東轍)의 서상산지후(書商山誌後).

이상과 같이 구성된 상산지는 문관(文官)·무거(武擧)·음서(蔭敍)·충절(忠節)·효행(孝行)·열행(烈行)이 새로 첨가되고, 생원·진사 등이 1백 83 명이나 더 수록되었으며, 오류를 수정한 것도 무려 34 군데나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본서는 거의 완벽한 상주의 읍지라 할 수 있겠고, 또한 고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주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다.

17세기 초반에 상주의 士林이 편찬한 경상도 상주목 읍지.

권말의 <書商山誌後>에는 康復誠(1550~1634)과 丁好善(1571~1632)이 이 읍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이 나타나 있다.

康復誠은 1595년 유성룡의 천거로 장수현감을 거쳐 전주부윤·청송부사 등의 외직을 역임하고 만년에는 고향인 선산에서 일생을 마친 인물이며, 丁好善은 광해군 후반에 정국이 혼란하자 외직을 자청하여 상주목사로 나간 인물이다.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과 표지에는 李垞(1560~1635)이 저술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

본문의 내용 중에는 임진왜란 직후의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人物·文翰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임진왜란 직후 읍지를 만들자는 이



지역 士林들의 여론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크게 輿地·貢賦·學校·秩祀·官制·公署·名宦·人物·古蹟·文翰 등 10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큰 항목 아래에 다시 작은 항목을 두어 내용을 기록했다.

또한 항목의 앞부분에는 전체 내용을 개괄하는 부분이 있으며, 항목 중간에 '按'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고증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輿地> 조는 沿革·屬縣·疆域·山川·城池·驛院·橋梁·姓氏·風俗·烽燧·津渡로 구성되었다.

<沿革>에는 世祖代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屬縣>에는 化寧, 中牟, 山陽, 醴泉, 丹密이 기록되어 있다.

<郡名> 조에는 上州·上洛·沙梁伐·沙伐·商山·陀阿·歸德軍 등 신라시대 이래로 상주를 지칭하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風俗> 조의 기록 중에는 임진왜란때 왜적에 붙은 사람이 없었음을 자랑한 내용이 흥미롭다.

<貢賦> 조에서는 먼저 兵亂을 겪은 이후로 貢賦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最急務임을 강조하고, 이어 田賦·土貢·土產·戶口·軍兵·役に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戶口> 조에는 평시 호수가 7만여명이었으나, 지금은 호적이 없어서 1616년(광해군 8)에는 겨우 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學校> 조는 鄉校·書院·學制·學田으로 구성되었으며, <秩祀> 조는 壇(墳), 廟制로 구성되었다.

<廟制> 조에는 1611년(광해군 3)에 五賢을 文廟에 奉安한 후에 쓴 <五賢奉安文> 과 柳成龍을 五賢廟에 배향한 후에 쓴 <西厓柳成龍配享五賢廟祭文> 등이 실려 있다.

<官制> 조는 牧使·判官·文提督·武提督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公署> 조에는 客館, 州衙 등이 기록되어 있다.

<名宦> 조는 신라의 金庾信, 고려의 金富佾이하 高應陟, 吳灋, 金尙容 등을 기록하였으며, <人物> 조에는 고려의 金湜이하 盧守愼, 金宇宏, 鄭經世 등을 기록하였다.

<古蹟> 은 古都, 古縣, 山城, 部曲, 亭觀, 寺刹로 구성되었으며, 文翰조는 李俊이 기록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배출된 유학자들의 각종 글을 다수 수록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文翰> 조는 題詠, 記, 序, 碑文, 上樑文, 雜著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題詠>에는 이규보의 <題高軒>, 趙浚의 <次尙州客舍韻>, 金宗直의 <洛東謠> 등이 실려 있으며, 記에는 李穡의 <風詠樓記>, 南袞의 <閑燕堂記>, 林椿의 <小林寺重修記>, 李俊의 <鄉射堂重修記> 등이 실려 있다.

## 상산지(商山誌)

雜著에는 兪好仁의 <洛江泛舟詩跋>, 柳成龍의 <兪師表文>, 李俊의 <呈巡察使鄭公文>, 鄭經世의 <愚岩記>, 李俊의 <書文翰後> 등을 수록하고 있다.

권말에 부기된 <書商山誌後>에는 '상주는 산수가 빼어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도 이를 상고할 수 없는 읍지가 없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康復誠과 丁好善 등이 중심이 되어 <<여지승람>>과 각종 雜誌를 참고하여 綱目을 구비한 이 읍지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미진한 부분은 續考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책의 편찬동기를 알 수 있게 한다.

규장각에는 이외에도 <<尙州郡邑誌>> <奎 10848> 와 <<尙州牧邑誌>> <奎 17447> 등이 소장되어 있다.

<p>金濤墓在梧串村後</p>	<p>金安節墓在于牧里西麓</p>	<p>申祐墓在丹密縣東蛇浦村左</p>	<p>金弘微墓在梅湖西麓</p>	<p>金錄墓在永順江生浦</p>	<p>金洽墓在山南百英洞北向</p>	<p>金銓墓在山北金龍村東麓</p>	<p>洪彥忠墓在永順道淵村後青山</p>	<p>李竣墓在西川村傍</p>	<p>李湜墓在魯谷西邊</p>	<p>金澤墓在尙州外北月堤松峴山碑石書曰進士追封匡靖大夫都僉議</p>	<p>贊成事金澤之墓 <small>子成寧君 陵坊右文館大提學 諡文孝公 李毅 號稼</small></p>	<p>八名宦</p>	<p>本州素稱雄藩幅園之廣人物之衆舟車兵馬之衝事體之大與他邑</p>
-----------------	-------------------	---------------------	------------------	------------------	--------------------	--------------------	----------------------	-----------------	-----------------	-------------------------------------	--	------------	------------------------------------

金濤墓在梧串村後

金安節墓在于牧里西麓

申祐墓在丹密縣東蛇浦村左

金弘微墓在梅湖西麓

公惟相一(補)庚午毀撤	<b>鳳山</b>	愼在沈州一西松鳳山下板谷廟戊辰享承旨己丁好講堂曹忠議金弘蘇承	首曹友仁府使黃翼再(補)庚午毀撤	<b>西山</b>	(補)在庚午西數里肅廟戊子創立癸巳享金仙源向容金清陰向憲	<b>涑水</b>	改在丹密縣西北一里正德丙寅爲景節公孫仲嗽立生祠壬亂後	十廟壬崇祿乙亥重建享弼善趙翎(補)庚午毀撤	<b>淵岳</b>	遠在健康南嶺山應初(新廟)享禮午寶寺正堂陸覺察坊趙光壁亭遠贈金讓亭	用良(補)庚午毀撤	<b>孝谷</b>	乙丑州南建追亭一下默齋金西臺斗(補)庚午毀撤	<b>雲溪</b>	根在侍直申碩享郡守肅成汝標牧使金三樂(補)庚午毀撤	<b>花巖</b>	毀在州東二十里肅廟壬申創建享進士金安節縣監金壽(補)庚午	<b>忠烈祠</b>	金在州北三林全肅廟戊寅有戶長朴傑從享榜古統制使鄭起龍察訪	<b>忠義壇</b>	都在承旨李慶流校正廟癸丑直提學朴鏡義享士烈贈公執義金俊郎臣	士金鐘有吏卒壇將士撞有御製碑
-------------	-----------	--------------------------------	------------------	-----------	------------------------------	-----------	----------------------------	-----------------------	-----------	-----------------------------------	-----------	-----------	------------------------	-----------	---------------------------	-----------	------------------------------	------------	------------------------------	------------	-------------------------------	----------------

涑水 [壬:在丹密縣西北一里 正德丙寅爲景節公孫仲嗽立生祠壬亂後  
 改卜于涑水書堂下 孝廟丙申合享按廉使申祐號景賢祠 肅  
 廟壬午陸號今 上庚戌追享金開巖宇宏趙黔澗靖[新增]在州東六  
 十里崇禎乙亥重建享弼善趙翎[補]庚午毀撤

金得齊得培之弟官至三司右使封商山君(新)與兄得培弟先致世稱  
 三元帥(補)同 太祖擊倭立功及麗運詔遷居尚州憲德仁正慶院  
 金先致得齊之弟以郎將從全羅道都巡問使柳灌擊倭手殺數十人轉  
 戶部郎中恭愍時從元帥李善長敵敵功一等遷吏部郎紅陽陷京城  
 從諸將以復京城入官密直副使出爲鶴林府尹陞同知密直副使  
 君諡文忠國隱居夢覺堂過其第贈詩曰西中留我酒盃深今日高談  
 直日金良爲朝天經歸而夕日芳草惜人心外裔丁好善爲特修其祭  
 其墓有文曰鎮精居岳趾美家庭專佐師遺幾揚玉雲紅雲其墓曰百  
 登壇廣清廟社功垂松山樹立既偉流澤宜長屹々開原衣冠所禮  
 (舊)有子五人鍾銓鍾承貴承富享龜湖祠  
 金承貴得培之嗣子官至判書  
 金溫承貴之子官至判書  
 申元濡鵝州人令同正得昌之子官至版圖判書忠烈王時持斧獨諫子  
 祐八孝子

申元濡鵝州人令同正得昌之子官至版圖判書忠烈王時持斧獨諫子  
 祐八孝子

遠一本全  
城一本  
山一本  
沃一本  
川一本  
善一本  
曹一本  
本一本  
昌一本  
韓一本  
州一本  
清一本  
禹一本  
國一本  
丹一本  
南一本  
本一本  
宜一本  
吳一本  
海一本  
州一本  
同一本  
編一本  
蔚一本  
山一本

文 本南 申 一本本 鴨平州 尹 一本本 坡海平 崔 一本本 東州 一本全 州一本 慶州 辛 一本本 山 白 一本本 水濟原

丁 本州 閔 一本本 劉 一本本 江 余 一本本 宜 林 一本本 國 裴 一本本 州 王 一本本 城 沈 一本本 水濟原

車 本安 田 一本本 張 一本本 山 魚 一本本 安 一本本 郭 一本本 風 孔 一本本 阜 千 一本本 秋 一本本 秋 陸 一本本 秋 陸

城本 呂 一本本 山 芮 一本本 邊 一本本 卞 一本本

祖完編

以上姓氏編則概因單子而列記之間亦竊附已知祖先編則但依所知而書記之亦從本孫所請而或書之其序次不拘先後而亦不無踈略闕漏之失只恨尚竟之不博也俗稱盧黃趙李故次第列記之如左

覽者詳之

光山盧氏 本村 趙 之 后 其 後 分 派 一 蘇 齋 守 慎 之 后 一 厚 齋 克 慎 之 后 以

長水黃氏 本村 趙 之 後 其 仲 子 少 尹 保 身 始 居 本 州 其 後 分 派 以 侍 中 趙

豐壤趙氏 本村 趙 之 後 其 仲 子 少 尹 保 身 始 居 本 州 其 後 分 派 以 侍 中 趙

興陽李氏 本村 趙 之 後 其 仲 子 少 尹 保 身 始 居 本 州 其 後 分 派 以 侍 中 趙

商山誌

商山誌

黃 參 鮪星之子司果

宋 沈輝 礪山人吏參叔琪之子 成宗朝侍直官至司直燕山時數諫不見容棄官隱居于本州素谷里杜門謝客書史自娛

宋 璫 洗輝之子蔭副護軍

宋 豪亮之弟進士早卒

李 克廓之子生員年未弱冠以文鳴世

李 哲成廓之曾孫蔭參奉

李 熙克之曾孫蔭參奉

李世鵬熙之子蔭參奉

李光武世鵬之子蔭參奉

鄭銀均御史澤之后官司司直在鄉時築堤灌水民蒙其惠刻石頌功至今在瀛溪石壁上

李彥 海川君成宗王子忠僖公寧山君性之孫見光海政亂挈家南下

申椿年 鵝州人按兼使祐之后文純公退溪李滉撰墓碣銘號栗亭

申 暹椿年之子官至縣監

申 淳俊暹之子官參奉

李元新 蔚州人益齋齊賢之后松陵伯之子進士壬亂挈家到蔚州一沙洞因居焉事見文成公李滉所撰松陰墓碣銘

李守種 世仁之孫官習讀姿性敦敏孝友篤至號參翁

李枝芳 延安人文康公石亨之文孫文科官察訪號靜齋

李中興 枝芳之子進士

李時進 枝芳之孫進士

李翰 龍世仁之文孫以文學行誼授教官因子後無意仕進歸隱林泉

李之巖 世仁之文孫官至中樞府事

李深 根世仁之文孫官訓導奉 當丙子歲亂戰于松坡死之

李之岷 世仁之文孫官 益山郡守

李弘基 其時之曾孫官主簿

黃夢昌 愉之子官 實副正文行為世所重壬亂倡義號止溪

商山誌

三

申椿年鵝州人按兼使祐之后文純公退溪李滉撰墓碣銘號栗亭 申 暹椿年之子官至縣監 申 淳俊暹之子官參奉



11世 준년(椿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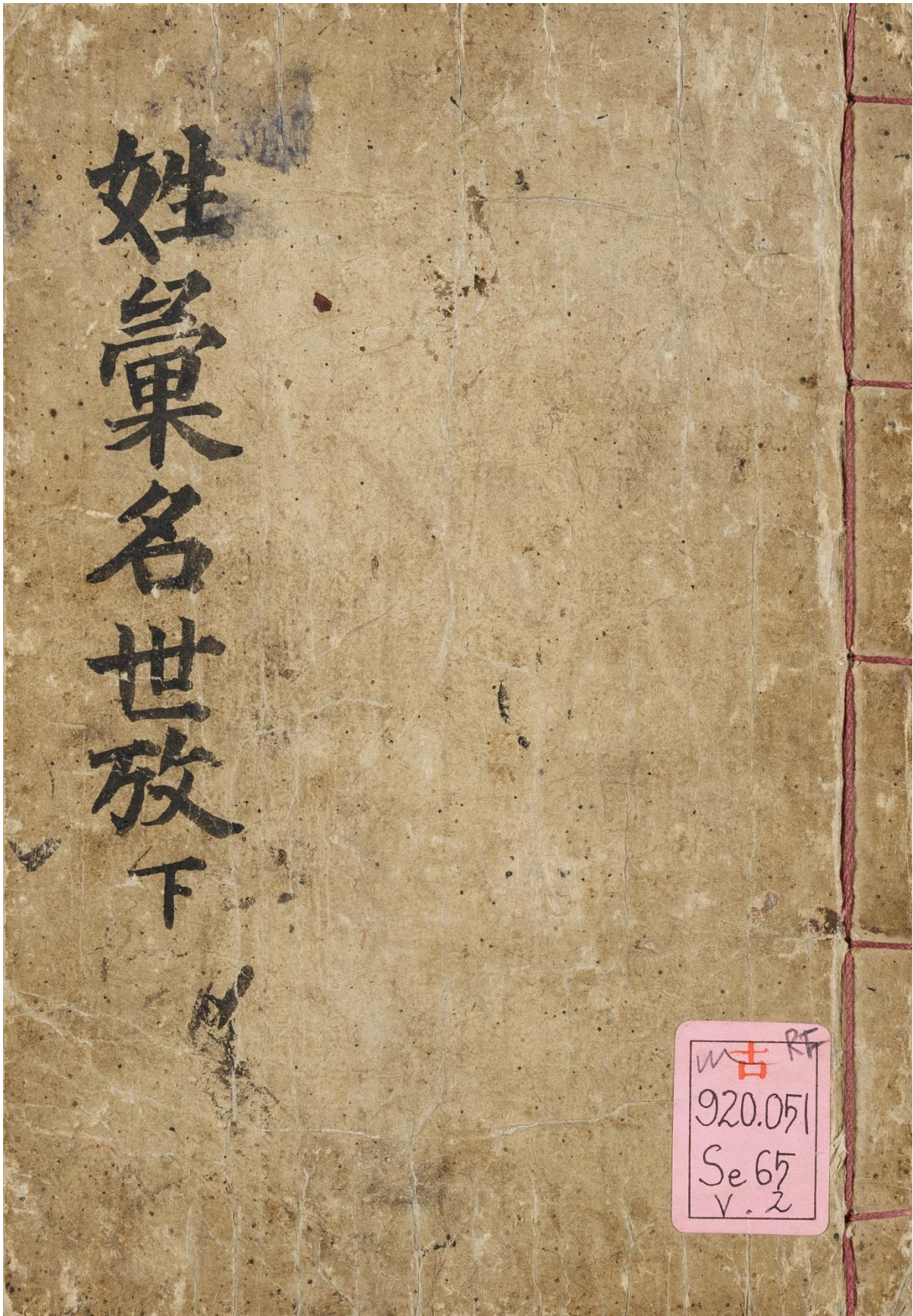
父 : 용보(用甫) 祖父 : 시생(始生)

귀파(龜派)과천공파(果川公派)





성휘명세고(姓彙名世攷)



서지사항

원서명	姓彙名世攷	현대어서명	성휘명세고
청구기호	古 920.051-Se65-v.1-2	편저자(한자)	[編者未詳]
편저자(한글)	[편자미상]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刊年未詳]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 卷 2 冊
책크기	26.7×18.2 츠	책수	2 권 2 책
판본	필사본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M/F 번호	M/F90-35-32-C, M/F86-16-31-H		
간행년대	연기미상(19 세기 후반 이후)		
청구기호	古 920.051-Se65		
자료소개	우리나라 여러 성씨의 인물 중 저명해서 모범이나 鑑戒로 삼을만한 인물에 대해 소개해놓은 책		

내 용

우리나라 여러 성씨의 인물 중 저명해서 모범이나 鑑戒로 삼을 만한 인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놓은 책이다.

< 성휘명세고범례 > 와 < 諸氏目錄 > , 본문에 해당하는 < 명세고 > 上·下, < 名世故 補遺 >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의 내용으로 본서의 간행 경위와 간행연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당시에 << 名賢錄 >>이 유행되고 있었는데 姓彙로 분류한 것이지만 편집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기록에 착잡이 많다.

또 安光宇(1753~?)가 편집한 << 號譜 >>(靑邱號譜)도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기사에 어긋난 것이 많고 입론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편에 약간 산삭.

보충을 해서 “성휘명세고”라 한다는 것이다.

수록된 인물도 영조대까지가 대부분이고 정조대, 순조대 인물이 약간 눈에 띄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서는 안광우의 << 靑邱號譜 >>가 유통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적어도 19세기 후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름을 “名世”라고 한 것은 대개 선악이 세상에 드러나서 법으로도 삼을 만하고 경계로도 삼을 만한 것을 취했기 때문이며 僻姓이나 稀貫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시 기록하였다.

그러나 반역죄를 지은 죄인이나 적에게 항복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 성휘명세고(姓彙名世攷)

견문이 미치지 못하여 高麗朝에 대한 기록은 소략하고 朝鮮朝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한 특징을 갖는다.

<명세고> 上編에는 李氏, 金氏, 鄭氏, 朴氏, 尹氏, 趙氏, 洪氏, 韓氏, 權氏 등 9개 성씨가 본관에 따라 시대순으로 수록되었다.

下編에는 申氏에서 唐氏에 이르기까지 96개 성씨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명세고 보유>에서는 상·하편에서 빠진 인물을 3장에 걸쳐 보충해 놓았다.

申 濶涌孫文承旨晚川

申翼相字叔弼應集孫文右相貞簡公醒齋

申啓澄字聖時沅從子蔭縣監尤菴門人

申光洙湛后文承旨石北正宗朝

申光河光洙弟文正言震澤

申鵝州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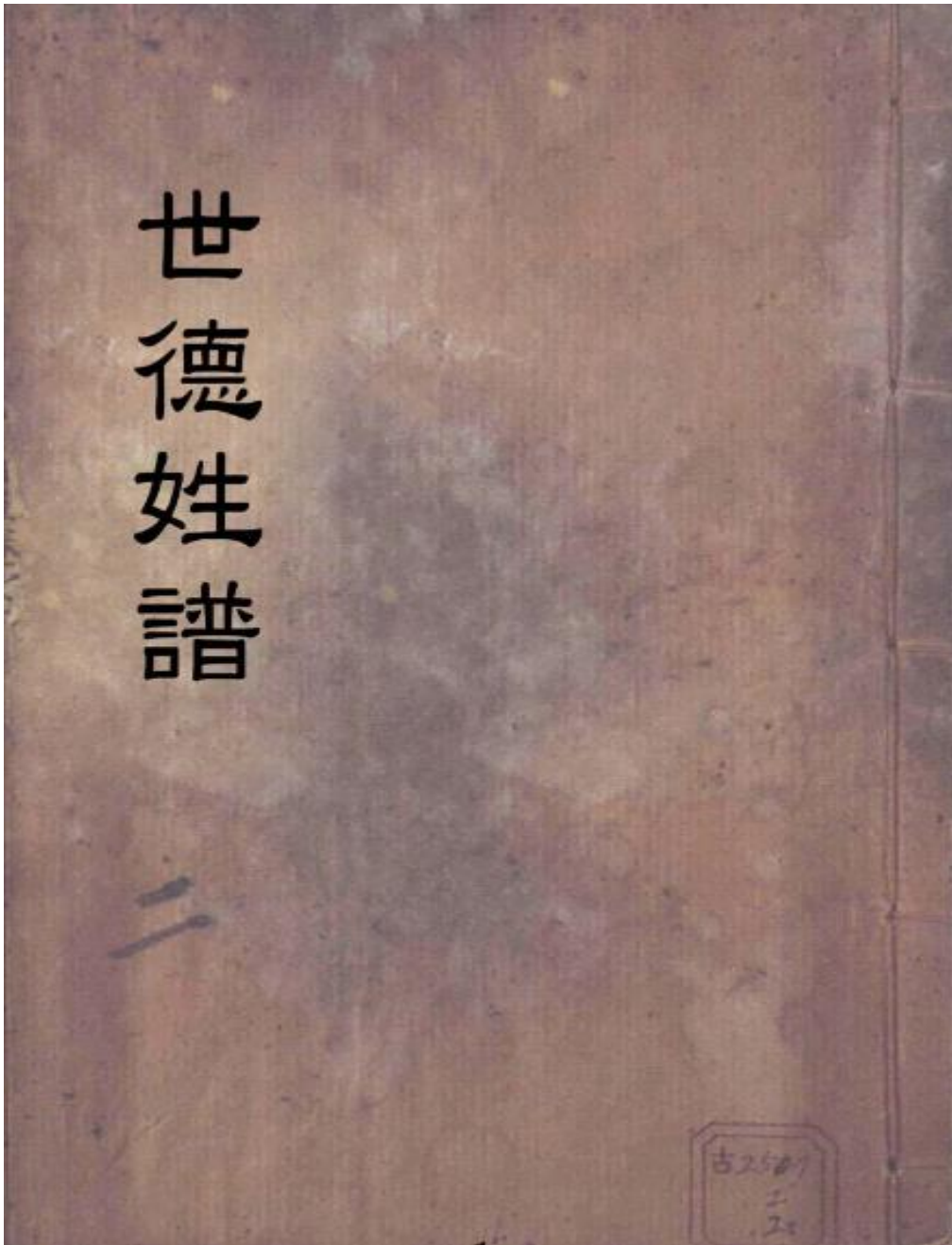
申元祿字景綏文監司仁宗昇遐行心忝悔堂仁宗朝

申之悌字順夫文承旨梧峯退溪門人宣祖朝

申悅道字進甫元祿孫文掌令懶齋仁祖朝

申原州申氏

## 세덕성보(世德姓譜)



### 서지사항

- 표제/저자사항 世德姓譜. 1-3/ 李起鳳 著 / 이기봉  
발행사항 서울 : 李起鳳, 1941  
형태사항 JPG3 卷 3 冊: 四周雙邊 半郭 19.6 x 14.8 cm, 界線, 10 行 23 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24.5 x 17.4 cm  
주기사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97590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2507

模字昌吉贈職獻模字寬瑞地林君武子癸酉以統後

忠模字聖順號政齋孝職時桐字聖甫碩后符輝子延

權子壽職一澤志祿字志彥時桐彥柱字信瓊象濟燦權字

烈子成贈承旨忠節叔舟子文北伯湛號汕號櫛後文汝

樑號賜軒後水使汝極號池專汝號樑後音任汝號樑後音任汝號樑後音任

樑壬辰賜軒後水使汝極號池專汝號樑後音任汝號樑後音任汝號樑後音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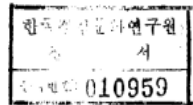
網行希源字次中號蘇軒汝楷后嘉善載棟子父病泓求

樑後贈藍察旌

鵝州申氏  
官顯之悌號梧峯

寧海申氏  
官顯楫寺正

# 양조문음진신신보(兩朝文蔭搢紳紳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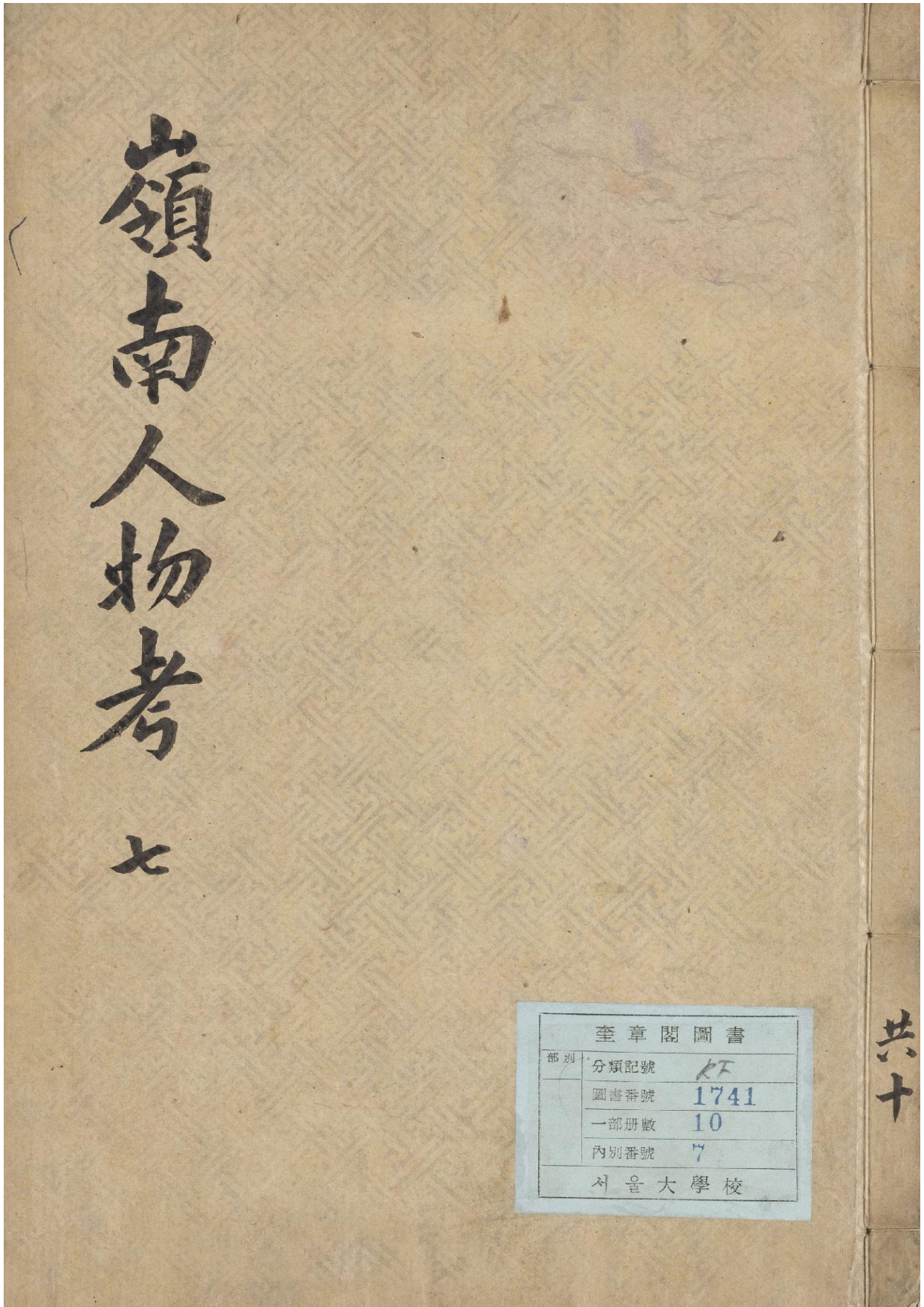
## 서지사항

자료명	양조문음진신신보	저자	강문환편(姜文煥編)
자료명(이칭)	兩朝文蔭武搢紳紳譜	저자(이칭)	姜文煥 編
청구기호	PB10B-82	MF 번호	MF35-968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系譜類/一般族譜
수집분류	민간/수입본/고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AA)
서지	전자도서관	보관처	장서각

文 魏	魏 洲	淮 武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文 高
閔泳奎 <small>字是五 丙午生 乙亥三歲致</small> 高宗	申龍燮 <small>字禮長 丙寅生 癸卯主事</small> 高宗	申敬求 <small>字學瑞 辛丑生 甲子生員</small> 高宗	申奎模 <small>字上範 辛丑生 辛巳武科</small> 高宗	申獻求 <small>字季文 癸未生 己未增刊書</small> 高宗	申直模 <small>字中立 甲子生 庚子科承旨</small> 高宗	申宗淳 <small>字敬三 乙丑生 丁未贈吏務</small> 高宗	申郁均 <small>字致化 癸丑生 丁未弘陵恭奉</small> 高宗	申允貞 <small>字順汝 丁未生 丁未恭奉</small> 高宗	申東賢 <small>字元炳 甲寅生 丁未通政</small> 高宗	申泰禧 <small>字一善 己未生 丙午通政</small> 高宗	齊均 <small>字文致 戊子生 丙午恭奉</small> 高宗	泰浹 <small>嘉善</small> 高宗
詰鎬 <small>泰議</small> 高宗	熙佑 高宗	達植 高宗	直模 <small>見上</small> 高宗	應模 高宗	允元 <small>贈參判</small> 高宗	相允 高宗	壕 <small>見上</small> 高宗	裕澈 <small>見上</small> 高宗	致彥 <small>見上</small> 高宗	錫溫 <small>戶部</small> 高宗	致大 高宗	致大 高宗
端顯 <small>會中</small> 高宗	祖楠 高宗	洛瑞 高宗	來朝 高宗	鼎殷 高宗	顯祿 高宗	宅權 <small>同中</small> 高宗	永來 <small>見上</small> 高宗	壕 <small>見上</small> 高宗	翼鳳 高宗	坊 <small>見上</small> 高宗	在文 <small>明承旨</small> 高宗	錫溫 <small>戶部</small> 高宗
維重 <small>文淵致宰 國原文貞</small> 高宗	之悌 <small>橋岾 承旨</small> 高宗	祐 <small>退密按 廉使</small> 高宗	德隣 <small>禮科</small> 高宗	末舟 <small>諱來</small> 高宗	碩 <small>祭酒 知 正堂</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崇謙 <small>見上</small> 高宗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서지사항

원서명	嶺南人物考	현대어서명	영남인물고
청구기호	奎 1741-v.1-10	편저자(한자)	蔡弘源(朝鮮) 等編
편저자(한글)	채홍원(조선) 등편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8世紀末(正祖年間:1776-1800)]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10卷 10冊
판심	上二葉花紋魚尾	책크기	33.6×21.4cm
인기	內閣, 帝室圖書之章	사부분류	史部 傳記類 叢傳 一般
M/F 번호	M/F65-1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25×17cm, 有界, 10行 20字		
자료소개	朝鮮初期부터 正祖 年間に 이르는 동안에 嶺南各處에서 배출된 學者·政治家·文學家 등의 人物傳을 輯錄한 책으로 1798年(正祖 22)에 正祖의 命에 의해 이루어진 것		

내 용

朝鮮初期부터 正祖年間に 이르는 동안에 嶺南各處에서 배출된 學者·政治家·文學家 등의 人物傳을 소개, 輯錄한 책으로 1798년 (正祖 22)正祖의 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각 人物의 行狀이나 言行錄·墓誌·神道碑文·祭文 등의 遺事를 토대로 抄錄·評論한 것이며, 지방별로 당시 名士·文臣들 1-3 명씩 분담, 편찬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現 奎 章閣本은 筆寫正本으로서 각 편찬자들이 正祖에게 製進한 것을 合錄, 備置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文獻備考>>나 <<擒文院書目>>에 의하면 총 17卷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嶺南各處 중 慶尙南道 지방이 대부분 빠져 있고 慶尙北道에서도 인물이 많기로 이름난 善山·醴泉·仁同·高靈등지가 누락된 것을 미루어 보면 現傳하는 10卷은 零本이 아닌가 추측된다.

傳言에 따르면 韓末 伊藤博文이 借去한채 분실하였다는 一說(高大, <<韓國圖書解題>>)도 있다.

各卷別 편찬자의 이름이 卷頭(貼紙)에 적혀있고 冊마다 內閣印이 있다.

한편 奎 章閣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茶山 丁若鏞이 本書編撰者中 한사람이있던 그의 仲兄 若銓이 보여 준 草稿를 보고 지었다는 序文이 <<與猶堂全書>>에 실려있다.

卷別 편찬자와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1(蔡弘遠 編) ; 安東篇(一)으로 金濟·金自粹이하 金宇顙에 이르는 46 명.

권 2(丁若銓 編) ; 安東篇(二)으로 柳成龍 이하 金然에 이르는 36 명.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권 3(李儒修·韓致應 編) ; 安東篇(三)으로 柳元之 이하 裴相說에 이르는 56 명.

권 4(睦萬中·沈奎 魯 編) ; 尙州篇(一)으로 黃喜 이하 鄭道應에 이르는 64 명.

권 5(尹弼秉·李鼎運 編) ; 尙州篇(二)에 金楷 이하 金熙普에 이르는 13 명과, 禮安篇에 琴以詠 이하 李東俊에 이르는 36 명, 軍威篇에 玉沽 등 9 명, 英陽의 趙德隣.

권 6(未詳 : 落張) ; 慶州篇에 徐愈 등 33 명, 密陽篇에 李行 등 19 명, 新寧篇에 權應銖 등 3 명.

권 7(李○薰·洪命周 編) ; 星州篇에 李崇仁 등 35 명, 義城篇에 金光粹 申之悌 등 20 명.

권 8(蔡弘履·權應範·沈奎 魯 編) ; 晋州篇에 河演 등 42 명, 咸陽篇에 趙承肅 등 10 명, 慈仁篇에 李陽昭 등 4 명.

권 9(李○珩·沈達漢 篇) ; 永川篇에 李敢 등 30 명, 大邱篇에 楊熙止 등 25 명.

권 10(李址永·姜浚欽 編) ; 榮川篇에 鄭陟 등 38 명, 龍宮篇에 安俊 등 14 명, 河陽의 許稠와 金是聲, 眞寶의 申址와 申禮勇이 수록되어 있다.

嶺南의 人脈이나 人物研究에 귀중한 사전적 자료이다.

姜周鎮譯의 <<嶺南人物考>>(서울大出版部,1967)가 있다.

朝鮮初期부터 正祖代에 이르는 동안에 嶺南 각처에서 배출된 學者, 政治家, 文學家 등의 人物을 소개한 책이다.

정조시대의 문신들이 1798 년(正祖 22)에 王命에 따라 영남의 각 지방별로 1~3 명씩 분담해서 관계 인사들의 行狀, 言行錄, 碑文, 祭文 등을 토대로 평론하였다.

奎章閣에 남아 있는 筆寫本 10 권 10 책은 각 편찬자들이 정조에게 製進한 것을 合錄, 備置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文獻備考>>와 <<擒文院書目常板史部添錄>>에는 모두 17 권으로 기록되어 있어 7 권이 缺本인 것으로 보인다.

예부터 인물이 많다는 善山, 醴泉, 仁同, 高靈 등과 慶南 일대의 많은 고을이 빠져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난 인물을 평론한 7 권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권별 편찬자의 이름이 貼紙에 적혀 있고, 책마다 內閣印이 있다.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또 丁若鏞의《與猶堂全書》에는 정약용이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仲兄 若鏞의 초고를 보고 지었다는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서문은 규장각본에는 실려 있지 않다.

정조는 학자형 군주로 규장각을 통하여 많은 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蔡濟恭을 오랜동안 獨相으로 두고 南人을 대거 등용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채제공은 왕명하에 邪敎에 감염되지 않은 선비를 取才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嶺南儒生들의 科擧를 陶山書院에서 보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인의 중심적 인물인 채제공이 영남의 인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정조의 명을 받아 이 책을 공동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책의 권 1 을 편찬한 蔡弘遠은 채제공의 아들이다.

권별 편찬자와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1 은 채홍원이 편한 '安東篇(一)'로 金濟, 金自粹 등 47 명이 수록되었고, 권 2 는 丁若鏞이 편찬한 '安東篇(二)'로 柳成龍 등 36 명, 권 3 은 李儒修, 韓致應이 편한 '安東篇(三)'으로 柳元之 등 56 명이 수록되었다.

권 4 는 睦萬中, 沈奎魯가 편한 '尙州篇(一)'로 黃禧 등 64 명의 인물을 다루었다.

권 5 는 尹弼秉, 李鼎運이 편찬한 것으로 金楷 등 13 명을 다룬 '尙州篇(二)'와 琴以詠 등 36 명을 기록한 '禮安篇', 玉沽 등 9 명을 다룬 '軍威篇', 趙德隣의 '英陽篇'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 6 은 徐愈 등 33 명이 기술된 '慶州篇', 李行 등 19 명이 수록된 '密陽篇', 權應銖 등 3 명이 수록된 '新寧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낙장되어 편자를 알 수 없다.

권 7 은 李承薰과 洪命周가 편찬한 것으로 '星州篇'에 李崇仁 등 35 명, '義城篇'에 金光粹 등 20 인을 기술하였다.

권 8 은 蔡弘履, 權應範, 沈奎魯가 편한 것으로, 河演 등 42 명을 수록한 '晉州篇', 趙承肅 등 10 명을 기술한 '咸陽篇', 李陽昭 등 4 명을 수록한 '慈仁篇'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 9 는 李世珩과 沈達漢이 편한 것으로 '永川篇'에 李敢 등 30 명, '大邱篇'에 楊熙止 등 25 명이 기술되었다.

권 10 은 李址永, 姜浚欽이 편한 것으로 '營川篇'에 鄭陟 등 38 명, '龍宮篇'에 安俊 등 14 명, '河陽編'의 許稠와 金是聲, '眞寶編'의 申址와 申禮勇이 서술되었다.

1967 년 姜周鎭 등에 의해 번역되어 원문과 함께 탐구당에서 발간되었다.

申元祿

申元祿字季綏號晦堂鵝洲人 中宗丙子生官教  
授

父嬰奇疾公十餘歲為覓藥上八公山崎嶇數百  
里從醫劑藥夜不交目衣帶不解者八年  
既屢舉不中歎曰古人以親老而不為祿仕為不  
孝丐為縣學官嘗書壁上曰負重涉遠不擇地而  
休家貧親老不擇祿而仕蓋有仲由之感焉  
為小槽將親褻衣澣濯不以付人便旋之宛手自  
滌漑嘗雜植奇花異草每於佳辰令節供具燕樂

作壽親曲八闋以道愛日之誠  
其居喪作母夫人影幘揭之几筵朝夕悲號日三省墓不避雨雪糲食糜飲不近菜醬轉益柴數子弟泣諫則曰命稟於有生之初脩短不以此也有一兄事之甚謹嘗自漢城同歸伯氏病薄天民川秋水方漲人言有毒蟒害人不可徒涉也公負而濟卒無事

周慎齋立白雲洞書院公贅文求教留數日慎齋試諸生得公作異之批其尾曰我院有人其心如玉天將玉汝申其祿矣

與諸生倡建書院於長川以享慕齋金先生事聞

賜額長川

李光庭  
撰行狀

*[Faint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including characters like '賜額長川' and '撰行狀']*

申侂

申侂字懼之鵝洲人明宗庚戌生官教授光海甲

寅卒

辛亥疏論鄭仁弘誣賢之罪曰仁弘山林養望自許太過出一言語思易天下而仰恃聖眷以為我為此言則天聽可回天聽既回則我之積憾可以快報饒筆騁辭惑亂視聽其流之弊將至於滅民彞害天理自是見時象乖亂杜門守靜日以經史

自悞

崔現撰  
基誌



申之悌

申之悌字順夫號梧峯鵝洲人 明宗壬戌生 宣  
祖己丑文科歷正言文學北評事府使至承旨 仁  
祖甲子卒

癸丑拜昌原府使有獷賊據島出入焚掠隣邑莫  
能制公設方畧悉捕之事聞增秩通政

公天姿醇粹儀度秀偉西厓柳先生嘗稱為第一  
人物事繼母吳氏盡孝當其病革語不可了猶亟  
問親瘠既絕乃已愛君憂國出於至性嘗聞廢主  
出置之事為之泫然流涕

仁弘勢焰薰灼公泣近境六暮一不相問仁弘心

服公政治不敢修隙金應祖撰

承旨辭疏一不言及新化從容婉轉不迫不露當

日惟五峯李公及敬亭李公識其意補遺

*[Faded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including names like 敬亭李公 and 五峯李公]*

申之孝

申之孝字達夫號鷹巖鵝州人 宣祖壬辰避亂遇賊死

壬辰倭寇搶攘時公弟梧峯之悌在宣城縣公奉老在家避巖穴間倭踵而至劒公左肩血流淋漓公臨絕嚙葛為筆血書紬衫寄梧峯曰吾之藏身不密不孝孰甚焉老親則有諸弟奉侍君既委身王室有職守當臨亂授命而矢石赴死之日恐無以尋屍幸於足掌書宣城二字俾識之云

任必大撰碣

申適道

申適道字士立號虎溪鵝洲人 宣祖甲戌生官察  
訪 仁祖癸卯卒

嘗任水溪院長時嫁禍士林者題名於尋院錄公  
削去之鄭造為方伯督囚院任公凝然不動從容  
就囚辭理不屈雖以造之凶暴無以罪之

丙子以義兵將灑泣誓衆遂以孤軍星夜馳赴  
行在仍獻兵糧拜 健元陵叅奉謝 恩而退  
洪萬

朝撰墓誌

申悅道

申悅道字進甫號懶齋鵝洲人 宣祖己丑生丙午  
進士 仁祖甲子文科歷正言至牧使 孝宗己亥  
卒

九歲進拜旅軒先生先生竒愛之教以正坐公資  
稟粹然無一點滯吝意思無一毫粗厲氣象

其立朝恬靜自守不肯苟同而詭隨以至治郡以  
教化為要興學為先陳疏章眷眷端本典學之說  
其在南漢園中人皆恒恟苟冀和好公以死自許  
製巾帶以備自處修家信以付蒼頭從容自得如

平日

好讀書如朱書節要聖學十箇等書手不釋卷為

文織悉典雅應製輒居前列應對大國一行為之

閣筆

金應祖  
換碣

集釋...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卒

...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申淵道

申弘望

申弘望字望久號孤松鵝洲人承旨之悌子 宣祖  
庚子生 仁祖丁卯進士以薦授叅奉不起己卯文  
科歷注書正言至司藝

公在憲府有李時樸居官不廉持喪不謹人言喧  
藉持平李溫發啓旋被劾去時樸為都承旨陳疏  
自明引先賢為證聞者憤惋公將舉劾同列止之  
曰君朝夕且瀛選公不聽遂獨啓之於是諫院劾  
罷公尋竄碧潼

己亥除豐基守先是邑宰連歿于官人以為不祥

公曰吾不就官無以解妖言遂赴任以訓士興學

為務留數歲棄歸行橐蕭然惟紅梅一盆

權相一撰墓誌

*(Faint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中



申達道

申達道字亨甫號晚悟鬱洲人光海丙子生庚戌進士仁祖癸亥文科魁官至修撰錄寧社勲辛未辛壬辰以後寇盜充斥首尾七八年經生學子莫不解體無意親書冊公益發憤自厲手不釋卷而洛建諸書尤反復有契發為文章汪洋放肆渾渾無涯淡

為正言上十條疏曰用人才曰擇守令曰收人心曰開言路曰決壅蔽曰赦罪過曰省冗官曰厚風俗曰均貢賦曰修軍政末復言修省之實上嘉

納焉

丁卯狄來侵 上召大臣諸臣議有一勲宰首發  
韋蜀之議公進言曰願 殿下駐節坡州奮揚威  
武以示先人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  
上曰當與廟堂商度竟不用其計及扈 駕江都  
庭議欲講和公抗疏曰 殿下畏賊如虎無意討  
賊不顧義理之當否惟恐和好之不成如此尚可  
以為國乎因伸救司諫尹煌又與尹煌論崔鳴吉  
主和誤國之罪辭意峻正無所忌諱朝著為之疎  
然

時毛文龍為檄島守將聲言朝鮮陰通吐虜將欲  
襲取檄島傳播遠通事機叵測 朝廷議遣使曉  
諭難其人公遂膺是選承命入毛營乃謂朝鮮事  
大國如子事父不宜有此辭情懇款毛將感悟疑  
盡釋於是刷還本國人擄在島中數千人  
在諫院有臺諫論勳臣驕橫不法狀 上怒甚有  
嚴治臺諫之 命公乃挺身獨啓曰臺諫常持公  
議為人主耳目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  
啓趙綱之疏皆出公議非搆誣人之論也且廟堂  
歧而為二不知協和朝廷而只要和好胡虜不知

오보(午譜)



## 서지사항

자료명	오보(午譜)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午譜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1770	MF 번호	MF35-705, 981~982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系譜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 내 용

高宗末에서 純宗 年間(1890~1910) 사이에 필사된 朝鮮朝 黨派의 하나인 南人의 系譜.

不分卷 4 책(元亨利貞)으로 線裝되어 있는 寫本이다. 編者는 알 수 없으며, 수록된 인물로 미루어 보아 高宗末에서 純宗年間(1890~1910)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5.4×16.5cm 이다. 사주와 계선은 烏絲欄이며 半葉에 15 段으로 되어 있고, 각 행의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책의 크기는 30.3×20cm 이며, 지질은 楮紙이다.

본 책은 조선조 黨派의 하나인 南人들만의 족보로 『南譜』라고도 한다. 『午譜』라는 명칭은 남쪽이 '午'에 해당하기에 붙인 이름이다. 본 책은 모두 4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별로 수록된 성씨와 본관은 다음과 같다. 1 책(元)에는 全州 李氏, 延安 李氏, 廣州 李氏, 韓山 李氏, 龍仁 李氏, 驪興 李氏가 수록되어 있다. 2 책(亨)에는 眞寶 李氏, 星州 李氏, 碧珍 李氏, 咸平 李氏, 慶州 李氏, 全義 李氏, 平昌 李氏, 永川 李氏, 羽溪 李氏, 陽城 李氏, 固城 李氏, 載寧 李氏, 新平 李氏, 光州 李氏, 原州 李氏, 興陽 李氏, 禮安 李氏, 咸陽 朴氏, 務安 朴氏, 潘南 朴氏, 竹山 朴氏, 順興 安氏, 廣州 安氏, 安東 金氏, 慶州 金氏, 尙州 金氏, 江陵 金氏, 豐山 金氏, 光州 金氏, 善山 金氏, 禮安 金氏, 金海 金氏, 咸昌 金氏, 淸道 金氏, 義城 金氏, 延安 金氏, 高靈 金氏, 順天 金氏, 原州 金氏, 瑞興 金氏가 수록되어 있다. 3 책(利)에는 淸州 韓氏, 漢陽 趙氏, 楊州 趙氏, 豐壤 趙氏, 平壤 趙氏, 淳昌 趙氏, 橫城 趙氏, 安東 權氏, 醴泉 權氏, 東萊 鄭氏, 晋州 鄭氏, 延日 鄭氏, 海州 鄭氏, 淸州 鄭氏, 艸溪 鄭氏, 溫陽 鄭氏, 河東 鄭氏, 鐵城 鄭氏, 奉化 鄭氏, 坡平 尹氏, 海平 尹氏, 南原 尹氏, 海南 尹氏, 平山 申氏, 高靈 申氏, 鵝洲 申氏, 全州 崔氏, 江陵 崔氏, 朔寧 崔氏, 江華 崔氏, 慶州 崔氏, 和順 崔氏, 永川 崔氏, 隨城 崔氏, 全州 柳氏, 豐山 柳氏, 晋州 柳氏가 수록되어 있다. 4 책(貞)에는 平康 蔡氏, 泗川 睦氏, 羅州 丁氏, 靑松 沈氏, 南陽 洪氏, 豐山 洪氏, 缶溪 洪氏, 晋州 姜氏, 陽川 許氏, 昌原 黃氏, 長水 黃氏, 平海 黃氏, 尙州 黃氏, 杞溪 俞氏, 原州 元氏, 同福 吳氏, 礪山 宋氏, 恩津 宋氏, 楊州 宋氏, 鎭川 宋氏, 冶爐 宋氏, 新平 宋氏, 仁同 張氏, 星州 呂氏, 扶餘 徐氏, 宜寧 南氏, 英陽 南氏, 昌寧 曹氏, 驪興 閔氏, 居昌 愼氏, 密陽 卞氏, 羅州 羅氏, 玄風 郭氏, 文河 盧氏, 光州 盧氏, 晋州 河氏, 慶州 孫氏, 密陽 孫氏, 一眞 孫氏, 平海 孫氏,

丹陽 禹氏, 開城 高氏, 原州 邊氏, 星州 裴氏, 南平 文氏, 水原 白氏, 咸悅南 宮氏, 曲阜 孔氏, 靈山 辛氏가 수록되어 있다. 본 책에 수록된 전주 이씨의 계보는 世宗의 다섯째 아들로 撫安大君 芳蕃의 양자로 들어간 廣平大君의 6대손인 李士濂부터 시작된다. 이름 옆에는 官職, 諡號, 號, 門人, 褒賞, 逆誅, 妻父名 등을 기록하였고, 유명한 인물 옆에는 '○○', '· · ·' 등의 기호로 방점을 찍었다.

본 책은 南人 가문의 족보로, 조선 후기 당쟁사 연구 및 주요 가문들의 학문적 연원 및 通婚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참고가 된다.

장서각에 마이크로필름(MF35-705, 981~982, MF35-1620)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 외에 남인들의 계보는 보통 『南譜』라는 이름으로 장서각,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7년에 『朝鮮黨爭關係資料集』으로 영인되었다.

편자미상. 필사본. 4책. 일명 남보(南譜), 오보(午譜)라고도 한다. '선원속보권(璿源續譜卷)'이라는 속표제가 있다. 편찬시기는 1870년대 전후로 보인다. 체재는 1면을 12단으로 나누어 성씨별·본관별로 구분하였다.

전주이씨(全州李氏)의 경우 태조 이하 정종·태종·세종, 효령대군 등 선원계보순으로 나열하였다. 다른 성씨의 경우는 본관에 따라 시조와 중시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기록하였다.

작성방식은 주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이름 옆에 방점을 찍고 문관, 문관, 음관 등의 관직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관직·봉호(封號)·시호(諡號)·호(號)·문인(門人)·청백(清白)·정려(旌閭)·역주(逆誅) 사항 등을 기록하고 처부(妻父)의 이름도 덧붙였으나 대부분은 이름만 적혀 있다.

성씨별로 보면 이·김·정·최씨의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관별로 보면 전주이씨·광주이씨(廣州李氏)·연안이씨·여주이씨·안동김씨·동래정씨·**아주신씨**·안동권씨 등이 수록되어 있다.

洲鶯

光貴 <small>光貴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富 <small>光富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錫 <small>光錫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俊 <small>光俊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壽 <small>光壽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元 <small>光元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祿 <small>光祿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化 <small>光化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達 <small>光達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信 <small>光信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始 <small>光始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生 <small>光生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甫 <small>光甫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翰 <small>光翰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應 <small>光應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奎 <small>光奎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蔭 <small>光蔭 有碑 孝行 院學</small>	光得 <small>光得 有碑 孝行 院學</small>

鶯洲申氏

忠佑 父允儒 祖得昌 曾景 始義

忠佑 <small>忠佑 有碑 孝行 院學</small>	允儒 <small>允儒 有碑 孝行 院學</small>	得昌 <small>得昌 有碑 孝行 院學</small>	景 <small>景 有碑 孝行 院學</small>	義 <small>義 有碑 孝行 院學</small>
忠佑 <small>忠佑 有碑 孝行 院學</small>	允儒 <small>允儒 有碑 孝行 院學</small>	得昌 <small>得昌 有碑 孝行 院學</small>	景 <small>景 有碑 孝行 院學</small>	義 <small>義 有碑 孝行 院學</small>

의성군지(義城郡誌)





서지사항

원서명	義城郡誌	현대어서명	의성군지
청구기호	奎 10828	편저자(한자)	義城郡(朝鮮) 編
편저자(한글)	의성군(조선) 편	판본사항	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光武 3 年(1899)]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1 冊(20 張)
책크기	37.3×25.3 ㎝	M/F 번호	M/F79-103-155-W
표지, , 권두서명	表紙書名:慶尙北道... 慶尙道	사부분류	史部 地理類 方誌 郡邑誌
자료소개	1899 年(光武 3) 읍지 상송령에 따라 義城郡에서 편찬한 邑誌		

내 용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 년에 편찬한 지방지. 읍지.

목차

四界, 道路, 坊名, 建置沿革, 別號, 官號沿革, 鎭管,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城郭, 烽燧, 堤堰, 橋梁, 驛院, 古蹟, 陵寢, 學校, 壇廟, 公廨, 樓亭, 題詠, 倉庫, 佛宇, 人物, 土產, 田畝摠, 貢稅, 俸廩, 穀簿, 戶口

내용

1 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정조 연간의 사실을 반영하는 『의성현지』가 규장각 도서에 있고, 일제강점기에 편사된 『의성현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사계(四界)·도로(道路)·방명(坊名)·건치연혁(建置沿革)·별호(別號)·관호연혁(官號沿革)·진관(鎭官)·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성곽(城郭)·봉수(烽燧)·제언(堤堰)·교량(橋梁)·역원(驛院)·고적(古蹟)·능침(陵寢)·학교(學校)·단묘(壇廟)·공해(公廨)·누정제영(樓亭題詠)·창고(倉庫)·불우(佛宇)·인물(人物)·토산(土產)·전답총(田畝摠)·공세(貢稅)·봉급(俸給)·곡부(穀簿)·읍의 보유 양곡수를 조사, 보고하여 만든 책)·호구(戶口) 등으로 되어 있다.

## 의성군지(義城郡誌)

특기할 사항은 산천조에 빙산(氷山)·빙혈(氷穴)의 규모·위치를 기록하고, 백장(百丈)·장령(丈嶺)에 관해서는 장현광(張顯光)의 기록이 있다.

성곽조와 인물조가 상세하며, 고적조에는 경덕분(景德墳)과 성삼문(成三門)의 묘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고, 학교조에는 서원에 관한 기록이 많다. 전결수는 무술(戊戌, 1898) 시기결(時起結)을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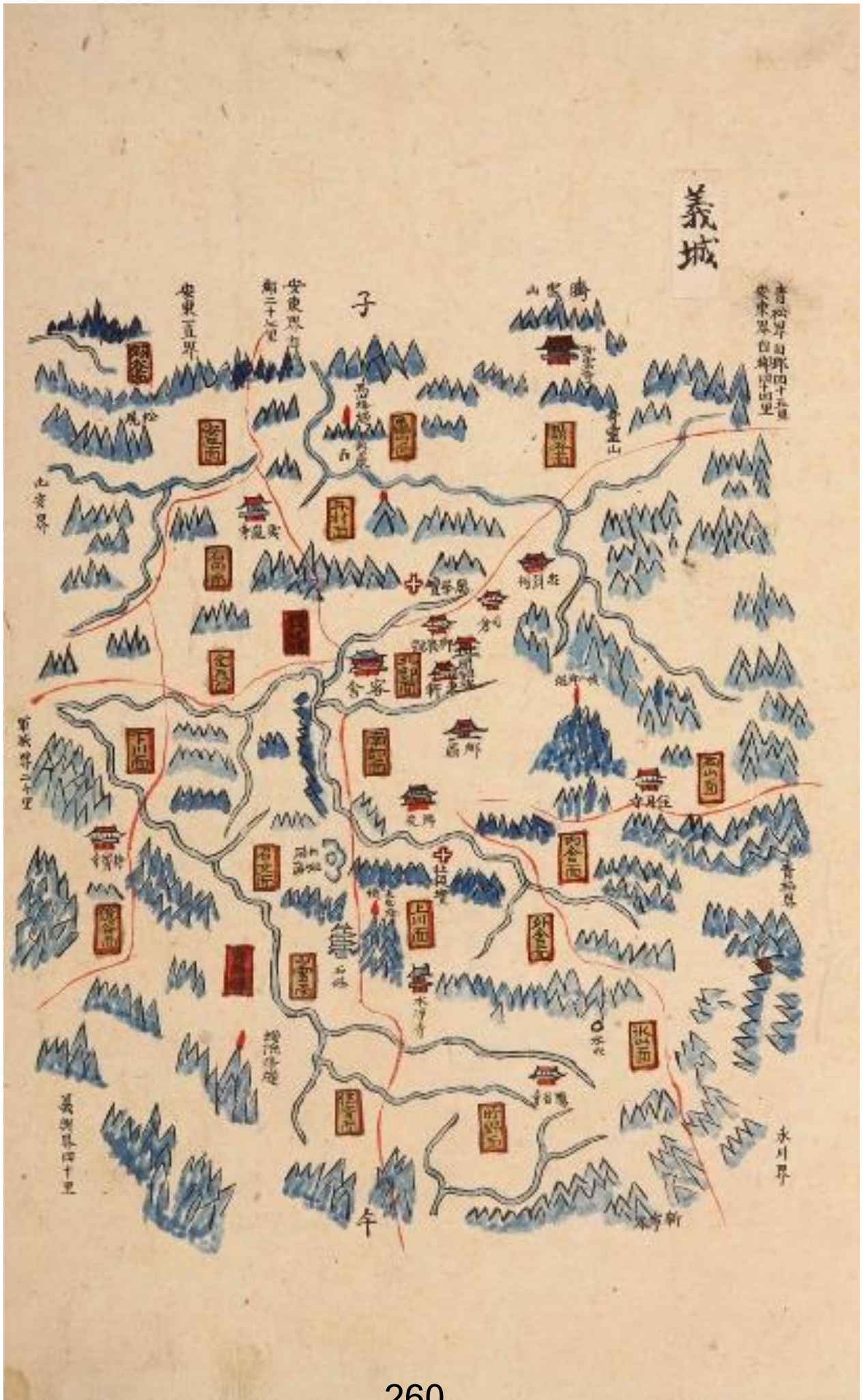
### 본문

1899년(광무 3) 읍지 상송령에 따라 義城郡에서 편찬한 읍지이다.

내용은 <<嶺南邑誌>> <奎 12173> 제 7 책 안의 <義城縣誌> 및 <<義城縣誌>> <奎 17453> 와 대체로 비슷하다.

책머리에 채색지도가 있고, 내용은 四界 道路 坊名 建置沿革 別號 官號沿革 鎭管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城郭 烽燧 堤堰 橋梁 驛院 古蹟 陵寢 學校 壇廟 公廨 樓亭 題詠 倉庫 佛宇 人物 土產 田畝總 貢稅 俸廩 穀簿 戶口 등으로 이루어졌다.

田結數는 戊戌(1898년)時起結을 따르고 있다.



問幾時栽封蒼翠萬年姿清香細細未詩筆殘子紛  
 紛落硯池葉密幽禽啼自在苔斑鱗甲老尤奇昂藏  
 獨立村園粟不許尋常俗士知文康壽村今之沙村  
 公張顯光每逢郡人問萬年松安否壽村居全光  
 粹享九十六歲擢武成亦享一百武昌柳在郡門內  
 歲其後人多耆艾村之稱以此  
 諺傳前朝時朝貢南禪補藪在此院傍邑基西北空  
 京移來武昌柳云  
 蕪龍後斬伐殆盡許厚知縣  
 時加等而高大之植以雜木

### 陵寢

#### 景德王陵

在郡南二十  
五里召文面

### 學校

#### 鄉校

在郡東一里校有青櫺別錄蓋為出學舍首  
 任者周世鵬劉紹修書院立規如此申元探與

鄉人取以為明倫堂敬公全安國接節本道時有  
 法至今遵行

示義城學者詩曰正路邪歧辨易差紛紛記學習

齋堂在明倫敬義齋堂在明倫光風樓在明倫壺南樓

駟孫題名重修時不取興學齋在郡南門外正德

按本道與之穀八十斛為生徒講學資聞值歲而

敬公之數縣之士欲別立一齋揭號興學而末乾

縣令李吉甫捐俸買屋葺治之手扁青英齋水溪

書院嘉靖丙辰申元祿倡儀創建於長川上奉安文

俊移建於永山寺舊址合享文元公李彥迪號水

公金誠一文歲待書院在郡西三十里萬曆庚戌承

業之所文康公張顯先命各歲待願宗幸友士鶴

林立祠其傍奉享金先釋申元祿申之悵李氏歲雀

山書院

奉享成三問朴 肅廟戊寅 縣令李光朝 劉建

應孚傍立別祠享吳斗寅朴恭輔李世華今廢  
英廟庚戌移建于梧桐山下合享一祠

壇廟

社稷壇

在郡西 文廟 在鄉城隍祠 在郡北三里俗侍

與百濟甄瑩戰死之仍祠于此 俞好仁迎送神  
歌公何為方一方侍薛蘿方山茶蒼蒼當天造方捨攘

真人堪起芳青木傍攀辨附翼方爭騰驤黃屋左轟  
方當虎狼劉家記信方遙相望廟食百世芳神洋洋

我民報事方不可忘 靈廳廳方山之頭雲霧霧方  
置搜鼓坎坎方舞爽猶荔于黃方桂為看畝我饋饒

方不尤斥去八蜡方歲有秋闈境來雲方桑厲壇在  
麻稠驅厲鬼方垂神休我民報事方歲增修

北五鎮民祠

在朝陽館東高麗太子詹事金龍庇有  
功德於民故邑人設位以祭 正德間

其傍孫全安國按本道始為忠烈祠 在那東北烏川  
立祠後孫全誠一揭號鎮民

之門德行勲業皆足以輝映百代云 **金宇顯** 龍庇後  
 謚文忠與文敬公同享永溪院祠  
 戊午司馬丁卯文科初授弘文正字歷敬清顯長憲  
 府玉堂殆二十年遊學於文純公享泚文貞公曹植  
 之門與文穆公鄭述齊名官至 **金瑞亨** 改名克諧高  
 吏曹叅判贈判書謚文貞 **金瑞亨** 麗上洛公方  
 慶後性廉介不苟中天順巳卯生負登成化辛卯文  
 科為正評事秩滿治任將歸匣中有二黃毛去之清  
 白為世 **金光粹** 克諧子號松隱中弘治辛酉進士天  
 所重 **金光粹** 性恬淡風神端潔嘗遊太學見時象  
 不善知辭歸未幾士林禍復作自是謝絕舉業無復  
 有進就意嘗作十箴以自警古人嘉言善行詠歌不  
 輟婢僕亦習聞而能傳之文忠公柳成 **申元祿** 高麗  
 龍題其墓有遺集行于世享歲待院祠 **申元祿** 孝子  
 祐後沈悔坐徙遊曹植周世鵬門深得為己之學性  
 至孝甫十歲父病登山採藥從醫剗追及喪廬墓終  
 制事毋務得歡心嘗作宴親申八閔以盡愛日之誠  
 及沒又廬墓哀毀成疾而卒嘉靖丙午遭 **國愷** 獨  
 以素餐終三年周世鵬卒心喪三年事載續三綱行  
 實 朝命旌閭 贈叅議有遺集行世享歲待院祠

李光俊

號鶴洞 任未幾 陵寇充 斥領兵 出戰斬 獲甚多 事赴

其卒聚 哭設奠 於碑下 官至 觀察使 文康公 張顯光

題其墓 曰天性 剛方 律已 以正 居李民 宥光俊 子號

曆丁酉 文科 選湖 堂先 海朝 廢母 后之 議起 人無

敢言者 獨上 劄首 論造 詞之 罪爾 瞻嫉 之削 職廢 斥

華香 從鄭 速張 顯光 遊講 刺道 義有 文集 十二 卷動 中

行朝 享歲 待院 祠李 民寔 庚子 文科 珥史 筆戊 午

深河 之中 役以 從事 官赴 及兵 敗欲 自裁 為虜 所拘 繫

改王 被知 遇起 還至 叅判 有文集 行世 朝聞 錄傳 約

于家 藏申 之悌 公柳 成龍 睿稱 其芬 一人 物登 萬曆 已

丑文科 除禮 安值 壬辰 亂召 集精 銳屠 戮賊 路出 入

臺閣 盡忠 敢言 歷典 州郡 皆有 治績 父喪 泣血 廬墓



兼備世以公輔期之忤時相官止教使 <b>申圭</b> 以文章	寢卽不赴登戊子文科器量宏深才德 <b>申圭</b> 達道子	負戊寅文科官至郡守 <b>李廷機</b> 民宍子仁廟乙	詞精到中文科仁廟庚午生 <b>李廷機</b> 民宍子仁廟乙	德碑弘望繼貳是府邑民又錫清 <b>李廷相</b> 民宍子天	思碑弘望繼貳是府邑民又錫清 <b>李廷相</b> 民宍子天	文科歷敷臺省秉直不抗父之樽嘗通判全州有去 <b>申弘望</b> 人文行超世遊飛顯光	門深見獎許中天啓進士薦授康陵參奉登巳卯 <b>申弘望</b> 人文行超世遊飛顯光	茅一議也官至掌令 <b>申弘望</b> 人文行超世遊飛顯光	金世瀛云此山城後 <b>申弘望</b> 人文行超世遊飛顯光	寅春以多亂與邦燕昭越旬賊之事倦陳疏判書 <b>申悅道</b> 號懶齋	不渝丙子扈駕南漢以死自誓及出城卽還鄉里戊 <b>申悅道</b> 號懶齋	天啓甲子文科志行端潔為世師表立朝行巳始從 <b>申悅道</b> 號懶齋	早從張顯光遊深得為巳之學中萬曆丙午進士登 <b>申悅道</b> 號懶齋	世稱三學士官至修撰尹煌共介和議 <b>申悅道</b> 號懶齋	事敢言丁卯與趙綱尹煌共介和議 <b>申悅道</b> 號懶齋	政亂不赴舉癸亥改玉首擢廷試出八臺省遇 <b>申悅道</b> 號懶齋	張顯光門深得為學之方中萬曆庚戌生負值光海 <b>申悅道</b> 號懶齋	而卒有文集行世享歲待院柯 <b>申達道</b> 悟徒遊越穆	癸亥及正拜同副承旨未赴 <b>申達道</b> 悟徒遊越穆
-------------------------------------	-------------------------------------	-----------------------------------	-------------------------------------	-------------------------------------	-------------------------------------	---	--	-------------------------------------	-------------------------------------	--	---	---	---	--------------------------------------	-------------------------------------	---	---	-------------------------------------	------------------------------------

為泊 圖如 書也 一自 部說 劉亦 家樂 禮齋 賦取 節窮 晚亦 遊樂 文之 康義 公也 張研 顯願 光易 門理 講著	春後 秋九 曉歲 大遊 義文 壬忠 癸公 干柳 戈成 中龍 文門 忠文 大忠 禰補 祭以 禮檀 家成 素童 貪漬	在授 又郵 獻官 義丙 糧子 不亂 就瀝 任汝 優誓 遊眾 山水 以夜 終赴 行	萬丁 曆卯 丙亂 午斜 進義 士棟 文聚 康軍 公餉 張赴 顯光 丞補 許之 文辭 該特	山與 城兄 積士 薪亨 成徒 誓郭 其再 為祐 倡義 同八 火旺 申 適道 孝子 元	斜女 率來 義乞 棟則 赴必 全衣 內冠 翰跪 坡而 其賑 忠之 義去 辰倭 變 全 士 貞 士 倭 辰	及逸 胎士 清光 粹粹 之曾 說孫 好早 施遊 與文 恤純 餽公 餓孝 遠滉 近門 望講 風質 填陰 街陽 若五 婦行	高宣 士廟 高癸 應酉 陟生 號負 之壯 曰元 自無 牧進 堂就 蓋意 取德 居丘 園 全 士 元	佐即 金金 潔生 改負 名登 淮任 光子 粹文 後科 中萬 曆官 癸至 卯正 卯即 李 山 岳 判佐 書後 世中	名二 父籓 達中 道仁 兄廟 監戊 在子 俱生 以負 文學 登 孝 廟 辛 卯 文 科 官 至
--	--	---	--	--	---	--	--	---	---

贊太極圖家禮其  
志道精思如此  
**申在** 修撰達道子幼有至行受業

溫雅莊重識博詞達太學士趙復陽蔡裕後諸人爭  
推以文苑巨手中天啓庚午生負丙戌 朝廷命薦

逸士首登選 **申** 中生負登文科官至縣 金尚璣 逸  
官止縣監 監清白為一代藉稱

光粹後性至孝母遺痛方劇嘗奠以試指血以  
進毋病仍籍丙子以後謝場屋不復有進就意 南夢

齋 中崇積壬午生負登 孝廟辛卯 任世憲 性恬潔  
文科官至教授使文章為世所稱

苟文詞該洽持論果毅見者感噴噴曰太儒氣脉有  
自來即文康公張顯光外曾孫登 肅廟戊午文科

官止任世章 文康公張顯光外曾孫五歲能屬文鷄  
典藉 鳴盟中終日對案沉潛性理書 朝廷

薦宿儒首登刻日無進就意揭朱子所書忠孝堂三  
字以自省晚八災庄修鄉約災氓化之知有禮讓之

風 金聖佐 友兄 肅廟癸卯文科官至府使性孝  
馬 肅廟癸卯文科官至府使性孝 **申瀛**

修撰達道曾孫中 肅廟己卯生負十三歲大賊入  
室冒白刃謝父母身被數瘡父病有飛鴉墮藥用以

<p><b>閔世貞</b>  <small>性賢端方孝友夫至以彥陽縣監登中廟        已卯賢良科官正威鏡都事自青松贊居住</small></p>	<p><small>以清白著稱使孫萬雄</small>  <small>登武科官正縣監氣宇魁寓居</small></p>	<p><small>自持官至牧使</small>  <b>朴以樟</b>  <small>武科累典雄府皆有治績</small></p>	<p><b>勇簡</b>  <small>武科官至水使春文</small>  <b>朴已百</b>  <small>萬曆庚寅登武科        文忠公柳成龍薦</small></p>	<p><small>人科錄五子</small>  <small>世祖朝靖難原徒勲官至判官有子八</small>  <b>蔣慶</b></p>	<p><small>陝水漿不八口非展墓不出</small>  <small>如</small>  <b>朴冲武</b>  <small>宜德已酉登武</small></p>	<p><small>雲起東擁覆</small>  <b>金履矩</b>  <small>逸士光粹後文辭蔚然十舉        次人皆異之</small></p>	<p><small>唱中</small>  <small>天朝路阻王河館虛之歌輒泣下人插棠楨義        甫廟甲午生負年三十六而歿歿之日一帶</small></p>	<p><b>李秀墀</b>  <small>牧使廷機之孫十歲遭父喪執喪如禮事母        盡孝文章寺健草隸蒼古俱成一家性慷慨</small></p>	<p><small>即效人以為孝威操履篤確鄉黨敬服至此之黃叔        度徐孺子戊申逆亂倡義兵道臣啓聞贈持平</small></p>
---	--	---	--	--	--	--	--	--	--

年 丙戌 肅廟 權好仁 早喪 父奉母 盡誠 年七十 親自佃

人 唯雉 而歸 朴胤胄 牧使 已百子 孝誠 純至 遭喪 居申

休錫 孝于 元祿 後天 性孝友 父病 三年 不脫衣 帶躬

未 喪泣 血三 年 吳哲祖 父面 不服 父喪 為終 身痛 未嘗

對 丙戌 死 歲重 四祀 括如 初禮 三年 不懈 父林基善 一十

歲 見其 父為 怒牛 所觸 驚愕 奔救 之兩 手執 牛角 牛

之 金允山 甫十 歲借 其父 適于 野虎 咬其 父允 山將

烈女 金召史 丁大 年妻 早喪 夫守 喪三 年 朴氏 鄭太 乙

辰 倭變 率二 女避 山中 猝遇 賊欲 汚之 朴氏 以死 申

氏 義士 金致 中妻 壬辰 之亂 致中 倡義 殉 權氏 金致 剛妻

壬辰倭變倅遇賊權氏知不免自投巖下折齒破面而復生萬曆四十年事 聞旌閭 **金氏** 野  
 居妻及奠厲野居暴得疾歸而死其父憐其早寡將改嫁金即與二婢竊父馬逃歸夫家父知之自追之已往夫家矣舉家號哭其父亦相持痛 **李氏** 孝子朴胤哭遂使成朕全氏仍守節以終其身 **李氏** 曹妻有婦德夫死水漿不入口朝夕奠禮必躬行 **禹召史** 名求晝夜守殯哭不絕聲元七朔而竟不起 **金德立** 妻德立死於賊欲自裁為家人所持得不死服闋不脫衰每朔望輒號哭如如有強暴者欲奪志女聞之若喜曰夫死雖未得今之欲奸我者是耶即訴于官自是人無敢奸者嘗一長刀復吏不離身閱其父老病歸養值舅姑及其夫生忌俗節備祭需躬奠不遠百里也有李英發者素強悍欲劫之女抽刀自刺絕而復甦 **申氏** 李鏞妻幼有志行既嫁夫發畏其義遂止之 **申氏** 有病彌留家甚窶調病之具無不畢給及喪殯殮一以禮既 **金氏** 申維岳妻既卒哭遂自盡于殯廳鄉黨義之 **金氏** 嫁喪其父衰毀踰制養舅姑得婦道凡裁舅姑衣服小姑欲分其苦 **金氏** 泣曰吾不欲久於世事舅姑幾時只欲於末

전고문헌(典故文獻)



표제/저자사항典故文獻 1-2/ 金亨在 編著 / 김형재

발행사항[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73

형태사항 JPG9 卷2 冊; 22.9 x 16.0 cm

주기사항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974185

분류기호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2103

주제명 : 전고문헌

상관: 연대표,

1 권: 고조선부터 조선 말까지의 정치, 문화, 학제, 유교, 불교, 풍속, 역대내란, 관제고, 도군연혁, 중국인물고,

2 권: 씨족 인물고, 수십여 성씨를 시조부터 소개.

相

申翼相

【申 湛】叔舟從后孫，號漁城，文禮祭，壬亂糾義旅二千餘人，遮截敵路○後孫光洙(見下)  
【申 湜】叔舟后，號用拙齋，早遊退溪門，見識精明，以孝旌聞，宣祖朝，文知事，入書社，著家禮  
諺解，弟涌，號霞隱，文監司，宣祖壬辰，為義兵將，有所著儀禮，考覽，弟準，號鍾山，官  
史察，以孝命旌，並享清州鳳溪院○子得淵，號玄圃，文都丞旨，寒岡門人  
【申 迺】號退修齋，文丞旨，素有學識，尤精於禮學，著儀禮類說  
用漣后字叔弼，號醒齋，顯宗壬寅文科，肅宗甲戌，以工判，拜右相諡貞簡○子漣，號三  
畏堂，蔭牧使○曾孫漢，號惟庵，蔭府使  
【申光洙】湛后，字聖淵，號石北，筆畫飛動，以文鳴一時，英祖朝，登耆老科，官至教寧都正，著浮  
海錄，弟光河，號震澤，承旨

申景濬

末舟后，字舜民，號旅庵，博學強記，汎濫九流二教，至於天官職方，聲律醫卜，無不究其  
奧，英祖朝，文察知，嘗奉命，監修輿地勝覽，文獻備考，八道地圖，又有所著素砂問答  
要書，置景志，山水徑道略考，日本證讀，諺書音解等書

申氏

【巨濟屬縣】【申祐】號退齋，麗末官至按廉使，以李太祖龍潛故人，徵拜刑判，不就，享  
尚州鄉祠

申達道

【申元祿】號晦堂，南冥門人，以孝旌聞，官止教授，贈茶議，享鄉祠  
【申之悌】祐后，號梧齋，文承旨，享義城藏待院○子弘望，號孤松，文司藝  
【申之益】之悌從弟，字順舉，號養一堂，有學行，享清州鄉祠  
元祿孫，字亨甫，號晚悟，張旅軒門人，仁祖朝，文魁，官至修撰，錄寧社原從勳，贈都承  
旨，弟悅道，號懶齋，旅軒門人，文掌令，著仙槎志，聞韶志

相

權仲和

【權 定】字安之，號恩復齋，麗末登第，累官至左司諫，李朝初，屢徵大諫大憲，竟不就  
文節

權溥

【權 豐】幸后，號成齋，文翰林○子坦，號夢庵，文贊成，諡文清  
坦子，字齊萬，號菊齋，安晦軒門人，忠烈王朝登第，累官至領都僉議司事，封永嘉府院  
君，賜輔理功臣號，諡文正，五子四婿，皆封君，嘗註銀臺集二十卷(詳見儒淵)○子準，號  
松齋，贊成事，封吉昌府院君，諡昌和，梟侍中，封永嘉君，諡忠靖○後孫常，號南岡學孝  
行，向中樞，享清州鳳溪院

權氏

【權漢功】幸后，號一齋，官至都僉議政丞，醴泉府院君，諡文坦○子仲和(見下)  
【權王煦】果弟，初名載，年十六，忠宣王，取以為子，因冒姓王，官至政丞，鶴林府院大君，諡正獻  
配恭愍王廟，弟謙，與奇嶽謀亂伏誅○孫肅，恭安府尹，復姓權氏○玄孫恭，太宗騎馬，花  
川君，諡襄孝○節(見下)○后孫德興，文副學，疏救栗谷  
漢功子，字容夫，號東臬，麗末贊成事，朝鮮太宗丁亥，大拜至領相，封醴泉伯，入書社，諡  
文節

申氏

【申 楮】號河陰，鄭愚伏門人，仁祖丁卯，募兵從軍，丙子為義兵將，錄寧社原從勳  
【申維翰】號青泉，文奉常僉正，嘗從信使，入日本，著海遊錄  
始祖權幸，本新羅宗，姓金氏，為古昌郡別將，聞甄壹弒羅王，謀于衆曰，義不共戴天，孟歸  
王公，以雪耻，遂降于高麗太祖，麗王以為能，炳幾達權，因賜姓權氏，以郡為食邑，封三韓  
壁上功臣，三重大臣，太師亞父(古昌今安東)○後孫戶長權冕，為一派，直長權明利，又為  
一派

權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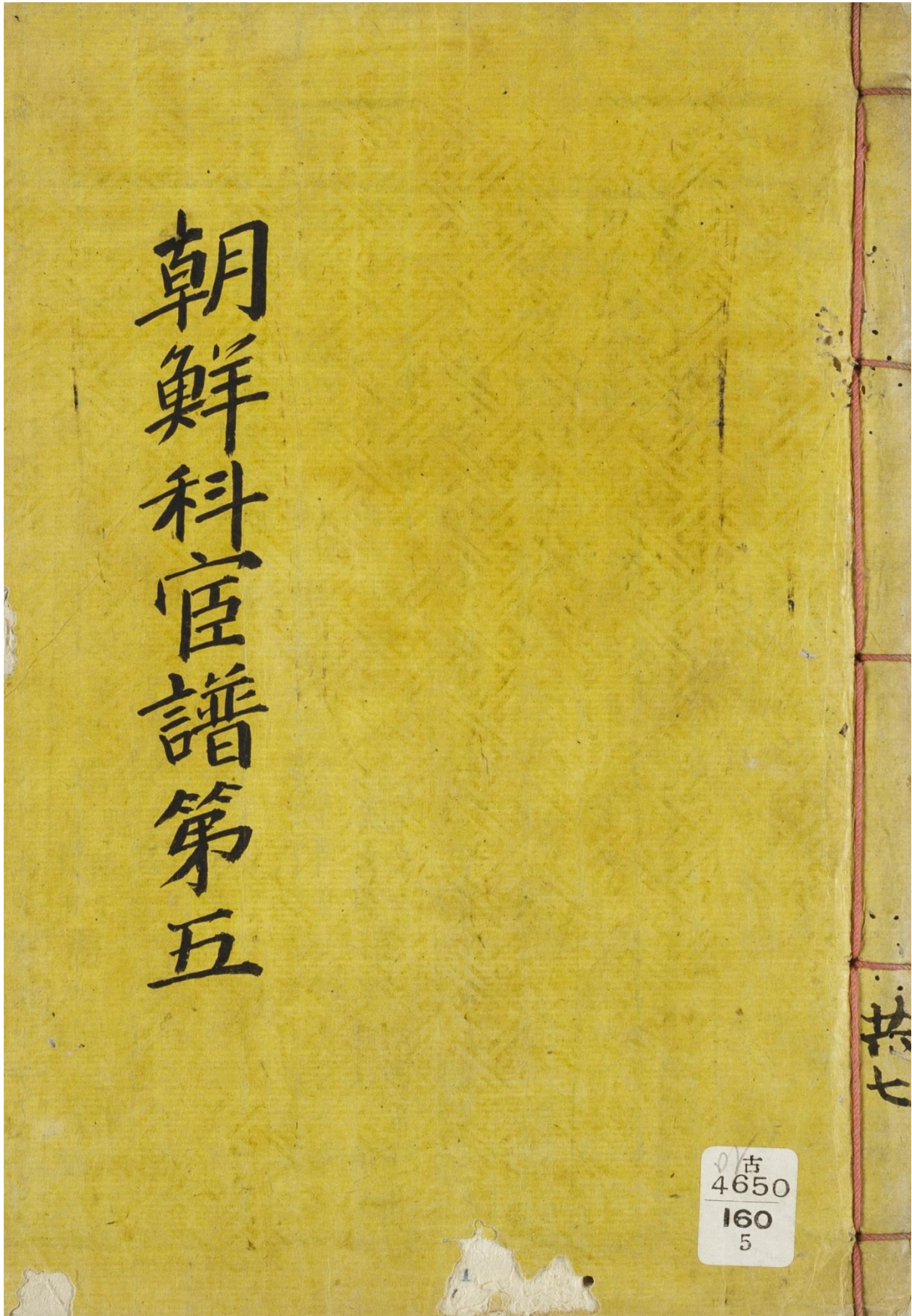
典故文獻卷之九

氏族人物考

三十八



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



## 서지사항

원서명	朝鮮科宦譜	현대어서명	조선과환보
청구기호	古 4650-160-v.1-7	편저자(한자)	徐丙贊(朝鮮) 等編
편저자(한글)	서병찬(조선) 등편	판본사항	完營印書體字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18]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7 卷 7 冊
판심	上下內向黑魚尾	책크기	32×20.5cm
서,발,권수,권말	序:著雍敦牂[戊午(1918)]...徐丙贊		
사부분류	史部 政法類 教育·選舉 選舉		
M/F 번호	M/F68-9-28-E, M/F85-16-147-A-O		
광곽	四周單邊, 半葉匡郭:24.8×16.7cm, 10 行 24 字 注雙行		

## 정의

남주원이 조선시대 문과·무과·음사 출신자들을 성씨별로 분류하여 1914년에 편찬한 유사(類書).

## 내 용

편찬자는 남주원(南滄元)이며, 편찬 시기는 1914년이다. 모두 8책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은 박영효(朴泳孝)가 썼다.

그 서문에 “우리나라에는 문음·무삼보(三譜)가 있었다. 이는 관직의 계급과 씨족의 동이(同異)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명현(名賢)을 존상(尊尙)하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문과와 무과가 폐지되고 음로(陰路)만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관안(官案)을 만드는 자도 없으니 하물며 보에 있어서랴. 남주원씨는 이것을 염려해 위로 선계(璿系)의 봉작(封爵)으로부터 아래로는 사서인의 관직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삼보의 명현을 뽑고 근대의 인물까지 수록해 비록 희성 벽관과 미관말직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책이름은 비록 조선과환보라 했으나 그 넓은 범위는 바로 만성보(萬姓譜)에 해당하고 세계(世系)의 자세함은 한 가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기록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각기 성씨에 따라 본관별로 과환을 수록하였다. 별책의 한 책은 역대 국계(國系)와 관제(官制)를 수록하였다. 성씨 배열에 있어서는 서문에서 “옛날의 박, 석, 김 3성과 이, 김, 최, 안, 정, 박의 6성은 역대 이래로 지금까지 전해 오며 세상에 이름이 나 있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김, 최, 안, 정, 박 등 대성(大姓)의 순서로 하였다.

문과를 제외한 일부는 각 가문이 수보한 단자(單子)에 의거해 기록해서 혹 누락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인 자료는 관찬 사료를 위주로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례를 보면, 문과는 내각의 등본에 따르고 각 가문의 단자를 준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무과편은 등단(登壇)과 훈공이 있는 사람만을 상세히 기록했고 나머지는 간략히 하였다. 음사편은 음식만을 수록하지 않고 삼반(三班)의 관직을 합록했는데 이는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관직의 기록은 판서를 판, 참판을 참, 참의를 의, 정랑을 정, 좌랑을 좌, 동지중추를 동추, 사복시정을 복정이라 하는 등 약칭하였다. 각 성씨의 세계는 혹 조상이 중복되거나 형제의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는 등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성이 같으나 본관이 다르면 가문의 성쇠를 따지지 않고 각기 뒤에 실었으며, 선행에 관한 기록은 주기(註記)하였다.

1918년 가을에 徐丙贊이 편찬한 조선시대 각 家門別 관직기록이다.

편저자 서병찬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서문에 '通政大夫秘書監丞奎章閣原任直閣 大邱 徐丙贊'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말에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짐작된다.

편찬자가 직접 적은 서문에 官職의 制度를 밝히고, 民族을 보호하는 方策으로 본서를 편찬한다는 편찬동기와 간략한 用例를 밝히고 있다.

더우기 단군조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유구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分官의 制度和 牧民의 治를 중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용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단군조선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간략하게 적고, 조선은 璿系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官職의 位置·品階·次第·類編를 적고, 文武科·蔭仕科·守官供職人의 實을 순서대로 적는다고 밝혔다.

또한 資·贈職·勳封·父子兄弟叔姪關係·忠孝奸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國史兼家史로서 기능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권 1에 '歷代國系', '朝鮮國璿系', '官制'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歷代國系'는 古朝鮮의 檀君에서부터 고려의 恭讓王代까지 王名·宗系·在位期間 등을 적은 것으로, 고조선을 檀君·扶婁王의 시기와 箕子에서 哀王(準王)까지의 시기로 구분하고, 衛滿朝鮮을 辰韓·弁韓의 다음에 서술하였다.

新羅·高句麗·百濟·駕洛國을 자세히 서술하고,  
 耽羅國·彌鄒忽國·沸流國·東沃沮國·北沃沮國·東夫餘國·樂浪國·大伽倻國·古小伽倻國·古寧伽倻國·碧珥伽倻國·阿那伽倻國·悉眞國·于山國·黃龍國·召文國·沙伐國·昌寧國·荇人國·貊國·濊國·鮮卑國·伊西小國·甘文小國·音沘伐小國 등 삼국시대 이전의 25 개국을 서술하였다.

이들 소국은 일부 北夫餘와 女眞族에 속하는 것은 있지만 자세히 詳考할 수 없다는 설명을 첨부하였다.

泰封國•後百濟國•高麗 등의 순서로 서술하였으며, 罽線위에 해당 시기별 중국의 국가명을 첨부하였다.

‘朝鮮國璿系’는 신라시대 李翰에서부터 純宗代까지의 號•宗系•재위기간•사망나이 등을 적은 것으로, 아들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딸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역대국계’에서와 마찬가지로 罽線위에 해당 시기별 중국의 국가명을 첨부하였다.

예를 들면 ‘嗣孝宗大王 序二’라는 글의 과선위에 ‘甲申淸立’이라고 적은 것이다.

‘官制’는 六典體制로 구성하되, 吏典과 禮典만을 수록하였다.

吏典항목에 大殿宮內命婦•世子宮內命婦•外命婦•東班官階(세부적으로 각 品階를 적고, 京官職을 耆老所•正一品衙門에서 從六品衙門까지•各殿•各陵•各園•各墓로 구분하고, 外官職을 各道別로 구분하여 담당업무와 관직의 額數•變動事項•變動時期 등을 적었다)•西班官階(세부적으로 각 品階를 적고, 京官職으로 正一品衙門에서 從六品衙門까지•守門將•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摠戎廳•經理廳•扈衛廳•龍虎營•捕盜廳•摠理營•守禦廳•管理營•鎭撫營 등을, 散職으로 별근직청•내사복시•儀仗庫•四山參軍 등을, 外官職을 各道別로 구분하여 官職의 額數와 해당업무를 간략하게 적었다) 등의 세부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禮典항목에 科規•生徒•璽寶•朝儀 등의 세부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卷1은 전체적으로 과환보에 필요한 내용만을 法典에서 참조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권2에서 권7까지는 각 姓氏를 本貫別로 구분하고, 다시 文科篇•武科篇•蔭仕篇으로 구분하여 해당 인물을 적었다.

개별 본관을 적고, 文科篇는 相臣•正卿•湖堂•將臣•文衡 등으로, 武科篇는 殉節•將臣 등으로, 蔭仕篇은 相臣•駙馬•國舅•遺逸•經學薦•殉節 등으로 세분하여 인원수를 적었다.

卷2는 全州 李氏(문과 827명, 무과 35명)•延安 李氏(문과 236명, 무과 11명)•慶州 李氏(문과 156명, 무과 15명)•廣州 李氏(문과 174명, 무과 9명)•韓山 李氏(문과 191명, 무과 6명)•德水 李氏(문과 102명, 무과 55명)•全義 李氏(문과 169명, 무과 26명)•驪州 李氏(문과 108명) 등 91개 본관을 적었다.

‘未詳姓貫’에서는 태조대의 李仲明•李陽生•李公義 등 李氏이지만, 本貫을 파악할 수 없는 인물 90명을 수록하였다.

卷3은 光山 金氏(문과 252 명, 무과 12 명)·安東 金氏(方慶派·宣平派·仲演派 등으로 세분하여 기록하였으며, 문과합계는 312 명, 무과는 합계 27 명)·慶州 金氏(문과 175 명, 무과 7 명)·金海 金氏(문과 100 명, 무과 63 명) 등 91 개 본관을 적었다.

'未詳姓貫'에는 태조대의 金縵·金再思 등 129 명을 수록하였다.

卷4는 潘南 朴氏(문과 195 명)·密陽 朴氏(문과 226 명, 무과 38 명)·咸陽 朴氏(문과 66 명, 무과 3 명) 등 朴氏 35 개 본관('未詳姓貫'에는 태조대의 朴澡 등 39 명), 東萊 鄭氏(문과 202 명, 무과 20 명)·迎日 鄭氏(문과 115 명, 무과 17 명) 등 정씨 21 개 본관('未考姓貫'에 23 명), 豐壤 趙氏(문과 184 명, 무과 10 명)·楊州 趙氏(문과 95 명) 등 조씨 21 개 본관('未考姓貫'에 19 명) 등이 적혀 있다.

卷5는 坡平 尹氏(문과 322 명, 무과 16 명)·海平 尹氏(문과 120 명, 무과 14 명) 등 尹氏 16 개 본관('未考姓貫'에 9 명), 南陽 洪氏(문과 311 명, 무과 1 명)·豐山 洪氏(문과 129 명, 무과 4 명) 등 홍씨 9 개 본관('未考姓貫'에 4 명), 平山 申氏(문과 181 명, 무과 23 명)·高靈 申氏(문과 75 명, 무과 4 명) 등 신씨 6 개 본관('未考姓貫'에 8 명), 大邱 徐氏(문과 138 명, 무과 12 명) 등 서씨 8 개 본관('未考姓貫'에 8 명), 安東 權氏(문과 349 명) 등 권씨 3 개 본관('未考姓貫'에 1 명), 驪興 閔氏(문과 231 명, 무과 8 명), 淸州 韓氏(문과 267 명, 무과 13 명) 등 한씨 11 개 본관('未考姓貫'에 12 명), 靑松 沈氏(문과 195 명, 무과 4 명) 등 심씨 5 개 본관('未考姓貫'에 2 명) 등이 적혀 있다.

卷6은 文化 柳氏(문과 127 명)·晉州 柳氏(문과 128 명, 무과 28 명) 등 유씨 9 개 본관('未考姓貫'에 6 명), 全州 崔氏(문과 100 명, 무과 9 명)·慶州 崔氏(문과 42 명, 무과 16 명) 등 최씨 28 개 본관('未考姓貫'에 29 명), 杞溪 兪氏(문과 89 명) 등 유씨 7 개 본관('未考姓貫'에 4 명), 礪山 宋氏(문과 112 명, 무과 14 명) 등 송씨 14 개 본관('未考姓貫'에 8 명), 順興 安氏(문과 140 명) 등 안씨 7 개 본관('未考姓貫'에 10 명), 海州 吳氏(문과 88 명) 등 오씨 16 개 본관('未考姓貫'에 13 명), 昌寧 成氏(문과 124 명), 晉州 姜氏(문과 221 명), 宜寧 南氏(문과 140 명, 무과 17 명) 등 남씨 3 개 본관('未考姓貫'에 2 명), 豐川 任氏(문과 146 명, 무과 3 명) 등 임씨 2 개 본관('未考姓貫'에 4 명), 陽川 許氏(문과 87 명, 무과 4 명) 등 허씨 4 개 본관('未考姓貫'에 3 명), 長水 黃氏(문과 46 명, 무과 12 명) 등 황씨 11 개 본관('未考姓貫'에 5 명) 등이 적혀 있다.

卷7은 仁同 張氏(문과 89 명, 무과 16 명) 등 장씨 19 개 본관('未考姓貫'에 7 명), 幸州 奇氏(문과 24 명, 무과 8 명), 原州 元氏(문과 63 명, 무과 5 명), 居昌 愼氏(문과 34 명), 咸從 魚氏(문과 24 명), 寧越 嚴氏(문과 31 명), 濟州 高氏(문과 33 명) 등 고씨 7 개 본관, 南原 梁氏(문과 51 명, 무과 2 명) 등 양씨 5 개 본관, 晉州 河氏(문과 38 명), 昌寧 曹氏(문과 110 명, 무과 8 명) 등 조씨 4 개 본관, 平康 蔡氏(문과 39 명) 등 채씨 2 개 본관, 羅州 丁氏(문과 50 명) 등 정씨 3 개 본관, 羅州 林氏(문과 49 명, 무과 4 명) 등 임씨 19 개 본관('未考姓貫'에 4 명), 綾城 具氏(문과 51 명, 무과 24 명), 水原 白氏(문과 45 명, 무과 20 명) 등 백씨 6 개 본관('未考姓貫'에 2 명), 泗川 睦氏(문과 31 명), 光山 盧氏(문과 24 명, 무과 4 명) 등 노씨 14 개 본관('未考姓貫'에 6 명), 靈山 辛氏(문과 38 명) 등 신씨 2 개 본관, 南平 文氏(문과 57 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수록된 인물은 蔭仕·文科·武科 순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有模

贈嘉善 碩后

廣求

武同樞 有模子

○應模

壽副護軍 碩后

翰求

壽適故 應模子

德鄰

見 上 汕遠

判官壬辰功 臣德鄰后

國柱

副護軍 汕遠玄孫

彌權

贈叅議 國柱子

景祿

贈承 省彌

權吉模

贈叅判 景祿子

錫求

月汀五衛 將吉模子

聖休

湖隱叅奉 錫求子

○瑀求

同樞 汕遠后

守桁

尙宗

贈戶叅 子紅后

麗休

贈承 尙宗子

文雨

愼默五衛 將麗休子

甲植

嘉善 文雨子

○子

橋

見文 橋侄

德杓

嘉善 子橋后

行權

叅議 德杓子

益祿

嘉善 行權子

智模

石坡嘉善 益模子

智模

致 子

○翰

叅議 成用后

俊克

萬戶 翰孫

相奎

司果 俊克后

錫雨

進士 相奎從弟

文科七十五

相臣四 湖堂四

正卿五 清白吏二

文衡三

蔭仕

駙馬二 遺逸二

殉節一

○鵝州申氏文科篇

之係

承旨

達道

掌令

悅道

掌令 達道弟

弘望

掌令 之係子

瑠

察訪

奎

佐郎 達道子

正

縣監

冕周

校理 達道后

조선명가색인(朝鮮名家索引)



서지사항

자료명	조선명가색인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朝鮮名家索引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청구기호	K2-460	MF 번호	MF35-1078~107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一般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정의

1927년 李王職實錄編纂會에서 편찬한 일종의 인명사전.

서지사항

1927년 李王職實錄編纂會에서 4 책으로 엮은 필사본이다. 이왕직용 편찬용지에 작성되었다.

이왕직은 1910년 국권의 상실과 함께 대한제국의 황실이 이왕가로 격하되면서,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한 기구로서, 이왕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朝鮮總督府가 아닌 일본의 宮內省에 소속된 기구로서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았다. 庶務係, 會計係, 掌侍係, 掌祝係, 掌苑係 등으로 부서를 나누었으며, 최고 책임자인 長官 아래에 次官 1명, 事務官 36명, 贊侍 12명, 典祀 8명, 典醫 6명, 技師 3명 등의 관원을 두었다. 이왕직은 이왕가에 관련된 문서 업무를 관장하여, 1926년 純宗이 사망한 이듬해에 高宗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李王職實錄編纂會를 설치했다.

최고 담당자로 위원장을 두고, 그 아래 부위원장이 있었으며, 사료 수집부, 편수부, 감수부로 부서를 나누었다. 사료수집부는 편찬에 필요한 문서의 수집, 史蹟 조사 및 관계자로부터의 사실 청취 등의 일을 맡았다. 편수부는 수집된 사료에 기초하여 실록을 편찬하는 일을 맡았다.

감수부는 편집된 원고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章句를 정리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간행할 때 교정 하는 일을 맡았다. 각 부에는 위원, 보조위원, 서기를 두었다. 그리고 위원장 직할로 서무위원, 회계 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서기가 담당하였다. 실록 편찬에 활용한 사료는 『承政院日記』가 주된 것이었고, 『日省錄』, 『稽制司日記』, 各司謄錄, 일기, 啓錄, 存案類, 문집류와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 및 사료 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 등이었다. 이 책은 이 때 수집한 문집류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 성씨별 인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체제 및 내용



제 1 책에는 앞부분에 「例言五則」, 「引用書目」이 있고, 이어 宣祖·明宗·肅宗·英祖·正祖 등 국왕과 왕실의 인척에 대한 사항을 먼저 기재했다.

이어서 李氏, 제 2 책에는 金, 朴, 鄭, 제 3 책에는 趙, 洪, 尹, 權, 宋, 崔, 申, 柳, 南, 姜, 吳, 閔, 韓, 제 4 책에는 黃, 沈, 安, 俞, 成, 任, 許, 徐, 曹, 張, 林, 盧, 郭, 河, 元, 羅, 文, 蔡, 丁, 梁, 全, 孫, 辛, 具, 白, 裴, 高, 禹, 慎, 奇, 呂, 孟, 琴, 楊, 周, 卞, 蘇, 康, 睦, 魚, 邊, 劉, 魏, 玄, 房, 朱, 池, 吉, 車, 孔, 田, 馬, 奉, 都, 陳, 表, 潘, 延, 秦, 魯, 咸, 方, 嚴, 慶, 芮, 諸, 玉, 廉, 蔣, 牟, 施, 殷, 管, 庾, 余, 南宮, 鮮于, 楚, 夏, 宣, 皇甫, 溫, 釋 등 100 개 姓氏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수록 양식은 각 성씨별로 수록 대상 인물의 別號, 人名, 字, 출처가 되는 도서명과 卷數, 쪽수, 저자명 등을 도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새로운 성씨가 시작되는 부분의 여백에 해당 성씨를 써놓아 찾기 쉽게 하였다.

「例言五則」은 李王職實錄編纂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 책의 편찬 동기와 편찬 원칙을 밝히고 있다. 편찬 목적을 조선시대 인물의 墓誌, 墓表, 諡狀, 行狀, 傳記 등을 찾아보기 쉽게 하는 것에 두었다. 그리하여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도록 人名 외에 別號와 字를 아울러 기재하였다. 또한 개별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도서의 명칭과 권수, 쪽수를 밝혔다. 한 인물에 대해 여러 책에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모두 수록하였고, 같은 책에 여러 번 기록이 나올 경우에도 역시 해당되는 권수와 쪽수를 모두 수록하였다. 「引用書目」에는 고려 말의 학자 李穡의 『牧隱集』, 吉再의 『治隱集』을 비롯하여 『愚伏集』, 『月沙集』 등 약 550 종의 문집류가 수록되었는데, 郭鍾錫의 『俛宇先生文集』, 李承熙의 『大溪集』과 같이 한 말 유학자의 문집까지 포함되었다.

「例言五則」에서는 이 책에 인용된 도서는 왕실의 藏書閣, 각종 공사립 도서관 및 민간 소장 도서까지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행되지 않은 도서까지 포함하였고, 앞으로도 인용서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도서가 발견되면 보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조선시대의 인물뿐만 아니라 太祖 李成桂의 아버지 李子春, 고려 말기의 문신 李仁復 등 고려 말기의 인물까지 포함되었다.

## 자료적 특성 및 가치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에는 우리 나라 姓氏를 정리한 책들이 많이 간행되었다. 예를 들면 『朝鮮人物號譜』, 『萬姓大同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대개 우리 나라 성씨에 대해 본관별로 중요한 인물을 골라 그들의 인척사항, 즉 字, 號, 주요 행적, 관직, 生沒年, 배향 사실, 諡號 등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편집되었다. 이것은 각 성씨들을 파악하여 식민통치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萬姓大同譜』는 77 개의 성씨를 기재하여 당시 우리 나라 성씨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를 조사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朝鮮名家索引』은 牟施殷管庾 등과 같은 희귀한 姓氏까지 망라하여 『萬姓大同譜』보다도 더 많은 100 개 성씨의 인물에 대해 문집에 수록된 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조선시대 이래 중요하게 여겨 인척사항을 언급할 때는 꼭 거론되던 본관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이다. 또한 이 책에

## 조선명가색인(朝鮮名家索引)

수록된 인명은 대단히 많은 수로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수집된 문집류에 나온 인물은 모두 망라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 소장 현황 및 영인관계

장서각에 마이크로 필름(MF35-1078~79)으로 소장되어 있다.

申

申		墓誌	行狀	圖書	高名及了數	著書名	
申	池梁				栗谷全集 一七、二五	李珣	
申	煦	字伯溫	口		一八、三四	日	
申	夢	命和	字孝欽	口	一八、三六	日	
申	本	柱	字子直	日	六、二〇	牙根壽	
申	演	字仲浩	總伏集	一八、一八		鄭經世	
申	維竹堂	祐	字	口	一八、二四	日	
申	弘	緒	字叔伯	象村集	二四、一六	申欽	
申	承	緒	字仲述	口	二六、三〇		
申	宗讓			口	二七、六	日	
— 李 王 職 —							
申	章	鏡	字大同	象村集	二八、一八	申欽	
申	村	欽	字叔叙	日	陽錄	一 一 張 延 英 撰	
申	村	口		日	月沙集 四四、九	李廷寬	
申	駱	壽	光漢	字漢之	口	四六、三	日
申	仁	鏗	字明遠	尤菴集	二〇、一六	宋時烈	
申	二知堂	泓	字浩仲	口		二八、四	日
申	藻	梁	字翊陸	字君弼	口	三二、三九	日
申	百	源	碩	字仲衍	日	一三四、一	日
申	舟	村	曼	字曼倩	日	一三七、一七	日

申

暎	東江	湖隱	湖隱	醒齋	白厚	暎退軒	細菴	春沼		心痴	春沼	醒齋	
申應璽	申湖全	申澆	申澆	申翼相	申碩蕃	申應璽	申琬	申最	申咳	申儀華	申最	申翼相	申華國
字子方	字汝萬	字澆之	字澆之	字叔弼	字仲衍	字子方	字公獻	字季良	字仲遠	字瑞明	字季良	字叔弼	字德夫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七五	七二	四四	四四	四二	三八	三七	一三	二九	二二	二二	二二	一〇	一八
三	一	三	三	九	七	九	一	九	三	一	九	三	九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金錫胃	曰	金錫胃	朴世堂	宋時烈

申

鷓洲	獨村	孤松	風洲	象峰	申錫	申命	申魯	申錫	汾崖	寒竹	場齋	申景	申砥	申大	申點	申汝	申鉉	申球	申吉	申錫	申錫	
	申怒	申春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字叔放	字春翁	字天發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字錫
	四八三三	四八二〇	一三三〇	二〇三七	四四一〇	四四二〇	四四一〇	四三二五	四一〇一	四〇二四	三九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申怒	申春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申錫
	四八三三	四八二〇	一三三〇	二〇三七	四四一〇	四四二〇	四四一〇	四三二五	四一〇一	四〇二四	三九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二八一七

申

申汝挺 字雪柏 屏溪集 五二二 才鳳九	申應顯 字同甫 夢梧集 六八 全鍾秀	申應 字明仲 醒庵集 八二 吳載純	申景濬 字舜民 耳溪集 三八 洪良浩	申奎 字文甫 三〇一九 日	申琬 字公猷 世濟集 一七 宋煥箕	申 字明世 二一一二 日	申光翁 字東吉 二一三八 日	申漢柱 字維重 二四三五 日	李王職	申光健 字子伯 性濟集 二六二 宋煥箕	申 字明順 二六三七 日	申忠諱 字 楓岑集 一一一 全祖淳	申靖夏 字正甫 日 一一二二 日	申韶 字成甫 江溪集 一七三 黃景源	申禮 字文志 南齋集 二三五 趙秉惠	申昇 字 允峰集 九一二 肉鼎重	申撥 字齊伯 清陰集 三一六 全尚憲	申應架 字子方 日 三三三一 日	申題 字貞瑞 日 三五二九 日
------------------------------	-----------------------------	----------------------------	-----------------------------	------------------------	----------------------------	-----------------------	-------------------------	-------------------------	-----	------------------------------	-----------------------	----------------------------	------------------------------	-----------------------------	-----------------------------	---------------------------	-----------------------------	------------------------------	-----------------------------

申

申 暉齋 甲 暉相字叔樞 藻錄集 一六一 南九萬	申 煥 甲 煥字叔甫 日 二二六 日	申 濬 甲 濬字士濯 鼓山集 一六一六 任憲晦	申 義朝 甲 義朝字君敬 日 一三一 日	申 思逢 甲 思逢字亨仲 日 一六三 日	申 善周 甲 善周字德輔 日 一六三 日	申 濟樸 甲 濟樸字士樸 日 一七三 日	申 世祿 甲 世祿字極中 日 續三三三 日	李 王 職	申 戒權 甲 戒權字敦慶 鼓山集續 一三〇 任憲晦	申 政望 甲 政望字伯陶 谷集 九一 李宣顯	申 思永 甲 思永字子久 日 一五三七 日	申 疎半 甲 疎半 日 一八二〇 日	申 鉉 甲 鉉字夢仲 日 一九一六 日	申 景瓊 甲 景瓊字叔獻 魏家集 一六一六 李 東	申 愈 甲 愈字伯謙 日 一六二五 日	申 詹 甲 詹字 蔡亭集 七六四 申厚載	申 恒耆 甲 恒耆字 日 七七二 日	申 景稷 甲 景稷字季明 國叢集 二〇三八 尹鳳朝
--------------------------	--------------------	-------------------------	----------------------	----------------------	----------------------	----------------------	-----------------------	-------	---------------------------	------------------------	-----------------------	--------------------	---------------------	---------------------------	---------------------	----------------------	--------------------	---------------------------

申

和菴	和菴	東江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竹里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甲淸夏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字正甫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一五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申

<p>申 友 甲 字 養叔 日 四七、三三 日</p>	<p>申 河陰 甲 字 涉 日 四六、一 日</p>	<p>申 嶼 甲 字 道 日 四四、一 日</p>	<p>申 以餘居士 甲 字 峴 日 四二、一四 日</p>	<p>申 靈川 甲 字 潛 日 三八、八 日</p>	<p>申 霞隱 甲 字 涌 日 三一、三〇 日</p>	<p>申 澹人 甲 字 佐 日 三三、三五 日</p>	<p>申 雲溪 甲 字 孟 日 三二、三三 日</p>	<p>申 舟村 甲 字 曼 日 三九、一〇 日</p>	<p>申 張廣 甲 字 逝 日 一七、三二 日</p>	<p>申 汝藏 甲 字 錫 日 五二、四 日</p>	<p>申 潼泉 甲 字 致 日 五二、〇 日</p>	<p>申 元菴 甲 字 昉 日 一六、一六 日</p>	<p>申 和菴 甲 字 聖 日 一六、四 日</p>	<p>申 就南堂 甲 字 坡 日 一八、九 日</p>	<p>申 妻 寫 甲 字 鍊 日 一七、一六 日</p>
-----------------------------	----------------------------	---------------------------	-------------------------------	----------------------------	-----------------------------	-----------------------------	-----------------------------	-----------------------------	-----------------------------	----------------------------	----------------------------	-----------------------------	----------------------------	-----------------------------	------------------------------

鵝洲 鵝洲

申

隱坡	甲 延 字廷瑞 文叢集 一六八 鄭 浩
隱坡	甲 命 鼎 字伯凝 日 三一 日
春新齋	甲 命 仁 字在吾 臥齋集 八二七 宋 稱 圭
瞻	甲 時 字明益 日 八三 日
湖隱	甲 先 集 字士協 日 二、三三 日
養齋	甲 磻 字仲峻 大叢集 一六三九 鄭 浩
六友堂	甲 景 進 字子漸 日 一七、七 日
隱坡	甲 嶺 字伯欽 日 一八、二九 日
東全堂	甲 命 鼎 字伯凝 芝村集 二五三 李 喜 朝
春涇	甲 翊 聖 字君頤 春涇集 七、六 甲 最
心齋	甲 最 字季良 日 所錄 七、五 李 錫 曾
一衛	甲 照 字直瑞 化堂集 四、三四 甲 欽 一
一衛	甲 詔 字成文 鹿門集 三、二六 任 聖 周
一衛	甲 思 遠 字靜止 東溪集 四、二 李 英 輔
一衛	甲 禮 男 字文吉 泉齋集 八、一 申 弼 欽
一衛	甲 必 濟 字聖河 日 八、四 日
一衛	甲 致 秘 字番明 日 八、八 日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鵝洲		
竹軒	自足齋	岫亭	岫亭	甲祐	甲完	甲道九	甲道三	竹屋	李	王	職	敬松	以餘	克齋	不	雲南	純山	泉齋
甲漢	甲必清	甲體仁	甲體仁	甲祐	甲完	甲道九	甲道三	甲宸龜	甲乾	甲龜	甲龜	甲道萬	甲鼎沃	甲益	甲忠	甲相	甲光	甲樹
字聖紀	字清之	字仁	字仁	字純	字純	字九	字三	字文	字國	字龜	字龜	字大	字說	字悅	字永	字相	字光	字樹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曰
三二日	五	三八	三三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漢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錫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星湖集



申

酒隱	申宗岳	字仰之	海左集	三〇二	丁範祖
雪松	申厚命	字天休	日	三五、一五	日
碩窩	申必渚	字渚之	日	三五、三七	日
知足堂	申汝哲	字孝明	日	三五、四〇	日
	申景裕	字寬見	日	七、二二	日
	申旦	字先瑞	宛丘遺集	五、三	申大羽
	申孝誠	字子誠	南冥集	五、五	曹植
何溪 陸直亭	申公濟	字希仁	宦齋集	三、二一	鄭希良
	申汝達	字通伯	題齋集	二、六	申玳
	申總	字師百	李		王職
題齋	申球	字若美	題齋集	二、九	申玳
	申命康	字夢池	日	防錄 一、七 一、五	申萬夏
百源	申碩善	字仲衍	錦谷集	一、六、二、七	宋未熙

十四 八大名家索引

# 조선잠영부록명현성보(朝鮮簪纓附錄名賢姓譜)



## 서지사항

자료유형	고서(한국본)
서명책임사항	朝鮮簪纓附錄名賢姓譜. 全 2 卷 2 冊/ [編著未詳]
판사항	木活字本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 [刊年未詳]
형태사항	上下卷 2 冊: 四周單邊, 半郭 26.3 × 17.1cm, 10 行 26 字, 上下三混入紋魚尾; 32.9 × 20.6cm
청구기호	B10B 226
내용주기	冊 1 : 卷上, 李氏 - 兪氏 .- 冊 2 : 卷下, 沈氏 - 夏侯氏
키워드	명현잠영보, 잠영보간소창수록

禮參用灑三樂堂灑子文光漢駱叔舟孫公濟伊溪末舟翼相醒子

又左相灑竹堂末舟光河震澤光洙禹相順翁光洙痛霞隱孝子

得淵玄圃滉子太休進齋未舟附三綱附三綱

叔舟子又北伯湛漁磯後文蔡汝樑鳳軒碩后汝極池

從弟壬辰倡汝楨梧軒汝樑弟主湜拙齋叔舟后汝極池

謀公濟曾孫弘求橋后

鵝州申氏 之梯梧峰 寧海申氏正寺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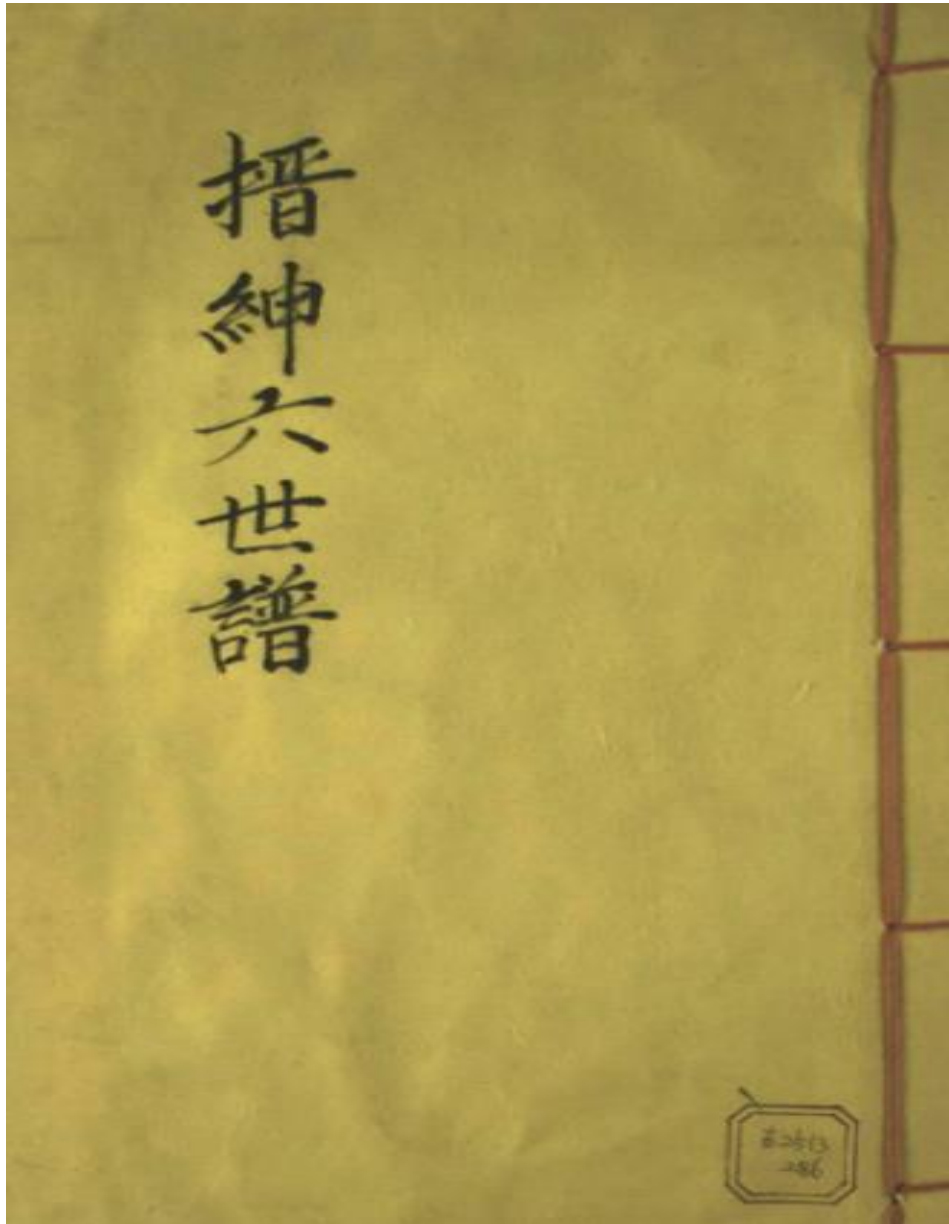
○南陽洪氏

茂績白石逸彦忠節直弼梅山近齋門人吉旼開國

陽府院君資憲想佐命勳南陽君達孫純孝唐城君應

申氏洪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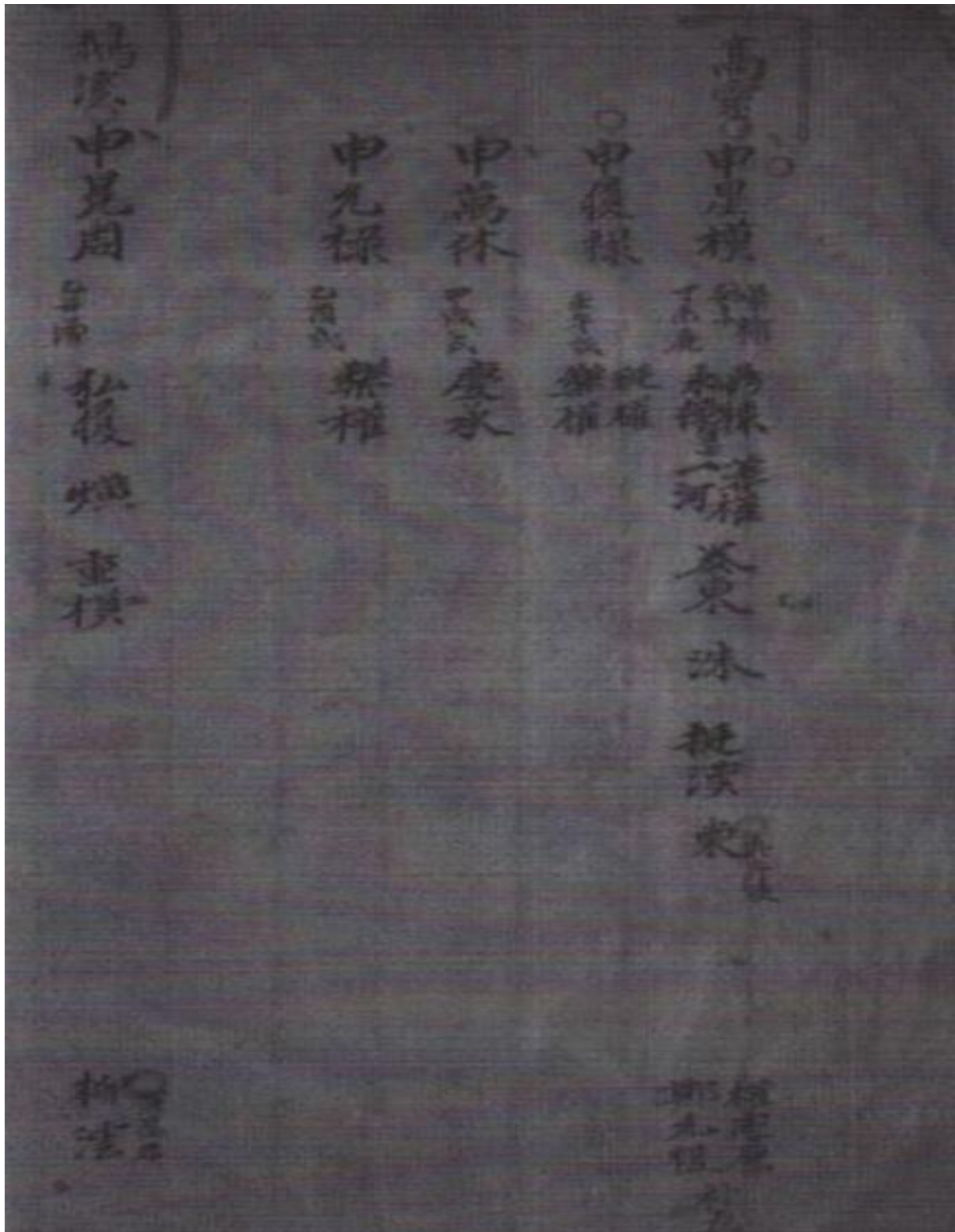
## 진신육세보(摺紳六世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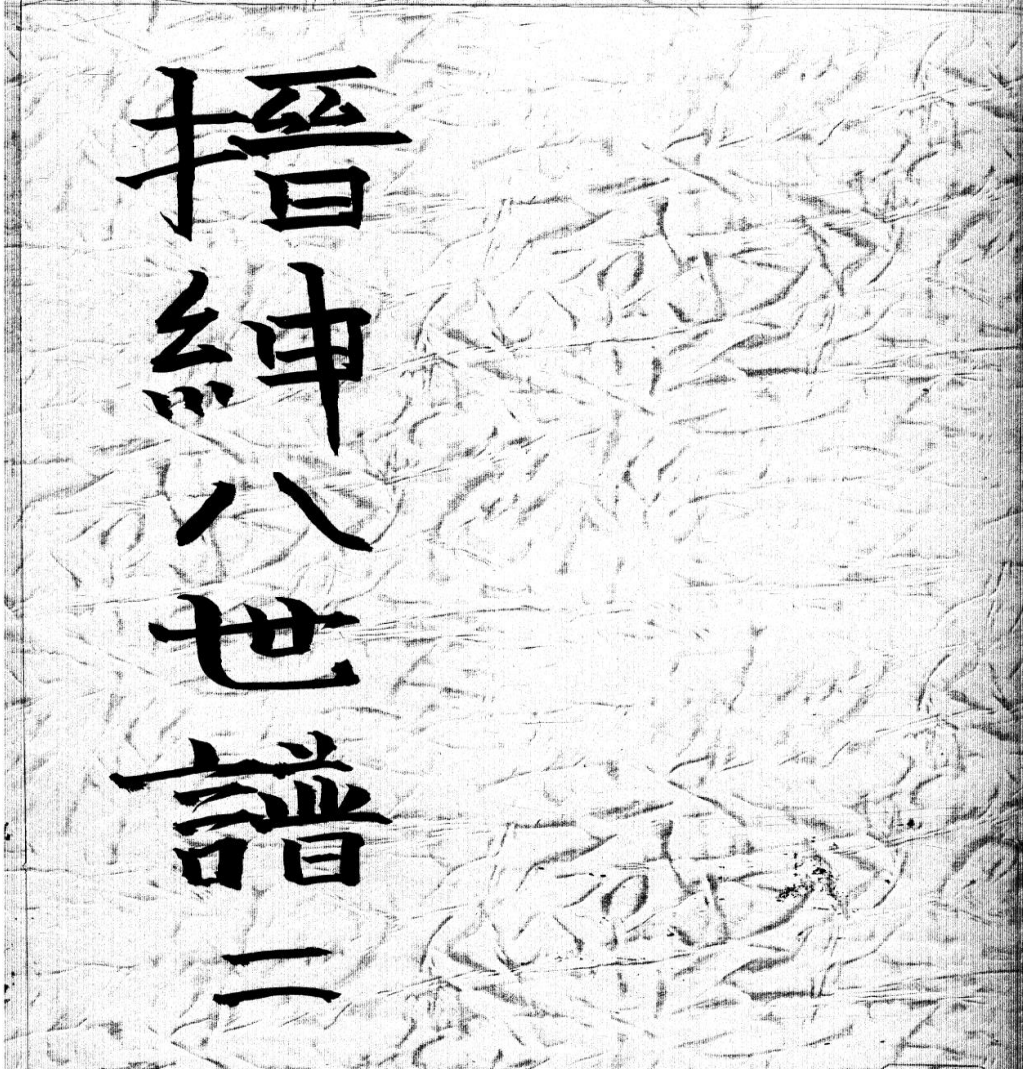
###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摺紳六世譜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
형태사항	JPG 不分卷 1 冊(48 張); 35.4 x 20.8 cm
주기사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968965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2513
주제명	진신보 육세보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 진신파세보(縉紳八世譜)



### 서지사항

표제/저자사항	縉紳八世譜. 上, 下 /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
형태사항	TIFF2 卷 2 冊; 35.8 x 22.9 cm
주기사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980243
분류기호	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 古朝 58
주제명	진신파세보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鵝洲申氏 申冕璜推明必教 光憲 正標 瀨 應錫 坂 悅道 仁 柳敬源 曹錫敬 城義	
						丁酉庭甲庚 瀨 夏錫 在 <small>卷</small> 道 <small>文修接</small> 人 人	

<p>申佐模 友憲 祿持 權再 清瀛 彌 漢 枕<small>守瀛 遼沈馬首 遼沈馬首 遼沈馬首</small> 景汶<small>遼沈馬首 遼沈馬首</small> 沈甲<small>遼沈馬首 遼沈馬首</small> 權在 厚 金宗厚 權恭 允</p>	<p>申直模 雙 晟 祿萬 權環 澤命 涉漢 櫓演 汝 樑 弘海 朴 震煥 宋 啓 銓 熙</p> <p>原 夫 早</p>	<p>中國休 歲 命 求 益 模 亨 祿 萬 權 見 直 模 沈 儀 錫 者 杞</p> <p>祭 求 武 發 商 求</p>	<p>申 輟 求 翳 鼎 模 若 樞 淳 一 權 聖 河 一 河 瀦 漢 益 濟 澳 得 沛 權 世 德 李 東 運 濟</p> <p>重 慶 增 早</p> <p>文 會</p> <p>明 河 洙 洙 挺 漢 棧 景 汶 景 汶</p>	<p>申 永 權 已 酉 式</p>	<p>申 統 休 慶 求 彥 模 斗 祿 哲 權 光 河 洙 見 輟 求 安 廷 鉉 尹 情 文</p> <p>庭 已 酉 定 辛 卯</p>	<p>高 靈 申 氏</p>
--	--	---	---	--------------------	---	----------------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정의

1454년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에 부록으로 수록된 지리서.

### 개설

조선시대에는 실록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용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독립된 『세종실록지리지』 8권 8책이 편찬되었다. 1937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교정세종실록지리지』를 발간하면서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72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지리지가 포함된 『세종장헌대왕실록』의 한글 번역본이 나왔고, 2011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국역본, 한자 원문, 원본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 편찬/발간 경위

조선시대 전국 지리지의 편찬은 1424년(세종 6) 11월 세종이 변계량(卞季良)에게 지지의 편찬을 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425년에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가 먼저 편찬되었으며 이어 나머지 도의 지리지가 순차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를 재편집하여 1432년(세종 14)에 전국 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로 완성되었다.

1450년(세종 32) 세종이 승하한 후 1452년(문종 2)에 『세종장헌대왕실록』 163권을 편찬할 때 세종의 업적이 많아 오례의(五禮儀) 8권, 악보(樂譜) 12권, 칠정산(七政算) 8권과 함께 지리지(地理志) 8권이 수록되었다. 기본적인 내용은 『신찬팔도지리지』를 기초로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던 1419년(세종 1)에서 1432년(세종 14)까지의 사실 변화를 첨가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변화 상황은 특별히 세종 말년까지 반영하여 제148권에서 제155권까지 수록하였다.

### 내용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당시 수도였던 경도 한성부(漢城府)와 준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던 구도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를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이어 경기도(41)·충청도(55)·경상도(66)·전라도(56)·황해도(24)·강원도(24)·평안도(47)·함길도(21) 등의 334개 고을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고을에는 일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관의 등급과 인원, 연혁, 고을의 별호, 속현과 그 연혁, 진산과 명산대천, 고을 사방 경계까지의 거리, 호구(속현도 따로 기재)와 군정의 수, 성씨(속현도 따로 기재), 토질과 전결(田結), 토의(土宜), 토공(土貢), 약재, 토산, 누대, 역, 봉수, 산성, 제언(堤堰), 사찰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1481년(성종 12)에 1차로 완성되고 여러 차례 증보하여 1530년(중종 25)에 최종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공물·조세·군역 등 국가가 징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총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 항목이 중앙에 보관되어 있던 공안(貢案)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용한 반면에 『세종실록지리지』의 통계 대부분이 전국의 모든 고을에 일정한 규칙을 내려 조사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어 당시의 인문지리적 내용과 실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경상도지리지』의 총론 부분에는 경상도 전체에서 기록해야 할 것에 대한 규칙이, 경주부 앞쪽 부분에는 각 고을에서 기록해야 할 것에 대한 규칙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다만 『경상도지리지』에 수록된 것과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자의 것에 있으면서 후자의 것에 없는 것도 있고, 수록 방식이 다른 것도 있어 중앙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 하에 재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의와 평가

『세종실록지리지』는 고을별로 일정한 항목에 따라 편찬된 전국 지리지라는 점에서 고려보다 훨씬 강한 중앙집권국가를 지향한 조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고을의 세세한 내용까지 수록된 전국 지리지의 궁극적인 편찬 목적은 전국 모든 고을의 조세 수취, 군역 징발 등의 제반 사항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고을의 통치는 해당 고을의 지배세력에 맡기면서 중앙에 바치는 조세와 군역 등의 총량만 파악하는 형태라면 고을의 세세한 내용까지 중앙에서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찬팔도지리지』에 기초하면서 일부 지역의 변화 상황을 교정·첨가하여 수록한 『세종실록지리지』의 존재는 지방관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려 했던 조선 초기의 지방행정의 방향성과 전국적인 규모의 인문지리 정보를 잘 보여주는 자료 중의 하나로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거제현

◎ 거제현(巨濟縣)

본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신라 문무왕이 처음으로 상군(裳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거제군(巨濟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현종 무오년에 현령관(縣令官)을 두었는데, 원종(元宗) 12년 신미에 【원나라 지원(至元) 8년이다.】 왜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고 거창(居昌)가조현(加祚縣)에 교거(僑居)하였다. 본조 태종 갑오년에 거창(居昌)에 합하여 이름을 제창현(濟昌縣)으로 하였다가, 을미년에 다시 쪼개어 거창현(居昌縣)을 만들고, 금상(今上) 4년 임인에 다시 구도(舊島)로 돌아가게 하여, 4품 이상을 지현사(知縣事)로 충당하였다. 아주현(鵝洲縣)은 본디 거로현(巨老縣)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고 송변현(松邊縣)은 경덕왕이 남수(南垂)로 이름을 고쳐서, 모두 거제군(巨濟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고려에서 남수(南垂)를 고쳐서 구명(舊名)대로 하여, 그대로 <거제군>의 임내(任內)로 삼았는데, 두 현의 인물(人物)이 모두 없어져서 지금 직촌(直村)을 삼았다.

진산(鎭山)은 국사 당산(國師堂山)이다. 【현 동쪽에 있다. 수군 처치사(水軍處置使)가 제사 지낸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옥포(玉浦)에 이르기 25리, 서쪽으로 견내량(見乃梁)에 이르기 31리, 남쪽으로 곡곶이[谷串]에 이르기 35리, 북쪽으로 영등포(永登浦)에 이르기 45리이다.

호수는 1백 53호, 인구가 4백 23명이며, 군정(軍丁)은 현 수호군(縣守護軍)이 1백 3명이다.

본현(本縣)의 토성(土姓)이 4이니, 정(鄭)·반(潘)·박(朴)·윤(尹)이요, 내성(來姓)이 1이니, 나(羅)이며, 속성(續姓)이 2이니, 신(辛) 【영산(靈山)에서 왔다.】 ·이(李)이다. 【고성(固城)에서 왔다. 모두 향리가 되었다.】 촌락성(村落姓)이 2이니, 박(朴)·백(白)이요, 백성(百姓)의 성이 2이니, 손(孫)·조(曹)이며, 아주(鵝洲)의 성이 4이니, 신(申)·문(文)·갈(葛)·조(曹)이요, 송변(松邊)의 성이 2이니, 박(朴)·손(孫)이다.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7백 9결이다. 【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는 벼·조·콩·메밀이요, 토공(土貢)은 대구어·문어·생포(生鮑)·미역·우무[牛毛]·표고버섯·세모(細毛)이다. 염소(鹽所)가 4이니, 둘은 모두 현 동쪽에 있고, 하나는 현 서쪽에 있으며, 하나는 현 남쪽에 있다.

읍 석성(邑石城) 【둘레가 3백 21보이다.】 역(驛)이 1이니, 오양(烏壤)이다. 오아포(烏兒浦)는 현 남쪽 29리에 있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수어한다.】 영등포(永

登浦)는 현 동쪽 45리에 있으며, 【수군 만호가 수어한다.】 옥포(玉浦)는 현 동쪽 25리에 있다. 【가배량 도만호(加背梁都萬戶)와 견내량 만호(見乃梁萬戶)가 수어한다.】 봉화(烽火)가 1곳이니, 가라산(加羅山)이 현 남쪽 바닷가에 있다. 【서쪽으로 고성(固城) 미륵산(彌勒山)에 응한다.】

◎ 巨濟縣: 本海中島, 新羅 文武王初置裳郡, 景德王改爲巨濟郡。 高麗 顯宗戊午, 置縣令官, 元宗十二年辛未, 【元 至元八年。】 因倭失土, 僑寓居昌之加祚縣。 本朝太宗甲午, 合于居昌, 號濟昌縣, 乙未, 復析爲居昌縣。 今上四年壬寅, 復還舊島, 以四品以上, 充知縣事。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今名; 松邊縣, 景德王改名南垂, 皆爲巨濟郡領縣。 高麗改南垂復舊名, 仍爲任內。 二縣人物皆亡, 今爲直村。 鎮山, 國師堂山。 【在縣東, 水軍處置使致祭。】 四境, 東距玉浦二十五里, 西距見乃梁三十一里, 南距谷串三十五里, 北距永登浦四十五里。 戶一百五十三, 口四百二十三。 軍丁, 縣守護軍一百三。 本縣土姓四, 鄭、潘、朴、尹; 來姓一, 羅; 續姓二, 辛 【靈山來。】 李; 【固城來, 皆爲鄉吏。】 村落姓二, 朴、白; 百姓姓二, 孫、曹。 鵝洲姓四, 申、文、葛、曹。 松邊姓二, 朴、孫。 厥土肥, 風氣暖, 墾田七百九結。 【水田差多。】 土宜, 稻、粟、菽、蕎麥。 土貢, 大口魚、文魚、生鮑、藿、牛毛、蕈膏、細毛。 鹽所四, 二皆在縣東, 一在縣西, 一在縣南。 邑石城。 【周回三百二十一步。】 驛一, 烏壤。 烏兒浦在縣南二十九里, 【水軍都按撫處置使守禦】 永登浦在縣東四十五里, 【水軍萬戶守禦】 玉浦在縣東二十五里。 【加背梁都萬戶, 與見乃梁萬戶守禦。】 烽火一處, 加羅山在縣南海邊。 【西準固城彌勒山。】



皮狐皮狸皮獐皮山獺皮藥材麥門冬防風土產礫磻產縣南住岳串臨海岩石煮取品好鹽所二皆在

縣北邑石城周四二百八十五步內有井四驛三松道背屯春原加背梁在縣南十七里水軍都萬戶守禦今移泊

巨濟 唐浦在縣南四十七里樊溪萬戶兵船移泊於此樊溪本在縣西三十三里蛇梁在縣南水路七十里仇良梁萬

戶兵船移泊於此仇良梁本在晉州任內角山鄉烽火五處彌勒山在縣南東准巨濟加羅山北准牛山牛山西准佐耳

天王站東准海佐耳山西准晉州角山鄉主山觀音站祠在縣西春秋守令奉朝旨望祭上樸島下樸

島樸秩島之神樸島在縣南水路四十里仇良梁營田船軍未往農作

巨濟縣本海中島新羅文武王初置蒙郡景德王改為巨濟郡高麗顯宗戊午置縣令官元宗十二年辛未元至元八年自倭失土僑寓居昌之加祚縣本朝 太宗甲午合于居

昌號濟昌縣乙未復析為居昌縣今 上四年壬寅復還舊島以四品以上充知縣

事鵝洲縣本巨老縣景德王改今名松邊縣景德王改名南垂皆為巨濟郡領縣高

麗改南垂復舊名仍為任內二縣人物皆亡今為直村鎮山國師堂山在縣東水軍處置使致祭四

境東距玉浦二十五里西距見乃梁三十一里南距谷串三十五里北距永登浦四十

五里戶一百五十三口四百二十三軍丁縣守護軍一百三本縣土姓四鄭潘朴尹末姓

一羅續姓二辛靈山李固城未皆為鄉吏村落姓二朴白百姓姓二孫曹鵝洲姓四申文葛曹

世宗實錄卷一百五十一

松邊姓二朴孫厥土肥風氣暖墾田七百九結水田 差多土宜稻粟菽蕎麥土貢大口魚文

魚生鮑藿牛毛菓膏細毛鹽所四二皆在縣東一在縣西一在縣南邑石城周四三百二十一歩

驛一烏壤烏兒浦在縣南二十九里水軍都安撫 處置使守禦永登浦在縣東四十五里水軍三萬 戶守禦

玉浦在縣東二十五里加背梁都萬戶與 見乃梁萬戶守禦烽火一處加羅山在縣南海邊西准固城 彌勒山

泗川縣本史勿縣景德王改名泗水為固城郡領縣高麗初屬晉州任內顯宗辛亥

改為泗川明宗壬辰始置監務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例改為泗川縣監乙未

始置兵馬使兼判縣事今 上五年癸卯改稱兵馬僉節制使四品稱同 僉節制使卧龍山在縣

南四境東距固城十二里西距晉州八里南距晉州末文鄉十七里北距晉州十六里戶

三百七十口一千八百十七軍丁侍衛軍二十三營鎮軍十七船軍二百十八土姓四李黃

吳睦來姓一鄭晉州 未續姓二姜晉州 未金本未詳皆 為鄉吏厥土肥風氣暖墾田二千七七結水田

差多土宜稻黍粟麥土貢蜂蜜黃蠟菓膏石榴沙魚乾蛤魚膠芝草篠錫鹿皮獐皮狸皮

藥材鹿茸土產藿青角牛毛細毛海參生鮑洪魚文魚黃魚銀口魚大口魚鹽所二

皆在縣西城隍堂石城在縣南二里高險周回五百八十八歩 內有泉一池二有軍倉驛二灌粟新驛烽火

二處針枝在縣南南准晉州角山鄉主 山北准縣城隍堂城隍堂北准晉州 望津山越境處晉州已鄉末文角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아주(鵝州)는 경상남도(慶尙南道) 거제군(居濟郡)에 속했던 지명(地名)으로 본래 신라(新羅)의 거로현(居老縣 : 거로)인데 청주(靑州 : 진주)에 속하였고, 경덕왕(景德王) 때 아주(鵝州)로 고쳐서 거제에 속하였다.

영조(英祖) 때 편찬된 「문헌비고(文獻備考)」와 1924년에 발행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를 비롯한 아주신씨의 가첩(家牒)에는 고려 때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인 신영미(申英美)가 시조(始祖)로 기록되어 있다.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호장(戶長) 영미(英美)의 현손(玄孫) 우(祐 : 판도판서 윤유의 아들)가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과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를 역임했고, 효행(孝行)이 뛰어나 아버지가 죽자 여막(廬幕)에서 3년간 조석(朝夕)으로 호곡(號哭)하여 무덤 앞에 쌍죽(雙竹)이 돌아났다고 하며, 나라에서 정려(旌閭)가 내려지고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을 효자리(孝子里)로 불렀으며 효행을 돌에 새기고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기록하였다. 특히 그는 이성계(李成桂)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나 고려가 망하자 의성군 단밀면 망경산(義城郡 丹密面 望京山)으로 내려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옛 정을 생각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의 벼슬을 내려준 이성계의 부름에도 끝까지 불응했다. 한편 우(祐)의 7세손 원록(元祿 : 참봉 수의 아들)은 퇴계 이황(李滉)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배우고 교수(教授)를 지냈으며,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 소수서원)을 설립하자 찾아가 문하생(門下生)이 되고, 동료들과 장천(長川)에 서원을 세우고 김안국(金安國)을 제향(祭享), 장천서원(長川書院)이란 사액(賜額)을 받았다.

어릴 때 부터 효행(孝行)이 지극한 그는 아버지가 병이 들자 수백리를 걸어 팔공산(八公山)에 가서 약초를 구하여 8년간이나 밤낮으로 간병했고, 어머니가 죽자 눈비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3년동안 성묘(省墓)를 하여 효행으로 나라에서 효자문(孝子門)이 내려졌으며, 그가 손자 적도(適道 : 교수 흘의 아들), 달도(達道 : 지평을 지내고 척화를 주장함), 열도(悅道 : 울진현감과 능주목사를 지냄) 3형제가 모두 정묘호란(丁卯胡亂)에 공을 세워 가문을 더욱 빛냈다.

군기시정(軍器寺正) 광귀(光貴)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희신(希信)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단양군수(丹陽郡守)를, 차남 희충(希忠)은 하동현감(河東縣監)을 지내고, 막내 희경(希敬)은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올라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으며, 희신(希信)의 증손 개보(介甫 : 부사 용 시생의 아들)가 정략장군(定略將軍)으로 충무위 사직(忠武衛司直)을 역임했다.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그 밖의 인물로는 몽득(夢得)의 아들로 학명(學名)을 떨쳤던 지효(之孝)와 광해군(光海君) 때 창녕부사(昌寧府事)로 나가 도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안정시켰던 지제(之梯)의 형제가 유명했으며, 지제의 아들 홍망(弘望)은 인조(仁祖) 때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주서(注書)와 정언(正言)을 거쳐 사헌부(司憲府)에 재직중 도승지(都承旨) 이시모(李時模)의 탄핵으로 벽동(壁潼)에 유배되었다가 효종(孝宗) 때 지평과 풍기군수(豊基郡守)를 지내고 문집(文集)을 남겼다.

삼강록(三綱錄)에 행실이 기록된 지익(之益)의 손자 응태(應泰)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 「사서제요(四書提要)」와 「천명태주도(天命太柱圖)」 등의 저서(著書)를 남겨 아주신씨의 가통을 지켰다.

##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

申祐居廬

護軍申祐尙州人父版圖判書元儒卒祐居廬三年有二竹生于墳前人以爲孝感所致旋閭

신우거려

호군신우상주인부판도판서원유졸우거려삼년유이죽생우분전인이위효감소치정려

신우거려 - 신우가 여막에서 살다

호군 신우는 상주 사람이다. 아버지인 판도판서 원유가 돌아가매 신우가 삼 년을 시묘하였더니, 대나무 두 그루가 무덤 앞에 솟아났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 하였다. 정려를 받았다.

護軍申祐尚州人父版圖判書元儒卒祐居廬三年有二竹生于墳

前人以爲孝感所致 旋間

호군신우노상위사름이니아비판도판셔원위주거늘위삼년  
거려호터니두대무덤앞피나거늘사름이벼호요디호감의닐  
원배라호터라 정녀호시니라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정의

조선시대 문신 이성 등이 왕명을 받아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 편찬한 예서.

### 서지적 사항

18권 18책. 목판본.

### 편찬/발간 경위

원래 1615년에 그 편찬이 완성되었으나, 간행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 도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전라도 6책, 경상도 4책, 공홍도(公洪道 : 충청도) 4책, 황해도 3책, 평안도 1책씩 분담하여 1617년에 그 간행이 완성되었다.

### 내용

이 책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의 속편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정표(旌表)를 받은 충신·효자·열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상·중·하 3편으로 편찬된 <<신속삼강행실도 新續三綱行實圖>>를 토대로 하고, <<여지승람>> 등의 고전 및 각 지방의 보고자료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1,000여 사람의 간략한 전기(傳記)를 만든 뒤에 선대의 예에 따라서 각 한 사람마다 1장의 도화(圖畫)를 붙이고 한문 다음에 국문언해를 붙였다.

원집 17권과 속부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1~8은 효자, 권9는 충신, 권10~17은 열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속부는 <<삼강행실도>>·<<속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는 동방인 72인을 취사하여 부록으로 실고 있다.

이 책의 편찬은 특히 임진왜란을 통하여 체득한 귀중한 자아의식 및 도의정신의 토대 위에서 출발된 것으로 임진왜란 발발 이래의 효자·충신·열녀 등의 사실을 수록, 반포하여 민심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소재나 내용이 동국, 즉 우리 나라에 국한되면서 그 권질(卷帙)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계급과 성별의 차별 없이 천인계급의 인물

이라 하더라도 행실이 뛰어난 자는 모두 망라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 보이는 국어사적인 특징으로는 표기상 △자의 쓰임( , 아), 합용병서(合用並書)의 ㅁ계, ㅂ계, ㅅ계의 공존(○더, ○디다, 디나라, ○려, ○려, 리오고 등)과 ○(○)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각자병서(各自並書)의 표기는 ㅁ(ㅁ더), ㅂ(ㅂ, 以) 등이 있다.

음절말 의 표기가 보이며(○이, ○애, 무덤이○이다), '-다' 류의 경우 주로 ㅇ으로 표기되었다(○이다, 일워징이다, 가지링다).

음절말 ㅅ과 ㄷ의 표기가 매우 혼란되어 있으며, 어간말 자음의 중복 표기가 많이 나타난다(약글, 집비, 남마다, 눈나라도). 그리고 강세첨사(強勢添辭)의 경우 문헌의 특징에 따라 '-사'로 되어 있고(후에사, 말아사), '프서리, 손소'와 같은 용례도 보인다.

어두음절(語頭音節)에서 '의 동요도 보인다(훈덩이, 흘글). 16세기부터 나타나는 모음간의 유기음이나 경음으로는 '곶', '읍프되', '받○', '잇니', '잇' 등이 있으며, 어두경음화 현상의 용례는 '진고', '싸라', '어', '○고(洗)' 등이 있다.

'이'움라우트(Umlaut) 현상도 보이며(일즙 우디 아닐 제기 업더라), 자음동화작용도 간혹 표기상에 반영되어 있다(괄로, 官奴 ; ○명, 特命).

어두격음화현상의 예는 '칼', '흘', '코'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16세기에 나타난 것들이며, 어간내에서 보인 '치며', '속켜', '언턱' 등은 방언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방언 어휘로서는 '가차이', '게얼리', '아적에', '애래셔(下)', '크기(크게)', '초개집', '지애비', '외히려', '제혀(저히어)' 등이 있다.

그리고 사람 이름에 붙는 접미사 계열로 '-가히', '-개', '-동', '-동이', '-세', '-진', '-합' 등이 쓰였고, 남자이름에만 특히 '-쇠', '-산'을 썼고 여자이름에는 '-덕이', '-비', '-금', '-무', '-종' 등을 사용하였다.

희귀한 어휘로는 '구리틴대(倒之)', '맛갓나게(具甘旨)', '덥두드려(撲之)', '비접나고(避)', '초어올메(初昏)', '와이(酣)', '칼그치(劒痕)' 등이 있다.

이외에 문법적인 특징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휘도 상당수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근대국어연구에 매우 귀중한 문헌이며, 동시에 중세국어와의 교량적 구실을 하는 문헌이라고도 하겠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1959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하였고, 1978년에 대제각(大提閣)에서 이를 다시 영인하였다.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집 신우거려(申祐居廬)

#### 신우거려(申祐居廬)

護軍申祐尚州人父版圖判書元儒卒祐居廬三年有二竹生于墳前人以為孝感所致旋閭



호군 **신우**는 상주 사름이니 아버 판도판서 원위 죽거늘 위 삼년 거려허더니 두 대 무덤 앞피 나거늘 사름이 뼈 흐요되 호감의 날원 배라 허더라 정녀하시니라

#### **신우**거려 - **신우**가 여막에서 살다

호군 **신우**는 상주 사람이다. 아버지인 판도판서 원위가 돌아가매 **신우**가 삼년을 시묘하였더니, 대나무 두 그루가 무덤 앞에 솟아났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호성에 감동한 것이라 하였다. 정려를 받았다.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원록화상(元祿畫像)

#### 원록화상(元祿畫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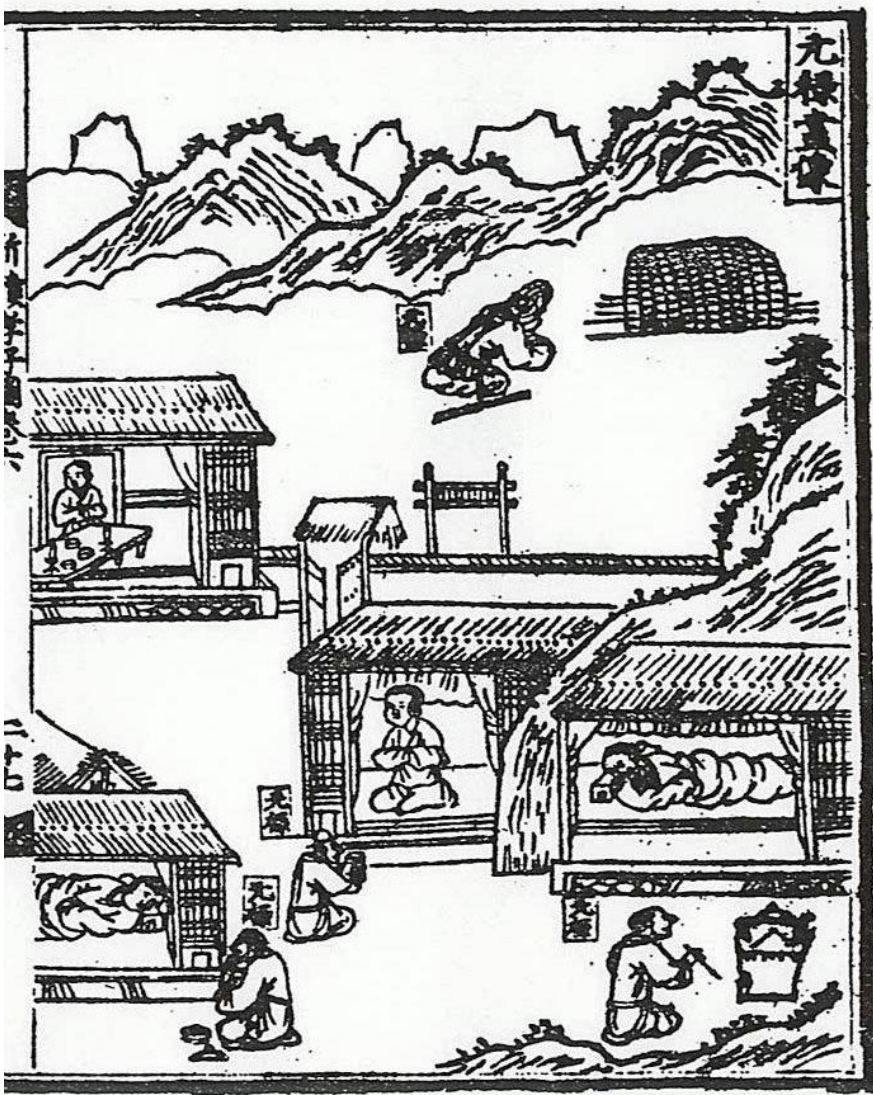
訓導申元祿義城縣人高麗孝子申佑之後也十歲父病手自湯藥衣不解帶至八年不怠遭憂廬墓養偏母四十年務悅其心作宴親曲八闋歌以壽之母病嘗糞及歿哀慟無節日三上墓畫像揭于几筵之上嘗曰我死後母遺像藏于棺裏我當奉侍于泉下其師周世鵬卒心喪三年 今上朝旋門

훈도 신원록은 의성현 사름이라 고려 **효조 신우의 흘조손이라** <sup>주001)</sup> 열 설에 아버 병들거늘 손소 스스로 약 달히며 온식 식 아니 그르기를 **여덟 히 지이 게을리 아니허더라** <sup>주002)</sup> 밑 주그매 분묘애 녀막 사니라 편모놀 봉양호물 마은 히늘 호되 힘써 그 막숨을 깃서케 하고 어버잇의 잔치 허는 곡도 여덟 몰놀 지어 놀내 불러써 현슈허더니 어미 병들

거늘 썩을 만보고 믿 주그매 슬허 울기를 무절히 흐고 날로 세 번 무덤의 오르고 상을 그려 제청 우회 걸고 일즉 그로되 내 주근 후의 어미 기탄 상을 관 안회 장후라 내 당당히 지하의 외셔시리라 그 스승 주세봉이 죽거늘 심상 삼년 후니라 금상도애 정문후시니라

원록화상 - 신원록이 어머니 얼굴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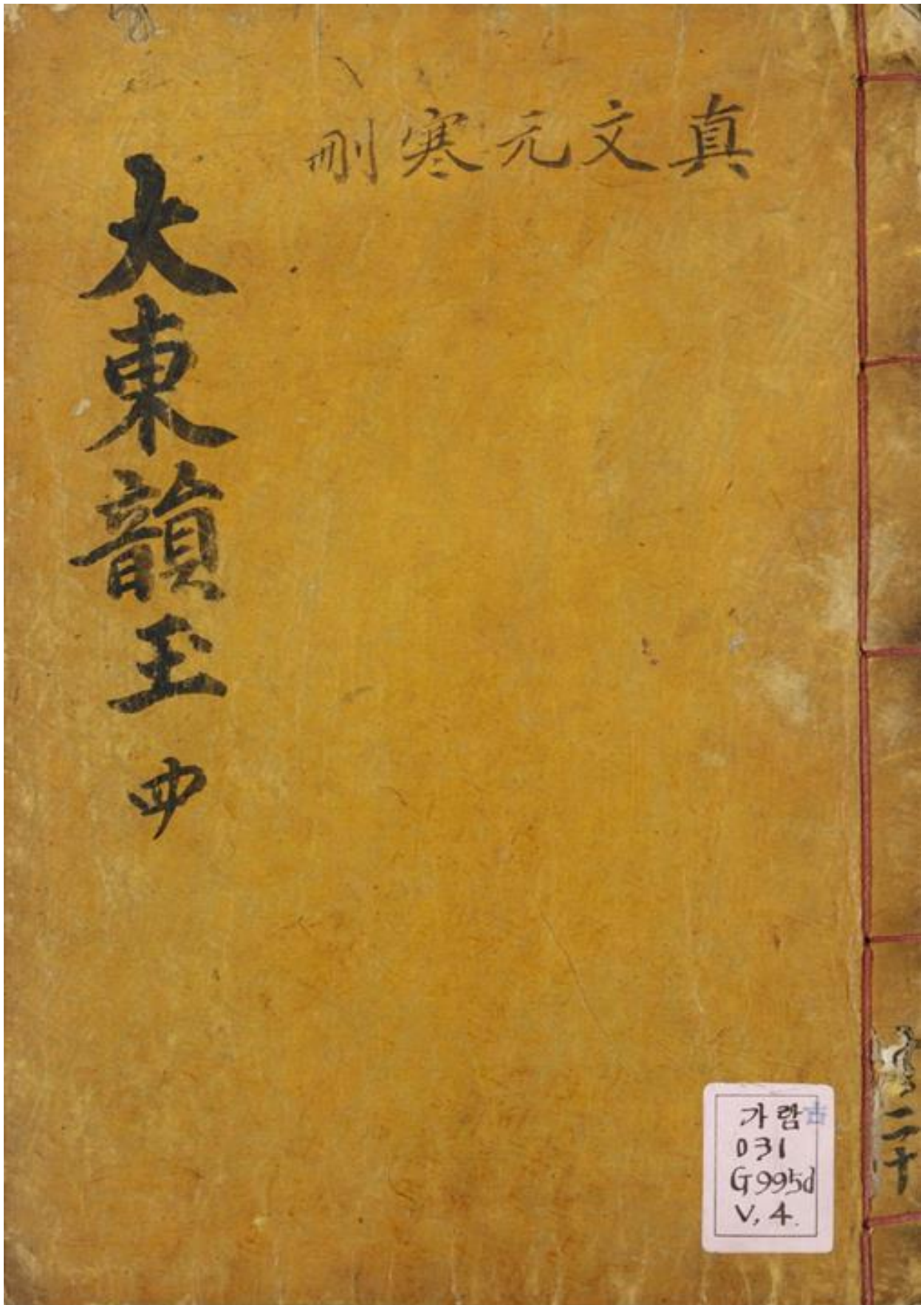
훈도 신원록은 의성현 사람이다. 고려 때 효자 신우의 훗자손이다. 열 살에 아버 병들거늘 손수 스스로 약을 달이며 옷과 띠를 그르지 않기를 여덟 해에 이르도록 게을리 아니하였더라. 이어 돌아가매 무덤에 시묘를 살았다. 편모 모심을 마흔 해 동안 하되 힘써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버이께 잔치하는 노래 여덟 곡을 지어 노래 불러서 만수하심을 빌었다. 어미 병들거늘 똥을 맛보고, 이어 돌아가매 슬피 울기를 절제 없이 하고, 날마다 세 번 무덤에 오르고, 상을 그려 제청 위에 걸고, 일찍이 말하기를, 내 죽은 후에 어미 남기신 상을 관 안에 넣어라. 내 당당히 지하에서 모시리라. 그 스승 주세봉이 돌아가거늘 상복은 입지 않으나 마음으로 보상하기를 삼 년을 하였다. 금상 때 정문을 내렸다.



訓導申元祿義城縣人高麗孝子申佑之後也十歲父病手自湯藥  
衣不解帶至八年不怠遺憂廬墓養偏母四十年務悅其心作實觀  
曲八關歌以壽之母病嘗糞及歿哀恸無節日三上墓直像揭于几  
寔之上嘗曰我死後毋遺像藏于棺裏我當奉侍于泉下其師周世  
鵬卒心喪三年今 上朝旌門

훈도신원국은외성현사람이라고려효주신우의훈주손이라  
열설에아비병들거늘손소스스로약달히며울시씩아니그르  
기를여둔히지이개을리아니하더라민주그매분묘애녀막사  
니라편모늘봉양호를마오히늘호되힘써그모숨를깃새게하  
고어버릿씨잔치하느곡도여를물늘지어불내블러배헌슈하  
더니어미병들거늘똥을말보고민주그매슬허울기름무절히  
하고날로세번무덤의오르고상을그려제형우회걸고일주기  
로되내주근후의어미기틴상을판안회장하라내당당히디하  
외외서시라라고스승주세병이죽거늘심상삼년하나라금  
상도애정문하시니라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선조 때 權文海(1534-1591)가 편찬한 사전으로, 20卷 20冊의 木版本이다. 권문해의 字는 灝元, 號는 草澗, 本貫은 醴泉이다. 1560년(명종 15)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좌부승지, 관찰사를 지냈다. 李滉의 文人으로, 柳成龍, 金誠一과 친교가 있었다. 大邱府使로 있을 때인 1589년(선조 22)에 <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였다. 권수에 序跋文, 目錄, 類目, 凡例, 纂集書籍目錄이 있다. 書籍目錄에는 <史紀>, <漢書>, <삼국志> 등 15종의 中國諸書와 <삼국遺事>, <桂苑筆耕>, <고려本史>, <龍飛御天歌> 등 東國諸書 174종이 실려 있다. 특히 임진왜란 전후에 일실된 서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新羅殊異傳>, 金富軾의 <銀臺文集>, 金克己의 <金員外集>, 金台鉉의 <東文鑑>, 李齊賢의 <益齋編年>, 金九容의 <周官六翼>, 僣遜의 <近思齋集>, 尹紹宗의 <桐亭集>, 尹淮의 <地理志>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서문은 1798년(정조 22)에 丁範祖가 썼으며, 跋文은 1655년(효종 6)에 金應祖가 썼고, 1570년(현종 11)에 洪汝河가 쓴 <海東雜錄跋>이 附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권문해가 이 책을 세 벌 정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벌은 1591년에 金誠一이 선조의 御覽을 거쳐 간행하려 하다가 임진왜란의 전화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또 한 벌은 鄭遂가 빌려갔다가 없어졌고, 권문해의 아들인 權鼈이 鼎山書院 원장으로 있을 때 남은 한 벌을 저본으로 轉寫하여 서원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그 책을 1655년(효종 6)에는 柳成龍의 문인인 金應祖가 예천군수에게 청하여 간행을 도모하였고, 1798년(정조 22)에 이르러 7세손 權進洛이 丁範祖와 李家煥의 序文을 받아서 간행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간행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812년(순조 12)부터 시작하여 1836년(헌종 2)에 완간되었는데, 이 때 이가환의 서문은 실지 않았다. <가람>의 제 20책 권말 내지에는 “철종 壬子(1852)六月使送守而勿失”라는 기록이 있다. 또 <海東雜錄跋>은 權鼈이 지은 <海東雜錄>의 간행경위를 기록한 것인데, 이는 家學을 이은 것이므로 그 跋文을 <大東韻府群玉>의 序跋에 부기한다고 했다.

체제는 韻目별로 표제어휘를 배열하고 故事의 원문을 적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元나라 陰時夫의 <韻府群玉>의 체제를 따른 것으로, ‘事系于字, 字統于韻’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凡例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글자의 배열은 <韻府群玉>이 근거한 禮部韻을 따랐다고 했다. ‘예부운’은 宋나라 卞水사람인 유연이 편찬한 <壬子新刊禮部韻略>의 계통을 말하며, 明清시대에는 作詩 用韻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詩韻이라고도 칭해진다. <大東韻府群玉>도 禮部韻의 106운 韻目과 韻字에 따라 배열하여 실었는데, 분량은 총 1232葉이다. 卞上去入의 四聲을 나누고 평성을 다시 上平聲·下平聲으로 나누었으며, 각 聲은 韻目에 의거하여 수십부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韻目-單字의 구성체계를 취하여, 單字 아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래에 끝글자가 그 單字와 같은 단어들을 2자·3자·4자·5자·7자의 순으로 배열하고 출전을 밝히고 있다.

《大東韻府群玉》의 내용은 類目으로 확인되는데, 地理·國號·姓氏·人名(附 宗室)·孝子(附 孝女)·烈女·守令·仙名·木名·花名·禽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가운데 孝子·烈女항은 음시부의 《韻府群玉》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이다. 이러한 내용의 추가와 관련하여 김응조는 발문에서 이 책이 筆削勸懲의 뜻을 붙인 鑑戒書라 하였다. 또 정범조의 서문에서는 《大東韻府群玉》이 역사사실의 참조와 감계의 효능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字類 가운데 수록할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인의 시구를 적어놓기도 하였다. 《大東韻府群玉》은 詩賦와 文을 짓는 사람들이 詞藻·對偶를 따오고 典故·軼文을 찾아서 押韻과 對句를 하는데 편리하도록 편성된 사전이기도 했다. 또한 운목별로 편찬된 역사서라는 뜻에서 '韻史'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역사사실의 참고서로 인식되었는데, 조선초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세종이 權蹈의 《歷代世年歌》를 鑄字所에서 印行하게 한 일 등에서 확인되며, 《大東韻府群玉》도 그러한 흐름속에서 이루어진 책이라 하겠다. 《大東韻府群玉》은 崔南善이 조선光文會에서 1913,4년에 활판본으로 제 1-9책까지 분책·간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고, 醴泉의 권문해 후손가에 책판과 고본 3종 27책이 전한다. 1976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간행한바 있다.

본서는 元 陰時夫가 편찬한 유서 《韻府群玉》의 체제를 따르되 우리나라, 곧 '大東'의 단군조선 이래 조선 선조대까지의 여러 가지 사적을 類書의 형식으로 총람한 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해제된 <奎 1589> 본 《大東韻府群玉》의 해제를 참조할 수 있다.

본서는 1589년(선조 22) 권문해가 大邱府使로 있을 당시 20권 20책으로 편찬이 완료되어 3질이 精書되었다.

그 중 1질은 1591년(선조 24) 부제학 金誠一이 선조의 어람을 거쳐 간행하려 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무위로 그치고 책마저 일실되었으며 다른 1질은 鄭逵가 빌려 갔다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후 권문해의 아들 龔이 鼎山書院 원장으로 있을 때 남은 1질을 따라 다시 1질을 정서하여 그 서원에 보관하였다.

이후 권문해의 7대손인 進洛이 1798년(정조 22) 丁範祖의 서문을 받고 1812년(순조 12)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간행을 시작하여 1836년(헌종 2) 드디어 완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韻書와 類書의 형태가 종합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크게는 平聲 30운, 上聲 29운, 去聲 30운, 入聲 17운의 총 106운을 다루고 있어 운서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각 韻들은 11항의 類目으로 세분되고 있어 유사의 형태도 함께 취하고 있는 것이다.

類目은 地理·國號·姓氏·人名(附宗室)·孝子(附孝女)·烈女·守令·仙名·木名·花名·禽名 등의 11항인데, 효자 및 열녀 조항이 첨가되어 있는 점은 <<운부군옥>>과 다른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각 韻字 아래에 그 韻字를 끝자로 하는 단어, 인명, 고사 등을 大字로 나열하되 11유목의 순서를 따랐다.

또 大字로 쓰여진 단어의 아래에는 小字로 된 해설문을 달고 그 출전을 밝혀 넣었다.

본서에 인용된 서적은 권두의 '纂輯書籍目錄'에 정리되어 있는데 '中國諸書'라 하여 <史記>, <漢書> 등의 15종이 실려 있고 '東國諸書'라 하여 <<三國遺事>>, <<桂苑筆耕>>, <<東國通鑑>>, 개인문집 등 174종의 책명이 실려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서적의 일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1836년에 나온 초판본의 판목과 3종의 古本은 보물 제878호로 지정되어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리 권문해의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3종의 고본은 18책본, 1책본, 8책본의 영본들로 서명이 모두 '新編大東韻玉'이며 인용서목과 체제 등이 <<대동운부군옥>>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권문해의 저술 이후 여러 학자들이 누차 이를 보완하였으며 이들은 1836년 초판본 간행시에 참조되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초간본 간행후에도 이는 누차 재간되었는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1913-1914년간에 崔南善이 朝鮮光文會에서 활자본으로 권1에서 권9까지 간행하다가 중단한 것, 1950년 正陽社에서 색인을 붙여 단권 양장본으로 영인한 것 등이 있다.

<1>본, <2>본, <3>본 모두 기해제된 <奎 1589> 본 <<大東韻府群玉>>과 같은 판본으로 책 표지서명 및 본문 중 서명은 '大東韻玉'이다.

단, <1>본과 <2>본은 완본이나 <3>본은 1책이 빠져 있는 영본이다.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1>본 및 <2>본의 경우 권두에 1798년(정조 22) 丁範祖의 序文, 1655년(효종 6) 金應祖의 跋文, 1670년(현종 11) 洪汝河의 附海東雜錄跋文, 目錄, 類目, 凡例, 纂輯書籍目錄이 붙어 있다.

간년은 일단 초간본이 나온 1863년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특히 <2>본의 경우는 간년을 1836년 이후 1852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책 마지막에 '哲宗 壬子年(1852년, 철종 3) 6월에 책을 賜送하니 잃어버리지 말라'는 기록이 있는 점이다.



並令征防軍人亦誠以事親權溥敬以事君為國

忤親朱溪君淚源極陳姑夫任士洪奸邪申申也重

名鬚申不見一歲屢更徐達城賜姓申哀莊王母

神述之女嫌於同姓以父名守庚申高麗俗因道家

必會飲徹夜不寐謂之羅史國俗守新舊歲亦高麗

俗為之時論議之麗史國俗守新舊歲亦高麗

風除狀申忠烈王下教凡百僚大小公事並一

祭雨師用申新羅日見師姓氏高靈其先本縣吏申

世傳分自平山高麗版圖判書申允濡之後申淑

高靈人博學經史仁宗朝登第以清儉忠直著名屢

進讜言毅宗時知門下省事王以宦者鄭誠為閤門

祇候淑與諫官等上疏不聽遂詣闕獨諫卒削誠職

左遷司空明年棄官歸鄉有詩云耕田消白日採藥

真大東韻玉卷之四

過青春有水有山處無榮無辱身申高靈

人文忠公叔舟之子我光廟朝拜咸吉道觀察使

李施愛之黨舉兵圍衙泐知不免持弓矢登城射殺

四人矢盡彎折其弓罵賊而死申灤字叔舟之

子為人外柔內嚴言行修潔其父亦重之官至觀察

使申從灤字次詔灤之子早博洽羣書年十九冠司

馬試又擢文科初重試壯元以文章鳴世為一時名

輩所推官至叅判早卒子沆潛俱見名下申錦字大

用平山人号韋菴文僖公槩之曾孫天姿端重志節

堅確澗究性理之學為己卯諸賢所推重嘗與李次

野權仲虛務欲調停兩間及禍作常在散班僅烈女

容於朝年五十二卒官至吏曹判書謚文節烈女

申以白川人適縣監李種耘夫死三十餘年朝夕親

奠不食肉事聞旌復申氏適叅判宋瑛瑛卒廬墓三

年親行祭祀服闋朝夕奠一孝子李申密城人居父

如生時我成廟命旌復孝子李申密城人居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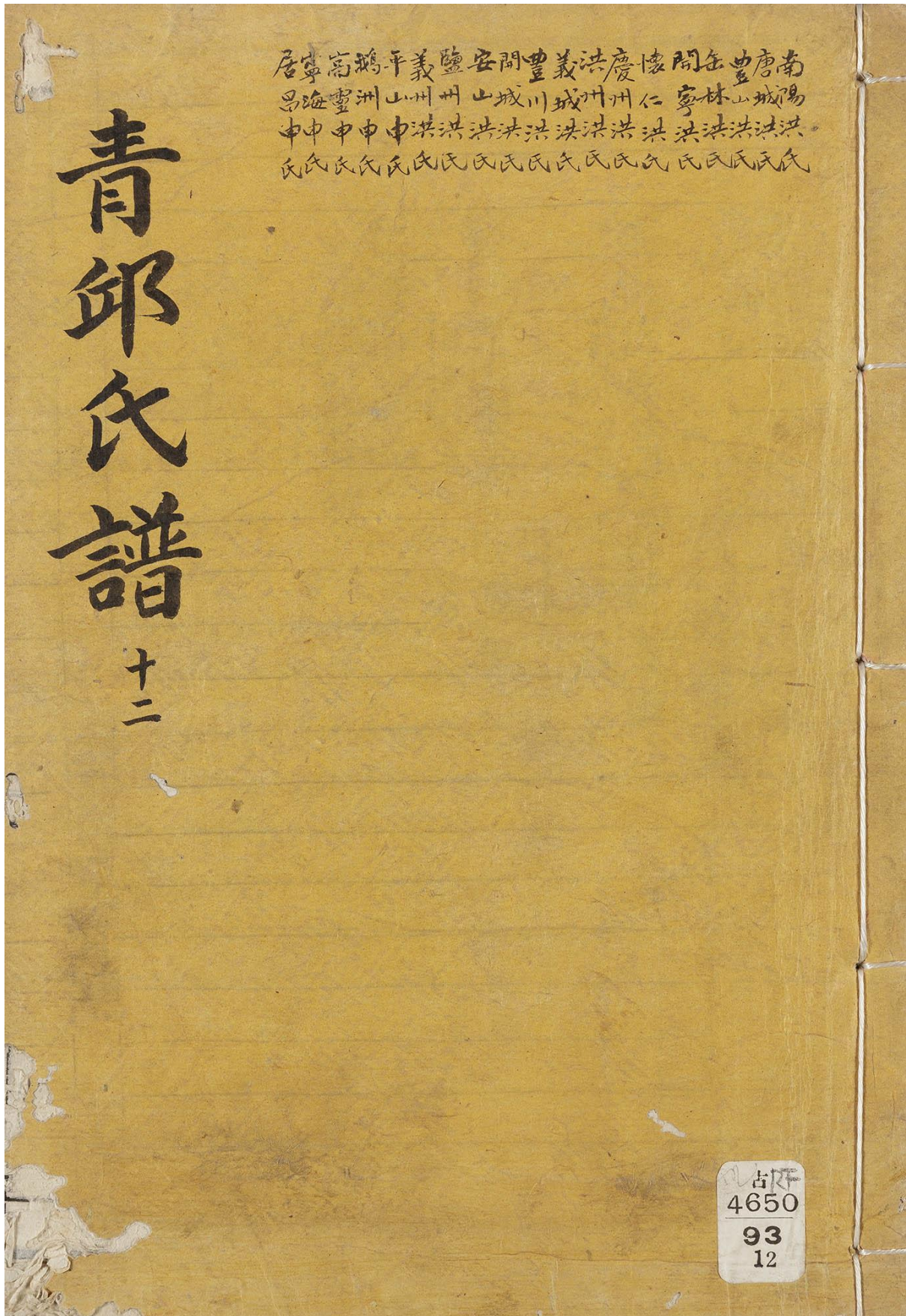
具不與諸兄弟共辦親自呻吟呻舒也理也人名

負擔營墳累官至持平呻吟呻舒也理也人名

肅宗時人少擢高第以清謹名王欲移都南京伸獨

與庾祿崇言其不可凡論國事悉主忠義時議多之

청구씨보(靑丘氏譜)



서지정보

원서명	靑丘氏譜	현대어서명	청구씨보
청구기호	古4650-93-v.1-20	편저자(한자)	宋鎮燮·朴海徹(朝鮮) 共編
편저자(한글)	송진섭·박해철(조선) 공편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26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0卷 20冊
책크기	32.5×22.5cm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자료소개	여러 姓의 系譜를 綜合하여 定理한 책		
M/F번호	M/F90-35-17, M/F84-16-209-1, M/F84-16-209-2		
서,발,권수,권말	序:歲在甲子([未詳])...李明翔, 昭陽大淵獻([未詳])...金世洛, 乙丑([未詳])...朴海徹		

내 용

여러 姓의 계보를 종합하여 정리한 책이다. 원래 송진섭(宋鎮燮)의 증조부인 서강공(西岡公)(이름 미상)이 직업을 시작하여 3대에 걸쳐 <<대동초보(大東抄譜)>>를 작성하였는데, 박해철(朴海徹)이 송진섭의 출간의뢰를 받고 증보하여 만든 것이다. 박해철의 향리인 밀양 인사들이 후원하였고 밀양의 척침대(陟瞻臺) 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제 1책의 앞에 이명상과 김세락(李明翔과 金世洛)이 쓴 서(序)와 이정규(李庭珪)와 박해철이 쓴 跋이 있고, 그 뒤에 <범례>가 있다. 같은 성별로 모으고 본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각 면에 22개의 횡선을 그어 세대 표시를 하였고, 인물들에 대하여는 간단한 관직경력과 과거 합격 여부만을 기록하고 그 외에는 이름만을 적었다.

제 1~4책에 李, 5~6책에 金, 7~8책에 朴, 9책에 鄭, 10책에 尹·崔, 11책에 柳, 12책에 洪·申, 13책에 趙, 14책에 韓·吳·姜·沈, 15책에 安·許·張·閔·任·南, 16책에 徐·具·宋, 17책에 兪·黃·林·呂·梁·禹·羅·孫氏 등이 그리고 18책에서 20책까지는 소수의 성들이 기록되어 있다

鵝洲申氏

申崇謙 甫感 弘尚 晟

公壯節元正尚書直學太保同正直長典書都官

勁

愈 毗命天應時令材

公敬德

禱

行

淑

榮

英

贊

升

得

昌

允

瀟

祐

先

富

光富士康 錫命 俊禎 壽

府令縣監進

參奉

元福 儼

享院參奉

弘道 埴

享院鼎峯文佐齋亭

元祿 佺

戶參贈承吏參進忍 荏間首城享院齋亭 悔堂隱虎溪院

適道 塚

禹錫 德潤 義模 宗烈 萬教 冕種 寅協 相夏

文錫 德浩 禮模 廷烈 鐸教 冕洛 泰協 敦植

德洵 正模

文蔚 監二 印齋

先烈 成教

冕璧 昌協

主靜 齋

相憲 世煥

其德

公貞書使退 齋於 院間享

魏河中央

靑丘氏譜卷之十一

先貴希信乾

始生介甫翰

雁奎夢得之悌昭

望漢老叔範寬龜道三

重仁昂沃

祖應興穆相遠

博丹崖

悅道 文掌 令懶 齋享 院

坂

應錫瀨

正標先憲必教

冕文國協

冕鑽漢宗秦榮

文持

澈相一先範樂教冕禹啓協

整即

泰錫德漢一模先震

圭文正

晉錫浣世模先運

文修 撰略 悟 衛率

達清枉

夏錫濂

重模煥

弘教冕朝萬協

贈持進 平退 潤

冕周命協秦植 文承 皆

僉知郡守

判決參奉

承旨進文  
梧峯正言  
孤松

進

震龜道萬  
進  
臨屏進  
履仁鼎辰

叔萬聖龜道潑種仁鼎周

17

11

한국명문세보(韓國名門世譜)

西紀一九七八年(戊午)一月日 印刷  
西紀一九七八年(戊午)三月日 發行

忠南大田市東區貞洞三六一一五  
韓國名世譜所

編輯者 金炳均  
發行人 金龍錫

忠南大田市東區貞洞三六一一五  
大耕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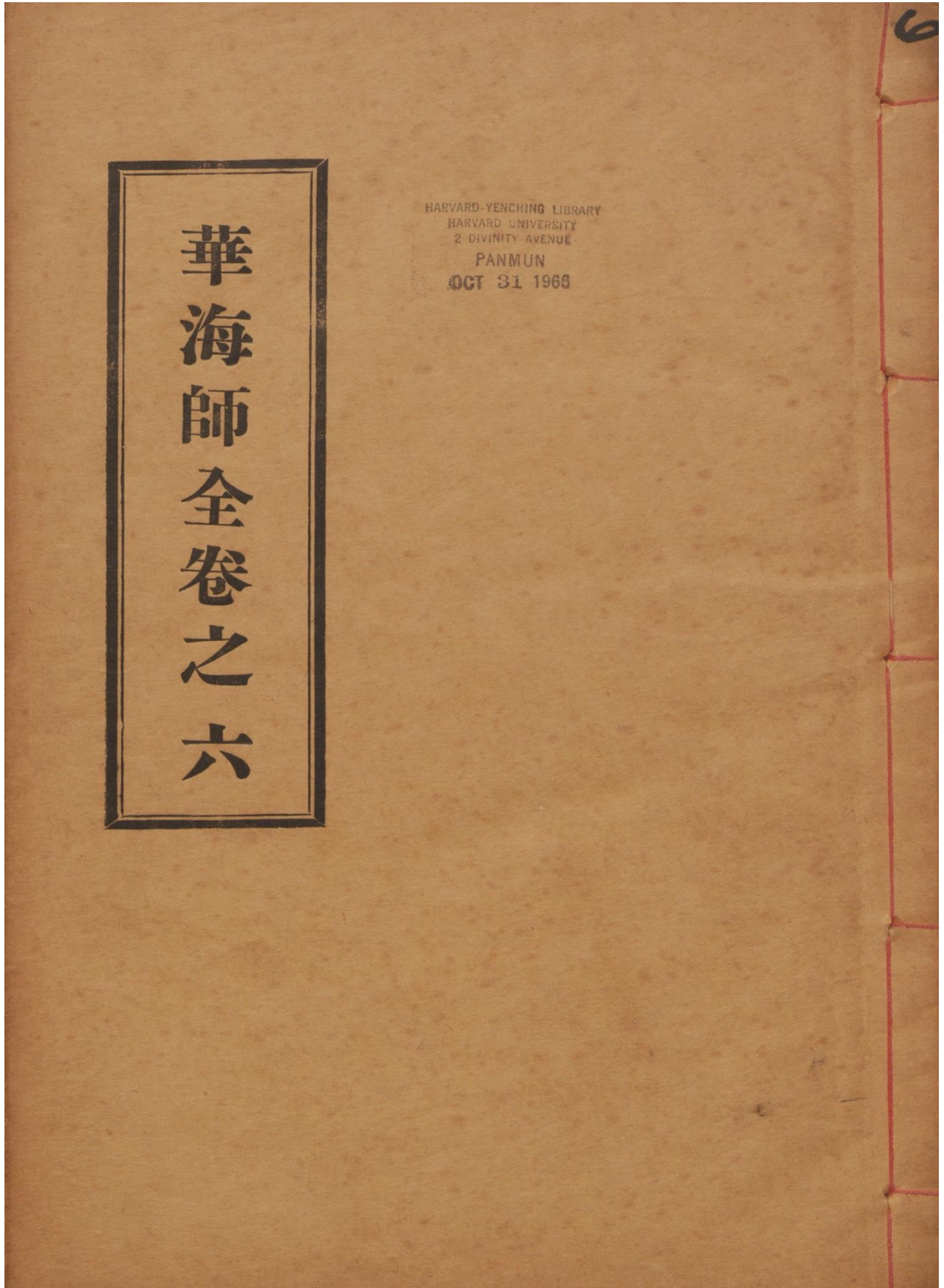
代表 田在桓

電話(二)四三三三(一)七三三〇者





화해사전(華海師全)



서지정보

원서명	靑丘氏譜	현대어서명	청구씨보
청구기호	古4650-93-v.1-20	편저자(한자)	宋鎮燮·朴海徹(朝鮮) 共編
편저자(한글)	송진섭·박해철(조선) 공편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간행연도	1926
간행자	[刊者未詳]	책권수	20卷 20冊
책크기	32.5×22.5cm	사부분류	史部 譜系類 一般族譜
자료소개	여러 姓의 系譜를 綜合하여 定理한 책		
M/F번호	M/F90-35-17, M/F84-16-209-1, M/F84-16-209-2		
서,발,권수,권말	序:歲在甲子([未詳])...李明翔, 昭陽大淵獻([未詳])...金世洛, 乙丑([未詳])...朴海徹		

정의

고려 후기 학자 신현의 학문과 행적을 모아 엮은 언행록.

내용

4권 2책. 신활자본. '화해사(華海師)'란 곧 중국의 원나라와 명나라, 그리고 동해 즉 고려의 스승이라는 뜻이니, '화해사전'이란 화해사 신현과 관계된 모든 기록이라는 의미이다.

저자의 문인 정몽주(鄭夢周)가 원천석(元天錫)에게 전해 원천석과 범세동(范世東)이 편집해 간행하려 했으나, 고려 말 어지러운 상황 속에 간행을 보지 못하였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그 후손 또한 몰락해 원(元)·범(范)·공(孔) 삼가(三家)에 비장되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31년 강영직(姜永直)이 군산에서 발견해 원본의 오자 낙서를 바로잡아 편집, 교정해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8권의 규모였으나 중간에 유실되어 4권으로 엮었다. 권두에 강영직의 서문과 동방도통도(東方道統圖)·세계도가 실려 있다.

권1은 비모(備耗)·잠가범(箴家範)·간재홀서(簡齋笏書), 권2는 본조주대(本朝奏對)·원주문답(元主問答)·명조빙문(明朝聘問)·제자문답(諸子問答), 권3은 출처대략(出處大略)·발미(跋尾)·사전계사(師全繼辭)·제자찬사(諸子贊辭)·제자서술(諸子敍述)·동방사문연원록(東方斯文淵源錄), 권4는 부록으로 후학찬사·후학찬술(後學撰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의 「동방도통도」에서는 우리 나라 유학의 도통을 단군에서 기자(箕子)로 이어져, 설총(薛聰)·최충(崔冲)·김양감(金良鑑)·안향(安珦)·우탁(禹倬)의 차례로 전해져, 우탁이 다시 신현에게 전하고, 신현이 정몽주와 이색(李穡), 그리고 아들 용희(用羲)에게 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몽주나 이색 등의 문로나 학문의 계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책의 발견으로 신현이 안향과 우탁의 도통을 이들에게 전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 화해사전(華海師全)

「비모」는 모두 39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송유(宋儒)의 성경설(誠敬說)과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에 대한 신현의 견해를 엮어 편집한 것이다.

「잠가범」은 신현의 아우인 좁(諱)과 아들 용희 등이 성리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선인의 말을 엮어 편집, 교정하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더해 신현에게 질정한 내용이다. 역시 그의 성리학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 있다.

「간재홀서」는 1381년(우왕 7) 용희가 명나라 태조와 신현이 학문 및 도학·의리명분 등의 내용을 문답한 것을 적은 글이다. 「본조주대」는 문인들의 기록으로, 충숙왕과 충혜왕 등 임금과의 주대(奏對)를 모아 저자의 학문과 행적의 소재를 밝혔다.

「원주문답」과 「명조빙문」은 각각 원나라 인종 및 명나라 태조의 문답 내용인데, 인종과 태조가 모두 저자에게 스승의 예를 갖추고 있어 당시 그의 문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제자문답」은 제자 문인들과 학문의 문제를 두고 문답한 내용이고, 「출처대략」은 문인들이 선생의 출처 행적 가운데 앞선 글에서 누락된 것을 습유해 보충한 내용이다. 「발미」는 원천석이 이 책을 인간(印刊)한 경위를 적은 것이다.

「사전계사」 역시 원천석이 선생의 생애에 관한 사실 중 누락된 것을 모아 정리한 것이며, 「제자찬사」는 명나라의 대학자 송렴(宋濂)을 비롯한 고려 말 조선 초 여러 인사들의 신현에 대한 찬사를 모은 것이고, 「제자서술」은 정몽주와 원천석 등 문인 및 후학들이 스승의 학행에 대해 추술한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동방사문연원록」은 본래 범세동의 「화동인물총기 華東人物叢記」에 실렸던 것으로, 앞서 연원도에서의 도통의 연원을 인물별로 구분, 설총에서 정몽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후학찬사」에는 간행에 앞서 정국필(鄭國弼) 외 112인의 찬사를 모아 수록하였고, 「후학찬술」은 강영직 등이 이 책의 간행에 앞서 전국 여러 서원과 유림들의 의견을 수렴, 이 책의 가치를 밝힌 내용이다.

권말의 「화해사전제자안 華海師全諸子案」에는 이 책에 수록된 229인의 이름을 적어 놓아, 고려 말 유학의 계통과 당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수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다만 이토록 비중있는 문헌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근대에 와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신현에 대해서도 아무리 격변기의 와중이었다 해도 『고려사』나 그 밖의 관련 저술에서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본 저작의 진위 여부에 많은 의심을 품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은 후인의 두찬(杜撰)이거나 위서(僞書)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정교하고 세심한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책의 편제를 두고 볼 때, '통(統)'에 대한 관념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의 위작(僞作)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천착과 검증이 요구되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본서의 내용과 의식의 문제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탐구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서관에 있다.

여말(麗末)의 유자(儒者)인 불훤재(不諼齋) 신현(申賢)(1298-1377)의 언행(言行)을 수록한 7권 4책의 필사본(筆寫本)으로 조선초(朝鮮初)에 범세동(范世東)과 원천석(元天錫)이 공편(共編)한 것이다.

목차(目次)는 권1 ; 본조주대(本朝奏對), 원주문답(元主問答), 권2 ; 명조주대 간재홀서주대(明朝奏對 簡齋笏書奏對), 권3 ; 비모, 출처(備耗, 出處), 권4 ; 제자문답, 언행, 가범, 발미(諸子問答, 言行, 家範, 跋尾), 권5 ; 제자십유, 세헌(諸子拾遺, 世獻), 권6 ; 계술, 운곡거의(繼述, 耘谷居義), 권7 ; 동방연원, 부려계사(東方淵源, 附麗季事)의 순이나 실제로는 운곡거의(耘谷居義)가 제자십유(諸子拾遺) 다음에 실리는데다가 권5 세헌(世獻)과 권6 계술(繼述) 대신에 사전계사, 가학, 동양세헌(師全繼辭, 家學, 東陽世獻)이 차례로 실려있어 권5-6의 일부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필사(筆寫)와 제본시(製本時)의 잘못으로 보인다.

내용은 주로 신현(申賢)을 중심으로 그 후손(後孫), 문인(門人)들의 언행, 출처(言行, 出處)에 관한 기록인데 당시의 유학(儒學)관계 기록이나 평산 신씨 일문(平山 申氏 一門)에 관계되는 기록도 산견된다.

본서의 편자나 작성시기 등을 아울러 검토해 볼 때 내용상 무리가 있어 그 **신빙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자료라 하겠다.**

當時人稱衣冠領袖號月水軒有二子一曰益保二  
曰益休益休以勳封鵝州君益保官右僕射育三子  
一曰孟明二曰自明三曰應明孟明官直學士應明  
官代言事無所措著焉自明官府事解綬歸穆朝  
丁亥與省齋无悶同叅整治官被禍入元卒於元子  
曰成官寶文大提學生二子一曰仲佺二曰仲偕仲  
佺以密直巡問湖南討倭有功封殷山伯子允恭官  
典書與二子綱維不僕新國仲偕官檢校有子國寬  
沒於杜門火  
噫天之氣數亦不能全降善哲於一姓之家亦理也

穆忠

# 현대책자(現代冊子)의鵝洲申氏內容(아주신씨내용)

## ● 한국성씨대관(韓國姓氏大觀)

1971년도에 발행한〈한국성씨대관(韓國姓氏大觀)〉이 있다. 여기 편저자(編著者)는최덕교(崔德教) 사장이자. 그는 창조사(創造社) 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성씨관계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성씨의 문중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 저서의 참고문헌(參考文獻)을 보면 대단한 자료를 확보하고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느 성씨관계의 책보다 방대하고 신뢰가 가는 것을느낀다.

참고로 삼았다는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 群玉),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려명신록(高麗名臣錄),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여말명현록(麗末名賢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전고대방(典故大方), 조선민족통보(朝鮮民族統譜), 한국인명사전(韓國人名 辭典),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등 무려 40여개의 문헌을 참고 자료로 본 것이다. 「한국성씨대관」저술에 참여한 석학(碩學)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주로 내용을 감수(監修)하였다. 여기에 신석호(申奭鎬)박사도 참여한 것이다. 이상옥(李相玉) 문학박사,강주진(姜周鎭) 법학박사,최상수(崔常壽) 민속학회 회장이 감수에 참여한 것이다.

이 저서에 아주신씨(鵝洲申氏)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다.

「아주신씨(鵝洲申氏)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때 권지호장(權知戶長)신영미(申英美)이다. 아주신씨(鵝洲申氏) 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고려말기(高麗末期)에 효자(孝子) 신우(호퇴재)(申祐(號退齋))가 나타난 이후의 일이다. 신우(申祐)는 충혜왕때 전라도안렴사(全羅道按廉使)를 지내고 그의 부판도판서 신윤유(父版圖判書 申允儒)가 죽자 3년간 여막(虞幕)에서 지냈는데 무덤앞에 쌍죽(雙竹)이나므로 그의 효(孝)를 기리어 정려가 세워졌다. 그 유허(遺墟)인 경북의성(慶北 義城)에는 지금도 효자비(孝子碑)가 남아 있고 후손(後孫)이 이 지방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에 크게 벼슬한 이는 없으나 학자(學者)와 청직(淸直)• 효행(孝行)으로 이름을나타낸 사람이 많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신원록(申元綠)과 그의 손자 신적도 • 신달도 • 신열도 (申適道 • 申達道 • 申悅道) 3형제 그리고 신지제 • 신흥망 부자(申之悌 • 申弘望 父子)를 꼽을 수 있다.회당 신원록(晦堂 申元綠)은 申祐의 6대손으로 일찍이 남명 조식(南溟 曹植)에게 학문(學問)을 배우고신재 주세붕(愼齋 周世鵬)의 문하(門下)에서 성리학(性理學)을 연구(研究)한 명종(明宗) - 선조대(宣祖代)의 학자 (學者)로서 장천서원(長

川書院)을 세워 모재 김안국(慕齋金安國)을 향사(享祀)했으며 효행(孝行)이 뛰어나 효자정문(孝子旌門)이 세워졌다. 회당(晦堂)의 손자(孫子)인 호계 신적도(虎溪 申適道)도 또한 학문(學問)과 효행(孝行)이 뛰어나고 정묘호란(丁卯胡亂)때의병(義兵)을 일으켰으며 찰방(察訪)을 지냈다. 그 아우신달도(호만오) 申達道(號晚悟)는 월천조목(月川趙目)과 여헌 장현광(旅軒張顯光)의 문인(門人)으로 인조원년 정시문과(仁祖元年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三司를 역임하고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江都(江都)에 호종척화(扈從斥和)를 주장했다. 신열도(호 난재)(申悅道(號 欄齋))는 만오(晚悟)의 동생으로 또한 仁祖2년(1624)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고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인조를 강도(江都)로 호종했고 서장관(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울진현감(蔚珍懸監)이 되고 1648년 掌令을 거쳐 稜州牧使를 지냈다。」

※ 주(註) : 강도(江都)는 몽고침입 당시 고려가 강화도로 옮겼는 데서 표기한 임시수도의 명칭.

### ● 한국사대사전(韓國史大事典)

1988년 9월 개정증보판이 간행되었다. 이사전은 '고등학교·대학교 학생의 학습보조와 일반인의 교양을 위하여 엮은 한국사 백과사전'으로서, '국사의 대중화' 그리고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 중심의 정치·경제·문화·사회·예술·인물·지명·왕조·서적·민속·고고·설화는 물론, 한국사와 관련있는 중국의 역대왕조, 일본, 몽고, 거란, 여진 등의 관련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했다.

인물은 작고한 사람에 국한하고, 설화 및 중요 고전의 등장인물까지 수록했으며, 한국 역사와 관계 깊은 외국인도 선정하여 수록했다.

최신의 시사사항은 가급적 피했으나 중요한 것은 정리했다. 지명은 <삼국사기>에서 <동국여지승람>까지 각 지리지에 나타나는 고지명은 물론 한국사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그 서술은 역사적인 연혁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사전의 끝부분에는 국사와 세계사연표를 수록했다.

사학자(史學者) 유흥열박사(柳洪烈博士)가 감수(監修)한 교육출판공사(教育出版社) 발행의 한국사대사전(韓國史大辭典)이 있다.

여기에 주요성씨의 시조일람표가 있는데 신씨(申氏)편에는 평산(平山), 고령(高靈), 이천(利川), 은풍(殷豐), 천안(天安), 아주(鵝洲), 신천(信川), 영해(學海), 곡성(谷城), 조종(朝宗), 삭녕(朔寧), 창주(昌州), 12곳의 본관표기를 하였다. 그리고 각 시조의 이름도 표기해 놓았다. 아주는 권지호장(權知戶長)의 영미(英美)가 시조라고 표기하였고 은풍만이 시조가 본래 평산인(平山人)이라 표기하였다. 平山人이란 말은 평산신씨란 뜻이다.

● 한국인의족보(韓國人의族譜)

도서출판 일신각(日新閣)에서 펴낸 방대한 내용의〈韓國人의 族譜〉가 있다. 편찬을 한 측은〈한국인의족보편찬위원회〉였다. 1977년도에 발행된 것인데 이 책의 내용에서 아주신씨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하여 놓았다.

< 始祀 및 本貫의 由來 >

시조 영미(始祖英美)는 고려말엽(년대미상)(高麗末葉(年代未詳)) 거제군 (巨濟郡) 소속(巨濟郡) 아주현 (鵝洲縣)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이 되 었으므로 그 후손(後孫)들이 아주(鵝洲)를 본관(本貫)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아주신씨(鵝洲申氏) 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옛날 가첩(家牒)은 물론 영조 (英祖)때에 편찬한 문헌비고(文獻備考)와그 밖의 문헌(文獻)에도 신영미(申英美) 가 아주신씨(鵝洲申氏)의 시조(始祖)로 명기(明記)되어 있으나 근세(近世)에 와서 신영미(申英美) 위에가공적 (申英美) 인물(人物)인 신익휴(申益休)를 첨가(申益休)하여 평산신씨 (平山申氏)의 시조 장절공 신송겸(始祖 壯節公 申崇謙)과 관계를 붙여 신송겸(申崇謙)을시조(始祖),신익휴 (申益休)를 중시조(中始祖)로 한족보 (族譜)가 나타났다.그러나 이것은 1817년(純祖17)에 공주(公州) 사람김노정(金魯定)이 위조(僞造)한 〈만성보 萬姓譜〉에 의한 것으로 당시 김노정(金魯定)을 방문(訪問) 조사 (調查)한 도와 신정주(陶窩申鼎周) 의 〈서호기행(西湖紀 行)〉에 의하여 그 그릇됨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송겸 (崇謙)을 시조(始祖)로 하고 익휴(益休)를 중시조(中始祖)로 하여그 계대(系代)를 살피는 것은 큰 잘못 이라하겠다.



# 한국성씨대관 (최덕교, 이승우 편 저 창조사)

## 654 鵝洲申氏

지도했으며, 1930年 母校에서 法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1932年 YMCA 총무가 되어 종교운동과 청년운동에 참가했다. 해방 후 特命全權大使 兼 駐日代表部 大使를 지내고, 1949年 第4代 大韓體育會長이 되었다. 기독교계 국제회의에 韓國代表로 20餘次 參席했으며, 1952年 第2代 大統領選舉에 出馬했으나 낙선했다.

申伯雨(號: 耕夫 獨立運動家)

15세에 成均館에서 周易을 배우고, 1907年 新民會·京城青年學友會에 加入했다. 1911年 滿州로 망명, 이듬해 奉天에서 大同青年團에 加入, 1918年에 귀국했다. 이듬해 大宗教에 入教, 3·1운동에 참가한 후 다시 滿州로 건너가 西路軍政署의 참모가 되었다. 新興武官學校에서 軍事學을 연구하고 1920年에 귀국, 勞動共濟會에 가입하여 機關紙 《共濟雜誌》의 主幹이 되었다. 1922年 尹德柄·李遂榮·李承龍·韓基秉 등과 火曜會를 조직하여 獨立運動을 하였으며, 1923年 無黨者同盟·서울青年會·勞動總同盟 등 각 단체의 간부로 활약했다. 1963年 大統領으로부터 建國功勞表彰이 수여되었다.

申洪植(韓末 獨立運動家)

1913年 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로 公州에서 宗教 운동에 헌신했다. 3·1운동 때는 民族代表 33인의 한 사람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 2年刑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에도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1962年 大韓民國建國功勞勳章復章이 수여되었다.

### 廟·祠·影堂·書院·旌閭·行義門 記錄表

區分	姓名	所在地
成宗室廟	申叔舟	
雙泉書院	申 湜	忠北清州
鳳溪書院	申 湜	忠北清州
鳳溪書院	申 湜	忠北清州
雪齋祠	申 楬	全南羅州
花山書院	申末舟	全北淳昌
武城祠	申 漣	全北春仁
玉城書院	申 漣	慶北尚州
樂安書院	申汝楬	慶南東萊
樂安書院	申德麟	慶北高靈
樂安書院	申德麟	慶北高靈

66  
의 학의  
의 하나  
의 3代 校  
總府 專 3代 民統  
申景浩(宗한 民族運  
申景浩(宗한 民族運  
司馬氏의 氏  
壬辰倭亂 申景浩(宗한 民族運  
자랑하므로 獨生  
成均館의 추천으로

列字	世	行列字
楬	22	求
植	25	浩
圭	30	楬

31	永	32	相	33	雙	34	在
35	略	36	泰	37	根		

### 分布狀況

分 布 地	戶數
京畿道加平郡下面上板里	20
忠北清原郡加德面靑龍里	20
忠北清原郡加德面杏亭里	35
忠北清原郡加德面仁次里	28
全北南原郡一圓	16
全南谷城郡一圓	24
全南麗川郡雙鳳面靑山里	30
全南麗川郡奉井面覆金里	48
全南昇州郡樂安面昌寧里	20
全南高興郡高興面姑蘇里	30
全南高興郡高興面玉下里	25
全南高興郡道陽邑柯也里	65
全南高興郡道陽邑龍洞里	21
全南高興郡浦項面松山里	27
全南高興郡占岩面大龍里	36
全南高興郡過驛面石鳳里	23
全南高興郡過驛面老日里	16
全南高興郡南陽面望珠里	47
全南高興郡東江面馬輪里	95
全南高興郡大西面禾山里	29
全南高興郡大西面金馬里	16
全南高興郡豆原面大田里	44
全南長城郡北二面白岩里	35
慶北義城郡丹密面龍谷洞	18
慶北高靈郡雲水面雲山洞	47
慶南晉陽郡樂賢面大岩里	27

## 鵝洲申氏

### 始祖 및 本貫의 由來

始祖 英美는 高麗末葉(年代未詳) 巨濟郡 所屬 鵝洲縣의 權知戶長이 되었으므로 그 後孫들이 鵝洲를 本貫으로 하여 世系를 繼承하고 있다. 그런데, 鵝洲申氏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옛날 家譜은 물론 英組 때에 편찬한 文獻備考와 그밖의 文獻에도 申英美가 鵝洲申氏의 始祖로 明記되어 있으나, 近世에 와서 申英美 위에 架空의 人物인 申益休를 添加하여 平山申氏의 始祖 壯節公 申崇謙과 關係를 붙여 申崇謙을 始祖, 申益休를 中始祖로 한 族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1817年(純祖 17)에 公州 사람 金魯定이 偽造한 《萬姓譜》에 의한 것으로, 당시 金魯定을 訪問, 調査한 陶窩 申鼎周의 《湖西紀行》에 의하여 그 虛構됨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崇謙을 始祖로 하고, 益休를 中始祖로 하여 그 系代를 살피는 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다.

〈世系表〉



歷代重要人物

- 申允瀾(高麗 官職:版圖判書)
- 申 祐(高麗 號:退齋 官職:按察使)  
 여술은 按察使를 지냈다. 父親喪을 당하여 廬墓에서 3년상을 마치고, 무덤 앞에 雙竹이 생겼으므로 家誠이 지극한 때문이라 하여 旌門이 세워졌다. 太祖와 일찍부터 친구간으로서 朝鮮이 開國된 후 刑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俊巖書院과 高州의 洑水書院에 祭享.
- 申光富(高麗 官職:內府令)
- 申光貴(高麗 官職:知鳳州事)
- 申士箕(朝鮮 官職:縣令)
- 申士廉(朝鮮 官職:郡守)
- 申希信(朝鮮 官職:郡守)
- 申俊植(朝鮮 官職:奉教)
- 申始生(朝鮮 號:北松亭 兼衛將軍)
- 申介甫(朝鮮 官職:司直)
- 申用肅(朝鮮 官職:縣監)
- 申元福(朝鮮 字:仲綬 號:靜庵 孝子)
- 申元緯(朝鮮 字:季綬 號:倫堂 官職:教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자 八公山 수백리 길을 藥草를 찾아 다녔으며 밤잠을 안 자며 8년간이나 간호했고, 母喪을 당하자 눈물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省墓를 하는 등의 孝行으로 朝廷에 의해 孝子門이 세워졌다. 曹植에게서 學問을 닦다가 曠世巖이 白雲洞書院을 설립하자 찾아가 門下生이 되고 동도들과 함께 長川에 書院을 세워 金安園을 祭享했으며 長川이란 賜額을 받았다. 여술은 教授를 지냈다.

戶曹參議에 追贈,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  
 申之孝(朝鮮 字:遼夫 號:翼巖 學者)  
 申之佛(朝鮮 字:順甫 號:梧峰 官職:承旨)  
 1589年(宣祖22) 增廣文科에 甲科로 급제하고, 正言·禮曹佐郎·文學 등을 역임했다. 1613年(光海君 5) 昌寧府使로 나가 덕성을 지음하던 도적을 토벌하고 仁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通政大夫에 올랐고 仁祖초에 承旨에 이르렀다.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  
 申椿年(朝鮮 字:壽翁 號:栗亭 官職:典洞司參奉)  
 申 暹(朝鮮 字:壽仲 號:北軒 官職:縣監)  
 申興孝(朝鮮 字:行初 號:桂月堂 官職:同知中樞)  
 申達道(朝鮮 字:亨甫 號:純悟 官職:持平)  
 1623年(仁祖1) 庭試文科에 장원하고, 司憲府·司諫院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1627년 丁卯胡亂 때 正言으로 있으면서 斥和를 주장하여 崔鳴吉 등의 主和論을 극력 배격했다. 뒤에 持平이 되었고 都承旨에 追贈.  
 申適道(朝鮮 號:虎溪 官職:察訪)  
 1627年(仁祖5) 丁卯胡亂 때 義兵을 일으켰다.  
 申悅道(朝鮮 字:晉甫 號:懶齋 官職:持平)  
 1624年(仁祖2) 增廣文科에 乙科로 급제하고, 1627년 丁卯胡亂 때 仁祖를 江華로 扈從했으며, 다음해 書狀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蔚珍縣監이 되고, 1648年 掌令을 거쳐 綾州牧使가 되었다.  
 申弘望(朝鮮 字:望久 號:孤松 官職:持平)  
 1639年(仁祖17)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고, 注書를 거쳐 1646년 正言이 되었다. 이어 司憲府에 제직 중 탄핵을 받고 碧潼에 流配되었다. 그후 풀려나와 1652년(孝宗3) 持平이 되고 뒤에 豊基郡守를 지냈다.  
 申聖閔(朝鮮 字:希文 官職:承旨)

廟·祠·影堂·書院·旌閣·行義門 記錄表

區 分	姓 名	所 在 地
洑水書院	申 祐	慶南尚州
俊巖書院	申 祐	
藏待書院	申元福	慶北義城
藏待書院	申之佛	慶北義城
表節祠	申 祐	京畿道開城

行列表

世	行列字	世	行列字	世	行列字	世	行列字
20	教	21	冕	22	漢	23	相
24	雙 機	25	敷·基	26	錫·鎮	27	源·洙
28	根·秉	29	默·燮	30	均·遠	31	載·鏞

分布狀況

分 布 地	戶 數
慶北義城郡義城邑八坡洞	24
慶北義城郡舍谷面梅谷洞	55
慶北義城郡金城面霞洞	26
慶北義城郡金城面道境洞	26



# 韓國人名大事典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編纂委員■

李熙昇/朴鍾鴻/李相佰  
白 鐵/韓祐勛/鄭炳昱

新丘文化社

터 집과 노비(奴婢)를 하사받고 1775년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과시(科詩)에 능했고, 특히 《관산용마(關山戎馬)》는 그의 대표작으로서 당시 널리 애송(愛誦)되었다. [著書]石北集 [文獻] 英祖實錄, 李家源: 石北文學研究(東方學志 第4輯). →사진관

**신광업 辛光業** 1575(선조 8)~1623(인조 1) [조선] 문신. 자는 백술(伯述), 호는 귀계(龜溪), 본관은 영산(靈山), 평년(彭年)의 아들. 1603년(선조 36) 진사(進士)가 되고, 1610년(광해군 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1618년 교리(校理)를 거쳐 사간(司諫)에 올랐다가 1623년 허균(許筠)의 일파로 몰려 반역죄로 사형당했다. [文獻] 光海君日記

**신광조 申光祚** ㄷ 신계관(申啓寬)

**신광하 申光夏** 1688(숙종 14)~? [조선] 무신. 자는 사회(士晦), 본관은 평산(平山),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여철(汝哲)의 손자. 1712년(숙종 38) 무과(武科)에 급제, 춘천 부사(春川府使)가 되고, 1721년(경종 1) 황해도 병마절도사, 1723년 금군 별장(禁軍別將), 이듬해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1725년(영조 1) 포도 대장(捕盜大將)·총용사(摠戎使), 1727년 어영 대장(御營大將)이 되었으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총용사, 1729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1733년 포도 대장, 뒤에 판서가 되었다. [文獻] 肅宗·景宗·英祖實錄, 國朝人物志

**신광한 申光漢** 1484(성종 15)~1555(명종 10) [조선] 문신. 자는 한지(漢之)·시회(時晦), 호는 기재(企齋)·낙봉(貉峰)·석선재(石仙齋)·청성동주(靑城洞主), 본관은 고령(高靈), 영의정 숙주(叔舟)의 손자. 내자시정(內資寺正) 형(洞)의 아들. 1507년(중종 2)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10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514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홍문관 전교(弘文館典校)가 되었다.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신진 사류(新進士類)로서 1518년 대사성(大司成)에 특진되었으나 이듬해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좌, 삭직(削職)되었다. 1537년(중종 32)에 등용되어 이조 판서가 되고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겸했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우참찬(右參贊)으로 소윤(小尹)에 속하여 윤임(尹任) 등 대윤(大尹)의 제거에 공을 세워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이 되었다. 이해 우참찬으로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을 겸임, 영성부원군(靈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550년(명종 5) 좌찬성(左贊成)에 올랐다. 1553년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문장(文章)에 능하고 필력(筆力)이 뛰어났다. 시호는 문간(文簡). [著書] 企齋集, 企齋記異 [文獻] 中宗·明宗實錄, 國朝人物考, 燃黎室記述

**신구 申球** [조선] 유생(儒生). 자는 군미(君美), 본관은 평산(平山), 장령(掌令) 급(驥)의 현손(玄孫).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제주(濟州)에 안치(安置)된 송시열을 위해 항소(抗疏)를 올렸고, 1716년(숙종 42) 경기·충청 전라도의 유생 60명이 연소(聯疏)를 올릴 때 그 소두(疏頭)가 되어 윤선거(尹宣舉)와 그 아들 증(拯)을 논핵(論劾)하여 그들의 관직을 추탈(追奪)하고 윤선거의 문집을 폐판(毀板)케 했다. 1722년(경종 2) 신임 사화(辛壬士禍)로 거계(巨濟)에 유배되었다가 영조가 즉위하자 방환(放還), 영릉(英陵)과 회릉(禮陵)의 참봉(參奉)을 역임했으나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쫓겨나 고향에 은퇴했다. [文獻] 肅宗·景宗·英祖實

錄, 承政院日記, 黨議通略, 國朝人物考

**신군평 申君平** [고려] 문신. 본관은 평산(平山). 충숙왕 때 문과(文科)에 급제, 권신(權臣)에 아부하여 비슬하는 자의 고신(告身)을 대관(臺官)으로서 서명을 거부, 또한 정승 강옹(姜翁) 및 찬성(贊成) 채하중(蔡河中) 등의 고신에도 서명하지 않아 미움을 사서 파직당했다. 1352년(공민왕 1) 나주 목사(羅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노환으로 누운 어머니를 위해 부임하지 않다가 1355년 좌대언(左代言)이 되고, 뒤에 승직(僧職)에 임명하려고 왕이 불렀으나 병으로 사퇴, 뒤에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신규 申奎** 1659(효종 10)~? [조선] 문신. 자는 문보(文甫), 호는 취은(醉隱), 본관은 평산(平山), 무교랑(務功郎) 찬연(贊延)의 아들. 정태화(鄭太和)의 문인. 20세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83년(숙종 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현감(縣監)을 지냈다. 1698년에 노산군(魯山君: 端宗)의 추종(追崇)과 신비(愼妃)의 복위(復位)를 강력히 상소하여 이물시행케 했으며, 뒤에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지냈다. [文獻] 肅宗實錄, 耳溪集

**신규식 申圭植** 1875(고종 10)~1922 독립운동가. 자는 공직(公執), 호는 예관(院觀), 본관은 고령(高靈). 용우(龍雨)의 아들. 충북 청주(淸州) 출신. 1899년 관립한어학교(官立漢語學校)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하고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를 나와 참위(參尉)·부위(副尉)가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 때 을축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 오른쪽 눈이 실명했다.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대한협회(大韓協會)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1909년(융희 3) 대종교(大倣敎)에 입교,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손문(孫文)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가담함으로써 청조(淸朝)의 감시를 받았다. 중국 국민당 간부들과 한중(韓中)연합단체 신아 동계사(新亞同濟社)를 조직했고 1915년 박은식(朴殷植)과 대동 보국단(大同輔國團)을 조직하여 잡지 《진단(震壇)》을 발간,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부의장에 당선, 6월에 법무총장, 1921년 국무총리 대리·외무총장을 겸직했다. 이 해 신생 중화민국 광둥정부(廣東政府)에 대사로 가서 손문(孫文)과 교섭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받고, 10월 북벌 서사식(北伐誓詞式)에 참가했다.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기자 조국의 앞날을 근심하며 25일간 단식 끝에 죽었다. 상해 홍교로(虹橋路) 만국공묘(萬國公墓)에 안장,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著書] 韓國魂, 兒日淚 [文獻] 騎鶴隨筆, 大韓季年史, 吳世昌: 申圭植(韓議의 人間像 第6卷). →사진관

**신균 申均** 1395(태조 4)~1473(성종 4) [조선] 문신. 자는 경화(敬和), 본관은 영산(靈山), 증(贈) 호조 판서 중선(中善)의 아들. 1418년(태종 18) 음보(蔭補)로 동부 녹사(東部錄事)에 시보(試補), 뒤에 지안성군사(知安城郡事)·순흥 도호부사(順興都護府使)·에빈시윤(禮賓寺尹)·판제용감사(判濟用監事)를 거쳐 검교한성부윤(檢校漢城府尹)이 되고 이어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검교호조참판(檢校戶曹參判)·행호군(行護軍)을 역임하고, 1473년(성종 4)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취임한 지 몇달 만에 대관(臺官)의 논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호조 판서에 추증(追贈), 시호는 호이(胡夷). [文獻] 成宗實錄

**신극성 愼克成** [조선] 오리(汚吏). 본관은 거창(居

昌). 연산군 때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나가 가혹한 세금으로 사복을 채워 이장진(李長吉)·남경(南愷) 등과 함께 당시 대표적인 오리(汚吏)로서 남인(南人)으로부터 3맹호(猛虎)의 한 사람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권신(權臣) 신수근(愼守勤)에게 아부하여 이품직(二品職)에 이르렀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자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文獻]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신근 申近** 1694(숙종 20)~1764(영조 40) [조선] 문신. 자는 이원(而遠), 호는 퇴수재(退修齋), 본관은 고령(高靈), 세계(世濟)의 아들. 1717년(숙종 43)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744년(영조 20) 장진 현감(康津縣監)으로 있을 때 서자(庶子)를 그 곳의 부호(富豪)의 딸과 결혼시켜 탈세를 일으켰으며, 1751년 지평(持平)이 된 뒤 정언(正言)·장령(掌令) 등을 역임, 뒤에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학식이 높았고, 특히 예론(禮論)에 밝았다. [著書] 疑類類說 [文獻] 英祖實錄, 朝鮮圖書解題

**신급 申楛** 1543(중종 38)~1592(선조 25) [조선] 학자. 자는 중준(仲駿), 본관은 평산(平山), 별칭(別稱) 화국(華國)의 아들. 입(立)의 형.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널리 경서(經書)를 통독했다. 선조 때 이이(李珣)·성혼(成渾) 등이 탄핵을 받고 조정을 떠나자 유생(儒生)을 이끌고 그 부당함과 탄핵자의 처형을 상소하여, 이이를 탄핵한 박근원(朴謹元) 등을 유배시켰다. 뒤에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모친과 함께 이천(伊川)에 피란 도중 적을 만나 모친이 벼랑에서 투신하자 그도 따라 뛰어들어 모친을 구하고 자신은 죽었다. [文獻] 國朝人物考

**신기선 申箕善** 1851(철종 2)~1909(융희 3) [조선] 대신. 자는 언여(言汝), 호는 양원(陽園), 본관은 평산(平山), 희조(毅朝)의 아들. 1877년(고종 1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교리(校理)를 지내고, 1882년(고종 19) 관제개혁 때 참의경리내무아문사(參議經理內務衙門事務)·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를 역임하고, 이어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1886년 앞서 갑신정변(甲申政變) 때 김옥균(金玉均)의 일파였다는 죄로 전라도 여도(呂島)에 유폐(幽配)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등용되어 김홍집 내각(金弘集內閣)에서 공부 대신(工部大臣)을 거쳐 내부·법부·학부의 각 대신을 역임하고 참정(參政)에 이르렀다. 후에 대동학회장(大東學會會長)·장례원경(掌禮院卿)·수학원장(修學院長)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문헌(文獻). [著書] 農政新編, 儒學經緯 [文獻] 大韓季年史, 朝鮮圖書解題

**신노 申櫓** [조선] 의병(義兵). 자는 제이(濟而), 본관은 고령(高靈). 1567년(명종 2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단천 군수(端川郡守) 강찬(姜燦)에게 권유하여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격문(激文)을 지었다. 두 왕자(王子)가 회령(會寧)에서 포로가 되자 종인(宗人) 석린(石濤)과 함께 정현동(鄭見龍)에게 권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정문부(鄭文符)를 원수(元帥)로 추대, 자신은 그 휘하에 종군하여 적을 무찔렀다. 그 공으로 오품(五品)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文獻] 國朝人物考, 申櫓墓誌

**신달도 申達道** 1576(선조 9)~1631(인조 9) [조선] 문신. 자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龜州), 참의(參議) 원록(元祿)의 손자, 율(律)의 아들. 조목(趙穆)·장현광(張顯光)의 문인. 1610년(광해

군 2)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정계가 혼란하므로 벼슬을 단념했다. 1623년(인조 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척화(斥和)를 주장, 윤휴(尹鑴)와 함께 최명길(崔鳴吉)의 주화론(主和論)을 극력 배격했다. 이듬해 지평(持平)이 되었다. 도승지(都承旨)에 추증(追贈). [文獻] 仁祖實錄, 嶺南人物考

**신담 申澐** 1519(중종 14)~1595(선조 28) [조선] 문신. 자는 중경(仲卿), 호는 어성(魚城), 본관은 고령(高靈), 영원(永源)의 아들. 한산(韓山) 출신으로 1540년(중종 35)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52년(명종 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563년 정언(正言)·지평(持平)·전직(典職) 등을 거쳐 1565년 장령(掌令)이 되었다. 1569년(선조 2) 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다시 장령이 되었으며, 1571년 군사감정(軍資監正)으로서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 1577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사건으로 한때 파직, 1582년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기용되어 특히 총사(訟事)를 잘 처리하였다. 1591년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에서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승진, 1592년 임진왜란 때 진주 부윤(全州府尹)으로서 의병(義兵) 1천여명을 모집하여 쾌적의 진격을 막았다. [文獻] 明宗·宣祖實錄, 國朝人物考

**신대왕 新大王** 89(태종왕 37)~179(신대왕 15) [고구려] 제8대 왕. 재위 165~179년. 이름은 백고(伯固)·백구(伯句), 재사(再思)의 아들, 어머니는 부여 사람. 둘째 형인 차대왕이 무도하여 숨어 살다가 명림답부(明臨答夫)에 의해 차대왕이 살해되자 좌보(左輔) 어지류(蔡支留) 등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 166년 좌·우보(左右輔)의 직제를 국상(國相)으로 개정하고 명림답부름이 임명하여 내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한편, 차대왕의 태자 추안(鄒安)을 양국군(讓國君)에 봉했다. 168년 한(漢)나라 현도군 태수(玄菟郡太守) 경림(耿臨)의 침입에 항복하고, 이듬해 그 다음 태수인 공손탁(公孫度)을 도와 부산적(富山賊)을 토벌했다. 172년에는 한나라의 대군이 침입하자 명림답부의 전략(戰略)으로 이를 물리쳤다. 장지(葬地)는 고국원(故國原). [文獻] 三國史記

**신대우 申大羽** 1735(영조 11)~1809(순조 9) [조선] 문신. 자는 의부(義夫), 호는 완구(宛丘), 본관은 평산(平山), 직장(直長) 성(誠)의 아들. 정조 초에 음보(蔭補)로 등용되어 강동 현감(江東縣監)·군수(郡守)·참판(參判)을 지냈으며, 시문과 서예에 능했다. [著書] 宛丘遺集 [文獻] 正祖·純祖實錄

**신덕 新德** [후백제] 견훤(甄萱)의 신하. 935년(견훤 44) 파진찬(波珍彦)으로 있으면서 신검(神劍)에게 정변을 일으킬 것을 권유, 견훤을 금산사(金山寺)에 가두고 동생 금강(金剛)을 죽이게 한 후 신검을 왕으로 추대했다. [文獻] 三國史記

**신덕균 申德均** 1878(고종 15)~1908(융희 2) [조선] 의병. 일명 덕순(德淳)·정회(正會), 호는 몽암(蒙菴). 광주(光州) 출신. 1907년(융희 1) 가산을 팔아 무기를 구입, 수백명의 의병을 모아 고흥군(高光郡)의 휘하에서 활약했다. 그 후 고흥군이 진사하자 정읍(井邑) 내장사(內藏寺)에서 김준(金準) 등과 재기를 도모하다가 피체, 정읍에서 사형당했다. [文獻] 湖南節義史

**신덕린 申德麟** [고려] 서예가(書藝家). 자는 불고

충청도 수군절도사를 거쳐 1671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이듬해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역임, 1675년(숙종 1) 병조 참판(兵曹參判), 1680년 총융사(摠戎使)·공조 판서, 1688년에 형조 판서로 훈련 대장(訓練大將)을 겸직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 때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장희재(張希載) 등을 처벌했으며, 1695년 형행조판서(行刑曹判書), 1700년에는 행조판사를 거쳐 이듬해 다시 훈련 대장이 되었다. 시호는 장무(莊武). **【文獻】** 顯宗·肅宗實錄

**신열도 申悅道** 1589(선조 22)~1647(인조 25) **【조선】** 문신. 자는 진보(晉甫),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아주(龜州), 홍(乞)의 아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1624년(인조 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인조를 강화(江華)에 호종(扈從),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울진 현감(蔚珍縣監), 1648년(인조 26) 장령(掌令)을 거쳐 능주 목사(綾州牧使)가 되었다. **【著書】** 仙槎志, 聞詔志 **【文獻】** 號譜

**신열 申廉** **【고려】** 무신.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소부 주부(少府注簿)가 되고, 이듬해에는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에 원나라에 있을 때 그를 시종했던 공으로 3등 공신에, 1363년에는 홍건적(紅巾賊)에 의해 함락된 개경(開京)을 수복한 공으로 2등 공신에 올랐다. 1373년 왜구(倭寇)들이 한양부(漢陽府)에 침입,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자, 한양 부윤(漢陽府尹)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죄로 강형(杖刑)을 받고, 봉춘(烽卒)로 쫓겨났다가 뒤에 등용되어 밀직 부사(密直副使)에 승진, 1379년(우왕 5) 수상을 자처하며 정변을 일으킨 양백연(楊伯淵)과 친구간이라 하여 전리(田里)에 방축(放逐)되었다.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신열 申瑛** 1499(연산군 5)~1559(명종 14) **【조선】** 문신. 자는 윤보(潤甫), 본관은 평산(平山), 정언(正言) 효(曉)의 아들. 김석(金湜)의 문인. 1516년(중종 11)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523년 알성문과(諳聖文科)에 장원, 홍문관(弘文館)에 발탁되고,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화를 입은 스승 김석을 변호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뒤에 형조 좌랑(刑曹佐郎)·한경도 도사(咸鏡道都事)를 거쳐 공조·형조·병조의 정랑(正郎)과 지평(持平)을 역임하고, 권신에 아부하지 않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좌천되었으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뒤에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0여년 동안 이조·호조·예조·병조의 참판(參判)을 역임하고, 대사헌·대사간·호조 판서를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올랐다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러 사직했다. 시호는 이간(夷簡). **【文獻】** 中宗·明宗·宣祖實錄, 國朝人物考

**신영희 辛永禧** **【조선】** 중기의 학자. 자는 덕우(德優), 호는 안정(安亭), 본관은 영산(靈山), 참판(參判) 석조(碩祖)의 손자, 현감(縣監) 수담(壽聃)의 아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불원간에 화(禍)가 있으리라는 동문(同門) 김경필(金宏弼)의 충고로 벼슬을 단념하고 직산(稷山)에 가서 남효온(南孝溫)·홍유손(洪裕孫) 등과 죽림(竹林)의 벗이 되어 학문에 정진, 크게 문명(文名)을 떨쳤다. **【著書】** 師友言行錄 **【文獻】** 靈山邑誌

**신에 辛齋** ?~1355(공민왕 4) **【고려】** 간신. 본관은 영산(靈山), 충혜왕 때 좌정언(左正言)·지신사(知申事)를 거쳐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1332년(충혜왕

2) 매제인 환관(宦官) 고용보(高龍普)와 함께 왕을 잡아가는 원사(元使)를 도와 주었다. 충목왕 때 최성부 원군(崔成夫院君)에 봉해지고, 고용보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렸다.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신암 申琬** 1646(인조 24)~1707(숙종 33) **【조선】** 문신. 자는 공헌(公獻), 호는 경암(綱庵), 본관은 평산(平山), 여정(汝莖)의 아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정언(正言)이 되고, 서인(西人)으로서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남인(南人)인 권대운(權大運)·허목(許穆)·민희(閔熙) 등의 죄과를 논박했고, 1684년 강양도 관찰사(江襄道觀察使)를 거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대사헌·이조 판서를 역임, 1700년(숙종 26) 우의정에 올랐다. 이 때 서인의 소론(少論)에 속하여 회빈(禧嬪) 장씨(張氏) 처벌에 대해 온건론을 주장했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축조를 진의하여 왕의 승낙을 얻었으나 일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703년 영의정에 올라 평천군(平川君)에 봉해졌다가 1706년 임보(林溥)·이잠(李潛) 등에 의해 앞서 1701년 세자 모해설이 있을 당시의 참국대신(參劄大臣)으로서 사건 규명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파면, 세자(世子:景宗)를 시해(弑害)하려 했다는 탄핵을 받고 대죄(待罪)하다가 병사했다. 시호는 문장(文莊). **【著書】** 網庵集 **【文獻】** 肅宗實錄, 藥坡漫錄, 怨菴集, →사진관

**신요 申樵** 1550(명종 5)~? **【조선】** 문신. 자는 계섭(季涉), 호는 운와(雲臥), 본관은 고령(高靈), 수명(秀溟)의 아들. 1601년(선조 34) 식년문과(式年文科)에, 1608년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각각 병과(丙科)로 급제, 예조 정랑(禮曹正郎)·지평(持平)·사예(司藝)·병조 정랑·직감(直講)·필선(弼善) 등을 지내고 1608년(광해군 즉위) 권신에 아부했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후 여러번 등용되었으나 사퇴했다. **【文獻】**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志

**신용개 申用溉** 1463(세조 9)~1519(중종 14) **【조선】** 문신. 자는 개지(溉之), 호는 이락정(二樂亭)·송계(松溪)·수옹(睡翁), 본관은 고령(高靈), 영의정 숙주(叔舟)의 손자, 민(麟)의 아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1488년(성종 19)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권지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고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 1492년(성종 23)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戊午禍)에 김종직의 문인이라 하여 투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어 직제학(直提學)·도승지(都承旨) 등에 기용되었으나 강직한 성품이 연산군의 비위에 거슬려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영광(靈光)에 유배(流配)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등용되어 이후 형조 참판(刑曹參判)·대제학(大提學)·우참찬(右參贊)·대사헌을 거쳐 이조·병조·예조의 판서를 역임,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1516년 우의정이 되고, 1518년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경(文景). **【著書】** 二樂亭集. **【編書】** 續東文選, 續三綱行實圖 **【文獻】**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신용욱 愼錫項** 1901(광무 5)~1962 실업가. 전북 고창(高敞) 출신. 1922년 일본 오쿠리 비행학교(小栗飛行學校)를 나와 1등 조종사 면허를 얻고, 도요 항공전문학교(東亞航空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미국에 건너가서 1933년 실라벨리콤포터학교 조종과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았다. 그 후 귀국하여 조선비행학교 교

장을 거쳐 1936년 조선 항공사업 주식회사를 설립, 사장이 되었으며, 1942년 조선 항공업 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1945년 대한국민항공사(大韓國民航空社:KNA) 사장이 되어 민간항공계(民間航空界)의 발전에 공헌, 제2대·제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1958년 KN A 여객기 1대가 남북(南北)됨으로써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뒤 계속적인 사업의 실패, 제4대 민의원에의 낙선 등으로 낙심하던 중 재정 궁핍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살했다.

**신우 申祐** **【고려】·【조선】** 효자(孝子). 호는 퇴재(退齋), 본관은 상주(尙州), 판도 판서(版圖判書) 원유(元濡)의 아들. 고려 때 벼슬은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여막(麗幕)에서 3년상을 마치고, 무덤 앞에 쌍죽(雙竹)이 생겼으므로 효성이 지극한 때 문이라고 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태조와 일찍부터 친구간으로서 조선이 개국된 뒤 형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검암서원(檢巖書院)과 상주(尙州)의 속수서원(溲水書院)에 제향(祭享). **【文獻】** 新濟東國輿地勝覽, 大東韻府群玉

**신우현 申禹鉉** 1884(고종 21)~1935 독립운동가. 호는 자운(紫雲). 평북 의주(義州) 출신.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조병준(趙秉準)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 3·1 운동 후에는 만주로 망명, 1920년 관건현(寬甸縣)에서 독립단(獨立團) 단장·평북독립부 내무부장(平北督辦部內務司長)·광복군 참리부(光復軍參理部) 내무부장 등으로 항일운동에 종사하면서 대종교(大倣教)에 입교했다. 이듬해 독립운동 단체에 내분이 일어난 후 수원성(綏遠省)에서 조병준과 함께 의민부(義民府)를 조직하여 활동을 계속하다가 병사했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수여되었다. **【文獻】** 韓國獨立運動史, 大倣教報, 倣史取材稿

**신원록 申元錄** 1516(중종 11)~1576(선조 9) **【조선】** 효자. 자는 계수(季綬), 호는 회당(梅堂), 본관은 아주(龜州), 참봉(參奉) 수(壽)의 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자 팔공산(八公山) 수백리 길을 찾아 약초를 구하여 밤잠을 안 자며 8년간이나 간호했고, 모상(毋喪)을 당하자 눈비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세번씩 성묘(省墓)하는 등의 효행(孝行)으로 조정에 의해 호자문(孝子門)이 세워졌다. 조식(曹植)에게서 학문을 닦다가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하자 찾아가 문하생이 되고, 동료들과 함께 장천(長川)에 서원(書院)을 세우고 김안국(金安國)을 제향(祭享), 장천(長川)이란 단(鵬)을 받았다. 벼슬은 교수(教授)를 지냈다.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추증(追贈), 의성(義城)의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祭享). **【著書】** 梅堂集 **【文獻】** 增補文獻備考, 嶺南人物考

**신원필 申元弼** **【고려】** 폐신(廢臣). 미천(微賤)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공양왕의 참저(潛邸) 시절에 항상 의식(衣食)을 하사(下賜)받으며 함께 학문을 닦았다. 뒤에 문과(文科)에 급제, 부령(副令)에 올라 파직되었다가 1389년 공양왕이 즉위하자 홍복도감 판관(弘福都監判官)으로 기용되었다. 이듬해 경연(經筵)에서 우홍득(禹洪得)·한상경(韓尙敬)과 함께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이 되어 왕의 측근에 있음을 거화로 미신과 혹설(惑說)로 왕을 미혹(迷惑)시켜 비난을 받았다. 뒤에 세자지(世子旨)를 거절 꾸민 죄로 현사(憲司)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했다가 곧 풀려나와 예조 총랑(禮曹總郎)에 승진, 내부령(內府令)에 올라 경연관(經筵官)을 겸

했다. 뒤에 우현보(禹玄寶)의 일파로 탄핵받고 원지(遠地)에 유배당했다. **【文獻】** 高麗史

**신유 申縉** 1769(영조 45)~1847(헌종 13) **【조선】** 문신·시인·서화가.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경수당(警修堂), 본관은 평산(平山), 참판(參判) 연승(年升)의 아들. 1799년(정조 23) 알성문과(諳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계속해서 한직(閑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만 있다가 1813년(순조 13)에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병조 참지(兵曹參知)가 되었다. 곡산 부사(谷山府使)·승지(承旨)를 거쳐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나가 횡포한 토호(土豪)를 누르려다가 실패했고, 병조 참판(兵曹參判)을 거쳐 1828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가 되었으나 그를 총애하던 효명세자(孝明世子)가 1830년 병사하자 사임했다. 그 후 세력을 잡은 척신의 모함이 계속되므로 은퇴했다가 평신진 첨절제사(平薪鎭僉節制使)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으나 강화부 유수 재임시의 독직 사건으로 평산(平山)에 유배, 1년 만에 풀려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1834년 헌종(憲宗)이 즉위하자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인사관리를 공경히 처리하지 않아서 곧 면직되고 다시 임명된 대사간을 사퇴, 병조·호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서울에서 죽었다. 애국 애족적인 그의 시작품 속에는 국산품 애용, 양반 배척, 서얼(庶孽)의 차별대우 철폐, 당쟁의 배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중국의 소식(蘇軾)을 사숙(私淑)하여 체(體)와 형(型)이 갖추어진 독특한 세계를 이루었던 그는 시로써 시를 논평한 평론가이기도 했다. 《동인문시절구 삼십오수(東人論詩絕句 三十五首)》는 신라의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고려를 거쳐 당시까지의 대가들 작품에 대한 대표적 시평(詩評)이었다. 이 밖에 시조 40수를 한시(漢詩)로 번역하여 《소악부(小樂府)》라 이름했으며, 서화(書畵)에도 일가를 이루어 시·서·화 삼절(三絶)로 이름이 높았다. **【作品】** 警修堂全錄, 焚餘錄, 申紫霞詩集 **【文獻】** 正祖·純祖實錄, 朝鮮圖書解題, 車相表:申縉(朝鮮名人傳), 李家源:申縉(韓國의 人間像 第5卷), →사진관

**신유 申澗** 1610(광해군 2)~1665(현종 6) **【조선】** 문신. 자는 군택(君澤), 호는 죽당(竹堂)·이옹(泥翁), 본관은 고령(高靈), 말주(末舟)의 7대손, 기한(起漢)의 아들. 1630년(인조 8) 진사(進士)가 되고, 1636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정언(正言)·지평(持平)을 거쳐 이조 정랑(吏曹正郎)이 되고, 1643년(인조 21)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 후 동부승지(同副承旨)·우승지(右承旨)·도승지(都承旨)를 지내고,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1665년(현종 6)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이 되었고, 소헌세자(昭顯世子)를 따라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글씨를 잘 썼다. **【著書】** 竹堂集 **【文獻】** 仁祖·顯宗實錄, 號譜

**신유 申縉** 1642(인조 20)~? **【조선】** 무신. 자는 유중(柔中), 본관은 평산(平山), 대사성(大司成) 민일(愼一)의 손자, 집의(執義) 명규(命圭)의 아들. 학문에 힘쓰다가 뜻을 바꿔 1673년(현종 14) 무과(武科)에 장원, 영암 군수(靈巖郡守)가 되어 선치(善治)했고, 뒤에 건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690년(숙종 16) 공금 퉁령으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1694년 서용(叙用)되었다. **【文獻】**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신유 申澗** **【조선】** 장군. 본관은 평산(平山), 덕우(德祐)의 아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서 문과(文科)에 수차 낙방 끝에 무과(武科)에 급제, 혜산진 첨전

다녀온 후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지경연사(知經筵事)·공조 판서·경기도 관찰사·대사헌·이조 판서 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문청(文淸). [著書] 翠微集 [文獻] 純祖·憲宗實錄 緝紳實錄

**신재호 申在孝** 1812(순조 12)~1884(고종 21) 【조선】 판소리 작가. 자는 백원(百源), 호는 동리(桐里)·호장(戶長), 본관은 평산(平山), 광흥(光洽)의 아들. 고창(高敞) 출신. 1850년(철종 1)까지 가사에 종사, 가산이 넉넉해지자 판소리 연구에 전심하여 여성을 작품생활에 바쳤다. 1876년(고종 13) 기민(飢民)을 구제할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고, 이어 절충장군(折衝將軍)을 거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품(陞品)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겸직했다. 종래 계통 없이 불려 오던 광대소리를 통일하여 《춘향가(春香歌)》 《심청가(沈淸歌)》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토끼타령》 《적벽가(赤壁歌)》 등 여섯 마당으로 체계를 세우고 그 대문(對問)과 어구(語句)도 실감에 맞도록 고쳐 독특한 창(創意)로 판소리 사설문학(辭說文學)을 대성했다. 특히 《춘향전》 《박타령》 《토끼타령》 《심청전》 등을 창극화(唱劇化)했으며, 그의 전 작품은 서민적인 해학성(諧謔性)과 사실성(寫實性)에 넘치고 있다. 문하에 김세종(金世宗)·정춘풍(鄭春風)·채선·허금 등의 명창을 길렀다. 시문집(詩文集)이 전한다. [작품] 변강쇠(傳, 興甫歌), 허두가, 成道歌, 桃李花歌, 廣大歌, 오설가 [文獻] 平山申氏系譜, 桐里鏡草詩文集, 孫治範: 申在孝와 변강쇠(學術界 1月號, 1958), 朝鮮唱劇史, 姜漢永: 申在孝(韓國의 人間像 第5卷). →사친관

**신철 申哲** 1681(숙종 7)~? 【조선】 문신. 자는 성여(聖與), 본관은 평산(平山), 부사(府使) 서화(瑞華)의 아들. 1718년(숙종 4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정언(正言)이 되고, 이듬해 동지사(多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0년 지평(持平)을 거쳐 정언에 재임되었다가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다. 1721년 헌납(獻納)·응교(應教)·사간(司諫)·결필선(兼弼善)·교리(校理) 등을 역임하다 이듬해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선산(善山)에 유배, 1725년(영조 1) 양이(量移)되고 뒤에 풀려나왔다. 글씨를 잘 썼다. [文獻] 肅宗·景宗·英祖實錄 國朝人物考

**신준 申準** 1628(인조 6)~1687(숙종 13) 【조선】 문신. 자는 백동(伯東), 호는 분에(汾厓), 본관은 평산(平山), 영의정 홍(欽)의 손자, 참판(參判) 익전(翊全)의 아들. 1648년(인조 26)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64년(현종 5) 빙고 별검(氷庫別檢)에 음보(蔭補)되고 이 해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667년 검열(檢閱)·겸설서(兼說書) 등을 역임, 이듬해 지평(持平)·정언(正言)·대교(待教)·주서(注書) 등을 거쳐 1669년 문학(文學)·수찬(修撰), 다음해 응교(應教)·집의(執義)를 지내고 1672년 전라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대사간·대사성(大司成)을 지냈다. 1674년(현종 15)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고 1675년(숙종 1) 남인(南人)들이 집권하고 서인(西人)이 추방될 때 남인 윤류(尹鑄) 등의 탄핵으로 파직당했다가 1678년(숙종 4) 도승지(都承旨)로 등용되었다. 이듬해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이 되었으나 허적(許積)을 탄핵하다 도리어 삭직(削職),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대사헌에 발탁, 사은 겸 진주부사(謝恩兼陳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인경왕후(仁敬王后)가 죽자 빈전도감 제조(賓殿都監提調)를 겸직,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이 되고, 1682년 예조와 공조의 판서, 다

음해 좌참찬(左參贊), 예조와 이조의 판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지냈다. 이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직한 후 1685년 예조 판서에 재임, 다음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로 죽었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문숙(文肅). [著書] 峴崖集 [文獻] 肅宗·肅宗實錄 國朝人物考

**신정립 申挺立** 다 신활(申活) **신정백 申正栢** 1877(고종 14)~1909(융희 3) 【조선】 의병. 자는 정우(正宇), 호는 남강(南岡), 곡성(谷城) 출신. 1908년 의병장 조서화(趙書華)의 휘하에 들어가 곡성·구례(求禮) 등지에서 일본군과 항쟁하다 체포되어 대구(大丘)에서 교수형(絞首刑)을 받았다.

**신정왕후 神貞王后** 1808(순조 8)~1890(고종 27) 【조선】 익종(翼宗:순조의 세자)의 비(妃), 성은 조(趙), 본관은 풍양(豐壤), 풍은부원군(豐恩府院君) 만영(萬永)의 딸. 1819년(순조 19) 세자빈(世子嬪)에 봉해지고 1834년 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왕대비(王大妃)로, 1857년(철종 8)에는 대왕대비(大王大妃)로 각각 진봉(進封)되었다. 1863년 철종이 즉자 왕위 결정권을 가지고 고종을 즉위케 하고 대왕대비로서 수렴정청(垂簾聽政)을 했다. 능은 수릉(綏陵:揚州). [文獻] 純祖·憲宗·高宗紀事, 聯源系譜

**신경하 申靖夏** 1680(숙종 6)~1715(숙종 41) 【조선】 문신. 자는 정보(正甫), 호는 서암(恕庵), 본관은 평산(平山), 영의정 완(完)의 아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檢閱)·설서(說書)·부교리(副校理) 등을 역임했다. 1715년 헌납(獻納)에 제직중 유상기(俞相基)가 간행한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발문(跋文)에 소론(少論)의 영수 윤증(尹拯)을 비난한 사실로 당쟁이 격화될 때 발문의 필자인 노론(老論)의 정호(鄭維)를 탄핵하다가 숙종이 소론을 추방하자 파직당했다. [著書] 恕庵集 [文獻] 肅宗實錄 楓巢集

**신정희 申正熙** 1833(순조 33)~1895(고종 32) 【조선】 장군. 자는 중원(中元), 호는 향농(香農), 본관은 평산(平山),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헌(憲)의 아들. 무과(武科)에 급제, 1877년(고종 14)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을 역임, 이듬해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인천(仁川)에 새로이 보(堡)를 쌓고 포대(砲臺)를 축조했다. 1880년 통리기무아문 당상(統理機務衙門堂上), 이듬해 형조 판서, 1882년 다시 어영 대장, 이해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그 책임을 지고 전남 입자도(荏子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이듬해 향리(鄕里)에 방축(放逐)되었다가 1884년 석방되어 친군 후영사(親軍後營使)가 되었다. 1894년 친군 통위사(親軍統衛使)·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로서 일본공사 오오보리(大鳥圭介)와의 내정개혁안(內政改革案) 협의(協議)가 결정되자 주둔중인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했으며, 이어 통위사(統衛使)를 지냈다. 시호는 정익(靖翼). [編書] 訓練都監重記 [文獻] 日省錄, 承政院日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金鰲錄, 朝鮮圖書解題. →사친관

**신조 神照** 【고려】 중. 자립사(覺林寺)의 증으로 공민왕의 총애(寵愛)를 받았고, 우왕 때 이성계(李成桂)의 휘하에서 전공(戰功)을 세웠다. 공양왕으로부터 공패(功牌)를 받았으며, 수원 만의사(萬義寺)의 주지로 있었다. [文獻] 高麗史 朝鮮佛教通史

**신종 神宗** 1144(인종 22)~1204(신종 7) 【고려】 제20대 왕. 재위 1197~1204년. 이름은 탁(暉), 조명은 민(敏), 자는 지화(至華), 인종의 다섯째 아들. 1154년(의종 8) 평량후(平涼侯)에 책봉되었다가 1197년(명종 27) 왕이 최충헌(崔忠獻)에 의해서 폐위되자 왕으로 옹립되었다. 즉위한 해 만적(萬積)의 난을 비롯하여 이듬해에는 강원도 명주(溟州), 계속하여 진주(晋州)·금주(金州:金海)·함천(陝川)·경주(慶州)·광주(廣州) 등지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났고 국권은 최충헌의 수중에 들어갔다. 1204년 병이 심하므로 태자(太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시호는 정효(靖孝), 능은 양릉(陽陵:開城).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신중호 申從漢** 1456(세조 2)~1497(연산군 3) 【조선】 문신. 자는 차소(次韶), 호는 삼괴당(三魁堂), 본관은 고령(高靈), 여의정 숙주(叔舟)의 손자, 주(澍)의 아들. 1474년(성종 5) 진사시에 장원, 1480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이듬해 친추사(千秋使) 홍기달(洪貴達)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수찬(修撰)·교리(校理)를 지냈다. 1486년 부응교(副應教)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 과거(科擧)가 생긴 이래 세번 장원은 처음 일이라 하여 칭송을 받았다. 이듬해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찬(撰)한 공으로 녹비(鹿皮)를 하사받았고 왕명으로 요동(遼東)에 가서 한어(漢語)를 습득, 1489년에 부제학(副提學)이 되었으며 1490년(성종 21)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이듬해 대사헌으로 북호(北胡)의 변경(邊境) 침입사건을 어전에서 논의할 때 영의정을 모욕한 죄로 파면되었으나 다시 등용되어 도승지·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병조·예조·이조의 참판(參判),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지냈다. 1496년(연산군 2) 병을 무릅쓰고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도중 개성(開城)에서 죽었다. 문장(文章)·시(詩)·글씨에 뛰어났다. [著書] 三魁堂集 [文獻]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國朝人物考

**신좌모 申佐模** 1799(정조 23)~1877(고종 14) 【조선】 문신. 자는 라인(左人), 호는 담인(澹人), 본관은 평산(平山), 헌록(憲祿)의 아들. 1835년(헌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849년(철종 즉위) 집의(執義)를 거쳐 사간(司諫) 등을 지내고, 1855년 진향사(進香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과시(科詩)에 능했다. [文獻] 哲宗實錄

**신준 申浚** 1444(세종 26)~1509(중종 4) 【조선】 문신. 자는 언시(彦施), 호는 나현(懶軒), 본관은 고령(高靈), 영의정 숙주(叔舟)의 아들. 1464년(세조 10) 무장 현감(茂長縣監)이 되고 1470년(성종 1)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거쳐 이듬해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올랐다. 1472년 병조 참의(參議), 1477년 도승지(都承旨), 1480년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지내고 고양군(高陽君)에 봉해졌으며, 친추사(千秋使)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482년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영안도 관찰사 겸 영흥 부윤(永安道觀察使兼永興府尹), 평안도 관찰사, 이조·공조의 판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대사헌·우참찬(右參贊)·좌참찬을 지내고,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의 공으로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시호는 조안(昭安). [文獻]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沖齋集

**신준미 申遵美** 【조선】 학자. 자는 사휴(仕休), 본

관은 평산(平山), 별제(別提) 원(援)의 아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 1519년(중종 14) 현량과(賢良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이 해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현량과(賢良科)가 폐지되자 은거(隱居), 1545년(명종 즉위) 현량과의 복수로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가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금강(錦江) 상류에 한림정(翰林亭)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文獻] 明宗實錄, 國朝人物志, 國朝榜目

**신중전 申仲佐** 【고려】 무신. 충혜왕 복위 초에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올랐으며, 1354년(공민왕 3)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를 거쳐, 이 해 전라도 도순문사(全羅道都巡問使)가 되어 왜구(倭寇)를 방어하였다. [文獻] 高麗史

**신지제 申之悌** 1562(명종 17)~1624(인조 2) 【조선】 문신.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 본관은 아주(鰲州).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정언(正言)·예조 좌랑(禮曹佐郎)·문학(文學)을 역임, 1613년(광해군 5) 창녕부사(昌寧府使)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던 도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인조 초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의성(義城)의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祭享). [著書] 梧峰集 [文獻] 宣祖實錄, 嶺南人物考, 朝鮮圖書解題

**신집 申楫** 1580(선조 13)~1639(인조 17) 【조선】 문신. 자는 여섭(汝涉), 호는 하음(河陰), 본관은 영해(寧海), 주부(主簿) 경남(慶男)의 아들. 정경세(鄭經世)의 문인.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전적(典籍)을 지낸 후 광해군 때 실정이 거듭되자 벼슬을 버리고 명승지(名勝地)를 찾아 유랑,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강원 도사(江原都事)로 종군,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는 의병장이 되었고,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르렀다. 주자학(朱子學)을 비롯하여 의학(醫藥)·복서(卜筮)·지리(地理)·천문(天文) 등에 통달했다. [文獻] 廣淵集

**신집평 慎執平** ?~1258(고종 45) 【고려】 무신. 1250년(고종 37) 장군(將軍)으로 대장군(大將軍) 이세재(李世材)와 함께 승천부(昇天府)에 파견되어 임해원(臨海院) 옛터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뒤에 대장군에 올랐으며, 1256년(고종 43) 몽고 장군 차라다이(車羅大)에게 가서 화의(和議)의 조건을 협의했다. 1258년(고종 45)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재직중 몽고의 대군이 침입하자 백성들을 이끌고 저도(猪島)에 들어가 수비하였고, 다시 죽도(竹島)에 들어갔으나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조휘(趙暉)·탁청(卓淸) 등에 의해 등주 부사(登州副使) 박인기(朴仁起), 화주 부사(和州副使) 김선보(金宣保) 등과 함께 살해당했다. [文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신재호 申采浩** 1880(고종 17)~1936 독립운동가·사학자·언론인. 호는 단재(丹齋), 본관은 평산(平山), 충북 청주(淸州) 출신. 어려서부터 독서에 열중, 제가(諸家)의 책을 박람(博覽)했고 20세에 성균관 박사(博士)를 지냈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논설을 쓰고, 《독사신문(讀史新論)》을 발표하는 한편 영웅전을 써서 민족의식의 앙양과 독립정신의 고취에 힘썼으며, 1907년 신민회(新民會)에 가입, 국제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참가했다. 1910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해조신문(海潮新聞)》을 발간, 다시 상해(上海)와 북경(北京)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만주의 고

신. 1567년(명종 22) 무과(武科)에 급제, 조산 만호(造山萬戶)를 지내고,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경력(經歷)을 역임했다. 뒤에 낙안 군수(樂安郡守)로 있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견내량(見乃梁)·안골포(安骨浦) 등의 해전에서 공을 세워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교통산성 수어사(蛟龍山城守禦使)로서 남원성(南原城)이 포위되자 이를 지원하려 갔다가 전사했다.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 형조 판서로 추증(追贈), 남원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祭享), 시호는 무장(武壯). [文獻] 宣祖實錄, 國朝人物考

**신혼 申混** 1624(인조 2)~1656(효종 7) [조선] 문신·화가. 자는 원택(元澤), 호는 초암(初庵:草庵), 본관은 고령(高靈), 숙주(叔州)의 7대손, 기한(起漢)의 아들. 1644년(인조 2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650년(효종 1) 봉교(奉敎), 이어 정언(正言)·수찬(修撰)을 역임한 뒤 1654년 안주 교수(安州敎授)가 되었다. 1656년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다시 수찬이 되었다. 문명(文名)이 있었고, 그림에도 뛰어났다. [著書] 初庵集 [文獻] 孝宗實錄, 海東號譜, 橫城書畫徵

**신홍망 申弘望** 1600(선조 33)~? [조선] 문신.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州), 승지(承旨) 지계(之攄)의 아들. 의성(義城) 출신. 1627년(인조 5)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천거로 참봉(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1639년(인조 17)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1646년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어 사헌부(司憲府)에 재직중 도승지(都承旨) 이시모(李時模)의 탄핵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1652년(효종 3) 지평(持平)이 되고, 이 해 호당(護黨)의 죄로 원배(遠配), 후에 풀려나와 1659년 풍기 군수(豊基郡守)가 되었다. [著書] 孤松集 [文獻] 仁祖·孝宗實錄, 嶺南人物考

**신홍식 申洪植** 1872(고종 9)~1937 독립운동가. 33인의 한 사람. 충북 청주(淸州) 출신. 30세에 기독교에 입교, 1913년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로 충남 공주(公州)에서 종교운동에 헌신했고, 3·1 운동 때는 평양 남산전 교회(南山觀敎會) 목사로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 2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에도 인천(仁川)·원주(原州) 등지에서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文獻] 三一運動秘史

**신홍주 申鴻周** ?~1829(순조 29) [조선] 무신. 자는 의지(儀之), 본관은 평산(平山), 방어사(防禦使) 대준(大準)의 아들. 무과(武科)에 급제, 1811년(순조 11)에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이 되었다가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 반군(叛軍)에게 항복한 이근주(李近胄) 대신 정주 목사(定州牧使)가 되고, 이어 영변 부사(寧邊府使)가 되어 난의 진압에 공을 세웠다. 이듬해 평안도 병마절도사에 승진, 1824년 어영대장(御營大將), 이어 훈련대장(訓練大將)을 거쳐 호군(護軍)을 지냈다. [文獻] 純祖實錄 →사진관

**신화 信和** 1658(효종 9)~1737(영조 13) [조선] 중. 호는 자옹(慈應), 성은 이(李), 본관은 진주(晉州), 사남(四男)의 아들. 10세에 벽운(碧雲)에게서 중이 되어 추봉(秋鳳)의 법을 이어받았다. 삼승(三乘)의 묘지(妙旨)를 연구하고, 40년 동안 포교에 힘썼다. [文獻] 朝鮮佛敎通史

**신화 申瑗** 1652(효종 3)~1698(숙종 24) [조선] 문신. 자는 공미(公美), 본관은 평산(平山), 부사(府使) 여철(如哲)의 아들. 1669년(현종 10)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김수홍(金壽興)의 천거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뒤에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으로 나갔다가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공조 좌랑(工曹佐郎)·통진 현감(通津縣監)·민천 군수(沔川郡守)·형조 정랑(刑曹正郎)·연안 부사(延安府使)를 거쳐 1698년(숙종 24)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에 올랐다. 큰 글씨를 잘 썼다. [作品] 蘭寺: 知教寧府事申京禮表文(慶州), 完山伯尹鳴岐碑 [文獻] 肅宗實錄, 明谷集, 朝鮮金石總覽

**신활 申活** 1576(선조 9)~1643(인조 21) [조선] 학자. 초명은 정립(挺立), 자는 경탁(景卓:景濶), 호는 죽로(竹老), 본관은 평산(平山), 준민(俊民)의 아들. 임진왜란 후 학문열이 해이해지자 단산서원(丹山書院)을 세워 학문을 장려했다. [著書] 竹老集 [文獻] 古鮮雜譜

**신활 申瑛** [조선] 애국지사. 청주(淸州) 출신. 1905년 서울에서 동우회(同友會)에 참가, 이동녕(李東寧)과 함께 이완용(李完用)의 집을 습격했고, 1907년 가을에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부하 수백명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웠다.

**신희 申晦** 1706(숙종 32)~? [조선] 문신. 자는 여근(汝根), 본관은 평산(平山),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사철(思詰)의 아들. 1741년(영조 17) 진사(進士)가 되고, 1743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수찬(修撰)·교리(校理)·승지(承旨) 등을 역임, 1750년(영조 26)에 생진시(生進試)의 합격자 발표 절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가 중성(鍾城)에 유배되었다. 1755년 병조 판서에 승진,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어 영조가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위주에 가두어 죽일 때 이에 동조했다. 이어 황해도 관찰사·이조 판서 등을 지내고 1772년(영조 48) 우의정에 올랐다가 영의정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776년(영조 52)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고부 겸 청시승습사(告訃兼誦諱承襲使)에 임명되었으나 장헌세자를 죽일 때 동조한 죄로 파직, 이어 홍주(洪州)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1784년(정조 8) 복관(復官)되었다. [文獻] 英祖·正祖實錄

**신호 申曉** [조선] 문신. 호는 효재(曉齋)·효창(曉窓)·만창(晩窓)·서호산인(西湖散人), 본관은 평산(平山), 안(晏)의 아들. 좌의정 개(槩)의 동생. 1402년(태종 2)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1404년 우정언(右正言)으로 노이(盧異)·이양명(李陽明) 등과 궁중(宮中)의 금사(禁事)를 발설하여 탄핵을 받고 연안(延安)에 유배, 1406년 풀려나와 은퇴, 행주(幸州)에 은거했다. 1426년(세종 8) 교수관(敎授官)이 되었으며, 81세에 죽었다. [文獻] 太宗·世宗實錄, 國朝朝目

**신호범 申孝範** 1878(고종 15)~1929 독립운동가. 황해도 신천(信川) 출신. 1907년 김구(金九)·안중근(安重根) 등과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고, 1911년에는 105인 사건으로 피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920년 김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 하여 4년간 복역, 1926년 6·10 만세운동 때 진두지휘를 하다가 돈화문(敦化門) 앞에서 체포되어 복역, 1929년에 출옥했으나 유고(獄苦)로 병사했다. [文獻] 鮮于樞: 民族의 受難

**신효중 申孝仲** 1536(중종 31)~? [조선] 시예가. 자

는 군우(君友), 본관은 평산(平山), 김노(金魯)의 사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도사(都事) 등을 거쳐 서윤(庶尹)에 이르렀다. 해서(楷畫)·초서(草書)에 뛰어났다. [作品] 李郡守漢墓碑(慶州), 尹領相毀墓碑(揚州), 披林君墓碑(高陽), 李恩恭墓碑(禮山) [文獻] 明宗實錄, 橫城書畫徵, 朝鮮金石總覽

**신후담 慎後聃** 1702(숙종 28)~1761(영조 37) [조선] 학자·문인. 자는 이로(耳老), 호는 하빈(河濱)·돈와(慇窩), 본관은 거창(居昌), 좌의정 수근(守勤)의 후손. 이익(李滉)의 문인. 도가(道家)·불가(佛家)·병가(兵家)에 이르기까지 통달했다. 20세에 진사(進士)가 된 후 계속 학문에만 정진, 저술이 1백여권에 이르렀다. 당시 서양의 학문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자 《서학번(西學辨)》을 지어 이를 비평했고, 또한 소설 문학에도 일가를 이루어 《금화외편(金華外篇)》《속연선전(續列仙傳)》《태평유기(太平遺記)》《홍강전(紅粧傳)》《남흥기사(南興記事)》 등의 한문소설을 남겼다. [著書] 河濱集 [文獻] 國朝人物志, 洪以燮: 實學의 理念의 一貌—河濱慎後聃의 西學辨의 紹介—(人文科學 第1輯). →사진관

**신후재 申厚載** 1636(인조 14)~1699(숙종 25) [조선] 문신. 자는 덕부(德夫), 호는 규정(葵亭)·서암(愬庵), 본관은 평산(平山), 현감 항구(恒菊)의 아들. 1660년(현종 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승문원(承文院) 벼슬에 등용되었다가 지평(持平)·부교리(副校理)를 지내고, 1679년(숙종 5)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南人)이 제거될 때 삭직,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우승지(右承旨)·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했다. 그 뒤 사은 겸 진주주정부사(謝恩兼陳奏奏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지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자 서인(西人)에 의해 여주(驪州)에 유배, 1697년 석방되었으나 은퇴하여 충주(忠州) 오갑장(鰲甲庄)에 들어가서 학문에만 전심했다. [著書] 葵亭集 [文獻] 肅宗實錄, 星湖文集

**신홍 申欽** 1566(명종 21)~1628(인조 6) [조선] 학자·문신.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현현(玄軒)·현옹(玄翁)·방옹(放翁), 본관은 평산(平山), 개성 도사(開城都事) 승서(承緒)의 아들. 1585년(선조 18) 진사(進士)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학유(學諭)·경원 훈도(慶源訓導)·감찰(監察)·병조 좌랑(兵曹佐郎)을 역임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양재도찰방(良才道察訪)으로 삼도 순번사(三道巡邊使) 신임(申稔)을 따라 조령(鳥嶺) 전투에 참가, 신임이 패하자 강화(江華)에 들어갔다가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뒤에 지평(持平)·사성(司成)·대사간·부제학(副提學)·도승지(都承旨)·병조 판서를 지내고 1608년(광해군 즉위) 대사헌으로 세자책봉추정사(世子册封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했다.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철신(遺教七臣)의 한 사람이므로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파직, 1617년 춘천(春川)에 유배되었다. 1621년 풀려나와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후 이조 판서가 되어 대제학을 겸했으며, 노서(老西)의 증진(重鎭)으로 우의정을 거쳐 1627년(인조 5) 좌의정(左議政)이 되고 이 해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세자(世子)를 모시고 전주(全州)에 피난, 돌아와서 영의정에

올랐다. 정주학자(程朱學者)로 문명이 높았고, 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漢文學)의 대두(泰斗)로 일컬어진다. 글씨를 잘 썼다. 인조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시호는 문정(文貞). [著書] 象村集, 野首求正錄, 春城錄, 晴窓叢談, 征倭雜志, 山中獨言, 耳目所及, 公餘雜載, 勝國遺事, 先天管窺 [文獻]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사진관

**신홍우 申興雨** 1883(고종 20)~1959 정치가·기독교인. 서울 출신. 한학(漢學)을 배우다가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졸업한 후 1896년(건양 1) 서재필(徐載弼)·이승만(李承晩) 등과 협성회(協成會)를 조직, 근대화 운동을 벌였다. 그 후 미국에 가서 남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1911년 배재학당의 제3대 교장이 되고, YMCA 간부로서 기독교를 통한 민족운동에 투신했다. 1920년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 창립 발기인으로 참가했고, 이어 제7대 조선체육회장에 선임되었으며, 1927년 이상재(李商在) 등과 신간회(新幹會)를 조직, 민족운동을 지도했으며, 1930년 모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32년 YMCA 총무가 되어 종교운동과 청년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특명 전권대사 겸 주일대표부 대사(駐日代表部大使)를 지내고, 1949년 제4대 대한체육회장이 되었다. 1920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기독교 관계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때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사진관

**신희남 慎喜男** 1523(중종 18)~1597(선조 30) [조선] 문신. 자는 길원(吉遠), 호는 영계(靈溪), 본관은 거창(居昌), 관찰사 기(幾)의 현손(玄孫). 어려서부터 시(詩)와 글씨에 뛰어나 명필 한호(韓濩)에게도 서예(書藝)를 가르쳤다. 1543년(중종 38) 진사(進士)가 되고, 1555년(명종 1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570년(선조 3)에 수찬(修撰)을 거쳐 장령(掌令)·사간(司諫)을 지내고 이듬해 통부시정(宗簿寺正)으로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했다. 좌승지(左承旨)·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1576년(선조 9) 병조 참의(兵曹參議)가 되고 1581년에 성절사(聖節使)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가지 못했다. 그 후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당쟁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갔다. [文獻] 宣祖實錄, 本菴集. →사진관

**신희복 慎希復** 1493(성종 24)~1565(명종 20) [조선] 문신. 자는 양숙(養叔), 호는 관천자(觀泉子)·매천(梅川), 본관은 거창(居昌), 현감(縣監) 돈(敦)의 아들. 중종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명종이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 사부(師傅)가 되었고, 1548년(명종 3) 앞서 사부를 지낼 때의 공으로 군기시 판관(軍器寺判官)이 되었다. 1550년 호조 정랑(戶曹正郎)으로 내승(內乘)을 겸했고, 1553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당시 한말이 심하여 백성들의 동요가 심하므로 금산 군수(鎭山郡守)가 되어 이를 무마했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황해도 관찰사·병조 참판(兵曹參判)·경기도 관찰사·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를 거쳐 1563년(명종 18) 우참찬(右參贊)으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서 성수침(成守琛)·김안국(金安國) 등과 사귀었으며, 당대의 대학자(大學者)로 이름을 떨쳤다.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장경(莊靖). [文獻]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실성왕 實聖王** ?~417(실성왕 16) [신라] 제18대 왕. 재위 402~417년. 원래의 왕호는 실성이사금(實聖尼師).



姓	本貫	始 祖			備 考	姓	本貫	始 祖			備 考	
		名	官 爵	時代				名	官 爵	時代		
魯	光州 交河	*啓	監門衛大將軍 統合三韓功臣	高麗 "	安康에서分籍	閔	黃蘆州	*弘宰 *存壽備	主簿 生員 戶長 中郎將	高麗 "	景明王後孫	
		恕康弼	監門衛大將軍 統合三韓功臣	高麗 "				密陽	彥孚	門下侍中 府院君		高麗 "
		*承緒 *怡朝	太子太師 典書 宰臣 尙書	高麗 "				潘南	應珠 奇暗	戶長 三韓大臣 司左		高麗 "
		長淵	國子進士 直長同正	高麗 "				竹山	*天柱	司左 三韓大臣 大提學		高麗 "
		豐安	版圖判書 同知	高麗 "				咸陽	善淑 淑眞	大提學 副會 戶長		高麗 "
		慶州	版圖判書 同知	高麗 "				高靈	*與仁 *允昇	國子祭酒 德泉會副使		高麗 "
		安東	版圖判書 同知	高麗 "				務安	進賢 奇有華	監門衛大將軍 副正		高麗 "
		山城	版圖判書 同知	高麗 "				原昌	玄柱 *子回	監門衛大將軍 副正		高麗 "
		龍城	版圖判書 同知	高麗 "				義昌	用材 成進正	監門衛大將軍 副正		高麗 "
		海州	版圖判書 同知	高麗 "				忠陰	雲峰 春川	監門衛大將軍 副正		高麗 "
靈童	版圖判書 同知	高麗 "	蔚山	仲華 恒(甫)	監門衛大將軍 副正	高麗 "						
段	延安	由仁 *景鐵	縣監 進士	朝鮮 "	本래中國人	朴	寧靈	寧靈 丘燕	蔚山 固蔚	高麗 "		
唐	密陽	誠 *孝利 *孝元	恭安府尹 主簿 郡守	朝鮮 "				比安	彥宗	精 精	蔚山 州州	高麗 "
都	星州	順 *禧 *福	典理尙書 臨瀛侯 政丞	高麗 "				江陽	城州	得 得	蔚山 州州	高麗 "
獨孤	廣陵	潤						平山	山	山	蔚山 州州	高麗 "
杜	杜山	景升	平章事	高麗 "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馬	木川	占中 智伯	雜職隊正 國子博士	高麗 "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孟	新昌	義	議郎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明	西蜀	玉珍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牟	晉州	恂	僕射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陸	泗川	孝基	郎將					蔚山	蔚山	蔚山	蔚山 州州	高麗 "
文	南平	多省	壁上功臣 南平伯	新羅 "	本래 金氏	潘	巨濟	阜 *永 *得 *亨 *孟 *詠 *思 *察	左司議大夫 戶長 大司憲 司正 倉使 典書 工曹判書 縣監	高麗 "		
		丹城	益漸 尙書	高麗 "				光州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安東	益漸 尙書	高麗 "				溫陽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寧城	益漸 尙書	高麗 "				尙州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保寧	益漸 尙書	高麗 "				南陽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綾羅	益漸 尙書	高麗 "				水原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開善	益漸 尙書	高麗 "				慶州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善山	益漸 尙書	高麗 "				房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江陵	益漸 尙書	高麗 "				夏	雲 *曙 *仲 *希 *希 *迪	左僕射 版圖判書 司正 軍器寺少尹 太常卿	高麗 "	
		甘泉	益漸 尙書	高麗 "								
長淵	益漸 尙書	高麗 "										
門	仁川	必大 *思明	監門衛郎將 侍御史	高麗 "	本래 平山人	申	平山	崇謙	開國壁上功臣 三韓大臣 太師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天安	周錫 周錫	太保 權知戶長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稱道 *世榮 *昇 *令 *志 *詩	尙衣奉御 工曹典書 祭酒 祭酒 祭酒	高麗 "				高靈	成用	檢校軍器監 尙書 密直副使 密直使	高麗 "	

姓	本貫	始 祖			備 考	姓	本貫	始 祖			備 考
		名	官 爵	時代				名	官 爵	時代	
石	花國 忠州	汝明 骨	集賢殿提學 密直使	高麗 "	與海에서分籍	石	花國 忠州	汝明 骨	集賢殿提學 密直使	高麗 "	
		昔	月城	脫解				新羅	新羅第四代王		
		宣	寶城	允祉 *靜輔 *之哲 *直桂 *天桂				按廉使 典書 典書 典書 典書	朝鮮 高麗 高麗		
		鮮	太原	仲							
		僕	慶州	文質				參知政事			
		薛	慶州	聰 *公裕 *仁孫				翰林 將作監 尙書	新羅	聰의 曾孫	
		成	昌寧	仁輔				戶長 中尹			
		蘇	晉州	茂崇 *禹錫				同知樞密院事 承文判校	高麗 朝鮮		
		孫	慶州	順 *才 *賢 *仁 *亮 *正 *澤 *順 *光 *裕 *漢				國子進士 政堂文學 密城君 檢校軍器監 殿中給事	新羅 高麗 高麗	本래 葡氏	
		夫	濟州	乙那					耽羅	楊州 幸州 義城에서分籍	
扶餘	百濟	溫祚		百濟	百濟始祖						
		實	壽城	于光	翰林學士	高麗	靈光 大丘 安州에서分籍				
		尙	木川	國珍	戶長						
		利川	神逸 *穆 *珖 *玟 *諷 *翼 *開 *晉 *稜 *寶 *俊 *邦 *儒	阿干 禮賓卿 少卿 軍器少尹 版圖判書 侍中	新羅 高麗						
		達城	長城 連平	中郎將 左政丞							
		南陽	溫祚								
		南陽	溫祚								
		南陽	溫祚								
		南陽	溫祚								
		南陽	溫祚								
西門	安陰	瑗	進士								

編纂委員

文學博士 成均大教授	李熙昇	哲學博士 서울大教授	朴鍾鴻
文學博士 서울大教授	李相佰	文學博士 中央大教授	白鐵
서울大教授	韓沽勳	서울大教授	鄭炳昱

# 韓國人名大事典



1979. 2. 25. 印刷 / 1979. 3. 10. 發行

編者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發行者 李 鍾 翊

印刷處 三省印刷株式會社

發行處 新丘文社化

私書函 서울光化門局320號

登錄 1961. 12. 28. 가 第1-70號

값 22,000 원

海錄』을 저술하고 晩年에 文科에 장원, 承旨를 지내고 詩·書·畫의 三絶로 불린 石北 申光洙는 申叔舟의 十代孫이다.

近世人物로는 風俗畫家로 이름났던 蕙園 申潤福, 前 上海臨時政府의 外務總長을 지낸 院觀 申圭植, 史學者요 言論人이었던 丹齋 申采浩, 己未 民族代表 三三人의 一人으로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申洪植 등이 있다.

丹齋申采浩  
退齋申祐  
鵝州申氏 始祖는 高麗 때 權知戶長 申英美이다. 鵝州申氏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高麗 말기에 孝子 申祐(號 退齋)가 나타난 이후의 일이다. 申祐는 忠惠王 때 全羅道按廉使를 지내고 그의 父 版圖判書 申允濡가 죽자 三年간 廬幕에서 지냈는데 무덤 앞에 雙竹이 나므로 그의 孝를 기리어 旌閭가 세워졌다. 그 遺墟인 慶北 義城에는 지금도 孝子碑가 남아 있고 후손이 이 지방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李朝시대에도 크게 벼슬한 이는 없으나 學者와 清直·孝行으로 이름을 나타낸 사람이 많다. 그 대표적 인물로는 申元祿과 그의 손자 申適道·申達道·申悅道 三형제, 그리고 申之悌·申弘望 父子를 꼽을 수 있다.

晦堂申元祿은 申祐의 七代孫으로 일찍이 南溟 曹植에게 학문을 배우고 愼齋 周世鵬의 門下에서 性理學을 연구한 明宗~宣祖代의 學者로서 長川書院을 세워 慕齋 金安國을 享祀했으며, 孝行이 뛰어나 孝子旌門이 세워졌다.

晦堂의 손자인 虎溪 申適道도 또한 學問과 孝行이 뛰어나고 丁卯胡亂 때 義兵을 일으켰으며 察訪을 지냈다. 그 아우 申達道(號 晩悟)는 月川 趙穆과 旅軒 張顯光의 門人으로 仁祖 元年 庭試文科에 급제하여 三司를 역임하고 掌令을 지냈으며, 丁卯胡亂 때 江都에 扈從, 斥和를 주장했다. 申悅道(號 懶齋)는 晩悟의 동생으로 또한 旅軒에게 수일하여 文章으로 유명하고 仁祖 二年 文科에 급제하여 二〇년간 臺諫·侍從과 六曹의 郎官을 歷任하면서 直言으로 有名하고

虎溪申適道  
晩悟申達道  
懶齋申悅道

四子胡亂 때 南溟山城에 避居하여 斥和를 주장, 慕齋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온 후 掌令을 거쳐 職

梧峰申之節

河陰 中楫

梧峰申之節은 申祐의 十代孫으로 宣祖二二二년 文科에 급제하여 仁祖代까지 三〇이년 동안 內外의 職을 역임하고 同副承旨를 지냈는데 壬辰倭亂 때 禮安縣監으로 縣軍을 지느리고 龍仁사 음에 참전하여 宣武·扈從의 두 原從功臣이 되었다. 梧峰의 아들 申弘望(號 孤松)은 仁祖 때 文科에 급제하여 顯宗 때까지 臺諫과 守令·持平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寧海申氏의 申楫·申維翰 등도 이름났다. 宣祖 때 主簿를 지낸 慶男의 아들인 河陰申楫은 鄭經世 門人으로 宣祖 三九년 文科에 급제, 典籍을 지낸 후 光海君의 失政으로 벼슬을 버리고 山林에 묻혀 살다가 丁卯·丙子 兩亂에 倡義하여 많은 功을 세우고 司僕寺正을 역임했는데, 朱子學을 비롯하여 醫藥·卜筮·地理·天文에 精通했다. 또 靑泉 申維翰은 肅宗 三九년 文科에 급제, 製造官에 올라 通信使 洪致中을 따라 日本에 다녀와서 奉常寺僉正을 역임했는데, 文翰으로 이름높았다.

끝으로 李朝 文科(大科) 급제자는 총 三〇二명인데, 本貫別로는 △平山 一八六명 △高靈 九二명 △鵝州 八명 △寧海 五명 △殷豐 二명, △谷城 一名, 本貫未詳이 八명이다.

□歷代主要人物(平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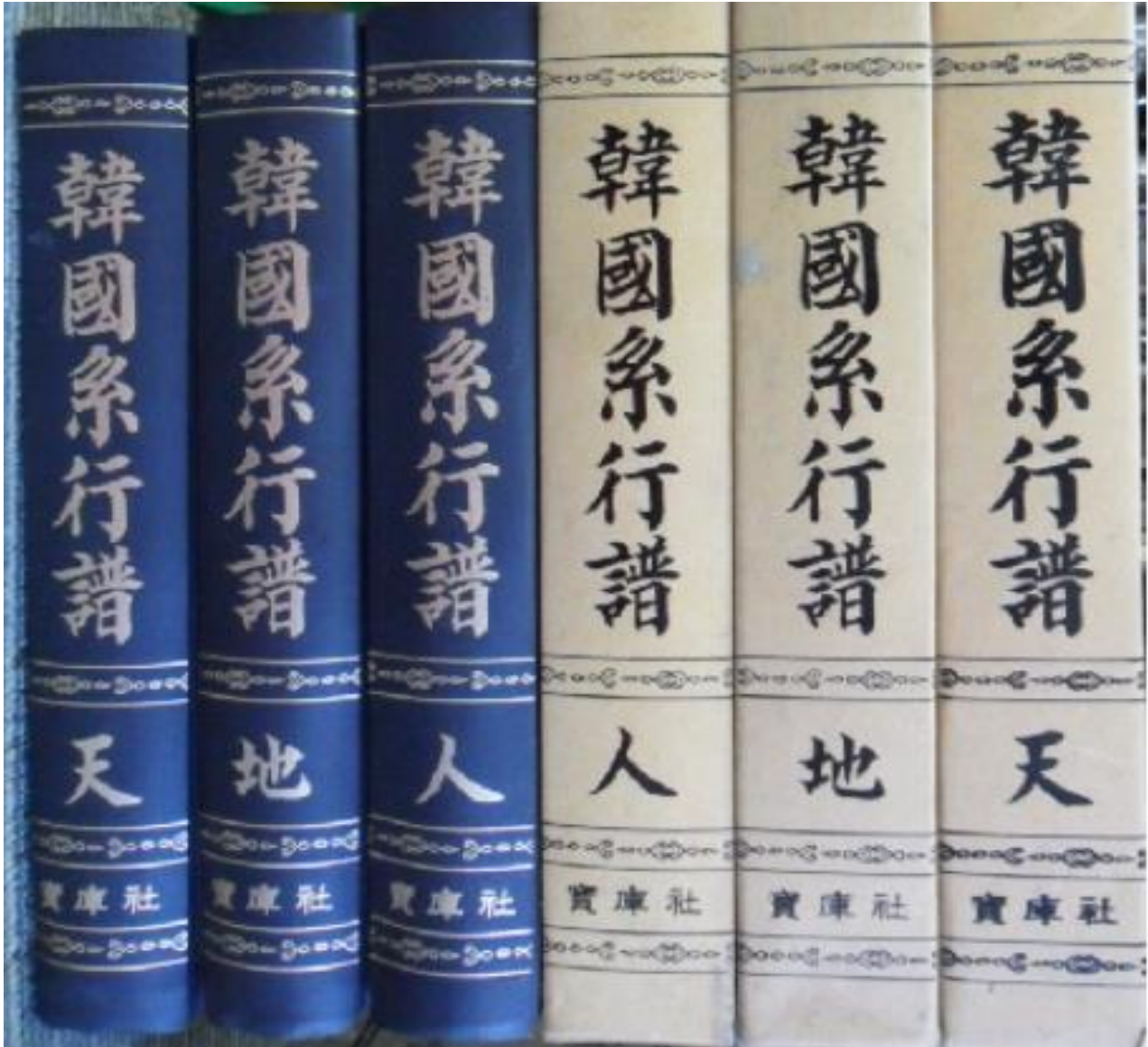
- |                |               |              |                |
|----------------|---------------|--------------|----------------|
| 申崇謙(太祖朝·太師·始祖) | 申君平(恭愍朝·御史大夫) | 申晏(恭愍朝·杜門節臣) | 申雅(恭愍朝·同知密直)   |
| 申孝昌(太祖朝·戶判)    | 申浩(世宗朝·戶判)    | 申槩(世宗朝·左議政)  | 申曉(世宗朝·正言)     |
| 申世霖(世宗朝·書家)    | 申自準(世祖朝·觀察使)  | 申自繩(世祖朝·大司成) | 申叔彬(成宗朝·學者)    |
| 申錦(中宗朝·吏判)     | 申攄(中宗朝·執義)    | 申命仁(中宗朝·學者)  | 申遵美(中宗朝·翰林)    |
| 申瑛(明宗朝·右參贊)    | 申秀誠(明宗朝·學者)   | 申孝仲(明宗朝·名筆)  | 申師任堂(明宗朝·女流文人) |
| 申汝儻(明宗朝·吏參)    | 申義忠(明宗朝·通禮)   | 申經(宣祖朝·牧使)   | 申浩(宣祖朝·守禦使)    |
| 申璽(宣祖朝·兵使)     | 申礪(宣祖朝·兵判)    | 申礪(宣祖朝·繕工監役) | 申礪(宣祖朝·都巡邊使)   |
| 申恪(宣祖朝·副元帥)    | 申點(宣祖朝·禮判)    | 申結(宣祖朝·守禦使)  | 申慄(光海朝·禮參)     |
| 申夢憲(光海朝·武官)    | 申忠一(光海朝·副總管)  | 申景禧(光海朝·副總管) | 申欽(仁祖朝·領議政)    |

文科 三〇二名

高麗 李朝

한국계행보(韓國系行譜)

상세서지



본 문

한국계행보(韓國系行譜) 天,地,人 3冊, 寶庫社 조용승

족보 관련 도서로 많은 성씨가 각 파마다 나뉘어져 있고,

家乘처럼 直系 위주로 기록해놓아 祖孫關係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문인들의 家系圖를 조사하는 데 이것보다 편리한 책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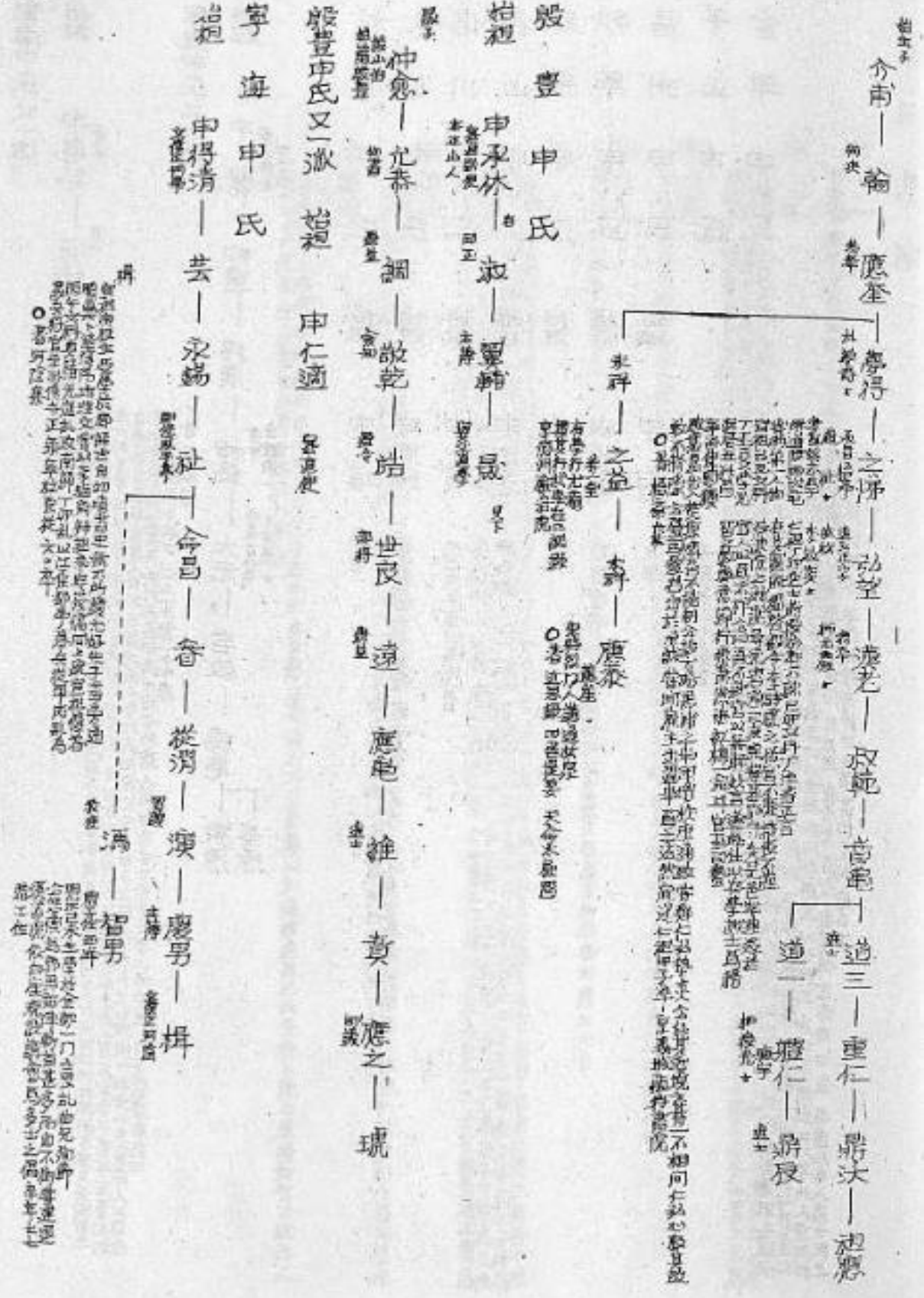
인쇄된 것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쓴 것이므로 오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생애 연구에 꼭 필요한 참고자료이다

韓國系行譜  
地



1223







# 韓國系行譜(天·地·人)

印刷 一九九二年十月十二日

發行 一九九二年十月二十五日

發行人 金興國

發行處 寶庫社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躑三洞 二九一四〇  
電話·九〇三一四六六七

定價 全三卷 三〇〇,〇〇〇원

한국만성족보(韓國萬姓族譜)

三千萬의 始祖와 系譜를 収録한

# 韓國 萬姓族譜

洪淳文 著

## 附 錄

- |                |                           |
|----------------|---------------------------|
| ① 우리나라 姓氏의 略史  | ⑨ 清白吏錄                    |
| ② 高麗時代의 官制     | ⑩ 名將錄                     |
| ③ 李朝時代의 品階     | ⑪ 文章名人錄                   |
| ④ 李朝時代의 官制     | ⑫ 高麗杜門洞 72賢 錄             |
| ⑤ 李朝時代의 地方 職官  | ⑬ 殉義人士錄                   |
| ⑥ 우리나라 地名變 遷一覽 | ⑭ 獨立運動義舉人 士錄              |
| ⑦ 李朝時代의 官職     | ⑮ 日帝時 日本政府 의 韓國人 要視 察人士名簿 |
| ⑧ 歷代 王室一覽      | ⑯ 最近 姓氏別 人口 統計表           |

仁昌書館 發行

# 韓國 萬 姓 族 譜

洪 淳 文 編

韓國 511 姓氏의 始祖와  
各派別 始祖의 略歷解說

仁 昌 書 館 發 行

서문

한민족은 세계에 사민...  
 모든 다 한 조상과 같은 의의 받고 있는 것이다.  
 자질과 발성과 민족의 연사는 그것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 민족을 증명하는 주체는 우리 후손들의  
 이름과 무덤으로서의 공적은 가문과 동시에 불멸의  
 의의 사를 계승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상들의 향조가 모두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의와 국가적 공을 계승하여 더욱 국가의 사를

가문이나 국가의 발전은 모두 그 구성원인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우리 나라의 실체와 5-1-1 정신에 대한 시조와 파벌의 연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상위의 기록이다. 또한 각종 귀족의 무덤을 철거하여 선조들이  
 이대 왕조에서 증명할 수 있다.

一九七〇년 1월



의 기록  
 8-2  
 0-2

승윤(承綸) — 영조 갑오 문과 사성.

승헌(承憲)의 조부, 정조 무오 문과, 전적.

父는 생원, 정효(正孝)이고 또 찬방, 승들은

(承得運)의 후에 운운.

○신(申)씨 — 중국 위군(魏郡)에서 남.

임계(炎帝)의 후예로 신(申)에 봉함.

인하여 음명 신(申)을 성씨로 함.

주(周) 정왕 때 정대부(鄭大夫), 신후(申候)

가 있고, 주(周) 정왕(定王) 때 초(楚)에 신주

(申舟)가 있고, 주(周) 정왕 때 초대부(楚大

夫), 신 포서(申包胥)가 있음.

초대부의 성은 공손(公孫)인데, 신(申)에 봉

하고 호가 신포서임. 주(周) 천왕 때 신불

래(申不害)란 자가 한상(韓相) 신씨로 정대부

▲평상 신씨 시조 승겸(平山申氏始祖崇謙) — 그

전조는 광해주(光海州) 즉, 지금의 춘천부(春

川府) 사람으로 처음 이름은 능산(能山), 고려

대조가 승겸(崇謙)이란 이름을 하사. 적은 평

산(平山)에 하사.

의경의 대왕의 이보지절지정(毅景翊匡衛怡輔

砥節底定),

벽상공신삼대방(壁上公臣 三重大臣) 태사 개국공 장절공(壁上公臣

三重大臣 太師 開國公 莊節公)。

태조 전권(甄萱)과 공산(公山 — 大丘地)에서 싸

을 때 공은 왕을 대신하여 죽음.

태조 묘정에 배향, 묘(墓)는 춘천 소양강 상

방등(上方洞)에 있음.

○정(勁) — 현손, 예종 대 태보(太保)。

증(諱) — 정의, — ○세손, 전리 판서。

군평(君平) — 증의 弟, 좌대언(左代言)

개(槩) — 증의 孫, 문과 좌의정, 문희공, 세

종묘정에 배향。

효(曉) — 개의 弟, 정언(正言)。

숙민(叔彬) — 개의 姪, 향향사。

상(鎰) — 개의 증손, 문과 이조판서, 문절공。

집(隣) — 상의 孫, 문과 찬성, 공신, 평천부

원군。

임(位) — 집의 弟, 무과 판윤, 도순변사 총장

공。

정진(景楨) — 임의 子, 무과 영의정, 공신,

평성부원군, 충인공, 인조 묘정에 배향。

경유(景裕) — 무과 공신 동평 군。

의인(景胤) — 무과 공신 지돈녕, 동성군。

정원(景源) — 임(位)의 종질, 무과 판서, 공

신 평녕군。

간공.

재식(在植) — 명규의 五세손, 문과 이조판서 대제학.

석우(錫愚) — 재식의 종질, 문과 예조판서, 문정공.

석희(錫禧) — 석우의 弟, 문과 예조판서, 효문공.

길원(吉元) — 승겸(崇謙)의 一八세손, 문경(聞慶) 현감, 향중사.

방(防) — 완(完)의 孫, 문과 이조참판, 제학.

경(曠) — 방의 弟, 일찬선.

규(奎) — 승겸의 후손, 문과, 목사 장릉(壯陵)에 소복(疏復).

▲고령 신씨 시조 성용(高靈申氏始祖成用) — 본시 향리(鄉吏)로서 등 문과 검교, 군기감.

○덕린(德隣) — 현손, 문과 예의관서 향서원.

색(穡) — 덕린의 孫, 문과 집현전 제학.

숙주(叔周) — 색의 子, 문과, 영의정, 공신, 고령부원군 문충공, 성종묘정에 배향.

말주(末舟) — 숙주의 子, 함정감사.

면(漣) — 말주의 子, 함정감사.

안공(昭安公).

용개(用漑) — 면의 子, 좌의정, 문정공.

종호(從護) — 면의 姪, 문과 참판 선호당.

광한(光漢) — 종호의 子, 성종 때 부마, 고원위, 향(沆) — 종호의 子, 성종 때 부마, 고원위, 문효공.

잠(潛) — 문과 상주목사, 향서원.

의(穢) — 함의 孫 증종 때 부마, 영친위(靈泉尉).

식(湜) — 숙주의 五세손, 문과 대사헌 향서원.

용(涌) — 문과 황해감사, 향서원.

정식(景植) — 숙주의 六세손 공신 영원군(靈原君).

집(溱) — 용(涌)의 孫, 향서원.

옹구(應架) — 용개(用漑)의 현손, 일승지.

의상(翼相) — 옹구의 孫, 문과 우의정, 정간공(貞簡公).

공제(公濟) — 말주(末舟)의 孫, 문과 이조판서 청백리.

경준(景濬) — 말주의 一〇세손 문과 승지.

▲은풍 신씨 시조 승휴(殷豐申氏始祖承休) — 본시 명산인(平山人). 밀직부사의 후손 은산배(殷山伯) 증유(仲愈)가 처음 은풍(殷豐)에 직을 들

※은동-풍기(豐基)의 속현.

○신익적(申仁適) - 밀직사, -파를 이름.

▲이주 신씨 시조 영미(鵝州申氏始祖英美) - 권지호장(權知戶長).

※아주-거제(巨濟)의 속현.

○우(祐) - 후손, 안렴사(按廉使), 향서원. 원로(元祿) - 우의 六세손, 향서원. 지제(之槩) - 우의 八세손, 문과 승지 향서원

▲현안 신씨 시조 주석(天安申氏始祖周錫) - 금

자광로대부 대보정간공.

▲신천 신씨 시조 찬(信川申氏始祖贊) - 백주(白

周)의 孫, 녹수(祿守)의 子, 삼릉대왕 신철부 원공.

▲이천 신씨 시조 진(利川申氏始祖眞) - 상서(尙書).

▲영해 신씨 시조 득청(寧海申氏始祖得淸) - 관사(判事).

▲곡성 신씨 시조 세달(谷城申氏始祖世達) - 장사랑(將仕郎)

▲조종 신씨 시조 호(朝宗申氏始祖豪) - ※조종-가평(加平)의 속현.

▲삭녕 신씨 시조 윤리(朔寧申氏始祖允麗) - 중찬성사.

▲해녕 신씨(海寧申氏) - 문과 신징(申楨)의 후예.

▲창주 신씨 시조 보(昌州申氏始祖甫) - 경군(京軍).

▲아산 신씨(牙山申氏) - 신영(申英), 광해 신유문과 칠정 父는 수국(壽國).

○신(辛)씨 - 중국 농사에서 남.

하계(夏啓) 지자(支子)를 신(莘)에 봉함. 그 자손 초(苒) 번을 배고 신(辛)씨로 함. 그 후 주(周) 장왕 때 신백(辛伯)이 있고 한(漢) 선제 때 신부현(辛武賢)이 있음.

주(周) 태사 갑(甲)을 신(辛)에 봉함. 그 후 음명을 성씨로 함.

▲영산 신씨 시조 경(靈山辛氏始祖鏡) - 명하경(河鏡), 고려 인종 때 금자광복대부 문하시

중 평장사 정의공(廷義公) 호는 안곡(岩谷).

○친-八세손, 증제과 정당문학, 응청공(凝淸公).

극례(克禮) - 경(鏡)의 - 一세손 공신 추산군(秋山君).

유정(有定) - 무과 안부사, 무절공. 인손(引孫) - 유정의 子, 문과 병조판서, 공숙공.

한국성씨총람(韓國姓氏總覽)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수강全秀江, 1962년 발행.

각 성씨의 관향별 시조, 중조, 파조등 큰 줄기를 추려내어 요약하여 엮은 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깨끗한 관료로써 역사에 길이 기록되어 내려온다. 또 그의 동생 평령 역시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同福吳씨의 인물은 거의 형제의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吳賢翁은 시조로 해서 제보를 형성한 寶城吳씨는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워 敵愾功臣에 오르고 寶城君에 봉해진 吳子慶이 특히 뛰어나다.

中尉將 吳偃을 시조로 하여 제보를 이룬 羅州吳씨는 선조 때에 과찬성, 우의정에 올라 「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한 貞簡公 吳謙이 있다.

한림학사 吳學麟을 시조로 모신 高敞吳씨는 학림의 손자 世功, 世文, 世才가 모두 이름난 학자로서 인세를 번창했다.

고려 명종 때 興威衛 上將軍으로서 溟州에서 일어난 반격을 평정하고 推忠靖亂功臣 일등에 올라 咸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상서좌복사를 지낸 吳光輝를 시조로 모신 咸陽吳씨는 뿌리가 깊고 인물이 절출하여 고려와 이조에 많이 등용되었다.

## ■ 申 씨

申씨는 이조의 대표적인 名閥의 하나이다. 이 성씨가 처음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에 탄생된 것만은 확실하다.

申씨의 본향은 平山, 高靈, 鵝州, 寧海, 殷豊, 天安, 利川, 信川, 谷城, 朔寧, 昌州 등 100여본이 있으나 그중 平山申씨와 高靈申씨가 전체의 70%와 20%를 차지하여 大宗을 이루고 있다.

平山申씨·시조 申崇謙은 고려의 왕건을 도와 나라를 일으킨 개국공신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는 고려 대조 왕건을 도와 대구 근방에서 후백제의 견훤을 보고 부하 장수 金樂과 함께 단신 적진으로 돌입하여 대조를 구출하고 대신 진사했다.

壯節公의 즉을 올 때 동히 여진 대조는 그의 아들 甫왕자를 시켜 「智妙寺」란 절을 세우게 하고 그의 명복을 빌게 했다고 한다.

平山申씨의 세보는 시조 壯節公의 14대손에 이르러 25파로 갈리는데, 그중 思簡公(浩)派、文僖公(傑)派、齊靖公(孝昌)派、正言公(瞻)派、漢城尹公(夏)派 등이

大派로서 전대다수를 차지한다.

文僖公派.. 예문관대제학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에 올라 세종廟庭에 향배된 文僖公 櫛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의 증손 僖은 이조와 예조판서에 올랐고, 그의 손자 상은 4성을 지내고 功臣으로서 平川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櫛의 아우 립은 선조 원년에 부과에 급제 하여 2성부사로 북방의 오랑캐를 막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로 발탁되어 忠州 檀岾에서 왜병을 막아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번성한 文僖公派의 인물들은 모두 이 두 형제의 자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申립의 아들 景顧은 무과출신으로서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며, 전통적인 「무인집안」인 綾城具씨를 능가하는 10여명의 將臣을 배출했다.

그 명단을 적어보면, 삼도도순변사를 지낸 申禎과 그의 두 아들 申景醜(훈원대장·영의정) 申景醜(어영대장)을 비롯하여 申景璣 申景璿 申埃 申汝哲 申光夏 申大顯 申綱 申大謙 申應周 申樞 申鴻周 申正熙 申命順 등이다.

正言公派.. 이조 5백년의 「1대문장」으로 유명한 文貞公 申欽을 派宗으로 하여 계보를 이룬 이 씨족은 형

제領相으로 이름 높은 申晩 申晦를 배출했다.

高靈申씨·고령申씨는 고려조에 검교군기감을 지낸 申成用을 시조로 하여 한 계보를 이루었으며 그의 6세손대에 와서 巖軒公派(樞), 正言公派(樞), 監察公派(樞)의 3파로 나뉜다.

세종때 공조판서을 지낸 巖軒 申樞은 孟舟(庶尹公派 仲舟(淳昌公派) 叔舟(文忠公派) 松舟(安東公派) 末舟(歸來亭公派)의 5형제를 두었는데, 그들의 후손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다.

세종때 集賢殿修撰으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컸던 文忠公 申叔舟는 글과 무술을 겸비한 비범한 인물로서, 세조를 도와 단종을 내모는 등, 4대조에 걸쳐 공신위에 올라 영화를 누렸다. 그는 또 글 솜씨에도 뛰어난 인물로서 「保閑齋集」 「北征錄」 「海東諸國記」 「四聲通攷」 등 귀중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또 申叔舟의 여덟 아들이 모두 진출하여 크게 이름을 떨치는 등 일세를 풍미하였다. 高靈申씨는 이들 신숙주의 아들 대에 와서 다시 奉禮公(澍)派, 成吉伯(蕪)派, 黃海伯(濬)派, 高川君(澍)派, 懶軒公(浚)派, 江原伯(溥)派, 靈城君(澗)派, 護軍公(泌)派로 나뉜다. 이밖에도 만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승지물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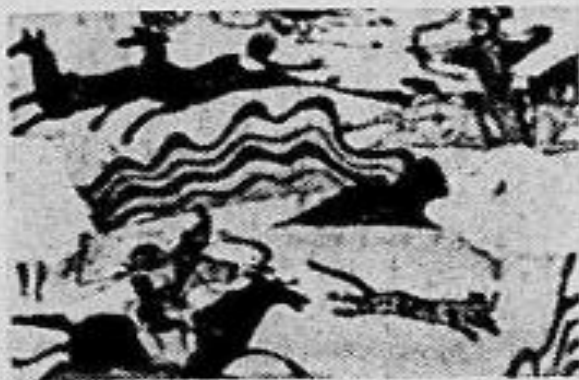
고시와 글과 그림에 이름 높던 申光洙는 신숙주의 10대손이 된다.

그리고 풍속화에 뛰어났던 蕙園 申潤福, 불후의 역사학자요 독립운동가인 丹齋 申采浩 등이 모두 이의 정쟁한 후손들이다.

鶴州 申씨 · 시조는 고려때 權知戶長을 지낸 申英美이다. 이 씨족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 효자 申祐가 나타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申祐는 응해왕때 全羅道按廉使를 지내다가 그의 부친이 노환으로 죽자 3년간 시묘를 살았는데, 그의 정성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부친의 묘소앞에 두 그루의 대나무(竹)가 솟아나와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를 칭찬하고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旌門(旌門)을 세우고 「효자비」를 내렸다고 한다.

이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크게 미승하여 이름을 떨친 사람은 많지 않으나 학자와 효자가 잇달아 나와 가문을 빛내었다.



# 韓國姓氏總覽 <값 400원>

---

1973년 9월 10일 인쇄

1973년 9월 15일 발행

발행법서관

발행인 신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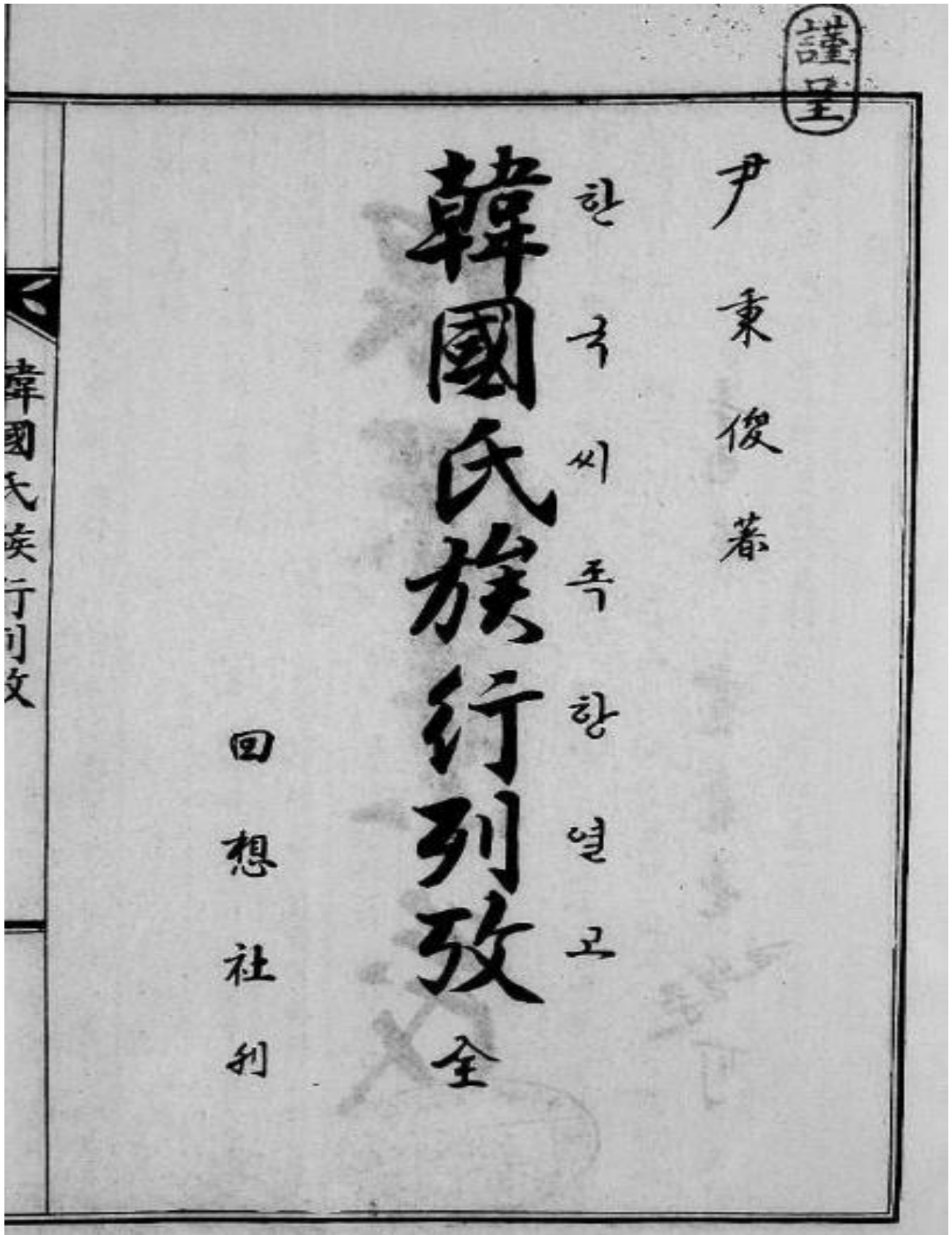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5의13

등록 1972. 12. 19 (가)제6-38호

---

<관련본사소유>

한국씨족항열고(韓國氏族行列考)



韓國氏族行列考

165

高靈申氏

九世 二〇 二二 二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行 權 | 錄 | 模 | 求 | 休 | 兩 | 植 | 浩 | 秀 | 熙 | 圭

166

鵝州申氏

二〇世 二一 二二 二三 二四 二五  
 行 教 | 冕 | 漢 | 相 | 變 | 載

167

平山申氏

三〇世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行 均 | 鉉 | 澈 | 東 | 變 | 載 | 鎬 | 濟 | 根 | 性 | 用

168

靈山辛氏

三〇世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行 植 | 容 | 基 | 鍾 | 洙 | 柄 | 煥 | 喆 | 鉉 | 海

169

居昌慎氏

三六世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行 輔 | 九 | 炳 | 宗 | 賊 | 範 | 鏞 | 宰 | 重 | 揆

170

三陟沈氏

二〇世 二一 二二 二三 二四 二五 二六 二七 二八 二九  
 行 鐸 | 洙 | 相 | 變 | 在 | 錫 | 源 | 植 | 炳 | 均 | 欽

171

青松沈氏

九世 一〇 一一 一二 一三 一四 一五 一六 一七 一八 一九  
 (監司公派)  
 行 東 | 慶 | 在 | 鎮 | 潤 | 植 | 應 | 用 | 益 | 淳 | 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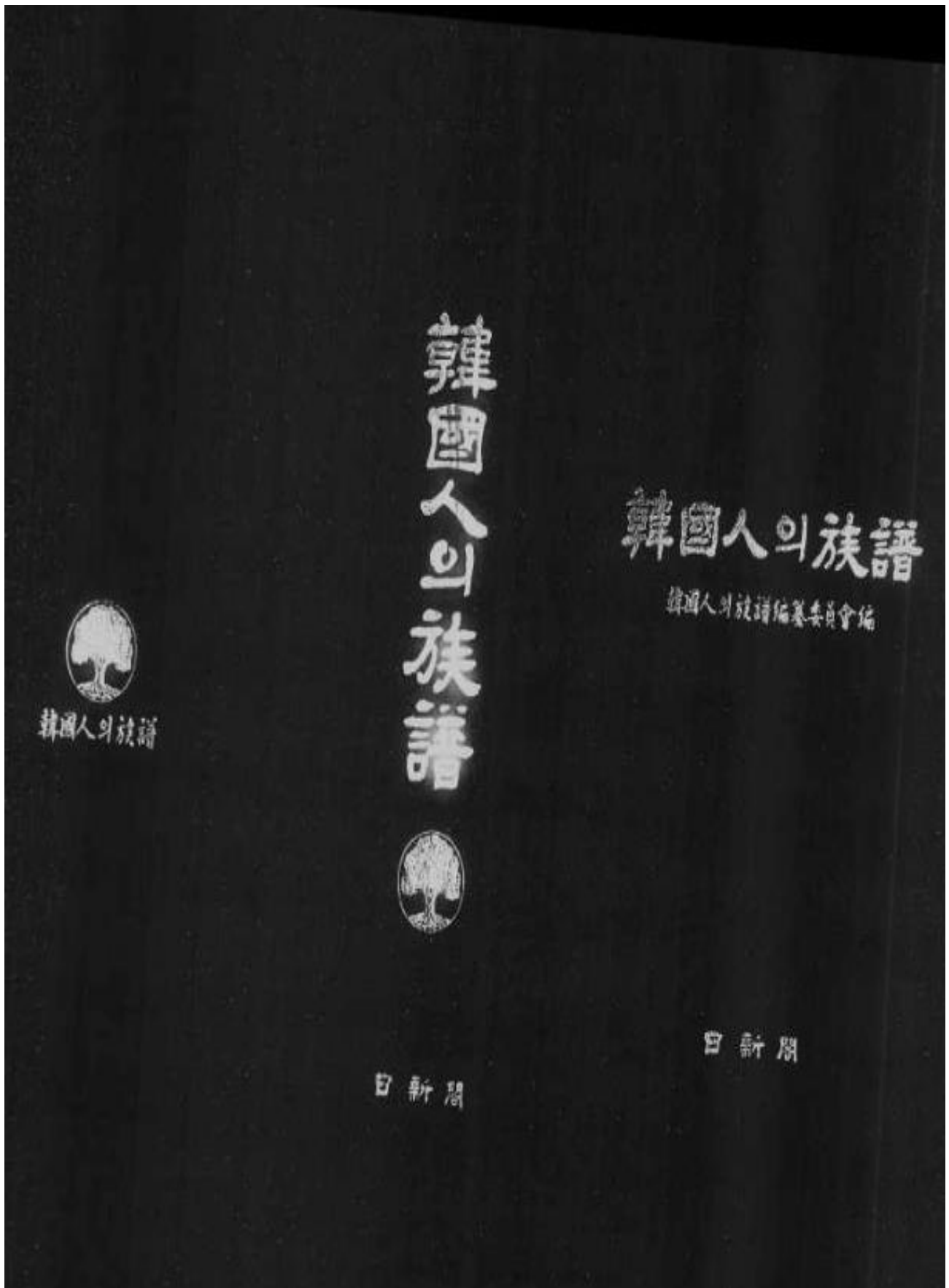
172

豐山沈氏

五世 二六 二七 二八 二九 三〇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行 植 | 赫 | 基 | 鉉 | 洙 | 東 | 烈 | 喆 | 鎬 | 洛 | 求

韓國氏族行列考

五五



# 韓國人の族譜

---

西紀 1977年 12月 10日 初版印刷

西紀 1977年 12月 25日 初版發行

編者 韓國人の族譜編纂委員會  
發行人 廉南燮  
發行處 圖書出版 日新閣



서울特別市鍾路區樂園洞 138-1

(弘禾빌딩 303號)

電話 (27) 2072 · (21) 5753

登錄番號 (가) 1-551

登錄年月日 1977年 5月 7日

---

寫真植字 / 光一寫真植字社

寫真製版 · 印刷 / 又進精版社

製冊 / 大成製冊社

紙函 / 서울合紙工業社

鐵印 / 株式會社 바른손

---

落張, 破本은 取扱店에서 即時 交換해 드립니다.

定價 25,000원



654 鶴州申氏

지도였으며, 1930년母校에서 法學博士學位를 받았다. 1932년 YMCA 총무가 되어 종교운동과 청년운동에 참가했다. 해방 후 特命全權大使 駐日代表部 大使를 지내고, 1949년 第4代 大韓體育會會長이 되었다. 기독교단체 국제회의에 韓國代表로 20餘次 參席했으며, 1952년 第2代 大統領選舉에 出馬했으나 낙선했다.

**申伯淵**(號: 耕夫 獨立運動家)  
15세에 成均館에서 周易을 배우고, 1907년 新民會·京城青年學友會에 加入했다. 1911년 滿洲로 망명, 이듬해 奉天에서 大同青年團에 加入, 1918년에 미국였다. 이듬해 大隈敎에 入敎, 3·1운동에 참가한 후 다시 滿洲로 건너가 西路軍政署의 참모가 되었다. 新興武官學校에서 軍事學을 연구하고 1920년에 귀국, 勞動共濟會에 가입하여 機關紙(共濟雜誌)의 主幹이 되었다. 1922년 尹德樹·李達榮·李承龍·韓基榮 등과 大韓會를 조직하여 獨立運動을 하였으며, 1923년 無産者同盟·서울青年會·勞動總同盟 등 각 단체의 간부로 활약했다. 1963년 大統領으로부터 建國功勞表彰이 수여되었다.

**申洪植**(號末 獨立運動家)  
1913년 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로 公州에서 宗教 운동에 헌신했다. 3·1운동 때는 民族代表 33인의 한 사람으로써 독립선언서에 서명, 2年刑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에도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62년 大韓民國建國功勞勳章이 수여되었다.

廟·祠·影堂·書院·旌閭·行義門 記錄表

區分	姓名	所在地
成宗室廟	申叔舟	
雙泉書院	申 湜	忠北清州
鳳溪書院	申 湜	忠北清州
鳳溪書院	申 湜	忠北清州
雪齋祠	申 湜	全南羅州
花山書院	申末角	全北淳昌
武城祠	申 湜	全北奉仁
玉城書院	申 湜	慶北尚州
樂安書院	申汝德	慶南東萊
蔚園書院	申德麟	慶北高靈
杜門洞書院	申德麟	慶北高靈
杜谷書院	申包坦	全北南原
忠莊祠	申汝德	全南羅州
忠莊祠	申汝德	全南羅州
忠莊祠	申汝德	全南羅州

行列表

世	行列字	世	行列字	世	行列字
19	權	20	錄	21	機
23	休·樹	24	州	25	植
27	秀	28	熙	29	圭

31	永	32	相	33	雙	34	在
35	路	36	泰	37	根		

分布狀況

分 布 地	戶數
京畿道加平郡下面上板里	20
忠北清原郡加德面靑龍里	20
忠北清原郡加德面杏亭里	35
忠北清原郡加德面仁次里	28
全北南原郡一洞	16
全南谷城郡一洞	24
全南麗川郡雙鳳面鎭山里	30
全南麗川郡華井面鎭金里	48
全南昇州郡樂安面昌寧里	20
全南高興郡高興面姑蘇里	30
全南高興郡高興面玉下里	25
全南高興郡道陽邑何也里	55
全南高興郡道陽邑龍洞里	21
全南高興郡浦項面松山里	27
全南高興郡占岩面大龍里	36
全南高興郡過驛面石鳳里	23
全南高興郡過驛面老日里	16
全南高興郡南陽面望珠里	47
全南高興郡東江面馬輪里	95
全南高興郡大西面禾山里	29
全南高興郡大西面金馬里	16
全南高興郡豆原面大田里	44
全南長城郡北二面白岩里	35
慶北義城郡丹厓面龍谷洞	18
慶北高靈郡雲水面雲山洞	47
慶南晉陽郡東面大岩里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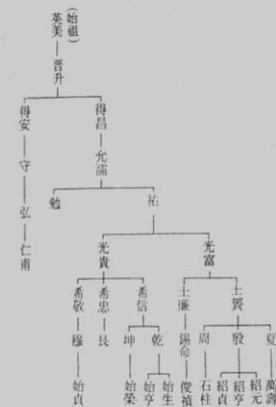
鶴州申氏

始祖 吳 本貫의 由來

始祖 吳美는 高麗末葉(年代未詳) 巨濟郡 所屬 鶴州縣의 權知戶長이 되었으므로 그 後孫들이 鶴州를 本貫으로 하여 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鶴州申氏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옛날 家號는 물론 吳姓에 이르기까지 文獻備考와 그밖의 文獻에도 申英美가 鶴州申氏의 始祖로 明記되어 있으나, 近世에 와서 申英美 위에 架空의 人物인 申休를 添加하여 平山申氏의 始祖 杜翁申樂謙과 關係를 붙여 申樂謙을 始祖, 申休를 申始祖로 한 族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1817年(純祖 17)에 公州 사당 金魯定이 寫進한 《萬姓譜》에 의한 것으로, 당시 金魯定을 諺問, 調査한 陶謨申鼎周의 《湖西紀行》에 의하여 그 錯誤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樂謙을 始祖로 하고, 休를 申始祖로 하여 그 系代를 살피는 것은 큰 잘못이라 하겠다.

韓國人の族譜 655

《世系表》



歷代重要人物

申允淵(高麗 官職: 版圖判書)  
申 祐(高麗 號: 退甫 官職: 按廉使)  
비슬은 按廉使를 지냈다. 父喪喪을 당하여 孺幕에서 3년상을 마치고, 무덤 앞에 雙竹이 생겼으므로 孝賢이 지극한 때문이라 하여 旌門이 세워졌다. 太祖와 인연부터 친구간으로서 朝鮮이 開國된 후 刑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徐巖書院과 尚州의 浸水書院에 祭享.  
申光富(高麗 官職: 內府令)  
申光貴(高麗 官職: 知鳳州事)  
申士寧(朝鮮 官職: 縣令)  
申士廉(朝鮮 官職: 郡守)  
申希信(朝鮮 官職: 郡守)  
申俊植(朝鮮 官職: 奉教)  
申始生(朝鮮 號: 北松亭 禦海將軍)  
申介甫(朝鮮 官職: 司諫)  
申用甫(朝鮮 官職: 縣監)  
申元福(朝鮮 字: 仲履 號: 靜齋 孝子)  
申元禎(朝鮮 字: 季履 號: 梅堂 官職: 教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자 八公山 수백의 길은 藥草를 찾아 다녀오며 밤잠을 안 자며 8년간이나 간호했고, 母喪을 당하자 눈물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省墓를 하는 등의 孝行으로 朝廷에 의해 孝子門이 세워졌다. 曹植에게서 學問을 배우다가 周世麟이 白雲洞書院을 설립하자 찾아가 門下生이 되고 동료들과 함께 長川에 書院을 세워 金安國을 祭享했으며 長川이던 鄺縣을 받았다. 비슬은 教授를 지냈다.

戶曹參議에 追贈,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  
申之孝(朝鮮 字: 達夫 號: 蘆巖 學者)  
申之梯(朝鮮 字: 順甫 號: 梧峰 官職: 承旨)  
1589年(宣祖22) 增廣文科에 甲科로 급제하고, 正言·禮曹佐郎·文學 등을 역임했다. 1613年(光海君 5) 昌寧府使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던 도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通政大夫에 올랐고 仁祖초에 承旨에 이르렀다.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  
申轉年(朝鮮 字: 壽翁 號: 栗亭 官職: 典濟司參奉)  
申 運(朝鮮 字: 宙仲 號: 北軒 官職: 縣監)  
申興孝(朝鮮 字: 行初 號: 桂月堂 官職: 同知中樞)  
申遠道(朝鮮 字: 亨甫 號: 晚情 官職: 持平)  
1623年(仁祖1) 庭試文科에 장원하고, 司憲府·司諫院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1627년 丁卯胡亂 때 正言으로 있으면서 斥和를 주장하여 崔鳴吉 등의 主和論을 극력 배격했다. 뒤에 持平이 되었고 都承旨에 追贈.  
申遠道(朝鮮 號: 虎溪 官職: 祭訪)  
1627年(仁祖5) 丁卯胡亂 때 義兵을 일으켰다.  
申悅道(朝鮮 字: 晉甫 號: 懶甫 官職: 持平)  
1624年(仁祖2) 增廣文科에 乙科로 급제하고, 1627년 丁卯胡亂 때 仁祖를 江華로 驅逐했으며, 다음해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후 蔚珍縣監이 되고, 1648年 掌令을 거쳐 畿州牧使가 되었다.  
申弘望(朝鮮 字: 望久 號: 孤松 官職: 持平)  
1630년(仁祖17)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고, 法曹判書를 거쳐 1646년 正言이 되었다. 이어 司憲府에 예직 중 단락을 받고 碧嶺에 流配되었다. 그후 丹波와 1652년(孝宗3) 持平이 되고 뒤에 豐基郡守를 지냈다.  
申賢周(朝鮮 字: 希文 官職: 承旨)

廟·祠·影堂·書院·旌閭·行義門 記錄表

區分	姓名	所在地
浸水書院	申 祐	慶南尚州
徐巖書院	申 祐	
藏待書院	申元禎	慶北義城
藏待書院	申之梯	慶北義城
孝子碑	申 祐	慶北義城

行列表

世	行列字	世	行列字	世	行列字	世	行列字
20	敦	21	冕	22	漢	23	相
24	雙·機	25	敦				

分布狀況

分 布 地	戶數
慶北義城郡義城邑八城洞	24
慶北義城郡倉谷面陶谷洞	55
慶北義城郡金城面霞洞	26
慶北義城郡金城面霞洞	26

本冊 謹修에 있어 많은 誠意外 協助을 賜코리니 감사함.  
金 東 關 氏 本貫 慶州金氏

始祖 大輔公第六十七世孫。  
氏는 一生을 民族運動에 關與코시고 現 忠清北道 石炭組合現事長。  
本冊 謹修에 있어 物心 兩面의 많은 協助을 許코리니 감사함.

金 忠 顯 氏 本貫 安東金氏 號 一中  
始祖 大輔公后 清陰 文正公 諱 尙憲十四世孫。  
氏는 書藝에 高名하시며 現 東方硏書會長。  
本冊 謹修에 있어 많은 誠意外 賜코리니 題字을 許코리니 감사함.

價目表  
價目 定價 三〇〇〇圓  
發行 民國二十九年十一月十七日  
發行 民國二十九年十一月十八日

許製  
不復

서울特別市鍾路區堅志洞二七의三  
誠修者 金 學 聲  
發行者 金 完 聲  
印刷處 京 鄉 新 聞 社  
發行所 南 昌 文 化 社

(登錄 第四二九、二〇、十號五)

한토해석 만성보(萬姓譜)

1962년 한토해석 만성보(萬姓譜)(1962년) 전수강 대구창성출판사



고령신씨 高靈申氏	이천신씨 利川申氏	천안신씨 天安申氏	아주신씨 鵝洲申氏	은종신씨 恩宗申氏	영해신씨 盈海申氏	신천신씨 信川申氏
성용 成用	진 眞	주석 周錫	영미 英美	승휴 承休	현 賢	산 贊
<p>원사 증영상 시호증장공 후손함 문영상 호 상촌 시호문정공 邊使 贈領相 諡忠壯公 ○後孫歛은文領相 號문象村 諡문文貞公 본이향이 등문과 위검교군기감 후손숙주 문영상 고령부원군 시 문충 후손공제 本以鄉吏로登文科하여爲檢校軍器監 ○後孫叔舟는文領相 高靈府院君 諡문文忠 ○後孫公濟 문이관 선정백이 후손익상 문우상 호 성재 시호정장공 是文吏列으로選清白吏 後孫翼相은文右相 號문醒齋 諡문貞簡公 려주 위상서파부 麗朝에爲尙書左僕 금자광록대부정장공 金紫光祿大夫定簡公</p>	<p>권지호장 후손홍상 문시경 호 오봉 안영패신씨세보 윤경상신씨시조장전공십이세손 權知戶長 ○後孫弘望은文持平 號문梧鳳 按寧海申氏世譜에云平山申氏始祖壯節公十一世孫 시랑공아주군익휴 아주시조라하나의신스럴도다 아우 거계속연 侍郎封鵝洲君益休로爲鵝洲始祖라하니可疑라 (鵝洲는巨濟屬縣) 밀려부사 평산신씨동원 후손은산역중부 시적은중 일과 인척 밀척사 은종 중 密直副使平山申氏同源으로 後孫寂山伯仲前가始籍寂豐함 ○一派에仁適은密直使 (寂豐은豐 기속연 基屬縣)</p>	<p>려주 파복야 명태조 불원재안호를우고문정공 평산시조장전공 십이세손 후손지 생 麗朝에 파복야 명태조 불원재안호를우고문정공 평산시조장전공 십이세손 후손지 생 顯朝에左僕射니明太祖가賜號不顯顯 文貞公 平山始祖壯節公의十二世孫 ○後孫趾는生 원 호 풍호정 후손집 문진척 호 하음 후손환 증장각원정 호 죽노 員 號문風子亭 ○後孫集은文典籍 號문河諱 ○後孫活은兩掌樂院正 號문竹老</p>	<p>려주 위상중대왕신천부원군 신씨보유적 목성 조공 상영 창주 아산 신씨십삼본 麗朝 爲三重大王信川府院君 申氏又有籍谷城 朝宗 朔寧 昌洲 牙山 (申氏十三本)</p>			

가보(家譜)

家  
譜

韓國姓氏의 主要本貫別 始祖一覽表

西紀 一九六〇年度 現在

金										氏 姓							
										本貫	始	官	爵	時代	備 考		
扶安	清道	順川	金寧	清風	善山	善山	高靈	義城	延安	江陵	安東	安東	光山	慶州	金海	金海	
景修	之岱	捷	時興	大猷	漢忠	宣弓	南得	錫	運漢	周元	宣平	叔承	興光	關智	濂	首露	
戶長	中書侍郎平章事	平陽君	金州君	門下侍中	功臣·門下侍中	門下評理	義城君	四門博士	溟州郡主	太師	工部侍郎	大輔	開國始祖				
高麗	高麗	泰封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敬順王後孫	敬順王八代孫	敬順王五代孫	敬順王子 殷說의 十一代孫	敬順王子 殷說의 十一代孫	敬順王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第五子	武烈王後孫	武烈王五代孫	(新安東)	敬順王子 殷說의 第二子(自 安東)	憲康王第三子	敬順王子 殷說의 第三子			
金										氏 姓							
										本貫	始	官	爵	時代	備 考		
三陟	靈光	漢南	水原	海州	楊州	海豐	咸昌	蔚山	瑞興	安山	海平	禮安	原州	豐山	彥陽	永同	商山
鍾	台用	採延	仲	安國	元	崇善	勻	德擊	寶	肯弼	萱連	尚	巨公	文迪	鏞	令貽	需
	工曹典書	禮賓卿	上洛君			禮部尚書		鶴城府院君	金吾衛中郎將	贈尚書、左僕射	開國功臣、侍中	戶長	知門下省事		彥陽君	典客令	甫尹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新羅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敬順王第八子	敬順王後孫	水原金氏別派	敬順王子 殷說의 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第九子	敬順王子 殷說의 後孫	善山屬縣	敬順王子 殷說의 後孫		敬順王後孫		敬順王第七子	神武王後孫	敬順王後孫

申			吳										氏	姓							
鶴州	高靈	平山	平海	寧遠	珍原	義城	長興	樂安	郎山	和順	長鬐	三嘉	咸平	延日	咸陽	羅州	荳原	高敞	本貫	姓	
英美	成用	崇謙	文祖	思忠	益	永年	勸	白顏	應運	順公	成祐	崇	舜民	洽	光輝	儼	寧老	學麟	諱		
權知戶長	檢校軍器監	開國壁上功臣 三重大匡、太師	掌隸院正	寧城府院君	檢校軍器監	掌令	郡守	全羅評事	縣監	殿中內給事同正	縣監	糾正	縣監	典書	尚書、左僕射	中郎將	追封原平君	翰林學士	官	氏	
高麗	高麗	高麗	李朝					李朝		高麗								高麗	爵		
巨濟屬縣				長城屬縣					礪山屬縣						高麗	高麗	興陽屬縣			始	祖
徐					申										氏	姓					
達城	塩州	黃山	南陽	宜寧	福興	平當	唐城	扶餘	利川	昌州	朔寧	朝宗	谷城	信川	利川	天安	殷豐	寧海	本官	始	
閉	自審	茂	厚	時義	希亮	俊那	得富	隆	紳逸	甫	允麗	豪	世達	贊	瓊	周錫	承休	得清	諱		
軍器少尹	戶長	注簿	左政丞	秘書少監	贈兵部尚書	峰城君	唐成君	熊津都督	阿干	京軍	贈贊成事		將仕郎	信川府院君	尚書	金榮光祿大夫 太保	密直副使	判事	官	祖	
高麗									新羅					高麗	高麗	高麗	高麗	高麗	爵		
大邱別號	延安別號	連山別號		淳昌屬縣	坡州別號	南陽別稱				昌城地方		加平屬縣					豐基屬縣			備	考



家 譜

編 著 者

李 鍾 球

1976年 6月 15日 印 刷

1976年 6月 21日 發 行

印 刷 處 第 一 社

發 行 處 謙 學 社

登 錄 第 2 - 3 1 3 號

牛 金 幹 別 市 龍 山 區 桃 洞 1 街 8 - 4

電 話 23 - 3025 · 28 - 8144

定 價 4,500 元



## 아주(鵝洲) 지명(地名)

## (지리지)의 변천

##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전을 벌이던 삼국시대의 지지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백제지리지(百濟地理誌), 신라지(新羅誌) 등 지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삼국시대에 지지의 발달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세 나라 모두 작은 소국에서 시작하여 넓은 영토를 정복한 국가였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각 고을을 일정한 항목과 규칙에 따라 정리한 전국지지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일신라도 모든 고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리는 중앙집권체제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출신자를 철저히 차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고을 단위의 전국지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전국지지는 1145년(인종 23)에 김부식(金富軾) 등이 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총 50권의 『삼국사기』중 지(志) 9권의 3권부터 6권까지 수록된 지리 4권이다. 3권에서 5권까지는 신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통일신라의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고을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6권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정리한 것으로, 주로 옛 이름만이 나열되어 있다.

고을의 정보 이외에도 신라·고구려·백제의 수도에 대한 정보가 가장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신라 부분의 경우 9주가 설치되어 변화된 연혁도 있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지지의 내용만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지지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삼국사기』는 순수한 전국지지가 아니라 삼국에서 통일신라까지의 역사 전체를 기록한 역사서이며, 그 안에 지지가 들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지지로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삼국사기』의 지리가 유일하며, 고려에 대해 편찬한 지지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세종의 명을 받은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이 1451년(문종 1)에 완성하고 1452년(문종 2)에 인쇄한 『고려사(高麗史)』의 지리는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총 139권으로 이루어진 『고려사』에서 지리는 56권에서 58권까지 3권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56권에는 태조 왕건에서 성종을 거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가 완성되는 현종까지 오도양계(五道兩界)의 광역행정단위와 경·목·부·군·현·진의 정비 과정 및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수도였던 왕경 개성부의 자세한 연혁과 그에 속했던 적현(赤縣) 6개와 기현(畿縣) 7개의 연혁, 양광도의 주현과 속현의 연혁이 수록되어 있다. 57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58권에는 교주도·서

해도·북계·동계의 주현과 속현의 연혁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지방관을 한 곳에도 파견하지 않고 각 고을의 통치는 해당 고을의 지배층인 호족에게 맡기는 간접 통치를 실행하였다. 대신 사심관 제도(事審官制度)와 같은 감시제도, 기인제(其人制)와 같은 인질제도를 통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통제해 나갔다.

983년(성종 2)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1018년(현종 9)에 이르러 오도양계의 광역행정단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총 504개의 고을 중 25.8%에 불과한 130개의 주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74.2%의 속현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취한다. 하지만 광역행정단위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며,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도 직접 통치보다는 호족의 통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후 1106년(예종 1)에 27개의 속현에 감무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현으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고려 말에는 주현이 약 304개로 늘고, 속현이 160개로 줄어든다. 이렇듯 고려 말로 갈수록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이 늘어갔지만 파견된 지방관인 감무는 종6품의 현감보다도 지위가 낮아 고을의 행정을 직접 통제하는 역할은 약했다. 따라서 조선에 비해 고려는 지방 호족 세력들의 통치를 중앙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방분권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 1400년대 전반기의『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조선의 건국 후 3대 왕인 태종은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첫째, 팔도체제를 확립하고 둘째, 속현을 혁파하여 주현의 땅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정책을 취했으며 셋째, 지방관 중 가장 낮은 7품 이하의 감무를 종6품의 현감으로 높이는 등 직접 통치를 강화시켰고 넷째, 끝에 주가 들어가는 군현의 이름을 산이나 천(川) 등으로 바꾸어 고을의 등급을 체계화시켰으며 다섯째, 작은 고을을 병합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모든 중앙집권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태종 이후 조선은 지방관을 파견하여 고을을 직접 다스리는 확실한 중앙집권국가로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각 고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통치해야 할 전국지지의 편찬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첫 번째 결실이 1424년(세종 6) 전국지지 편찬에 대한 세종의 명령으로 나타난다.

예조에서 각 고을의 지지 편찬 규칙을 만들어 각 도에 내려 보냈는데, 이 때 편찬된 도별지지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1425년(세종 7) 경상도 감영에서 편찬한 『경상도지리지』뿐이다. 한 부를 춘추관으로 보내고 또 한 부를 경상도 감영에 보관했는데, 이 중 후자의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경상도지리지』의 서문에는 모든 도와 고을에서 지켜야 할 11개의 조사 규칙이, 총론에는 도에서 지켜야

할 14개의 규칙이, 경주부 부분에는 각 고을에서 지켜야 할 12개의 규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각 고을 부분에는 항목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연혁-역(驛)-대천(大川)-사방경계까지의 거리-진산-호구수-고적-토성(土姓)-공부(貢賦)-토산-토의(土宜)-염분(鹽盆)-제언-봉화-제사처의 순서로 되어 있고, 임내로 기록된 속현의 경우도 비슷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8도의 지지를 바탕으로 1432년(세종 14)에 맹사성(孟思誠) 등이 재편집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가 완성되는데, 전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모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던 일부의 사실을 첨가하여 편집한 『세종실록지리지』가 전해지고 있다. 항목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의 등급과 숫자로부터 시작되어 연혁-별호-속현-산천-사방경계와 거리-호구수-군정-토성-내성(來姓)-속성(續姓)-인물-토질-기후-풍속-간전(墾田)-토의-토공(土貢)-약재-토산-어량(魚梁)-염소(鹽所)-자기소-도기소-음석성-능묘-누정-역-봉화-제언-사찰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물·조세·군역 등 국가의 통치와 방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총정리해 놓은 점으로, 태종 이후 중앙집권국가체제의 건설을 통한 국가의 직접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400년대 후반기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태종과 세종을 거치면서 조선은 통치체제를 확고하게 정비하여 번영의 시대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담은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 필요성이 나타난다. 세조는 집권하자마자 1455년(세조 1)에 양성지(梁誠之)에게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을 명하며, 1463년(세조 9)에 양성지는 정척(鄭陟)과 함께 조선전도인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제작하여 바친다.

지도의 제작이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체되던 지지의 편찬 사업은 14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469년(예종1)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지지는 새로운 『팔도지리지』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편찬된 도별 지지와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양성지는 1477년(성종 8)에 새로운 전국 지지인 『팔도지리지』를 완성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다.

양성지의 『팔도지리지』는 중앙에서 자세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감영에서 올린 지지에 기초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1476년(성종 7)에 문사들의 시문 등 문화적인 측면을 첨가하여 편찬하라는 명이 내려진다. 그리고 1481년(성종 12)에 노사신(盧思愼) 등이 양성지의 『팔도지리지』, 우리나라의 시(詩)와 훌륭한 문장을 선별하여 편찬한 서거정(徐居正)의 『동문선(東文選)』을 기초로 하면서 송나라의 『방여

승람(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등의 체제를 참조하여 50권의 『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한다.

1486년(성종 17)에 김종직(金宗直) 등이 일부 증보·수정하여 55권의 1차 수찬본(修撰本)을, 1499년(연산군 5)에 성현(成俔)·임사홍(任士洪) 등이 2차 수찬본을 편찬한다. 그리고 1530년(중종 25)에 이행(李荇)·홍언필(洪彦弼) 등이 일부 증보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55권 25책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한다.

각 고을에 수록된 일반적인 항목은 건치연혁·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봉수·학교·누정·궁실·역원·교량·불우·사묘·총묘·고적·명환·인물·제영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실질적인 통치에 도움을 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유교적 통치 이념,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항목이 강화되어 안정기에 들어선 조선 왕조의 자신감이 들어 있다.

이렇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79년(성종 10)에 을해자판(乙亥字版), 1499년(연산군 5)에 계축자판(癸丑字版), 1531년(중종 28)에 계축자판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가 멸실되자 1611년(광해군 3)에는 목판으로 제작하여 간행하였는데, 현재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이 시기의 것이다. 이러한 간행과 보급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가장 표준적인 전국지지가 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지식인층 사이에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핵심 자료 중의 하나가 되었다.

### 1500년대 후반 이후 단행본 고을 읍지의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개별 고을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하여 놓은 편이라서 개별 고을의 읍지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500년대를 지나면서 마을 중심의 양반지배체제가 완성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자, 지방관과 고을 양반들의 합작으로 개별 고을의 상황을 훨씬 더 많이 수록한 단행본의 고을읍지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것은 이자(李紆)가 1507년(중종 2)에 편찬한 경상도 의성의 읍지인 『문소지(聞韶志)』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 확실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1581년(선조 14)에는 정구(鄭逵)가 경상도 창령의 읍지인 『창산지(昌山志)』를 편찬했으나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같은 해에 윤두수(尹斗壽)가 편찬한 황해도의 『연안읍지(延安邑誌)』가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단행본의 고을읍지이다. 이어 경상도 함안의 읍지인 『함주지(咸州志)』(정구, 1587), 평안도 평양의 『평양지(平壤志)』(윤두수, 1590)가 연속적으로 편찬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1600년대에 들어서면 경상도 지역에서 『영가지(永嘉誌)』(안동, 1608), 『동래지(東萊誌)』(1611), 『상산지

『商山志』(상주, 1617), 『일선지(一善誌)』(선산, 1630), 『진양지(晉陽志)』(진주, 1631), 『문소지(聞韶志)』(의성, 1634), 『단성지(丹城誌)』(1640), 『천령지(天嶺誌)』(함양, 1658), 『동경잡기(東京雜記)』(경주, 1669)가 편찬되며,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함안지제요(咸安志提要)』, 『포산지(苞山志)』(현풍), 『성산지(星山志)』(성주) 등도 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동복지(同福志)』(미상), 『승평지(昇平志)』(순천, 1618), 『무장읍지(茂長邑誌)』(1636), 『탐라지(耽羅志)』(제주, 1653), 『용성지(龍城誌)』(남원, 1699)가 편찬되며, 충청도에서도 전해지지 않지만 공주·홍산·충주·홍주의 읍지가 편찬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수성지(水城志)』(간성, 1632)와 『척주지(陟州志)』(삼척, 1662)가 편찬되었고, 전해지지 않는 연대 미상의 『임영지(臨瀛志)』(강릉), 『통천지(通川志)』, 『의춘지제요(宜春志提要)』(춘천)가 편찬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송도지(松都誌)』(개성, 1648)와 『강도지(江都志)』(강화, 1695)가 전해지고 있고, 연대 미상의 『황려지(黃驪志)』는 전해지지 않는다. 평안도에선 『성천지(成川志)』(1603), 『구성지(龜城志)』(1626), 『강계지(江界志)』(1695), 함경도에서는 『삼강지(三江志)』(삼수, 1681)와 『함산지(咸山誌)』(함흥, 1698)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단행본의 고을읍지가 편찬되던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여파로 향촌사회의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새로운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다. 고을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을의 통치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무너진 사회 질서의 복구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고을 양반 세력들이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고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기 위해 편찬하였다. 넷째, 고을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다섯째, 변경 지방의 읍지들은 군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효제충렬(孝悌忠烈) 등 교화적 성격을 강조한 읍지들이 많았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새로운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고, 양적 측면에서도 훨씬 많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단행본의 개별 읍지는 1700년대와 18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편찬되면서 새로운 전국지나 도별지의 편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 1700년대 이후 전국지 및 도별지의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이후 고을 단위 전국지의 편찬 시도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1656년(효종 7)에 유형원(柳馨遠)이 9권 10책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라는 전국지를 개인적으로 편찬

했지만, 항목과 기본 정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다만 첫째, 성씨·제영 전체를 삭제하고 누정 등 일부 항목을 다른 항목의 내용에 포함시켰고 둘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변화된 내용을 교정·첨가하였지만 많지는 않았으며 셋째, 한전(旱田)·수전(水田)의 항목을 새로 설정하였지만 내용은 수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지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변화된 사회·정치적 체제에 맞는 전국지지 편찬의 첫 번째 시도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679년(숙종 5)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도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국지지의 편찬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실행되지 못하다가 1699년(숙종 25) 경상도와 강원도에 고을의 읍지를 편찬하여 올리라는 명이 내려진다. 하지만 여러 사회·정치적 상황 때문에 끝내 완수되지 못했으며, 1757년(영조 33)에 이르러서야 홍양한(洪良漢)의 건의에 의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국지지의 편찬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1757년 홍문관에서 8도의 감사(監司)에게 각 고을의 읍지를 만들어 올리도록 명을 내렸고, 1759년(영조 35)을 기준으로 하는 읍지가 수합되어 1765년(영조 41)까지 『여지도서(輿地圖書)』란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총 5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전하는 『여지도서』는 39개가 빠진 295개 고을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志, 감영·병영·수영·통영) 및 1개의 진지(鎭志, 군사기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지에는 그림식 지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진관(鎭管, 군사편제)-사방경계와 서울·감영·병영·수영까지의 거리·방리(坊里, 面과 里 및 戶口)-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성지(城池)-관직-산천-성씨-풍속-능침-단묘-공해(公廩)-제언-창고-물산-교량-역원-목장-봉수-누정-사찰-고적-인물-한전(旱田, 밭)·수전(水田, 논)-진공(進貢)-조적(糶糶, 환곡)-전세-대동(大同, 대동세)-균세(均稅, 균역세)-봉름(俸廩, 봉급)-군병-책판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특징을 합해놓은 것과 유사하여 실질적 통치 및 군사 편제에 필요한 정보와 문화적 자긍심을 동시에 수록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지도서』는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여 조선 후기 전국 지지의 자료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았다.

백과사전인 100권 40책의 『동국문헌비고』가 1769년(영조 45)에 시작되어 1770년(영조 46)에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신경준(申景濬)이 주도하여 편찬한 「여지고(輿地攷)」가 6권에서 22권까지 7책으로 수록되어 있다. 지지의 항목 구성은 고을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는데, 역대국계(歷代國界)-군현연혁-산천-도리(道里, 도로와 거리)-관방·성곽-해방(海防)-해로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는 『강계지(疆界志)』, 『산수경(山水經)』, 『도로고(道路考)』, 『산경표(山經表)』, 『사연고(四沿考), 연안항로』, 『가람고(伽藍考), 사찰』, 『군현지제(郡縣之制)』 등 신경준이 편찬한 주제별 지지와 맥락이 같은

것이다. 『동국문헌비고』는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조선 후기 내내 국가와 민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지지 자료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이만운(李萬運) 등이 9년에 걸쳐 교정·증보하여 146권의 『증보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지만 활자본으로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1903년(광무 7)에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여 박용대(朴容大) 등이 편제를 고치고 변화된 일부를 첨가하여 1908년(융희 2)에 250권의 『증보문헌비고』를 편찬하여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1759년(영조 35)에서 1765년(영조 41)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이후, 고을 단위 전국지지의 편찬에 대한 시도가 정조·순조·헌종·철종 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완성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많은 고을읍지가 만들어졌으며, 15책의 『관동지』(1828), 71책의 『경상도읍지』(1832), 34책의 『경기지』(1842~1843), 51책의 『충청도읍지』(1834~1849), 25책의 『관북지』(1859, 尹定善) 등 도별지지가 국가와 민간에서 편찬되었다. 이러한 도별지지에 수록된 고을읍지의 항목 구성이나 내용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지도서』의 것을 따랐다.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와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를 거치며 나타난 위기의식으로 전국적인 체제정비를 위해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昞應)의 명령으로 1871년(고종 8)에 지지의 대대적인 편찬이 이루어진다. 주로 도별로 묶여져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전국지지 중 가장 방대한 양으로 편찬되었다. 하지만 항목의 구성이나 양적 측면에서 전국적 통일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개별읍지를 그대로 베끼거나 일부만 교정한 것이 많다. 이어 1895년(고종 32)과 1899년(광무 3)에도 고을 단위 전국지지의 편찬이 시도되지만 역시 전국적인 통일성이 부족하고 주로 도별지지의 형태로 남아 있다.

## 고려시대 거제의 역사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한 고려는 태조(太祖)이래 중앙정치 조직과 함께 지방제도도 정비하였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태조·성종·현종·예종대를 거치면서 개편 정비되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변동을 겪었다. 고려 군현제는 소수의 주·부·군·현에 외관을 파견하여 영군·영현으로 삼고, 외관을 파견하지 않은 다수의 속군·속현을 편제하는 형태를 띄었으며, 대읍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속현은 재향토착세력인 향리(鄕吏)가 관장하였으며, 주군현(主郡縣)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과 연결되고 있다. 예종 때부터는 속군·속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기 시작함으로써 속군·속현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 제가 강화되어 갔으며, 상대적으로 향리의 대민 지배력도 약화되어 갔다. 고려시대 대읍 중심의 군현제는 읍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을 초래하였고, 당시 가장 큰 대응격인 수도 개경의 권력집중은 그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 아주(鵝洲) 지명(地名)

고려시대 거제지역의 군현체계도 재편되었다. 12목(牧)이 설치된 성종 2년(983년)에는 기성현(岐城縣: 지금의 둔덕면 巨林里)으로 개칭하여 성을 쌓고 12목 가운데 하나인진주목(晉州牧)에 편입되었으며, 당시 본도(本島)의 칠천도(七川島)와 가조도(加助島)는목장(牧場)으로 상마(上馬)의 공급처가 되어 있었다. 성종 14년이래 개편된 12절도사(節度使)체제에서는 거제지역이 산남도(山南道)에 속하여 진주(晉州)절도사의 통제하에속하였다.

5도 양계체계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현종 9년(1018년)에는 지금의 통영과 고성지역인 자고현(自固縣)을 거제현의 임내에 두고 현령(縣令)을 파견하면서 경상도(慶尙道)의 진주목(晉州牧)에 소속시킴으로써 거제현이 주현(主縣)으로 됨과 동시에 그 행정규모가확대되었으나 뒤에 고성현이 분리됨으로 인해 다시 그 규모가 줄어 들었다.원종 12년(1271)에는 왜구의 침략과 진도의 삼별초 항쟁군이 거제지역을 내습함으로인하여 거제현과 명진현 등의 속현 백성을 인근 내륙지역인 거창현(居昌縣)의 가조현(加祚縣) 등지와 진주목의 임내인 영선현(永善縣)으로 분산·이주시켰다. 이어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관성(管城)에 병합하였다가 곧 복구하였다.

우왕(禡王) 때에는 서해도 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인 조운흥(趙云?)이 황폐화된거제섬의 농업·어업의 산업 생산력과 군사적 기능을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까지 거제지역은 진주목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통치 관철,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로의 종속적 재편을 겪었고, 군현의 존립적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되었다.고려왕조의 전개과정에서 거제지역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사에 있어서 그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는 일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고려왕조의 성립이후 경주 및 경상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와 경기(京畿)의 개념은 개경(開京) 및 그주변지역인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공간적 이동을 가져 왔다. 개경과 그 주변의 근기(近畿)지역은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모든 정치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고려왕조의 특권층인 왕족과 귀족 및 승려 등이 살면서 활동하는주된 근거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조건의 변화는 경상도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어 변방으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하며, 특히 경상도 남해연안 역사회에 위치한 거제지역의 위상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 대외 교류에서도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국(對中國) 교류가 부각되고 대일(對日) 교섭이 극히 미미함에 따라 대일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던 거제지역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었을 것이다. 특히 12세기 이후부터는 그 가시적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12세기 이후 거제지역이 해적의 활동거점, 변방의 유배지, 왜구침략의 다발지역, 여·몽(麗蒙) 연합군의 일본 동정(日本東征) 준비, 삼별초 항쟁군의 내습지역 등과 관련한 기사가 문헌기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과 현상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12세기 초기 거제지역은 해적의 주요 활동거점이었다. **고려사(高麗史)**권 15, 인종(仁宗) 6년 4월정사에는“남쪽 경계에 해적(海賊)이 많이 일



## 아주(鵝洲) 지명(地名)

어남으로 어사 중승(御史中丞) 정응문(鄭應文)으로 선문사를 삼아 가서 효유(曉諭)하게 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종 6년 10월 임자에는 「임자 초하루에 동남해찰사(東南海按察使)정응문(鄭應文)이 명진(溟珍)·송변(松邊) 아주(鵝州) 세 현(縣)의 해적인 좌성(佐成) 등 820명이 투항하여 복속하였으므로 이에 합주(陝州)의 삼기현(三岐縣)에 순(歸厚)·취안(就安)의 두 장(場)을 설치하고 진주(晉州)의 의령현(宜寧縣)에 화순장(和順場)을 두어 거쳐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아뢰니 여러 신하들이 하례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종 6년(1128)에 활동한 남쪽 경계의 해적은 거제현의 속현인 명진현·송변현·아주현이 그 중심지역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앙 정부에서 선문사를 파견하고, 6개월이상 항전하였으며, 해적의 투항에 여러 신하가 의종에게 하례하였던 사실은 곧 거제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해적활동이 국왕을 비롯한 개경의 귀족 관료층에게 큰 타격을 끼칠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 해적은 남부지방에서 수취한 세곡(稅穀)을 집결 하고 있었던 남해 연안지역의 조창(漕倉), 그리고 각 지역의 조창에서 남해연안 해로를 통해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조운(漕運) 선박을 주로 탈취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과 귀족관료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저항세력이 투항한 이후의 거취에서 짐작할 수 있다. 동남해 안찰사(東南海按察使)로 파견된정응문(鄭應文)은 저항세력의 두목인 좌성(佐成) 등을 비롯한 820명이 투항함에 따라 내륙지방인 합주(陝州: 현 합천)의 삼기현(三岐縣: 현 三嘉)과 진주의 의령현(宜寧縣)에 분산·거주시켰다. 그 조치는 투항한 저항세력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을해안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사민(徙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결집하여 저항할 수 있는 지역의 공간적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왕과 관료들은 이들 해적활동을 크게 우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투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인종 당시에는 왜구의 침입사실이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해적 항쟁세력의 실체는 고려왕조 내부출신의 몰락 농·어민층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인종대에는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나 국왕의 정국주도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고 정치운영도 혼란하였으며,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라 백성들의 역(役)이 극심하였고, 문신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와 토지점탈, 농민에 대한 지방관원의 가혹한 수탈현상도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12세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읍(主邑), 즉 주군현이 파견되지 않은 속읍(屬邑), 즉 속군현에 대한 수탈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이로써 많은 농민이 유민(流民)으로 떠돌아 다니게 되었으며, 유망농민들 가운데는도적의 무리가 되어 사회·경제적인 모순에 저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은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거제현의 세 속읍인 명진현·송변현·아주현을 중심으로 남해 연안지역 사회 일대에서 직접 저항한 해적세력은 생산을 포기한 유망 군현민층(郡縣民層)이었으며, 당대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계를 잇기 위해

여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남해연안의 해상조운을 방해함으로써 개경정부의 원활한 재정확보와 중앙 귀족관료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일대의 타격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록 그대로 해적(海賊)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수탈구조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이상 활동할 수 있었던 요인은 거제지역이 남해 연안지역의 교통 거점으로써 경상도 남부지방의 중요한 해상 운로(漕運路)였고, 섬이라는 군사·지리상의 유리한 조건과 함께 이자겸의 난이라는 지배세력 내부 분열로 인하여 국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어 중앙의 권력이 곧 바로 미치기 어려운 변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려 중기이후 거제지역은 국왕을 포함한 왕족, 중앙관료, 고급 승려층의 변방 유배지가 되었다. **고려사(高麗史)** 권 13, 예종(睿宗) 7년(1112) 6월 을미에는 부여공(扶餘公) 왕수(王遂)가 거제현의 유형지로 옮겨가는 도중에 죽었으며, 8월 병오에는 왕족인 도생 승통(道生僧統) 왕탱(王?Yg이 반란을 도모한다는 고발을 당하여 거제현에 귀양을 오게 되었다. 인종비(仁宗妃) 공예 태후(恭睿太后)의 매서(妹壻)로서 문예에 능통하고 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고향인 동래 유배지에서 연군(戀君)의 정(情)을 표현한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지었던 정서(鄭敘)는 의종(毅宗) 11년(1157) 거제현으로 유배지를 옮겨왔다. 무신정변의 직후인 의종 24년(1170) 9월에는 의종이 폐위되어 거제 둔덕면 거림리의 폐왕성으로 추방되었다가 명종 3년(1173) 8월 경주로 옮겨가서 살해될 때까지 살았으며, 고종(高宗) 15년(1228)에는 직학(直學) 경유(景儒)가 무인 최씨정권에 대해 정치를 비방했다는 무고를 당하여 거제로 귀양가게 되는 등 거제지역은 고려 중기이후 국왕을 비롯한 왕족이나 대덕 고승 및 중앙관료의 변방 유배지로 역할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배지로서의 역할은 거제지역이 변방으로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의 고급문화, 특히 왕실과 귀족문화, 중앙의 불교와 유교문화를 수용하여 거제지역 사람들의 의식을 자각시키고, 또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특히 의종(毅宗)의 추방은 거제지역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에 따른 의식전환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의종은 기존의 관료집단과 당대에 중용된 무신(武臣)조차정계에서 축출하거나 정국 운영에서 배제하고, 일부 관료집단과 환관·복자(卜者)·관

노(官奴) 등 측근세력을 중용하여 정국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파국을 초래하여 무신정권의 성립을 가져왔다. 이같은 의종의 파행적인 정치운영과 함께 문벌 귀족사회아래에서 무반에 대한 차별대우와 그에 따른 문·무반의 갈등 및 무반의 불만이 정변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군인들의 정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변의 주동인물은 주로 하급장교, 특히 국왕의 시위군인 견룡군(牽龍軍)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50여 명의 문신을 일거에 살해하고 국왕인 의종을 교체하여 거제도 추방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권 19, 의

종 24년(1170) 9월 기묘 및 권 128, 정중부전(鄭仲夫傳)에는「정중부(鄭仲夫)가 왕[毅宗]을 단기(單騎)로 거제현(巨濟縣)으로 사피(辭避)하고, 태자(太子)를 진도현(珍島縣)으로 내쳤다. 이 날 정중부,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은 군사를거느리고 왕의 아우인 익양공(翼陽公) 왕호(王皓)를 맞아다가 왕위에 앉혔다.」정중부가 왕[毅宗]을 핍박하여 군기감(軍器監)에 옮기고 태자는 영은관(迎恩館)에 옮겼다가 마침내 왕을 거제현에, 태자를 진도현에 추방하고 태손(太孫)을 죽였다. 왕의 애희 무비(無比)는...왕을 따라갔다.」

이라 하여 정중부·이의방·이고 등은 의종을 폐위하여 거제현으로 추방하고 태자를 진도현으로 귀양보냈으며, 그 손자를 살해하였다. 익양공(翼陽公) 왕호(王皓)를 명종(明宗)으로 옹립하여 왕위를 교체시켰다. 또한 **고려사(高麗史)**권 19, 명종(明宗) 3년(1173) 8월 경진 및 권 128, 정중부전에는「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간의대부(諫議大夫) 김보당(金甫當)은 계(東界)의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鄭仲夫)·이의방(李義方)을 토벌하고, 전왕(前王: 毅宗)을 복위(復位)시키려 하였다. 동북면 지병마사(東北面知兵馬事)한언국(韓彦國)이 군사를 일으켜고 이에 호응하였으며, 장순석(張純錫) 등을 거제현(巨濟縣)으로 보내어 전왕(前王)을 모시다가 계림(鷄林: 경주)에 나가 머물게 하였다.」라고 하여 의종(毅宗)은 명종(明宗) 3년 8월 경진에 계림, 즉 경주(慶州)로 옮겨갈 때까지 거제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간은 의종 24년(1170) 9월부터 명종 3년(1173) 8월까지 만 3년이였다.그 구체적 위치는 거제 둔덕면 거림리에 있는 폐왕성(廢王城)으로 파악하고 있다. 폐왕성이라는 명칭은 무신정변으로 의종(毅宗)이 폐하여 유배되어 한 때 머물렀음으로 붙여졌으며, 육지와 근접한'견내량(見乃梁)'은 의종이 거제도로 유배되면서 건너 왔다고하여'전하도(殿下渡)'로도 부르고 있다. 이 성은 둔덕면과 사등면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야산 정상(野山頂上, 해발 326m)의 남서 사면(南西斜面)을 중심으로 평면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 자연석 석축산성(石築山城)이며, 거제도 내에서는 육로교통과 국방상의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성채에는 입구가 열린 3곳의 문지(門址)가 있고, 성 안의 중앙에는 동서(東西)로 축대가 놓여 있으며, 남쪽에는 건물터와 우물터가 있다. 아울러 성 밖에는 서남쪽으로 토축(土築)의 나성(羅城) 흔적이 있다. 성의 축조수법이 전형적인 고려시대 산성축조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성곽의 안팎에서는 대부분 고려시대로 편년(編年)되는 기와(器瓦)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남쪽 성벽아래에 있는 경작지에서는 당시의 건물지와 함께청자조각 등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을 비롯하여 후대의 많은 지리지나 문헌자료에서도 둔덕기성(屯德岐城)을 고려 종성(高麗宗姓) 또는 의종(毅宗)이 유배를 왔던곳으로 기술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32, 경상도, 거제현,고적(古蹟)에는「둔덕 기성(屯德岐城)은 현(縣)의 서쪽 37리에 있으며, 석축(石築)의 둘레가 1,002척(尺)이고 높이가 9척이다. 성 안에는 못이 하나 있다.' 본조(本朝, 朝鮮朝) 초기에 고려 종성(高麗宗姓)이 유배를 와서 머문 곳이라'고 세상에 전한다.」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권 4하, 경상도, 거제현, 고적에도 같은 내용이기술되어 있으나 다만 석축의 둘

레가 1,000척이라 하였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경상도, 거제부, 고적에는 부(府)의 서쪽 30리에 있다는 내용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11책, 거제, 고적에는「기성(岐城)의 유사(遺事)에'고려 의종(高麗毅宗)이 정중부(鄭仲夫)에게 폐위되어 이 곳에 거처하였다.'고 한다. **려사(麗史)**에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며, **영남읍지(嶺南邑誌)**25책, 거제 고적조과 **경상도여지집성(慶尙道輿地集成)**, 거제읍지, 고적에도 동일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근대읍지(韓國近代邑誌)**32, 경상도, **통영군지(統營郡誌)**, 성곽에는 **고려사(高麗史)**의 의종 및 거제관련 기사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거제의 둔덕면에 위치한 기성(岐城)은 두 가지의 관련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조선 초기에 고려왕실 왕족(王族)의 유배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고려 무인집권기 의종의 유배 터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은 거제지역사(巨濟地域史)와 모두 관련되는 사실이다. 조선초기 고려왕족의 유배사실은 다음의 조선시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조선 태조 즉위부터 고려왕조(高麗王朝)의 왕족을 거제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있었으며, **태조실록(太祖實錄)**과 같은 관찬서에서 이 내용이확인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고려 의종(毅宗)의 유배사실도 **고려사(高麗史)**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위에 언급된 읍지류의 내용은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무인정권 초기에는 의종이 거제현으로 유배되어 이곳 둔덕의 기성에 머물렀으며, 조선 태조 때에는 거제섬으로 유배된고려왕실의 왕족들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에 소개된읍지류에 대하여 후자의 읍지류가 오해한 사실로도 파악될 수 있다. 조선 태조때 고려왕족이 유배하여 기성에 머물렀던 사실을 후대의 읍지에서 고려 의종의 유배 터로 잘못이해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성이 의종의 유배지라는 사실이 연결되고 있음으로, 둔덕면의 기성은 의종의 유배지와 조선 태조대 고려왕족의 유배 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둔덕면 거림리의 우두봉 중허리에 위치한기성은 고려 의종이 유배되어 머물렀던 폐왕성(廢王城)이라고 추단할지라도 별 무리가따르지 않을 것이다.

의종의 폐위와 유배, 문벌귀족의 살해와 숙청, 그리고 정중부·이의방·이고 등 무인정권의 내분과 정중부의 파행적인 정권운영은 의종 복위운동을 표면화하는 등 반무인정권의 정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개경주변의 사원세력도 이 정변에 동참하였다. 의종복위정변 당시 거제지역에 유배되어 있었던 의종의 동태는 위에서 소개한 **고려사(高麗史)**권 19, 명종(明宗) 3년 8월 경진 및 권 128, 정중부전에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보당은 남로 병마사(南路兵馬使) 장순석(張純錫)과 류인준(柳寅俊)을거제도로 보내어 의종을 모시고 계림, 즉 동경(東京: 慶州)에 모셔다가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복위운동은 김보당

등이 잡히어 죽음을 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가고 10월에는 천민 출신인 이의민(李義旼) 등이 계림으로 출정하여 곤원사(坤元寺)에서 의종을 무자비하게 시해하였다.

의종의 시해사건은 정중부·이의방 무인정권의 정당성 내지 도덕성에 일대의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저항세력의 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의종이시해된 1년 이후인 명종 4년(1174)에는 서경 유수(西京留守) 조위충(趙位寵)의 난이 있었으며, 이 저항에 서북지방의 많은 농민들도 참가하였다. 조위충의 세력이 평정된후에도 그 나머지 무리들은 명종 9년(1179)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명종(明宗) 5년(1175)에는 남부지역에서도 '남적(南賊)'의 농민항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항쟁은 명종 6년 정월이래 공주 명학소(鳴鶴所)의 망이·망소이, 충남 서산 가야산의 손청(孫淸)과 이광(李光), 전북 익산의 미륵산적의 봉기였다. 또한 중앙의 문신 및 하급관료, 동정직 소유자들은 망이·망소이의 항쟁세력과 연계하여 무인정권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정중부·이의방 무인정권 아래에서의 농민항쟁은 외관에 임명된 집권무신의 부하나 문객(門客)이 오직 자신과 집권무신의 입지 및 경제적 기반의 구축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관간의 갈등, 무인정권 전보다 더욱 가중된 민(民)에 대한 수탈이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천민출신 장군인 이의민에 의한 의종의 시해충격과 그에 따른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질서의 동요 현상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거제지역의 사람들은 이 남적의 농민항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반정중부·이의방 무인정권의 경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거제지역 사람들이 의종이 거제의 둔덕면 거림리 기성, 즉 폐왕성에 머물 때까지 그 안전을 보장하였고, 그 성곽수축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거제에서 계림으로 옮겨갈때도 저항내지 방해보다 해상이동에 협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견내량(見乃梁)'을 의종이 건너 왔음을 의미하여 '전하도(殿下渡)'라 부르며, 당시 거제사람들이 의종을 공경내지 경외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고려사(高麗史)** 권 19, 명종(明宗) 5년 11월 임자에 기록된 "어떤 사람이 중방(重房)에 '조관(朝官)들이 남방의 적들과 변란을 일으킬 음모를 하고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날 도교승(都校丞) 김윤승(金允升) 등 7명을 섬으로 귀양보내고 병부 상서(兵部尙書) 이윤수(李允修)를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강직시켰다.

조관이란 문반(文班)을 가르키는 말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고(誣告)로서 허위 보고이지만 명종 5년에는 정중부 무인정권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써 정치적으로 희생된 병부 상서 이윤수를 거제현의 수령인 현령으로 강직시킨 사실은 무인정권이 이 시기 거제현을 소외 군현지역으로 인식하였으며, 거제지역에서 반정중부 무인정권의 의식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권 101, 송저전(宋??傳)에는 명종대에 문관의 지방관 임명과 관련

하여 탄핵을 받은 송저가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강직되었으며, **고려사(高麗史)**권129, 최충헌(崔忠獻) 부 이전(崔怡傳) 에는 고종 10년(1223) 모든 문반을 살해하려는모의를 주동하였던 상장군(上將軍) 최유공(崔愈恭)이 거제 현령으로 강직되고, 그 다음에최이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정중부 무인정권부터최씨 무인정권까지도 거제섬은 변방지역 내지 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한일 해상교통 거점이었던 거제지역은 고려말 왜구의 침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보다황폐화되어 갔다. 왜구(倭寇)라는 용어는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연안에서 구도(寇盜) 행각을 범하던 일본인 해적집단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한다. 왜구는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침략하기 시작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고려사(高麗史)**권 22,고종(高宗) 10년 5월 갑자에“왜(倭)가 금주(金州: 지금의 김해)에 침구(侵寇)하였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 10년(1223)인 13세기 초엽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고려사(高麗史)**권 37, 충정왕(忠定王) 2년 2월 초에는' 왜구의 침입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충정왕 2년(1350) 2월부터 본격화되었다.고종 10년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략은 공양왕(恭讓王) 4년(1392)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공민왕(恭愍王)·우왕(禔王) 때에는 총 493회로써 침략빈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 왜구의 침략 대상지역은 대개 경상도의 남해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공민왕대 이후에는 삼남 지역을비롯하여 경기·강원지역을 비롯하여 그 이북인 평안·함경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전국의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까지 횡행하였다. **고려사(高麗史)**권 39, 공민왕 6년 5월 무자에는 왜구가 개경부근의 승천부(昇天府)와 강화(江華) 교동(喬桐) 예성강(禮成江)까지 침략함으로써 개경에 계엄령을 내릴만큼 고려의 전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다. 고려후기 각 지역별 왜구의 침략현황은 다음과고려시대 왜구의 침략이 빈번한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연유는 경남지역이 왜와 가장 근접하고, 대일 해상교통의 거점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함께 곡창지대로 직결하는 거점로이며, 남해연안의 중요 조운로(漕運路)라는 경제적 조건때문이라 하겠다.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對馬島)와 일기도(壹岐島) 및 그 주변의 5개 섬의 지형적 조건은 농업에 적합치 못하여 식량난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지역을 빈번하게 침략하여 인민(人民)과 식량을 노략질하였던 것이다. 인민의 노략은왜구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노예로 팔거나, 고려로 송환 때에 그 대가를 받기위한 목적이었다. 이처럼 왜구침략의 일차적 목적이 미곡과 인민의 약탈에 있었음으로이들은 각 지방의 조세(租稅)가 집결되는 조창과 이를 운송하는 조운선박을 빈번하게탈취하였다.

이로써 그들의 침략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상도 남해연안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왜구의 침략은 고려의 인적·물적 손실, 즉 생명과 경제적 피해를 심각한 상태로만들었다. 민들은 경제적 약탈과 함께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중고초를 겪어야 하였고,그 결과 생업을 잃고 유리 결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축성(築城)의 역사(役事)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관군과 공조하여 항왜(抗倭)전선에 가담하기도 하였다.13세기 이후 고려가 망할 때까지 거제지역에는 총 5차례의 왜구침략 기

사가 나타나고있다. **고려사(高麗史)** 권 22, 고종(高宗) 13년 정월과 권 37, 충정왕(忠定王) 2년 및 권 39, 공민왕(恭愍王) 10년,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신창(辛昌)에는 각각「(고종 13년) 왜인(倭人)이 경상도 연해의 주군(州郡)을 침략하였다. 거제 현령(巨濟縣令) 진용갑(陳龍甲)이 수군을 거느리고 사도(沙島)에서 교전하여 적의 목을 베었더니 적들이야간에 하였다.」

「(충정왕 2년) 2월에 왜구(倭寇)가 고성(固城), 죽말(竹抹), 거제(巨濟) 등지를 침범하였다. 합포(合浦: 현 마산) 천호(千戶) 최선(崔禪)과 도령(都領) 양관(梁琯) 등이 이를 격파하고 300여 명의 적을 죽였다. 왜구가 우리 나라에 침입한 것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공민왕 10년) 여름 4월 병신에 왜적이 고성(固城), 울주(蔚州), 거제(巨濟)에 침입하였다.」

「(공민왕 18년) 가을 7월 신축일에 거제(巨濟)·남해현(南海縣)에 있는 귀화한 왜인(倭人)들이 배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신창) 8월 왜적이 거제도(巨濟島)에 침입하였다. 진무(鎭撫) 한원철(韓元哲)이 적선 1척을 노획하고 적 18명을 죽였다.」라고 하여 고종 13년(1226)부터 창왕(昌王) 연간(1389)까지 총 5차례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횟수는 거제지역과 직접 관련된 기록에 불과하며, 거제지역이 대일 해상교통 거점이므로 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그 횟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또한 충정왕 2년(1350)에는 300여 명의 왜구가 사살될 만큼 대규모의 침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곧 거제지역의 피해상황도 그에 비례하여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심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거제지역은 군현민의 포로 및 사상(死傷)과 같은 인적 기반, 연안어업 자원 및 농업생산과 같은 경제적인 생산기반이 크게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이후에 왜구의 피해를 입은 거제현민의 실체는 원종 12년(1271) 인근 내륙 군현으로 옮겨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옮겨 갔으나 거제지역을 왕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제현민, 그리고 거제주변의 군현민으로 본섬을 거점으로 생업을 영위해 간 군현민들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남해연안의 조운 운영에서도 큰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거제지역은 고려시대 경상도지역의 핵심적인 해상 조운로이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50, 지리지, 경상도에는 “도내(道內, 경상도)의 공부(貢賦)는 각각 가까운 곳에 따라 김해(金海)의 불암창(佛巖倉),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사천(泗川)의 통양창(通洋倉)등으로 나누어 수송하여 해안을 따라 전라(全羅)·충청도(忠淸道)의 해로(海路)를 거쳐서 서울에 송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상 운송체계는 이미 고려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남해연안의 해상교통 중심지였던 거제지역은 조운의 중요 거점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이 시기 거제지역은 왜구침략의 중요 대상지역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와 같은 문화유산의 탈취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에 거제지역에 침략한 왜구(倭寇)에 대해 고려정부와 거제섬에서 생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선적극적인 실전으로서의 교전(交戰), 왜구의 귀부(歸附)정책을 구사하였으며, 교전에는 관군과 함께 주변지역의 토착세력들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거제지역이나 주변지역의 하층 군현민들도 성곽의 축조나 실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들 자신의 삶의 터전과 민족적 자긍심을 수호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공민왕 18년의 기사 내용처럼 귀화한 왜구를 거제섬을 비롯한 남해지역에 거주시키기도 하였다. 이같은 응집된 힘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전략도 고려말 왜구의 빈번한 침략을 완전 격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거제지역의 피해가 막대하여 황폐화가 가속되고 왜구의 내륙 기지화처럼 되었다. 이에 고려정부는 거제의 군현민을 인근 내륙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거제현의 관사조직과 그 공간의이주, 현민들의 사민(徙民)조치는 왜구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충정왕 2년(1350)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취해졌다.

**고려사(高麗史)권 57, 지리지, 경상도(慶尙道), 진주목(晉州牧), 거제현(巨濟縣)**에는「원종(元宗) 12년 왜구로 인하여 땅을 잃었음으로 거창현(居昌縣)의 가조현(加祚縣)에붙어 살았으며, 충렬왕(忠烈王) 때에 관성(管城)에 병합하였다가 곧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였다.」라고 하여 원종 12년(1271)에 왜구의 혹독한 피해로 인하여 거제현의 관사조직과 거제현민(巨濟郡民)을 거창현의 속현인 가조현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31, 경상도(慶尙道), 거창군(居昌郡), 고적(古跡)** 및 권 32, 경상도(慶尙道), 거제현(巨濟縣), 고적(古跡)에는「아주촌(鵝洲村) : 거제(巨濟)가 가조현(加祚縣)에 붙어 살았을 때 본도(本島) 안의 속현(屬縣) 및 역(驛)·원(院) 등을 가조현 경내에 아울러 임시로 설치하였다. 아주현은 군(郡)거창군의 동쪽 10리 지점에 있고, 송변현(松邊縣)은 무촌역(茂村驛)의 남쪽 5리 지점에 있으며, 오양역(烏壤驛)도 가조현의 서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사는 백성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 「명진폐현(溟珍廢縣) : ... 원종 때에는 왜(倭)를 피해, 육지에 나와서 진주의 영선현(永善縣)에 우거하였다. 본조 공정왕조(恭靖王朝)에 강성현(江城縣)과 합병하여 진성(珍城)이라하였고, 세종조에는 본 섬(거제도)에 다시 내속(內屬)시켰다.」라고 하여 거제현이 옮겨 가면서 그 소속의 속현과 역·원 등을 함께 옮겨 설치하였다. 그리고 거제현의 치소, 그 속현인 아주현(鵝洲縣)·송변현(松邊縣), 오양역(烏壤驛)을 비롯한 역(驛)·원(院)은 가조현의 경내에 임시로 설치하였으며, 명진현은 진주목의 속현인 영선현(永善縣)으로 옮겨 갔다. 이 때는 거제현의 토착세력인 토성 이족(土性吏族)과 함께 하층 군현민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원종 12년 거제현과 그속현 및 역·원을 인근 내륙지역인 거창군의 속현인 가조현과 진주목의 속현인 영선현에 옮긴 배경은 왜구의 침략에 따른 거제 현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남해연안 지역에서의 왜구침략의 기지화를 차단함에 있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연유는 거제지역의 사람들이 삼별초 항쟁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선, 원종 12년 경에는 아직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원종대 전후의 시기에 나타나는 왜구 침략사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10년부터 시작되어 충렬왕대까지 이르는 왜구의 침략은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지속된 왜구의 침략은 그 침입규모나 횟수, 그 피해상황에 있어서 크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고려와 일본은 진봉무역(進奉貿易)이라는 형태의 교역관계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기때문에 왜구의 침략은 국지적인 형태에 불과하였으며, 고려정부로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왜구의 침략규모나 형태도 계획적인 약탈이나 조직적인 전투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거제지역에 있어서 왜구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는 충정왕 2년 이후이다. 그러므로 거제지역이 옮겨 가는 원종 12년(1271) 전후에는 우리나라 및 거제지역에는 왜구의 침략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피해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원종 12년 거제현을 인근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킨 직접적인 연유는 위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왜구의 침략이라는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종 12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있어서 거제현의 이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내용이 주목된다. **고려사(高麗史)**권 27, 원종(元宗) 12년 3월에는「항차 지금 역적들(三別抄:항쟁군)이 날이 갈수록 번성하여 그 피해가 금주(金州:지금의김해), 밀성(密城:지금 밀양)에까지 미치었고, 게다가 또 남해(南海), 창선(彰善), 거제(巨濟), 합포(合浦: 지금 마산), 진도(珍島) 등 해변 부락에는 모두 습격·약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일체의 곡물 징발사업은 보장하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원종 12년 3월에는 역적으로 표현·기술된 삼별초(三別抄)항쟁군이 거제현을 비롯한 서·남해 해안 및 내륙지역을 그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있었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31, 경상도(慶尙道), 거창군(居昌郡) 속현 가조현(加祚縣)에는「원종 때에 거제현(巨濟縣)이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피해서 관아도 여기(加祚縣)에 우접하고 그대로 거제라 일컬었다.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와서 거제는 본래 섬으로 돌아가고 현도 또한 거창으로 도로 예속되었다.」라고 기록하여 원종 때에 거제현을 거창군의 속현인 가조현에 옮긴 연유는 삼별초 항쟁세력의 침략을 피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종 12년 거제현과그 속현 등의 관아와 관사조직의 이주 및 사민정책은 삼별초 항쟁세력과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원종 11년(1270) 5월 어사 중승(御史中丞) 홍문계(洪文系)와 직문하성사(直門下省事) 송송례(宋松禮) 등이 임유무(林惟茂) 등의 무인집권을 종식시키는 정변이 일어나 왕권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왕권회복은 몽고의 후원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몽고에 대한 고려의 항복과 종속성은 점차 분명한 현실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몽고에서 귀국한원종이 개경환도를 선언하였고, 무인정권에 의하여 설치되고 대몽항전의 유력한 무력기반이 되었던 삼별초군의 조직체계는 혁파되었으며, 이에 삼별초는 그 수용을 거부하였다.

몽고와의 굴욕적인 강화교섭과 개경환도에 불만을 품고, 몽고에 대한 지속적인 항전,개경환도 정부의 부인(否認), 고려왕조의 정통성 및 자주독립국의 고수를 주창하면서강화경(江華京)에서 일어난 삼별초 항쟁군은 왕족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황제로추대하고 전남 서해안의 진도(珍島)를 거점으로 삼

아 진도정부(珍島政府)를 수립하였다. 이들 삼별초 항쟁군은 민족적 모순의 극복과 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한 변혁의지를 뚜렷이 하였던 유망 농민층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립한 정부는 고려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통 고려정부로 자칭하였는데, 이는 당시 개경정부와 대응하며 일본 등 국제 교린 관계의 수립에 따른 필요성과 함께, 우리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대몽항쟁의 지속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원종 12년에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정부가 정통 왕조임을 표명하고 몽고에 대한 공동전선의 구축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이들 진도정부는 우수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해 및 서해 연안지역을 확보하여 연안의 해상 조운로를 차단시켰으며, 개경까지 출몰하여 개경 정부와 몽고를 크게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종 12년 진도가 여·몽연합군의 치밀한 공격으로 함락되고, 잔존 세력이 제주도로 옮겨 항전을 지속하였으나 원종 14년(1273) 이듬해 진압되고 말았다. 이로써 반몽세력은 일거에 제거됨으로써 고려의 종속화는 심화되었던 것이다. 여·원 연합군의 일본동정(日本東征)이 추진되었고, 그에 따른 삼남지역의 경제적·군사적 동원이라는 고역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삼별초의 항쟁세력은 유망 농민층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지방의 여러 주현을 통괄하기도 하였다. 삼별초 항쟁세력은 진도를 비롯하여 제주·나주·전주 등 전라도의 도서해안과 내륙지역 및 거제·남해·마산·동래·김해·밀양·청도·상주 등 경상도의 도서해안과 내륙지방까지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원종 12년 1월에는 밀양·청도 등지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과 개경 등에서 삼별초 항쟁세력을 호응하는 봉기가 일어났으며, 그 지방의 토착세력과 군현민 및 유망 농민층이 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 주군의 관원 가운데는 삼별초 정부를 지지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삼별초에 호응하지 않는 지방관은 군현민에 의해 피살을 당하거나 삼별초 항쟁군에게 체포되어 철저한 응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원종 12년 전후에 있어서 개경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삼별초 항쟁세력에 대한 대응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남해연안의 해상교통 거점인 거제현이 삼별초 항쟁군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상조운의 방해를 받아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원종 12년에는 밀양지역에서 삼별초 호응봉기가 발생하여 거제 지역의 주변인 김해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었으며, 또한 「고려첩장 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라는 고문서의 기록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삼별초 정부가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섭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로써 개경정부 내부에서는 한·일 해상교류의 거점이었던 거제지역을 비롯한 남해연안지역을 삼별초 항쟁군의 세력권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필요성과 긴박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개경정부는 거제현을 비롯한 주변 남해연안 군현민을 인근내륙지역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남해 연안지역에서 있어서 삼별초 항쟁군의 호응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원종 13년 11월에 삼별초(三別招)가 거제현(巨濟縣)에 쳐들어 와서 전함(戰艦) 3척을 불태우고 현령

(縣令)을 잡아갔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거제현을 인근 내륙지역으로 옮긴 다음 해인 원종 13년에는 삼별초 항쟁군이 거제지역으로 쳐들어 와서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잡아갔다.이같은 군사행동은 원종 12년 거제를 인근 내륙지방으로 옮기는 개경정부의 정책을 거제현의 지방관이 동조하고, 삼별초 항쟁군에 대한 진압군의 군사적 거점을 제공하는 등 삼별초 항쟁군에게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수 있다.삼별초 항쟁기에 있어서 거제지역은 일정 기간동안 삼별초 정부의 세력권에 편입되어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호응한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원(元)나라의 과중한 군량요구와 개경정부의 가혹한 수취에 따라 합포·고성·거제를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에 있었던 군현민들의 생활상이 피폐화되어 갔다. 이같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동조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제지역의 토착세력과 하층 군현민들도 삼별초 항쟁군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거제현을 인근 내륙지역으로 옮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삼별초 항쟁군이 여·원 연합군을 심한 곤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강력한 해상군력을 가지고 개경 정부를 위협하면서 지속적인 항몽투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제지역을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토착세력과 하층 군현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협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도 거제지역이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중요 거점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경제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식과 실천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물론 원종대에는 몽고의 강력한 요구였던 일본의 귀부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일해상교통의 거점이었던 거제지역이 일시 주목되기도 하였다.원종 8년 정월의"송군비(宋君斐), 김찬(金贊)이 몽고의 사신과 더불어 거제도 송변포(松邊浦)에 이르러 풍파가 험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삼별초 항쟁군이 와해된 이후에도 거제현은 원래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 존립의 위기는 지속되어 갔다.이 시기이후 지속적인 왜구의 침략과 함께 여·원(麗元) 연합군의 일본동정(日本東征) 준비에 소용되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은 고려정부, 특히 삼남(三南)지역이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제현을 비롯한 남해연안 지역사회의 군현민들은 대거 몰락하였으며, 거제지역도 더욱 피폐화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충렬왕 때는 옮겨갔던 거제현이 관성(管城)에 병합됨으로써 그 독립적인 행정체계의 존립기반이 일시적으로 해체되기도하였다. 그러나 곧 혁파되어 복구됨에 따라 그나마 독립 지방행정 군현 단위로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말까지 거제섬은 크게 황폐화되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권 112, 조운흥전(趙云??傳)에는「우리나라는 바다로 왜국(倭國)과 가깝고 육지로는 오랑캐 땅과 인접되고 있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경은 서해(西海)로부터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慶尙)까지 바닷길이 거의 2,000여 리가 됩니다. 바다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섬은 대청(大靑), 소청(小青), 교동(喬桐), 강화(江華), 진도(珍島), 절영(絶影: 현재 부산시 영도구), 남해(南海), 거제(巨濟) 등의 큰 섬이 20곳이나 있으며, 작은 섬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섬들은 토지가 비옥하고 어염(魚)의 자원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황폐되어 경영하지

않으니 한심한일입니다。」라고 하여 고려말 우왕(禑王) 때까지 거제섬은 황폐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해도 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 조운흥(趙云????)은 고려의 군사적 전략과 연결시켜 거제섬의 농업생산을 바릇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왕(禑王)이 이 방안을 수용하여 도당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이 불투명하여 거제섬의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옮겨간 거제현과 그 속현의 관아 및 지역사람들은 고려말까지 거제섬으로 복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있어서 거제지역은 남해연안의 변방지역으로 재편됨으로써 민족사에 있어서 그 역할이 크게 약화되어 왕족과 관료 및 고승의 변방유배지, 반정부의 항쟁지역, 빈번한 왜구의 침략지역, 삼별초 항쟁의 관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려의 성립과 더불어 대일교섭이 소원해짐에 따라 한·일 해상교류의 거점 교통로로서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 12세기 초기이후 무인집권기에도 이들 지역은 변방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고려후기 삼별초 항쟁군의 세력권과 왜구침략 및 여·원 연합군의 일본동정(日本東征)에 있어서 최일선에 노출됨에 따라 거제섬의 피폐화가 가속되었고, 거제 관아와 그 지역민들은 인근 내륙으로 옮겨가서 더부살이를 하였으며, 일시적이거나 독립적인 지방행정 단위의 존립도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거제현민들은 민족사와 지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해 연안지역의 해상조운로, 한·일 교섭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사회·경제적인 모순구조에 저항하고, 왜구나 몽고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지역사와 민족사의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배의 땅이라는 변방의 입지 조건을 오히려 중앙의 고급문화를 수용하여 자기지역 문화와 의식을 발전시키기는 계기를 삼기도 하였다. 이런 점이 바로 고려시대 거제현민들의 저변에 흐르던 역사·문화적 성격이라 할 것이다.

## 왜, 고려 때 거제현민들은 가조현으로 갔을까?

고려 때 거제는 왜구의 침입에 신음하고 있었던 섬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739년 전인 1271년 개경중앙정부에 의해 거제현의송변·아주·명진현은 자기 땅을 버리고 진주현 영선현과 거창현의속현 가조현으로 이주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왜구의침략으로 갔다고 정사나 각종 지리지, 읍지 등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론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앞으로 거제현이 어떻게 내륙으로 이주하게되었는지 몇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거제, 개경정부에 저항하다

변방 또는 절도(絶島, 육지와떨어진 섬)라고 부른 거제는 고려 때 개경중앙정부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해적'이라고부르고 잡아야 하는 존재로 보였다. 하지만 거제에서 중앙정부를 위협하던 거제의 저항세력은 해적이 아니라 지방관의 수탈과 과중한 노동력 착취, 토지의 탈취 등으로 고초를 당하고 있었던 농민과 어민들이었다. 당시이들은 고려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목숨을 걸고 싸운 저항군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비슷한 사례는 고려 인종 때 일어난 묘청의 난, 삼별초의 항전, 갑오농민전쟁, 1907년 의병전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성정부나 일본은 농민군과 의병들을 '폭도'로 몰아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그럼 정사로 알려진 <고려사>에거제의 저항세력을 '해적'이라고 실린 내용을 보자.

"남쪽 경계의 해적이 많이 일어남으로 어사중승(御史中丞) 정응문(鄭應文)을 선무사로 임명하여 가서 이들을 타일러 깨우치도록 하였다(『고려사』 권15, 인종 6년 4월)."

"겨울 10월에동남해 안무사(東南海安撫使) 정응문(鄭應文)이 아뢰기를, "명진(溟珍)·송변(松邊)·아주(鵝洲) 세 고을의해적 좌성(佐成) 등 8백 20명이 귀순하여, 이미 합주(陝州, 합천) 삼기현(三岐縣, 삼가(三嘉))에 귀후장(歸厚場)·취안장(就安場)과, 진주(晉州) 의령현(宜寧縣)에 화순장(和順場)을 설치하여 그들을 정주하게 하였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하례하였다(『고려사』 권15, 인종 6년 10월임자; 『고려사절요』 권

9, 인종 6년 10월)."

고려 1128년(인종 6) 4월~10월 사이 송변현과 아주·명진 속현에 속한 '해적'인좌성(佐成) 등 820명이거 제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저항세력의 수장인 좌성은 거제현의 성씨도 아니고, 거제지역사 회의 토착세력 출신도 아니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위협될 정도였을까. 신하들이 좌성 등의 귀순을 보고인종에게 하례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저항활동을 벌이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특히 거제현은 고려시대 12조창 가운데 경상도의 사천과 합포에 각각 위치한 통양창과 석두창이나 그 해상 운송로와 인접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상도 남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조창과 조운로를 공격하여 세곡의 운송을 방해하면서 국가 재정운용이나관료들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었다.이처럼 거제의 속현들은 중앙정부와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반감을깊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중부의 난으로 피신해 온 의종이 3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있고, 1173년(명종6) 6월에 김보당 등과 함께 경주로 옮겨 갈 때도 거제 현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다. 따라서당시 거제 현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훗날 거제 현민들이삼별초 항쟁 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혹은 협조한 사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항의 섬, 삼별초 항쟁 참여, 의종·명종 이후 권신이 집권하면서 날새고 굳센 군졸은 모두 삼별초에 속하였다. 쉽게말하면 특수부대다.

삼별초에는 좌별초·우별초·신의군(神義軍, 고려 사람으로 몽고에 잡혀갔다가 도망온 자들로 신의군을 삼음)을 말하는 것으로 야별초(夜別抄, 최우가나라 안에 도록이 많으므로 용사를 모아 매일 밤 순찰하게 하여 그를 단속하였는데 그 이름을 야별초라 함)가점차로 크게 되어 좌별초·우별초로 나누어지고 마침내 신의군을 조직하여 이루어졌다. 강화도로 천도한 뒤에는 이들이 주로 몽고별의 방위를 담당했다.

그들은 최씨 무인정권의 수족으로 움직이다가 최씨의 무인정권이 몰락하자 그 뒤를 이어 임연이 이들을 장악하고 임씨가또 몰락하자 60년여 간의 무인 집정 체제가 허물어지고 정권이 왕에게로 옮겨오게 됐다.

무인정권은 강력 몽고의 침입, 즉 외적인 요인으로 파멸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변동기에서 마지막으로 무인정권의 수호를 위하여 분투한 사람들이 삼별초다. 그들은 무인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싸웠지만 한편 외적의 침입에굴하지 않는 고려 무인의 정신을 발휘해냈다.

그들은 원종을 중심으로 한 항복파를 따르지 않고 따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끝까지 몽고에 항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강화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였다. 삼별초를 통솔한배중손 등은 그들

이 새로 세운 왕을 모시고 전남 진도로 남하하여 진도를 도읍지로 삼고 전남·경남의 여러섬들을 장악했다.

그리하여 옛날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였듯이 삼별초도 해상권을 장악한 왕국을 건설했다. 특히 남해에는 삼별초의 중견이 되는 유존섭이 있으면서 진도와 맞붙어 창선 거제 등의 섬들을 점령하고 연안 해변에나타났다.이처럼 삼별초는 거제도 전역을 지배하면서 그 위세를 떨쳤다.이런 상황에서 원종은 몽고와 결탁하여 김방경의 관군과 몽고군의 연합군 등이 합세하여 삼별초 항쟁군을 굴복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몽고연합군에 밀린 진도의 삼별초는 김방경 혼도 등에 의하여 진압됐다.그러자 삼별초의 부장인 김통정은 다시 남은 군민들을 거느리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끝까지 항전했다.

그러나 김방경과 혼도의 여몽연합군의 재차 공격을 받고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항쟁을 일으킨 지 4년 만인 원종 14년 4월에진압되었다.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간 뒤에도 배로서 경남 연해안과 섬들에 와서 횡포한 짓을 많이 하였다고한다. 삼별초의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들어간 몽고 군사는 여기에 오래 머물러서 그 풍속·습관·언어 등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삼별초의 항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서 반외세(反外勢), 몽고투쟁(蒙古鬪爭)의 긍정적 측면과 무신정권의 기반으로서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가지고 냉철하게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삼별초의 항전은 몽고의 반침략투쟁(反侵掠鬪爭)으로서 나라를 예속화(隸屬化)하려는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반몽적(反蒙的) 성격으로서, 또 몽고에 투쟁해 자주성을 보여주는 민중저항정신을 대변한 민중적(民衆的) 성격으로서의 의의(意義)가크다.

거제현 이주, 개경정부의 음모?!

거제현의 속현인 아주현·송변현·명진현및 역(驛)·원(院) 등이 1271년(원종 12) 가조현(加祚縣)과영선현으로 이주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왜구에 의해 거제현과 그 속현이 이주하게 되었을까. 여기에서는새로운 시각으로 거제현의 강제이주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사류와 지리지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자.

원종 12년에 왜구로 인하여 땅을 잃었음으로 거창군의 가조현에 임시로의지하여 살았으며, 충렬왕 관성(관성)에 병합하였다가 곧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였다(『고려사』권57, 지리지, 경상도, 거제현).

거제현 : 고려 현종 무오년에 현령관을 두었는데, 원종 12년 신민(원나라지원 8년이다)에 왜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고 거창 가조현에교거하였다(『세종실록』권150, 경상도, 진주목, 거제현).

## 아주(鵝洲) 지명(地名)

명진현은 원존 신미년에 왜적을 피해 육지로 나와서 진주 임내인 영선현에 살았다.본조(조선) 공정왕(定宗) 원년 기묘에 두 현(강성현과명진현)을 합하여 진성(珍城)이라 이름하였다(『세종실록』권150,경상도, 진주목, 진성현).

아주촌(鵝洲村) : 거제현이가조현에 임시로 의지하여 살았을 때 본도(거제) 안의 속현및 역·원 등을 가조현 경내에 아울러 임시로 설치하였다.

아주현은 군(거창군)의동쪽 10리 지점에 있고, 송변현은 무촌역(茂村驛)의 남쪽 5리 지점에있으며, 오양역도 가조현의 서쪽에 있었다. (그리하여) 사는 백성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31, 경상도, 거창군, 고적).

명진폐현(溟珍廢縣) : 원종때에는 왜를 피해, 육지에 나와서 진주의 영선현(永善縣)에 살았다. 본 조(조선) 恭靖王 때에 강성현(江城縣)과합병하여 진성현(珍城縣)이라 하였고, 세종 때에는 본 섬(거제도)에다 시 내속시켰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32, 경상도, 거제현, 고적).

이들 문헌은 거제현의 이주 배경에 대해, '왜구'에 의해 가조현과 강성현으로 이주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주한 사람들은거제현의 관리, 각종 기관, 사람들까지 전부였다. 이러한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조치는 거제지역민의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왜구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거제현과 일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육지로 가게 된 배경은 왜구 침략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다. 1271년(원종 12) 당시 왜구의 침략이 극에 달한 시기인지, 중앙정부가 극단의조치를 취해야 할 사태에 직면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223년(고종 10) 5월 왜가 금주(김해)에들어왔다 함이 왜구의 첫 기록이다. 그 이후 1290년(충렬왕 16)까지 왜구의 침략 횟수는 총 9회 뿐이다. 특히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이주한 시기인 1271년에는 왜구 침략도 없었다. 거제현에 왜구의 침략 첫 사례는 1226년에 발생하게 된다.

봄 정월(正月), 왜(倭)가 경상도(慶尙道) 연해 주군(沿海州郡)에침구(侵寇)하므로 거제 현령(巨濟縣令) 진용갑(陳龍甲)이 수군들을 사도(沙島)에서싸워 2급(級)을참살(斬殺)하니, 적(賊)이 밤에 도망하였다(고려사세가 편, 고종 13년(1226)1월).2월, 왜구가 고성(固成) 죽림(竹林) 거제(巨濟) 합포(合浦)에 들어오자 천호(千戶) 최선(崔禪) 도령(都領) 양관(梁瑄) 등이 싸워 이를 쳐부수고 삼백여명을 죽였다.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려사』권37,충정왕 2년 2월).

위의 기사에도 알 수 있듯, 1271년 보다 약 80년 이후 발생한 큰 사건이었다. 거제현이 왜구의 침략에 의해 가조현으로피난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왜구의 침략은 1392년(공양왕 4)까지 169년 간 총 529회이며, 그가운데 공민왕·우왕 때에는 총 493회로 침략 빈도가 집중적



으로나타나고 있다.

그럼 거제현과 그 속현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문헌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종 때에 거제현이 삼별초의 난을 피해서 관아도 여기(가조현)에 임시로 살았고 그대로 거제라 일컬었다. 우리 세종 때에 와서 거제는본래 섬으로 돌아가고 (가조)현도 거창군으로 도로 예속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31, 경상도,거창군, 속현, 가조현).

3월, ...하물며 이제 역적(逆賊, 삼별초-필자주)이 날로 더욱 만연(蔓衍)하여경상도(慶尙道) 금주(金州김해(金海))와 밀성(密城·밀양)에 침입하였사오며 거기에 또 남해(南海)·창선(彰善)·거제(巨濟)·합포(合浦·마산)·진도(珍島) 등지를 탈취하고 빈해부락(濱海部落)에 이르기까지 모두 겁탈(劫奪)되었나이다(고려사 세가편, 원종 12년). 하지만 거제현과 일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육지로 가게 된 배경은 왜구 침략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다. 1271년(원종 12) 당시 왜구의 침략이 극에 달한 시기인지, 중앙정부가 극단의조치를 취해야 할 사태에 직면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223년(고종 10) 5월 왜가 금주(김해)에들어왔다 함이 왜구의 첫 기록이다. 그 이후 1290년(충렬왕 16)까지 왜구의 침략 횟수는 총 9회 뿐이다. 특히 거제현이 가조현으로 이주한 시기인 1271년에는 왜구 침략도 없었다. 거제현에 왜구의 침략 첫 사례는 1226년에 발생하게 된다.

봄 정월(正月), 왜(倭)가 경상도(慶尙道) 연해 주군(沿海州郡)에침구(侵寇)하므로 거제 현령(巨濟縣令) 진용갑(陳龍甲)이 수군들을 사도(沙島)에서싸워 2급(級)을참살(斬殺)하니, 적(賊)이 밤에 도망하였다(고려사 세가 편, 고종 13년(1226)1월).

2월, 왜구가 고성(固成) 죽림(竹林) 거제(巨濟) 합포(合浦)에 들어오자 천호(千戶) 최선(崔禪) 도령(都領) 양관(梁瑄) 등이 싸워 이를 쳐부수고 삼백여명을 죽였다.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려사』권37,충정왕 2년 2월).

위의 기사에도 알 수 있듯, 1271년 보다 약 80년 이후 발생한 큰 사건이었다. 거제현이 왜구의 침략에 의해 가조현으로피난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왜구의 침략은 1392년(공양왕 4)까지 169년 간 총 529회이며, 그가운데 공민왕·우왕 때에는 총 493회로 침략 빈도가 집중적으로나타나고 있다.

그럼 거제현과 그 속현의 사람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문헌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종 때에 거제현이 삼별초의 난을 피해서 관아도 여기(가조현)에 임시로 살았고 그대로 거제라 일컬었다. 우리 세종 때에 와서 거제는본래 섬으로 돌아가고 (가조)현도 거창군으로 도로 예속되었다(『신증

동국여지승람』권31, 경상도,거창군, 속현, 가조현).

3월, ...하물며 이제 역적(逆賊, 삼별초-필자주)이 날로 더욱 만연(蔓衍)하여경상도(慶尙道) 금주(金州김해(金海))와 밀성(密城·밀양)에 침입하였사오며 거기에 또 남해(南海)·창선(彰善)·거제(巨濟)·합포(合浦·마산)·진도(珍島) 등지를 탈취하고 빈해부락(濱海部落)에 이르기까지 모두 겁탈(劫奪)되었나이다(고려사 세가편, 원종 12년).



黑浦津 在府南七十里五采面○唐浦津 在府南九十里廣德面○忠清道牙山等

邑通 韓津 在府南九十里浦內面舊稱大浦津○忠清道唐津等邑通涉

島嶼

楓島 在府西八十里雨井面自該面水路二百九花島 亦在雨里○五稅自南陽收去只民戶入籍本府

該面水路百巨梅島 在府南百里佳士面自該面水路十里舊里無土稅 有巨梅鵝洲梧桐三島鵝洲梧桐海溢沉

沒今只有巨梅猶稱三島 有三島屯稅今屬官

蹕路 英宗庚午溫 幸時及庚辰 莊獻世子溫 幸時有蹕路其後民多犯耕 正宗己酉遷 園後自

朝家給價買路遷田畝而廣振之給掃雪復屬之修理所雇丁掃雪治道不足則以公錢會減路之左右

植松柳 相連

遲遲峴 在府北十五里日用面自此為本府初境峴之北即廣州界峴上立初境長柱又有標石刻遲遲峴 園幸時

地境分界處刻石立標 初名沙斤峴 正宗乙卯改 命名彌勒峴 丙辰又改 命名改處載之府誌 蹕路地名皆 命名

云而無 遲遲臺 在遲：峴下十餘步路西 正廟 園幸回鑿不載者 時每駐蹕于此築臺臺面刻遲：臺○乙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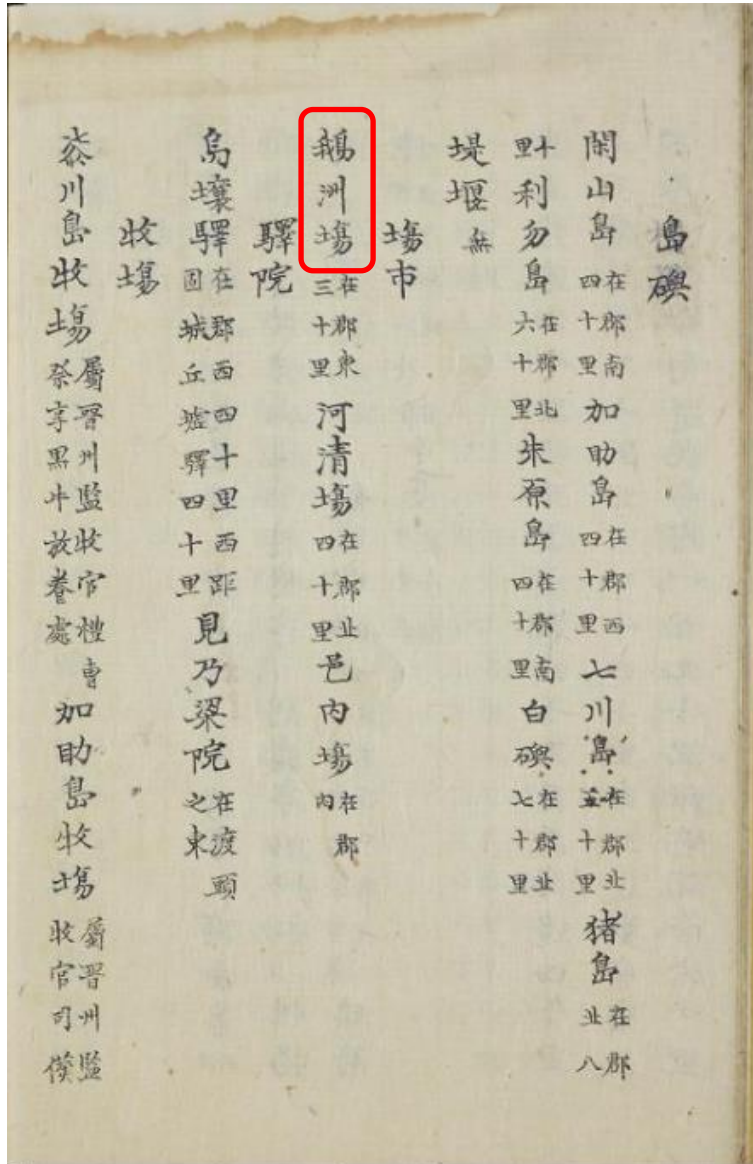
行幸時 傳教若曰每於省 園之路還到彌勒峴停蹕遠瞻久而不能發自不覺下騎彷徨今行見峴上環席地而臺者命

其臺曰遲遲此後行幸路程彌勒峴之下添入遲遲臺三字○丙辰 行幸時 御製廿一何日來省 象設履茲濡露濡慕

彌切還次華城闕兩停蹕夷猶適願坐且明發歷駐遲遲之臺行行路轉而涉岵之思耿耿如結瞻望久之志感以一律 晨

昏不盡慕此日又華城露寐 園兩徘徊齋殿情若為三夜宿猶有七分成鴉首遲遲路梧雲望東生 諶昔年 溫幸時駕

楓島 [주:在府西八十里雨井面自該面水路二百里○土稅自南陽收去只民戶入籍本府] 九花島 [주:亦在雨井面自該面水路百里 無土稅] 巨梅島 [주:在府南百里佳士面自該面水路十里舊有巨梅鵝洲梧桐三島鵝洲梧桐海溢沈沒今只有巨梅猶稱三島有三島屯稅今屬宮內府]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 場市

場市

鵝洲場 [주:在郡東三十里] 河清場 [주:在郡北四十里] 邑內場 [주:在郡內]

아주(鵝洲) 지명(地名)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以	來	方	以	霞	人	亭	官	受	書	封	禦	為	第	漢	政	兵	樞	授	子
州	封	外	見	翁	以	北	關	身	忠	洛	賊	三	先	享	堂	追	密	右	文
為	尚	交	志	佯	典	掘	連	輕	烈	城	錄	元	致	玉	文	擊	院	副	科
本	山	超	與	狂	法	地	燒	國	王	君	功	帥	世	成	學	凡	直	代	補
貫	君	然	慈	自	掄	藏	守	之	時	文	一	號	院	蘭	院	戰	士	後	文
本	朝	有	恩	晦	即	之	雌	臣	持	忠	等	金	金	及	為	紅	頭	從	恭
朴	安	世	寺	出	辭	得	直	人	斧	享	官	先	得	紅	頭	頭	倭	恭	愍
臣	文	外	僧	入	職	不	禁	比	獨	龜	至	齊	以	頭	賊	防	八	元	宿
肅	科	之	宗	必	未	焚	中	之	諫	湖	同	濟	功	拜	船	防	元	宿	衛
太	官	想	林	騎	居	遷	負	唐	請	祠	知	擊	封	輪	州	禦	都	指	衛
宗	至	為	李	著	陰	翰	史	介	誅	密	密	有	商	忠	散	府	指	衛	及
朝	大	李	敏	騎	山	院	山	金	守	直	有	以	山	保	尹	得	使	王	即
為	提	道	道	牛	下	呼	呼	守	雌	州	從	即	君	筭	定	遠	使	尋	拜
臺	學	帝	元	圖	自	趙	云	李	資	版	元	從	與	司	遠	功	培	卒	位
官	蓋	未	河	資	號	石	石	資	謙	圖	帥	元	兄	右	臣	臣	臣	臣	臣
生	貞	避	間	石	石	趙	云	資	謙	判	李	從	得	使	臣	臣	臣	臣	臣
		兵	人	順	歌	接	壤	亂	館	官	使	使	使	使	使	使	使	使	使

縣令 本朝因之

別號

召文 聞韶 新增剛州 崔致遠傳云嘗遊剛州水

官號沿革

府 按麗史高麗太祖癸巳以征 監務 高麗神宗安集

別監 按洪武八年許羽 縣令 按洪武十一年崔光富

別監或以安集別監來莅 訓導 洪武二十一年因為縣令至今無人

鎮管

安東

姓氏



金本縣沈洪丁康薛盧金并村王柳并京吳長姜州朴績

申鵝洲李永陽趙漢陽蔣牙山權東安金東安任川豐南英陽林蔚吳高

李真城徐達城孫月城金光山李廣州申平山李月城朴潘南

風俗

尚儉率務蠶桑觀風居民淳朴趙瑞任載用曲轅車

形勝

山川百里烟火千家李發詩灑灑山川灑灑百俗帶召文

風文簡公金宗直送俞好仁詩侍謀分符地川源僅一同人多洪術商云云蚕課何頓急鷄刀赤有功

北樓佳句在風門夏日水金宗直詩萬古蒼屋底云酬詠韻應窮風門夏日水云星辰移道觀瓊壁屬胡

僧遺神冲鑿供厨危危危刺為賓祭用不獨洗炎蒸

巨濟府邑誌

建置沿革本海中島新羅文武王始為置邑至高麗

元宗十二年因倭亂失土僑寓于居昌之加祚縣

忠烈王令并于管城尋罷之

有屬縣三日鵝洲曰

新羅巨老縣景德王改鵝洲高麗因之松遼景德王改南岳高麗復舊名溟珠本買珠伊縣景德王改溟珠高麗因之今猶有鵝洲松遼溟珠等村冒其號而其革而合之未詳

至本朝

太宗十四年復并于居昌曰濟昌縣又罷

世宗四年還治于沙等後又移于古縣後康熙甲辰

又移于溟珠廢縣西三里今治前朝之季紀網陵

夷島夷侵凌巨濟之民棄其舊土僑寓居昌之境

橋梁在府西一里長  
十二步廣四步

島嶼閑山島在府西四十里 恭川島在府北五里 猪島在府北七十五里

利勿島在府北五十里 朱原島在府西四十里 加助島在府西三十里

山獐島在府西二十里 只森島 柯島在府東四十里 每每島在府

南一百里 白嶼在府北七十里

堤堰 無

塲市鵝洲塲在府東三十里 河清塲在府北四十里 邑內塲在府內

驛院烏壤驛在府西四十里 西距固城丘墟驛四十里 中馬五匹 卜馬五匹 驛吏二十名

見乃梁院在渡頭之東

牧塲恭川島牧塲屬晉州監牧官禮曹 加助島牧塲

<p>南壬辰倭亂天將劉挺李寧祖 承訓于葛達夏駐兵于此處</p> <p><b>勝戰洞</b> 古有高坊名</p>	<p>松邊縣 南在五里</p> <p><b>烏壤驛</b> 在今仍每云</p> <p>大坪 府在</p>	<p><b>古蹟鵝州村</b> 在府東十里巨濟寓加祚時以本島內屬縣及驛院等併備買于加祚境焉</p>	<p>回大野 平曠</p> <p><b>加祚形勝</b> 全詩蒼巒四合一川斜</p>	<p><b>舊誌邑治形勝</b> 北望三峯南瞻紺嶽新增潛川</p>	<p><b>亭</b> 士人慎厚明而明兄弟</p> <p><b>風乎臺</b> 在望德山化工</p>	<p>上 <b>考槃臺</b> 生負事德源而築長江在前層峯</p> <p><b>四松</b></p>	<p>此 <b>晚鶴亭</b> 在龍山下流士人卞惟道所築烟郊十</p>	<p>中多 少趣便覺少人知辛</p> <p><b>甘隱堂</b> 生負鄭仁谷進</p>	<p>飛雪散雲外亂山微石点門初開松間鶴已歸靜</p>	<p>憩于此繼俊詩曰洞口寒鵝集蒼茫日夕時風前</p>
---	--	---	--	-----------------------------------	--	--	-------------------------------------	---	----------------------------	----------------------------

豐縣 本殷正縣恭讓王時屬豐  
基 右三條并見勝覽

郡名 水酒 甫州 基陽 清河 襄陽 醴泉

官職 郡守 四品從 置屬 座首一人別監二人軍官五十六人

八醫生八人使令三十二名官奴二  
十六口官婢十三口水汲婢六口

姓氏 本郡 貫林尹權 權本所高麗時 西邑內權 東安北

邑內 太順李 慶州 渚谷權 東安 下金谷權 上慶州 南陽

上金谷朴 咸陽 金城邊 原州 福泉丁 羅州 竹林權 上九溪

申 平山 金城李 全州 花庄金 禮安 朴南許 川陽 堂洞林 長興 朴

潘 南陽 開浦金 禮安 辛 寧越 李 慶州 韓 清州 朱 綾城 神堂洞李

真權 安 琴洞朴 咸陽 衡湖朴 山 白松李 真 沙谷李 安

<p>名柱故國師峰<small>郡北三十里</small>登巖山<small>郡南二十里</small>昂</p>	<p>云名鵲城山<small>郡北七十五里</small>天柱山<small>郡北五十里</small></p>	<p>龍門普門山<small>郡東二里</small>鶴駕山<small>郡東三十里</small></p>	<p>曰荒南征過此<small>聞杜雲名訪至洞口忽見龍在巖上</small></p>	<p>山郡北三十里<small>新羅高僧杜雲入山結庵麗太祖</small></p>	<p>山俞侯撒墮<small>碑有飛鳳山</small>十里<small>一名大恒山</small>龍門</p>	<p>山川德鳳山<small>郡西二里</small>飛鳳山<small>郡西二里</small>西庵山<small>郡西八里</small>峴</p>	<p>康信孫慶州李嘉閑於盧岘山合任川<small>豐蘓野張</small>同仁</p>	<p>谷韓州張同雷澤呂<small>咸陽</small>金<small>鞍</small>過洞朴<small>咸陽</small>多仁文<small>甘</small>泉</p>	<p>海金信雲林<small>姓土</small>良山申<small>州鵝</small>池後申岬望亭李<small>州全</small>睢鳩</p>	<p>原谷張<small>同仁</small>高坪潘<small>巨</small>宋<small>治</small>鄭<small>清</small>金<small>鞍</small>眉湖尹<small>姓土</small>金</p>
---	--	--	--	---	--	--	---	---	---	--

軍威縣邑誌

建置沿革本新羅奴同覓縣景德王改今名為崇善

郡領縣高麗顯宗屬尚州仁宗還屬一善恭讓王

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改為縣監

郡名赤羅 境內有赤羅山故名馬

官職縣監 從六品文南武交差座首一人別監二人

記官四十五名律生三十人知印十五人  
使令十五名官奴十二名官婢五名

姓氏朴羅方徐吳仇劉司空朴金孫卞卓

並李 洪陽 李川 朴密 金一 南宜 徐  
並李 洪陽 李川 朴密 金一 南宜 徐

峴 <small>在縣東南三十里</small>	柞雨峯 <small>在縣西七里</small>	留四里一名 鳳山一名	山川馬井山 <small>在縣南五里</small>	義城	文善馬 <small>城谷</small>	原昌玉 <small>寧宜</small>	楊州安 <small>清州</small>	尹海平 <small>坡平</small>	達利川 <small>城</small>
奉先山 <small>在縣西北一里</small>	風嶺 <small>在縣西十里</small>	赤羅山 <small>在縣南十五里</small>	青華山 <small>在縣西三十里</small>	余寧 <small>宜寧</small>	殷州朱 <small>幸州</small>	閔興 <small>興羅</small>	許海金 <small>州</small>	黃州許 <small>晉州</small>	鄭東萊 <small>迎日</small>
蓮榜山 <small>在縣西十里</small>	磨搥峴 <small>在縣西南六里</small>	仙放山 <small>在縣東七里</small>	朴達山 <small>在縣南二十里</small>	秋川 <small>春川</small>	林泉 <small>醴泉</small>	羅州裴 <small>羅州</small>	河州姜 <small>晉州</small>	姜州都 <small>晉州</small>	孫密陽 <small>慶州</small>
	磊			千州 <small>青州</small>	盧康 <small>安</small>	崔通 <small>官通</small>	都營 <small>八營</small>	郭風 <small>玄風</small>	柳同豐 <small>晉州</small>
				片州 <small>晉州</small>	申 <small>鵝州</small>	禹陽 <small>丹陽</small>	宋山 <small>礪山</small>	張浙江 <small>玉山</small>	成寧 <small>昌寧</small>
				白城 <small>達城</small>	蔣山 <small>牙山</small>	全龍 <small>官龍</small>	韓州 <small>清州</small>		
				蘓	池全州 <small>魏長</small>	孔			



院	山書院	吏曹	守慎	倍靖	李萬	李德	六十	潛縣	申翺	紐曹	吏曹	揭額	御書	額興	文忠	文元
在州東六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在州西
使申祐	文忠公	弘徵承旨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曹友仁
副提學	尚容	肅廟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癸巳
金宇宏	正公	金尚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憲
奉常寺	牧使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孫仲
正趙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趙靖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副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凍水書

許身若國義當赴亂使其弟奉母氏謹避即上馬奴忠  
 卜奮然願從曰主既不避奴何敢圖生至板橋賊勢彌  
 蔓無路勤王轉赴忠清監司鄭世規律為  
 牙符戰死忠亦死後贈軍資監主簿  
 子仁廟朝登第歷檢閱丙子亂扈駕南漢以禮即  
 受昭司之命時賊兵搶攘人皆畏避而以為君命不  
 可緩往留本司死於賊亂定  
 贈都承旨正廟朝命旌閭  
 陣力戰死之方旆戰謂其奴責同曰我即死矣爾可竄  
 伏為我收骨貴同泣曰主既為國死奴獨不為主死乎  
 遂殉屍傍事聞贈  
 司僕正並命旌閭  
 米貞 趙顯基子婦鄭氏婢也鄭氏  
 不得頭戴手攀若戴盆樣使浮水符  
 免死保則立死水中事聞命旌  
 申策揚武正監封  
 志原君官縣監  
 孝行高麗申祐 元祐之子親沒居慮  
 三年二竹生墳前人  
 以謂孝感官至按  
 本朝朴世延 事親孝親沒盡禮居慮  
 三年喪畢徘徊不忍去  
 容使事聞旌閭  
 里人莫  
 金希禎 早喪父追服三年遺母喪敬務三年中  
 不感泣 仁兩廟喪皆素衣不食肉事聞旌閭

孝行高麗申祐

米貞

禹成績

朴東亨

金克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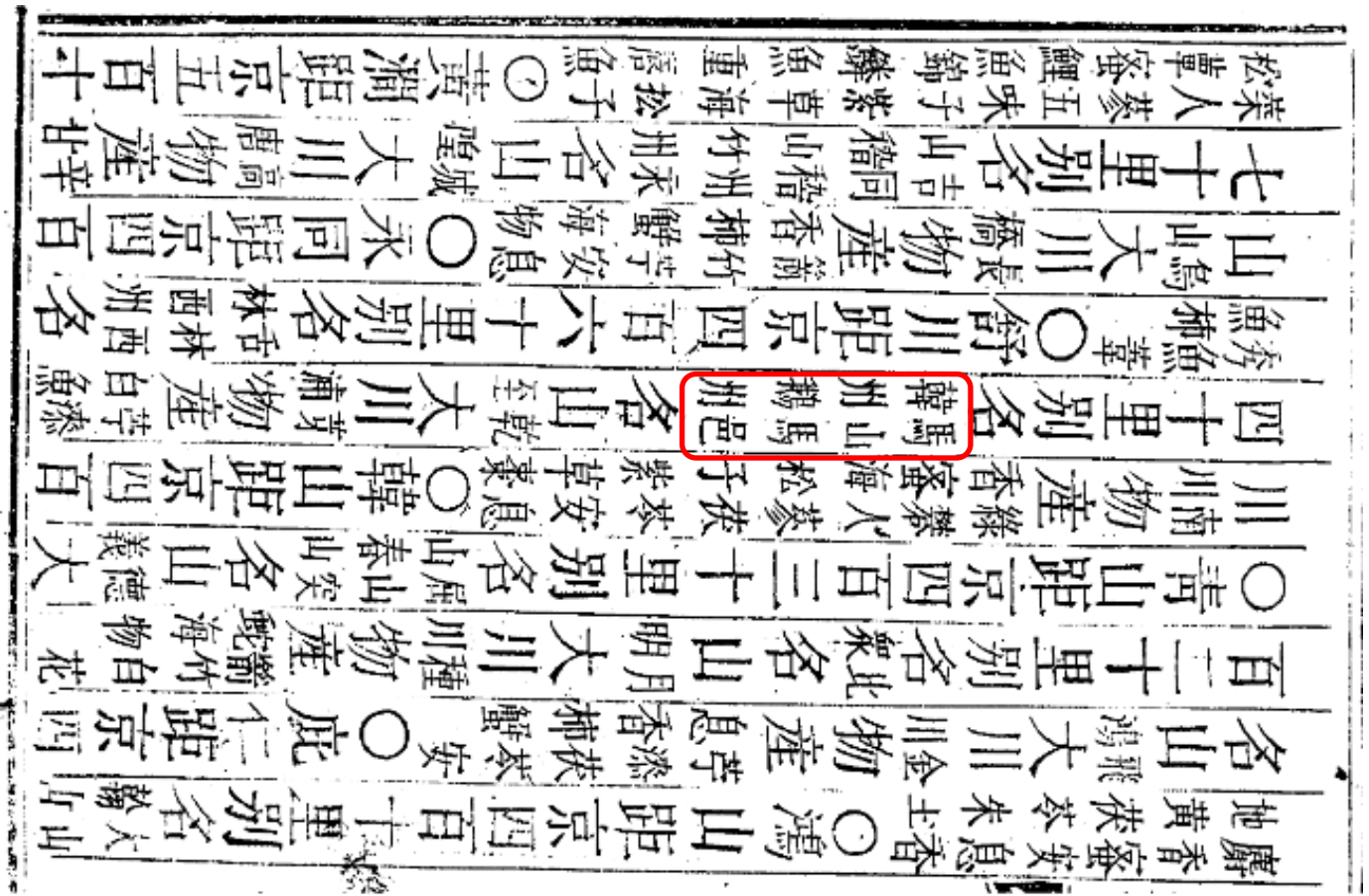
호서읍지(湖西邑誌)

<p>太宗十三年例改為韓山郡</p>	<p>郡名</p>	<p>馬山 馬邑 韓州 鵝州</p>	<p>形勝</p>	<p>山竒水秀李坡翠挹亭記云麟峰鎮于北熊浦統其</p>	<p>南<small>今無</small>板記 土亭李之菴題評曰湖西第一形局</p>	<p>城池<small>無池</small></p>	<p>乾止山城<small>今廢</small>邑城<small>周四以布帛尺計之四千七十尺高十一尺瓮城五處曲城一</small></p>	<p>處東耀德樓三間西受降樓三間內有一渠六井</p>	<p>官職</p>
--------------------	-----------	--------------------	-----------	-----------------------------	--	----------------------------	---	----------------------------	-----------

全	兩	兩	兩	兩	兩	全	全	兩	全	醉	
報恩	韓山	舒川	恭安	瑞山	林川	沔川	大興	溫陽	丹陽	沃川	槐山
四日 音奉	五日 音奉	五日 音奉	五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三日 音奉	三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三日 音奉
清	公	洪	洪	洪	公	洪	洪	洪	忠	清	忠
保吟 三山	馬山 鵝州	西林 吉林	蕤州	瑞寧 瑞城	嘉林 林州	海宗 楸城	全州 任城	溫泉 湯井	赤城 丹山	沃州	始安 槐壤
成歡	察訪	庇仁	鴻山	藍浦	唐津	保寧	石城	扶餘	連山	鎮岑	恩津
機山	五	五日 音奉	五日 音奉	五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四日 音奉
		洪	洪	洪	洪	洪	公	公	公	公	公
		比家	大山 翰山	寺浦 馬山	夫只	新邑 新安	石山	半月 餘井	黃山	鎮嶺 社城	蕤浦 市津
高	高	高	高	高	高	高	高	高	高	高	高

내외관안(內外官案 n1 책) - (官案)

[주:右] 韓山 [주:五日四百四十] 公 [주: 馬山馬州 鵝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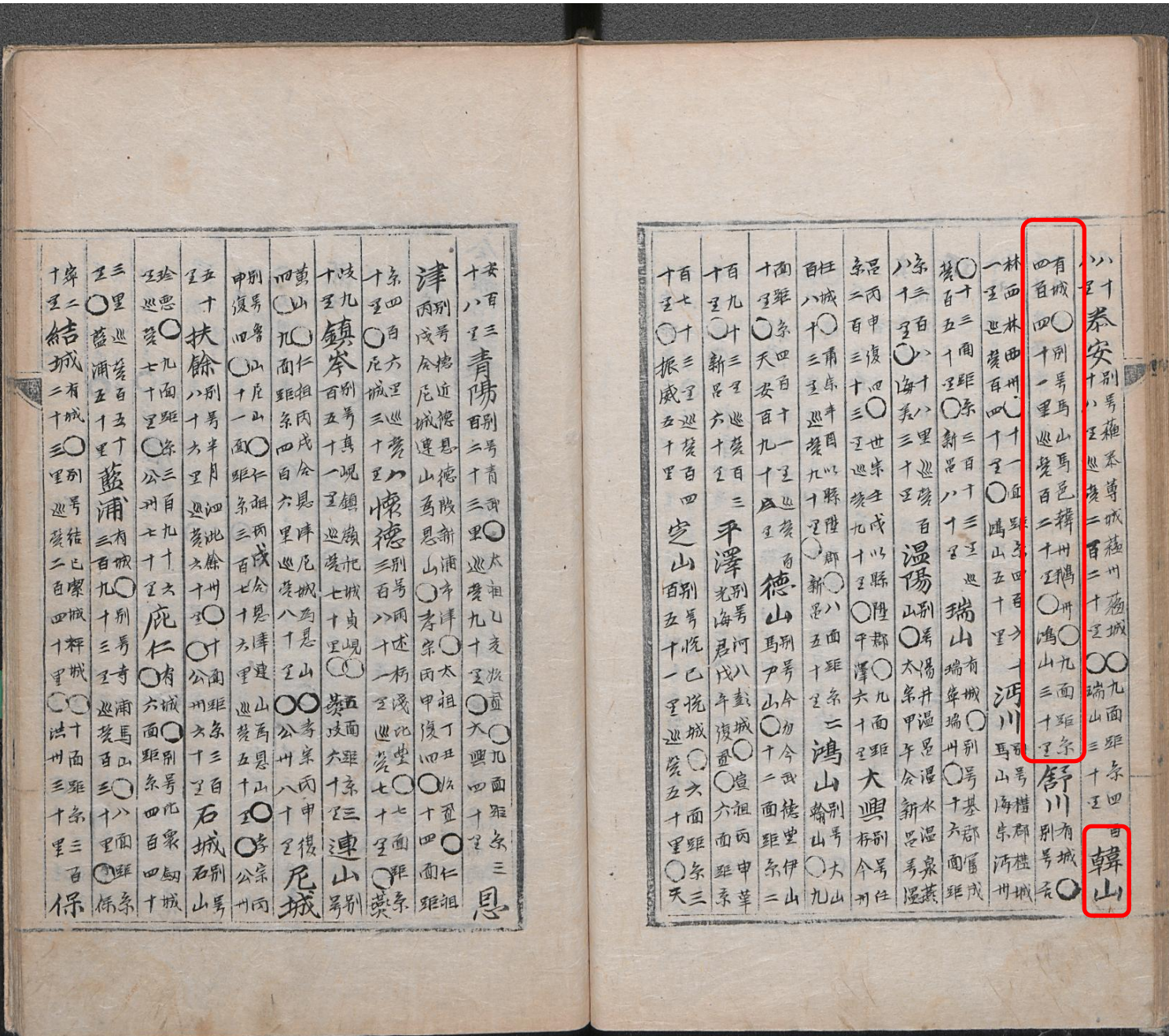
고사신서(故事新書) - 八道程路

麩香蜜安息香地黃茯苓朱土 ] ○ 鴻山 距京四百十里別名 [平: 大山 翰山]  
 名山 [平: 飛鴻] 大川 [平: 金川] 物產 [平: 芽漆茯苓安息香柿蟹] ○ 庇仁 距京四  
 百二十里別名 [平: 比衆] 名山 [平: 月明] 大川 [平: 種川] 物產 [平: 箭竹白花蛇海物]  
 ○ 青山 距京四百三十里別名 [平: 屈山 突山 春山] 名山 [平: 德義] 大  
 川 [平: 南川] 物產 [平: 綠攀人蔘茯苓安息香蜜海松子紫草棗] ○ 韓山 距京四百  
 四十里別名 [平: 馬山 馬邑 韓州 鵝州] 名山 [平: 乾至] 大川 [平: 芽浦] 物產 [平: 芽漆白魚  
 秀魚 葦魚 柿] ○ 舒川 距京四百六十里別名 [平: 舌林 西林 西州] 名  
 山 [平: 鳥山] 大川 [平: 長橋] 物產 [平: 箭竹 葦安息香 柿 蟹 海物] ○ 永同 距京四百  
 七十里別名 [平: 吉同 稽州 永山 稽山 竹州] 名山 [平: 城隍] 大川 [平: 高唐] 物產 [平: 辛甘  
 菜人蔘五味子紫草海松子松葦蜜鯉魚鱗魚重唇魚 ] ○ 黃澗 距京五百十

역대총요(歷代總要) -  
(本國地界亥坐己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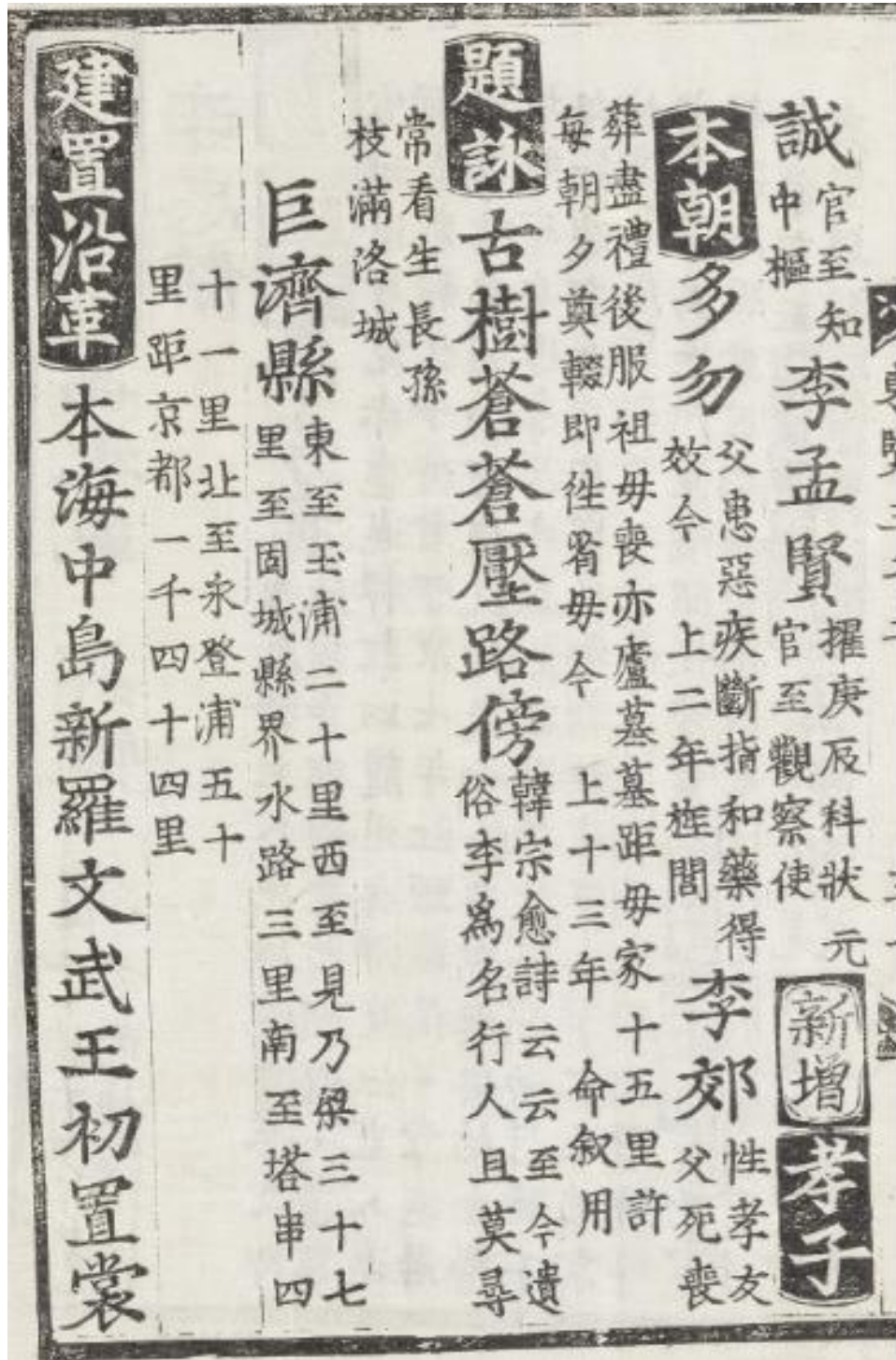
韓山

[주:有城○別號  
馬山馬邑韓州鵝  
州○九面距京四  
百四十一里巡營  
百二十里○鴻山  
三十里]



아주(鵝洲) 지명(地名)

신증동국여지승람(增東國輿地勝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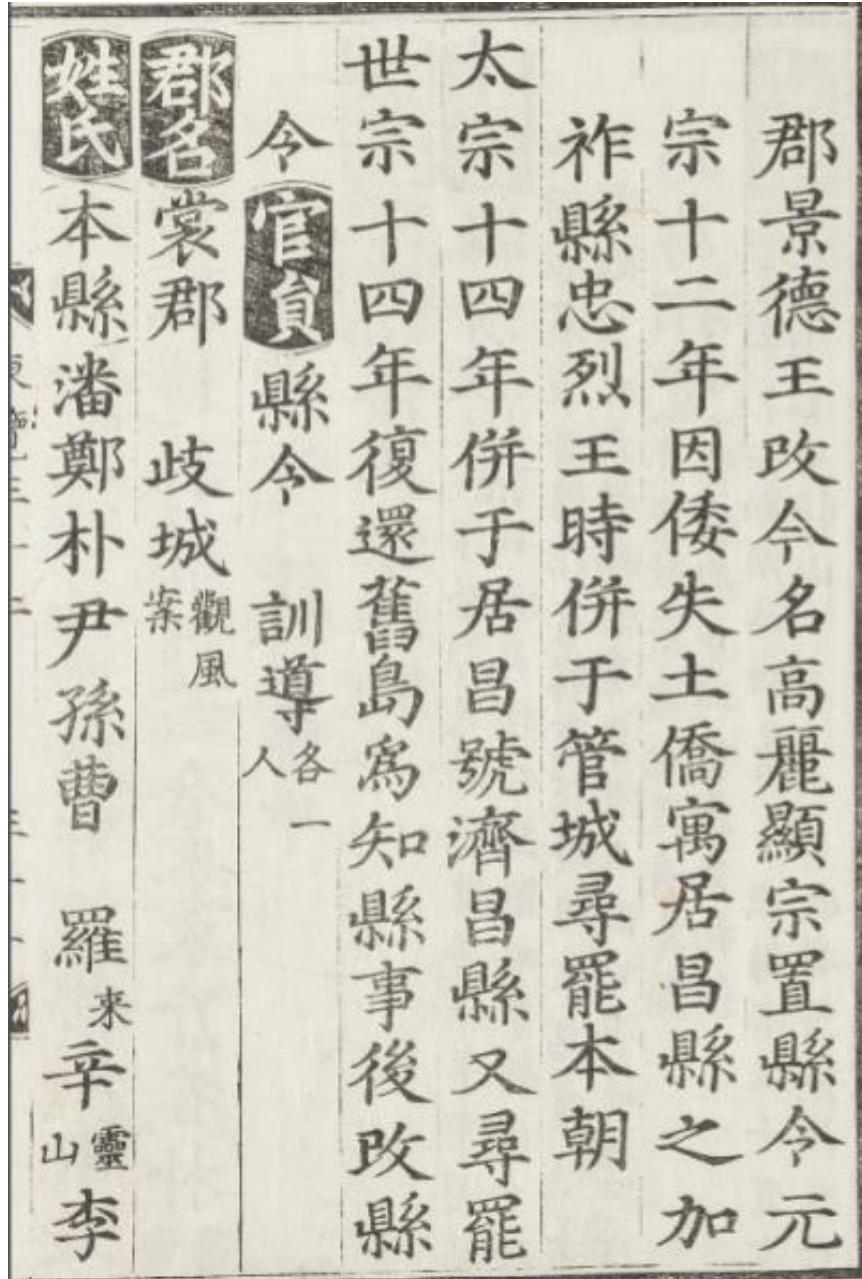


巨濟縣

巨濟縣 東至玉浦二十里西至見乃梁三十七里至固城縣界水路三里南至塔串四十一里北至永登浦五十里距京都一千四十四里

【建置沿革】本海中島新羅文武王初置裳





郡景德王改今名高麗顯宗置縣令元

宗十二年因倭失土僑寓居昌縣之加

祚縣忠烈王時併于管城尋罷本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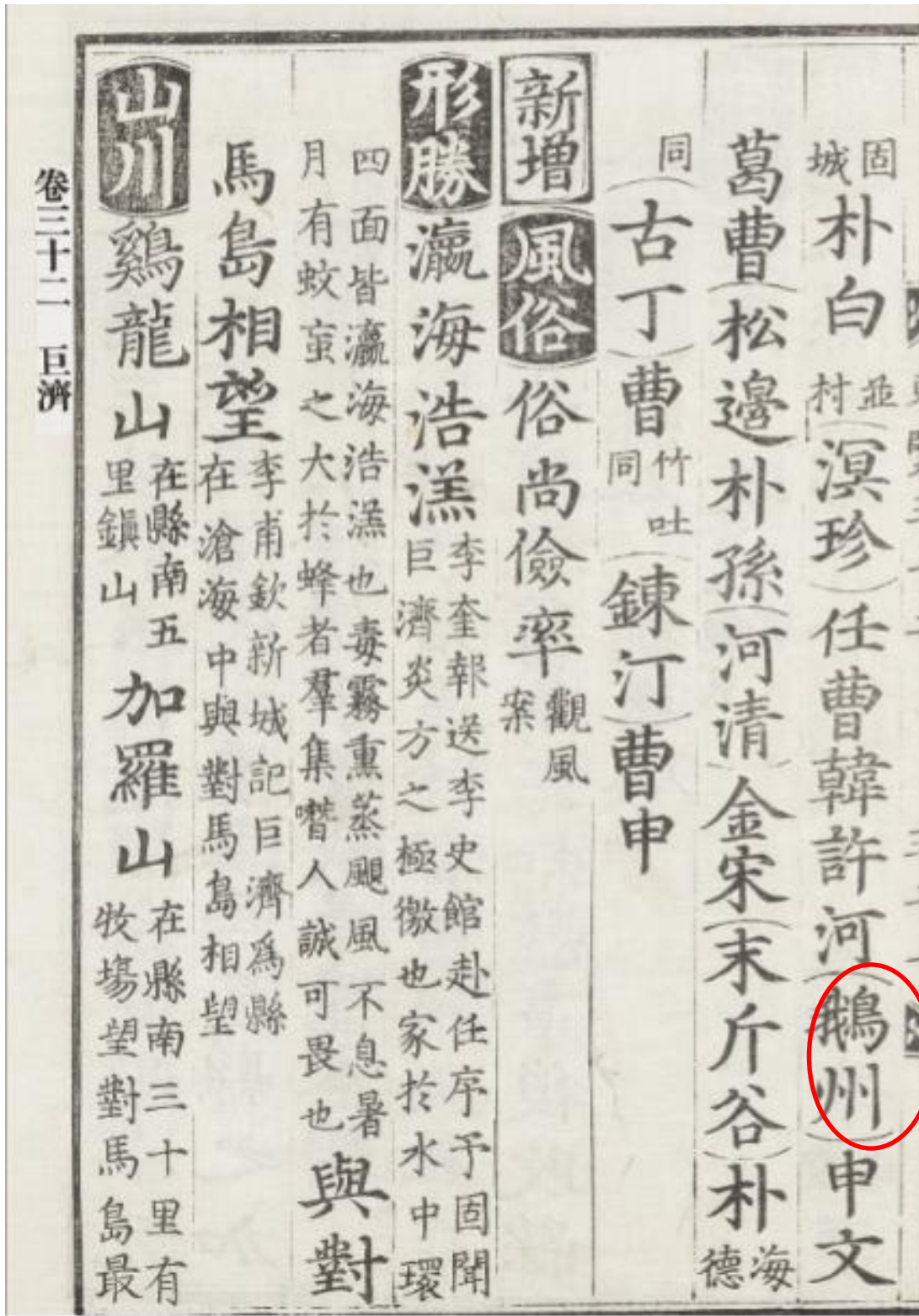
太宗十四年併于居昌號濟昌縣又尋罷

世宗十四年復還舊島爲知縣事後改縣

令【官員】縣令 訓導 各一人

【郡名】裳郡 歧城 觀風案

【姓氏】(本縣) 潘鄭朴尹孫曹 羅來辛靈山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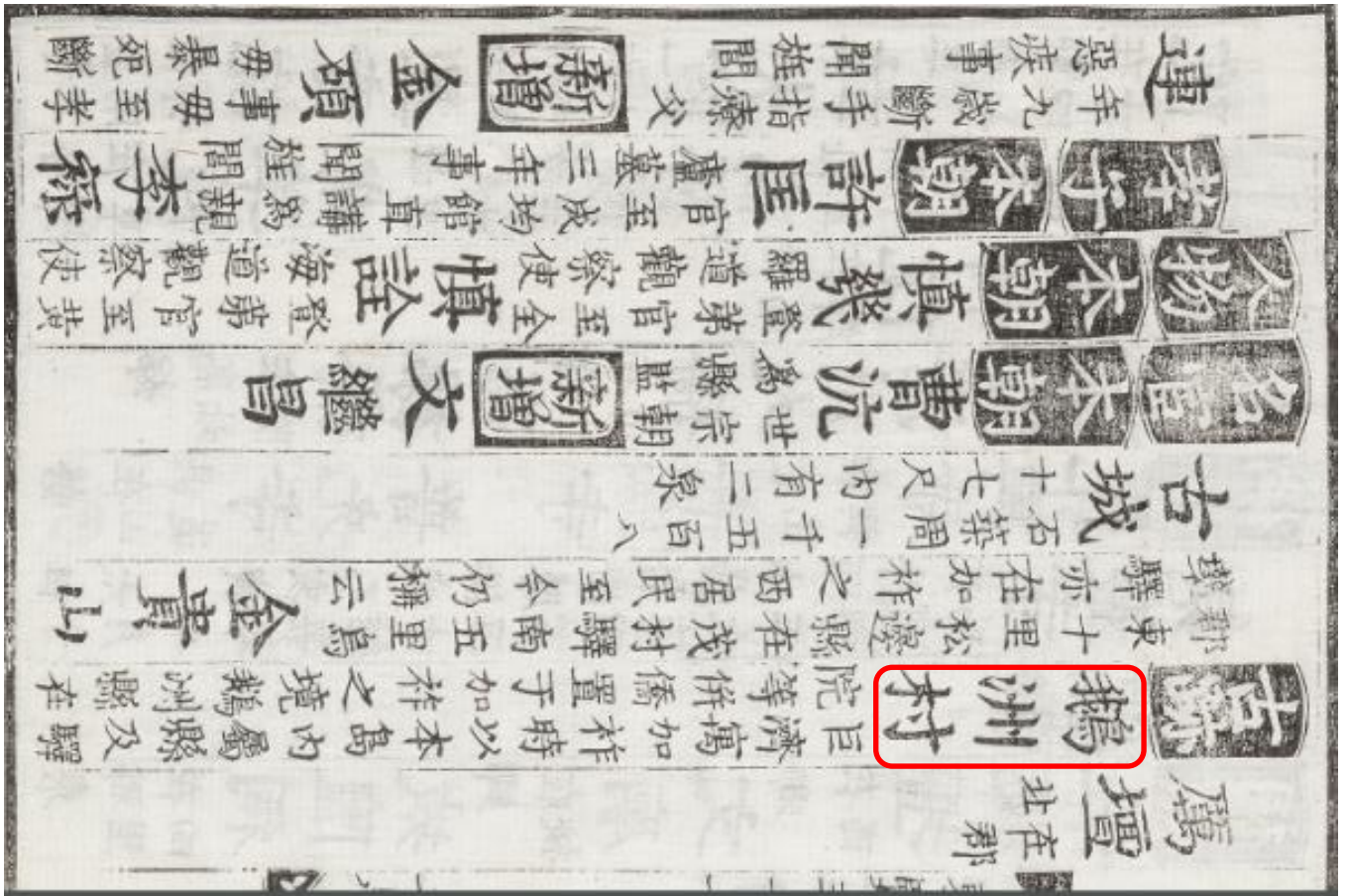


卷三十一 巨濟

固城 朴白 並村 (溟珍) 任曹韓許河 (鵝州) 申文

葛曹 (松邊) 朴孫 (河清) 金宋 (末斤谷) 朴海德

同 (古丁) 曹竹吐同 (鍊汀) 曹申



屬壇 在郡北

【古跡】鵝洲村 巨濟寓加祚時以本島內屬縣及驛院等併僑置于加祚之境鵝洲縣在

郡東十里松邊縣在茂村驛南五里烏壤驛亦在加祚之西居民至今仍稱云 金貴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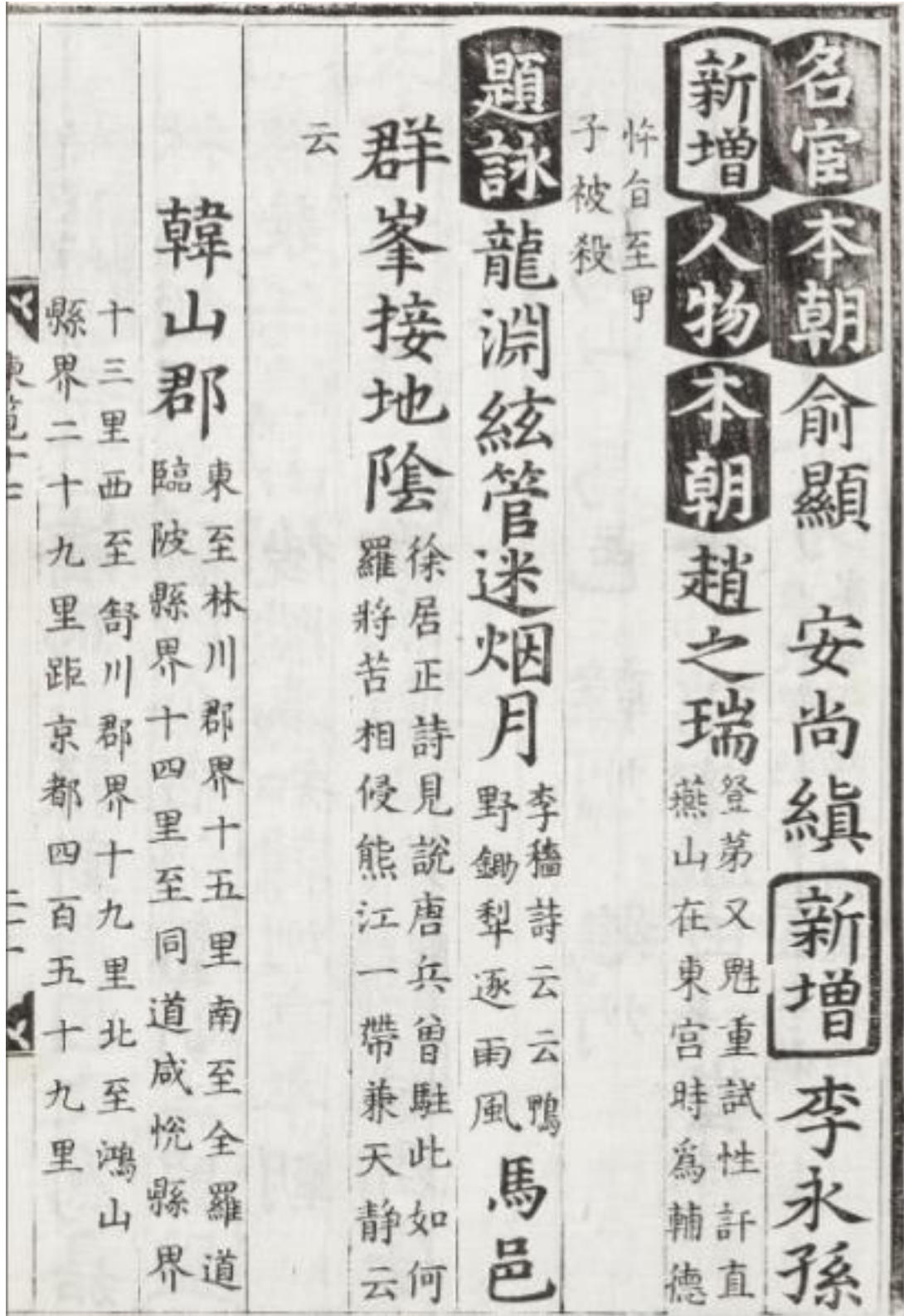
古城 石築周一千五百八十七尺內有二泉

【名宦】【本朝】曹沆 世宗朝爲縣監 『新增』文繼昌

【人物】【本朝】慎幾 登第官至全羅道觀察使 慎詮 登第官至黃海道觀察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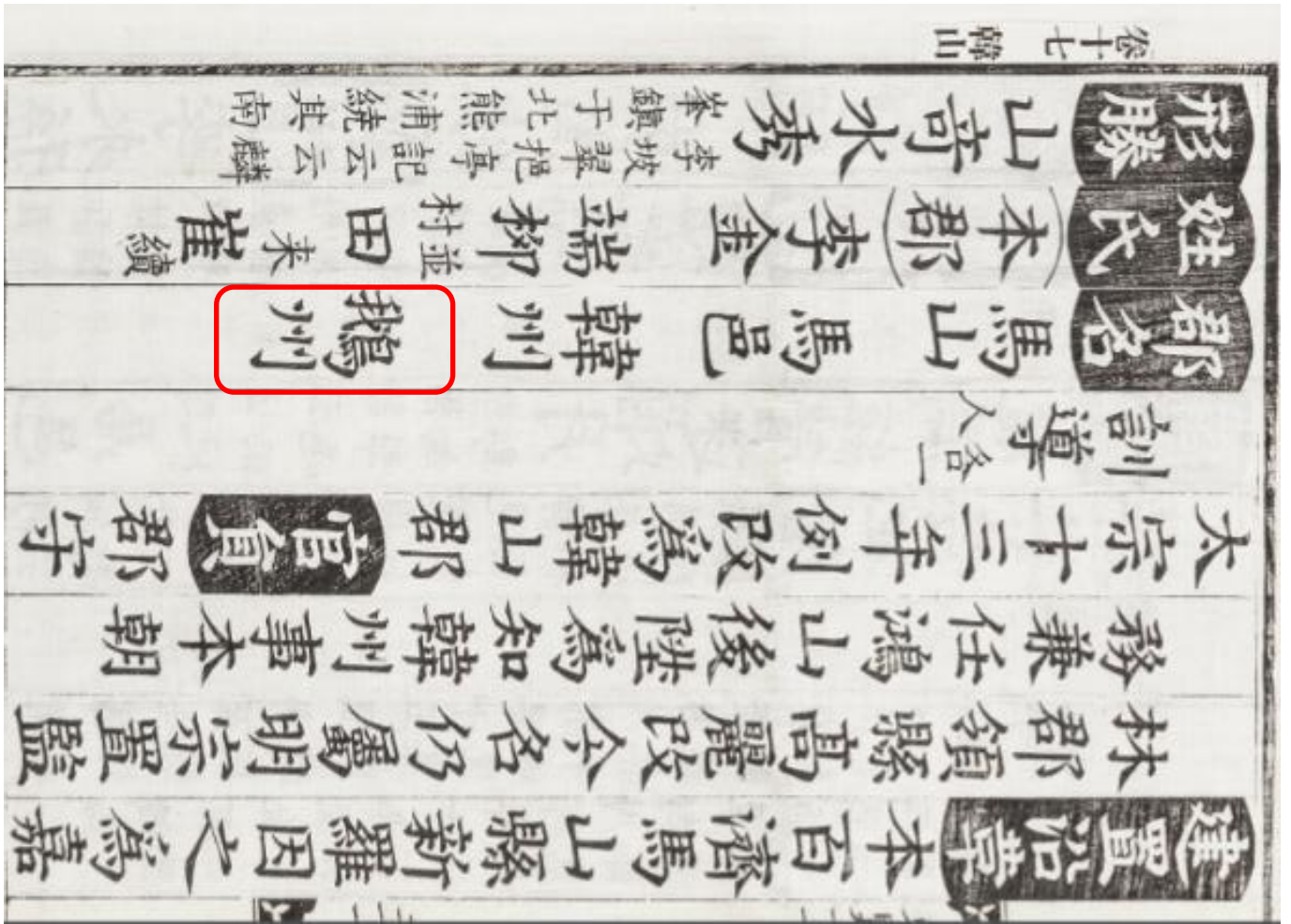
【孝子】【本朝】許匡 官至成均館直講爲親廬墓三年事 閔旌閻 李祿

連 年九歲斷手指療父惡疾事 閔旌閻 『新增』金碩 事母至孝母暴死斷



韓山郡

韓山郡 東至林川郡界十五里南至全羅道臨陂縣界十四里至同道咸悅縣界十三里西至舒川郡界十九里北至鴻山縣界二十九里距京都四百五十九里



【建置沿革】本百濟馬山縣新羅因之爲嘉

林郡領縣高麗改今名仍屬明宗置監

務兼任鴻山後陞爲知韓州事本朝

太宗十三年例改爲韓山郡【官員】郡守

訓導 各一人

【郡名】馬山 馬邑 韓州 鵝州

【姓氏】(本郡) 李金 端柳 竝村 田來 崔續

【形勝】山奇水秀 李坡翠挹亭記云云麟峯鎮于北熊浦繞其南

甘受死恐君得殺諫臣名以磁尖畫地成字瞋目語  
獄吏曰當以詩上聞否則我為厲鬼爾屬無噍類

矣太宗聞而霽威赦之後奉使日本還遇海賊賊  
抽刃攔入船中抄掠行具安臣踞胡床不動從容指

揮賊畏不敢近一行賴以安全子以昌亦  
登第官至刑曹參判性強抗不屈於人

登武舉官至金尚直登第官至集黃孝源擢甲  
兵曹判書至賢殿副提學子科

狀元參佐翼佐理寓居高麗趙云伧以典法  
功臣封商山君

職來居露陰山下自號石磣棲霞翁佯狂自晦出入  
必騎牛著騎牛圖贊石磣歌以見意與慈恩寺僧宗

林為方外交超然有孝子高麗申祐官至護  
世外之想詳見揚州

叛圖判書元濡卒祐居盧三年有二竹  
生于墳前人以為孝感所致事聞旌閭

新增本朝

## 세종실록 지리지 / 경상도 / 진주목 / 거제현

세종실록지리지는 1425년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8도지리지를 모아 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하고 정리하여 1454년(단종 2)에 만들어졌다.

◎ 거제현(巨濟縣)본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신라 문무왕이 처음으로 상군(裳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거제군(巨濟郡)으로 고쳤으며, 고려 현종 무오년에 현령관(縣令官)을 두었는데, 원종(元宗) 12년 신미에 원나라 지원(至元) 8년이다. 왜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고 거창(居昌) 가조현(加祚縣)에 교거(僑居)하였다. 본조 태종 갑오년에 거창(居昌)에 합하여 이름을 제창현(濟昌縣)으로 하였다가, 을미년에 다시 쪼개어 거창현(居昌縣)을 만들고, 금상(今上) 4년 임인에 다시 구도(舊島)로 돌아가게 하여, 4품 이상을 지현사(知縣事)로 충당하였다. 아주현(鵝洲縣)은 본디 거로현(巨老縣)인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고 송변현(松邊縣)은 경덕왕이 남수(南垂)로 이름을 고쳐서, 모두 거제군(巨濟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고려에서 남수(南垂)를 고쳐서 구명(舊名)대로 하여, 그대로 <거제군>의 임내(任內)로 삼았는데, 두 현의 인물(人物)이 모두 없어져서 지금 직촌(直村)을 삼았다. 진산(鎭山)은 국사당산(國師堂山)이다. 현 동쪽에 있다. 수군 처치사(水軍處置使)가 제사지낸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옥포(玉浦)에 이르기 25 리, 서쪽으로 견내량(見乃梁)에 이르기 31 리, 남쪽으로 곡곶이[谷串]에 이르기 35 리, 북쪽으로 영등포(永登浦)에 이르기 45 리이다. 호수는 1 백 53 호, 인구가 4 백 23 명이며, 군정(軍丁)은 현 수호군(縣守護軍)이 1 백 3 명이다.

본현(本縣)의 토성(土姓)이 4 이니, 정(鄭)·반(潘)·박(朴)·윤(尹)이요, 내성(來姓)이 1 이니, 나(羅)이며, 속성(續姓)이 2 이니, 신(辛) 영산(靈山)에서 왔다. 이(李)이다. 고성(固城)에서 왔다. 모두 향리가 되었다. 촌락성(村落姓)이 2 이니, 박(朴) 백(白)이요. 백성(百姓)의 성이 2 이니, 손(孫)·조(曹)이며, 아주(鵝洲)의 성이 4 이니, 신(申)·문(文)·갈(葛)·조(曹)이요, 송변(松邊)의 성이 2 이니, 박(朴)·손(孫)이다.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며, 간전(墾田)이 7 백 9 결이다. 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는 벼·조·콩·메밀이요, 토공(土貢)은 대구어·문어·생포(生鮑)·미역·우무[牛毛]·표고버섯·세모(細毛)이다. 염소(鹽所)가 4 이니, 둘은 모두 현 동쪽에 있고, 하나는 현 서쪽에 있으며, 하나는 현 남쪽에 있다. 읍 석성(邑石城) 둘레가 3 백 21 보이다. 역(驛)이 1 이니, 오양(烏壤)이다. 오아포(烏兒浦)는 현 남쪽 29 리에 있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수어한다. 영등포(永登浦)는 현 동쪽 45 리에 있으며, 수군 만호가 수어한다. 옥포(玉浦)는 현 동쪽 25 리에 있다. 가배량 도만호(加背梁都萬戶)와 견내량 만호(見乃梁萬戶)가 수어한다. 봉화(烽火)가 1 곳이니, 가라산(加羅山)이 현 남쪽 바닷가에 있다. 서쪽으로 고성(固城) 미륵산(彌勒山)에 응한다. 【영인본】 5 책 651 면

# 고려사(高麗史)

경상도 거제현, /고려사(高麗史) 卷五十七 志 卷第十一.

巨濟縣。本海中島。新羅文武王。初置裳郡。景德王。改爲巨濟郡。顯宗九年。置縣令。元宗十二年。因倭失土。僑寓居昌縣 之加祚縣。忠烈王時。併于管城。尋復舊。有北加助音島(세종실록에도 가조음도)。屬縣三

**鵝洲縣**。本新羅巨老縣。在巨濟島。景德王。改今名。爲巨濟郡領縣。高麗因之

松邊縣。本新羅松邊縣。亦在巨濟島。景德王。改名南垂。爲巨濟郡領縣。高麗。復舊名。仍屬

溟珍縣。本新羅買珍伊縣。亦在巨濟島。景德王。改今名。爲巨濟郡領縣。高麗因之

["본 해중의 섬 거제현은 신라 문무왕 처음 상군을 설치하였고, 거제군이라 개칭했다. 고려 현종 9년 현령을 두었고, 원종 12년 1271년 왜구(삼별초)로 인해 땅을 잃고 거창현의 가조현에서 우거했다. 충렬왕 때 관성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1422년) 옛터로 다시 찾아갔다. 섬 북쪽에 가조음도가 있고 3현의 속현을 두고 있다.

▶ 조음도(신라~고려중기) > 가조음도(고려중기~조선초기) > 가조도(1400년대 ~)

조선왕조실록 오기 : "가자음도" (加自音島) > 가조음도(加助音島)

**아주현**, 본래 신라 거로현,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도 그대로 따랐다. 송변현, 본래 신라

송변현, 역시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남수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다시 옛 이름으로 환원하고 속현이 되었다.

명진현, 본래 신라 매진이현, 역시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도 그대로 따랐다."] ]

<1128년> 농민항쟁연표 1128년-10월(음력) <<고려사>>, <세가>, 인종 6년 10월 기록. [거제도 연해의 명진현(溟珍縣), 송변현(松邊縣), 아주현(鵝洲縣)에서 봉기에 가담한 8백 20명이 사로잡히자 합주(陝州) 삼기현(三岐縣) 과 진주(晉州) 의령현(宜寧縣)의 귀원장(歸原場), 취안장(就安場), 화순장(和順場) 등 천민 마을을 설치하고 이들을 강제로 이주 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월 : 삼별초가 합포현(合浦縣 경남 창원(昌原))에 침입하여 감무를 잡아갔다 4월 :



## 아주(鵝洲) 지명(地名)

삼별초가 금주(金州 경남 김해(金海))에 침입하였는데, 방호장군 박보(朴保)가 산성으로 달아나 들어가니 적이 불을 놓고 노략질하였다. 5월 : 3군이 진도를 토벌하였다. 이 때 적장(賊將) 유존혁(劉存奕)이 남해현을 점거하고 연해 지방을 쳐서 노략질하다가, 적 이 탐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배 80여 척을 거느리고 따라갔다.

▷ 왜구의 침입 거제현민 거창현 우거. 경상도 거제현, /고려사(高麗史)

巨濟縣。本海中島。新羅文武王。初置裳郡。景德王。改爲巨濟郡。顯宗九年。置縣令。元宗十二年。因倭失土。僑寓居昌縣 之加祚縣。忠烈王時。併于管城。尋復舊。有北加助音島(세종실록에도 가조음도)。屬縣三

鵝洲縣。本新羅巨老縣。在巨濟島。景德王。改今名。爲巨濟郡領縣。高麗因之

松邊縣。本新羅松邊縣。亦在巨濟島。景德王。改名南垂。爲巨濟郡領縣。高麗。復舊名。仍屬

溟珍縣。本新羅買珍伊縣。亦在巨濟島。景德王。改今名。爲巨濟郡領縣。高麗因之

[“본 해중의 섬 거제현은 신라 문무왕 처음 상군을 설치하였고, 거제군이라 개칭했다. 고려 현종 9년 현령을 두었고, 원종 12년 1271년 왜구(삼별초)로 인해 땅을 잃고 거창현의 가조현에서 우거했다. 충렬왕 때 관성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1422년) 옛터로 다시 찾아갔다. 섬 북쪽에 가조음도가 있고 3현의 속현을 두고 있다.

▶ 조음도(신라~고려중기) > 가조음도(고려중기~조선초기) > 가조도(1400년대 ~)

조선왕조실록 오기 : "가자음도" (加自音島) > 가조음도(加助音島)

아주현, 본래 신라 거로현,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도 그대로 따랐다.

송변현, 본래 신라 송변현, 역시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남수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다시 옛 이름으로 환원하고 속현이 되었다.

명진현, 본래 신라 매진이현, 역시 거제섬에 있다.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개칭했다. 거제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도 그대로 따랐다.”]

동전고(東典考)

溫陽百濟湯井郡新羅陞州高麗溫水郡 太宗合

改知六新羅地育

太宗癸巳爲瑞山郡十六面距京三百八十八里 ○廢縣地谷 百濟

瑞山百濟基郡新羅富城高麗瑞山瑞州瑞寧府

沔川郡○馬山 海宗十五面距京三百十三里 勝覽七十五里

沔川百濟樞郡新羅樞城高麗沔州 太宗癸巳改

癸巳改舒川郡十面距京四百七十里

舒川百濟吉林郡一云南陽 新羅西林高麗西州 太宗

郡○馬邑 鵝州九面距京四百五十九里

韓山城百濟馬山縣高麗韓州 太宗癸巳改韓山

韓山 有城 百濟馬山縣高麗韓州 太宗癸巳改韓山

郡○馬邑 鵝州 九面距京四百五十九里

舒川百濟吉林郡 一云南陽 新羅西林高麗西州 太宗

癸巳改舒川郡 十面距京四百七十里

沔川百濟樞郡新羅樞城高麗沔州 太宗癸巳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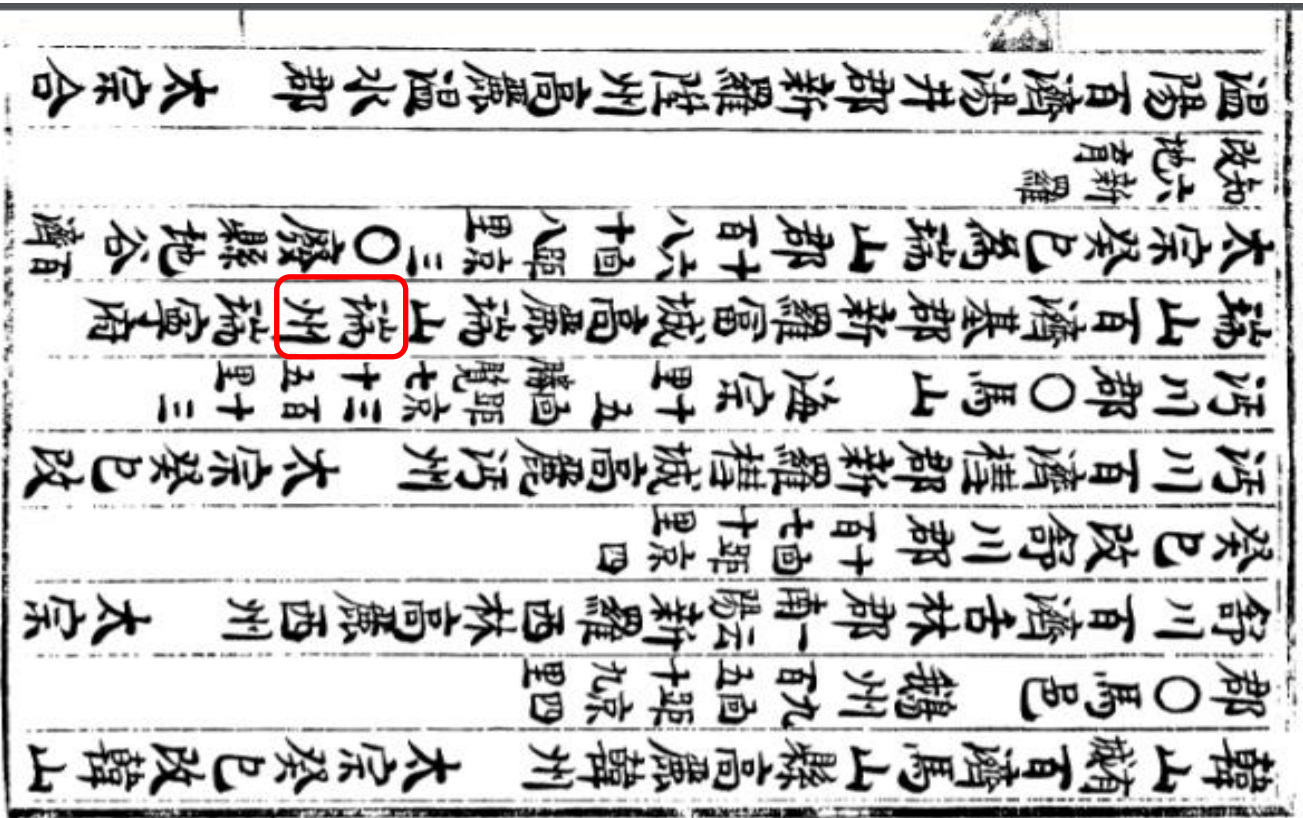
沔川郡○馬山 海宗 十五面距京三百十三里 勝覽七十五里

瑞山百濟基郡新羅富城高麗瑞山瑞州瑞寧府

太宗癸巳爲瑞山郡 十六面距京三百八十八里 ○廢縣地谷 百濟

知六新羅改地育

溫陽百濟湯井郡新羅陞州高麗溫水郡 太宗合



金寧府金州牧爲金海府〇盆城 十八面距京八百八十四里

善山 有城 新羅一善郡陞州改高善郡高麗善州 太宗爲善山郡陞府〇和義 十八面距京五百三十六里 〇屬縣海平 一波澄新羅并平高麗海平郡

巨濟 有城 海島新羅裳郡改巨濟後并于管城尋罷 太宗并于居昌號濟昌縣尋罷 世宗復置 肅宗

陞府〇歧城 六面距京一千四十四里 〇廢縣鵝洲 居老縣 松邊 南垂 溟珍 買珍伊縣 定宗合江城稱珍城

河東新羅韓多沙郡改河東高麗置縣 太宗合南

海號河南後復析 肅宗陞府〇清河 十二面距京八百三十六里

## 대동지지(大東地志)

거제읍지 (규장각)대동지지(大東地志)五慶尙道下大東地志 /  
김정호가 1864 년 편찬한 전국 지리지에 실린 거제읍지 내용이다.

### 1). 연혁(沿革)

本海島也新羅文武王始置裳郡景德王十六年

改巨濟郡領縣三鵝洲溟珍南垂隸康州高麗顯宗九年改縣令屬縣三鵝洲松邊溟珍元宗十二年僑寓於居昌  
之加祚縣因倭失土

忠烈王時併于管城縣今沃川郡尋復舊 本朝 太宗十四年併于居昌縣號濟昌 世宗十四年復還舊島爲知巨  
濟縣事後改縣令 顯宗五年移治于溟珍古縣西三里舊治在北三十里 肅宗三十七年陞都護府邑號岐城官  
員都護府使兼金海鎮管兵馬同僉節制使一員.

["본래 해중의 섬이다. 신라 문무왕 때 비로소 "상군"을 설치하였고, 경덕왕 16년(757년) 거제군으로 개칭하고 아주 명진 남수 3개현을 영현(외관이 파견된 지역)으로 삼고 강주(진주)의 관할이었다. 고려 현종 9년, 아주 송변 명진 3현을 속현(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삼고 현령을 두었다. 원종 12년(1271년) 왜구(삼별초)로 인해 땅을 잃고 거창의 가조현에 우거했다. 충렬왕 때 관성현과 합쳤으나, 곧바로 기름진 평원의 고을을 찾아내 복구했다. 본조(조선조) 태종 14년(1414년) 거창현과 합하여 제창현이라 불렀다. [세종 4년 1422년 사등성에 거제인 일부복귀] 세종 14년 거제 지현사를 설치하고 옛 거제섬으로 돌아왔다. [거제현, 명진현民]. 현종 5년(1664년), 북쪽 30리에 있던 옛 치소(고현성)를 서쪽 3리 옛 고을 명진으로 치소를 옮겨왔다. 숙종 37년(1711년),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읍호를 "기성", 관원은 "도호부사" 겸 김해진관 병마 동 첨절제사 일원이 되었다. "]

### 2). 고읍(古邑)

鵝洲東二十里本新羅居老一云老居昭聖王元年爲學生祿邑屬于菁州景德王十六年改鵝洲爲巨濟郡領縣  
高麗顯宗九年仍屬

아주 : 동 20 리, 본래 신라 거로현 한편으론 로거현, 소성왕 원년(799년) 청주(現진주시) 속현(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학생의 녹읍이 되었다.

경덕왕 16(757년)년 아주현으로 개칭, 거제군 영현(외관이 파견된 지역)이 되었고,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 속현으로 계속 되었다.

松邊南三十里本新羅松邊景德王十六年改南垂爲巨濟郡領縣高麗顯宗復舊號仍屬

송변 : 남 30 리, 본래 신라 송변현, 경덕왕 16년 개칭, "남수" 거제군 영현이 되었고, 고려 현종 때 다시 옛 이름으로 속현이 되어 이어왔다.

## 아주(鵝洲) 지명(地名)

溟珍東三里本新羅買珍伊景德王十六年改溟珍爲巨濟郡領縣高麗顯宗仍屬後置監務元宗十二年避倭出陸僑寓晉州之永善古縣 本朝定宗朝合于江城縣稱珍城 世宗十四年復來屬

명진 : 동 3 리, 본래 신라 매진이, 경덕왕 16 년 개칭, "명진" 거제군 영현이 되었고, 고려 현종 때 속현이 되어 이어왔다. 뒤에 감무를 두어 배치했다. 원종 12 년 왜구가 나타나 육지로 도피하여 진주 영선현에 우거 했다. 본조(조선조) 정종의 재위 기간때에 강성현과 합하여 진성현으로 칭하였다. 세종 14 년(1432 년) 다시 속현으로 돌아왔다.

### 12). 진도(津渡) 나루

見乃梁津西四十里自固城渡此入本府要害之地 (邑內四九 河清一六 鵝洲二七)

견내량진 : 서쪽 40 리, 고성으로부터 이곳을 건너 본 읍에 들어오는 중요한 곳이다.

(읍내 49, 하청 16, 아주 27)

追捕餘倭于林州斬四十六級 八年倭再寇林州都  
巡問使吳彥擊之不克 十三年倭寇林韓西三州及  
鴻山縣都巡問使王承貴與戰敗績○本朝 宣祖二  
十九年鴻山土賊李夢鶴陷林川郡守朴振國被虜

韓山

**沿革** 本百濟牛頭城新羅神文王六年置馬山縣景德  
王十六年為嘉林郡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韓山  
顯宗九年屬于嘉林縣明宗五年置監務兼任鴻山縣後陞  
知韓州事 本朝太宗十三年改韓山郡邑號馬邑 鵝  
州官員郡守兼公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一員

沿革本百濟牛頭城新羅神文王六年置馬山縣景德  
王十六年為嘉林郡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韓山  
顯宗九年屬于嘉林縣明宗五年置監務兼任鴻山縣後陞  
知韓州事 本朝太宗十三年改韓山郡邑號馬邑 鵝  
州官員郡守兼公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一員

本嶺南道		本嶺南道		本嶺東道	
尚州牧		事郡一陝州	晉州牧	郡四蔚州	東京慶州
同慶	濱珍	縣令三固城	善江善城鎮	原義安	迎日
龍宮		嘉樹陰	嘉樹陰	無長	薛顏
開寧		南海	利安	東萊	新寧
報令		巨濟	巨濟	禮州	慈仁
咸昌		巨濟	巨濟	密州	壽陽
丹密		巨濟	巨濟	盈浦	永州
		巨濟	巨濟	德城	安州
		巨濟	巨濟	英陽	清河
		巨濟	巨濟	松生	防禦
		巨濟	巨濟	金	

基陽

豐山	花園	年溪	感濱	南陰	基神州	殷豐	山豐	管城	昌領	理比
○		虎	珍	岳	光		大	知	加	屋
右	河	功溪	新海	陽繁	輿州	甘泉	卯安	事	思	安
五	濱	成	平	永	托溪		邑	府	一	貞
十		禦	冶	善	頓	奉	園	二	善	
二	臨	若	山	班	東	安	山	京	中	年
邑	河	木	陽	城	平	化	河	山	軍	
永		多	蘭	三	義	安	濱	利	高	威
革	一	加	化	浦	成	德		利	靈	虎
	直	利	青	寧	生		安		靈	溪
			理	平	岐	基	豐	東	八	靈
般	安	邑	丹	山	合	陽	山	郡	菩	木
豐			加	密	丹	浦		義	臨	正
	甘	陽	恩	鵝	溪	○	興	河	金	仁
	泉	山	安	州	桂	康	壽	○	山	同
			孝	貞	加	城	城	一	禮	功
安	利	靈	松	祿	鮮	直	安	黃	知	成
德	山	中	遠	豐	顯	安		澗	禮	化
										青



慶尙道

(本嶺東道) 東京慶州郡興海 章山 壽城 永州縣安康 新寧 慈仁 河陽 餘糧 清河

迎日 解顏 神光杞溪 長鬢領知事郡一梁州縣東平機張防禦

郡四蔚州縣東萊獻陽禮州郡甫城 英陽 平海 盈德縣青島 松生金

州郡義安 后安縣漆原 熊神 合浦密城郡昌寧 清道縣玄豐 柱城 靈山 豐角

(本山南道) 晉州牧郡江城 河東縣泗州 岳陽 永善 鎮海 昆明 班城 宜寧領知

事郡一陝州縣嘉樹 三岐 山陰 丹溪 加祚 感陰 利安 新繁 冶爐 居昌

草溪含陽縣令三固城 南海縣蘭浦 平山巨濟縣鵝州 松邊

溟珍

(本嶺南道) 尙州牧郡聞慶 龍宮 開寧 報令 咸昌 永同 海平縣青山 山陽 化寧 丹密

比屋 安貞 中牟 虎溪 禦侮 多仁 青理 加恩 一善 軍威 孝靈 岳溪 功成化

昌領知事府二京山郡高靈縣若木 仁同 知禮 加利 八莒 金山 黃澗

管城 安邑 陽山 利山 大邱 花園 河濱安東郡臨河 禮安 義興縣一直

殷豐 甘泉 奉化 安德 豐山 基州 興州 順安 義城 基陽○壽城 安康 解顏

神光 杞溪 東平 松生 合浦 桂城 豐角 岳陽 永善 班城 三岐 丹溪 加祚

感陰 新繁 冶爐 蘭浦 平山 鵝州 松邊 溟珍 海平 山陽 化寧 丹密 安貞 中

牟 虎溪 禦侮 多仁 青理 加恩 孝靈 岳溪 功成 若木 加利 安邑 陽山 利山

花園 河濱 臨河 一直 殷豐 甘泉 安德豐山○右五十二邑永革(基陽)

餘善縣一 課康州高麗顯宗九年屬陝州明宗二年置

監務 本朝 太宗十二年改縣監十四年以巨濟來

合號濟昌 世宗十四年析之復號居昌燕山主元年

陞為郡以王姬瑱 中宗元年復為縣 孝宗九年合

于安陰縣以奴 顯宗九年復置 英宗五年 端懿

王后慎氏中宗復位後以貫鄉陞都護府 正宗十一

年降縣二十一年復陞羅娥林 都護府使兼岳州鎮

制使部一員

加祿顯宗九年屬陝州後來屬元宗十二年巨濟因

失祿 土倫治于此 本朝世宗朝巨濟還于舊治。巨

濟窳加祿時以本邑屬縣及驛院差備置縣地 鴨洲縣

在治東十里 松連嶺在今茂村驛南五里 島璋驛在

民至祿西居 今仍舊

坊

東部 終陰 石 終初五 毛谷 終初五 毛峴 終初二 十 只高谷 終東北初十 五 熊陽 終東北初十 八 赤火峴 終東北初十 十五 南豐 終東南初十 三 無等谷 終南初十 外 青林 終南初十 廿 川 終南初十 五 川 終南初十 五 內 終西初十 壹 谷 終北初十 三 高梯 終北初十 三 只次里 終初二初十 五 加東 終東初十 四 上 加南 終東初十 三 加北 終東初十 六 乾興山 終北八 三峯山 終北五 甜岳山 終北三

古邑加祚東三十五里本新羅加古景德王十六年改咸陰爲居昌郡領縣高麗太祖二十三年改

加祚顯宗九年屬陝州後來屬元宗十二年巨濟縣因倭失土僑治于此 本朝世宗朝巨濟還于舊治○巨

濟寓加祚時以本邑屬縣及驛院竝僑置縣地鵝洲縣在今治東十里松邊縣在今茂村驛南五里烏壤驛在

加祚縣西居民至今仍稱

# 청구요람(靑邱要覽)



## 정의

조선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청구도』를 1895년에 모사한 지도.고지도·이본.

## 서지사항

건(乾)·곤(坤) 2권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건권에는 홀수층이, 곤권에는 짝수층이 수록되어 있다. 남북으로 총 29층, 동서로 22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층판의 면은 남북 100리와 동서 70리의 동일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다. 각 책의 크기는 세로 31.5cm, 가로 21.5cm이다.

## 내용

김정호가 만든 『청구도』의 이본은 현재 국내에 9본, 국외에 8본(일본 7본, 미국 1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청구도범례(靑邱圖凡例)'가 들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둘째, 산 표현이 산줄기식과 봉우리식으로 구분되는 경우, 셋째, 동방제국도(東方諸國圖)·사군삼한도(四郡三韓圖)·삼국전도(三國全圖)가 들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넷째, 경위선표목록·주현총도목록·제표총목이 들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청구요람(靑邱要覽)』은 '청구도범례'가 들어있고 동방제국도·사군삼한도·삼국전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경위선표목록·주현총도목록·제표총목이 없고 산 표현은 봉우리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김정호의 '청구도범례'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청구도범례'가 작성되면서 제작된 『청구도』 최종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청구요람』 건권의 맨 앞쪽에 수록된 '청구도제(靑邱圖題)'는 1834년(순조 34)에 최한기가 『청구도』의 서문으로 쓴 '청구도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몇 문장이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조협승(曹協承)이 최한기가 소장하고 있는 『청구도』를 보고 감탄하여 한승이(韓承履)와 조병화(曹秉華)에게 모사하여 완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마지막 문장에는 '을미팔월조협승서(乙未八月曹協承書)'라고 기록되어 있어 1895년(고종 32) 8월에 모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조협승이 서문의 전문을 쓴 것처럼 되어 있다. 본래 『청구도』의 서문 격인 '청구도제'는 대부분 최한기가 쓴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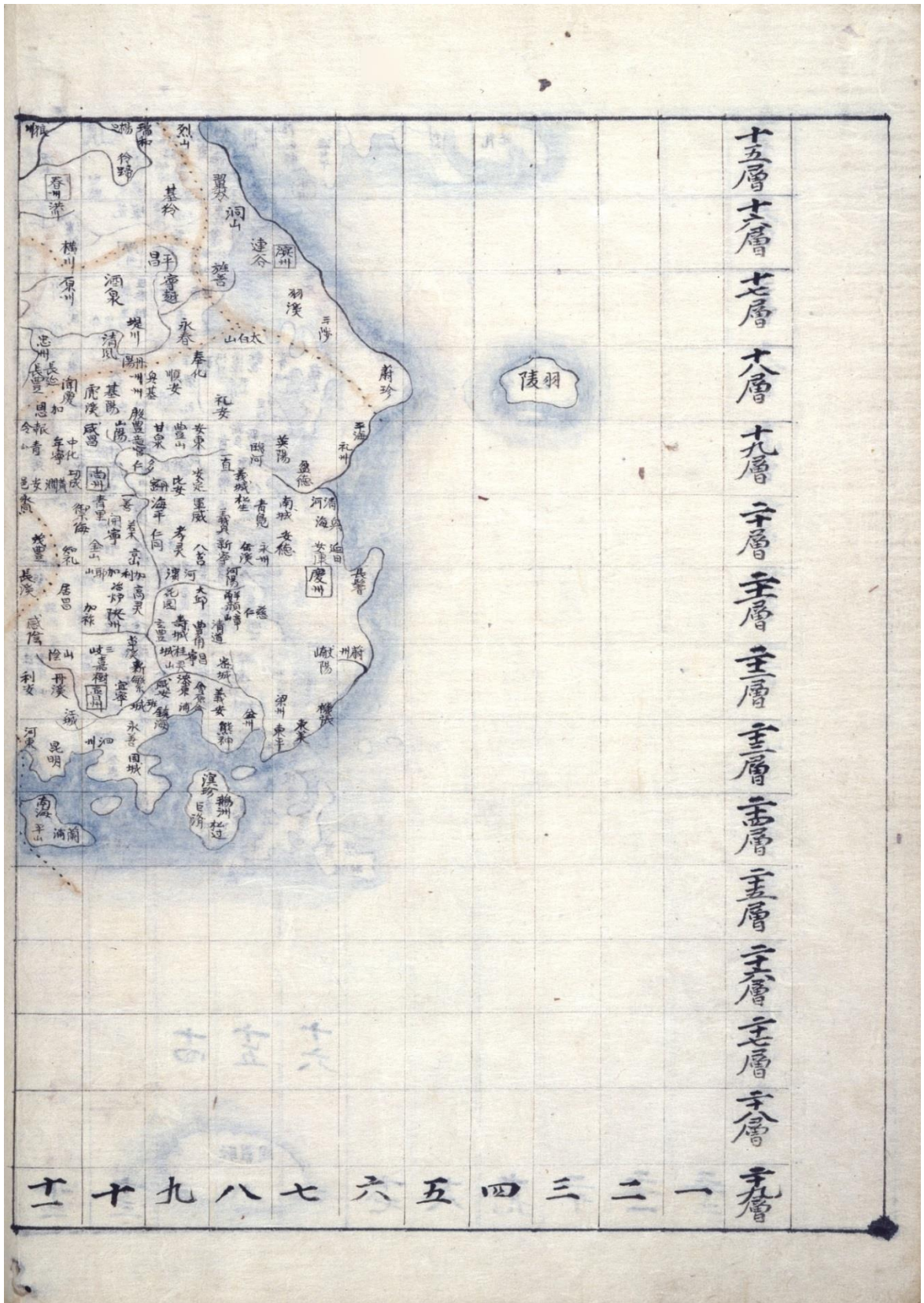
『청구요람』은 전국적으로 산과 강 등 자연 지리 사항과 호구, 전결, 곡총(穀總), 군정(軍丁) 등의 행정, 경제 관련 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책의 앞쪽에는 색인도의 역할을 하는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 뒤쪽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신라구주군현총목(新羅九州郡縣總圖)', 고려시대의 '고려오도양계주현총목(高麗五道兩界州縣總圖)'이 수록되어 있다.

군현 읍치는 세로로 길고 큰 사각형에 군현명이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사각형 아래 또는 우측에 목(牧), 부(府), 수(守), 감(監) 등을 한 자씩 써 넣어 읍격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신라 이후 각 군현 명칭의 변화를 신라는 '라(羅)', 고구려는 '구(勾)', 백제는 '제(濟)', 고려는 '려(麗)'로 구분하여 읍치 주위에 병기하였다.

그 외 진보(鎭堡)는 작은 정사각형으로 표기하고 각 영(營)은 세로 또는 가로로 긴 작은 사각형 안에 명칭을 적어 넣었다. 역(驛), 면(面), 창(倉), 목장(牧場)은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정보를 통일시켰지만 그 안에 글자를 써넣어 구분하였다. 봉수(烽燧)는 불이 타오르는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 넣었으며 도로는 홍색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청구도범례'에 나타나 있는 '지도식(地圖式)'은 사방을 12 개의 방위로 나누고, 10 리 간격의 원을 그려 위치를 바로잡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도책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는 각 고을에 지도를 내려 보내 교정을 부탁하면서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 청구도(靑邱圖)



## 정의

조선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전국에 축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1834년에 제작한 지도.전국지도.

## 개설

『청구도』는 1834년(순조 34)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전국 지도로, 2008년 12월 22일에 3점의 청구도가 각각 보물 제1594-1호(국립중앙도서관), 제1594-2호(영남대학교 도서관), 제1594-3호(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로 지정되었다.

## 내용

채색필사본이나 흑백필사본이며, 건곤(乾坤) 2 책으로 되어 있다. 이본(異本)으로는 『청구요람(靑邱要覽)』이 있다. 대축척의 지도로 건곤 두책을 상하로 연결시키면 전국도가 된다.

전국을 남북으로 29 층, 동서로 22 판으로 구분하여 방안 눈금으로 나누어 그렸다. 방안 하나는 남북이 100 리, 동서가 70 리가 되도록 구분하였다. 실제 지도의 크기는 가로가 17.5 cm, 세로 25 cm이므로, 조선시대 10 리는 4 km가 아니라 약 5.4 km임을 감안하여 지도의 축척을 계산하면 21 만 6000 분의 1 이 된다.

책머리에는 최한기(崔漢綺)의 서문이 있는데 서문에서 그는 김정호와 친구임을 밝혔고 김정호가 『청구도』를 어떻게 제작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작자 자신이 만든 범례를 수록하였는데, 「청구도」의 제작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또한 『청구도』가 종래의 방과법에서 벗어나 평환법(平圓法)을 쓰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방과법은 사정(四正)과 사우(四隅)의 거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도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평환법을 쓰면 지도상의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도식(地圖式)을 그려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기하원본(幾何原本)』에서 배워온 확대 축소법을 그림 그려 설명하면서 청구도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제작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을 수록하여 청구도의 색인 역할을 하게 하였고, 「도성전도(都城全圖)」를 머릿 부분에 수록하여 서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궁궐과 종묘가 있는 도성이 한 나라의 중심지이므로 상고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주현도에는 산천·강·도서(島嶼)·도로를 비롯하여 주현 읍치와 서울까지의 거리, 각 읍의 군(軍)·호(戶)·전(田)·곡(穀)의 수를 군·현별로 지도 안에 기록하여 그 군현의 크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적지(古蹟地)에는 간단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끝 부분에는 여러 장의 역사지도를 수록하였는데 1 면 크기의 「동방제국도(東方諸國圖)」·「사군삼한도(四郡三韓圖)」·「삼국전도(三國全圖)」·「본조팔도성경합도(本



朝八道盛京合圖)」와 4 면 크기의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고려오도양계주현총도(高麗五道兩界州縣總圖)」 등이 있고, 「군국총목표(軍國總目表)」를 수록하였다.

「군국총목표」에는 전국의 행정구역 수와 목장 수, 인구 수, 봉수 수, 장시 수, 군보 수 등의 통계가 있고, 전국의 각 군현별로 전답·민호(民戶)·남자 인구수·여자 인구수·군보(軍保)·곡부(穀簿)·방면(坊面)·서울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경(距京)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청구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를 참고하여 만든 듯 하다.

『해동여지도』는 정조 때 제작되었는데 남북으로는 함경도를 1로 하여 해남을 118로 삼았으며, 동서는 함경도에서 1로 시작하여 평안도가 76으로 끝난다. 이러한 경위선 표식 지도는 전국을 커다란 하나의 방안에 넣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한 다른 지도에 비하여 매우 정확한 편이다.

청구도의 장점을 요약하면, 첫째 『청구도』는 현존하는 고지도 중 가장 크며 축척이 약 1:216000에 해당하는 가로 462cm, 세로 870cm인 전국도이다.

둘째 『청구도』는 경위선 표식과 기하원본의 확대 축소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앞서 제작된 어느 고지도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셋째 『청구도』는 군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였으며, 특히 비입지(飛入地)와 두입지(斗入地)를 표시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넷째 청구도는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책첩(冊帖)으로 만들었다.

다섯째 각 읍의 군(軍)·호(戶)·전(田)·곡(穀)의 수를 군현별로 지도 안에 기록하여 그 군현의 크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광여도(廣輿圖)



거제부는 지금의 거제시 지역으로서 읍치는 거제면 동상리 일대에 있었다. 거제부의 지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도의 오른쪽 아래쪽에 日本界라 표시되어 있듯이 일본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설치된 해안가의 각종 관방처(關防處)이다.

북쪽으로부터 장목포·조라포·옥포·지세포·가배랑·영등포에는 진(鎭)을 설치하여 정4품관인 만호(萬戶)를, 울포에는 만호(萬戶)를 설치하여 종9품관인 권관(權官)을 파견하여 지키게 했는데 이 중에서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를 왕래하는 자들은 조라포에서 바람길을 보았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는 봉화대(烽火臺) 표시와 함께 望으로 쓰여진 곳이 총 5개가 있는데 봉수(烽燧)라 표시된 곳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안가의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영등, 구울포(舊永登, 舊栗浦) 등 "구(舊)"자가 붙은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鎭堡)의 이동과 함께 그 이름도 따라서 옮겨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명과 그 위치를 파악하려 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이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겠다.

기타 임진왜란 때 북상했다 후퇴한 왜군이 남해안에 수없이 쌓아놓고 주둔했다가 정유재란 때 재차 북상하는 전진기지 노릇을 했던 왜성(倭城)이 이 지도에도 3개나 표시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읍치는 원래 고을의 진산(鎭山)인 계룡산(鷄龍山) 위쪽, 지금의 거제 시내에 있던 고현성(古縣城) 자리였는데 1711년(숙종 37)에 지도상의 자리로 옮겼고, 산줄기의 표시가 자세하고 겹겹히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아 풍수적 관념이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기타 지도 위쪽의 칠천도(柒川島)와 가조도(加助島)를 비롯한 여러 곳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읍치 동쪽의 옥포에 있었던 아주폐현(鵝州廢縣)은 ≪삼국사기≫에 신라 소성왕(798-800)이 국학생(國學生)의 녹읍(祿邑)으로 설정한 거로현(居老縣)으로서 통일신라 녹읍제(祿邑制) 연구에서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 동여도(東輿圖)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조상의 발자취 거제소를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740년 전인 1271년(고려 원종) 거제인들은 행렬을 이뤄 집단 피난을 떠난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내륙으로 가기 위해 4일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경남 거창.

거창 안에서도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거제인들은 마을을 이루고 150여년간 힘겨운 삶을 연명해 간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마을이름을 '아주'라 지었으며 기거하던 골짜기는 '거제골'이라 불렀다.

지난 4일, 거제에서 출발해 두 시간여 차를 달린다. 88올림픽고속도로를 통과하고 10여분이 지나자 눈앞에 거창군의 정경이 들어온다. 가장 먼저 당시 거제인들이 집단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아주마을로 향한다.

아주마을은 거창군 안에서도 매우 외진 곳에 속한다. 시가지라 할 수 있는 거창읍에서 30여분 차로 들어가니 '아주마을' 표지석이 보인다. 끝이 아니다. 산골짜기 쪽으로 또 10여분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웬만해서는 마을 밖에서는 마을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다.

'본현에 의하면 고려 원종 12년(1271) 거제가 가조로 옮겨와서 거제에 있었던 아주현을 가조의 서쪽 언저리에 둠으로써 아주라 이름 칭하였다. 삼별초 항전으로 인해서 거제군이 가조현으로 피난왔기 때문에 가조현이 잠시 없어지고 거제현이라 불렀다.'

아주마을 입구에 세워진 비문의 내용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왜구의 침략으로 거제인들이 피난을 간 것이지만 실제로는 '삼별초 항쟁'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일종의 반군분자로 분류된 거제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거제인들이 집단이주해 150여년 동안 마을을 이루고 살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기록이나 유적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의 아주마을은 38가구가 부락을 이루고 살며 대부분이 노인인구다. 아주마을에서 태어나 한번도 마을 밖에서 살아본 적 없다는 마을주민 오인식 할아버지(73)는 아주마을의 유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눈치다.



"거제에서 사람들이 피난 와서 우리 아주마을이 처음 생겼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긴 하데. 난 안믿지. 그렇다고 치기엔 비석 하나, 문헌 한 줄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저 말뿐이니까."

취재 도중 오인식 할아버지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 험한 골짜기가 '거제골'이라고 알려준다. 거제골로 불린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고 아주 예전부터 골짜기를 아주마을 거제골로 불렀다



고 한다.

꼬불꼬불한 외길을 따라 거제골로 들어가 본다. 5분쯤 올라가니 길이 험해 더 이상의 차량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올라가 본다. 아주마을을 켜켜이 둘러싼 거제골은 많은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토지다.

'아주마을'을 떠나 거창읍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거창박물관의 구분용 학예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구 학예사는 현재 거창에 남겨진 거제인의 흔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료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털어놓는다. 고려 원종 12년 거제인들이 집단으로 거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현재 거창에 남아있는 관련된 유적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수준이지요. 그 중에는 거창읍에 있는 둔마리 벽화고분을 거제인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벽화 고분 바로 옆에 오래된 묘가 하나 있는데 규모가 상당해요. 당시 이주 거제인 중 거제 신씨의 조상묘라면서 몇 년전 후손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구 학예사는 이어 "거제 신씨의 조상묘가 맞다면 묘의 주인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꽤 있거든요. 피난이든 강제이주든 타지에서 들어와 숨죽이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동원해 그 정도 규모의 묘를 만든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그저 추정일 뿐이지만 말입니다"라고도 덧붙인다.

구 학예사에 따르면 거창은 조선시대 때도 중앙정부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다. 조선 때도 그랬다면 고려 때는 더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

박물관을 나서 곧바로 둔마리 벽화고분을 찾아 나섰다. 거창읍 둔마면 대촌마을이다. 20여분 차로 이동한 후 내려서 산길을 10여분 걸어 올라간다. 나지막한 한 정상쯤에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이 보인다.

사적 239호 거창 둔마리벽화고분이다. 양쪽 돌방의 벽을 회칠하고 그 위에 흑녹갈색으로 인물이 그려져 있다고 안내문에는 설명돼 있지만 보존상태가 좋지않아 눈으로 식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둔마리벽화고분 전방에 구 학예사가 말했던 무덤이 보인다. 거제신씨의 조상묘로 추정되는 무덤이다. 무덤의 규모는 가로 세로 약 2m 정도다. 무덤 양쪽에는 100cm 크기의 인물상이 서로 마주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다. 관리하는 이가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700년 세월속 비바람에 깎인 비문은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다. 거제신씨의 후손들이 조상묘를 찾으러 오왔다 비문 내용을 식별할 수 없어 발걸음을 돌렸다 한다.

거창에 거주했던 거제인들은 거의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채 150여년을 거창에서 살다 고향인 거제로 돌아갔다. 사료나 자료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거창에는 아주마을이 있고 거제골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740년전 거제인들은 분명 거창에 살고 있었다.

**거창군지, 거제인 집단이주는 왜구 침탈 아닌 삼별초의 난 때문으로 기술  
거제현과 거창현 합해 제창현으로 명명...명확한 이주 인원 등 사료 부족**

거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시대 이후 중앙에서 지방행정의 수반을 파견했음에도 국가의 보호보다는 내·외적으로 통제와 수탈의 대상이 돼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40년 전인 1271년(고려 원종 12년)은 거제의 많은 수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될 만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때다. 거제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머나 먼 육지로 옮겨간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록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 당시 거제지역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을까.

또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거제인의 집단이주가 1271년에 이뤄진 것일까. 이에 본지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향토사학자 등의 도움을 받아 총 4회에 걸쳐 거제인들의 집단이주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다.

**거창군지 '삼별초의 난 때문에 거제현 피난'**

거창의 지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옛 거제인들의 집단이주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거제지역의 옛 문헌에는 고려시대 거제인들의 집단 이주가 왜구의 침략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의 문헌에는 삼별초와 왜구 때문에 피난을 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거창군의 시대별 사항을 집대성한 거창군지에는 '제창현의 소멸과 거제환도'라는 제목으로 옛 거제인들의 집단이주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왕실의 국가통제력이 약화돼 도적이 사방에서 일었고, 삼면 바다를 통해 약탈을 자행하는 왜구들은 바닷가는 물론 육지 깊숙한 곳까지 침입해 많은 피해를 입히던 때였다.

특히 고려 원종 때는 환도문제를 놓고 배중손과 김통정 등의 일부 무신들이 무력항거를 통해 남해안을 장악하고 해상왕국을 건설한 시기였다.

거창군지에는 '고려 원종 12년 거제현은 삼별초 군사들에게 땅을 뺏기고 가조지방으로 피난을 와 환도 할 때까지 약 150년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돼 있다.

왜구에 보다는 삼별초에 의한 피난이 옛 거제인들의 집단이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왜구에 인해 땅을 잃고 집단 이주를 했다는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과는 다르지만 거제인들의 집단이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인지되고 있다.

#### 이주숫자, 이주형태 등 남아있는 사료 전무

당시 거제인들은 아주현(현 거창군 남하면 아주)과 송변현(현 거창군 남상면 송변일대), 오양역 일대에 머물며 질곡의 삶을 이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옛 거제인들의 집단 이주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는 반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왔는지, 그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사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피난민 중에는 제씨, 옥씨, 반씨, 신씨가 많았다고만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정치 경제상으로 호족에 속하는 상층계급도 있어 그들의 영향력이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둔마리 벽화고분의 경우에도 일부 향토사학자들은 거제도 호족들이 남긴 유적이라고 추정하는 이가 있을 정도다.

특히 거창지역 전체가 거제현과 거창현이 합쳐진 제창현으로 불렸다는 사실은 당시 거제인들의 큰 영향력을 반증해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제인들이 살았던 아주현, 송변현, 오양역은 모두가 거제현 안에 있었던 현의 이름이었다.

구본용 거창박물관 학예사는 "아주현과 송변현은 지금도 옛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 쓰이고 있다"면서 "제창이라는 지명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거제인들의 집단 이주는 상당한 규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거제환도 기록 일치, 거창지역에 많은 영향 끼친 듯

옛 거제인들의 집단 이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한 반면 거제환도에 대한 기록은 일치한다. 거창군지에도 세종실록의 기록을 빌어 '세종 4년 임인(서기 1422년)에 옛 섬으로 돌아갔다'

고 적어놓고 있다.

거창지역이 옛 거제인들과 역사적 운명을 같이한 기간 또한 150여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거제인들이 거창지역에 끼친 영향 또한 적지 않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다만 내륙산간 오지로 정치적 귀양지였던 거창지역에 거제인들이 집단 이주를 떠났다는 사실은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단지 오고 감의 기록만 남아 있을 뿐 그 이상의 사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옛 거제인들의 집단 이주가 역사적 승리자들에게 불편한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출처 : 거제신문(<http://www.geojenews.co.kr>)